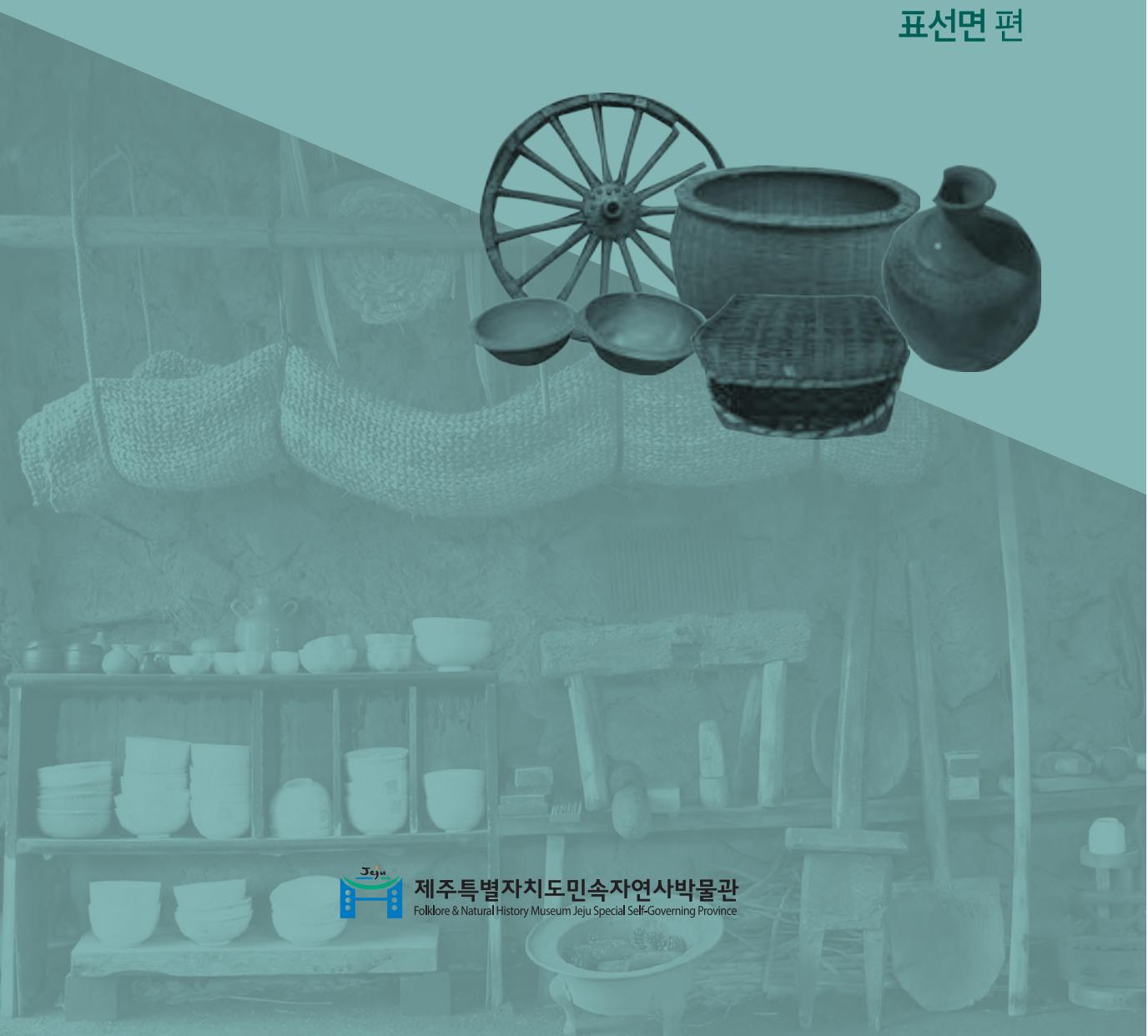


발 간 등 루 번 호

79-6500000-000796-01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

표선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

표선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간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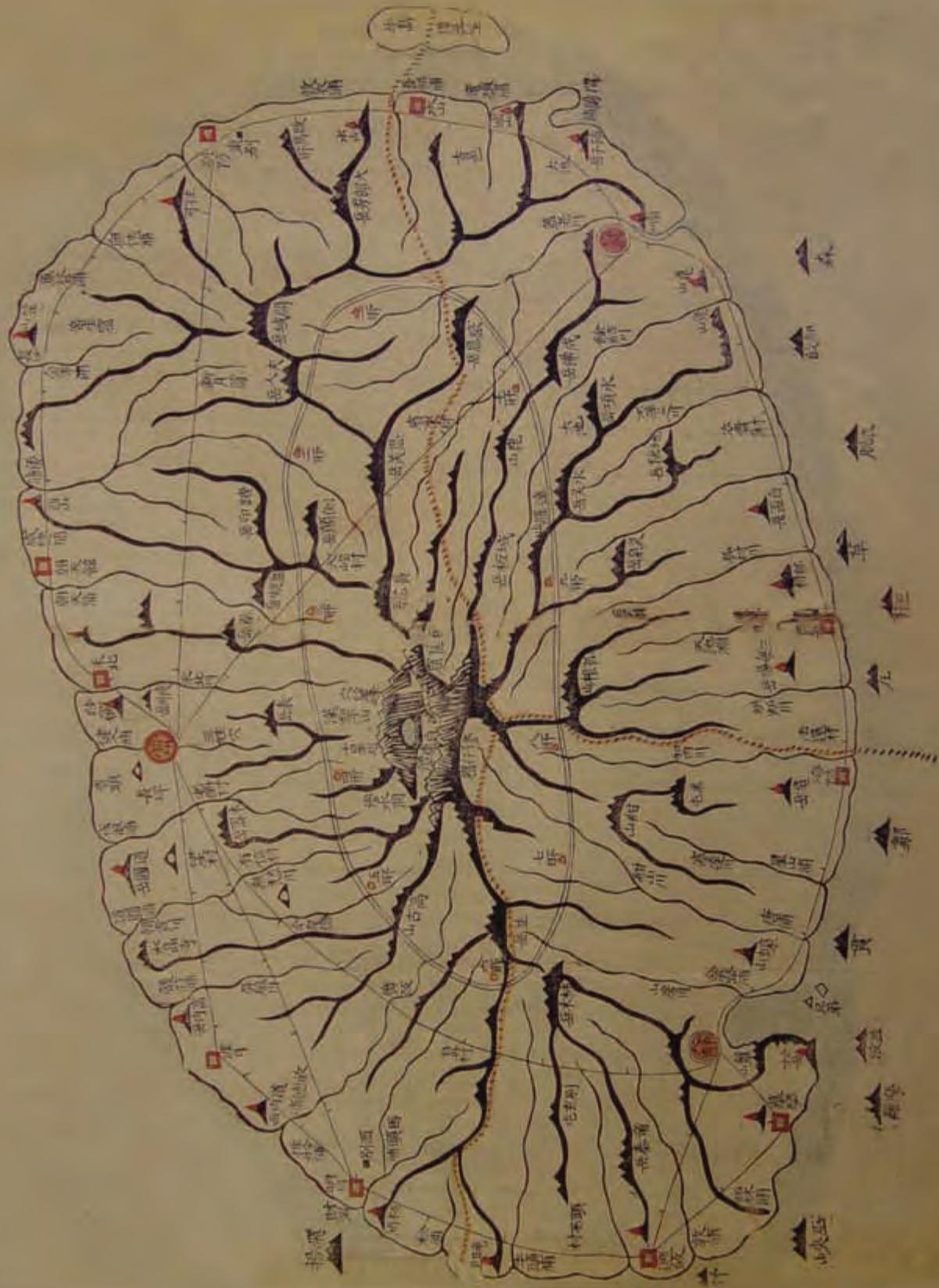
표선면은 6개의 법정리, 10개의 행정리를 포함하는 곳으로, 전체 면적 135.19km²에 6,206세대 12,377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 동남부의 관광 중심지로 부각되면서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표선면이 가진 지역적 특징으로는 중산간 일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전통 문화경관을 들 수 있습니다. 표선면은 500년간 조선시대 제주의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던 정의의 현청 소재지로, 성읍리 민속마을 일대는 제주의 민속 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또한 가시리 일대는 나라에 바치는 말 가운데 우수한 말을 기르는 곳이었던 녹산장(鹿山場)이 있던 지역으로, 목축 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이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모인 표선면을 대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민속 현지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로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지만 노인회장님, 이장님, 사무장님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르신 51분이 간직한 유·무형의 생활문화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표선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조사에 임해 주신 김보향, 권미소, 박진향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서가 표선면을 비롯한 제주 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12.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표선면



▲ 한라산

I. 조사 개요 11

1. 조사 개요 12
2. 조사단 구성 13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13
4. 조사 지역 개관 15

II. 조사 내용 27

1. 의생활 28
1.1. 바느질 도구 28
1.2. 손질 도구 48
1.3. 세탁 도구 54
1.4. 의복과 신발 58
1.5. 기타 도구 73
2. 식생활 79
2.1. 식기류 79
2.2. 조리 도구 109
2.3. 저장과 운반 도구 139
2.4. 제기 153
2.5. 기타 도구 166
3. 주생활 173
3.1. 집 관련 173
3.2. 가재 도구 183
3.3. 조명 도구 191
3.4. 난방 도구 194
3.5. 연장류 202
3.6. 기타 도구 215

제주일의 삶과 도구총서

IX

표선면편

4. 농업 관련	
4.1. 파종 관련	237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255
4.3. 건조와 손질 관련	265
4.4. 운반 도구	292
4.5. 계량 도구	309
4.6. 저장 도구	312
4.7. 기타 도구	317
5. 어업 관련	
5.1. 물옷	325
5.2. 테왁과 망사리	337
5.3. 채취 도구	344
5.4. 기타 도구	348
6. 목축 관련	
6.1. 마소 관련	357
6.2. 돼지 관련	376
III. 마무리	381
부록	389
1. 표선리 박봉화 씨의 의생활, 식생활, 바닷일 도구 이야기	390
2. 세화리 송좌길 씨의 농사 도구 이야기	469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산업화와 세계화로 빠르게 소실되어가는 과거 생활문화 자료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속자료의 연구·조사·수집·활용 등을 담당하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표선면 일원을 대상으로 20회의 현지조사를 추진하였다. 제보자와의 면담을 통해 생활 도구의 명칭과 정의, 재료, 쓰임새, 특징 등을 정리하였고, 코로나 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방역 수칙 준수와 마을 주민 분들의 협조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세부 조사 대상은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도구로, 기록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찍은 도구 사진과 제보자의 구술도 함께 꼼꼼히 정리했다. 제주의 과거 생활 도구의 이름과 사용용도 등의 특징을 찾고 정리한 이번 사업이 훗날 제주도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사명 :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 - 표선면 편
- 조사지역 :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 조사기간 : 2021. 4. 2. ~ 10. 30.
- 조사내용 : 의·식·주생활 도구 및 농업·어업·축산업 관련 도구 전반
- 조사방법 :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조사, 현지 조사 등

2.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노정래(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조사책임: 박용범(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연사연구과장)
- 조사원: 황이새(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외부조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권미소(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박진향(제주대학교 언어교육원)

3. 조사 범위와 정리 방법

3.1. 조사 대상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표선면 편』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6개의 법정 마을인 가시리, 성읍리, 세화리, 토산리, 표선리, 하천리를 조사 대상지로 한다. 표선면 6개의 법정 마을은 다시 가시리, 성읍1리, 성읍2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표선리, 하천리의 10개의 행정마을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세화2리, 토산2리, 표선리, 하천리는 해안마을이고 가시리, 성읍1리 성읍2리, 세화1리, 세화3리, 토산1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표선면의 각 마을을 두루 조사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생활 도구를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3.2. 조사 방법과 제보자

표선면 지역의 생활 도구 조사는 민족지학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표선면의 각 마을을 찾아다니며 마을 주민들을 만나, 옛 생활 도구에 대한 구술을 듣고,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실물을 촬영하며 조사하였다. 제보자의 구술은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한 후, 이를 전사하여 제보자들의 발화 내용을 그대로 살려 도구 사진과 함께 책에 실었다.

제보자는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찾아 노인회장님, 이장님, 사무장님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다. 또 마을을 돌며 개량하지 않은 주택들을 방문하여 제보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번 표선면 조사에서 만난 제보자는 가시리 7명, 성읍리 8명, 세화리, 12명, 토산리 9명, 표선리 8명, 7명으로 총 51명이다. 마을별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1> 마을별 제보자

마을	제보자	출생년도	성	마을	제보자	출생년도	성
가시리	강성종	1936	남	토산리	김종권	1934	남
	김복순	1934	여		김창호	1938	남
	김은두	1939	남		김평우	1941	남
	김일출	1924	여		부대옥	1948	남
	부윤순	1938	여		송도성	1941	남
	오국만	1933	남		송무웅	1943	남
	오태경	1931	남		오봉순	1934	여
성읍리	강기숙	1945	남	표선리	정복순	1944	여
	김을순	1946	여		정인권	1948	남
	김인배	1929	여		고경만	1941	남
	박창준	1938	남		박봉화	1933	여
	송심자	1951	여		송춘선	1927	여
	송절자	1940	여		오남행	1931	여
	송정자	1938	여		정여옥	1944	여
	한사율	1935	남		현순화	1926	여
세화리	강광철	1948	남	하천리	현옥선	1941	여
	강기수	1937	남		홍순이	1952	여
	강순자	1940	여		강윤평	1934	남
	강희선	1940	여		강희숙	1942	여
	김양선	1933	여		김수철	1942	남
	김옥	1965	여		송영선	1942	남
	김창호	1948	남		송필수	1934	남
	김창효	1938	남		양일선	1949	여
	김천종	1936	남		양행일	1958	남
	송좌길	1939	남				
	정춘선	1946	여				
	한영선	1937	여				

3.3. 정리 방법

표선면의 각 마을을 방문하여 옛 생활 도구에 관하여 조사한 것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책에 제시한 내용은 현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문헌 자료를 확인하며 정리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의생활에서는 바느질 도구와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주생활 관련 도구는 가재도구와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농업 관련 도구는 파종 관련 도구,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 건조와 손질 관련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저장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어업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는 물옷, 테왁과 망사리, 채취 도구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목축 도구는 마소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생활 도구에 대한 기술은 먼저 그 도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도구의 명칭과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도구의 재료, 쓰임새, 각각이 가지는 특징 등을 설명하였다. 이 책에 제시하고 있는 도구들은 모두 이번 표선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분야별로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찍은 사진과 각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을 함께 실었다. 제보자의 구술은 채록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옮기고 이해를 돋기 위하여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조사된 내용 중에 도구의 사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구술 자료만으로 도구의 쓰임새 등을 설명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도구는 제외하였다.

4. 조사 지역 개관

4.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도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천미천(川尾川)을 경계로 서귀포시 성산읍, 서쪽으로 송천(松川)을 경계로 서귀포시 남원읍, 북쪽으로 거문오름·가문이오름·백약이오름 등을 경계로 제주시 조천읍 및 구좌읍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남해(南海)에 면해 있다.

고려시대 표선면은 행정구역상 토산현(鬼山縣)에 속했다. 조선시대에 들어 1416년(태종 16) 제주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개의 행정 구역으로 구분할 때 토산현은 정의현에 예속되었고, 1609년(광해군 1)부터는 정의현 중면(中面)에 속하게 되었다. 19세기 중후반 중면은 송천(松川)을 경계로 동쪽은 동중면(東中面), 서쪽은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되면서 표선면 일대는 동중면에 속하게 되었고, 19세기 말 정의군 동중면으로 바뀌었다가 1914년부터 제주군(濟州郡) 동중면이 되었다. 1915년 도제(島制) 실시로 제주도(濟州島) 동중면이 되었고, 1935년 4월 1일부터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바뀌었다.

해방 후 1946년 8월 1일부터 도제(道制) 실시로 제주도(濟州島)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제주도(濟州道)가 되었다. 이때 제주도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으로 분군(分郡)하면서 표선면은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이 되었다.¹⁾

표선면의 전체 면적은 135.19km²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7.3%, 서귀포시 전체 면적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표선리, 하천리, 성읍리, 가시리, 세화리, 토산리 등 6개 법정리와 10개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으며, 30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표2> 표선면 행정구역과 면적

법정리	행정리	자연마을	면적(km ²)
표선리	표선리	동상동, 동하동, 서상동, 서하동, 당포동, 한지동	10,610,554
하천리	하천리	상동, 중동, 하동	11,561,626
성읍리	성읍1리	서상동, 서하동, 동상동, 동하동	37,981,215
	성읍2리	구룡동, 안보동	
가시리	가시리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56,017,990
세화리	세화1리	서상동, 동상동, 동하동	9,836,292
	세화2리	본동, 중동	
	세화3리	강화동	
토산리	토산1리	본동, 월지동	9,165,124
	토산2리	본동	

※출처: 2020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2009)

1)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표선면),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4.2. 자연환경

(1) 지질과 지형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많은 분화구에서 분출된 화산분출물과 화산활동 휴지기 동안 진행된 침식 및 퇴적작용으로 생성된 퇴적층이 용암류 사이에 층을 이룬 호층의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표선면은 면적의 약 70%가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무암, 장석 조면현무암, 휘석조면현무암 등 약 11개의 용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표선면 지형은 북서쪽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경사는 완만해지고 저지대가 넓게 분포한다. 평균고도는 383.7m이며 평균지형경사는 4.6°로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고도 100~300m 구간의 면적이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고, 한라산과 오름 주변을 제외하고 대부분 경사가 10°미만의 준 경사지로 나타나고 있다.²⁾

<표 3> 고도별 면적분포

구분	총면적 (km ²)	0~30 (m)	30~50 (m)	50 ~100 (m)	100 ~300 (m)	300 ~400 (m)	400 ~600 (m)	600 ~800 (m)	800 ~1320 (m)
표선면	207.3	10.3	7.1	26.1	75.9	31.7	35.6	13.3	7.3
구성비	100.0	5.0	3.4	12.6	36.6	15.3	17.2	6.4	3.5

※출처: 문길상(2020), 8쪽

<표 4> 경사별 면적분포

구분	총면적 (km ²)	0~1 (°)	1~5 (°)	5~10 (°)	10~15 (°)	15~20 (°)	20~25 (°)	25~30 (°)	30~35 (°)
표선면	207.3	31.2	131.8	25.5	8.3	5.0	3.7	1.7	0.1
구성비	100.0	15.1	63.6	12.3	4.0	2.4	1.8	0.8	0.0

※출처: 문길상(2020), 8쪽

2) 문길상(2020), 「제주동부지역 지하수(용천) 특성조사 연구-표선지역을 중심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8쪽

표선면에는 31개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다. 가시리 12개, 성읍리 9개, 토산리 4개, 하천리 3개, 표선리 3개 순이며, 중산간 마을인 가시리와 성읍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가시리에는 붉은오름(569m), 구두리오름(517m), 여문영아리(514m) 등 표고가 높은 오름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오름의 화구 형태는 말굽형 18개(59%), 원추형 6개(19%), 원형 5개(16%), 복합형 2개(6%) 순이다.

표선면에는 제주도 내에서 가장 넓은 유역 면적(126.14km²)과 유로 연장(25.7km)을 자랑하는 천미천을 비롯하여 가시천(유역 면적 36.12km², 유로 연장 20.19km), 송천(유역 면적 26.20km², 유로 연장 19.55km), 진평천(유역 면적 28.72km², 유로 연장 15.32km), 안좌천(유역 면적 14.12km², 유로 연장 12.67km) 등이 있다. 이들 하천들은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건천 상태이며, 집중호우 시 범람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하천 폭 확장과 제방 설치 등 정비 공사가 행해지기도 했다.

표선면 내 대표적인 해안 지형으로는 표선해비치해변이 있다. 총 면적 25만 1000m², 백사장 면적 16만m², 백사장 길이 200m, 너비 800m, 평균 수심 1m 이내이다. 매우 가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으며, 경사가 거의 없고 평탄하다. 연안류에 의해 패각류 파편들이 해안까지 운반, 퇴적되어 형성되었고 길이는 다소 짧지만 폭이 313m로 도내에서 가장 폭이 넓고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³⁾

(2) 토양

제주도의 토양은 화산 활동의 산물이다. 대표적인 토양 모재는 현무암이며, 국지적으로 스코리아(Scoria)를 모재로 하는 토양이 분포한다. 토양 색깔을 기준으로 크게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갈색 산림토로 구분한다. 암갈색토를 제외한 세 유형의 토양은 모두 화산회토로 본다. 화산회토 지대는 제주도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화산회토는 배수가 양호하고 보수량(保水量)이 큰 반면에, 가뭄을 일으키기 쉽고 토양 침식을 받기 쉽다. 또한 화산 활동 시 분출된 화산재가 풍화되어 형성된 화산회토는 응집력이 약하고 가벼워 풍식을 받기 쉽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와 말로 하여금 땅을 밟게 한 다음 파종하였다.⁴⁾

3)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표선해비치해변),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4)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토양),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현재 표선면의 토양은 농암갈색이 7,574ha, 농암회갈색이 758ha, 암갈색이 564ha, 적갈색이 241ha, 황적색이 1,180ha, 흑색이 2,968h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화산회토인 농암갈색토와 흑색토의 비중이 크며, 이들은 대부분 밭농사와 감귤 재배 또는 초지로 이용되고 있다.

(3) 기후

표선면에는 기후 특성 파악을 위한 관측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성산읍 관측소 자료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러나 마을이 위치한 고도와 지형지물 등의 영향으로 일반화 하여 반영할 수 없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제주도 내 관측소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의 값은 <표 5>와 같다. 대한민국 평균 기온이 13.0°C, 평균 강수량이 1,627mm인⁶⁾ 점에서 볼 때 4개 지역 모두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성산 관측소의 기온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낮지만, 평균 강수량은 2,153.64mm로 제주도 내에서 가장 많으며 상대습도와 일조시간, 풍속은 모두 제주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2010~2019년 제주도 4개 지역별 기후요소 평균값

관측소	기온(°C)	강수량(mm)	상대습도(%)	일조시간(hr)	풍속(m/s)
평균	16.34	1,937.84	72.40	2,000.04	2.82
제주	16.35	1,540.17	70.10	1,821.66	3.17
서귀포	16.94	2,119.72	72.85	2,132.43	2.17
성산	15.72	2,153.64	74.26	2,046.04	3.11
고산	15.78	1,234.74	75.93	2,033.04	6.45

※출처: 2014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2020년 서귀포시 통계연보

5) 흙토람(서귀포시 표선면), <http://soil.rda.go.kr/>

6)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

(4) 동식물

표선면에서 관찰되는 조류로 참새, 방울새, 직박구리, 딱새, 멧새, 멧비둘기, 박새, 동박새, 큰부리까마귀, 치르레기 등 토착들이 많으며, 표선해수욕장과 해안조간대에서는 갈매기류, 백로류, 오리류, 도요류, 물떼새류, 가마우지류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영주산 기슭의 사행천에서 대천교까지는 계곡 양쪽으로 상록활엽수, 관목류 등의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으며 암반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서 야생 조류의 좋은 서식 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해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백로, 깙짝도요 등이 관찰되었으며, 간혹 물총새도 확인되었다. 또한 물새들의 발자국과 배설물, 깃털 등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새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양서류의 최적의 산란장소가 된다. 제주도의 하천들은 건천이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소(沼)를 이루는 곳이 많고 산란기에는 비가 많아 물웅덩이를 형성하기 때문에 양서류에게 좋은 서식 공간을 마련해 준다. 표선면의 경우 천미천, 가시천, 송천 등의 하천이 있고, 중산간 지역 계곡림에 상록수림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양서파충류 모두가 확인되고 있다. 포유류의 경우는 대형 포유류는 없고 소형 포유류인 노루, 오소리, 제주죽제비, 다람쥐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땃쥐, 들쥐류, 박쥐류도 발견되고 있다.

표선면 지역의 식물들은 해안에서 해발 560m 높은오름까지 해안식물군락, 저지대의 2차 초지대, 낙엽활엽수림 등이 해발고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일반적인 식생 분포와 달리 표선면 내 특징적인 식물 자원으로는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을 꼽을 수 있다. 제주 성읍마을 내 일관현 주변에 자라는 느티나무 1그루와 팽나무 7그루로, 느티나무의 높이는 20.5m, 둘레는 4.30m에 나이는 1,0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팽나무 7그루는 높이 14.5~23.5m, 둘레는 2.36~5.00m이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1274년~1308년) 때에도 이곳에 나무가 자랐다고 하는데, 지금 전해지는 것은 그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은 것으로 본다.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은 오래된 큰 나무로서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정신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1964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⁸⁾

7) 제주특별자치도(2009),『표선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70쪽

8) 국가문화유산포털(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4.3. 인문환경

(1) 인구

2021년 10월 31일 기준 표선면 마을별 인구현황은 <표 6>과 같다. 총 6,206세대 12,377명이 거주 중이며 표선리가 인구 5,584명으로 표선면 인구의 45.1%를 차지하고 있다. 세화3리와 성읍2리는 각각 133명(1.07%)과 228명(1.84%)으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6> 서귀포시 표선면 마을별 인구 현황

마을별	세대수	전체인구			전년대비 인구증감	전년도 인구
		계	남	여		
총계	6,206	12,377	6,318	6,059	52	12,325
표선리	2,928	5,584	2,764	2,820	74	5,510
하천리	633	1,286	653	633	75	1,211
성읍1리	590	1,282	667	615	-21	1,303
성읍2리	126	228	119	109	-8	236
가시리	669	1,385	738	647	87	1,298
세화1리	358	717	376	341	-16	733
세화2리	354	764	396	368	1	763
세화3리	63	133	65	68	-16	149
토산1리	199	431	228	203	-21	452
토산2리	286	567	312	255	-62	629

※출처: 서귀포시 표선면 누리집, <https://www.seogwipo.go.kr/local/pyoseon/main.htm>

(2) 생산과 산업

2020년 서귀포시 통계연보를 통해 표선면의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야가 56.52㎢로 전체 면적의 41.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장용지가 26.65㎢(19.71%), 전이 25.48㎢(18.84%), 과수원이 9.8㎢(7.24%), 대지가 3.17㎢(2.34%), 답이 0.5㎢(1.9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장용지가 서귀포시(54.42㎢) 내에서 절반 이상에 달하며, 과수원은 남원읍(43.77㎢)에 이은 두 번째이다.

서귀포시의 대표 작물인 감귤의 표선면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총 51,034톤으로 서귀포시 내에서 11.3%를 차지하며 남원읍에 이은 두 번째 수준이다. 노지온주(조생) 생산량이 34,990톤으로 표선면 감귤생산량 내에서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표선면에는 참다래(49호), 블루베리(1호), 망고(8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다.

<표 7> 서귀포시 읍면동별 감귤생산량(2020년 기준)

읍면동	노지온주 (극조생)	노지온주 (조생)	노지온주 (보통)	하우스감귤 (조기출하)	비가림 (월동감귤)	만감류 (시설)	만감류 (노지)	합계 (톤)
표선면	3,663	34,990	185	2,460	2,284	7,244	208	51,034
대정읍	2,400	19,575	333	200	1,015	4,943.4	50.5	28,516.9
남원읍	7,990	90,340	1,552	15,411	12,797	20,601	568	149,259
성산읍	1,382	27,289	259	280	495	2,874	240.5	32,819.5
안덕면	4,111	28,015	222	767	1,232	3,074	442	37,863
송산동	620	3,491	37	750	407	1,243	57	6,605
천지동	55	221	18.5	0	0	121	21	436.5
효동동	2,771	6,547	148	775	699	2,404	95.5	13,439.5
영천동	2,100	15,455	296	490	288	3,067	70	21,766
동홍동	423	4,934	55.5	69	32	676	68	6,257.5
서홍동	802	8,521	92.5	69	163	775.6	204	10,627.1
대륜동	1,311	15,572	111	48	0	1,466	45	18,553
대천동	2,510	17,456	37	952	540	6,062	314	27,871
중문동	2,526	19,988	74	1,650.00	259	2,184	130.5	26,811.5
예래동	4,435	11,507	18.5	423	360	1,881	18	18,642.5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귤 생산 정보

표선면 내 어업가구는 97호, 어업인구는 231명(2020년 기준)으로 표선리 64호 156명, 세화리 14호 30명, 하천리 10호 24명, 토산리 9호 21명 순이다. 등록된 어선은 26척으로 1톤 미만 2척, 1~5톤 21척, 5~10톤 3척, 10~20톤 1척(2020년 기준)이다. 한편 양식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표선면 어류(넙치 등) 육상해수 양식어업 양식장 개소수는 43곳, 생산능력 3,471톤이고, 육상 종자생산 양식어업 양식장 개소수는 10곳 생산능력 10,596,000마리이다.⁹⁾ 이밖에 해녀는 121명(2018년 기준)이다.¹⁰⁾

표선면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의 마을공동목장(2020년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은 토지 소유 범위가 488.9ha에 달하며, 성읍2리마을공동목장은 95.7ha, 세화1·3리마을공동목장조합은 56ha, 성읍1리영주공동목장은 19.1ha 순이다.

(3) 각종 시설

표선면 내 주요 기관으로는 관공서로 표선면사무소,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 제주동부 소방서 표선119센터, 표선우체국 등이 있고, 관내 학교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이밖에 공공시설로 표선도서관·문화의집, 표선생활체육관, 표선 청소년문화의집, 표선보건지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제121의무경찰대, 제127의무경찰대, 해병제93대대 표선연대 등이 있다.

한편 표선면에는 관광과 관련한 시설들이 많다. 후술할 제주 성읍마을 뿐만 아니라, 표선해비치해변, 제주민속촌, 정석항공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허브동산, 조랑말 체험공원, 세계술박물관, 해비치 호텔&리조트 등이 위치해 있으며, 가시리 녹산로 일대에 만발한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한 길은 매년 봄마다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으고 있다.

(4) 문화유산

표선면은 조선시대 이래로 매우 풍부한 문화유산을 형성하고 관리 및 전승해 온 제주도 내 대표 지역이다. 현재 표선면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은 1416년(태종 16) 제주 지역이 제주·정의·대정이라는 3읍 행정체제로 개편되고, 1423년(세종 5)부터 표선면 성읍리가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정의현성 내에 형성된 '제주 성읍마을'은 제주도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데

9) 서귀포시, 양식어업현황(2020.12.31. 기준)

10) 서귀포시, 서귀포시 해녀현황(2018.12.31. 기준)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중요 민속경관이다. 이에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성읍마을 내 위치한 객주집, 고풍오 고택, 고창한 고택, 한봉일 고택 등 전통가옥들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관리(국가민속문화재)되고 있다. 이밖에 정의향교(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돌하르방(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느티나무 및 팽나무 군(천연기념물)과 같은 유형문화 유산뿐만 아니라 제주민요(국가무형문화재), 고소리술, 오메기술, 성읍리초가장(이상 제주 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과 같은 무형문화유산들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편 표선면에는 제주 목축문화와 관련한 유산들이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과 성읍리 따라비 오름 일대 평원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녹산장(鹿山場)’과 관련한 유적들이 있다. 조정에서 필요한 어승마(御乘馬)와 전마·역마(役馬)들을 생산하기 위해 18세기 중반 산마장(山馬場)이 침장·상장·녹산장으로 개편되면서 등장한 녹산장은 제주도에 산마장이 운영되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사유적이면서 가시리 주민들의 다양한 목축문화를 탄생시킨 산실이었다. 녹산장 내에는 역사유적으로 목장 경계용으로 쌓은 돌담인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 간장 등이 남아있으며, 녹산장은 제주도의 목장사와 목축문화사가 응집된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¹¹⁾



11)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녹산장),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서귀포시 표선면



II

조사 내용

1. 의생활

의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몸에 걸치거나 입었던 옷, 또는 현재도 입는 옷에 관한 것을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옷을 입고 생활을 하며 죽을 때도 옷과 함께 묻힌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옷감과 바느질 도구가 필요하다. 한편 입던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빨아 다시 입어야 하는데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탁 도구도 없어서는 안 된다. 빨래를 지금처럼 쉽게 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옷감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방법 등으로 옷감에 물을 들이기도 했었다. 입던 옷이 닳아 떨어지면 옷을 수선해 입기도 하고, 중요한 날에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 입기 위해 옷을 다리기도 하는데 이때는 손질 도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옷감뿐만이 아니라 바느질 도구, 세탁 도구, 손질 도구 등은 모두 의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모자, 신발, 양말 또한 옷과 더불어 착용하는 것들이기에 우리의 의생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의생활과 관련된 도구를 표선면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그 외의 것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1.1. 바느질 도구

(1) 미싱

‘미싱’은 바느질을 하는 기계다. 표준어로 ‘재봉틀’이라고 하는데 표선면 제보자들은 대체로 일본어에서 온 말인 ‘미싱(ミシン)’ 또는 ‘미승’을 ‘재봉틀’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

하고 있었다. 제주에 재봉틀이 들어온 것은 1920년대쯤이라고 한다. 옷을 직접 장만해서 입던 시절 ‘미싱’, ‘미승’은 바느질을 빠르고 쉽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이러한 이유로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대개 시집을 때 마련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구입했다고 한다.

“(미싱) 하이구, 어린 때 삼주, 어린 때게. 이거 아맹해도 시집오란 흔 이 년, 삼 년 살아난 이거 미싱 사져실 거라. 이것도 뜰 아져가肯 헌디 남원이 뜰이 살암수다, 큰년. 남원리 뜰인디 이거 아져가肯 허명 아져가질 아년 거라. 이거 아져가 비여. 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거 미싱 쓰지 못해여, 이젠. 바리지 못해영. (미싱으로) 하간 거 멘들주게.”¹⁾

((재봉틀) 하이구, 어렸을 때 삼지, 어렸을 때. 이거 아무래도 시집와서 한 이 년, 삼 년 살고서 이거 재봉틀 사게 됐을 거야. 이것도 딸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남원에 딸이 살고 있습니다, 큰딸. 남원리 딸인데 이거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가져가질 않은 거야. 이거 가져가 버려. 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거 재봉틀 쓰지 못해, 이젠. 보지 못해서. (재봉틀로) 온갖 거 만들지.)

“미승은 우리 시집간 후제 미승이 나온고라이. 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나오긴 나온 거라. 경해도 아이 때난에게 우린 혈 중 몰르곡. 아니 상 헷주만은 시집갈 나이 뛰어 가난에 나이 들어가난에 미승을 산 거라이. 계난 그 미승이 그자 있어. 아이디알 무슨 잇다가이, 쌌 거이, 좋은 걸로 그때 산 거라이. 아이디알 무신. 경허난이 그자 흔 번 고장도 안 나 봐. 이거이, 아이디알 미승인디이. 사 건디도 오레도이 고장도 안 나, 잘. 좋은 거라 부난이. 시집온 후제 산 거. 이것도 아이디알이엔 헌 거. 좋은 걸로 산 거라. 게도. 이것도 흔. 마흔까지는 안 갓주.”²⁾

(재봉틀은 우리 시집간 후에 재봉틀이 나왔는지. 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나오긴 나온 거야. 그래도 아이 때니까 우린 할 줄 모르고. 안 사고 했지만 시집갈 나이 되어 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재봉틀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재봉틀이 아직 있어. ‘아이디알(IDEAL)’ 무슨 있다가, 쌌 거, 좋은 걸로 그때 산 거야. ‘아이디알’ 무슨. 그러니까 아직 한 번 고장도 안 나 봤어. 이거, ‘아이디알’ 재봉틀인데. 산지도 오래어도 고장도 안 나, 잘. 좋은 거라 버리니까. 시집온 후에 산 거. 이것도 ‘아이디알’이라고 한 거. 좋은 걸로 산 거야. 그래도 이것도 한 마흔까지는 안 갓지.)

1)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사진 1> 부윤순 씨 소장 '미싱'



<사진 2> 김복순 씨 소장 '미싱'



<사진 3> 박봉화 씨 소장 '미승'



<사진 4> 박봉화 씨 소장 '미승'(위)

<사진 1>은 가시리 부윤순 씨(1936년생), <사진 2>는 가시리 김복순 씨(1933년생)의 '미싱'이고, <사진 3>과 <사진 4>는 표선리 박봉화 씨(193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미승'이다. 김복순 씨는 <사진 2>의 '미싱'을 시집와 약 2, 3년 뒤에 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남원리에 살고 있는 딸이 가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가지고 가질 않아서 집에 두고 있다고 한다.

표선리 박봉화 씨 역시 <사진 3>의 '미승'을 시집온 뒤 장만했다고 한다. '미승'은 박봉화 씨가 시집가기 전부터 나오긴 했으나 어렸을 때는 '미승'을 할 줄 몰랐었고 시집간 이후 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 씨가 '미싱'을 구입할 당시 좋은 상표인 '아이디알(IDEAL)' '미승'을 샀는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고 한다. <사진 4>에서 재봉틀의 상표 '아이디알(IDEAL)' 글자가 눈에 띈다.

“아이고, 오래수다게, 이거. 멧 살 때사 헤난 것산지. (이걸로) 몸빼도 멘들아 입곡. 적삼도 만들아 입곡. 갈적삼도 만들아 입곡. 하이고, 이젠 동생, 이젠 메누리 아정가肯 헹 놔둬수다게. 아이들 입는 거 옷도 만들아 줘낫수다게. 오래부난 하도. 이십 년이 넘어수궤게. 이십 년 더 뛰수다게.”³⁾

(아이고, 오래됐습니다, 이거. 몇 살 때야 했던 것인지. (이걸로) ‘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적삼도 만들어서 입고. ‘갈적삼’도 만들어서 입고. 하이고, 이젠 동생, 이젠 며느리 가져가겠다고 해서 놔뒀습니다. 아이들 입는 거 옷도 만들어 줬었습니다. 오래 버리니까 아주. 이십 년이 넘었습니다. 이십 년 더 됐습니다.)

“(이걸로) 난닝구도 만들안 입곡 짜른 바자마그튼 것도 만들안 입곡 그자 경헨. 적삼덜토 헤근에 만들안 입곡. 몸빼도 만들안 입고. 갈중이도 만들아근에 감 들여근에 입엉.”⁴⁾

((이걸로) 러닝셔츠도 만들어서 입고 짧은 파자마같은 것도 만들어서 입고 그저 그렇게 했어. ‘적삼’들도 해서 만들어서 입고. ‘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갈중의도 만들어서 감 들여서 입고.)

“개난 미승 산 오난에 그자 이녁 무음대로 이거도 맹글곡 저것도 맹글곡. 미승 헤근에게 허믄 아맹해도 쉬워근에게 재게 만들어지주게. (미승으로) 그자, 몸빼도 만들양 입곡, 적삼도 만들양 입곡 그자 그거주. 커텐도 영 만들고 그자 손, 손수운 걸로 미승은 허믄게 손바농질보다는 쉬운 거 난에.”⁵⁾

(그러니까 재봉틀 사서 오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재봉틀 해서 하면 아무래도 쉬워서 빨리 만들 수 있지. (재봉틀로) 그저, ‘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적삼도 만들어서 입고 그저 그거지. 커튼도 이렇게 만들고 그저 손, 손쉬운 것으로 재봉틀은 하면 손바늘질보다는 쉬운 거니까.)

손바느질보다 훨씬 빠르고 편한 ‘미싱’은 자녀들의 옷을 만드는 데에서부터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인 ‘몸빼’, ‘적삼’, ‘갈중의’, ‘러닝셔츠’ 등은 물론 ‘커튼’ 등의 생활 물품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데에 활용되었다.

“우리 딸들 클 때도 나 다 옷 다 만들멍 입졌어. 다 미싱으로. (속곳도) 나낳으로 만들안. 미승 다 있어.”⁶⁾

(우리 딸들 클 때도 나 다 옷 다 만들면서 입혔어. 다 재봉틀로. (‘속곳’도) 나 스스로 만들었어. 재봉틀 다 있어.)

3)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4)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5)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5> 강희숙 씨 소장 '미싱'



<사진 6> 강희숙 씨 소장 '미싱'(위)

<사진 5>와 <사진 6>은 하천리 강희숙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미싱'이다. 강 씨는 '미싱'으로 딸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고, 물질할 때 입는 '속곳'도 이 '미싱'을 사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강 씨는 '미싱'으로 생활 한복을 만들어 입는다고 했다. '미싱 바농'이 녹슬지 않게 천을 끼워둔 것을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궤 시집을 때 해서 온 거. '미싱'도 나 시집을 때 해서 온 거 '발미싱' 해서 왔는데 '손미싱'으로 만들었어.”⁷⁾

(궤 시집을 때 해서 온 거. '미싱'도 나 시집을 때 해서 온 거 '발미싱' 해서 왔는데 '손미싱'으로 만들었어.)



<사진 7> 송춘선 씨 소장 '발미싱'

성읍리 김을순 씨(1946년생)는 시집을 때 '궤'와 함께 '미싱'도 마련했다고 한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장만한 '미싱'은 '발미싱'이었으나 '손미싱'으로 고쳐 사용했다고 했다. '미싱'은 앞서 살펴 본 <사진 1>에서 <사진 6>까지의 것처럼 손으로 돌리는 '손미싱'도 있지만 발을 이용하여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발미싱'도 있다.

<사진 7>은 표선리 송춘선 씨(192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발미싱'이다. 송춘선 씨는 발을 움직이며 '미싱'을 돌아가게 하는 '발미싱'을 사용하고 있었다.

7) 성읍리 김을순 씨 구술



<사진 8> 김복순 씨 소장 ‘미싱 의자’

‘미싱’을 할 때는 바닥에 앉아서 하기도 하지만, ‘발미싱’이나 바닥에서 조금 높게 떨어져 있는 ‘미싱’을 사용할 때는 의자가 필요하다. <사진 8>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미승 의자’로 김복순 씨가 ‘미싱’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한편 ‘미싱’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미싱’ 기계가 맞닿는 부분에 마찰을 덜게 해주는 윤활유를 넣어 주는데 이것을 ‘미승’

지름’이라고 한다. 제보자에 따라 ‘미싱 기름’, ‘미승 기름’ 등 다양하게 불렀는데 표선면 제보자는 ‘미승 지름’이라 말하고 있었다.

“건 미승 지름 아이파. 미승 헐 때 쓰곡, 놔 둘 때 썽 놔둬사 녹실지 아낼 거. 녹실지 아녀. 거난 이것은 지름 놓는 거, 덜어 놓.”⁸⁾

(건 재봉틀 기름 아닙니까. 재봉틀 할 때 쓰고, 놔 둘 때 썽 써서 놔둬야 녹슬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 넣는 거, 덜어 놓고.)



<사진 9> 부윤순 씨 소장 ‘미승 지름’



<사진 10> 김복순 씨 소장 ‘미승 지름’

<사진 9>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승 지름’이다. 부윤순 씨는 <사진 9>의 왼쪽 용기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작은 용기에 조금씩 덜어 사용했다. ‘미승’을 사용할 때도 ‘미승’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조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역시 녹슬지 않도록 ‘미승 지름’으로 관리한다고 했다. <사진 10>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미승 지름’이다.

8)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미승이 판나면은 그거를, 네지 헌 걸 열젠 허면 도라이바가 필요허거든. 그거 열아 갖고 소지해 갖고 기름 줘 갖고 그걸 또 잠가. (미승 지름을) 발라 갖고 잘 돌아가거든. 다시 그거를 잠가서.”⁹⁾

(재봉틀이 망가지면 그거를, 나사 조인 걸 열려고 하면 드라이버가 필요하거든. 그거 열어 가지고 청소해 가지고 기름 줘 가지고 그걸 또 잠가. (재봉틀 기름을) 발라 가지고 잘 돌아가거든. 다시 그거를 잠가서.)



<사진 11> 부윤순 씨 소장 ‘미승 도라이바’



<사진 12> 김복순 씨 소장 ‘미승 도라이바’

<사진 11>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미승 도라이바’고, <사진 12>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는 ‘미승 도라이바’다. <사진 11>, <사진 12>의 ‘미승 도라이바’를 가지고 꽉 조여 있던 나사를 풀어 ‘미승’에 ‘미승 지름’을 넣어 준다. ‘미승’이 고장 난 경우에는 ‘미승 도라이바’로 열어 ‘미승’을 고치기도 하고, 가끔은 내부를 청소할 때도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미승 지름’ 외에 ‘미싱’ 부속품의 한 가지로 ‘북’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북’은 재봉틀의 맷실을 감은 실통을 넣어두는 쇠로 만든 통을 말한다.

“거 미승에 드는 거. 거 미승 씰, 씰 감을 때, 하간 거 바농질힐 때 쓰는 거우다. 그거 다 필요 이신 거. 미승에. 북, 북.”¹⁰⁾

(그거 재봉틀에 드는 거. 그거 재봉틀 실, 실 감을 때, 온갖 거 바느질할 때 쓰는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있는 거. 재봉틀에. 북, 북.)

9)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10)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13> 부윤순 씨 소장 ‘북’



<사진 14> 김복순 씨 소장 ‘북’

<사진 13>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진 14>는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북’이다. 부윤순 씨는 이 ‘북’을 ‘미승’에 드는 것이라면서 ‘미승’ 실을 감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거. 속실 감는 거. 저거 꿈양 끼와근에 감는 거. 북 끼와근에 감는 거.”¹¹⁾

(아, 그거. 속실 감는 거. 저거 꽂아서 끼워서 감는 거. 북 끼워서 감는 거.)



<사진 15> 송춘선 씨 소장 ‘속실 감는 거’



<사진 16> ‘북’에 실을 감는 모습

<사진 15>은 표선리 송춘선 씨가 가지고 있는 ‘속실 감는 거’다. 속실은 재봉질을 할 때 재봉틀의 북에 감은 밑실을 가리키는 것인데, 송 씨는 <사진 15>의 도구를 ‘북’에 실을 감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사진 16>은 송씨가 ‘북’에 실을 끼우는 모습을 재

11)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현한 것이다.

(2) 바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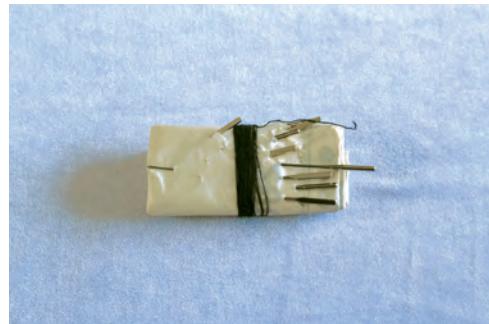
‘바농’은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인 ‘바늘’을 말한다. ‘바농’은 옷감에 따라, 그 쓰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해서 사용했다.

“거 바농일 거우다, 거 큰 바농, 바농. 게난 거 금청에 미승에 놔둬수께. 그거 저 큰 바농 헤근엥 저 밀감 딸 때 바구니 멘들아낫어. 밀감 탈 때, 밀감 타는 바구니 맹글아난 거.”¹²⁾

(그거 바늘일 겁니다, 그거 큰 바늘, 바늘. 그러니까 그거 감아서 재봉틀에 놔뒀습니다. 그거 저 큰 바늘 해서 저 밀감 딸 때 바구니 만들었었어. 밀감 딸 때, 밀감 따는 바구니 만들었던 거.)



<사진 17> 부윤순 씨 소장 ‘바농’



<사진 18> 김복순 씨 소장 ‘바농’

<사진 17>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농’이다. 크기가 다른 여러 바늘을 나란히 놓고 촬영한 것인데 잔 바느질이 필요할 때와 굵은 바느질이 필요할 때에 따라 바늘의 크기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부윤순 씨는 제일 위쪽의 큰 바늘로 밀감을 딸 때 사용하는 바구니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18>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바농’으로, 이면지를 둘둘 말아 실패를 만든 것에다가 여러 크기의 ‘바농’을 꽂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이불 허는 바농은 크주게. 크곡이 귀도 크곡 바레정 잘 퀘지렌이. 굵은 실 퀘는 거난에 귀 크곡. 경현디 우리 대에 가난이 바농도 경 크지 안해여.”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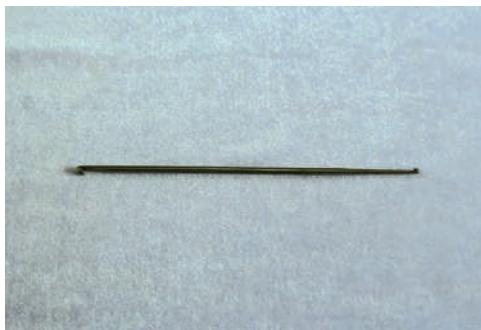
(이불 하는 바늘은 크지. 크고 귀도 크고 볼 수 있어서 잘 퀘도록. 굵은 실 퀘는 거니까 귀 크고. 그런데 우리 대에 가니까 바늘도 그렇게 크지 않아.)

“줄게 나왕이. 손바농질하는 바농 준 거 나오고. 이불 허는 거 그런 거 크게, 귀영 큰큰헌 게 크게 나오고.”¹⁴⁾

(잘게 나와서. 손바느질하는 바늘 잔 거 나오고. 이불 하는 거 그런 거 크게, 귀랑 크디큰 게 크게 나오고.)

표선리 박봉화 씨는 이불을 기울 때는 이불용 큰 바늘을 사용했다고 한다. 굵은 실을 퀘어 바느질을 했었기에 바늘 귀도 컸다고 한다. 박봉화 씨의 시대에 손바늘을 할 수 있는 작은 바늘 등이 나왔다고 한다.

한편, 표선면에서는 뜨개질을 할 때 사용하는 ‘코바농’과 재봉틀에 끼워 사용하는 ‘미승 바농’도 조사되었다.



<사진 19> 부윤순 씨 소장 ‘코바농’



<사진 20> 부윤순 씨 소장 ‘미승 바농’

<사진 19>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코바농’이고, <사진 20>은 부윤순 씨의 ‘미승 바농’이다. <사진 20>에서 바늘이 기성 제품으로 판매될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은지로 바늘을 포장하고 다시 종이로 만든 자그마한 봉투 같은 데에다 바늘이 담겨 있으며 포장 봉투에는 영어가 쓰여 있다.

1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14)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3) 속돌

‘속돌’은 녹이 슬어 잘 들지 않는 바늘을 갈 때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속돌’은 구멍이 송송하게 나 있으면서 단단하지 않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바농) 보미민 어른덜 허는 거 보민 바당에 가민 속돌이엔 헌 돌이 잇어, 하양헌 거이. 속돌이엔 헌 게 물에 어디서사 온 거산디 터 오라근에 바당굿이 올르주게. 올르민 그거 줄어당 속돌이렌 헤근에 그걸로 다깡.”¹⁵⁾

((바늘) 녹슬면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바다에 가면 ‘속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 하얀 거. ‘속돌’이라고 하는 게 물에 어디에서인지 온 거인지 떠 와서 바닷가에 오르지. 오르면 그거 주워다가 ‘속돌’이라고 해서 그걸로 닦아서.)

“바농 그는 것도 이신디 그건 뭐엔사 헤신디. 하양헌 거 바다 버국이, 버국이 봉가당 우리 굴아낫어. 속돌. 바당에 오르는 속돌. 그것 헤 갖고 갈아 갖고 허는디 요즘은 다 보미지 안 허영, 다 사서 쓰지. (속돌 바당 강 봉강 오는 거?) 이제는 없어. 태풍에 불면은 올라 와, 바다에.”¹⁶⁾

(바농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라고야 했는지. 하얀 거 바다 ‘버국이’, ‘버국이’ 주워다가 우리 같았었어. ‘속돌’. 바다에 오르는 ‘속돌’. 그것 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다 녹슬지 않아서, 다 사서 쓰지. (‘속돌’ 바다 가서 주워 오는 거?) 이제는 없어. 태풍에 불면은 올라 와, 바다에.)

표선리 박봉화 씨나 표선리 현옥선 씨의 구술에 따르면 바늘이 녹슬었을 때 바닷가에 밀려온 하얀 돌을 주워다가 바늘을 가는 데에 사용했다고 한다. 이 하얀 돌을 ‘속돌’이라고 불렀다.



<사진 21> 송십자 씨 소장 ‘속돌’



<사진 22> 송춘선 씨 소장 ‘속돌’

15)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16)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사진 21>은 성읍리 송심자 씨(195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속돌’이다. 하얀 돌에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고, 다시 그 사이 사이에 바늘을 여러 차례 갈았던 흔적이 보인다. <사진 22>는 표선리 송춘선 씨(192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속돌’이다. 분홍빛을 띤 것이 <사진 21>의 ‘속돌’과는 다른 점으로 눈에 띈다.

“저 놋그릇. 놋그릇 산디찝 헤 갖고 부벼 갖고 그거 빳아 갖고 적셔서 따끄면은 뻔직뻔직. 이제는 뭐 좋은 그릇 나니까 그런 그릇 안 써서 다 버려 벗지.”¹⁷⁾

(저 놋그릇. 놋그릇 밭벼짚 해 가지고 비벼 가지고 그거 빳아 가지고 적셔서 닦으면은 ‘뻔직뻔직’. 이제는 뭐 좋은 그릇 나오니까 그런 그릇 안 써서 다 버려 버렸지.)

‘속돌’은 보통 바늘 따위가 녹슬어 잘 들지 않으면 그 바늘을 갈 때 사용하지만 현옥선 씨는 예전에는 놋그릇을 닦을 때도 ‘속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속돌’을 잘게 가루로 빳아서 밭벼짚에 그 가루를 묻혀 놋그릇을 닦았다고 한다.

(4) 실과 실패

웃감을 짜고 바느질을 할 때는 ‘바농’과 함께 ‘실’이 필요하다. 바느질이 쉽고 편하도록 특히 ‘실’이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을 감아두는 ‘실패’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개 ‘실’은 ‘실패’에 감아서 보관하기 마련이다. 표선면 조사에서는 나무 조각에 실을 감아둔 것, 나비모양으로 나무를 깎아 실을 감도록 만든 것, 플라스틱으로 된 기성 제품에 실이 감긴 실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보자들은 ‘실패’에 감긴 실을 손바느질할 때는 물론 재봉질을 할 때에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23> 부윤순 씨 소장 ‘실패’



<사진 24> 부윤순 씨 소장 ‘실패’

17)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사진 25> 부윤순 씨 소장 '실패'



<사진 26> 김인배 씨 소장 '실패'

<사진 23>에서 <사진 25>까지는 모두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는 '실패'다. 부 씨는 <사진 23>처럼 쓰다 남은 나무 조각에 굽은 하얀 실을 감아 사용하는 실패, <사진 24>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실을 감게 만들어진 나무 실패, <사진 25>처럼 플라스틱에 실이 감긴 실패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진 26>은 성읍리 김인배 씨(1929년생)가 보관하는 '실패'인데 <사진 24>의 부윤순 씨 '실패'와 비슷한 모양의 것이다.

“미승실. 요건 흙은 실이고. 미승에 썰 이수다.”¹⁸⁾

(재봉틀 실. 요건 굽은 실이고. 재봉틀에 실 있습니다.)



<사진 27> 송춘선 씨 소장 '실패'



<사진 28> 부윤순 씨 소장 '실패'

<사진 27>은 표선리 송춘선 씨가 재봉틀에 끼워 사용하고 있는 '실패'들이다. 송 씨는 여러 색깔의 실들을 갖추어 놓고 옷감에 따라, 용도에 맞게 실을 골라 사용하고 있었다. <사

18)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진 28>은 가시리 부윤순 씨의 ‘실패’로, 부씨는 바느질용 굵은 실과 재봉틀용 실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표선면 조사에서는 재봉틀에 쓰는 실 외에 본향에 갈 때 가지고 가는 ‘멩씰’도 볼 수 있었다. ‘멩씰’은 발원하는 사람의 밥그릇에 쌀을 담고 거기에 꽂은 숟가락에 잡아매는 ‘명실’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을에 있는 당에 찾아가서 이 ‘명실’을 숟가락에 묶어 놓고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실덜 이거 쓰렌 이거 막 써난 사람덜 주난 놔둬수다게. 버리기 아까왕. 이거 이불 끼우곡 협네다. 이것저것 거시기 저 모슬 뎅길 때 씁네다게. 본향에 뎅길 때. 본향에 가는 것그라 모슬. 거 맹씰이라고. 맹씰. 맹씰이라고.”¹⁹⁾

(실들 이거 쓰라고 이거 막 썼던 사람들이 주니까 놔뒀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이불 꿰매고 합니다. 이것저것 거시기 저 ‘모슬’ 다닐 때 씁니다. 본향에 다닐 때. 본향에 가는 것보고 ‘모슬’. 거 명실이라고. 명실. 명실이라고.)



<사진 29> 가시리 부윤순 씨 소장 ‘실타래’

<사진 29>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실타래’이다. 부 씨에게 본향에 다니던 사람들이 당에 올렸다가 발원이 끝난 뒤 가져다 준 것으로 현재는 이 실을 이불을 꿰매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5) 바농쌍지와 바농줄레

‘바농쌍지’는 바늘, 실, 가위, 헝겊 따위의 바느질 도구를 담는 그릇으로, 표준어로는 ‘반진고리’를 말한다. 보통은 크기가 작은 대바구니를 ‘바농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바구니 외에도 플라스틱 그릇이나 천 바구니 따위를 이용하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처음부터 바느질 도구를 보관하는 용도로의 ‘바농쌍지’를 마련하기보다 사용하던 ‘구덕’들 중 낡은 것들에 종이나 헝겊을 발라 ‘바농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농쌍지’는 제보

19)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자에 따라 ‘바농상지’, ‘바늘쌈지’, ‘바농상제’ 등 다양하게 불린다.

“바농상제. 옛날은 요추룩 체그추룩 동글랑허게끔 헌 거 불라근에 챙경 바농상지 헤낫주게. 불라
근에.”²⁰⁾

(반진고리. 옛날은 이처럼 체처럼 동그랗게끔 한 거 발라서 챙겨서 반진고리 했었지. 발라서.)

“바농상지, 무시거 요즘 그뜨면 소쿠리그치. 소쿠리그치 헌 것에 바농들이영 문 저런 거 놔근에
바농상지엔. 구덕이나 마찬그지주. (구덕에) 천 불랑 썻어. 조그만현 거 동글랑현 거 헤근에 불라근
에 바농상지.”²¹⁾

(반진고리, 뭐 요즘 같으면 소쿠리같이. 소쿠리같이 한 것에 바늘들이랑 모두 저런 거 넣어서 반진고리라고.
구덕이나 마찬가지지. (구덕에) 천 발라서 썼어. 조그마한 거 동그란 거 해서 발라서 반진고리.)

“바농상지 안에 바농 놓고 그세 놓고 실덜, 훑은 실 놓고 좁진 실 놓고. 바농상지에 속돌도 놔두
주게.”²²⁾

(반진고리 안에 바늘 넣고 가위 넣고 실들, 굵은 실 넣고 가는 실 넣고. 반진고리에 ‘속돌’도 넣어두지.)

표선리 박봉화 씨의 말에 따르면 ‘바농상제’ 또는 ‘바농상지’는 동그랗게 생긴 소쿠리 같
은 것에 천을 바르고 그 안에 ‘바농’, ‘그세’, 각종 ‘실’, ‘속돌’ 등을 넣어 보관한다고 했다.

“요거 바농쌍지. 문 청 갑서. 이거 옛날 거. 소망 일어수다. 이거 신 집이 엇어.”²³⁾

(이거 반진고리. 모두 찍고 가십시오. 이거 옛날 거.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있는 집이 없어.)

20)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21)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2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23)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30> 가시리 부윤순 씨 소장 '바농쌍지'



<사진 31> 성읍리 김인배 씨 소장 '바농쌍지'

<사진 30>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쌍지'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구덕에 형겼을 붙여 반진고리로 활용하고 있었다. 부윤순 씨는 '바농쌍지' 안에 재봉틀을 할 때 사용하는 '미승실'과 '바늘', 쓰다 남은 형겼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31>은 성읍리 김인배 씨의 '바농쌍지'로 김 씨는 이 반진고리에 여러 종류의 비단 형겼과 실패, 바늘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32> 성읍리 송심자 씨 소장 '바농쌍지'

<사진 32>의 '바농쌍지'는 성읍리 송심자 씨의 것인데 <사진 30>, <사진 31>에서 확인한 '바농쌍지'와는 그 모양과 깊이가 조금 다르다. 송 씨는 차롱에 형겼을 발라 만든 '바농쌍지'에 다양한 종류의 실패, 바늘을 갈 때 사용하는 '속돌'을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가시리 부윤순 씨와 성읍리 김인배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농쌍지'에는 각각 '바농줄레'가 달려 있었다. '바농줄레'는 바늘을 끼워 보관할 때 사용하는 '바늘겨레'를 말한다. '바늘'을 보관할 때는 대개 실을 감아 둔 실패에 바늘을 찔러 보관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바늘겨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 33> 가시리 부윤순 씨 소장 ‘바농줄레’



<사진 34> 성읍리 김인배 씨 소장 ‘바농줄레’

<사진 33>은 <사진 30>의 부윤순 씨가 보관하는 ‘바농쌍지’에 달려 있는 ‘바농줄레’고, <사진 34>은 <사진 31>의 김인배 씨가 보관하는 ‘바농쌍지’에 달린 ‘바농줄레’다. 부윤순 씨, 김인배 씨 모두 이 ‘바농줄레’에 바늘을 끼워 놓고 있진 않지만 바느질을 할 때 필요한 옷핀, 시침핀 등을 꽂아 보관하고 있었다.

(6) 바농질자

‘바농질자’는 옷감의 길이나 몸의 치수를 재는 데 쓰는 자로, 표준어로 ‘바느질자’에 해당하는 말이다. ‘바농질자’는 보통 왕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제주에서 ‘바농질자’는 약 50cm 내외의 길이로 만들며, 이때 한 치의 길이는 약 5cm로 계산한다.

“그거 영 기리는 거. 표시허는 거.”²⁴⁾

(그거 이렇게 그리는 거. 표시하는 거.)

“품 재고 기장 재고, 그것가 혼 자. 우리 몸빼 허젠 허민 두 자 놓곡. 그거 재는 거주게. 거 혼 치. 요거 닷 분. 요거 가운데 이신 건 닷 단. 요거. 요거. 어. 그건 혼 치. 요 가운데 이신 건 닷 분. 혼착. 혼 치 닷 뽈. 요건 다섯 치, 여섯 치, 일곱 치, 여덟 치, 아홉 치, 열 치. 혼나라 혼 자. (혼 치가 성냥개비 혼나 들어갈 거?) 재어근에 거시기 허는 거주. 몸빼는 두 자 놓으면 뛰는 거고. 치마는 자기 둘레에 허리 재어서.”²⁵⁾

24)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25)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품 재고 기장 재고, 그것이 한 자. 우리 ‘몸빼’ 하려고 하면 두 자 놓고. 그거 재는 거지. 거 한 치. 요거 닷 분. 요거 가운데 있는 건 닷 단. 요거. 요거. 어. 그건 한 치. 요 가운데 있는 건 닷 분. 한 짹. 한 치 닷 분. 요건 다섯 치, 여섯 치, 일곱 치, 여덟 치, 아홉 치, 열 치. 하나라 한 자. (한 치가 성냥개비 하나 들어갈 거?) 재어서 거시기 하는 거지. ‘몸빼’는 두 자 놓으면 되는 거고. 치마는 자기 둘레에 허리 재어서.)



<사진 35> 표선리 송춘선 씨 소장 ‘바농질자’

<사진 35>는 표선리 송춘선 씨가 사용하던 ‘바농질자’이다. 송춘선 씨는 ‘바농질자’를 ‘기리는 거’, ‘표시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송 씨는 ‘몸빼’를 만드는 데에 이 ‘바농질자’를 이용해 옷의 길이, 품 등을 재단했다. 송 씨의 구술에 따르면 ‘몸빼’는 두 자 정도로 만들 수 있고, ‘치마’는 ‘바농질자’로 허리 둘레를 재어 만들면 된다고 했다. ‘바농질자’의 한 치는 성냥개

비 한 개를 놓고 그려 가늠하며, 열 치가 한 자가 된다.

(7) ㄱ세

‘ㄱ세’는 옷감, 종이 따위를 자르는 ‘가위’를 말한다. 날이 있는 두 개의 쇠를 교체시켜 가운데 고정시키고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벌렸다 오므렸다 하며 자른다.



<사진 36> 송춘선 씨 소장 ‘ㄱ세’

<사진 36>은 표선리 송춘선 씨의 ‘ㄱ세’이다. 송 씨는 이 ‘ㄱ세’를 재단한 옷감을 자를 때, ‘바농실’을 자를 때 등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8) 단추

단추는 옷 따위의 두 폭이나 두 짹을 한데 붙였다 떼었다 하는 물건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 아끼는 어른들이 옷이 헐어 버리게 되는 경우 옷에 달려 있던 단추를 떼어 내어 보관해 두었다가 평소 입던 옷에 단추가 그 쓰임을 다하면 언제라도 옷에 맞는 단추를 골라 달 수 있도록 했다.

“거 단추우다, 단추게. 단출 거우다게. 거 낯당 단추 그차지믄 필요헌 거 들곡.”²⁶⁾

(거 단추입니다, 단추. 단출 겁니다. 거 놔뒀다가 단추 끊어지면 필요한 거 달고.)



<사진 37> 부윤순 씨 소장 ‘단추’

<사진 37>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모아둔 ‘단추’이다. 부윤순 씨는 작은 천 조각에 각가지 색, 여러 종류의 단추를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 부 씨는 단추가 끊어지면 옷에 맞는 단추를 <사진 37>의 ‘단추’들 중에서 골라 달았다고 한다.

(9) 골미

오랜 시간 바느질을 하거나 두꺼운 바늘을 사용해서 옷감을 꿰맬 때는 바늘귀가 손가락을 눌러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다. 이럴 때 바늘귀를 밀기 위하여 손가락에 끼는 도구인 ‘골미’를 사용한다. ‘골미’는 표준어 ‘골무’에 대응하는 말이며 제보자에 따라 ‘골메’, ‘손도메’라고도 한다. 대개는 헝겊이나 가죽, 쇠붙이 따위로 만든다.

“거 손도메, 바농 헤게 뛰믄 바농 그 또꼬망이, 귀 신 디가 얇아 불민 손 잇당 찔러 불주게. 경허 난 바농질헐 때믄 이거 영. 골미엔 허주. 손가례기 골미. 손도메엔 허주게, 골미.”²⁷⁾

(그거 골무, 바늘 하게 되면 바늘 그 구멍이, 귀 있는 데가 얇아 버리면 손 있다가 찔러 버리지. 그러니까 바느질할 때면 이거 이렇게. ‘골미’라고 하지. 손가락 골무. ‘손도메’라고도 하지, 골무.)

26)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27)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손바느질, 무시거 필요허멍 말멍. 손가락에 손도메 찌는 사람은 손도메 찌주만은 우린 손도메 안 찌 반.”²⁸⁾

(손바느질, 뭐 필요하고 말고. 손가락에 골무 끼는 사람은 골무 끼지만 우린 골무 안 껴 봤어.)

“골메 아닌가? 나 그거 안 해 봤어. 그거 그냥 있더라.”²⁹⁾

(골무 아닌가? 나 그거 안 해 봤어. 그거 그냥 있더라.)



<사진 38> 박봉화 씨 소장 ‘골미’



<사진 39> 송춘선 씨 소장 ‘골메’

<사진 38>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미’다. 박 씨는 이 ‘골미’를 ‘손도메’라고도 불렀다. ‘손도메’는 ‘손’에 일본어 ‘도메(とめ)’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사진 38>의 ‘골미’는 손가락 끝의 모양을 본떠 끝이 동그란 모양의 형겁을 두 겹 겹쳐 놓고 손가락이 들어갈 자리 외에는 바느질을 해서 만든 것이다. 앞면에는 붉은색, 뒷면에는 검은색의 천을 이용해 만들었다. 박 씨가 가지고 있는 이 ‘골미’는 박 씨가 사용한 적이 별로 없는 것이지만 손바느질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골미’를 손에 끼워 바늘귀가 손가락을 찌르지 않도록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39>은 표선리 송춘선 씨가 보관하는 ‘골메’다. 쇠붙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송 씨가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한다.

28)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29)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1.2. 손질 도구

(1) 다듬이돔베와 다듬잇돌

‘다듬이돔베’는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네모난 나무판을 말하고, ‘다듬잇돌’은 다듬이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네모난 돌을 말한다. ‘돔베’는 표준어의 ‘도마’에 대응하는 제주어고, 다듬이질하던 것을 도마로도 이용했기 때문에 ‘다듬이돔베’라고 부른다.

“그건 돔베. 돔베렌 불렀주. 다듬이 저것에 놓 홍짓대 감아근에 두드령. 기자도 두드리곡. 개영 두드리민. 옷 헐 때. 아이고, 이제 사름들은 호강이주만은. 옛날엔 하르방 할망네 죽장 조선옷만 입지. 그자 그 손으로 멘든 바지저고리, 치메저고리. 그게 문 멘들아근에 안네문 입곡. 이젠 돈만 주민 착착 사와.”³⁰⁾

(그건 ‘돔베’. ‘돔베’라고 불렀지. 다듬이 저것에 놓서 홍짓대 감아서 두드려서. 그냥도 두드리고, 개어서 두드리면. 옷 할 때. 아이고, 이제 사람들은 호강이지만은. 옛날엔 할아버지 할머니 줄곧 조선옷만 입지. 그저 그 손으로 만든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그게 모두 만들어서 드리면 입고. 이젠 돈만 주면 탁탁 사와.)

“옷 풀해영 두드령. 광목에.”³¹⁾

(옷 풀해서 두드려서. 광목에.)



<사진 40> 오봉순 씨 소장 ‘다듬이돔베’(앞)



<사진 41>오봉순 씨 소장 ‘다듬이돔베’(뒤)

<사진 40>은 토산리 오봉순 씨(1934년생)가 사용하던 ‘다듬이돔베’의 앞면을 촬영한 것이고, <사진 41>은 ‘다듬이돔베’ 뒷면을 촬영한 것이다. 오봉순 씨의 남편 김종권씨(1934년생)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가로는 약 90cm, 세로는 약 30cm의 크기다. 오봉순 씨는 이

30)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31)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다듬이돌베’에 광목 옷, 옷감 등을 풀한 뒤 올려 놓고 홍짓대로 두드릴 때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이 ‘다듬이돌베’는 다듬이질할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고기를 썰거나 떡을 만들 때 도마로 활용했다고 한다. 군데군데 칼집이 나 있는 모습 등을 <사진 4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거. 다듬이.”³²⁾

(그것도 우리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거. 다듬이.)



<사진 42> 송심자 씨 소장 ‘다듬잇돌’

<사진 42>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듬잇돌’이다. 송 씨의 어머니가 다듬이질할 때 사용했던 것을 송 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아주 곱게 잘 보관되고 있었다.

(2) 홍짓대와 다듬이마께

‘홍짓대’는 다듬질을 할 옷감을 감아서 다듬이질할 때 사용하는 ‘홍두깨’, ‘다듬이마께’는 옷을 다듬질할 때 사용하는 ‘다듬잇방망이’를 말한다. 빨랫감을 두드릴 때, 다 말린 빨래를 곱게 다듬이할 때, 떡을 만들어서 얇게 펼 때 ‘홍짓대’와 ‘다듬이마께’를 사용했다.

“저건 옷 감양 허는 거 아니꽈. 요거는 홍짓대.”³³⁾

(저건 옷 감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홍짓대.)

“홍짓대에 감아근에 이걸로 네 개를 두 사람이 네 개를 두드려.”³⁴⁾

(홍짓대에 감아서 이걸로 네 개를 두 사람이 네 개를 두드려.)

3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33)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34)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저것도 시어명 혜난 거. 다듬이. 요건 마께.”³⁵⁾

(저것도 시어머니가 했던 거. 다듬이. 요건 마께.)



<사진 43> 오봉순 씨 소장 ‘홍짓대’



<사진 44> 오봉순 씨 소장 ‘다듬이마께’

<사진 43>은 토산리 오봉순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홍짓대’다. 길이는 약 80cm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대의 양끝이 조금씩 닳아 없어진 것이다. 오봉순 씨의 구술에 따르면 <사진 43>의 ‘홍짓대’에 광목천을 둘둘 감고 ‘다듬이돌베’에 놓여진 다듬잇감을 두드리면서 다듬이질을 하거나 빨랫감을 두드리거나 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4> 역시 토산리 오봉순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다듬이마께’이다.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마께의 두드리는 부분의 나무가 벌어지고 깨져 그 일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45> 송무옹 씨 소장 ‘다듬이마께’

<사진 45>는 토산리 송무옹 씨가 보관하는 ‘다듬이마께’인데 <사진 44>의 오봉순 씨의 ‘다듬이마께’와 모양은 비슷하나 두드리는 부분이 좀 더 긴 것이 특징이다.

35)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3) 윤디와 윤디판

‘윤디’는 바느질할 때 불에 달구어 천에 생긴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썼던 ‘인두’를 말한다. 보통은 한복을 지을 때 ‘깃’ 부분이나 ‘섶’ 부분을 다리고자 사용한다. ‘윤디’는 ‘화리’에 불을 피운 뒤 거기에 묻어 두었다가 펴려고 하는 곳에 달구어진 ‘윤디’를 가져다 대면 된다.

“거 윤디. 윤디. 옷 다릴 때. 옷 다릴 때. 이런 이런. 에리 그튼 디.”³⁶⁾

(거 인두. 인두. 옷 다릴 때. 옷 다릴 때. 이런 이런. 깃 같은 데.)

“우리 두린 때 셋주만은 저거 할망, 시어멍이 써난 거주게.”³⁷⁾

(우리 어렸을 때 썼지만 저거 할머니, 시어머니가 썼던 거지.)



<사진 46> 한사율 씨 소장 ‘윤디’



<사진 47> 송심자 씨 소장 ‘윤디’



<사진 48> 김중권 · 오봉순 씨 소장 ‘윤디’(앞)



<사진 49> 김중권 · 오봉순 씨 소장 ‘윤디’(뒤)

36) 성읍리 한사율 씨 구슬.

37) 토산리 오봉순 씨 구슬.

<사진 46>는 성읍리 한사율 씨, <사진 47>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윤디’다. 한사율 씨는 <사진 46>의 ‘윤디’를 옷의 ‘깃’ 부분을 다릴 때 주로 사용했다고 했다.

<사진 48>, <사진 49>는 토산리 김중권 · 오봉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윤디’다. 오봉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윤디’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8>의 ‘윤디’는 오 씨의 시어머니가 썼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49>의 ‘윤디’를 눕혀 놓은 모습에서 ‘윤디’의 끝 부분이 붉게 변색된 것을 통해 불에 달구어졌던 흔적과 쇠붙이의 녹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윤디. 그 윤디로. 화리에 불살랑 손바농질, 한복 그튼 건 만들젠 허믄 불살라근에 그 숯불, 숯고치
게스미 껑 낫다근에 껑 낫당 걸로 불살뢰근에 윤디 짙어근에 바농질허멍 실밥 누르뜨멍 허는 거.”³⁸⁾

(인두. 그 인두로. 화로에 불살라서 손바느질, 한복 같은 건 만들려고 하면 불살라서 그 숯불, 숯같이 숯 까 놋다가 꺼서 놋다가 그걸로 불살라서 인두 때서 바느질하면서 실밥 놀려서 하는 거.)

표선리 박봉화 씨는 한복을 만들 때 화로에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 인두를 뜨겁게 달구어서 바느질한 실밥을 누르면서 옷을 만들었다고 한다.

“다리미판 잊어. 윤디판. 그거 써나난에 잊주.”³⁹⁾

(다리미판 있어. 인두판. 그거 썼었으니까 있지.)

한편 ‘윤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옷을 올려 놓는 ‘윤디판’도 필요하다. ‘윤디판’은 ‘인두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물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윤디판’에 대한 이야기를 표선리 박봉화 씨의 구술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다리미

‘다리미’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평고 줄을 세우는 데에 쓰는 도구를 말한다. 표선면에서는 지금의 프라이팬 모양처럼 동그랗게 생긴 형태와 현대식 다리미와 비슷하게 앞코가 뾰족하고 뒤쪽이 각진 형태 두 가지를 모두 조사되었다. 두가지 형태 모두 숯불을 넣은 뒤 뜨겁게 달구어서 사용한다.

38)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3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옛날에 다리미 저 무시거니? 다리미게 옛날에 저 숫불. 숫불게. 나무 헤근에 솟강알에라도 밥해 먹으멍 불 때어근에 그 나무 타민게 숫그치 불망굴 나오민 그거 담아근에 그걸로 다리미질해영. 동글랑한 것에. 숫 담아 놔근에. 영 잡으라 행. 영 심으라 행. 둘이가 마주 앗앙 다리미행.”⁴⁰⁾

(옛날에 다리미 저 뭐니? 다리미 옛날에 저 숫불. 숫불. 나무 해서 아궁이에라도 밥해 먹으면서 불 때서 그 나무 타면 숯같이 ‘불망굴’ 나오면 그거 담아서 그걸로 다리미질해서. 동그란 것에. 숯 담아 넣어서. 이렇게 잡아라 해서. 이렇게 잡아라 해서. 둘이 마주 앗아서 다리미해서.)



<사진 50> 김중권 · 오봉순 씨 소장 ‘다리미’

에 쇠붙이가 그을렸던 자국을 볼 수 있다.

<사진 50>은 토산리 김중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리미’다. 표선리 박봉화 씨의 구술에 따르면 다리미는 <사진 50>의 앞부분의 동그란 곳에 숯을 넣은 뒤 달구어 두었다가 ‘다리미’에 열이 오르면 다듬질감을 양쪽에서 두 사람이 마주 잡고 다리미질을 했다고 한다. <사진 50>의 ‘다리미’는 오봉순 씨의 시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숯

“(윤디) 또 비슷한 거라. 그튼 거. 아하, 다리미, 다리미.”⁴¹⁾

((인두) 또 비슷한 거야. 같은 거. 아하, 다리미, 다리미.)



<사진 51> 한사율 씨 소장 ‘다리미’(걸)



<사진 52> 한사율 씨 소장 ‘다리미’(속)

40)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41)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사진 53> 송심자 씨 소장 ‘다리미’

한사율 씨가 보관하는 ‘다리미’와 속을 넣는 부분이나 앞코가 뾰족하고 뒤로 갈수록 넓은 공간이 있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송 씨의 ‘다리미’는 속의 열기를 뿜어내는 구멍이 앞코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51>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는 ‘다리미’다. ‘윤디’가 주로 옷의 ‘깃’을 다릴 때 사용했다면 <사진 51>의 ‘다리미’는 ‘바지’ 등을 빳빳하게 다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 <사진 52>에서 보이는 것처럼 손잡이 부분을 뒤로 젖히면 속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진 53>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다리미’다. <사진 51>의 한사

1.3. 세탁 도구

(1) 빨래마께와 빨래팡

‘빨래마께’는 빨래를 할 때 더러워진 옷의 때를 빼려고 빨랫감을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물마께’, ‘세답마께’, ‘서답마께’ 등으로도 다양하게 부른다.

“세답마께. 막뎅이로, 마께로 빌레서 닥닥 두드리명 빨아근에 행구양 때 빠지우주. 마께로 두드려사 그때 기운이 빠지주.”⁴²⁾

(빨랫방망이. 막대기로, 방망이로 ‘빌레’에서 닥닥 두드리면서 빨아서 행궈서 때 빠지. 방망이로 두드려야 그 때 기운이 빠지지.)

“물마께엥 혜영 잇지. 우리 이제 물마께.”⁴³⁾

(‘물마께’라고 해서 있지. 우리 이제 빨랫방망이.)

4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4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표선리 박봉화 씨는 빨랫방망이를 ‘물마께’, ‘세답마께’라고 했다. 박씨는 이 ‘물마께’, ‘세답마께’로 두드려야 빨랫감의 때가 잘 빠진다고 말했다.

“요거 빨래마께이. 마께주, 빨랫마께.”⁴⁴⁾

(요거 ‘빨래마께’. 마께지, ‘빨랫마께’.)

“물마께. 세답힐 때 때리는 거. 때령 때 지우는 거. (바닥에) 돌 놓. 그 돌이. 우리 경우는, 우리 경우는 맷돌. 맷돌 날에 험주게?”⁴⁵⁾

(빨랫방망이. 빨래할 때 때리는 거. 때려서 때 지우는 거. (바닥에) 돌 놓고. 그 돌이. 우리 경우는, 우리 경우는 맷돌. 맷돌 놓아서 하고.)



<사진 56> 강기수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57> 한영선 씨 소장 ‘물마께’



<사진 56> 강기수 씨 소장 ‘빨래마께’



<사진 57> 한영선 씨 소장 ‘물마께’

44) 성읍리 한사울 씨 구술.

45)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사진 54>는 성읍리 한사울 씨가 직접 만든 ‘빨래마께’다. 그리고 <사진 55>는 성읍리 송심자 씨, <사진 56>은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빨래마께’다. <사진 57>은 세화리 한영선 씨(1938년생)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마께’다. 위 사진의 ‘빨래마께’들 모두 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윗부분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으며 정면으로 봤을 때 대개 삼각형의 모습을 띠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빨래마께’로 빨랫감을 힘껏 두드려 더러운 때를 뺀다.

한편, ‘빨래마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빨래를 두고 두드릴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표선면 제보자들은 예전에는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인 ‘그레’의 한쪽을 바닥에 두고 ‘빨래판’처럼 사용하기도 하며 평평한 바윗돌을 활용해 빨래를 하기도 했다.



<사진 58> 김인배 씨 집 ‘빨래팡’



<사진 59> 김일출 씨 집 ‘빨래팡’과 ‘빨래마께’

<사진 58>은 성읍리 김인배 씨 집 외부, 수도가 설치된 곳 바닥에 박혀 있는 ‘빨래팡’이다. 김인배 씨는 ‘그레’의 한쪽을 빨래판 대신 사용하고 있었다. 김 씨는 ‘그레’의 구멍난 부분은 시멘트로 발라 평평하게 만든 후 그 위에 빨래를 두고 ‘빨래마께’로 두드리면서 빨랫감의 때를 지웠다고 한다. 세화리 김창효 씨 집에서도 김인배 씨 집과 마찬가지로 ‘그레’를 빨래판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사진 59>은 가시리 김일출 씨(1935년생) 집 외부에 설치된 ‘빨래팡’과 그 위에 놓여 있는 ‘빨래마께’다. 김 씨는 이 ‘빨래팡’과 ‘빨래마께’를 최근까지도 사용했다.

(2) 빨랫줄

빨래를 널어 말리려고 다는 줄을 ‘빨랫줄’ 혹은 ‘서답줄’, ‘세답줄’이라고 한다. 지금은 ‘빨랫줄’과 ‘빨랫대’ 등이 흔하게 사용되지만, ‘빨랫줄’을 쉽게 구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대나무

를 잘라 빨랫대, 빨랫줄처럼 만들어 거기에 옷감을 바로 널거나 소매가 있는 옷의 경우에 소매를 대나무 사이에 끼워 널어 빨래를 말렸다고 한다.

“이젠 빨랫줄 허주만은 옛날엔 빨랫줄 어시난에 대나무 진 거 헤근에이 소매로 영 뛰어근에 널어.”⁴⁶⁾

(이젠 빨랫줄 하지만은 옛날엔 빨랫줄 없으니까 대나무 긴 거 해서 소매로 이렇게 끼워서 널어.)



<사진 60> 정여옥 씨 집 ‘빨랫줄’



<사진 61> 송무옹 씨 집 ‘빨랫줄’



<사진 62> 송절자 씨 집 ‘빨랫줄’과 ‘빨랫줄 작대기’



<사진 63> 송절자 씨 집 ‘빨랫줄 작대기’

<사진 60>은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 집에 설치된 ‘빨랫줄’이다. 집의 외벽 한쪽에 못을 박고 다른 한쪽은 쇠봉을 담 위로 박아 줄을 연결하여 빨랫줄을 연결해 놓았다. <사진 61>은 토산리 송무옹 씨(1943년생) 집의 ‘빨랫줄’로,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줄을 사다가 집 앞 마당 양쪽 끝에 쇠봉을 두고 줄을 단 것이다. 송무옹 씨의 아내가 밭에 일하러

46)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갈 때 햇빛을 가리고자 직접 만든 마스크가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진 62>는 성읍리 송절자 씨(1940년생) 집 마당에 설치된 ‘빨랫줄’이다.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 줄이 아래로 늘어지기 쉽상이다. 이 줄이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운데에 ‘빨랫줄 작대기’를 걸어 둔다. 성읍리 송절자 씨 댁에서도 ‘빨랫줄 작대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만을 촬영한 것이 바로 <사진 63>이다. 송 씨는 끝부분이 알파벳 ‘와이(Y)’형으로 생긴 나무를 구해다가 ‘빨랫줄 작대기’로 삼았다.

1.4. 의복과 신발

1.4.1. 의복

(1) 뜫바데

‘땀바데’는 땀을 받아 내려고 입는 속옷인 ‘땀받이’를 말한다. 보통 러닝셔츠를 대신해서 입는 옷이다.

“땀바데. 저 난닝구그치 만들앙 입어난 거. 난닝구대신 입젠. 이거. 이 땀 부떠근에 시원허주께.”⁴⁷⁾

(땀받이. 저 러닝셔츠같이 만들어서 입었던 거. 러닝대신 입으려고. 이거. 이 땀 붙어서 시원하지.)

“나냥으로 만든 거. 그자 영. 뜫바대로이, 여름엔 시원허게 영. 영 짜르게시리. 어깨마리도 만들앙. 베로. 만들앙 입곡.”⁴⁸⁾

(나대로 만든 거. 그저 이렇게. 땀받이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이렇게 짧게. 어깨끈도 만들어서. 베로. 만들어서 입고.)

47)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48)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사진 64> 박봉화 씨 소장 ‘땀바데’



<사진 65> 박봉화 씨 소장 ‘땀바데’

<사진 64>와 <사진 65>는 표선리 박봉화 씨가 직접 만들어서 입었던 ‘땀바데’다. 박봉화 씨는 어깨끈도 단 ‘땀바데’를 만들어서 러닝셔츠를 대신 입었다고 했다. ‘베’로 만든 ‘땀바데’는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이 붙지 않아 속옷으로 제격이다. 여름에는 그 길이를 조금 더 짧게 만들었다고 하며 박봉화 씨는 적삼 안에다 이 ‘땀바데’를 입었었다고 한다.

(2) 적삼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홀저고리를 말한다. 모양은 저고리와 다르지 않지만 여름에는 주로 ‘베’로 만들고, 겨울에는 ‘미녕’으로 만든다는 차이가 있다.

“적삼 영 짜르게시리도 행 입곡 또 긴 적삼도. 경 후쓸 풀 질게도 입곡. 베로. 여름 꺼 베. 베는 푸 난에게. 겨울에 입는 건 미녕.”⁴⁹⁾

(적삼 이렇게 짧게 해서 입고 또 긴 적삼도. 그렇게 조금 팔 길게도 입고. 베로. 여름 꺼 베. 베는 파니까. 겨울에 입는 건 무명.)

“저이 베옷은 땀을 안 부떠게. 다른 거 천은 땀이 찰찰 허주만은 이 베옷은 땀을 안 부떠. 경현 때 문에 이걸 베로 혜영 만들앙.”⁵⁰⁾

(저 베옷은 땀을 안 붙어. 다른 거 천은 땀이 ‘찰찰’ 하지만 이 베옷은 땀을 안 붙어. 그런 때문에 이걸 베로 해서 만들어서.)

4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50)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사진 66> 박봉화 씨 소장 ‘적삼’



<사진 67> 박봉화 씨 소장 ‘적삼’

<사진 66>과 <사진 67>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베로 만든 ‘적삼’이다. <사진 66>의 적삼은 팔의 길이를 좀 짧게 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사진 67>의 적삼은 베로 만든 ‘적삼’에 ‘갈색물’을 사다가 들인 것이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베’로 적삼을 만들게 되면 땀이 옷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자연 염색이라. 이거 감물이 아니고이, 이거는 절간에서 염색, 자연염색. 이거는 뭐 뭐 헨 혜신고 허민이 감태, 무신 저 오갈핀가? 뭣에. 하여튼 여섯 가진가 눈에 솔안에. 으섯 가지 헨에이. 물 들영 나가 만든 거. 천 혜단에 다 헨. 혼 십오 년 됐어. 절간에 뎅길 때. (지금도) 입영 뎅겸서. 저거 다 뭐 모자레난 다 새기멍 헨.”⁵¹⁾

(자연 염색이야. 이거 감물이 아니고, 이거는 절간에서 염색, 자연염색. 이거는 뭐 뭐 해서 했냐 하면 감태, 무슨 저 오가핀가? 뭐에. 하여튼 여섯 가진가 넣어서 삶아서. 여섯 가지 해서. 물 들여서 내가 만든 거. 천 해다가 다 했어. 한 십오 년 됐어. 절간에 다닐 때. (지금도) 입고 다니고 있어. 저거 다 뭐 모자라니까 다 새기면서 했어.)



<사진 68> 강희숙 씨 소장 ‘적삼’



<사진 69> 강희숙 씨 소장 ‘적삼’

51)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70> 강희숙 씨 소장 '적삼'



<사진 71> 강희숙 씨 소장 '적삼'

<사진 68>에서 <사진 71>까지의 '적삼'은 하천리 강희숙 씨가 재봉틀로 직접 만든 '적삼'들이다. 강희숙 씨는 재단부터 염색까지 손수 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자연염색으로 물들인 것이라 색이 더욱 곱다. 강희숙 씨가 절에 다닐 때 입을 용도로 만든 것으로, 이 '적삼'들을 만든 지는 약 15년이 되었다고 한다. 강 씨는 지금까지도 이 '적삼'들을 입고 다닌다.

한편, 단추가 없던 시절에는 형겼을 가늘게 잘라, 그것을 꼬아 만든 '돌메기'를 달았다. '돌메기'는 표준어의 '매듭단추'를 말한다. '돌메기'는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 '별모작'이라고도 하는데, 표선리 박봉화 씨는 이것을 '돌메기'라고 했고, 하천리 강희숙 씨는 이것을 '별모작'이라고 불렀다. 표선리 박봉화 씨와 하천리 강희숙 씨는 '적삼', '바지', '조끼' 등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제보자로 '적삼', '바지', '조끼'의 단추 역시 직접 '돌메기'를 맺어 달았다.

“(적삼 돌메기) 이녁낳으로 뭇주. (옛날에는 이런 단추들이 엿어예?) 거난 돌메기 뭇주게. 천 행, 험벽 해근에 그늘게 고아근에이 바늘로 묻 감춰놔근에.”⁵²⁾

((적삼 매듭단추) 자기대로 맺지. (옛날에는 이런 단추들이 없어예?) 그러니까 매듭단추 맺지. 천 해서, 형겼 해서 가늘게 (가위로) 잘라서 바늘로 모두 감쳐서.)

“별모작은 나가 다 만들안 헌 거. 밤이 다 그거 감쳐근에이.”⁵³⁾

(매듭단추는 내가 다 만들어서 한 거. 밤에 다 그거 감쳐서.)

5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53)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72> 박봉화 씨 소장 '적삼'의 '돌메기'



<사진 73> 강희숙 씨 소장 '적삼'의 '벌깍작'



<사진 74> 강희숙 씨 소장 '적삼'의 '벌깍작'



<사진 75> 강희숙 씨 소장 '적삼'의 '벌깍작'

<사진 72>는 표선리 박봉화 씨가 만든 '적삼'의 '돌메기'고, <사진 73>은 하천리 강희숙 씨가 만든 '적삼'의 '벌깍작', <사진 74> 또한 강 씨가 만든 '조끼'에 달린 '벌깍작'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 75>는 강 씨가 만든 '바지'에 달린 '벌깍작'이다. 한쪽에는 '벌깍작'을, 한쪽에는 그것을 넣고 옷을 여밀 수 있는 동그란 끈을 달아 두었다. 박봉화 씨와 강희숙 씨는 '벌깍작'에 쓰이는 두 형겼의 가장자리를 마주 대고 실을이 풀리지 않게 실로 감아 하나하나 꿰매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위 사진들을 통해 표선리 박봉화 씨와 하천리 강희숙 씨의 손바느질 솜씨, 재봉질 솜씨를 엿볼 수 있다.

(3) 바지

'바지'는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다.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다. 하천리 강희숙 씨는 '적삼'을 만들면서 그에 맞는 '바지'도 동일한 소재, 동일한 색상으로 만들어 함께 입었다.



<사진 76> 강희숙 씨 소장 '바지'



<사진 77> 강희숙 씨 소장 '바지'

<사진 76>과 <사진 77>은 하천리 강희숙 씨가 직접 만든 '바지'다. 바지의 품은 넓게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했으며 깃털한 '베' 소재의 원단에 자연염색을 들여 멋스럽게 꾸며 입었다. 바지의 허리 부분과 발목 부분에는 직접 '벌모작'을 달아 여밀 수 있도록 했다.

(4) 치마와 저고리

'치마'는 허리부터 다리 부분까지 하나로 이어져 가랑이가 없는 아래옷, '저고리'는 한복 윗옷의 하나로 길, 소매, 셈, 깃, 동정, 고름, 끝동, 회장 따위가 갖추어져 있는 옷을 말한다.

“요거 요새 입을 거주게. 이젠 앞으로는. 이건 먼저 거고.”⁵⁴⁾

(요거 요새 입을 거지. 이젠 앞으로는. 이건 먼저 거고.)

“이것가 영 행 입을 거. 그거 옛날 양단이여.”⁵⁵⁾

(이것이 이렇게 해서 입을 거. 그거 옛날 양단이야.)

“저고리 맹글앙 입지곡. 손으로 헷주게, 그때덜은게. 할망덜 손으로. 우리 대에사 저 미싱 헷주만은 할망덜 대엔 손으로.”⁵⁶⁾

(저고리 만들어서 입하고. 손으로 했지, 그때들은. 할머니들 손으로. 우리 대에야 저 재봉틀 했지만 할머니들 대엔 손으로.)

54)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55)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56) 표선리 박봉희 씨 구술.



<사진 78> 표선리 송춘선 씨 소장 '치마'와 '저고리'



<사진 79> 표선리 송춘선 씨 소장 '치마'와 '저고리'



<사진 80> 표선리 박봉화 씨 소장 '치마'와 '저고리'



<사진 81> 표선리 박봉화 씨 소장 '치마'

<사진 78>과 <사진 79>는 표선리 송춘선 씨가 직접 만든 '치마'와 '저고리'다. 송춘선 씨는 <사진 78>의 한복 한 벌을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에 입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79>의 한복 한 벌은 위에는 노란색 계열의 저고리에 파란색 계열의 치마와 짹이 맞는 것이라면서 은실로 수를 놓고 겹으로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인 '양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사진 80>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보관하는 '치마'와 '저고리'다. 박 씨 역시 이 한복 한 벌을 재봉틀을 사용해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박 씨의 '치마', '저고리' 역시 양단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 81>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만든 '치마'로 박 씨는 이 '치마'에 입고 벗기 편하도록 허리에 고무줄을 넣어 재봉질을 했다.

(5)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옷으로 주로 외출할 때 ‘치마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다. 옷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 무, 셀, 깃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짓 엇인 두루마기고. 이거는 짓 엇이 입으는 거곡. 이거 막 오래엇더털. 멘들앙 입건 디가. 이거 짓이엔 헌 것가 이거. 이거 마고자 두루막.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렌 골을 거꽈?) 두루막 앞섶이라고 허주.”⁵⁷⁾

(이건 깃 없는 두루마기고. 이거는 깃 없이 입는 거고. 이거 막 오래된 것들. 만들어서 입은 지가. 이거 깃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거 마고자 두루막.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말할 겁니까?) 두루막 앞섶이라고 하지.)



<사진 82> 송춘선 씨 소장 ‘마고자 두루막’



<사진 83> 송춘선 씨 소장 ‘두루막’

<사진 82>은 표선리 송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마고자 두루막’이다. 송춘선 씨는 ‘깃’이 없는 ‘두루마기’를 ‘마고자 두루막’이라고 했다. ‘마고자’는 저고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깃과 고름이 없고 앞을 여미지 않으며, 단추를 달아 입는 옷옷이다. ‘마고자’가 가지는 특징을 모두 갖췄지만 그 길이가 ‘두루마기’와 같아 ‘마고자 두루막’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사진 83>은 표선리 송춘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두루막’이다. 무늬가 있는 파란색 양단 두루마기로 안쪽에는 초록색 양단이 덧대어져 있다. ‘깃’, ‘고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사진 82>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57) 표선리 송춘선 씨 구술.

(6) 장옷

‘장옷’은 본래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이다. 제주에서는 ‘장옷’이 새색시의 결혼식 예복으로 쓰였으며, 죽을 때 수의로 입는 옷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할 때 입는 ‘장옷’을 직접 장만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대개는 빌려 입었다고 한다.

“이거는 빌령 입주게. 장옷도 나도 만들아 눈 건 있어. 겐디. (물도 들이고) 이거 절간에. 나냥으로 물 사단.”⁵⁸⁾

(이거는 빌려서 입지. 장옷도 나도 만들어서 놓은 건 있어. 그런데. (물도 들이고) 이거 절간에. 나 스스로 물 사다가.)



<사진 84> 송영선 · 강희숙 씨의 결혼사진

<사진 84>는 하천리 송영선 씨와 강희숙 씨의 1965년도 결혼사진인데 하천리 강희숙 씨가 ‘장옷’을 입고 족두리를 쓴 모습이 보인다. 신부는 여전히 치마저고리 위에 ‘장옷’을 입은 전통 결혼 예복 차림이지만, 신랑은 양복을 갖춰 입고 구두를 신은 현대 예복 차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결혼을 할 당시 강희숙 씨가 입은 ‘장옷’은 예복으로 빌린 것이다. 현재 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옷’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호상옷으로 강 씨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한다.

(7) 벼선

‘벼선’은 천으로 빌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종아리 아래까지 빌에 신는 물건을 말한다. 흔히 ‘미녕’이나 ‘광목’ 따위의 천으로 만드는데 겨울철에 신는 ‘벼선’에는 솜을 넣어 만들기도 하고 두 겹을 겹쳐 만들기도 한다.

58)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85>는 표선리 박봉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버선’이다. 박씨가 ‘치마저고리’를 갖춰 입을 때 맞춰 신었던 것이다.

<사진 85> 박봉화 씨 소장 ‘버선’

1.4.2. 신발

(1) 낭신

‘낭신’은 나무를 파서 만든 신발인 ‘나막신’을 말한다. ‘낭신’은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서 신었다.

“낭신 신었주. 저 입구에서 이디 요 뒷집이, 어떤 일이 있어신고 허민 뒷집이 하도 부잣집이니까 말을 집이서 많이 길렀어, 말소. 경허난 옛날은 물이 엇이난 올랑이엔 헌 디 물 멱이레 그 소들이 한 이십 무리 갔다 왔다 허민 이디 세멘, 돌 안 헌 때 길이 저 이런 옹간한 신 신영 빠정 다니지 못해, 이 골목이. 그 부젓침 덕분에. 경헐 땐 나막신 신어근에 쪼금 뎅겨낫지. 막 불편해여, 나막신. 비 오는 날이라사 신주.”⁵⁹⁾

(나막신 신었지. 저 입구에서 여기 요 뒷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뒷집에 너무도 부잣집이니까 말을 집에서 많이 길렀어, 마소. 그러니까 옛날은 물이 없으니까 ‘올랑이’라고 하는 데 물 먹이려 그 소들이 한 이십 마리 갔다 왔다 하면 여기 시멘트, 돌 안 했을 때 길이 저 이런 어지간한 신 신고서 빠져서 다니지 못해, 이 골목이. 그 부잣집 덕분에. 그렇게 할 땐 나막신 신고서 조금 다녔었지. 막 불편해, 나막신. 비 오는 날이라야 신지.)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에 따르면 송 씨가 어렸을 때 마소를 많이 기르던 동네 부잣집에서 한 번 마소 물을 먹이려 다녀오면 길이 질퍽질퍽해져 웬만한 신발을 신고서는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낭신’을 신고 다녔으며 또 비가 오는 날 ‘낭신’을

59)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신었다고 한다. ‘낭신’은 ‘초신’이나 ‘고무신’이 젖거나 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었던 것이지만 매우 불편한 신발이었다고 한다.

“이건 뭐냐문이. 이건 나막신. 나막신 이렇게 이렇게 쑥엣 거 파내 가지고. 나막신 비 올 때 신어난 거 알아? 낭신. 낭신. 낭신. 장화 대신에 비온 때.”⁶⁰⁾

(이건 뭐냐면. 이건 나막신. 나막신 이렇게 이렇게 속의 거 파내 가지고. 나막신 비 올 때 신었던 거 알아? 나막신. 나막신. 나막신. 장화 대신에 비온 때.)

“(낭신 만들 때) 저 종나무라고 그 나무를, 대중 그걸로 헷어. 이 설메가 좋거든. 겨고 그 보기엔 해도 질겨, 몰르민.”⁶¹⁾

(나막신 만들 때) 저 ‘종나무’라고 그 나무를, 주로 그걸로 했어. 이 결이 좋거든. 그렇고 그 보기엔 해도 질겨, 마르면.)

성읍리 한사율 씨는 ‘낭신’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제보자다. ‘종나무’를 구해다가 나무가 마르면 그 안을 파내서 ‘낭신’을 만들었다고 한다. ‘낭신’의 용도는 앞서 성읍리 송절자 씨의 구술과 마찬가지로 비오는 날 장화를 대신해서 신는 신발이라고 말했다.

“저것, 저것이 제일 중요하여. 안에, 안에 거 파낼 때에 곡쉐.”⁶²⁾

(저것, 저것이 제일 중요해. 안에, 안에 거 파낼 때에 곡쇠.)



<사진 86> 한사율 씨 소장 ‘곡쉐’

<사진 86>은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곡쉐’다. 한 씨는 이 ‘곡쉐’가 ‘낭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일러 주었다. ‘곡쉐’는 나무 안을 파낼 때 사용하는데 파내는 부분이 구부러진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곡쉐’라는 이름이 붙은 듯하다. ‘곡쉐’의 총 길이는 60cm이다.

60)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61)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62)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2) 초신

‘초신’은 벗짚으로 삼아 만든 ‘짚신’을 말한다. ‘초신’ 외에도 ‘짚신’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초신’은 ‘고무신’이 보급되기 이전 시기에 주로 신고 다녔던 신발이다. 예전에는 집 주변에 초신을 잘 삼는 사람에게 신을 삼아 달라고 부탁해서 ‘초신’을 마련하거나, 가정 내에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신을 삼아 주시면 신거나, 남자의 경우 스스로 신을 직접 삼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것사 우리도 만들어낫주. 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거꽈? 옛날 신 엇이민. 내가 만든 거. 산디침 꼬아근에 조꼼 헤영 바위에 뭐 헐 때, 코 만드는 거. 그렇게 허멍 만들아 논 거. 초신짜. (늘은 뭐로 만들아?) 이거는 뭐로 만들어져실 거라, 나가 나일론 노끈. 옛날엔 노, 새끼 꼬양.”⁶³⁾

(이런 거야 우리도 만들었었지. 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옛날 신 없으면. 내가 만든 거. 밭벗짚 꼬아서 조금 해서 바위에 뭐 할 때, 코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서 놓은 거. 짚신짜. (날은 뭐로 만들어?) 이거는 뭐로 만들어졌을 거야, 내가 나일론 노끈. 옛날엔 노, 새끼 꼬아서.)

하천리 송필수 씨(1934년생)는 직접 ‘초신’을 삼아 신었었다. 밭벗짚을 꼬아 코를 만든 뒤 ‘초신’을 만들어 두었다. ‘초신’의 날은 ‘노’를 새끼 꼬아 만들기도 했는데 이후 나일론 노끈을 활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초신 삼을 땐 뭐 이 배에 졸라맹 허주게, 졸라맹 영행 발로 영 행 허는 거난. 드는 게 없어, 찍베낀. 건 나중엔 전문으로 허는 거고. 보통 집에선 그거 안 헷어. (발에만 졸라매 가지고?) 발에. (발가락에 끼워?) 저기다 끌 거 아냐. 게믄 요것만 허믄 게, 저 클그치 요렇게 만드는 거 있어. 그거는 전업으로 헐 때 나중에 막 발달하니까 만든 거고. 그거 엉어도 얼마든지 뛰지.”⁶⁴⁾

(짚신 삼을 땐 뭐 이 바에 졸라매어서 하지, 졸라매어서 이렇게 해서 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드는 게 없어, 짚밖엔. 그건 나중엔 전문으로 하는 거고. 보통 집에선 그거 안 헷어. 발에. (발가락에 끼워서?) 저기다 끌 거 아냐. 그러면 요것만 하면 게, 저 틀같이 요렇게 만드는 거 있어. 그거는 전업으로 할 때 나중에 막 발달하니까 만든 거고.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되지.)

성읍리 한사율 씨는 ‘초신’을 삼을 때 필요한 것으로는 ‘짚’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발 크기를 가늠하고, ‘초신’의 모양을 잡기 위해 넣어두는 ‘신꼴’, 노를 꼬우는 데에 편의를 더해주는 ‘신틀’ 등은 ‘초신’을 전문적으로 삼을 때 나온 도구이고, 일상처럼 신던 ‘초신’을

63)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64)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만들 때에는 별다른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하르부지가 신도 안 나올 때 짚신 만들어 주난 그거 신영 요레 고사리 거끄레 가민 그 짚신은 일로 가시가 꼭꼭꼭 찔르주. 게민 막 옹고리멍 저디 강 고사리도 꺼껑 오고 헹 오민 하르부지안티 욕 들어낫주. 는 원 짚신 삼아주민 원 후루민 다 채어 먹엉 왈신게. 초신. 초신은 초등학교 한 삼사학년꼬장.”⁶⁵⁾

(우리 할아버지가 신도 안 나올 때 짚신 만들어서 주니까 그거 신고 요기에 고사리 꺾으러 가면 그 짚신은 여기로 가시가 꼭꼭꼭 찌르지. 그러면 막 옹그리면서 저기 가서 고사리도 꺾어서 오고 해서 오면 할아버지한테 욕 들었었지. 너는 원 짚신 삼아주면 원 하루면 다 째어 먹어 오고 있네. 짚신. 짚신은 초등학교 한 삼사학년까지.)

“(초신은) 고사리 꺼끄레 강은 후루에 그냥 멜싸지고 경 안 헹은 혼 일주일은 신주게. 난 뒤싼은 안 신언. 우리 하르부지가, 딴 디 하르부진 솜씨가 좋아근에 찍, 초롬초롬 초신을 짜는디 우리 하르부진 초신을 좀 능삭능삭하게 짜주. 경해 두람서 우리꼬라 잘못만 신엄젠.”⁶⁶⁾

((짚신은) 고사리 꺾으러 가서는 하루에 그냥 찌그러지고 그렇게 안 해서는 한 일주일은 신지. 난 뒤집고는 안 신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데 할아버지는 솜씨가 좋아서 짚, 촘촘하게 짚신을 짜는데 우리 할아버지 짚신을 좀 늘썽늘썽하게 짜지.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보고 잘못만 신는다고.)

성읍리 송절자 씨가 어린 시절 신던 ‘초신’은 할아버지가 삼아준 것인데 그 ‘초신’을 신고 고사리를 꺾으러 가면 가시가 ‘초신’의 벌어진 틈으로 들어와 발을 꼭꼭 찔렀던 추억이 있었다고 한다. 가시에 찔린 발이 아파 마구 옹그리면서 고사리를 꺾어 돌아오면 ‘초신’은 하루만에 망가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런 송 씨를 보고 송 씨의 할아버지가 늘상 신발을 아껴 신지 않고 금방 끊어지게 한다며 구박을 했었는데 송 씨는 할아버지가 짜준 ‘초신’이 다른 초신과 달리 촘촘하게 짜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번 삼은 ‘초신’은 고사리를 꺾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개 일주일은 두고 신을 수 있다고 했다.

“계난 짚신 신은 시대 넘영 검은 고무신 신영 낭 그다음 구두도 나오고 이제는 수못 벨 거 다 나온.”⁶⁷⁾

(그러니까 짚신 신은 시대 넘어서 검은 고무신 신고 나무 그다음 구두도 나오고 이제는 사못 별 거 다 나온.)

65)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66)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67)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성읍리 송절자 씨의 말에 따르면 ‘초신’은 송 씨가 초등학교 삼, 사 학년 때까지 신었었고, 그 이후 ‘신발’은 ‘고무신’, ‘구두’의 순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사진 87> 송필수 씨 소장 ‘초신’



<사진 88> 송심자 씨 소장 ‘초신’

<사진 87>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직접 만든 ‘초신’이고, <사진 88>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초신’이다. <사진 87>의 ‘초신’은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는 반면 <사진 88>의 ‘초신’은 성글게 짜여 있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성읍리 한사율 씨는 초신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 상제, 상제이. 사람이 죽어서 그 상제가 신는 신 있고. 또 짚신이엔 헤근에 저 그 맥신, 맥신. 맥신이엔 허쁜 장화그치록 만든 거고. 장화그치록 만든 것그라 걸 맥신. 눈 올 때 신영 뎅기고. 초신. 초신. (맥신도 초, 저런 집으로 만든 거?) 으, 집으로 만든 거.”⁶⁸⁾

(저 상제, 상제. 사람이 죽어서 그 상제가 신는 신 있고. 또 짚신이라고 해서 저 그 맥신, 맥신. 맥신이라고 하면 장화처럼 만든 거고. 장화처럼 만든 것보고 걸 맥신. 눈 올 때 신고 다니고. 초신. 초신. (맥신도 초, 저런 집으로 만든 거?) 으, 짚으로 만든 거.)

성읍리 한사율 씨의 말에 따르면 ‘초신’은 사람이 죽었을 때 상제가 신는 신과 장화처럼 만들어 눈이 올 때 신고 다니는 ‘맥신’, 평소에 신고 다니는 ‘초신’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68)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3) 고무신

‘고무신’은 탄성 고무로 만든 신발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무신’은 1970년대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찾아 신는 신발이었다. 고무로 만든 신은 ‘초신’에 비해 훨씬 질기고 오래가며, 비교적 방수가 잘 되어 실용적이었기 때문이다. 표선면 조사에서는 여전히 고무신을 일상적으로 신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도 신는 거.”⁶⁹⁾

(이제도 신는 거.)

“(지금 신엄수과, 그거?) 으. 그디 푸린 것도 있고 저 흰 것도 있고. 흰 거 땔 사 오고, 저 푸린 신은 메누리 사 오고.”⁷⁰⁾

((지금 신고 있습니까, 그거?) 으. 거기 푸른 것도 있고 저 흰 것도 있고. 흰 거 땔 사오고, 저 푸른 신은 며느리 사오고.)

“(삼춘 두린 때도 고무신이 나왔수꽈?) 으, 고무신이주게. 영 우 더꺼진 거. 그때 영 우 더꺼진 고무신.”⁷¹⁾

(삼춘 어렸을 때도 고무신이 나왔습니까?) 으, 고무신이지. 이렇게 위 덮인 거. 그때 이렇게 위 덮인 고무신.)



<사진 89> 송필수 씨 소장 ‘고무신’



<사진 90> 김일출 씨 소장 ‘고무신’

69)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70) 가시리 김일출 씨 구술.

71) 가시리 김일출 씨 구술.

<사진 89>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신고 다니는 ‘고무신’이고, <사진 90>은 가시리 김일출 씨가 여전히 신고 다니는 ‘고무신’이다. 가시리 김일출 씨는 여러 결례의 고무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얀색으로 된 ‘고무신’은 딸이, <사진 90>의 파란색 ‘고무신’은 며느리가 사다 준 것이라고 했다. 하천리 송필수 씨와 가시리 김일출 씨는 지금까지도 고무신을 즐겨 신고 있다고 했다. 김일출 씨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무신이 있었으며 그때에는 고무신 앞쪽이 덮여 있던 것이 나왔었다고 한다.

한편, 고무신 중에도 앞쪽이 코처럼 뾰족하게 나온 여자용 고무신인 ‘코신’이 있다.

“저거 코신, 코신. 옛날에도 코신 신었주, 저 닳은 거. 두린 때 물애기부터 저거 우린 신었어.”⁷²⁾
(저거 코신, 코신. 옛날에도 코신 신었지, 저 같은 거. 어렸을 때 젖먹이부터 저거 우린 신었어.)



<사진 91> 김일출 씨 소장 ‘코신’

<사진 91>은 가시리 김일출 씨가 신고 다니는 ‘코신’이다. 김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코신’을 신었다고 했다. 앞쪽이 뾰족하고 가운데에 양쪽의 고무를 연결하는 듯한 네모 모양이 붙어 있다.

1.5. 기타 도구

(1) 솔

‘솔’은 먼지나 때를 떨거나 풀칠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표선면 조사에서는 무명실이나 명주실에 풀을 먹일 때 사용했던 ‘솔’을 조사할 수 있었다.

72)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미녕할 때 필요한 게.) 무사게 차는 것도 묻 잊고. 조그만이 잊어게? (삼춘 차는 것도 헤 봄디가?) 아니. 그거 나 친정에서 어머니 헐 때 나 헛꼼 헤 봤어. 이젠 안 헤여. (이거는 무사 잊어?) 우리 시어머니 살안 헤난 거 아져왔주게. 이거 우리 어멍 헤난 거. 우린 안 써낫어. (삼춘 때 돼서는 미녕 헤난 사람 엇수과?) 현 사람 엊어. 난 허진 안헨. 우리 어멍만 헤난 거.”⁷³⁾

((무명할 때 필요한 게.) 왜 짜는 것도 모두 있고. 적게 있어? (삼춘 짜는 것도 해봤습니까?) 아니. 그거 나 친정에서 어머니 할 때 나 조금 해 봤어. 이젠 안 해. (이거는 왜 있어?) 우리 시어머니 살아서 했던 거 가져왔지. 이거 우리 어머니 했던 거. 우린 안 썼었어. (삼춘 때 돼서는 무명 했던 사람 없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 난 하진 않았어. 우리 어머니만 했던 거.)



<사진 92> 송심자 씨 소장 ‘솔’



<사진 93> 오봉순 씨 소장 ‘솔’

<사진 92>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이다. ‘솔’을 잡는 부분이 여러 겹의 종이로 싸여 있고, 보관하기 쉽게 매달 수 있는 끈도 달려 있다. ‘솔’의 앞부분에는 ‘풀’이 묻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93>은 토산리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이다. 이것은 오 씨의 시어머니가 ‘미녕’을 짤 때 사용했던 것으로 오 씨가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

(2) 이불

‘이불’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해 오던 물건 가운데 베개, 요와 함께 빠뜨리지 않는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다.

73)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흔수로 뭐 해시냐면 이불 하나, 베개 하나, 요 하나. 그거 하고 말 타고, 말 타고. 우리, 우리 집사람은 떼께 타고 그렇게 해서 잔치했어.”⁷⁴⁾

(흔수로 뭐 했냐면 이불 하나, 베개 하나, 요 하나. 그거 하고 말 타고, 말 타고. 우리, 우리 집사람은 ‘떼께’ 타고 그렇게 해서 잔치했어.)

“(시집을 때) 뭐 행 와서? 이불허곡. (이불) 세 개. 저 우리 양단 이불. 잇주. 떨 요번에 두 개 줘 불고. 이거. 이거. 이거 양단 이불. 으. 이거 다 폐왕. 나 다 꼬멘 거주. 큰딸 하나 앗아가고 족은딸 앗아가고.”⁷⁵⁾

((시집을 때) 뭐 해서 왔어? 이불하고. (이불) 세 개. 저 우리 양단 이불. 있지. 떨 이번에 두 개 줘 버리고. 이거. 이거. 이거 양단 이불. 으. 이거 다 펴서. 나 다 꿰맨 거지. 큰딸 하나 가져가고 작은딸 가져가고.)



<사진 94> 강희숙 씨 소장 ‘이불’

<사진 94>는 하천리 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이불’이다. 강희숙 씨가 1965년에 시집을 때 장만한 ‘이불’ 가운데 하나인데 강 씨는 흔수이불로 총 세 채를 마련해 왔다고 한다. 이 ‘이불’은 강 씨가 양단 천을 직접 손바느질을 해서 만든 것으로 두 종류의 양단과 주황 빛깔을 가진 천이 서로 바느질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세 채 중 하나는 큰딸, 하나는

작은딸이 가져갔으며 강 씨는 현재 한 채만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3) 밀짚모자

‘밀짚모자’는 밀짚이나 보릿짚으로 만들어 여름에 쓰는 모자다. 보통 위가 높고 둥글며 양태가 큰 것이 특징이다. 제주에서는 ‘밀짚모자’를 일컬어 ‘밀낭페렝이’, ‘페렝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표선면 조사에서는 ‘페렝이’라는 말보다 ‘밀짚모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했다.

74)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75)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머리에 그 보리, 보리 비어나민 그 끗겐이 대 깨끗이 헤다근에 우리도 옛날에 그걸로 땀에 모자를 절아낫주게. 이거, 이거 다 헤난 다음 싹 허게 이 태양 이만큼 만들멍 우리 냥으로 절멍 헤낫주게. 밀집모자, 밀집모자. 페렝이엔도 헷주만은 그때는 찢이 그때는 보릿집, 밀집 허영 밀집모자, 밀집모자.”⁷⁶⁾

(머리에 그 보리, 보리 베고 나면 그 끗트머리 대 깨끗이 해다가 우리도 옛날에 그걸로 땀아서 모자를 결었었거든. 이거, 이거 다 한 다음 싹 하게 이 태양 이만큼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 결면서 했었거든. 밀짚모자, 밀짚모자. ‘페렝이’라고도 했지만은 그때는 짚이 그때는 보릿짚, 밀짚 해서 밀짚모자, 밀짚모자.)

성읍리 송절자 씨는 보리를 베고 난 대를 깨끗이 마련해다가 걸어 모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사진 95> 송필수 씨 소장 ‘밀짚모자’



<사진 96> 오태경 씨 소장 ‘밀짚모자’

<사진 95>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밀짚모자’고, <사진 96>은 가시리 오태경 씨가 밭에 일하러 갈 때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고 다니는 ‘밀짚모자’다. 오 씨는 이 ‘밀짚모자’를 창고에 설치해 둔 ‘공장’에 걸어 두고 있었다.

(4) 정당모자

‘정당모자’는 맹맹이덩굴로 엮어 만든 모자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대개 ‘정당벌립’ 등으로 부르지만, 하천리 송필수 씨는 ‘정당모자’, 혹은 ‘정당’에 ‘종절모자’를 가리키는 말인 ‘나까오리’를 결합해 ‘정당나까오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76)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건 만든 거. 정당줄, 정당줄이엔 헌 거 있어. 우리 딸이 헌나 학교에서들 만든 거, 가네가. 저거는 정당모자. 정당나까오리고.”⁷⁷⁾

(건 만든 거. 댕댕이덩굴, 댕댕이덩굴이라고 한 거 있어. 우리 딸이 하나 학교에서들 만든 거, 그 아이들이. 저거는 정당모자. ‘정당나까오리’고.)



<사진 97> 송필수 씨 소장 ‘정당모자’

<사진 97>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정당모자’다. 이 모자는 송 씨의 딸이 학교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고 한다.

(5) 우장

‘우장’은 띠로 엮어 허리,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을 말한다. 표준어의 ‘도롱이’에 대응하는 말이다. ‘우장’은 보통 농촌 지역에서 소나 말을 보는 목동들이 비가 오면 많이 입었다고 한다.

“우장도 있고. 우장은 저거. 어느 때. 알동, 알동네 하르방.”⁷⁸⁾

(우장도 있고. 우장은 저거. 어느 때. 아랫동, 아랫동네 할아버지.)

77)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78)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98> 송심자 씨 소장 '우장'



<사진 99> '우장'을 걸친 모습

<사진 98>은 성읍리 송심자 씨 댁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장'이다. 성읍 아랫동네 할아버지가 결은 '우장'으로 삼각꼴 모양으로 생겼으며 띠가 촘촘하게 잇달아 엮어졌기에 빗물이 안으로 쉬이 스며들지 않게 되어 있다. <사진 99>는 '우장'을 직접 입어본 모습이다.

2. 식생활

생활환경의 변화는 식생활 도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무나 흙, 돌 등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플라스틱, 유리, 스테인리스 등의 재료의 그릇이 쓰이고 있다. 이렇듯 그릇의 재료가 나무, 흙, 종이, 유리, 알루미늄 등 다양한 변천 과정 속에서 제주의 전래 그릇인 나무그릇과 옹기그릇, 놋 그릇 등이 그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오래 보존이 가능한 채롱이나 바구니, 항아리 등의 전통 도구는 다른 물건에 비하면 여러 가정에 남아 있는 편이다. 그러나 보관이나 관리가 어려운 옹기그릇, 사기그릇, 나무그릇 등이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행히 표선면 지역에서는 전통 식생활 도구를 잘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접해 보지 못한 양념단지, 간장단지, 다양한 무물사발과 무물접시, 나무 제기와 사기 제기 등의 쓰임을 채록하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식생활 도구를 식기류,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1. 식기류

2.1.1. 그릇

(1) 밥사발과 국사발

우리 생활에서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도구를 통틀어 ‘그릇’이라 부른다. 밥과 국을 담는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이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는 ‘밥사발’, ‘국사발’로 부르기도

한다. 또 그릇을 만든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놋그릇’, ‘사기그릇’, ‘알루미늄그릇’, ‘스테인리스그릇’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시대에 따라 그릇의 주재료가 달라지는 특색을 보이기도 한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사기그릇’을 사용하다가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이후에는 쓰기 편한 ‘알루미늄그릇’과 ‘스테인리스그릇’을 주로 썼다. 최근에는 자기나 유리로 만든 그릇이 쓰이고 있다.



<사진 1> 송심자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2> 한사율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1>은 성읍리 송심자 씨(195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밥사발’과 ‘국사발’이고, <사진 2>은 성읍리 한사율 씨(193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밥사발’과 ‘국사발’이다.

“문양 없는 것들은 옛날 거고. 굽이 높은 거는, 이거는 이 그릇하고 같이 나온 거.”¹⁾
(문양 없는 것들은 옛날 거고. 굽이 높은 거는, 이거는 이 그릇하고 같이 나온 거.)

“이 굽이 낮을수록, 없을수록 연대가 높은 거. 굽이 낮을수록 옛날 거.”²⁾
(이 굽이 낮을수록, 없을수록 연대가 높은 거. 굽이 낮을수록 옛날 거.)

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3> 송심자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4> 송심자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5> 송심자 씨 소장 '밥사발'과 '국사발'



<사진 6> 송필수 씨 소장 '국사발'

<사진 3>부터 <사진 5>까지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송 씨의 말에 따르면 그릇에 문양이 없고, 굽이 낮을수록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 6>은 하천리 송필수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국사발'이다. <사진 6>의 그릇에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사진 3>, <사진 4>, <사진 5>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그릇임을 알 수 있다.



<사진 7> 송필수 씨 소장 '아레미 밥사발'

<사진 7>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했던 알루미늄 밥사발이다. 송 씨는 이것을 '아레미 밥사발'이라고 불렀다.

(2) 모물사발과 모물잽시

‘모물’은 ‘메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모물사발’과 ‘모물잽시’는 그릇 안에 있는 동그란 점무늬가 있는 사발과 접시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눈돋은사발’, ‘눈돋은잽시’라고도 한다. 그릇의 점무늬는 그릇을 구울 때 그릇을 겹쳐 놓으면서 위아래의 그릇이 달라붙지 않도록 조개껍질 따위를 놓았던 흔적이다.

“지금 우리 집인 엊주만은 요만인 헤근에 굽이 돌아. 굽이 있어. 사발도 있고 접시도 엊주. 사발에도 모물사발은 거의 굽 돌아. 겨고 사발엔 영 헨 점이 무사산디 돌아가명 점이 영 영 찍어정 있어.”³⁾

(지금 우리 집에는 없지만 요만큼 해서 굽이 돌아. 굽이 있어. 사발도 있고 접시도 있지. 사발에도 ‘모물사발’은 거의 굽 돌아. 그리고 사발엔 이렇게 한 점이 왜 그런 건지 둘러가며 점이 이렇게 이렇게 찍혀 있어.)

“모물사발도 있어낫주. 요것도 모물사발이고 요것도 모물사발 닮은게. 눈 돋은 거. (사발보다) 모물사발이 모녀 셋주게.”⁴⁾

(‘모물사발’도 있었지. 요것도 ‘모물사발’이고 요것도 ‘모물사발’ 같네. 눈 돋은 거. (사발보다) ‘모물사발’이 먼저 썼었지.)

“사발은 사발인디 저 그 모물그추룩 거뭇거뭇거뭇하게 사발 전체에, 모물 사발 틀려. 쪜, 쪜, 쪜, 쪜 헤근에.”⁵⁾

(사발은 사발인데 저 그 메밀처럼 거뭇거뭇거뭇하게 사발 전체에, ‘모물사발’은 달라. 점, 점, 점, 점 해서.)

성읍리 송절자 씨(1940년생)는 ‘모물사발’과 ‘모물잽시’를 지금은 집에 없는 그릇으로 설명하며, 굽이 있고 점이 나 있는 그릇으로 회상하였다. 표선리 박봉화 씨(1933년생)의 말에 따르면 ‘사발’보다 굽이 있는 ‘모물사발’을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박 씨는 ‘모물사발’이라 하지 않고 ‘눈 돋은 거’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하천리 강희숙 씨(1942년생)의 말에 따르면 그릇 안에 새겨진 거뭇거뭇한 점이 ‘메밀’과 닮았다 하여 ‘모물사발’, ‘모물잽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3)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4)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5)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이거 무물그릇 어디서 만든 거 몰라도 무물그릇은 딱 보민 이거 잇수께. 이건양 굽젠 허민 그릇 만들양 구젠 허민 이디 무시것덜 부뜨지 말렌 그 사이에 끄는 거 잇주께. 모래 비슷한 거. 게민 그추룩 허민 그거 자국이라. 부뜨지 말렌, 부뜨지 말렌.”⁶⁾

(이거 ‘무물그릇’ 어디서 만든 거 모르지만 ‘무물그릇’은 딱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구우려고 하면 그릇 만들어서 구우려고 하면 여기 무엇들 붙지 말라고 그 사이에 끄는 거 있거든. 모래 비슷한 거. 그러면 그처럼 하면 그거 자국이야. 붙지 말라고, 붙지 말라고.)

“무물사발 앗앙 잇당 플라스틱 나오난에 문딱 데경.”⁷⁾

(‘무물사발’ 가지고 있다가 플라스틱 나오니까 모두 버려서.)



<사진 8> 송심자 씨 소장 ‘무물사발’



<사진 9> 송심자 씨 소장 ‘무물사발’



<사진 10> 송심자 씨 소장 ‘무물접시’



<사진 11> 송심자 씨 소장 ‘무물접시’

6)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7)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12> 송심자 씨 소장 ‘무물접시’



<사진 13> 송심자 씨 소장 ‘무물접시’

<사진 8>에서 <사진 13>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무물사발’과 ‘무물접시’다. 그릇들을 겹쳐 놓고 구울 때 달라붙지 않도록 조치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물사발’과 ‘무물접시’는 사용이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오자 대부분 폐기되어 지금은 보기 힘든 식기들이다. 때문에 송 씨는 ‘무물사발’과 ‘무물접시’를 집 안 찬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색깔이 그 메밀, 여기 말로는 전기, 경 안 허튼 빙떡 아냐이? 그 색깔이라. 무물 사발이 잇곡 무물접시가 있어.”⁸⁾

(색깔이 그 메밀, 여기 말로는 ‘전기’, 그렇지 않으면 ‘빙떡’ 아니야? 그 색깔이지. ‘무물사발’이 있고, ‘무물접시’가 있지.)

“저 눈 돋은 접시덜 잇어낫주. 이제 거 골동품으로 다 나가 부난 엇엄주게, 엇어. 그거 사용할 땐 시집감 전이주게. 시집감 전이 그런 거 사용했고, 시집간 후젠 눈 돋은 접시들이 다 엇어져 비언, 엇어.”⁹⁾

(저 눈 돋은 접시들 있었었지. 이제 거 골동품으로 다 가 버리니 없는 거지, 없어. 그거 사용할 때는 시집가기 전이지. 시집가기 전에 그런 거 사용했고, 시집 간 후에는 눈 돋은 접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

하천리 송영선 씨(1942년생)의 말에 따르면 ‘무물사발’이 있고, ‘무물접시’가 또 따로 있었다고 한다. 송 씨는 ‘무물사발’과 ‘무물접시’를 메밀가루로 만드는 ‘빙떡’의 색깔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선리 박봉화 씨의 구술에 따르면 성인이 된 박 씨가 결혼하여 살림을

8)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시작한 후부터는 ‘모물사발’과 ‘모물접시’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보관과 관리가 용이한 알루미늄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보급되면서 사기그릇이나 옹기, 나무 그릇 등이 차츰 우리 생활에서 사라져 갔음을 박 씨의 구술에서 짐작할 수 있다.

(3) 보시

‘보시’는 김치 따위의 반찬 등을 떼 놓는 그릇으로, 표준어의 ‘보시기’에 대응하는 말이다.

“김치도 담곡 된장도 담고 멜젓거튼 거, 자리젓도 담고.”¹⁰⁾

(김치도 담고 된장도 담고 멸치젓같은 거, 자리젓도 담고.)



<사진 14> 송심자 씨 소장 ‘보시’

<사진 1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보시’다. 송 씨의 할머니가 쓰시던 것을 물려받아 사용하다가 지금은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 송 씨는 <사진 14>의 ‘보시’에 김치나 된장 또는 젓갈류를 담아서 먹었다고 했다. 표선리 박봉화 씨도 송 씨의 구술과 마찬가지로 반찬 종류를 ‘보시’에 담아서 먹었다고 한다.

“보시에는 모 잡식해 나민 승늉 허는 거.”¹¹⁾

(보시기에는 모두 고수레하고 나면 승늉 하는 거.)

“또 반찬 접, 저 보시에. 거려근에 놓고.”¹²⁾

(또 반찬 접, 저 보시기에. 떠서 놓고.)

가시리 부윤순 씨(1938년생)는 ‘보시’를 제사 때 고수레하고 난 후 승늉을 담았던 그릇으로, 표선리 박봉화 씨는 식사 때 반찬을 담아 먹는 그릇으로 설명했다.

10)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1)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1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4) 젱시

‘잽시’는 표준어 ‘접시’에 대응하는 말이다. 삶은 고사리나 콩나물 따위에 기름이나 깨 등을 친 ‘탕쉬’, 또는 반찬을 담을 때 사용하는 높이가 낮은 그릇이다.

“우리 식계 때 다 썼던 거.”¹³⁾

(우리 제사 때 다 썼던 거.)

“그것도 무시거게, 쪼그만 거리는 거. 채소그튼 거. 무시거 딱 쓰는 거 밥그릇 국그릇 외에는, 이 간장 종지 외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딱 무시거 허렌 그런 거 엇엇서. (식계 때 콩기름) 나 이것에 거려낫어. (문양 없는 거) 이것이 더 옛날 거라.”¹⁴⁾

(그것도 뭐, 조금만 담는 거. 채소같은 거. 뭐 딱 쓰는 거 밥그릇 국그릇 외에는, 이 간장 종지 외에는 그때그때 따라서. 딱 뭐 하라 그런 거 없었어. (제사 때 콩기름) 나 이것에 담았었어. (문양 없는 거) 이것이 더 옛날 거야.)



<사진 15> 송심자 씨 소장 ‘잽시’



<사진 16> 송심자 씨 소장 ‘잽시’

<사진 15>와 <사진 16>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잽시’다. 지름이 약 10cm 정도의 작은 접시로 제사 때 썼던 것이다. 송 씨의 구술에 따르면 아무런 문양이 없는 <사진 15>가 <사진 16>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고사리 놓는 거 접시에 헙네다계.”¹⁵⁾

(고사리 넣는 거 접시에 헙니다.)

13)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4)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5)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궤기그튼 거 구믄 접시에 놓고.”¹⁶⁾

(고기같은 거 구우면 접시에 넣고.)

가시리 부윤순 씨는 ‘접시’를 제사 때 고사리는 담는 그릇으로, 표선리 박봉화 씨는 식사 때 고기 등의 반찬을 담는 그릇으로 설명했다.

(5) 종제기

‘종제기’는 간장, 된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그릇인 ‘종지’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종지’라고도 하며 흔히 ‘장종지’라 일컫는다. ‘종제기’는 형편에 따라 술잔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거 종제기. 옛날엔 간장 냄근에 돼지, 큰일 저 잔치 때 찍어 먹는 간장 냄주기. 저거 테이프 안 해난 건디 윗 허멍 그거 감아 비언. 미끄러지지 말렌. 영하게 데끼민 종제기 벌러져 분덴 종제기 감아 난. 요샌 (육) 노는 디가 잘 엊어. 큰일 집이서 안 허난.”¹⁷⁾

(그거 종지. 옛날에는 간장 담아서 돼지, 큰일 저 잔치에 찍어 먹는 간장 놓았었어. 저거 테이프 안 했던 건데 윗 하면서 그거 감아 버렸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던지면 ‘종제기’ 깨져 버린다고 종지 감아 놨어. 요새는 (육) 노는 데가 잘 없어. 큰일 집에서 안 하니까.)



<사진 17> 홍순이 씨 소장 ‘종제기’



<사진 18> 송심자 씨 소장 ‘종지육’

<사진 17>은 표선리 홍순이 씨(195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종제기’고, <사진 18>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종지육’이다. 홍 씨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대소사를

16)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17)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치를 때, 삶은 돼지고기 등을 찍어 먹을 간장을 담았던 것이라고 한다. 홍 씨는 이 ‘종제기’를 윷놀이 도구로 바꿔 사용했다. 나무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잘라 만든 윷을 종지 안에 넣고 흔들다가 쏟아내는 형식의 놀이인 ‘종지윷’을 할 때, 이 ‘종제기’에 윷을 담아 던졌다. 윷놀이를 하다가 ‘종제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검은색 테이프를 감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집에서 큰일을 치르는 일이 없어 사용하지 않게 되자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8>은 송 씨가 보관하고 있는 ‘종지윷’으로 윷 조각 4개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윷 조각은 주로 동백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6) 낭푼

‘낭푼’은 표준어의 ‘양푼’으로, 음식을 담거나 데우는 데 쓰는 그릇이다. 보통 그릇의 높이가 낮고 아가리가 넓다. ‘낭푼’을 만든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높은 ‘놋낭푼’, 알루미늄은 ‘아르미낭푼’, 주물로 뜬 것은 ‘이모노낭푼’이라고 불렸다. ‘이모노(いもの)’는 ‘주물[鑄物]’에 해당하는 일본어로, 일본어가 그릇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제주에서는 이러한 ‘낭푼’에 밥을 가득 뜯 후, 밥상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함께 먹기도 했다.

“(밥은) 낭푼에. (국은) 저 사발에.”¹⁸⁾

(밥은) 양푼에. (국은) 저 사발에.)

“나 대까지 썼으니까. 칠십 년대까진 쓴 거 같아. 국그릇이 아니고 낭푼이라고. (제사 때) 낭푼도 썼어.”¹⁹⁾

(나 대까지 썼으니까 칠십 년대까지는 쓴 것 같아. 국그릇이 아니고 양푼이라고. (제사 때) 양푼도 썼어.)

18)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19)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사진 19> 김천종 씨 소장 '놋낭푼'



<사진 20> 김천종 씨 소장 '놋낭푼'



<사진 21>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놋낭푼'

<사진 19>와 <사진 20>은 세화리 김천종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모양이 각기 다른 '놋낭푼'이다. 종손인 김 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김 씨가 제사를 지낸 1970년대까지는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9>, <사진 20>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 모두 아가리가 넓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진 20>의 '놋낭푼'의 모양이 더 둥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씨는 이 '놋낭푼'들을 제기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놋이 검게 산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1>은 토산리 김종권(1934년생)·오봉순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낭푼'으로 김 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사진 22> 김일출 씨 소장 '낭푼'



<사진 23> 김인배 씨 소장 '낭푼'

<사진 22>는 가시리 김일출 씨(1924년생)가 현재 쓰고 있는 '스테인리스 낭푼'이다. 사용이 편리하고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도 음식을 준비할 때 사용하고 있다. <사진 23>은 성읍리 김인배 씨(192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 낭푼'이다. '아르미 낭푼'은 조리도구가 아닌, 빨래나 설거지 등 세척 도구로 쓰이고 있어 그 쓰임에 변화가 있었다.

(7) 고뿌

'고뿌'는 물이나 술 등의 음료를 따라 마실 때 사용하는 잔을 말한다. '고뿌(コップ)'는 '컵'의 일본어식 표현인데, 아직도 제주어 속에 일본어식 표현들이 남아 있는 것 중 하나다.

“술고뿌. 그거는 일제시대 때 나온 거. 이젠 그거 없어.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거. 육지서 만든 거주게. 제주도에서는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 엊었서.”²⁰⁾

(술잔. 그거는 일제시대 때 나온 거. 이젠 그거 없어.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거. 육지서 만든 거지. 제주도에는 그런 거 만드는 공장이 없었어.)



<사진 24> 송심자 씨 소장 '술고뿌'

<사진 2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잔이다. 송 씨는 이것을 '술고뿌'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던 것으로, 육지에서 만들어져 제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20)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8) 양념단지와 간장단지

‘양념단지’와 ‘간장단지’는 양념장과 간장을 넣어 보관했던 그릇이다. 장독에 담아 둔 된장이나 간장을 뜨고 와서 부엌에 놓아두고 음식을 만들 때 이용하거나 양념장을 만들어 담아 두었던 용기다.

“이거 양념단지라. 옛날 거. 할무니 쓰단 거. 이거는이 간장.”²¹⁾

(이거 양념단지야. 옛날 거. 할머니 쓰던 거. 이거는 간장.)

“거 이제 이신 디 엊일 거라. 할무니 써난 거. 잘도 오랜 거라.”²²⁾

(그거 이제 있는 곳 없을 거야. 할머니 쓰던 거. 정말 오랜 거야.)



<사진 25> 송심자 씨 소장 ‘양념단지’



<사진 26> 송심자 씨 소장 ‘간장단지’

<사진 25>와 <사진 26>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양념단지’와 ‘간장단지’다. 송 씨의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이제는 장식품으로나 이용하는 질그릇들이다. <사진 25>의 단지 지름이 각각 7cm, 11cm며, <사진 26>은 지름이 7cm다.

(9) 숟구락통

‘숟구락통’은 수저를 담거나 꽂아 두는 통이다. 보통 나무를 파서 만들거나 굵은 대나무를 통으로 하여 이용하기도 하고 가는 대나무를 엮어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2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2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옛날은양, 낭을 파근에 허나 경 안허믄 왕대 해근에양, 대 큰 거 이시민 그거 해근에 졸랑 해낫수궤.
살례에 걸엉도 허곡 꼭 살례만 안 걸엉양, 이런 디 기둥 이시민 기둥에도 걸어나고 헷수다.”²³⁾

(옛날은요, 나무를 파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대 해다가요, 대 큰 거 있으면 그거 해서 잘라서 했었어요.
찬장에 걸어서도 하고 꼭 찬장에만 안 걸고요, 이런 데 기둥 있으면 기둥에도 걸고 했습니다.)



<사진 27> 송십자 씨 소장 ‘숟구락통’



<사진 28> ‘살례’ 안의 ‘숟구락통’

<사진 27>과 <사진 28>은 성읍리 송십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숟구락통’이다. 왕대를
잘라 둉글게 엮거나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들었다고 한다. 송 씨는 이것을 ‘살례’에 넣어두고
보관하고 있었다.

2.1.2. 차롱과 구덕

(1) 차롱

‘차롱’은 표준어의 ‘채롱’에 대응하는 말이다. ‘차롱’은 대나무를 잘게 쪼개어 가늘게
다듬은 후, 네모난 모양으로 납작하게 짠 그릇이다. 제주에서는 제사나 명절 등 큰일을 치를
때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차롱’을 사용했다. 음식 등을 담아 두거나 음식을 나눌 때 담아
이용하였던 도시락 형태의 대나무 그릇으로, ‘차롱착’이라고 부른다. 속에 담은 음식물이나
떡이 마르거나 먼지가 들어가는 일 없도록 뚜껑을 덮어서 사용했다. 용도에 따라 ‘적차롱’,
‘떡차롱’으로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23) 성읍리 송십자 씨 구술.

“이거 떡 해당 놔난 거. 떡도 놓곡 기자 종이 꽈명 무신 고기도 궁 놓곡. 옛날에 이거 모 장에 강 풍 니끼게. 장에 강 사옵니까. 옛날엔 대그릇 멘들앙 풀안.”²⁴⁾

(이거 떡 해당 놔난 거. 떡도 놓고 그저 종이 깔면서 무슨 고기도 구워서 넣고. 옛날에 이거 모두 장에서 팔았어요. 장에 가서 사 오지요. 옛날에는 대그릇 만들어서 팔았어.)



<사진 29> 부윤순 씨 소장 ‘떡차롱’



<사진 30> 부윤순 씨 소장 ‘차롱’

<사진 29>와 <사진 30>은 가시리 부윤순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롱’으로, 장에 가서 ‘차롱’을 사왔다고 한다. 부 씨는 ‘차롱’을 떡을 보관하는 ‘떡차롱’으로도 쓰고, 구운 고기를 담는 ‘적차롱’으로도 쓰고 있다고 한다. 뚜껑이 헐자 나일론 줄로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다.

“옆이 허난 오래 써가난 허난 저거 저, 저 나이롱 거 뭐이주게. 경행 감은 거라. 헐지 말렌. 저 우리 집 할망 감은 거. 거 더프민 떡계, 빙떡 그튼 거 놓는 거. 빙떡.”²⁵⁾

(옆이 허니까, 오래 썼더니 허니까 저거 저, 저 나이론 그거 뭐거든. 그래서 감은 거야. 헐지 말라고. 저 우리 집 할머니(아내)가 감은 거. 그거 덮으면 떡, 빙떡 같은 거 넣은 거. 빙떡.)

“작년, 나가 저 팔십넷, 셋꼬장은 식게 맹질 헷주게. 그때꼬장은 쓰단에, 나가 팔십 셋꼬장은 제서햇어. 지금 팔십다섯. 경현에 넷 뛰난에 아덜네신디 보내젠 허난 곤 것덜은, 새걸로 곤 거는 보내고 이거는 헌 거난 그레 담양 내분 거. 이거 흔 삼 년 전이꺼지 써난 거게. 제숙두 묵두 쑤민 영 행 이례 놓고.”²⁶⁾

24)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25)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26) 세화리 한영선 씨 구술.

(작년, 내가 저 팔십넷, 셋까지는 제사 명절을 했거든. 그때까지는 쓰다가, 내가 팔십 셋까지는 제사했어. 지금은 팔십다섯. 그래서 넷 되니까 아들들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고운 것들은, 새것으로 고운 것은 보내고 이것은 헌 거니까 거기 담아서 내버린 거. 이거 한 삼 년 전까지 썼던 거. ‘제숙’도 묵도 쑤면 이렇게 해서 이리 넣고.)



<사진 31>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차롱’



<사진 32>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차롱’

<사진 31>과 <사진 32>는 세화리 김창효(1938년생) · 한영선 씨(1937년생)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롱’이다. ‘차롱’ 테두리가 헐자 나일론 띠를 감아 수선해 사용하고 있다. 한 씨의 말에 따르면 한 씨가 제사를 지낸 2년 전까지는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자녀들에게 제사에 쓸 깨끗한 ‘차롱’들은 물려주고, 낡은 것들은 한 씨가 현재 보관하고 있으나 곧 소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롱에 놓주. 우리 오라방, 오라방이 만든 거 다 물려다가. 아이고, 잘도 저 구덕도 만들고, 막 혜단 풀아. 옛날 우리 오라방만이 곱게 허는 사름이 엊어낫어. 이거 어느 때산디, 맷 살 때산디 몰라. 시집오란 훈 서른 안에 헤 와실 거라.”²⁷⁾

((떡은) 채룡에 넣지. 우리 오빠, 오빠가 만든 거 다 물려다가. 아이고, 아주 저 구덕도 만들고, 막 해다가 팔았어. 옛날 우리 오빠만큼 곱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거 어느 때인지, 몇 살 때인지 몰라. 시집와서 한 서른 안에 해 왔을 거야.)

27) 표선리 오남행 씨 구술.

“(대낭은) 우연에 키우멍도 허곡, 저리 웃드레 가근에 사 음도 허곡. 전문적으로 잘도 첨, 이거 여기 오란 잘도 풀았어. 다 맞추앙, 헤 도렌 맞추앙. 저 구덕이 경 잘 헤 불민 다 맞추아근에. 물에 들레 뎅기는 사름, 옛날엔 물에 들레 가는 것도 문 전 뎅기지 안했나? 엉긴 거 이서, 헉썰. 질구덕. 출바구리. 얼마나 해신디 몰라.”²⁸⁾

((대나무)는 터앞에 키우면서도 하고, 저기 윗마을에 가서 사 오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아주 참, 이거 여기 와서 많이 팔았어. 다 맞춰서, 해 달라고 맞춰서. 저 바구니가 그렇게 잘 해 버리면 다 맞춰서. 물에 들러 다니는 사람, 옛날에 물에 들러 가는 것도 모두 지고 다니지 않았어? 엉긴 거 있어, 조금. 질구덕. 출바구리. 얼마나 했는지 몰라.)



<사진 33> 오남행 씨 소장 '차롱'



<사진 34> 오남행 씨 소장 '차롱'

<사진 33>과 <사진 34>는 표선리 오남행 씨(1931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차롱'이다. 여섯 형제의 맏이인 큰 오빠 오선행 씨가 '차롱'이나 '구덕' 등을 전문적으로 겉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사진 33>과 <사진 34>는 오 씨의 오빠가 오 씨에게 걸어준 것이다. 현재 오 씨가 구십일 세이므로 사진의 '차롱'은 칠십 년 가까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차롱'과 '구덕'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대나무는 터앞에서 키우기도 하고, 대나무가 많은 마을에 가서 사 오기도 했다고 한다. '차롱'과 '구덕'을 곱게 잘 겉었던 오씨의 오빠는 사람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제작했다고 한다.

“이거 멍질 때나 식게 때나 따까근에 떡 해 놓는 거. 이거 흔 백 년 됐 거주. 백 년 넘었어.”²⁹⁾

(이거 명절 때나 제사 때나 닦아서 떡 해 넣는 거. 이거 한 백 년 된 거지. 백 년 넘었어.)

28) 표선리 오남행 씨 구술.

29) 표선리 현순화 씨 구술.



<사진 35> 현순화 씨 소장 ‘차롱’



<사진 36> 현순화 씨 소장 ‘차롱’

<사진 35>와 <사진 36>은 표선리 현순화 씨(1926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차롱’이다. 현 씨는 ‘차롱’을 깨끗하게 닦아 두었다가 명절이나 제사 때 떡을 담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한다. 현 씨의 말에 따르면 <사진 35>, <사진 36>의 ‘차롱’은 백 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오십 년 됐지. 고치 산 거지. 제사할 때 쓰겠 산 거니까.”³⁰⁾

(오십 년 됐어. 같이 산 거지. 제사할 때 쓰려고 산 거니까.)

“그것도 흔 헛수론 흔 오십 년 됐어. 나가 이제 팔십이나난에, 팔십이나난에 흔 설남은 때 거 다 나 살렴 살겠 허난 장만한 거. 게난 저 이사를 세 번 왔어. 스물다섯에부터 저 가마리엔 헌 디 살다가 또 이 동네 살다가, 요 앞집이 철물점 헌 디 살다가 이레 이사 또. 세 번차 오단 보난 옛날 건 다 버려 불고 이거. 이거 시방도 써, 우리 제사 때. 이거 빙떡 지질 때 이런 것에 놔야 물기도 뭐 허고. 이거 흔 설남은 때 제사를 나가 하니까 훤 오십 년 넘었어, 이거. 나가 이쁘게 이쁘게 잘 사용하니까 이거 있지.”³¹⁾

(그것도 한 헛수로는 한 오십 년 됐어. 내가 이제 팔십하나니까, 팔십하나니까 한 서른 남짓 할 때 그거 다 내가 살림 살려고 하니까 장만한 거. 그러니까 저 이사를 세 번 왔어. 스물다섯에부터 저 가마리(세화2리)라고 하는 데 살다가 또 이 동네 살다가, 요 앞집에 철물점 하는 데 살다가 이리 이사 또. 세 번째 오다가 보니까 옛날 건 다 버려 버리고 이거. 이거 지금도 써, 우리 제사 때. 이거 빙떡 지질 때 이런 것에 놓아야 물기도 뭐 하고. 이거 한 서른 남짓 할 때 제사를 내가 하니까 한 오십 년 넘었어, 이거. 내가 예쁘게 예쁘게 잘 사용하니까 이거 있지.)

30)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31)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이건 아래착, 이건 뚜껑. 고령차롱 이건 알착, 이건 우착. 우이 차롱, 아래 차롱. 바우 돌르는 거 이거 다 폐적해서 어디 방상에나 어디 가져가면 남의 거에 바꾸카 부덴. 이것만. 어디 갈 때 작은 거 아경, 큰 거는 안 아경 다니니까. 어디 강 바꾸카 부덴. 딴 사람도 이렇게 헹 가정 가니까. (폐적 안 헌 건) 집이서만 쓰니까, 제서허고 맹질 때. 막 곱게 이쁘게만 썻지. 막 저 아무거나 담지 아녀고 제서 때 헤 나민 깨끗이 시정 낫당 제서헐 때 또 싯엉 허고 그렇게. 만약에 이거 제서, 만약에 낼모리나 들어온다 하면 다 내놓 깨끗이 풍퐁에 헹 말렷당.”³²⁾

(이건 아래쪽, 이건 뚜껑. ‘고령차롱’ 이건 아래쪽. 이건 위쪽. 위 채롱, 아래 채롱. 테두리 두르는 거 이거 다 표시해서 어디 친척에나 어디 가져가면 남의 거하고 바꿀까 봐. 이것만. 어디 갈 때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는 안 가지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바꿀까 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니까. (표시 안 한 건) 집에서만 쓰니까. 제사하고 명절 때. 아주 곱게 예쁘게만 썼지. 마구 저 아무거나 담지 않고 제사 때 하고 나면 깨끗이 썻어 두었다가 제사할 때 또 썻어서 하고 그렇게. 만약에 이거 제사, 만약에 내일모레나 들어온다고 하면 다 내놓고 깨끗이 세제에 해서 말렸다가.)



<사진 37> 정여옥 씨 소장 ‘차롱’



<사진 38> 정여옥 씨 소장 ‘고령 차롱’

<사진 37>과 <사진 38>은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차롱’이다. 정 씨가 시집와 살림살이를 막 시작했을 때 장만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 씨 나이가 팔십이 세이므로 육십여 년 넘게 쓴 ‘차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른 즈음에 제사를 물려받은 정 씨는 여러 번의 이사에서 낡은 것들은 버리고, 남은 것들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특히 ‘빙떡’을 지지면 ‘차롱’에 담아두어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38>은 정 씨가 사용하는 ‘고령 차롱’이다. 집에서만 쓰는 ‘차롱’과 외출용 ‘차롱’을 구분해서 썼던 정 씨는 다른 사람들의 ‘차롱’과 구별하기 위해 <사진 38>에서 보는 것처럼 ‘차롱’에 노끈을 달아 표시했다. 표시가 없는 <사진 37>은 집에서 쓰는 것으로,

32)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어 말리는 등 정성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잘 관리한 만큼 오래된 ‘차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형태와 색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아이고, 시방 나이론 그릇 나난 이거 필요 엇엄주. 이거 제사 때,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네 돌아가시 건디가 훤 삼십 년 넘은 때 그땐 부지가 없어. 요 차롱에 떡, 빙떡을 지지나 메밀코루 헹 만두, 만두 이걸로 하나 행 강 이거 가정강 고령하는 거라. 시방 부주, 고령이엔 헌 말은. 이거 고령 차반지, 이거. 떡을 가정 강 드리는 거.”³³⁾

(아이고, 지금 나일론 그릇 생기니까 이거 필요 없게 되었지. 이거 제사 때,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네 돌아가신 지가 한 삼십 년 넘은 때 그땐 부조가 없어. 요 채롱에 떡, ‘빙떡’을 지지거나 메밀가루 해서 ‘만두’, ‘만두’ 이걸로 하나 해서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고령’하는 거라. 지금 부조, ‘고령’이라고 한 말은 이거 ‘고령 차반지’, 이거. 떡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

표선리 정여옥 씨의 구술에서 보듯이, 정 씨는 <사진 38>의 ‘고령 차롱’을 ‘고령 차반지’라 부르기도 했다. 정 씨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부조를 할 때 ‘차반지’에 ‘빙떡’을 지져 담고 가거나, 메밀가루에 팥소를 넣어 만든 ‘만두’ 등을 넣고 가서 부조를 대신했다고 한다.

“옛날 어른 쓰단 거. 아버지가 쓰단 거우다.”³⁴⁾

(옛날 어른 쓰던 거. 아버지가 쓰던 겁니다.)



<사진 39> 부대옥 씨 소장 ‘차롱’



<사진 40> 부대옥 씨 소장 ‘차롱’

<사진 39>와 <사진 40>은 토산리 부대옥 씨(1948년생)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33)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34) 토산리 부대옥 씨 구술.

‘차롱’으로, 부대옥 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쓰고 있다고 한다.



<사진 41> 김은두 씨 소장 ‘차롱’



<사진 42> 김은두 씨 소장 ‘차롱’



<사진 43> 송필수 씨 소장 ‘차롱’



<사진 44> 송필수 씨 소장 ‘차롱’

<사진 41>과 <사진 42>는 가시리 김은두 씨(1939년생)가, <사진 43>과 <사진 44>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차롱’이다. 송 씨는 콩을 말리는 데 ‘차롱’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이 제물 떡 제물 헨 가는 고령. 이거는 고령 차롱, 고령. 이거 제물떡 앗아 가는 고령. 이것에 만디, 만디 놓곡 문친떡도 놓곡 정기도 놓곡. 정기도 지경그네 놓곡 다 행 가.”³⁵⁾

(이거는 제물 떡, 제물 해서 가서는 ‘고령’ 이거는 ‘고령 차롱’, ‘고령’. 이게 제물떡 가져가는 ‘고령’. 이것에 ‘만디’, ‘만디’ 넣고 시루떡 넣고 빙떡도 넣고, 빙떡도 지져서 넣고 다 하고 가.)

35)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요 차롱하고 요 구덕은이 모관 할망이라고 그 이디선 이거 이추룩 곱닥허게 못 줄아. 계난 제주시, 제주시 할망인디 그때는이 모관, 모관 허주게. 이게 어디서 나와시냐면. 삼양, 삼양이 이걸 만들었어. 계난 그 할망이 사근에게 이걸 촌에 팔레 온 거라. 그디서 사근에. 이런 거 다 경왕. 게믄 우린 이디 영 허민. 저 우리그라 새댁 이런 거 사렌 헨 허민 그때 제물떡을 이것에 다 넣 뎅기주게. 게민 그 할망한티 맞추아근에 저 모관 할망이엔 헤근에 그 할망한티 맞추아근에 이거 산 거. 그땐 얼마 안 갓어. 경해도 우리가 살 때는 비쌌지. 오천 원인가? 돈 주었지게. 돈 주영 삼어. 우리가 나가 뭐헨 헤시냐면 나도 물질 해녀니까, 그때 농촌에는 돈이 그렇게 어려웠어. 어류왕 허민 게도 바당에 뎅경 돈 허쓸 헤지민 요런 것도 사곡 요런 것도 사곡.”³⁶⁾

(요 차롱하고 요 구덕은 ‘모관 할망’이라고 그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곱게 못 결어. 그러니까 제주시, 제주시 할머니인데 그때는 모관, 모관 하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삼양, 삼양이 이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사서 이걸 시골에 팔려 온 거야. 거기서 사서. 이런 거 다 지고 와서.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하면. 저 우리보고 새댁 이런 거 사라고 하고 하면 그때 제물떡을 이것에 넣고 다녔거든.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맞춰서 저 ‘모관’ 할머니라고 해서 그 할머니한테 맞춰서 이거 산 거야. 그때는 얼만 안 했어. 그래도 우리가 살 때는 비쌌지. 오천 원인가? 돈 주었지. 돈 주고 삼어. 우리가 내가 뭐해서 했냐면 나도 물질 해녀니까, 그때 농촌에는 돈이 그렇게 어려웠어. 어려워서 하면 그래도 바다에 다녀서 돈 조금 (마련)하게 되면 요런 것도 사고 요런 것도 사고.)



<사진 45>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차롱’



<사진 46> ‘차롱’을 ‘구덕’에 넣은 모습

<사진 45>와 <사진 46>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령 차롱’이다. 송 씨는 <사진 45>에 메밀가루로 만든 ‘만디’나 시루떡 종류인 ‘문친떡’, 빙떡 등의 제물 떡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고령’, ‘고령 차롱’이라고 불렀다. 강 씨는 이 ‘차ロン’과 ‘구덕’을 ‘모관 할망’에게 삼다고 한다. ‘모관’은 ‘제주목 안’을 가리키는 말로, 제주시 삼양동 지역에서 곱게 결은 ‘차ロン’과 ‘구덕’을 ‘모관’ 할머니가 시골로 팔려 왔다고 한다. 당시 송 씨의 아내 강 씨가

36)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모관’ 할머니에게 주문하여 구입한 것이다. 어려운 살림살이로 돈이 많지 않았던 당시 물질을 해서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차롱’과 ‘구덕’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거 쓰물에 씨집오난에게, 쓰물서너 개 뱀 사난 이거 그자 놔둔 거. 경허난 이거 이 어디 제서 먹으려 가젠 헤도 요 차반지에 떡이라도 놓, 요레 놔근엥에 술 혼 펑 놓곡 경 영 형 제 보레 가곡. 어디 잔치밧디 갈 때 또 쌀 한 말 놓 이레 놔근엥에 이거 영 형 아경 가곡 경 혜난 거 이거. 경허난 요즘은 돈으로 문 혜 부난 뭐.”³⁷⁾

(이거 스물에 시집오니까, 스물서너 살 되어서 사서 이거 지금까지 놔둔 거. 그러니깐 이거 이 어디 제사 먹으려 가려고 해도 요 ‘차반지’에 떡이라도 놓고. 요기 놓고서 술 한 병 놓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제 보러 가고. 어디 잔치에 갈 때 또 쌀 한 말 놓고 여기 놓고서 이거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던 거 이거. 그러니까 요즘은 돈으로 전부 해 버리니까 뭐.)



<사진 47> 한영선 씨 소장 ‘차반지’

<사진 47>은 세화리 한영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차반지’다. 한 씨가 외갓집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시집 온 스물에 사용하기 시작해 지금도 쓰고 있는 것으로, 육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한 씨의 말에 따르면, 제사를 먹으려 갈 때 <사진 47>의 ‘차반지’에 떡과 술 한 병을 넣고 갔다고 한다. 지금은 돈으로 축의금을 전하지만 예전에 잔칫집에 갈 때는 쌀 한 말을 놓고

들고 갔다고 한다.

한편, 마소를 돌보는 목동인 ‘테우리’들이 마소를 돌보러 다닐 때 점심을 싸고 다녔던 1, 2인용 도시락을 ‘차반지’ 또는 ‘정심 차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크기가 작은 채롱으로, 양쪽에는 끈을 매달았는데 ‘테우리’들이 마소를 보러 다닐 때 이 끈을 어깨에 걸치고 다니거나, 들에 갔을 때 나뭇가지에 끈을 매달아 ‘차반지’를 보관했다. 이 ‘차반지’는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테우리 차반지’라고도 하고 ‘동고량’, ‘동고령’, ‘밥당석’이라고도 불렀다. 한사율 씨는 다음의 구술에서처럼 이를 ‘정심 차롱’이라고 불렀다.

37) 세화리 한영선 씨 구술.

“이거 다 만든 거. 잘 봐. 그러니 잘 만들지 안했? (이거는) 차롱, 정심 차롱. (저기 벽에 걸어진 것도 삼춘이 다 만든 거예?) 어, 다. 게난 여기는 촌엣 거뿐이 아니고 바다에서 헤는 것도 나가문 전부 다 있어.”³⁸⁾

(이거 전부 만든 거야. 잘 봐. 그러니 잘 만들지 않았어? (이거는) 차롱, 정심 차롱. (저기 벽에 걸어져 있는 것도 삼춘이 다 만든 거지요?) 어, 전부. 그러니까 여기는 시골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쓰는 것도 나가면 전부 다 있어.)



<사진 48> 송필수 씨 소장 ‘차반지’



<사진 49> 한사율 씨 소장 ‘정심 차롱’

<사진 48>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차반지’다. 소를 들판에 방목하러 갈 때, 송 씨가 먹을 음식을 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49>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소장하고 있는 ‘정심 차롱’이다. 한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한 씨는 ‘차반지’가 아닌 ‘정심 차롱’으로 이를 소개했다. <사진 49>를 보면 어깨에 멜 수 있는 긴 끈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뚜껑이 열려 음식을 쏟는 일 없도록 ‘차반지’를 한 바퀴 감싸는 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이거 훈 50년 됐어. 이것도 장시 뎅겨나실 거라. 장사꾼. 이거 육지서 온 거 우리 두 개 산. 이렇게 포 놔근에 폴레 뎅겨낫어. 보리쌀 사아근에 저녁에 먹을 거 이것에 퍼야 될 거 아냐. 이것에 평, 이거 뚜껑 더꺼근에 영행 놔두민. (낼 아침에 먹을 거) 미리 사아야 돼.”³⁹⁾

(이건 한 50년 됐어. 이것도 장사꾼 다녔을 거야. 장사꾼. 이거 육지서 온 거 우리 두 개 산어. 이렇게 포 놔서 팔려 다녔었어. 보리쌀 삶아서 저녁에 먹을 거 이것에 퍼야 될 거 아니겠어? 이거에 푸고, 이거 뚜껑 덮어서 이렇게 나누면.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미리 삶아야 돼.)



<사진 50>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소쿠리'



<사진 51> 송필수 씨 소장 '소쿠리'

<사진 50>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부부가 보관하고 있는 '소쿠리'로, 송 씨는 이를 '골체'라고 소개했다. 송 씨 부부가 오십 년 전 육지에서 들어온 '소쿠리'를 장만한 것으로, 보리쌀을 씻을 때나 보리밥을 퍼두는 용기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부침개를 부치면 사진의 '소쿠리'에 담기도 하고, 빙떡에 넣을 무채나 국수 면을 건지는 등 다양하게 활용했다고 한다. <사진 51>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소쿠리'다. 송 씨는 크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소쿠리'를 가지고 있었다.

(2) 곤대구덕

'곤대구덕'은 대오리를 아주 가늘게 쪼개서 촘촘하게 짠 바구니로, 주로 제사 때 제물을 넣어 들고 다니거나 친척이나 동네 큰일에 쌀이나 떡 등의 부조를 넣고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이다. 제보자에 따라 '관대구덕', '꼰대구덕', '곤대바구리', '부주구덕'이라고도 한다.

39)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옛날에 이거 문 장에 강 풁 니께게. 장에 강 사 옵니께. 옛날엔 대그릇 멘들양 풀안. 고대구덕도 저거 막 비싼 거 뿐으로 사당 본향에 갈 땐.”⁴⁰⁾

(옛날에 이거 전부 장에서 팝니다. 장에 가서 사 옵니다. 옛날에는 대그릇 만들어서 팔았어. ‘고대구덕’도 저거 막 비싼 거 멋으로 사다가 당에 갈 땐.)

“고대구덕은 므슬 갈 때 제물 헤근엥, 그레 구덕 제물 행 차롱 들여낳 정 뎅기는 거. 고대구덕에 떡 행 정 갑네다. 떡 헤영. 동골랑현 떡 돌레떡. 고쏠 굴아당.”⁴¹⁾

(‘고대구덕’은 ‘무슬’ 갈 때 제물 해서, 그리 바구니 제물 해서 채롱 들여 넣고 지고 다니는 거. ‘고대구덕’에 떡 해서 지고 갑니다. 떡 해서. 동그란 떡, 도래떡. 흰쌀 같아다가.)



<사진 52> 부윤순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53> 김복순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52>는 가시리 부윤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고대구덕’이다. 부 씨는 비싼 값을 치르고 산 ‘고대구덕’을 평소 아꼈다가 당에 갈 때 사용했다고 한다. 흰쌀로 만든 제물 ‘돌레떡’을 넣은 ‘차롱’을 ‘고대구덕’ 안에 넣고 당까지 지고 간 것이다. <사진 53>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용했던 ‘고대구덕’이다. 김 씨는 친척이나 이웃이 장례를 치를 때 ‘고대구덕’에 제물을 넣어 갔다고 한다.

40)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41)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저것도 고대구덕. 우리 할망이 그걸 좋아하는데. 편칙해도 오래됐어. 우리 할망이 관리를 잘해여.”⁴²⁾

(저것도 고대구덕. 우리 할머니(아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멀쩡해도 오래됐어. 우리 할머니(아내)가 관리를 잘해.)

“원래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오십 년 넘은 거예요.”⁴³⁾

(원래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 오십 년 넘은 거예요.)



<사진 54> 김은두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55> 부대옥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54>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대구덕’이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의 아내가 특히 아꼈던 것이라고 한다. 잘 관리한 덕분에 모양이나 색깔 등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사진 55>는 토산리 부대옥 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대구덕’으로, 부 씨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거 그는대바구리, 그는대구덕. 구덕이엔 하영 곤주. 옛날 말로 구덕. 야, 구덕 가져오라. 아이고, 저것도 오래 뛰실걸. 한 오십 년 됐어. 겐디 니스 칠하고 가만히 걸어 노니까. 이거는 잔치집에, 친척 집에 잔치집에 갈 때 부지. 쌀 한 말 넣고 저것에 놔서 지고 가거든, 부지. 당에도 갖고 가.”⁴⁴⁾

(저거 ‘그는대바구리’, ‘그는대구덕’. ‘구덕’이라고 많이 말하지. 옛날 말로 ‘구덕’. 야, 바구니 가지고 와라. 아이고, 저것도 오래 되었을걸. 한 오십 년 됐어. 그런데 니스 칠하고 가만히 걸어 놓으니까. 이거는 잔치집에, 친척 집에 잔치집에 갈 때 부조. 쌀 한 말 넣고 저것에 넣어서 지고 가거든, 부조. 당에도 갖고 가.)

42) 가시리 김은두 씨 구슬.

43) 토산리 부대옥 씨 구슬.

44) 표선리 고경만 씨 구슬.

“그거 『고는대바구리』, 이거 옛날 그 부지 다닐 때 어디 동네나. 여자 살림 아니파게?”⁴⁵⁾
(그거 ‘『고는대바구리』’, 이거 옛날 그 부조 다닐 때 어디 동네나. 여자 살림 아닙니까?)

“『고대구덕』. 옛날 거 저 부지, 어디 큰일 밖디 부지 가쟁 허면. 이건 『고대구덕』.”⁴⁶⁾
(『고대구덕』. 옛날 거 저 부조, 어디 큰일 난 데 부조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건 ‘『고대구덕』’)

“이거 옛날 저 어디 사람이 죽었, 저 죽어근에 부주 아정 갈 때 부주 넣 여인네들이 이 옆동에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이것이 저 뭐 『부주구덕』.”⁴⁷⁾

(이거 옛날 저 어디 사람이 죽어서, 저 죽어서 부조 가지고 갈 때 부조 넣고 여인네들이 이 옆에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이것이 저 뭐 ‘『부주구덕』’)



<사진 56> 고경만 씨 소장 ‘『고는대구덕』’



<사진 57> 송필수 씨 소장 ‘『고는대바구리』’



<사진 58> 김창호 · 한영선 씨 소장 ‘『부주구덕』’



<사진 59> 김창호 · 한영선 씨 소장 ‘『부주구덕』’

45) 하천리 송필수 씨 구슬.

46) 세화리 한영선 씨 구슬.

47) 세화리 김창호 씨 구슬.

<사진 56>은 표선리 고경만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꼰는대구덕’이다. 고 씨의 말에 따르면 이 바구니를 ‘꼰는대바구리’이라고도 하고, ‘꼰는대구덕’으로도 부르는데, ‘꼰는대구덕’을 더 많이 쓴다고 한다. <사진 56>의 ‘꼰는대구덕’은 오십여 년 전 고 씨가 장만한 것으로, 지금은 니스 칠을 한 후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한다. 고 씨 역시 잔치 또는 제사에 가거나 당에 갈 때 제물을 넣고 다녔던 것이다. <사진 57>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꼰는대바구리’다. <사진 58>은 세화리 김창효 · 한영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부주구덕’이다. 같은 구덕을 가리키면서 한 씨는 ‘꼰대구덕’이라고 하는데, 김 씨는 ‘부주구덕’이라고 불렀다. ‘부주구덕’이라 부르는 이유는 상을 치르는 곳에 갈 때, 여인들이 부조를 넣어 지고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아내 한 씨의 말에 따르면, 테두리에 줄을 묶어 표시해 둔 <사진 59>가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것이고, 약간 어두운 색을 띠며 바닥에 구멍 난 <사진 58>은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아이고, 이 구덕 앗앙 폐선이 장에 얼마나 뎅겨, 나가. 저디 혼나 더 잊주게. 계난 이거 문 바위 문 열그멍, 고대구덕. 어디 동네, 지금은 돈 부주 허주만은 옛날에 쌀 부주허난 이것에 쌀 담양 지곡 허영 잔치 먹으려 가곡. (잔치 때 부주를) 혼 말, 관대로 네 개, 웬당 침이. 동네 사람 현 땐 닷 뛰. 두 뛰, 저 관ಡ로 두 개.”⁴⁸⁾

(아이고, 이 구덕 가지고 표선리 장에 얼마나 다녀, 내가. 저기에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이거 모두 테두리 전부 얹으면서, ‘꼰대구덕’. 어디 동네, 지금은 돈 부조 하지만 옛날에 쌀 부조하니까 이것에 쌀 담아서 지고 해서 잔치 먹으려 가고. (잔치 때 부조를) 한 말, 관대로 네 개, 친척 집에. 동네 사람 할 때는 닷 되. 두 되, 저 관대로 두 개.)

“꼰대구덕으로 옛날에 문 제사해 먹젤 허민 쌀도 건지곡 뭐 어디 갈 땐 무시거 강 사근에 정도 오곡 경해주게. 당에 갈 때도 아경 가곡. 부지헐 때도 가경 가곡.”⁴⁹⁾

(‘꼰대구덕’으로 옛날에는 모두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쌀도 건지고 뭐 어디 갈 땐 뭐 가서 사서 지고 오고 그랬었지. 당에 갈 때도 가지고 가고. 부조할 때고 가지고 가고.)

48)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49) 표선리 오남행 씨 구술.



<사진 60> 오봉순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61> 오남행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60>은 토산리 오봉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대구덕’이다. 오봉순 씨는 <사진 60>의 ‘고대구덕’을 지고 장에 수없이 많이 다녔다고 한다. 오 씨 역시 친척이나 이웃집에 잔치나 상을 치를 때 ‘고대구덕’에 쌀을 담아가 부조를 대신했다고 한다. 오 씨의 말로는, 잔치 때는 한 말 부조를 하는데 이는 관대로 네 개에 해당한다고 한다.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부조할 때는 작은 되로는 다섯 되 큰 되로는 두 되를 하고, 제삿집의 경우는 쌀 두 되에 생선도 준비했다고 한다. 특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돈집에 부조할 때는 보리쌀이 아닌 흰쌀 한 말을 준비해 갔다고 한다. 또 ‘고대구덕’은 가사나 노동할 때가 아닌, 외출 시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사용했던 것으로, 다른 구덕들에 비해 훨씬 비쌌다고 한다. <사진 61>은 표선리 오남행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대구덕’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오 씨의 오빠 오행선 씨가 결은 것이다. 오 씨 역시 제삿집이나 조문을 갈 때, 또는 당에 갈 때 ‘고대구덕’을 사용했다고 하며 또 장에 갈 때도 사용했다고 한다.

“경 안허민 사돈집이나, 직접 이녁 형제간이나 사돈집이나 일 나면 쌀 한 말, 쌀 한 말 이디 탁 뭐에 싸서 놓고 포따리 톡 싸근에 허영 먼 디는 지고 가고 부든 디는 들렁 강 부지로.”⁵⁰⁾

(그렇지 않으면 사돈집이나, 직접 자기 형제간이나 사돈집이나 일 나면 쌀 한 말, 쌀 한 말 여기 탁 뭐에 싸서 놓고 보따리 톡 싸서 먼 데는 지고 가고 가까운 데는 들고 가 부조로.)

50) 표선리 정여록 씨 구술.

“요거는 관대구덕. 고대구덕인디 여기 제주도 말로 관대구덕, 우리는 촌에서 아이고, 저 관대구덕 앗아오라, 관대구덕. 이 구덕 혼 오십 년 됐주. 산 거. 이거 동네 하르방이 만든 거. 오십 년 됐어.”⁵¹⁾

(요거는 ‘관대구덕’. ‘고대구덕’인데 여기 제주도 말로 ‘관대구덕’, 우리는 촌에서 아이고, 저 ‘관대구덕’ 가져와라, ‘관대구덕’. 이 구덕 한 오십 년 되었지. 산 거. 이거 동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 오십 년 됐어.)



<사진 62> 정여옥 씨 소장 ‘고대구덕’



<사진 63> 송영선 · 강희선 씨 소장 ‘관대구덕’

<사진 62>은 표선리 정여옥 씨가 쓰고 있는 ‘고대구덕’으로 면 곶은 지고 가고 가까운 곳은 들고 가는 외출용으로 썼던 것이다.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는 이런 바구니를 ‘관대구덕’이라고 했다. <사진 63>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가 사용하고 있는 ‘관대구덕’으로, 송 씨가 오십 년 전에 구입했다고 한다.

2.2. 조리 도구

(1) 솟

‘솟’은 ‘솥’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밥을 짓거나 국 따위를 끓이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솟’을 만든 재료에 따라, ‘췌(쇠)’로 만든 솟은 ‘췌솟(쇠솥)’, ‘이모노’로 만든 것은 ‘이모노솟’,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아르미솟’ 또는 ‘아레미솟’으로 구별하여 불렀다. 각 가정에서는 보통 서너 개의 솟을 두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51)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이것들 저, 이 옛날에 다 써난 거지. 거난 저거 두말떼기이, 저기서 숱아내민 밥이 두말떼기 허믄 뭔 말이냐 허믄 두 말이주게, 밥을 헤영, 헤영 두 말. 요건 또 혼 말짜리. 이거 혼 말짜리보단 쪼금 커. 요것들은 존존헌 것들. 저것덜은 웨말떼기영 해, 웨말떼기. 이거 한 칠십 년은 됐어.”⁵²⁾

(이것들 저, 이 옛날에 다 썼던 거지. 그러니까 저거 ‘두말떼기’, 저기서 삶으면 밥이 ‘두말떼기’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말이거든, 밥을 해서, 해서 두 말. 이건 또 한 말짜리. 이거 한 말짜리보다는 조금 커. 이것들은 작은 것들. 저것들은 ‘웨말떼기’라고 해, ‘웨말떼기’. 이거 한 칠십 년은 됐어.)



<사진 64> 한사율 씨 집의 ‘정지’의 ‘무쉐솟’



<사진 65> 송심자 씨 집의 ‘정지’의 ‘무쉐솟’

<사진 64>는 성읍리 한사율 씨 집의 ‘정지(부엌)’를 재현해 놓은 모습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솟’으로 성읍민속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사진 64>의 가장 왼쪽의 큰 ‘솟’이 ‘두말떼기 솟’으로 많은 양의 밥을 지을 때 사용한 것이다. 다음 작은 것이 ‘웨말떼기’로 한 말들이 ‘솟’이다. 대략 70년 정도 된 것들로, 한 씨가 대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사진 65>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무쉐솟’으로, 송 씨가 집 한 쪐에 ‘정지’를 재현해 놓은 것이다.

“솟, 큰 거 두말떼기, 웨말치. 또 그다음에 거 족은 반찬 지져 먹는 동솟, 네 개. 두말떼기 그건 하영 헐 거, 하영 헐 때. 저 밥그튼 거나 무시거라도 하영 사용헐 때 그자 제사 때 그튼 때도 두말떼기에 헹 허곡. 콩 숯을 때도 두말떼기에 헹 허곡. (두 번째 솟은) 그건 그자 웨말치난에, 그자 밥도 헤 먹고. 그 동솟은 족은 건 반찬 지져 먹는 거. (동솟이랑 웨말치 사이에 요거는 뭐 합니까?) 그자 그건 군걸로 헉나 놔두주. 기자 국도 낄려 먹곡게.”⁵³⁾

52)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5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솥, 큰 거 ‘두말떼기’, ‘웨말치’. 또 그다음에 거 작은 반찬 지져서 먹는 옹달솥, 네 개. ‘두말떼기’ 그건 많이 할 거, 많이 할 때. 저 밥같은 거나 뭐라도 많이 사용할 때 그저 제사 때 같은 때도 ‘두말떼기’에 해서 하고. 콩 삶을 때도 ‘두말떼기’에 해서 하고. (두 번째 솟은) 그건 그저 ‘웨말치’니까 그저 밥도 해 먹고. 그 옹달솥은 작은 것은 반찬 지져서 먹는 거. (옹달솥이랑 ‘웨말치’ 사이에 요거는 뭐 합니까?) 그저 그건 여분으로 하나 놔두지. 그저 국도 끓여서 먹고.)

표선리 박봉화 씨의 구슬에 따르면, 가장 큰 솟인 두 말들이 ‘두말떼기’는 제사 때와 같이 많은 양의 밥을 지을 때나 콩을 삶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다음 크기의 솟인 한 말들이 ‘웨말치’는 평소 밥을 짓는데 사용하고, 다음 크기의 솟은 반찬을 만드는 용도로 설명했다. 그다음 크기의 솟은 여분으로 둔 것으로, 국을 끓이는 등의 용도로 쓴 것이라고 한다.



<사진 66> 송필수 씨 집 ‘정지’의 ‘솟’



<사진 67> 김일출 씨 집의 ‘정지’에 ‘솟’이 놓였던
아궁이 모습

<사진 66>은 하천리 송필수 씨 집의 ‘정지’에 놓여 있는 ‘아르미 솟’이다. 지금도 사용 중인 ‘솟’들로 검게 그을린 아궁이를 통해 불을 지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67>은 가시리 김일출 씨 집 ‘정지’의 모습이다. ‘솟’을 올려 놓았던 아궁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젠 솟을 아니 쓰게 뛰니까, 전기밥솥 허고 쓸모 엇이난 저거 흔 십 년 저디 내벳주. 밥허고, 그거 고사리도 꺼꺼오민 것에 속고. 저건 저 거시기 남으로 불 땔 때 써난 거.”⁵⁴⁾

(그 이제는 솟을 안 쓰게 되니까, 전기밥솥 하고 쓸모 없으니까 저거 한 십 년 저 곳에 내버려 뒀지. 밥하고, 그거 고사리 꺼어 오면 그것에서 삶고. 저거 저 거시기 나무로 불 땔 때 썼던 거.)

54) 성읍리 송절자 씨 구슬.



<사진 68> 송절자 씨 소장 '솟'



<사진 69> 김인배 씨 소장 '솟'



<사진 70> 부윤순 씨 소장 '솟'



<사진 71> 강성종 씨 소장 '솟'

<사진 68>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솟'이고, <사진 69>는 가시리 김인배 씨, <사진 71>은 가시리 부윤순 씨, <사진 71>은 가시리 강성종 씨(193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솟'이다.

한편, 제보자들에게 '솟'은 없지만 솥뚜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많았다. 솥뚜껑들은 실외 창고에 보관하거나 항아리 뚜껑으로 쓰고 있어 대부분 녹이 슬어 있었다.



<사진 72> 송정자 씨 소장 '솟뚜껑'



<사진 73>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솟뚜껑'



<사진 74> 김일출 씨 소장 '솥뚜껑'



<사진 75> 송절자 씨 소장 '솥뚜껑'



<사진 76> 김일출 씨 소장 '솥뚜껑'



<사진 77> 송절자 씨 소장 '솥뚜껑'

<사진 72>는 성읍리 송정자 씨가 항아리 덮개로 사용하고 있는 솥뚜껑이다. <사진 73>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사진 74>는 가시리 김일출 씨, <사진 75>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솥뚜껑이다. 그리고 <사진 76>은 가시리 김일출 씨, <사진 77>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솥뚜껑이다.

(2) 시리

‘시리’는 표준어의 ‘시루’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떡을 찔 때 쓰는 조리도구다. 제사나 명절 등 의례를 중시했던 과거에는 떡을 직접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시루를 갖추어 두고 사용했었다. 과거에는 검은 질흙으로 만든 ‘지세시리’를 주로 사용했으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그릇들이 보급된 이후에는 쓰기 편한 알루미늄 시루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었다. ‘지세’는 ‘기와’의 제주어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에 따라서 시루의 크기도 달랐으며 시루의 크기와 제작자 등에 따라 ‘시릿고망’도 달랐다.

‘시릿고망’은 시루 바닥의 구멍을 말한다.

“시리 있어. 조글락한 거, 요만이한 거. 하도 오래부난 메끼가 다 벗어진 거 저디 잇주. 빤다라기 엇인 거.”⁵⁵⁾

(시리 있어. 자그마한 거, 요만큼한 거. 너무 오래니까 칠이 다 벗겨진 거 저기 있지. 볼품 없는 거.)

“두 뛰 들어. 이거 이십 년도 넘었어. 떡 행 제사도 지내고. 시리떡, 문친떡.”⁵⁶⁾

(두 되 들어. 이거 이십 년도 넘었어. 떡 해서 제사도 지내고. 시루떡, ‘문친떡’.)

“이건 친정어머니가 준 거. 거 질그릇이주게. 검은굴에서 만든 거, 검은굴에서. 저 불그스름한 향은 노랑굴에서 만든 거고. 이건 검은굴에서 만든 거.”⁵⁷⁾

(이건 친정어머니가 준 거. 그거 질그릇이거든. 검은굴에서 만든 거, 검은굴에서. 저 불그스름한 향은 노랑굴에서 만든 거고. 이건 검은굴에서 만든 거.)



<사진 78> 송절자 씨 소장 ‘시리’



<사진 79> 송절자 씨 소장 ‘시리’(아래)

55)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56)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57)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80> 송심자 씨 소장 ‘시리’



<사진 81> 송심자 씨 소장 ‘시리’(아래)

<사진 78>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지세시리’다. 송 씨가 제사를 지낼 때 ‘시리떡’이나 ‘문친떡’을 찌는 용도로 썼던 것으로 두 되들이 ‘시리’다. 송 씨의 말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지 이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사진 79>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랫면 가운데에 큰 구멍이 하나 있고 주변에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사진 80>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지세시리’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검은굴에서 구운 것이라고 한다. 사진의 ‘지세시리’ 모두 굴 안에서 그을린 탓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리떡, 그거 행 시리 해근에게 이녀 집이 시리 행 사 놔근에 그루 해근에 칭칭이 시리 고물 허끄멍 해영 솟디 앗져근에 김 솟지 안녀개. 앰에 솟 바위, 시리광 솟 바위광 똑 맞게시리 해영 밀가루 반죽 만들아근에 뻥 허게 군집 나오지 말게. 뻥 허게, 그거 불랑이. 경혜근에 떡 쳐네주게.”⁵⁸⁾

(시루떡, 그거 해서 시루 해서 자기 집에 시루 해서 사 놓아서 가루 해서 층층이 시루 고물 섞으면서 해서 솔에 안쳐서 김 솟지 않게. 옆에 솔 가장자리, 시루와 솔 가장자리와 꼭 맞게끔 밀가루 반죽 만들어서 뻥 하게 김 나오지 않게. 뻥 하게, 그거 발라서. 그래서 떡 짜내지.)

“(시리) 이서난에 해 허단 방앗간에 강 혜 오라지난에 내부난 대음혜전 요디 꽃화분 행 헐어 분 츄례주. 굽만 이실 거라. 시리도이 혼 말 들이 잇고. 닷 뛰엔 헌 건 두 뛰, 두 뛰들이도 잇곡. 큰 걸로 허민 거시기 혼 말 시리. 혼 말 시리 큰 거 잇고 거시기 닷 뛰 시린 죽은 거. 우리 이제 헐어 분 거 닷 뛰 시리주. 겨우 우리 또 그거 썽 헨 허는디 그루후엔 또 족게시리 혜 가난 그땐 양철로 만든 거 혼 뛰 시리 해영 걸로 허곡. 그거 시리에 치젠 허민이 시리 꼬냥에 배추 이파리 꼬나 또 무 얇게 썰어근에 그 시리 꼬냥에 꼬나 해근에 담아 놔근에, 겐 담아 놔근에 저 솟 그 시리에 맞은 시리 또 잇주.”

58)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시리에 맞은 솟, 웨말치 중말치 동솟 경혜근에 솟을 잊어근에 헹 허민 두말떼기 그다음엔 웨말치 그 다음에 거, 또 동솟 경혜근에 허주게. 또 그것에서 시리 맞은 솟이 있주. 허민 앗져근에 저 그루, 그루 꿔어근에이. 게고제고 밀그루 그걸 물렁물렁하게 꿔어근에 시리광 솟광 영 앗져근에 트명 난디 벵허게 그 떡 문 걸로 막주게. 군기, 글로 공기 나오지 못허게. 공기 나오지 못허게 경행 막아근에 우이 솟뚜껑이 더껑 경행 치는 거. 경 허는 거 옛날에는. 게난 이젠 시리가 안 허난에. 양철 좋으난에 방앗간에 강 보민 군기 막는디는 몰라. 경행 경 쳐 내영. 게난 집집마다 제사 해 먹고 허난 옛날에 시리덜은 다 잊어낫주게. 집집마다 다 잊어낫어.”⁵⁹⁾

(시루 있어서 오래 하다가 방앗간에 가서 해서 오게 되니까 내버리니까 신경을 못 써서 화분으로 해서 헐어 버렸지. 굽만 있을 거야. 시루도 한 말 들이가 있고, 닷 되라고 하는 거는 두 되, 두 되 들이도 있고. 큰 것으로 하면 그것이 한 말 시루. 한 말 시루 큰 것이 있고 거시기 닷 되 시루는 작은 거. 우리 이제 헐어 버린 것이 닷 되 시루지. 그리고 우리 또 그거 쓰고 하는데 그 후에는 또 작게끔 해 가니까 그때는 양철로 만든 거 한 되 시루를 사다가 그걸로 하고. 그거 시루에서 찌려고 하면 시리 구멍에 배추 잎사귀를 깔거나 또 무를 얇게 썰어서 그 시리 구멍에 깔거나 해서 담아 놓고, 그리고 담아 놓고는 저 솔 그 시리에 맞는 시리가 또 있지. 시리에 맞는 솔, ‘웨말치’, ‘중말치’, ‘동솟’ 그렇게 해서 솔을 있어서 하면 ‘두말떼기’ 그다음에 ‘웨말치’, 그다음에 거, 또 ‘동솟’ 그렇게 하지. 또 그것에서 시루에 맞는 솔이 있지. 그러면 안쳐서 저 가루, 가루 반죽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말가루 그거를 물렁물렁하게 반죽해서 시리랑 솔 이렇게 안쳐서 틈이 난 데 둉글게 그 떡 반죽한 거로 막지. 김, 거기로 공기 나오지 못하게. 공기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서 위에 솟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찌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시리 쓰지 않으니. 양철이 좋으니까 방앗간에 가서 보면 증기 막는지는 몰라. 그렇게 짜내. 그러니 집집마다 제사 해 먹고 하니까 옛날에 시리들은 다 있었었지. 집집마다 모두 있었어.)

“(옛날 술 허는 거 보면) 술 헐 때도 시리에. 쌀 물 커근에이.”⁶⁰⁾

((옛날 술 하는 거 보면) 술 할 때도 시리에. 쌀 물에 담가 가지고.)

“것도 요새 것. 옛날 건 엊어. 다 깨져 불고.”⁶¹⁾

(그것도 요즘 거. 옛날 거는 없어. 다 깨져 버리고.)

5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0)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1) 하천리 강운평 씨 구술.



<사진 82> 박봉화 씨 소장 '지세시리'



<사진 83> 강윤평 씨 소장 '시리'

<사진 82>는 표선리 박봉화 씨가 소장하고 있는 닷 되들이 ‘지세시리’다. 지금은 흙을 채워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제사나 명절 등 큰일을 치를 때 반드시 시루떡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 시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방앗간이 생기고, 또 양철로 만든 ‘시리’가 보급되자 점차 <사진 82>와 같은 ‘지세시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지세시리’로 ‘시리떡’을 찔 때, 솔 위에 시리를 올려놓고 김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밀가루 반죽으로 틈새를 메웠다고 한다. <사진 83>은 하천리 강윤평 씨(1934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시리’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쓰던 것은 깨지고 없고 양철로 만든 <사진 83>만 남아있다고 한다. 양철로 만든 ‘시리’도 가운데 구멍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남도고리

‘남도고리’는 나무를 파서 만든 그릇을 말한다. 여기서 ‘남’은 표준어 ‘나무’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며, ‘도고리’는 크고 넓은 그릇을 일컫는 ‘함지박’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남도고리’는 통나무를 잘라 가운데를 넓게 파서 만드는데 제사나 명절에 떡을 반죽할 때나 음식을 빼무릴 때 쓰기도 하고, 밥 등을 떠놓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낭도고리’라고도 부른다.



<사진 84> 송심자 씨 소장 ‘남도고리’



<사진 85> ‘남도고리’에서 풋감을 빻는
송심자 씨의 모습

<사진 8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도고리’이다. <사진 85>는 감물을 들일 ‘풋감’을 ‘남도고리’에 넣고 빻고 있는 송 씨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송 씨가 입고 있는 옷과 모자 모두 감물을 들인 천으로 만든 것이다.

“(감물들이젠 허민) 감 땅 왕, 저 옛날엔 저 남도고리가 잇주. 남도고리 큰 거. 그자 다라 닳은 거이 나무로 만든 다라가 잇주게. 경허난 남도고리에서 마께로 뺏아. 막 뺏아근에. 그래 낳 막 치대는 거라. 게믄 그 물이 그 천에 옮겨졌던 감 드는 거주게.”⁶²⁾

((감물들이려고 하면) 감 따고 와서, 저 옛날에는 저 함지박이 있지. 함지박 큰 거 그저 대야 같은 거 나무로 만든 대야가 있지. 그러니까 함지박에서 방망이로 뺏아. 마구 빻아서. 그리 넣어서 마구 치대는 거야. 그럼 그 물이 그 천에 옮겨져서 감물 드는 거지.)

“남도고리로 세상 거 다 허주. 마께, 마께 나무 요만인현 마께로 찍어근에 그것에 떡도 찍고 옛날엔 콜감, 콜감 타근에 그것에 빼져근에 옷에, 이거 콜감 딴에 다 들인 거주게. 이 마을은 이게 행사할 때도 전통옷이라.”⁶³⁾

(함지박으로 세상 것 다 하지. 방망이, 방망이 나무 요만한 방망이로 찍어서 그것에 떡도 찍고 옛날에는 떫은 감, 떫은 감 따서 그것에 빻아서 옷에, 이거 떫은 감 따서 다 (물)들인 거지. 이 마을은 이게 행사할 때도 전통옷이야.)

6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3)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우리 떡 헐 때 뛰난 다라가 나완. 우린 남도고리 안 사용햇어.”⁶⁴⁾

(우리 떡 할 때 되니까 대야가 나왔지. 우리는 함지박 사용 안 했어.)

표선리의 박봉화 씨, 성읍리 송절자 씨 모두 ‘남도고리’를 감을 빻아 천에 감물을 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로 소개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떡 반죽을 할 때도 ‘남도고리’를 사용했는데, 박 씨가 성인인 된 후에는 ‘남도고리’ 대신 ‘다라’를 썼다고 한다. 박 씨 어머니 세대가 ‘남도고리’를 주로 사용했고, 박 씨 세대로 와서는 ‘스테인리스 다라’나 ‘이모노 다라’, ‘고무 다라’ 등을 사용하는 식생활 도구의 변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고소리

‘고소리’는 표준어의 ‘소줏고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를 말한다. 질흙으로 구운 두 개의 항아리를 위아래로 맞댄 것으로, 가운데가 잘록하고 한쪽에는 술이 나오는 주동이가 달려 있다. ‘고소리’는 시루처럼 솔 위에 얹혀 사용하는데, ‘고소리’ 밑의 솔에서 끓는 증기가 ‘고소리’ 윗부분의 찬 곳에 닿아 냉각되면서 술이 되어 가운데 주동이를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를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쓸 물 커근에이 쓸 조눌민 시리에 앗져근에 치엉, 쳐내여근에 누룩, 누룩 헤근에 뻣아근에 거에 서껑 항아리에 담양 경행 술 담주게. 경행 담으민 며칠 뛰 가믄 왈탕 왈탕 왈탕 막 궤어근에, 왈탕 왈탕 왈탕 막 궤영 막걸리 뛰엉, 경혜근에 저 막걸리로 그냥 먹는 사람은 그추룩 헹 걸로 그냥 막걸리로 먹곡, 그걸 소주그치 빠근에 먹는 건 옛날에 고소리술이엔 헤근에 솟 영현 거 앗져근에. 것에서 졸졸 떨어지게 빠내여근에, 고소리를 앗경 경혜근에 허민 기름집이 기름 짜내듯이 글로 톡, 톡, 톡, 톡 털어져근에 나오랑 소주 다까네영 옛날에 경혜낫주게.”⁶⁵⁾

(쌀 물에 담가서 쌀 무르면 시루에 안쳐서 짜, 짜내서 누룩, 누룩 해서 빻아서 그거에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렇게 술 담그지. 그래서 그렇게 담그면 며칠 돼 가면 ‘왈탕 왈탕 왈탕’ 마구 괴어서, ‘왈탕 왈탕 왈탕’ 마구 괴어서 막걸리 돼서, 그래서 저 막걸리로 그냥 먹는 사람은 그처럼 해서 그걸로 그냥 막걸리로 먹고, 그걸 소주같이 빠서 먹는 건 옛날에 ‘고소리술’이라고 해서. 솔 이런 거 안쳐서. 그것에서 졸졸 떨어지게 빠내서. 소줏고리를 안쳐서 그래서 하면 기름집의 기름 짜내듯이 그리로 톡, 톡, 톡, 톡 떨어져서 나와서 소주 닦아서 옛날에 그랬었어.)

64)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5)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표선리 박봉화 씨의 구술에 따르면, 술을 뽑을 때는 쌀을 물에 담가 불린 후, 시루에 안쳐서 찐다고 한다. 이후 누룩을 빻아 함께 섞은 후 ‘고소리’에 안쳐 술을 담근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누룩이 발효되고, 발효된 상태의 탁한 채로 마시는 술이 막걸리인데 이를 증류시켜 한 방울씩 모은 맑은 상태의 술이 ‘고소리술’이라고 한다.

(5) 둠베와 칼

‘돔베’는 ‘칼’로 음식의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 밑에 받치는 도마를 말한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돔베’는 크기가 작지만, 큰일을 치를 때는 1m가 넘는 큰 ‘돔베’를 사용했다. ‘돔베’에서는 반죽한 떡을 밀기도 하고 고기를 썰기도 했다.

“이건, 이건 내가 맨든 거야. 한 사십 년 됐나? 적 할 때. 고기 적 할 때 내가 허주. 마루에서 적 허고. 큰일 할 때도 썻지.”⁶⁶⁾

(이거는, 이거는 내가 만든 거야. 한 사십 년 되었나? 적 할 때. 고기 적 할 때 내가 하지. 마루에서 적 하고. 큰일 할 때도 썼지.)



<사진 86> 김천종 씨 소장 ‘돔베’



<사진 87> 김천종 씨 소장 ‘돔베’(아래)

<사진 86>은 세화리 김천종 씨(1936년생)가 사용하던 도마로, 김 씨가 직접 만든 것이다. 도마의 크기는 가로 68cm, 세로 27cm, 높이 13cm에 해당한다. 김 씨는 음식을 할 때의 ‘돔베’와 옷을 다듬이질 하는 ‘다듬이 돔베’를 따로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86>의 도마는 제사나 명절 등 큰일을 치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주로 고기를 썰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87>에서 보듯이 ‘돔베’의 다리를 반듯하게 깎아 수평을 잘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66)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돔베엔 헌 건 뭔고 허니 거기서 고기도 썰곡, 채소도 썰곡, 거길 걸쳐야 음식을 만들양 먹어. 큰일 때에, 결혼할 때나 사람이 죽으면 초상, 소대상 혈 때랑 그것에서. 도감이라고 잇었어, 옛날에. 고기 써는 사름그라 도감이에 헤여. 그런 분덜 이렇게 빌려다가 이런 디서 썰엉 손님덜 대접했잖아. 큰 돔베. 거기 못 허는 것이 엊어. 저 칼국수 행 이렇게 물앙 이렇게 썰어근에, 다양하게. 거 만든 거주게. 이거는 우리 하르버지가 옛날, 이거 한 칠십 년 뒤실 거야. 나가 컨 보난 잇이난게.”⁶⁷⁾

(‘돔베’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 하니 거기서 고기도 썰고, 채소도 썰고, 거길 거쳐야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 큰일 때에, 결혼할 때나 사람이 죽으면 초상, 소대상 할 때나 그것에서. ‘도감’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고기 써는 사람보고 ‘도감’이라고 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런 데서 썰어서 손님들 대접했잖아. 큰 ‘돔베’: 거기 못 하는 것이 없어. 저 칼국수 해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썰어서, 다양하게. 그거 만든 거거든.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이거 한 칠십 년 됐을 거야. 내가 커서 보니 있었으니까.)



<사진 88> 김창효 씨 소장 ‘돔베’



<사진 89> 김창효 씨 소장 ‘돔베’(아래)

<사진 88>은 세화리 김창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돔베’로 김 씨의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 돔베의 크기는 가로 74cm, 세로 31cm, 높이 12cm다. <사진 88>의 도마를 물려받은 김 씨는 집에서 큰일을 치를 때 이 도마를 사용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결혼이나 장례에 찾아온 손님에게 얇고 넓적하게 썬 삶은 돼지고기를 대접한다. 이때 고기를 전문적으로 써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하는데, 이 ‘돔베’를 사용하여 고기를 썰었다. 김 씨는 칼국수 반죽을 썰거나 떡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의 칼질로 ‘돔베’ 윗부분이 움푹하게 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진 89>에서 보듯이 ‘돔베’의 다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낸 것을 볼 수 있다.

67)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아이고, 저것도 거자 삼십 년 됐신디. 우리 집 아방 살 때 우리 큰 딸 풀 때 저거 헨 썰어나신디 고기. 저거 아들 세 명에, 집이서 전부 다 헷주게. 식당에서 안 해연 집에서만 허난. 네 명, 너오누이 다 풀안. 만든 거. 우리 집이 아방 목시난 만들안. 낭 해당.”⁶⁸⁾

(아이고, 저것도 거의 삼십 년 되는데. 우리 집 아방(남편) 살았을 때 우리 큰 딸 시집보낼 때 저거 해서 썰었는데, 고기. 저거 아들 세 명에, 집에서 전부 다 (잔치)했거든. 식당에서 안 하고 집에서만 하니까. 네 명, 네 오누이 다 결혼시켰어. 만든 거. 우리 집 아버지(남편)가 목수니까. 목수니까 만들었어. 나무 해다가.)



<사진 90> 홍순이 씨 소장 ‘돌베’

<사진 90>은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베’다. ‘돌베’ 가로의 길이가 67cm나 된다. 목수였던 홍 씨의 남편이 직접 만든 ‘돌베’로, 집안 잔치나 제사 등 집안의 큰일을 치를 때 돼지고기를 써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홍 씨는 자녀 네 명의 결혼잔치를 모두 집에서 치렀는데 그때마다 <사진 90>의 ‘돌베’를 사용했다고 한다.

“저 무시거리 떡 허는 돌벤 그자 가정에 쓰는 돌베로 주로 허주게. (고기 써는 돌베) 것도 돌베. 큰 거, 그 빨래 두드리는 돌베닮은 큰 거. 그치는 안 쓰주게. 고기 쓰는 돌베 뜨로 잇곡. 옷 두드리는 돌베 뜨로 잇곡.”⁶⁹⁾

(저 무엇이니 떡 하는 도마는 그저 가정에 쓰는 도마로 주로 하지. (고기 써는 ‘돌베’) 그것도 도마. 큰 거, 그 빨래 두드리는 도마같은 큰 거. 같이는 안 쓰지. 고기 쓰는 도마 따로 있고. 옷 두드리는 도마 따로 있고.)

한편, 표선리 박봉화 씨 역시 고기를 써는 등의 식생활 ‘돌베’와 옷감을 두드리는 ‘다듬이 돌베’는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한다.

“저거, 저거는 칼. 칼 뭐 썰 때. 다양하게시리게.”⁷⁰⁾

(저거, 저거는 칼. 칼 뭐 썰 때. 다양하게.)

68)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6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70)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칼 있어. 도세기 잡앙 (자식) 풀 때.”⁷¹⁾

(칼 있어. 돼지 잡아서 (자식) 결혼시킬 때.)



<사진 91> 김창효 씨 소장 ‘칼’



<사진 92> 김복순 씨 소장 ‘칼’

<사진 91>은 세화리 김창효 씨가 소장하고 있는 ‘칼’이고, <사진 92>은 가시리 김복순 씨(1934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칼’이다. <사진 91>의 ‘칼’은 김 씨가 자녀들의 결혼 준비로 돼지를 잡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르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각 집에서 결혼잔치를 열어 축하 손님을 맞았다.



<사진 93> 김일출 씨 소장 ‘칼’



<사진 94> 김일출 씨가 호박을 써는 모습

<사진 93>은 가시리 김일출 씨가 소장하고 있는 ‘칼’로, <사진 94>에서 보듯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오랜 시간 칼날을 갈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날의 길이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1)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6) 밥자

‘밥자’는 밥을 푸는 데 쓰는 ‘밥주걱’을 말한다. 과거 제주에서는 밥을 따로 담지 않고 한꺼번에 담아 같이 먹었는데, 그때 많은 양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주걱이 바로 ‘밥자’였다. ‘밥자’는 나무나 놋쇠, 플라스틱 따위로 만드는데, 그 재료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낭밥자’, ‘놋쇠’로 만든 것을 ‘놋밥자’라 부른다.

“이거 췄밥자. 요거는 스템밥자, 스템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 우리 산 거. 우리 살령 살 때 사난에, 우리 아덜이 이제 쉰 95답인가? 흔 육십 년 넘은 거주. 그때는 표선 장에, 이것도 표선 장에서 사곡. 흔 10년, 이거 안 쓰건 디가. 요거 이신디 제사 때는 좀 깨끗한 걸로, 우리가 제사 흔 번 잊주게. 계난 요걸로 허곡 저건 그자 저 우리가 밥혜근에 먹는 거. 스템은, 새로 나온 스템은 관리하기가 그렇게 편안해. 경행 교체한 거라. 저거는이 쓰다가 뭐 하민 다까근에. 저거는 뭘로 따끄느냐 하면은이, 요새는 따끄는 거 나왔지만은 그때는 산디침 혜근에 재 혜근에 재 무쳐근에 막 다까근에 빙직 빙직 빙직. 거난 안 썬 그자 돌아맹 내부난 영 녹슬은 거.”⁷²⁾

(이거 쇠밥자. 이거는 스테인리스 밥자,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니까. 이거 우리 산 거야. 살림할 때 샀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쉰여덟인가? 한 육십 년 넘은 거지. 그때는 표선 장에, 이것도 표선 장에서 사고. 한 10년, 이거 안 쓴 지가. 이거 있는데 제사 때는 좀 깨끗한 걸로, 우리가 제사 한 번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하고 저건 그저 저 우리가 밥해서 먹는 거. 스테인리스는, 새로 나온 스테인리스는 관리하기가 그렇게 편해. 그래서 교체한 거라. 저거는 쓰다가 뭐 하면 닦아서. 저거는 무엇으로 닦느냐 하면은, 요새는 닦는 거 나왔지만 그때는 밭벗짚 해서 재 해서 재 물혀서 마구 닦아서 반짝 반짝 반짝. 그러니까 안 쓰고 그저 매달아 뒀더니 이렇게 녹슨 거.)



<사진 95>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놋밥자’



<사진 96>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췌밥자’

72)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사진 95>와 <사진 96>은 하천리 송영선·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자’와 ‘췌밥자’다. 송 씨 부부가 살림을 막 시작할 때 직접 표선 장에 가서 사온 것이다. 송 씨 부부는 평상시에는 오래된 ‘놋밥자’를 쓰고, 제사 때에 깨끗한 것으로 쓰기 위해 ‘스테인리스 밥자’를 새로 구입하여 썼다고 한다.

“우리 어릴 때부턴 물려온 거. 우리 어린 때부터 쓰든 거, 어머니 전에부턴 할머니 전부터. 우리 한 고등학교 때까지 썼던 거우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후로 나도 시에 시집갈 시에 강 살아 볼곡 헤부난 그담부턴 어떻 됐는지 몰르지 뭐. 밥통 나와 부난 밥통 그릇 그 밥자 나옵니까. 그거 써 부난 게난 안 썬. 나가 근데 이거 치우당 보난 잇길래 저거 기억했 놔 뒷주게이. 보리밥 헤영 먹을 때 그거 써낫주게.”⁷³⁾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물린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 어머니 전에부터 할머니 전부터. 우리 한 고등학교 때까지 썼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후로 나도 시내에 시집가서, 시내에 가서 살아 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 뭐. 밥솥 나오니까 밥통 그릇 그 밥자 나오잖아요. 그거 써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썼어. 내가 근데 이거 치우다 보니 있길래 저거 기억해 뒀지. 보리밥 해서 먹을 때 그거 썼었어.)



<사진 97> 김옥 씨 소장 ‘놋밥자’



<사진 98> 현순화 씨 소장 ‘놋밥자’

73) 세화리 김옥 씨 구술.



<사진 99> 한사율 씨 소장 ‘놋밥자’



<사진 100> 부윤순 씨 소장 ‘놋밥자’

<사진 97>은 세화리 김양선 씨의 딸 김옥 씨(196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자’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 김양선 씨도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김 씨가 고등학생 무렵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전기밥솥과 함께 보급된 플라스틱 밥자를 쓰면서 ‘놋밥자’는 보관만 하고 있다. <사진 98>은 표선리 현순화 씨(1926년생)가, <사진 99>는 성읍리 한사율 씨, <사진 100>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밥자’다. 놋으로 된 식기는 닦을수록 빛을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놋이 산화되어 점차 검은색은 띠게 된다. 사진의 ‘놋밥자’들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 검게 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국자

‘국자’는 국이나 국물을 뜨는 데 쓰는 도구로 ‘남국자’는 나무로 만든 국자를 말한다. 국물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통나무의 한쪽을 옴쪽하게 파고, 또 국물을 퍼내기 쉽도록 수직으로 긴 자루가 달려 있다.

“남국자. 저거 나무로 만든 거냔. 이거는 장에 강 사와져실 거라. 산 거.”⁷⁴⁾

(나무국자. 저거 나무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장에 가서 사왔을 거야. 산 거야.)

74)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101>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남국자'



<사진 102> 한사울 씨 소장 '국자'

<사진 101>는 송영선 · 강희숙 씨 집에서 사용했던 '남국자'다. 국을 뜨거나 죽을 뜰 때 사용했던 것으로, 송 씨의 아내인 강희숙 씨가 직접 장에 가서 사왔다고 한다. 송영선씨는 표준어 '나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낭'이지만, 하천리에서는 '남국자'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102>는 성읍리 한사울 씨가 소장하고 있는 '남국자'다. 나무로 만든 것이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국물을 뜨는 둑근 부분이 울퉁불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03> 송심자 씨 소장 '남국자'

<사진 103>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는 '남국자'로, 오랫동안 사용한 탓에 손잡이 부분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엔 옛날엔 쇠국자가 엊엇수궤. 아주 옛날엔.”⁷⁵⁾

(옛날에는 옛날에는 쇠국자가 없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75)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국자 엇이난에 곤지 아념수과? 작박으로 국 거령 먹언. 남국자 헤낫수다만은 남국잔 엇이난에. 이거라도 상(국) 거령 먹주 허멍. 옛날엔 남으로 국자 멘들아낫수다.”⁷⁶⁾

(국자 없으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박’으로 국 떠서 먹었어. 나무국자 썼었지만 나무국자 없으니까. 이거라도 사서 (국) 떠서 먹어야지 하면서. 옛날에는 나무로 국자 만들었어요.)



<사진 104> 부윤순 씨 소장 ‘국자’



<사진 105> 김일출 씨 소장 ‘국자’

<사진 104>는 가시리 부윤순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국자’다. 지금은 <사진 104>의 ‘국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남국자’를 썼다고 한다. ‘남국자’가 없을 때는 ‘작박(쪽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105>은 가시리 김일출 씨가 현재 사용 중인 ‘국자’다.

(8) 곰박

‘곰박’은 표준어 ‘석자’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우묵한 바닥에 구멍이 나서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조리 도구로 나무로 만든다. ‘곰박’은 국자처럼 손잡이가 길게 나 있는데, 요즘에는 ‘건지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곰박, 오늘 우리 떡 건지는디 곰박이 어디서 나와선게. 나무로 동글랑허게 행 즈룩 이만이 돋양, 가운데 물 걸러지는 구멍 잇고. 것그라 곰박이엔 헤낫주.”⁷⁷⁾

(‘곰박’, 오늘 우리 떡 건지는데 ‘곰박’ 어디서 나왔던데. 나무로 동그랗게 해서 손잡이가 이만큼 달려 있고, 가운데 물 걸러지는 구멍 있고. 그것보고 ‘곰박’이라고 했었어.)

76)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77)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곰박이 뭐냐 하면 그 카 헤근에, 카 헹 고망 뜰랑 그거 다 만들아근에 헤근에, 그 곰박으로 헤근에 이렇게 떠. 카, 카 헤근에 사양 물류아근에 구멍을 다 뜰라. 구멍을 다 뜰라근에 그거 헤근에 헤여. 카 헤근근에. 그거는 곰박이엔 헤근에 저런 부엌에 돌아메근에 허곡.”⁷⁸⁾

(‘곰박’이 뭐냐 하면 그 박 해서, 박 해서 구멍 뚫어서 그거 다 만들어서 해서, 그 ‘곰박’으로 해서 이렇게 떠. 박, 박 해서 삶아서 말려서 구멍을 다 뚫어. 구멍을 다 뚫어서 그거 해서 해. 박 해서. 그거는 ‘곰박’이라고 해서 저런 부엌에 달아매서 하고.)

성읍리 송절자 씨는 삶은 떡을 건지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곰박’이라고 했다. 나무로 동그랗게 하여 물이 걸러지도록 구멍을 뚫고 자루를 둑게 하여 만든 것이다. 한편 ‘곰박’을 박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하천리 송영선 씨는 박에 구멍을 뚫어 말려서, 그것을 ‘곰박’으로 부엌에 걸어 두고 사용했다.

“그거이 별 허명 거 무시거 건질 때 헤난. 건 무시거고 건집니다.”⁷⁹⁾

(그거 양봉 하면서 뭐 건질 때 썼었어. 그건 무엇이든 건집니다.)



<사진 106> 김복순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07> 박봉화 씨 소장 ‘건지기’

<사진 106>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진 107>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사용하는 ‘건지기’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과 같은 액체는 밑으로 빠지고 음식만 정확히 건져낼 수 있다.

78)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79)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9) 남죽

‘남죽’은 표준어의 ‘죽젓개’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나무를 너무 두껍지 않게 기다란 형태로 깎아 만든다. ‘남죽’은 죽이나 밥이 솥에 놀어붙거나 타지 않도록 저을 때나 솥 가장자리에 묻은 밥을 긁어모을 때도 썼다. 또 보리를 뿜거나 잡곡밥의 재료가 골고루 섞이도록 저을 때도 사용했다. 대정읍이나 안덕면, 한경면 등 제주시 서쪽 지역에서는 ‘베술기’, ‘베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옛날에 묵 젓어근에 묵. 묵 해근에, 모물묵 췄근에. 이거 남죽, 남죽. 이건 이녁냥으로 만들아 수다게. 우리 주인 신 때 만든 거. 하이고, 이십 년도 넘영 혼 삼십 년 됐수다. 이거 혼 오십 년 됐수다게. 오십 년 됐주.”⁸⁰⁾

(옛날에 묵 저어서 묵. 묵 해서, ‘모물묵’ 췄어서. 이거 ‘남죽’, ‘남죽’. 이거는 스스로 만들었어요. 우리 남편 있을 때 만든 거. 하이고, 이십 년도 넘어 한 삼십 년 되었어요. 이거 한 오십 년은 되었어요. 오십 년 됐어요.)



<사진 108> 부윤순 씨 소장 ‘남죽’

<사진 108>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죽’인데 부 씨는 메밀묵을 쏟 때 이 ‘남죽’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08>의 ‘남죽’은 부 씨 남편이 직접 만든 것으로, 오십 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 109> 송심자 씨 소장 ‘남죽’



<사진 110> 송필수 씨 소장 ‘남죽’

80)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109>은 하천리 송필수 씨, <사진 110>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남죽’이다.

(10) 방에혹과 방엣귀

‘방에혹’은 쌀 등을 찧거나 빻을 때 사용하는 ‘돌절구’로 현무암으로 만든다. 표준어의 ‘방아확’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방에톡’, ‘돌혹’이라고도 한다. 대개 예전에는 이것을 ‘남방에’ 가운데 끼워 넣어서 사용했는데, 오늘날 방아확만 남아서 돌절구로 사용하고 있다. ‘방엣귀’는 방아확 속에 든 것을 찧을 때 쓰는 길쭉한 방망이로 ‘방앗공이’를 말한다.

“영행 영 뻣아. 마농도 뻣고 고치도 뻣고. 할무니영 산 때 할무니 써난 거. 그 무시거 봄서게. 얼마나 케케묵어시니. 원래는 낭도고리 가운데 파근에게 노는 거난 이디가 영 뛰고 요건 이것만 따로 놓고, 정지에 놓 쓰는 거라 부난 발을 만들았수궤. 이건 집이서 만든 거우다. 그 낭도고리에 끼우는 건양 저 끈이 뾰족허우다.”⁸¹⁾

(이렇게 해서 빻아. 마늘도 빻고 고추도 빻고. 할머니하고 살 때 할머니 썼던 거. 그 뒤 보십시오. 얼마나 케케묵었는지. 원래는 함지박 가운데 파서 놓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요건 이것만 따로 놔서, 부엌에 놓고 쓰는 거니까 발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집에서 만든 겁니다. 그 함지박에 끼우는 거는요, 저 끈이 뾰족합니다.)

“건이, 저런 돌로 된 혹에 놔근엥에 꿰, 꿰 ㅋ튼 거 (뺏는 거). 방엣귀, 방에, 방엣귀.”⁸²⁾

(그건, 저런 돌로 된 방아에 놓아서 깨, 깨 같은 거 (빻는 거). 방앗공이, 방아, 방앗공이.)



<사진 111> 송심자 씨 소장 ‘돌혹’



<사진 112> 송심자 씨 소장 ‘남방에’의 ‘돌혹’

8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슬.

82) 성읍리 한사울 씨 구슬.



<사진 113> 한사율 씨 소장 ‘방엣귀’



<사진 114> 송필수 씨 소장 ‘방에혹’과 ‘방엣귀’

<사진 111>은 성읍리 송십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돌혹’으로 송 씨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것이다. 다른 ‘방에혹’과 달리 ‘남방에’에 끼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절구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밭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12> 역시 성읍리 송십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남방에’의 가운데 ‘돌혹’이다. 마루 한쪽 구석에 장식해 놓은 ‘남방에’ 안에는 놋수저를 비롯한 여러 옛날 물건들을 보관되어 있는데 ‘돌혹’이 가운데 박혀 있는 형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진 113>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방엣귀’다. 한 씨는 깨 등을 짚을 때 ‘방에혹’에 이를 넣고 ‘방엣귀’로 짚었다고 한다. ‘방엣귀’의 가로 길이는 28cm이다. 한 씨는 <사진 113>의 절굿공이를 ‘방엣귀’라고도 했다. <사진 114>는 하천리 송필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방에혹’과 ‘방엣귀’다.

“방에 방에 영현 방에다가 혹 요만한 거 잇주게. 방에혹. (두드리는 건) 방엣귀. 방엣귀로이. 둘이 두드리는 건 둘이 마주사근에 두드리고, 혼잔 혼자만 두드리고. (둘이 하는 걸 두콜방에렌 헙니까?) 서이 지게 헤문 세콜방에. (둘이 허젠허문 영 잘 맞아야 헤쿠다예?) 잘 맞아사. 둘이만은 게도 셋주만은. 서이끄장 가젠헤문이, 세콜방에 지젠헤문 손이 맞아사. 경행 빠아근에 그거 헹 식게헤 먹곡.”⁸³⁾

(방아, 방아 이러한 방아에다가 확 요만한 거 있지. 방아확. (두드리는 건) 방앗공이. 방앗공이로. 둘이 두드리는 건 둘이 마주 서서 두드리고 혼자는 혼자만 두드리고. (둘이 하는 걸 ‘두콜방에’라고 합니까?) 셋이 지게 되면 ‘세콜방에’. (둘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맞아야 되겠습니다?) 잘 맞아야. 둘만은 그래도 쉽지만. 셋까지 가려고 하면, ‘세콜방에’ 짚으려고 하면 손이 맞아야. 그래서 빨아서 그거 해서 제사해 먹고.)

8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방에혹. 이거 옛날에 이게 가운데 놓고 저 나무로 된 이런 방에가 있어. 게민 이것가 가운데 심어정 잇주. 경허민 요만썩힌 저 거시기 나무 무시거 있어, 방엣귀. 이 방엣귀로 해근에 세콜방엘 쳐. 이디 한 사람 이디 한 사람, 이것도 기술 엇인 사람덜 못 허여. 옛날 어른덜 이어도 사나, 이여, 이여 경허멍. (세 사름 허민) 세콜방에, (두 사름이 허민) 기냥 건 두콜방엔디 두 사름은 허민 좋고 세 사름은 허젠허민 반조가 잘 맞아야. 네 사름은 잘 안 허여.”⁸⁴⁾

(방아획. 이거 옛날에 이게 가운데 놓고 저 나무로 된 이런 방에가 있어. 그러면 이것이 가운데 꽂혀 있지. 그러면 이만한 저 거시기 나무, 뭐 있어, 방앗공이. 이 방앗공이로 해서 ‘세콜방에’를 짧어.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이것도 기술 없는 사람들 못 해. 옛날 어른들 이어도 사나, 이여, 이여 그렇게 하면서. (세 사람이 하면) ‘세콜방에’, (두 사람이 하면) 그냥 그건 ‘두콜방에’인데 두 사람이 하면 좋고, 세 사람은 하려고 하면 박자가 잘 맞아야 해. 네 사람은 잘 안 해.)

한편, 표선리 박봉화 씨와 성읍리 송절자 씨는 두 사람이 짧는 방아는 ‘두콜방에’, 세 사람이 짧는 방아는 ‘세콜방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 명이 ‘세콜방에’를 짧을 때는 서로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한다. 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 민요를 부르며 방아를 짧었다고 한다.



<사진 115> 정여옥 씨 소장 ‘절구’



<사진 116> 정여옥 씨 소장 ‘마끼’

한편 ‘방에혹’과 ‘방엣귀’를 대신해 요즘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진 115>의 스테인리스 ‘절구’와 <사진 116>의 ‘마끼’다.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 역시 깨나 마늘, 콩 등을 빻을 때 쓴다.

84)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11) 절벤본

‘절벤본’은 떡 종류의 하나인 절편을 만드는 틀이다. 절편은 쌀가루 반죽을 익힌 후 손으로 둥글게 만들어 두 개를 붙인 후 이 ‘절벤본’으로 찍어 눌러 만든다. 그러면 ‘절벤본’에 그려진 문양이 떡 위에 찍힌다.

“떡 허는 거, 그거 절벤본. 떡본 만든 거. 열아홉 설에 장가가니까 우리 수춘이 서른서에 돌아갔는데 우리 수춘이 종순이랑지게. 겐디 수춘이 돌아가 부난 그로부터 우리가 제서를 헌 거라. 내가 한 서른두 살? 저 떡본, 떡본. 솔벤.”⁸⁵⁾

(떡 하는 거, 그거 ‘절벤본’ 떡살 만든 거. 열아홉 살에 장가가니까 우리 사촌이 서른셋에 죽어 버렸는데 우리 사촌이 종손이었거든. 그런데 사촌이 죽어 버리니까 그로부터 우리가 제사를 한 거야. 내가 한 서른두 살? 저 떡살, 떡살. ‘솔벤’.)

“요건 저 제서 때에 솔펜, 절벤. 옛날 하르방 만들아 논 거. 이거 옛날은 이거 영 무시 걸로 췌 영 불 구워 허젠허민 아무나 못 만들아.”⁸⁶⁾

(요건 저 제사 때에 ‘솔벤’, 절편. 옛날 할아버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옛날은 이거 이렇게 무슨 거로 쇠 이렇게 불 구워서 하려고 하면 아무나 못 만들어.)



<사진 117>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절벤본’(위)



<사진 118>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절벤본’(아래)

<사진 117>은 세화리 김창효 · 한영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절벤본’이다. 사진의 ‘절벤본’ 윗면을 보면 ‘1969년 6월 17일’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창효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가 삼십 대에 제사를 맡게 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아내 한영선 씨는

85)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86) 세화리 한영선 씨 구술.

<사진 117>의 ‘절벤본’은 선대가 만든 것으로, 제작 과정이 복잡하여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걸로 만든 떡을 뭐렌 굽아?) 절벤. (야이로 만든 거는?) 거 솔벤.”⁸⁷⁾
 ((이거로 만든 떡을 뭐라고 말해?) 절벤. (얘로 만든 거는?) 그거 솔벤.)



<사진 119> 부윤순 씨 소장 ‘절벤본’



<사진 120> 부윤순 씨 소장 ‘솔벤본’



<사진 121> 오남행 씨 소장 ‘절벤본’



<사진 122> 오남행 씨 소장 ‘솔벤본’

87)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123> 오남행 씨 소장 '지름떡본'



<사진 124> 송심자 씨 소장 '지름떡본'

<사진 119>와 <사진 120>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진 121>과 <사진 122>는 표선리 오남행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절벤본'과 '솔벤본'이다. <사진 123>은 오 씨가 소장하고 있는 '지름떡본'이고, <사진 12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떡의 모양을 찍어낼 때 썼던 '떡틀'로, 다양한 모양과 문양의 떡을 만들어 먹었던 선조들의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12) 바드렝이

‘바드렝이’는 떡을 찔 때 솔 안에 받치는 도구로, 표준어 ‘경그레’에 대응하는 말이다. 씨는 것이 솔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통 임시로 나뭇개비를 걸쳐 놓기도 하고 땃조각을 얹어서 만들기도 한다. 근래에 와서는 철사를 얹어 만들기도 한다.

“바드렝이 옛날에 대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걸로. 빵, 저 빵. 저 오늘은 상웨떡 햇주. 상웨떡도 하고. 그 찌는 게 떡이 여라 가진다.”⁸⁸⁾

(경그레 옛날에 대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거로. 빵, 저 빵. 저 오늘은 상화떡 했지. 상화떡도 하고. 그 찌는 게 떡이 여러 가지인데.)

성읍리 송절자 씨의 구술에 따르면 예전 ‘상웨떡’ 등의 떡을 찔 때 이용하는 경그레를 ‘바드렝이’라고 불렀다. ‘바드렝이’는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그릇 등의 여러 도구가 많지 않았을 때는 솔 안에 대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천이나 짚을 깔아 떡을 찼는데, 여러 편리한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떡 찔 때 사용하는 그릇들이 나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88)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건 시리, 시리. 요건 시리. 떡 청 먹는 거. 이건 떡 치는 거. 떡 치는 거. 집이서 떡 청 먹구정허민.”⁸⁹⁾
 (그건 시리, 시리. 이건 시리. 떡 짜서 먹는 거. 이거는 떡 찌는 거. 떡 찌는 거. 집에서 떡 짜서 먹고 싶으면.)

“그거 떡 치는 거. 저디 것도 떡 치는 거, 저걸로 그자.”⁹⁰⁾
 (그거 떡 찌는 거. 저기 것도 떡 찌는 거. 저것으로 그저.)



<사진 125> 부윤순 씨 소장 ‘떡 치는 거’



<사진 126> 김일출 씨 소장 ‘떡 치는 거’

<사진 125>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떡 치는 거’다. 도구의 옆쪽이나 아래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부 씨는 떡을 찌는 용도로 썼던 것이라고 하며 <사진 125>의 양푼을 ‘시리’라고 소개했다. <사진 126>은 가시리 김일출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떡을 찔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13) 다라

‘다라’는 물을 담아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인 ‘대야’의 일본어식 표현이다. 예전에는 <사진 84>와 같이 나무로 만든 ‘남도고리’나 <사진 152>에서 <사진 155>까지의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 ‘장테’를 음식 조리에 사용했었다. 근래에 와서는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이나 ‘양은’ 등으로 만든, 가볍고 사용이 편리한 대야가 나오자 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대야들은 스테인리스로 만들면 ‘스뎅다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아레미다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고무다라’라고 불렸다.

89)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90) 가시리 김일출 씨 구술.

“이모노 다라베끼 엇어. 아이고, 옛날엔 떡이나 무시거, 소상이나 무시거 허젠허민 막 대대적으로 허젠허민 그냥 동네 사름덜이 그 다라를 이시민, 나가 하도 불루완 나도 놔안티 안 떨어지젠탠에 ھ까 쓰단에 저디 계속 돌아멘 놔두난. 이젠 데껴불 거주.”⁹¹⁾

(‘이모노’ 대야밖에 없어. 아이고, 옛날에는 떡이나 뭐, 소상이나 뭐 하려고 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 대야가 있으면, 내가 너무 부러워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안 떨어지려고 사서 조금 쓰다가 저기에 계속 매달아 놔뒀어. 이제는 버릴 거지.)



<사진 127> 송절자 씨 소장 ‘이모노 다라’



<사진 128> 김천종 씨 소장 ‘다라’



<사진 129> 김인배 씨 소장 ‘다라’



<사진 130> 김인배 씨 소장 ‘다라’

<사진 127>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주물로 떠서 만든 ‘이모노 다라’다. 송 씨는 ‘이모노다라’를 집안 대소사에 쓸 떡을 반죽할 때 썼다고 한다. 또 ‘다라’를 장만하지 못했을 때는 이웃에게서 ‘다라’를 빌려 쓰기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송 씨는 <사진 127>의 ‘다라’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부엌 한쪽 벽에 매단 채 보관하고 있었다.

91)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사진 128>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사용하고 있는 ‘이모노다라’이고, <사진 129>와 <사진 130>은 가시리 김인배 씨가 소장하고 있는 ‘다라’다.

2.3. 저장과 운반 도구

(1) 항

‘항’은 ‘항아리’로, 아래위가 좁고 배가 부른 질그릇이다.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저장 도구로,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부르는 이름을 달리했다. 물을 받아 두는 것을 ‘물항’, 된장이나 간장을 담아 두는 ‘장항’, 곡식류를 보관하는 ‘쌀항’으로 구분했다. 크기가 작은 항아리로는 ‘망데기’, ‘단지’ 등이 있다.

“(육지 항은 어디로 들어와? 배가.) 당케로. 저 표선리.”⁹²⁾

(육지 항은 어디로 들어와? 배가.) ‘당케’로. 저 표선리.)

“요거는 나 결혼헨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사 준 거. 이것도 육지 거. 이것도 당케 강 사 온 거.”⁹³⁾

(요거는 나 결혼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산 준 거. 이것도 육지 거. 이것도 ‘당케’ 가서 사 온 거.)



<사진 131>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항’들



<사진 132> 강운평 씨 소장 ‘항’들

92)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93)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사진 133> 송절자 씨 소장 '항'들



<사진 134> 박창준 씨 소장 '항'들

<사진 131>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가 소장하고 있는 '항'들이다. 이렇다 할 보관 그릇이 없었던 시절에는 항아리가 여러 용도로 쓰였다. 때문에 집집마다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개의 항아리를 갖춰 놓고 생활했다. 송 씨는 다른 지역에서 만든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 중 몇 개는 '육지 항'이라고 소개했다. 다른 지역에서 만든 항은 '당케'라고 부르는 표선리 해안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송 씨의 아내 강희숙 씨는 친정어머니가 '당케'를 통해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는, 육지 항을 사 주셨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사진 131>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를 집 뒷마당에 두고 이용하고 있었다. 항아리의 크기에 맞는 '장테'나 '플라스틱 다라', '쟁반', '솥뚜껑' 등을 항아리 뚜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32>는 하천리 강윤평 씨, <사진 133>은 성읍리 송절자 씨, <사진 134>는 성읍리 박창준 씨 집에 놓여 있는 '항'들이다.

“거야, 거 현 백 년도 더 됐던 거지. 우리 어머니 쓰던 거지.”⁹⁴⁾

(그거야, 그거 한 백 년도 더 된 거지. 우리 어머니 쓰던 거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장. 쌀 보관도 허긴 헤마씨. 육짓서 헹 온 단지덜은 쌀 보관하고. 여기가 된장.”⁹⁵⁾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쌀 보관도 하기는 해요. 육지서 해서 온 단지들은 쌀 보관하고. 여기가 된장.)

94)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95) 세화리 김창호 씨 구술.



<사진 135> 강기수 씨 소장 '항'



<사진 136> 김창호 씨 소장 '항'

<사진 135>는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항'으로, 강 씨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한다. 강 씨의 구술에 따르면 백 년이 넘는 '항'이라고 한다. <사진 136>은 세화리 김창호(1948년생) 씨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항'으로, 지금도 된장을 담거나 쌀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저 짐 장시덜이 그 새, 청새 날 때쯤에 육지서 무신걸 가정 오냐 허면은 항, 육짓항, 그 유약 칠해진 육짓항덜을 시꺼 오주게, 배로. 쟁 오면은 마당에, 어느 집 혼나 빌어근에 마당에, 마당 넓은 집 혼나 빌어근에 항덜 막 놔. 거민 이딕 사름들은 옛날 우리 여기 저 굴에서 구워 낸 그 항만 보단 육짓항 반짝반짝 거, 그런 거 보니까 막 좋아라 혜연. 경행에 그때 나 이 집, 우리 집이 항 이신 것들이 전부 제주항들인디 그때 내가 모은 항들이라.”⁹⁶⁾

(이 저 김 장수들이 그 새, 청새 날 때쯤에 육지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냐 하면 항아리, 육지에서 만든 항아리, 그 유약 칠해진 육지에서 만든 항아리들을 실어 오거든, 배로. 그렇게 오면은 마당에, 어느 집 하니 빌려서 마당에, 마당 넓은 집 하나 빌려서 항들을 막 놓아.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옛날 우리 여기 저 굴에서 구워 낸 그 항만 보다가 육짓항 반짝반짝 하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막 좋아했어. 그래서 그때 나 이 집, 우리 집에 항 있던 것들이 전부 제주항들인데, 그때 내가 모은 항들이야.)

96) 성읍리 송심자 · 강기숙 씨 구술.



<사진 137> 송심자 씨 소장 '항'들

<사진 137>은 성읍리 송심자 씨의 마당 한쪽에 놓여 있는 '항'들이다. 육지의 다른 지역에서 김을 말릴 때 사용할 발을 만들기 위한 새를 구하기 위해 제주로 들어오는 상인들이 항아리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항아리들을 송 씨가 물려받거나 구입하여 모아 놓았다고 한다.



<사진 138> 정여옥 씨 소장 '항'



<사진 139> 한사율 씨 소장 '항'



<사진 140> 현순화 씨 소장 '항'



<사진 141> 김복순 씨 소장 '항'



<사진 142> 김천종 씨 소장 '항'



<사진 143> 부대옥 씨 소장 '항'과 '단지'들

<사진 138>은 표선리 정여옥 씨, <사진 139>는 성읍리 한사율 씨, <사진 140>은 표선리 현순화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아리다. <사진 141>은 가시리 김복순 씨, <사진 142>는 세화리 김천종 씨 집에 놓여 있는 항아리다. <사진 143>은 토산리 부대옥 씨 집 뒤 감귤밭에 놓여 있는 항아리로, 크기별로 모양이 다른 여러 항아리와 단지가 놓여 있다.



<사진 144> 송정자 씨 소장 '항'과 '장테'



<사진 145> 송정자 씨 소장 '항 뚜껑'

<사진 144>는 성읍리 송정자 씨(1938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항'과 '장테'다. 보통 항아리에 곡식이나 장 등을 넣어 보관할 때 뚜껑을 닫아 두는데, '장테'를 뚜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 145>는 현재 보급되고 있는 항아리 뚜껑을 덮은 모습이다.

“매해 (장) 담가. 우리 집사람은 이거 꼭 담가. 다른 사람 안 담가도. 경허난 콩 이렇게 갈았다가 콩 문 두 말쯤이민 요런 거 만들아근에. 꼭 장은 담아서 먹어야 뛰덴 허멍.”⁹⁷⁾

97)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매해 (장) 담가. 우리 집사람은 이거 꼭 담가. 다른 사람 안 담가도. 그러니까 콩 이렇게 장만했다가 콩 전부 두 말쯤이면 이런 거 만들어서. 꼭 장은 담가서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진 146> 부대옥 씨 소장 '항'



<사진 147> 송무옹 씨 소장 '항'

<사진 146>은 토산리 부대옥 씨 집에서 소금을 보관하고 있는 '항'이다. <사진 147>은 토산리 송무옹 씨(1943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아리로, 송 씨 아내는 매해 장을 담근다고 한다.

(2) 단지

'단지'는 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를 말한다. 아가리와 굽의 넓이가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젓갈이나 장아찌 등을 담아 보관할 때 '단지'를 활용했다.

“단지는 이거 옛날에 그 살림할 때에 고추장도 담고 그러던 거지, 뭐. 된장은 큰 거에 담고. 예. 고추장 거 담았주.”⁹⁸⁾

(단지는 이거 옛날에 그 살림할 때에 고추장도 담고 그러던 거지, 뭐. 된장은 큰 거에 담고. 예. 고추장 그거 담았지.)

98)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148> 부대옥 씨 소장 ‘소금단지’



<사진 149> 강기수 씨 소장 ‘단지’



<사진 150> 송절자 씨 소장 ‘단지’



<사진 151> 송영선 씨 소장 ‘조막단지’

<사진 148>은 토산리 부대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단지’다. <사진 149>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사용했던 ‘단지’로, 강 씨는 고추장을 담아 보관했다고 한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적은 양의 고추장은 단지에 보관하고, 많은 양의 된장은 큰 항에 보관했다고 한다. <사진 150>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사진 151>은 송영선 씨 집에 있는 ‘단지’다. 송 씨는 이 ‘단지’를 ‘조막단지’라고 불렀다.

“단지, 단지들도 잊어낫주. 자리젓도 담양 잇곡, 멜젓도 담양 잇곡. 짐치도 담양 잊고.”⁹⁹⁾
(단지, 단지들도 있었지. 자리젓도 담고 있고, 멜치젓도 담고 있고. 김치도 담아 있고.)

표선리 박봉화 씨는 ‘단지’에 자리돔으로 담근 ‘자리젓’이나 멸치로 담근 ‘멜젓’ 등의 젓갈류, 또는 김치를 담아 두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99)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3) 장테

‘장테’는 아가리가 굽에 비해 넓고 높이는 낮은 양푼 모양의 질그릇을 말한다. ‘장테’는 만들 때 사용하거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장독에 먼지나 비가 들지 않게 입구를 덮는 뚜껑으로도 쓰였다. 또 물을 받아 놓고 설거지하는 대야로도 사용했다.

“막 옛날은 그것에, 요즘은 나이롱 그 다라덜이 나왓주만은 안 나올 때 빨래도 그것에 허고, 누물도 그것에 씻고 전부 그거 사용해낫주.”¹⁰⁰⁾

(아주 옛날은 그것에, 요즘은 나일롱 그 대야들이 나왔지만 안 나올 때 빨래도 그것에 하고, 나물도 그것에 씻고 전부 그거 사용했었지.)

성읍리 송절자 씨의 구술에 따르면, 플라스틱 그릇들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장테’에 빨랫감을 담아 빨래를 하기도 하고, 나물을 씻는 용기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했다고 한다.

“장테, 장테. 그릇 씻기도 하고, 더끄기도 하고. (그릇) 없을 때 여기서 그릇도 씻고, 뭐 뭐 음식도 담고. 이렇게 족은, 족은 것들.”¹⁰¹⁾

(장테, 장테. 그릇 씻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그릇) 없을 때 여기서 그릇도 씻고, 뭐 뭐 음식도 담고. 이렇게 작은, 작은 것들.)



<사진 152> 김천종 씨 소장 ‘장테’



<사진 153> 김천종 씨 소장 ‘장테’

100)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101)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사진 154> 박창준 씨 소장 '장테'



<사진 155> 박창준 씨 소장 '장테'



<사진 156> 김천종 씨 소장 '항'과 '장테'

<사진 152>와 <사진 153>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테'다. 두 개의 '장테'의 크기가 다른데 <사진 152>는 지름이 34cm, <사진 153>은 41cm다. 김 씨의 구술에 따르면 '장테'는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담아 씻는 용기로도 쓰고, 항아리를 덮는 뚜껑으로도 썼다고 한다. 또 크기가 작은 '장테'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썼다고 한다. <사진 154>와 <사진 155>는 성읍리 박창준 씨(1938년생)가 보관하는 '장테'다.

<사진 156>은 세화리 김천종 씨 집 한쪽에 놓여 있는 '항'과 그 '항'을 덮고 있는 '장테'들이다. 오늘날 '장테'는 대부분 항아리나 단지의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음식을 만들거나 담을 때, '장테' 대신에 아가리가 넓은 '동이'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거 보리쌀 씻는 거. 이거 우리 아이덜 수정이 하 부난. 이거 훈 오십 년 됐어. 물동일 거라. 육지 거. 이거 육지는 물동이렌 허는디, 제주도 말로는 보리쌀 씻는 거엔 해근에이 우리 그때 보리쌀 이걸로이 요만쯤이 씻져근에 행.”¹⁰²⁾

102)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이거 보리쌀 씻는 거. 이거 우리 아이들 수가 많으니까. 이거 한 오십 년 됐어. 물동일 거야. 육지 거. 그런데 이거는 육지는 물동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말로는 보리쌀 씻는 거라고 해. 우리 그때 보리쌀 이걸로 요만큼씩 씻어서 했어.)

<사진 157>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가 보관하는 ‘물동이’다. <사진 157>은 육지에서 만들어 제주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며 강 씨가 보리쌀을 씻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57>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물동이’

(4) 허벅과 대베기

‘허벅’은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좁은 동이로,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물을 길어 나를 때 주로 사용하던 용기다. 그 쓰임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물을 길어 나를 때 쓰는 것을 ‘물허벅’, 술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하는 ‘술허벅’, 죽을 나르는 ‘죽허벅’, 씨를 담아 보관하는 ‘씨허벅’ 등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리 불렀다. 부리가 깨지거나 하여 ‘물허벅’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씨를 보관하거나 곡식을 보관하는 용기로 다양하게 활용했다. 근래에 들어 양철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허벅’이 보급되어 사용되다가, 각 가정에 수도가 설치되면서부터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물 질영 가정 허민 여저들이 또 허벅 지영, 허벅으로 정 가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뭐 이런 아무런 거라도 물 질 수 있는 걸 아정 가야주. 물 질영 오는 수단이 허벅베끼 없는디 뭐.”¹⁰³⁾

(물 길고 가려고 하면 여자들이 또 ‘허벅’ 지어서, ‘허벅’으로 지고 가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뭐 이런 아무런 거라도 물을 길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지. 물 길고 오는 수단이 ‘허벅’밖에 없는데 뭐.)

103)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사진 158> 한사울 씨 소장 ‘허벽’



<사진 159> 송절자 씨 소장 ‘허벽’

<사진 158>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사진 159>는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허벽’이다.

“물이 그물아근에 그물양 없어지믄 바다에 강은에 산물 질어당 먹곡. 그렇지 않으면 저 성읍리 올라가근에, 그디 가근에 소로 물 질러다 먹곡, 소로. 소 등에 행 시꺼당 먹어낫어.”¹⁰⁴⁾

(물이 가물어서 가물어서 없어지면 바다에 가서 산물 길어다 먹고. 그렇지 않으면 저 성읍리 올라가서, 거기 가서 소로 물 길어다 먹고, 소로. 소 등에 해서 실어다가 먹었었어.)

한편, 하천리 강윤평 씨의 구술에 따르면 가뭄이 들어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읍리까지 소를 몰고 가서 ‘허벽’에 물을 길어왔다고 한다.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 ‘허벽’은 없어서는 안 될 식생활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은 어른들만의 일은 아니었다. 아이들은 크기가 작은 어린이용 ‘허벽’인 ‘대바지’를 지고가 물을 길어 왔다. 어린 아이들의 손을 빌려야 할 만큼 제주 삶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다. ‘대바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대베기’라고도 불렸다.

“대바지. 물 날를 때 쓰는 거. 두린 아이덜 허는 거. 아이덜 허는 거.”¹⁰⁵⁾

(‘대바지’: 물 나를 때 쓰는 거.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거. 아이들 하는 거.)

104)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05)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대바진 열다섯 살 아래 지집아이덜, 쪼그락현 아이덜 지금 초등학생. 그런 아이덜 물 질어난 거. 구덕도 쪼그락현 거.”¹⁰⁶⁾

(‘대바지’는 열다섯 살 아래 계집애들,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 그런 아이들 물 길었던 거. (지고 오는) 구덕도 작은 거.)

“저건 대바지. 아이덜은 처음에 요걸로 물 질주. 그건 허 쏠 큰 아이.”¹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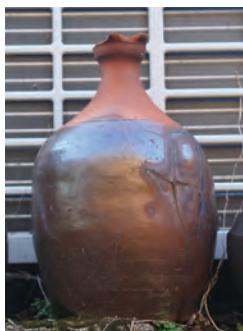
(저건 대바지. 아이들은 처음에 이거로 물 길지. 그건 더 큰 아이.)



<사진 160> 강성종 씨 소장 ‘대바지’



<사진 161> 송심자 씨 소장 ‘대바지’



<사진 162> 송절자 씨 소장 ‘대바지’



<사진 163> 송절자 씨 소장 ‘대바지’

<사진 160>의 ‘대바지’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진 161>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바지’다. <사진 162>과 <사진 163>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바지’인데, 송 씨의 설명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은 <사진 162>의 ‘대바지’로 처음 물을

106)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07)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길어오기 시작하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사진 163>의 ‘대바지’로 물을 길어 왔다고 한다.

“물허벽 낫다가 졌다가 허는 거. 물 이디 엊어낫주. 내창 물 먹었주. 물허벽. 물구덕이엔 허는 거 잇주게. 물팡 이신 집이 엊어. 우리 집사람??지 헷어. 수돗물 나오기 전이 거 헷잖아.”¹⁰⁸⁾

(‘물허벽’ 놓았다가 졌다가 하는 거. 물 여기 없었었지. 내의 물 먹었지. (물 길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물허벽’, ‘물구덕’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 ‘물팡’ 있는 집이 없어. 우리 집사람까지 헷어. 수돗물 나오기 전에 그거 했잖아.)



<사진 164> 강윤평 씨 가옥의 ‘물팡’

<사진 164>는 하천리 강윤평 씨 집에 남아 있는 ‘물팡’이다. 물을 ‘허벽’에 긴고 오면 ‘물구덕’을 진 채 물독에 물을 붓는다. 붓고 나서는 ‘허벽’이 든 ‘물구덕’은 부엌 입구 쪽에 마련된 ‘물팡’의 평평한 부분에 올려 놓는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아내가 물을 길어왔는데, 그때 사용했던 ‘물팡’이라고 한다. 각 가정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서

‘물팡’은 점점 보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5) 추니

‘추니’는 술 따위를 담는 항아리로, 표준어 ‘준(樽)’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운데는 등그스름하며 위와 아래는 점점 가늘어지는데 위 아가리는 아주 좁고 밑은 평평한 모양이다. 예전에는 잔치 등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리술’을 고았는데, 술을 고는 것을 제주에서는 ‘술 다끄다’라고 말했다. 이때 술을 보관하는 그릇이 ‘추니’였다. ‘추니’에 간장 등을 보관하기도 했다.

“술 나 잘 만들주. 이것엔 술 담아난 거 아니. 이건 잇당 장도 담고.”¹⁰⁹⁾

(술 나 잘 만들어. 이것에는 술 담았던 것 아니. 이건 있다가 장도 담고.)

108)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09)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우리 할머니 옛날 술장시, 저 짚을 때 헤낫주게. 계난 술추니. 폐선리 가근에 구루마에 저거 시꺼근에 가근에 술 받아근에 이디 와근에 벵이 질으명 풀아낫주. 술 받아단, 받아단. 이 술추니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막 어렵게 옛날 살아나 부난 구루마에, 물마차에 말이주, 물마차에 저 술추니엔 헤근에 저거 실령 폐선리 강 술 받아당 풀아낫주게. 술장시 해난 거엔 허멍 나안티 골아쥔.”¹¹⁰⁾

(우리 할머니 옛날 술장사, 저 짚을 때 했었거든. 그러니깐 ‘술추니’. 표선리 가서 달구지에 저거 실어서 가서 술 받고 여기 와서 병에 길어 넣으며 팔았었지. 술 받아다가, 받아다가. 이 술추니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막 어렵게 옛날 살았기 때문에 달구지에, 마차 말이야, 마차에 저 술추니라고 해서 저거 싣고 표선리 가서 술 받아다가 팔았거든. 술장사 했었던 거라고 하면서 나한테 말해줬어.)



<사진 165> 송절자 씨 소장 ‘추니’



<사진 166> 송심자 씨 소장 ‘추니’

<사진 165>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추니’로, 송 씨는 여기에 간장을 보관했다고 한다. <사진 166>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추니’다. 송 씨 할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송 씨의 할머니는 달구지에 ‘추니’를 싣고 표선리까지 가서 술을 받아온 후 병에 옮겨 담아 팔았다고 한다. ‘추니’는 술을 많이 담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술을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집에는 갖추고 있으나 개인 집마다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

110)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6) 물펭과 술펭

‘펭’은 표준어 ‘병’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물펭’은 물을 담을 때, ‘술펭’은 술을 담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물펭. 거 막 오렌 거라. 술도 담고. 우리 할머니 쓰던 거. 등덜펭 맞주. 등덜펭이라.”¹¹¹⁾

(물병. 그거 막 오랜 거야. 술도 담고. 우리 할머니 쓰던 거. ‘등덜펭’ 맞아. ‘등덜펭’이야.)



<사진 167> 강윤평 씨 소장 ‘물펭’



<사진 168> 송심자 씨 소장 ‘술펭’과 ‘물펭’

<사진 167>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물펭’이다. 강 씨의 할머니께서 사용하셨던 것으로 물이나 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했다고 한다. 병의 주둥이 부분이 깨졌지만,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의 둥근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다. 강 씨는 이것을 ‘등덜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진 168>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술펭’과 ‘물펭’이다.

2.4. 제기

‘제기’는 제례에 사용되는 그릇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제기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식기류와는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며 사용한다. 제보자 대부분은 ‘놋그릇’ 제기를 물려받아 사용하다가 점차 ‘스테인리스’ 제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111)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아이덜한티 물려 불었주. 이것 가지고서는 한 칠십 년대까지 허고. 그 후에 다른 그릇으로 지내고. (그 후로는) 안 쓰고. 제서 지낼 때마다 자꾸 따끄고 허니깐 거 귀찮으니깐. 나무 재로 해 가지고 나도 따끄고, 집이 사람.”¹¹²⁾

(아이들한테 물려줘 버렸지. 이것 가지고서는 한 칠십 년대까지 하고. 그 후에 다른 그릇으로 지내고. (그 후로는) 안 쓰고. 제사 지낼 때마다 자꾸 닦고 하니까 그거 귀찮으니까. 나무 재로 해 가지고 나도 닦고, 집의 사람(아내).)



<사진 169> 김천종 씨 소장 보관함에 보관된 ‘제기’



<사진 170> 김천종 씨 소장 ‘제기’

<사진 169>과 <사진 170>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 제기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김 씨는 1970년대까지 사진의 ‘놋그릇’ 제기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는 자녀들이 새로 구입한 제기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함에 담아 따로 보관하고 있다.

‘놋그릇’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제를 마치고 ‘놋그릇’을 닦는 일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함께 했다고 한다. ‘놋그릇’을 닦을 때는 나무 재를 이용해서 닦았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제기가 보급되자 ‘놋그릇’ 제기는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시어멍 써난 거. 우리 쓸 때는 다 새 거 사단 햇주. 저거 막 풀젠 허난 시어멍이 못 풀게 행 놔둔 거.”¹¹³⁾

(시어머니 쓰던 거. 우리 쓸 때는 다 새 거 사다가 했지. 저거 막 팔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풀게 해서 놔둔 거.)

112)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113)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사진 171>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제기'



<사진 172> 정여옥 씨 소장 '제기'

<사진 171>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그릇' 제기다. 김 씨의 선대가 쓰셨던 것으로 삼백 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정확히 언제부터 물려 내려온 것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김 씨의 아내 오 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시어머니가 팔지 못하게 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 부부는 제사를 지낼 때 새로 산 제기를 사용했고, <사진 171>의 제기는 보관만 한 것이라고 한다. <사진 172>는 표선리 정여옥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스테인리스' 제기와 함께 플라스틱 접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멧그릇과 갹그릇

'메'와 '갓'은 제사 때 올리는 밥과 국으로, '멧그릇'과 '갓그릇'은 메와 갹을 뜰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한다.

“옛날 건 막 커. (저거 쓰는 거) 못 봤지. 10대 하르방 써난 거냔. 10대. 계난 삼백 년 된 거. (나 어렸을 때는) 안 썼지. 그 요새 신 그릇으로 썼지.”¹¹⁴⁾

(옛날 건 막 커. (놋그릇 제기 쓰는 거) 못 봤지. 10대 할아버지 썼던 거니까. 10대. 그러니까 삼백 년 된 거. (나 어렸을 때는) 안 썼지. 그 요새 새 그릇으로 썼지.)

114)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사진 173>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멧그릇'



<사진 174>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갱그릇'



<사진 175> 김천종 씨 소장 '갱그릇'과 '멧그릇'



<사진 176> 정복순 씨 소장 '멧그릇'과 '갱그릇'

<사진 173>과 <사진 174>는 토산리 김종권·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과 '갱그릇'이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사진의 그릇들은 선대가 사용했던 오래된 것으로, 김 씨가 어렸을 때도 사진의 '놋그릇'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 175>는 세화리 김천종 씨, <사진 176>은 토산리 정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멧그릇'과 '갱그릇'이다. 그릇의 모양, 특히 뚜껑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아이덜 이거 놀 거 말텐. 요새 그거 스템 거 스템 거 사줘수게. 이거 나 온 후제 산 거, 이거. 우리 씨어머님이 강 사오렌 혜연. 장에 강, 표선 장에 강. 이거 훈 서른에 사져실 거우다. 씨어머님이 강 사오렌 헨.”¹¹⁵⁾

(우리 아이들 이거 놓지 않겠대. 요새 그거 스테인리스 거, 스테인리스 거 사줬어요. 이거 나 (시집) 온 후에 산 거, 이거. 우리 시어머님이 가서 사오라고 했어. 장에 가서, 표선 장에 가서. 이거 한 서른에 삼을 거예요. 시어머님이 가서 사고 오라고 했어.)

115)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177> 부윤순 씨 소장 '멧그릇'과 '갱그릇'



<사진 178> 김복순 씨 소장 '멧그릇'과 '갱그릇'

<사진 177>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멧그릇'과 '갱그릇'이고, <사진 178>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놋숟가락

'놋숟가락'은 놋으로 된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도구다. 보통 제기인 경우는 제사나 명절 때만 꺼내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놋숟가락인 경우는 평상시 밥을 먹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

“(지금 숟가락 모양하고) 틀려. 굉장히 무겁고. 그런 수저 가튼 것은 어려울 거라.”¹¹⁶⁾

((지금 숟가락 모양하고) 달라. 굉장히 무겁고. 그런 수저 같은 것은 (보기) 어려울 거야.)

“(제) 올릴 때만 쓰는 거. 밥 먹을 땐 뜯나. 저건 제 할 때만. 퉁나.”¹¹⁷⁾

((제) 올릴 때만 쓰는 거. 밥 먹을 때는 달라. 저건 제 할 때만. 달라.)

116)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117)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사진 179> 김천종 씨 소장 '놋수저'와 '놋젓가락'들



<사진 180> 김천종 씨 소장 '놋수저'와 '놋젓가락'



<사진 181>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182> 강광철 씨 소장 '놋숟가락'

<사진 179>과 <사진 180>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소장하고 있는 '놋수저'와 '놋젓가락'이다. 김 씨는 <사진 180>의 '놋수저'가 보통 수저들과 달리 매우 무겁고 또 흔한 모양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진 181>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숟가락'으로 제를 올릴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181>의 숟가락 전체 길이는 27cm나 된다. <사진 182>는 세화리 강광철 씨의 '놋숟가락'이다.

(3) 쟁반

'쟁반'은 넓고 큰 그릇으로, 여기서는 제를 지낼 때 떡을 꾀어 올리는 그릇을 가리킨다.

“그거는 제기. 낭으로 만든 거. 집이서 만든 거. 그릇 우리 삼춘네 쓰단 거. 나가 쓰단 거 아니고 삼춘 쓰단 거 데껴 불肯 허난 앗아 왔주. 집이서 만든 거라. (삼춘은) 성읍리 사름인디 성읍리서 젤 솔씨 좋덴 헌 어른인디 돌아가셨주게. 막 오래신디 어느제 건디 나 몰르크라. 삼춘네 돌아가신 지가

이거 어느 때라게. 그디 무신 알루미늄 닮은, 스텐도 아니고 그런 거 나오난 저거 데껴 벗주게. 거난 그거 나 줍서 헷주게.”¹¹⁸⁾

(그거는 제기. 나무로 만든 거. 집에서 만든 거. 그릇 우리 삼촌네 쓰던 거. 내가 쓰던 거 아니고 삼촌 쓰던 거 버려 버리겠다고 하니까 가지고 왔지. 집에서 만든 거라. (삼촌은) 성읍리 사람인데 성읍리에서 제일 솜씨가 좋다고 한 어른인데 돌아가셨거든. 막 오래되었는데 어느 때 걷지 나 모르겠어. 삼촌네 돌아가신 지가 이거 어느 때야. 거기 무슨 알루미늄 같은,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그런 거 나오니까 저거 버린 거야. 그러니깐 그거 나 주십시오 한 거야.)



<사진 183> 송십자 씨 소장 ‘쟁반’



<사진 184> 송십자 씨 소장 ‘쟁반’

<사진 183>과 <사진 184>은 성읍리 송십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나무 ‘쟁반’과 사기로 된 ‘쟁반’이다. <사진 183>의 나무 ‘쟁반’은 성읍리에 살던 어른이 직접 만든 것으로, 스테인리스 제기의 보급으로 쓰지 않게 된 것을 송 씨가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쟁반들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 사용했다.



<사진 185> 정여옥 씨 소장 ‘쟁반’



<사진 186> 김을순 씨 소장 ‘쟁반’

118) 성읍리 송십자 씨 구술.



<사진 187> 김을순 씨 소장 '쟁반'



<사진 188> 부윤순 씨 소장 '접시'

한편, 관리와 보관이 어려운 나무 '쟁반'과 사기 '쟁반' 대신, 제보자 대부분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185>는 표선리 정여옥 씨가 현재 제사나 명절에 제물을 올릴 때 사용하고 있는 '쟁반'이고, <사진 186>과 <사진 187>은 성읍리 김을순 씨(1946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쟁반'이다. '제물'을 올릴 때 '접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사진 188>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용했던 '접시'다.

(4) 술잔과 잔대

'술잔'은 술을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는 데 쓰고, '잔대'는 잔을 받치는 접시 모양의 그릇이다.

“그건 놋잔이여. 존준헌 거. 옛날 하르방 배가 커난 모냥이라. 그거 잔 아니? 웨잔. 하나만 혜영 상 들여놓는 웨잔. 쌍잔은 존준하고.”¹¹⁹⁾

(그건 놋잔이야. 조그마한 거. 옛날 할아버지 배가 컸던 모양이야. 그거 잔 아니? 외잔. 하나만 해서 상 들여놓는 외잔. 쌍잔은 조그맣고.)

119)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구술.



<사진 189>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놋잔'



<사진 190>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잔대'

<사진 189>과 <사진 190>은 토산리 김종권·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으로 된 '술잔'과 '잔대'다. 제사상에 술을 올릴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일반적인 술잔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

“저 삼 부체 신 딘 세 개 올리곡. 두 부첸 두 개 올리곡. 그건 웨잔 놓는 거. 그거 흐나 놓는 거, 흐나, 흐나. 경 행 쓰는 거. 거 웨잔.”¹²⁰⁾

(저 삼 부처 있는 데는 세 개 올리고. 두 부처는 두 개 올리고. 그건 외잔 놓는 거. 그거 하나 놓는 거,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쓰는 거. 그거 외잔.)



<사진 191> 부윤순 씨 소장 '놋술잔'과 '잔대'

<사진 191>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놋술잔'과 '잔대'다. 제사를 지낼 때 두 분을 모시는지, 세 분을 모시는지에 따라 다른데 술잔이 세 개인 것을 부 씨는 '삼 부처'라고 했다. 두 개 올리는 잔과 세 개 올리는 술잔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20)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저 할망 하르방만 헤는 데는 두 개.”¹²¹⁾

(저 할머니 할아버지만 하는 데는 두 개.)

“(두 부처는 부부, (삼 부처는) 각시가 하나 더 있어. 한 사람만은 잔이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두 개를 올려야 돼. 이거는 웨잔.”¹²²⁾

(두 부처는 부부, (삼 부처는) 아내가 하나 더 있어. 한 사람만은 잔이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두 개 올려야 돼. 이거는 외잔.)



<사진 192> 김을순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193> 부윤순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194> 정여옥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195> 정여옥 씨 소장 ‘술잔’과 ‘잔대’

<사진 192>는 성읍리 김을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잔’과 ‘잔대’다. <사진 193>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술잔’과 ‘잔대’고, <사진 194>와 <사진 195>는 표선리 정여옥 씨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술잔’과 ‘잔대’다. 정 씨의 구술에 따르면, 술잔을 두 개 올리는

121) 성읍리 김을순 씨 구술.

122)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경우는 부부고, 세 개 올리는 경우는 아내가 한 명 더 있는 경우라고 한다.

(5) 모세그릇

‘모세그릇’은 모사(茅沙)를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오목하게 생겼으나 높은 굽이 있다. 표준어로는 ‘모삿그릇’이다.

“이거 고사리, 제지내젠 허민 고사리 세 곱쯤은, 보까 논 고사리 세 곱쯤은 냐. 술은 것에 안 놓고. 이거 고사리 보꼬면은 접시에 거리다가 또 이거를 세 겁만 아래 냐.”¹²³⁾

(이거 고사리, 제지내려고 하면 고사리 세 가닥쯤은, 볶아 놓은 고사리 세 가닥쯤은 넣어. 술은 그것에 안 넣고. 이거 고사리 볶으면 접시에 거리다가 또 이것을 세 가닥만 여기 넣어.)



<사진 196> 김을순 씨 소장 ‘모세그릇’

<사진 196>은 성읍리 김을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모세그릇’이다. 김 씨는 이 ‘모세그릇’에 술을 붓지 않고, 줄기가 세 갈래로 나뉜 볶은 고사리를 넣었다고 한다.

(6) 상돌과 상합

‘상돌’은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향로로, 돌로 보시기만큼 파서 만든 것을 말한다. ‘상합’은 표준어의 ‘향합’으로, 제사 지낼 때 피우는 향을 넣어서 보관하는 함이다.

“이것도 잊주게. 아이고, 참 난 이거 잊어도 분디 튼냅저게. 아들들 몬 새거 상 이거 안 썹수다게. 아덜덜 제서 마타 가도 안 써, 안 써.”¹²⁴⁾

(이것(향로)도 있지. 아이고, 참 난 이거 잊어버렸는데 생각나게 하네. 아들들 전부 새거 사서 이거 안 써요. 아들들 제사 맙아 가도 안 써, 안 써.)

123) 성읍리 김을순 씨 구술.

124)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사진 197> 부윤순 씨 소장 '놋향로'

<사진 197>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향로'로 자녀들이 제사에 사용하지 않자 부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내가 알거니 한 백 년은 더 됨 거 가데.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렌. 내 증조 할아버지덜이 했던 거고. 제사할 때 향불 피는 거.”¹²⁵⁾

(나, 내가 아는 바로는 한 백 년은 더 된 거 같아. 우리 아버지 얘기로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 내 증조 할아버지들이 했던 거고. 제사할 때 향불 피는 거.)



<사진 198> 송절자 씨 소장 '상돌'



<사진 199> 강광철 씨 소장 '상돌'

<사진 198>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상돌'이고, <사진 199>는 세화리 강광철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상돌'로, 강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125)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이거는 향합. 나의 증조 때부터니까 한 백 년은 더 됐 거 가테. 내가 제사헌 지도 한 사십 년 됐을 거예요. 내 서른 한 네댓 때부터 됐으니까 내가 칠십다섯이니까.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저 센고 그걸로 다 허지. 안 쓴 지가 한 이십 년쯤 됐을 거예요. 아니, 한 십오 년쯤 됐을 거라.”¹²⁶⁾

(이거는 향합. 나의 증조 때부터니까 한 백 년은 더 된 것 같아. 내가 제사한 지도 한 사십 년 됐을 거예요. 나 서른 한 넷 다섯 때부터 됐으니까 내가 칠십다섯이니까.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저기 저 향 그걸로 다 하지. 안 쓴 지가 한 이십 년쯤 됐을 거예요. 아니, 한 십오 년쯤 됐을 거야.)

“상가지 깨 놓는 거. 옛날에 센고 엊일 때. 상합.”¹²⁷⁾

((이거는) 상가지 깨 놓는 거. 옛날에 향 없을 때. 상합.)



<사진 200> 강광철 씨 소장 ‘향합’



<사진 201> 부윤순 씨 소장 ‘상합’

<사진 200>은 세화리 강광철 씨가 소장하고 있는 ‘향합’이다. 앞서 보았던 <사진 199>의 ‘상돌’과 마찬가지로 강 씨의 증조부가 사용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사십 년 가까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사진의 ‘향합’을 쓰지 않은 지는 십오 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함 안에 ‘상가지’ 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01>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향합’이다. 지금과 같은 향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미리 준비해 둔 ‘상가지’를 보관하던 함이라고 한다.

126)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127)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7) 촛대

‘촛대’는 초를 꽂아 불을 밝혀 둘 수 있게 만든 도구다.

“촛대. 제서헐 때. 제서헐 때 영 상에 놓 양펜더레 놓는 거. 초 켜영.”¹²⁸⁾

(촛대. 제사할 때. 제사할 때 이렇게 상에 놔서 양쪽에 놓는 거. 초 켜서.)



<사진 202>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촛대’



<사진 203> 부윤순 씨 소장 ‘촛대’

<사진 202>는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놋촛대’고, <사진 203>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촛대’다.

2.5. 기타 도구

(1) 뛰왁세기

‘뛰왁세기’는 쌀 등의 곡식을 뜨기 위해서 쌀독 등에 넣어 두고 사용하는 작은 식되를 대신하여 쓰는 그릇을 말한다. ‘뛰왁세기’는 표준에 ‘식되’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지역에 따라서는 ‘뛰약세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뛰왁세기 깨진 거) 남저 어른이 무깟구나게. 집잇 어른 산 때.”¹²⁹⁾

((식되 깨진 거) 남자 어른(남편)이 묶었구나. 집의 어른 살았을 때.)

128)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129)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저 밥할 때에 이렇게 쌀 이리 놔근엥에 대개 짐작행 수정에 따랑 짐작행 놓는 거, 저거. 혼 두 흡쯤 걸어질걸? 두 흡쯤 들 거야, 아마. 뛰왁세기.”¹³⁰⁾

(저 밥할 때 이렇게 쌀 이리 놓아서 대개 짐작해서 인원수에 따라 짐작해서 놓는 거, 저거. 한 두 흡쯤 떠질걸? 두 흡쯤 들 거야, 아마. ‘뛰왁세기’.)



<사진 204> 부윤순 씨 소장 ‘뛰왁세기’



<사진 205> 김창효 씨 소장 ‘뛰왁세기’

<사진 204>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뛰왁세기’다. ‘뛰왁세기’가 쪼깨지자 부 씨의 남편이 쇠로 끼매듯이 묶어 더 이상 벌어지지도 않도록 해 주었다고 한다. <사진 205>는 세화리 김창효 씨가 사용하고 있는 ‘뛰왁세기’로, 밥할 때 쌀을 떠 놓는 용도로 쓰는 것이다. 사진의 ‘뛰왁세기’로 가득 뜨면 약 두 흡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요거 쌀 거리레 뎅기는 거.”¹³¹⁾

(이거 쌀 뜨러 다니는 거.)

“이거 다 할머니 썼던 거라. 이런 것들은 뛰약세기. 가이, 뛰약세기. 그거 소낭, 소낭으로 만든 거.”¹³²⁾

(이거 다 할머니 썼던 거야. 이런 것들은 ‘뛰약세기’. 개, ‘뛰약세기’. 그거 소나무, 소나무로 만든 거.)

130)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131)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13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206> 송필수 씨 소장 '媿왁세기'



<사진 207> 송심자 씨 소장 '媿약세기'

<사진 206>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媿왁세기'로, 송 씨는 이것을 '쏠 거리레 뎅기는 거'라고 부르고 있다. <사진 207>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媿약세기'로, 송 씨의 할머니가 쓰던 것을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 '媿약세기'는 소나무로 만든 것이다.

(2) 상

'상'은 음식을 차려 낼 때 사용하는 '밥상'을 가리킨다. 보통 상은 나무나 스테인리스로 만든다. 보관과 관리가 용이가 '스테인리스 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밥 먹는 상만 어디서 찾아와신게. 저디 큰 상도 이신디.”¹³³⁾

(나 밥 먹는 상만 어디서 찾아왔네. 저기에 큰 상도 있는데.)



<사진 208> 김복순 씨 소장 '상'



<사진 209> 부윤순 씨 소장 '상'

133)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사진 208>은 가시리 김복순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으로, 상다리는 접어 ‘차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209>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상이다.

(3) 차판

‘차판’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받쳐서 운반하는 도구다. 표준어의 ‘쟁반’에 대응하는 말이다. 크기별로 여러 종류의 쟁반이 있는데, 작은 것은 접시 대신 음식을 놓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210> 김천종 씨 소장 ‘차판’



<사진 211> 송절자 씨 소장 ‘차판’

<사진 210>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소장하고 ‘차판’으로, 크기가 다른 여러 개를 갖추어 사용하고 있다.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상이었는데 상다리를 빼고 ‘차판’으로 바꿔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211>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차판이다.

(4) 약탕기

‘약탕기’는 탕약을 달일 때 쓰는 그릇이다.

“집사람 아픈 때. 그때 사온 거주. 약 땔릴 때.”¹³⁴⁾

(집사람 아플 때. 그때 사온 거야. 약 달일 때.)

134)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사진 212> 송필수 씨 소장 '약탕기'

<사진 212>는 하천리 송필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약탕기로, 송 씨의 아내가 먹을 약을 달일 때 썼던 것이다.

(5) 벤또

'벤또'는 도시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온 말로 제보자들은 아직도 도시락을 말할 때 일본어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아덜덜 학교 뎅길 때 거. 이거 하나만. 우리 큰아덜 써난 거. 가이 이제 쉰우답. 그땐 이런 벤또 헷주게. 국민학교 뎅길 때주게. 반찬은 무시거, 메르치나 허곡 김치 허곡. 그때는 계란도 독도 이녁 칩이 질루아근에 헹 허민이 계랄 반찬 그렇게 어려웠어. 우리 촌이니까이 못 살았주게. 그렇게 못 살았어.”¹³⁵⁾

(우리 아들들 학교 다닐 때 거. 이거 하나만. 우리 큰아들 썼던 거. 객 이제 쉰여덟. 그땐 이런 도시락 했거든. 국민학교 다닐 때지. 반찬은 이거 뭐, 멸치나 하고 김치 하고. 그때는 계란도 닭도 자기 집에 키워서 해서 하면 계란 반찬 그렇게 어려웠어. 우리 시골이니까 못 살았거든. 그렇게 못 살았어.)



<사진 213>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벤또'



<사진 214> 부윤순 씨 소장 '벤또'

135)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사진 213>은 하천리 송영선·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싸 주었던 것이라고 한다. 살림이 어려웠던 당시에는 계란 반찬도 어려워 주로 김치나 멸치를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 주었다고 한다. <사진 214>는 가시리 부윤순 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탓에 검게 변색된 것을 볼 수 있다.

(6) 콕박세기

‘콕박세기’는 박을 조개서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집에서 기른 박을 조개어 잘 말린 후 물을 끓 때도 사용하지만 여러 그릇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다.

“거 박세기 아니꽈. 저축 행 물항에 헤근에 박도 쓰고, 옛날에 물 거릴 때. 견고 이디서양 드르에 가근에 밥도 비왕 먹고양 막 용도가 다양허우다. 박 우리 해마다 이디 싱굽니다.”¹³⁶⁾

(그거 박세기 아닙니까. 저처럼 해서 물항에 해서 박도 쓰고, 옛날에 물 끓 때. 그리고 여기서요, 들에 가서 밥도 비워서 먹고요, 막 용도가 다양합니다. 박 우리 해마다 여기 심습니다.)

“작박, 국 작박. 국 거린 게 아니고 일허레 가믄 이거 여라 개 고냥 뜰랑 매달아 가믄 그 검질 메는 어른들한테 일허는 어른안티 여기 국을 떠 줬어. 국그릇이라, 이게. 국그릇으로 쓴 거. 계난 옛날은 검질 메곡 뭐, 뭐 이거 멘든 거. 퀘 오랫어. 옛날 거를 내가 갖고 싶어서. 물, 물 떠먹어도 물맛도 좋고. 박이 어딘가 모르게 해독이 돼는 거 같애. 물맛이 그렇게 좋아. 옛날에 수도가 아닐 때 냇물, 냇물 다 길어다 먹고 그랬는데.”¹³⁷⁾

(‘작박’, 국작박. 국 뜯 게 아니고, 일하러 가면 이거 여러 개 구멍 뚫어 매달고 가면 그 잡초 메는 어른들한테 일하는 어른한테 여기 국을 떠 줬어. 국그릇이야, 이게. 국그릇으로 쓴 거야. 그러니까 옛날은 잡초 메고 뭐, 뭐 이거 만든 거. 꽈 오래 되었어. 옛날 것을 내가 갖고 싶어서. 물, 물 떠먹어도 물맛도 좋고. 박이 어딘지 모르게 해독이 되는 거 같아. 물맛이 그렇게 좋아. 옛날에 수도가 아닐 때 냇물, 냇물 다 길어다 먹고 그랬는데.)

“나 이거 키완에 집이서 키완에 옛날에는 이걸로 막 우리 장, 항아리 많이 담을 때 그걸로 많이 퍼수께, 이 콕박세기로. 경 헤시난 거 막 생각난애. 이거 막 하영 만들안에 사람들 막 하영 주고 이거 헉나 남안. 다 놈 주고. 이거 한 이십 년 넘언. 우리 얘기 막 갓난 얘기 때 나가 만든 거난.”¹³⁸⁾

(나 이거 키워서 집에서 키워서 옛날에는 이걸로 막 우리 장, 항아리에 많이 담을 때 그걸로 많이 뀔어요. 이 ‘콕박세기’로. 그렇게 했으니 그거 막 생각나서. 이거 막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막 많이 주고 이거 하나 남안. 다 남 주고. 이거 한 이십 년 넘었어. 우리 아기 막 갓난아기 때 내가 만든 거니까.)

136)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37)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138) 세화리 김옥 씨 구술.



<사진 215> 송심자 씨 소장 '박세기'



<사진 216> 강광철 씨 소장 '곡박세기'



<사진 217> 김옥 씨 소장 '작박'



<사진 218> 강기수 씨 소장 '곡박세기'

<사진 215>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박세기'로, 송 씨는 매년 박을 심고 길러 '박세기'를 직접 만든다고 한다. 송 씨의 구술에 따르면, '박세기'는 들에 나가서는 밥을 담아 먹는 밥그릇으로도 쓰고, 또 물항의 물을 떠서 마시는 물그릇으로도 썼다고 한다. <사진 216>은 세화리 강광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박세기'로, 강 씨는 이것을 '작박'이라고 불렀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일터에서 여럿이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준비해 가 국그릇으로 썼다고 한다. 또 물을 떠서 마시는 용기로도 사용했는데, 강 씨는 '작박'에 떠서 마시는 물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한다. <사진 217>은 세화리 김옥 씨가 소장하고 있는 '곡박세기'로, 김 씨는 '곡박세기'를 직접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사진 218>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소장하고 있는 '곡박세기'다.

3. 주생활

사람에게 집은 바람이나 햇빛을 막아주고 몸을 쉬게 하는 기본적인 용도를 넘어, 생활의 출발이 되는 공간이다. 의생활, 식생활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다.

제주의 집은 전통 초가를 살던 시대부터 197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마을 안길이 확장되고 지붕과 부엌 등의 가옥 구조가 개량되었고, 수도, 전기가 들어오면서 생활은 점점 편리해졌다. 이러한 주거 양식의 변화는 주거와 관련된 도구들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즉 전통 주거 양식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 주거 관련 도구들이 사라지고 있다.

표선면 지역의 조사에서는 잊히고 사라져가는 전통 가옥의 형태와 주거 관련 도구들을 조사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들의 말과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건 등을 통해 기록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주생활 관련 도구를 집 관련, 가재도구, 조명도구, 난방도구, 연장류, 그 외의 것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

3.1. 집 관련

(1) 초집

제주의 전통 가옥은 ‘새’라고 부르는 ‘띠’를 이용해서 만든 ‘초집’이다. ‘초집’은 ‘초가’, ‘초가집’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의 읍·면 지역의 가옥 형태는 대부분 초가로 이루어졌다. 현재 초가집은 몇몇 마을에 민속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쉽게 찾아볼 수는 없는 가옥의 형태다. 표선면 조사에서는 성읍민속마을과 하천리의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서 전통 초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 송종선 가옥



<사진 2> 송정자 씨의 '초집'

<사진 1>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민속자료인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송종선 가옥이다. 송종선 가옥은 마을 내 도로변에서 50~60m 정도 들어가 있는 곳으로 1990년대 중반에 새로 보수했다고 한다. <사진 2>은 성읍리 송정자 씨(1938년생)가 현재 살고 있는 초가집이다. <사진 1>, <사진 2>에서 모두 제주의 강한 바람에 초가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지붕을 '새'로 덮어 굽은 밧줄로 묶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올레

제주의 주거지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올레'이다. '올레'는 거리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골목을 말한다.



<사진 3> 김천종 씨 집으로 들어가는 '올레'



<사진 4> 김인배 씨 집으로 들어가는 '올레'

<사진 3>은 세화리 김천종 씨(1936년생)의 집으로 들어가는 ‘올레’를 촬영한 것이고, <사진 4>는 성읍리 김인배 씨(1926년생)의 집 ‘올레’를 찍은 것이다. ‘올레’의 너비는 150~200cm 정도, 길이는 10~15m 되는 듯하다. 김인배 씨 집에서는 올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3) 정주석과 정살낭

‘정주석’은 집의 어귀 양쪽에 ‘정살낭’을 걸칠 수 있도록 설치한 돌기둥을 말한다. 보통 돌로 만든 것을 ‘정주석’이라 하고, 돌 대신 나무를 이용해 만든 것을 ‘정주목’이라고 한다.

“저 여기 들어올 때 정주석 저거는 한 몇 백 년 된 건데 건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물려준 거. 저거 보이잖아.”¹⁾

(저 여기 들어올 때 ‘정주석’ 저거는 한 몇 백 년 된 건데 건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물려준 거. 저거 보이잖아.)



<사진 5> 송절자 씨 집의 ‘정주석’



<사진 6> 송심자 씨 집의 ‘정주석’

<사진 5>는 성읍리 송절자 씨(1940년생) 집 어귀에 설치되어 있는 ‘정주석’이고, <사진 6>은 성읍리 송심자 씨(1951년생)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주석’이다. 송심자 씨 집 앞에 있는 ‘정주석’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송 씨의 남편 강기숙 씨(1945년생)의 친척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라고 한다.

<사진 5>와 <사진 6>을 살펴보면 ‘정주석’에 모두 세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구멍에 세 개의 ‘정살낭’을 걸칠 수 있다. ‘정살낭’은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대신 가로로 걸쳐 놓는 길고 굽직한 나무를 말한다. 이것을 ‘정낭’이라고도 부른다.

“제주도에는 이디 문이 엇주. 삼다삼무 중에 제주도에 문이 없다는 게 일무에 들어가거든. 정. 정살낭. 정. 놋주, 나무 영 헷어. 정살낭, 것그라 정살낭이엔 허는디 지금 정낭이라고. (집이 사름) 엇이면은 이디 세 개 다 놓고 사름 신 때 혼나만 영 찔러정 있어. 사름 넘어 오렌. (두 개는) 건 가까운 디 갓덴 허는.”²⁾

(제주도에는 여기 문이 없지. 삼다삼무 중에 제주도에 문이 없다는 게 일무에 들어가거든. 정. ‘정살낭’. ‘정’ 놋지, 나무 이렇게 했어. ‘정살낭’, 그것보고 ‘정살낭’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낭’이라고. (집에 사람) 없으면은 여기 세 개 다 넣고 사람 있을 때 하나만 이렇게 끼워져 있어. 사람 넘어 오라고. (두 개는) 그건 가까운 데 갔다고 하는.)



<사진 7> 한사율 씨 집의 ‘정주석’과 ‘정살낭’(앞)



<사진 8> 한사율 씨 집의 ‘정주석’과 ‘정살낭’(옆)

<사진 7>과 <사진 8>은 성읍리 한사율 씨(1935년생)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주석’에 ‘정살낭’이 걸쳐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한 씨의 구술에 따르면 제주에는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없기 때문에 ‘정살낭’을 놓고, 사람이 집안에 있고 없음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정살낭’은 세 개를 끼워 놓는데, 사람이 있다는 표시로는 ‘정살낭’을 하나만 끼워 놓고, 두 개가 끼워져 있으면 사람이 가까운 곳에 갔다는 의미, 세 개 모두가 끼워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표선면에서도 성읍리에서는 ‘정주석’과 ‘정살낭’을 흔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집집마다 정주석을 갖추지 않고 집 입구의 ‘어귓돌’에 ‘정낭’을 걸치는 경우도 많았다. ‘어귓돌’은 골목 어귀 양쪽 담에 쌓는 큰 돌을 말한다.

2)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그거 정낭 꽉는 돌이 없었주. 대개 저 돌 영 행 돌에 집집마다 그게 출리지 못허난 대개 돌에 영 현디 거 어귓돌이엔 해도 어귓돌. 지금 양 옆에 있는 어귓돌. 그건 저, 대개 성읍리 가민 그게 있주. 그거 우리 가시리는 그런 게 없었어.”³⁾

(그거 ‘정낭’ 꽉는 돌이 없었지. 대개 저 돌 이렇게 해서 돌에 집집마다 그게 갖추지 못하니까 대개 돌에 이렇게 한 데 거 ‘어귓돌’이라고 해도 ‘어귓돌’. 지금 양 옆에 있는 ‘어귓돌’. 그건 저, 대개 성읍리 가면 그게 있지. 그거 우리 가시리는 그런 게 없었어.)



<사진 9> 오태경 씨 집 ‘어귓돌’

<사진 9>는 가시리 오태경 씨(1931년생) 집에 설치되어 있는 ‘어귓돌’을 촬영한 것이다. 오 씨 말에 따르면 앞서 ‘정주석’의 경우에는 구멍을 세 개씩 뚫어 ‘정살낭’을 끼울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하는데 집집마다 구멍 뚫린 ‘정주석’을 갖추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주석’ 대신 돌을 쌓아 집의 입구임을 알리는 ‘어귓돌’을 세웠다고 한다.

(4) 문

‘문’은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가 꺼냈다가 하기 위해서 트워 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 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이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열고 닫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방에 설치하면 ‘방문’이 되고, 마루에 설치하면 ‘마루문’, 부엌에 설치하면 ‘부엌문’이 된다.

“대문, 창문. 문 두 갠디 큰 거 대문, 족은 건 창문, 뒷문. 저 널 오려 가지고 널로 해서 문 만든 거지. 이런 문이 아니고 영 넓게 허영 열앗당 더꼬고. (게난 마루에 있는 문을 대문이렌 헤는 거예?) 예, 예.”⁴⁾

(대문, 창문. 문 두 갠데 큰 거 대문, 작은 건 창문, 뒷문. 저 널 오려 가지고 널로 해서 문 만든 거지. 이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넓게 해서 열었다가 닫고. (그러니까 마루에 있는 문을 대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예.)

3)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4)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그 창문 옆이는 어른이 앓는 거라. 마루 옆에 그디 어른이 앓양 호령하는 거주마씨.”⁵⁾
(그 창문 옆에는 어른이 앓는 거야. 마루 옆에 거기 어른이 앓아서 호령하는 거지요.)



<사진 10> 고평오 가옥의 ‘대문’



<사진 11> 송종선 가옥의 ‘대문’

제주에서는 ‘마룻문’을 ‘대문’이라고 한다. <사진 10>은 성읍리 고평오 가옥⁶⁾의 ‘대문’이고, <사진 11>은 하천리 송종선 가옥의 ‘대문’이다. ‘대문’은 나무를 널로 오려 만든 여닫이문의 형태다.

위 <사진 10>, <사진 11>에서 보면 밖에서 마루로 통하는 문이 두 개가 나 있는데, 가시리 오태경 씨는 오른쪽의 큰 문을 ‘대문’, 왼쪽의 작은 문 ‘창문’이라고 했다. 마루의 ‘창문’ 옆에는 어른이 앓아 있으면서 그 문을 통해 호령한다고 했다.

“호령창, 그디 앓양 양반이 호령 치는 거.”⁷⁾
(‘호령창, 거기 앓아서 양반이 호령 치는 거.’)

‘대문’ 옆의 작은 문을 ‘호령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천리 강윤평 씨(1934년생)는 양반이 ‘호령창’ 옆에 앓아서 ‘호령 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5)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6) 고평오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이란 명칭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집의 본래 거주자 이름은 ‘고평호’였으나 ‘고평오’로 잘못 알려져 명칭이 굳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7)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2> 한사울 씨 집의 ‘문’



<사진 13> 한사울 씨 집의 ‘문’

<사진 12>와 <사진 13>은 성읍리 한사울 씨 집의 ‘문’이다. <사진 12>의 문은 건물 안과 밖을 드나드는 문이고, <사진 13>은 벽면의 위쪽으로 나 있는 창문 형태의 ‘문’이다. 모두 나무를 쪼개 이은 뒤, 다시 붙여 만든 것으로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문 가운데에는 문을 걸어 잠그거나 손잡이로 사용하는 동그란 모양의 문고리가 달려 있다.



<사진 14> 한사울 씨 집의 ‘방문’



<사진 15> 강윤평 씨 소장 ‘문’



<사진 16> 김천종 씨 집의 ‘방문’

<사진 14>는 한사울 씨 집의 ‘방문’이다. 나무 살로 되어 있는 문에 창호지를 바르는 형태로 여닫는 부분에 흠이 파여 있다. <사진 15>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문’이고, <사진 16>은 세화리 김천종 씨 집의 ‘방문’이다. ‘방문’의 윗부분은 한사울 씨

집의 ‘방문’처럼 나무 틀에 창호지를 바르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아랫부분은 유리와 나무로 제작되었다. 현재는 유리가 다 깨져 유리가 있던 부분을 상자로 가린 것을 볼 수 있다.

(5) 물통

‘물통’은 물을 받아 두어 쓸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주에 수도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축항’에 빗물을 받아 두거나, 가까운 하천에 가서 물을 길어오거나 또 우물을 파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용수를 유통했다.



<사진 17> 성읍민속마을의 ‘원님 물통’



<사진 18> 성읍민속마을의 ‘물통’

<사진 17>과 <사진 18>은 성읍민속마을 내에 마련된 ‘물통’이다. <사진 17>은 성읍민속마을 남문 근처에 있는 ‘원님 물통’으로, 관아에서 식수로 이용했던 것이다. <사진 18>은 성읍민속마을 교차로 근처의 ‘물통’으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 우물을 파서 생활용수로 이용했던 것이다.



<사진 19> 한사율 씨 집의 ‘촘’과 ‘촘항’



<사진 20> 한사율 씨 집의 ‘촘’과 ‘촘항’

<사진 19>와 <사진 20>은 성읍리 한사율 씨 집의 ‘촘’과 ‘촘항’이다. ‘촘’은 새를 엮어 나무에 매달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빗물을 받을 수 있게 만든 물건이고, ‘촘항’은 ‘촘’의 물을 받은 항아리를 말한다.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가까운 내나 산물에서 ‘허벽’으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이용하기도 하고, <사진 20>과 같이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초가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새로 콘크리트 집을 지으면서는 ‘촘항’ 대신 슬레이트 지붕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 놓을 수 있는 ‘물통’을 만들어, 거기에 물을 보관하면서 생활용수로 사용했다.

“옛날 지붕 개량한 집이 대개 물통 물 받양, 빗물 받양 먹전 개량한 거주게. 물이 귀하니깐. 물 받아 논 통. 이 지붕에서 스레트에서, 계단 중간에 우리 물 지레 뎅기기가 힘드난에.”⁸⁾

(옛날 지붕, 지붕 개량한 집이 대개 물통 물 받아서 빗물 받아서 먹으려고 개량한 거지. 물이 귀하니깐. 물 받아 놓은 통. 이 지붕에서 슬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물 지레 다니기가 힘드니까.)

8) 성읍리 강기숙 씨 구술.

“이디 왕 보난, 결혼행 왕 보난 전기도 없지, 수도도 없지. 겐에 여기 그 물통, 바가쓰에 저 배에 무낀에 영 헨에 떠근엥에 그 먹어난 그 물통을 이 사람 요자기 뿌사 불젠 허난, 안 됩니다. 거 기념으로 놔둡센. 그난에 요디 이 밑에 도라무깡이나 무시거 물 받을 거 놔근엥에 바가스에 배 무깡, 꽝 눌러근엥에 허민은 물 질어지민 영 영 올려근엥에 바깟드레 그 물통 우에 올라상 영 비우주게. 경허민 그 물로 떠다근엥에 이제 밥도 해 먹곡.”⁹⁾

(여기 와서 보니까,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전기도 없지, 수도도 없지. 그래서 여기 그 물통, 양동이에 저 배에 둑어서 이렇게 해서 떠서 그 먹었던 그 물통을 이 사람 요전번에 부숴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거 기념으로 놔두시라고. 그러니까 요기 이 밑에 드럼통이나 뭐 물 받을 거 놔서 양동이에 배 둑어서, 받침 눌러서 하면은 물 길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밖으로 그 물통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비우지. 그러면 그 물로 떠다가 이제 밥도 해서 먹고.)

성읍리 강기숙 · 송십자 씨 집에는 콘크리트에 시멘트를 발라 만든 ‘물통’이 있었는데, 지붕을 개량하면서 빗물을 받아 놓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송 씨는 그 ‘물통’에 받아 놓은 물을 발판을 놓고 올라가서 양동이로 길어 올리며 떠다가 생활했다고 한다.

“그거 물통. 수돗물 엊인 때 물, 봉천수 받아근에 그디 그득영 논 거주. 내 오라근에, 내창에 물 막 굽어 불민 못 먹으니까 우리 집에 왕 빌어다 먹엇어. 흔하지 안해, 이런 거. 나가 만든 거.”¹⁰⁾

(그거 물통. 수돗물 없을 때 물, 봉천수 받아서 거기 가득하게 해 놓은 거지. 내가 넘쳐서, 내의 물 아주 굽어 버리면 못 먹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빌어다 먹었어. 흔하지 않아, 이런 거. 내가 만든 거.)

“물통. 이거 수도꼭지 돌아난 디주.”¹¹⁾

(물통. 이거 수도꼭지 달았던 데지.)

9) 성읍리 송십자 씨 구술.

10)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1)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사진 21> 강윤평 씨 집의 '물통'



<사진 22> 송절자 씨 집 '물통'의 아래쪽

<사진 21>은 하천리 강윤평 씨 집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물통'이다. 강 씨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강 씨는 여기에 봉천수의 물을 길어다가 여기에 보관하면서 먹었다고 한다. 가물거나 폭우로 내의 물이 넘쳐 흙탕물이 되어 산물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강 씨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사진 22>는 성읍리 송절자 씨 집 물통의 아래쪽에 수도꼭지를 달았던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앞의 성읍리 강기숙 · 송심자 씨 집에서는 물통에 발판을 두고 올라 양동이로 물을 길어 올렸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사진 21>의 강윤평 씨의 '물통'도 앞쪽에 시멘트로 받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에 올라서서 물을 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송절자 씨 집의 '물통'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몇 개 놓여 있고, 계단 맨 아래쪽에 수도꼭지를 달아 사용했던 것이다.

3.2. 가재 도구

(1) 궤

'궤'는 옷 따위의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짠 가구를 말한다. 별다른 장롱이 없었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정마다 '궤'를 두어 옷이나 귀중품을 보관했다. 대체로 여성들이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장만해서 가지고 오는 물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궤'였다. 보통 옷장의 문이 옆으로 열고 닫는 형태로 만든다면, '궤'의 문은 위에서 아래로 열고 닫는 형태로 만든다. 표선면에서도 각 가정마다 한두 개씩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거는 친정에서 물린 거, 통쉐까지. 웨할무니가 물려준 거. 웨할무니가 굉장히 뭐 헌 어른인디 저거 있는 거를 우리 어무니 하나 나 하나. 할무니 젊은 때 헷단에 낭이 워낙 존 거라 노난. 어쨌든 잘도 오랫어. 이거 할무니 쓰단 것들.”¹²⁾

(요거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거, ‘통쉐’까지. 외할머니가 물려준 거. 외할머니가 굉장히 뭐 한 어른인데 저거 있는 거를 우리 어머니 하나 나 하나. 할머니 젊었을 때 했다가 나무가 워낙 좋은 거니까. 어쨌든 정말 오래되었어. 이거 할머니 쓰던 것들.)



<사진 23> 송심자 씨 소장 ‘궤’



<사진 24> 송심자 씨 소장 ‘궤’

<사진 23>과 <사진 2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사진 23>의 ‘궤’는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특히 <사진 23>의 ‘궤’에는 잠금 역할을 하는 자물쇠인 ‘통쉐’까지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 송 씨는 이 ‘궤’를 텔레비전 대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사진 24>의 ‘궤’는 송 씨의 시할머니가 쓰던 것이라고 한다. ‘궤’의 겉모습과 여닫이의 쇠만 보아도 매우 오래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표선리에서 조사된 ‘궤’들은 대개 제보자들이 시집올 때 장만한 혼수품이었다.

“(궤) 시집올 때 장만하고 온 거, 22살 결혼. 81세. 이거하고 저 책상. 궤 하나만 허고 이불하고. 이불은 옛날에 소케이불.”¹³⁾

((궤) 시집올 때 장만하고 온 거, 22살 결혼. 81세. 이거하고 저 책상. 궤 하나만 하고 이불하고. 이불은 옛날에 송이불.)

1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13)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이제 오십 년 넘은 건디, 육십 년. 시집올 때 해 온 거난. 폐선이서 만들어신디 뭐 몰라. 게난 그 가구점에 강 만들언에 사 왔는디 혼나가 그거 스물두 설에 사 온 거라. 소나무로 만든 거. 그 시절에는 다 소나무로.”¹⁴⁾

(이제 오십 년 넘은 건데, 육십 년. 시집올 때 해 온 거니까. 표선에서 만들었는데 뭐 몰라. 그러니까 그 가구점에 가서 만들어서 사 왔는데 하나가 그거 스물두 살에 사 온 거야. 소나무로 만든 거. 그 시절에는 다 소나무로.)



<사진 25> 현옥선 씨 소장 ‘궤’



<사진 26> 김복순 씨 소장 ‘궤’

<사진 25>는 표선리 현옥선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이다. 현 씨가 22살에 시집올 때 ‘솜이불’, ‘책상’과 함께 장만해 온 것으로 약 60년이 된 것이라고 한다. 현 씨는 궤를 짜주는 가구점에서 이 ‘궤’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진 26>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김 씨가 시집올 때 장만한 것이라고 한다. 김복순 씨 집의 ‘궤’는 다른 집에서 조사된 ‘궤’와 달리 밑부분에 서랍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궤? 저것도 혼 저것도 막 오랜 것덜이주. 저거 우리 살림 사는 때 혼 거난. 궤 혼 5, 60년 넘은 거라. 사 온 거지. 그때 궤 풀민. 궤 무시거 훌 때가 아니라. 이불 혼나 허곡 요 혼나 혜영 베개 두 개 허민 그 뛰께 쪼꼽에 요강 놓 가곡 혼는디 그때 우리 수삼사건 제우 끗나갈 때난 아무것도 엇인 때난 경 어느 하가에 궤 촐리곡.”¹⁵⁾

(궤? 저것도 한 저것도 막 오랜 것들이지. 저거 우리 살림 사는 때 한 거니까. 궤 한 5, 60년 넘은 거야. 사 온 거지. 그때 궤 팔면. 궤 뭐 할 때가 아니야. 이불 하나 하고 요 하나 해서 베개 두 개 하면 그 가마 속에 요강 넣고 가고 하는데 그때 우리 사삼사건 겨우 끗나갈 때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그렇게 어느 겨를에 궤 차리고.)

14)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15) 세화리 김창효 · 한영선 씨 구술.



<사진 27>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궤'



<사진 28> 김창효 · 한영선 씨 소장 '궤'

<사진 27>과 <사진 28>은 세화리 김창효(1938년생) · 한영선 씨(1937년생)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궤'다. 부부가 살림을 살 때 마련한 것으로 약 60년이 넘었다고 한다. 김창효 씨와 한영선 씨가 결혼할 때는 사삼사건이 겨우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혼수품으로 따로 '궤'를 준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진의 궤는 그 이후 구입한 것이다.

“사삼사건 전에니까 저거는 한 백 년 넘은 거여. 백 년 넘은 거. 그 후에는 저런 거 만들지 안했어.”¹⁶⁾
(사삼사건 전에니까 저거는 한 백 년 넘은 거야. 백 년 넘은 거. 그 후에는 저런 거 만들지 않았어.)

“그자 옛날 거 그디 궤 비었주게. 옛날 거. ㅎ나는 막 오랜 걸 거라. 검은 거 닮은 거. 그건 오랜 거라.”¹⁷⁾

(그저 옛날 거 거기 궤 비었지. 옛날 거. ㅎ나는 막 오랜 걸 거야. 검은 거 같은 거. 그건 오랜 거야.)

16)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17)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29> 김은두 씨 소장 '궤'



<사진 30> 강윤평 씨 소장 '궤'

<사진 29>는 가시리 김은두 씨(193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만들어진 지 약 백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30>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다. 현재 '궤' 안에 무엇인가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사진 30>을 자세히 보면 '궤'의 잠금 장치를 다는 부분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은 것과 '궤' 아래 서랍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 벽장

'벽장'은 벽을 뚫어 그 안에 물건을 올려 두게 만든 곳으로 '벽장'을 말한다. 대개 여기에 '궤'나 이불 따위를 올려 두는데, 문을 달아 사용하기도 한다. 제보자에 따라 '벽장'을 '시렁'이라고도 부른다.

“벽장, 그디 애기 행장덜. 우린 원래가 영 문 달리게 만들언. 우리 족은아덜이 시방 마흔이니까 사십이 년 됐져. 궤도 이디 벽장 우이.”¹⁸⁾

(벽장, 거기 애기 행장들. 우린 원래가 이렇게 문 달리게 만들었어. 우리 작은아들이 시방 마흔이니까 사십이 년 됐어. 궤도 여기 벽장 위에.)

“(벽장 옆에 이 문을 또시 둘안?) 저기는 뭐 행장덜 놀라고, 제사하니까 그디 펑퐁도 놓고 뭐 그런 것덜 놓는 디.”¹⁹⁾

((벽장 옆에 이 문을 다시 달았어?) 저기는 뭐 행장들 놓으려고, 제사하니까 거기 병풍도 놓고 뭐 그런 것들 놓는 데.)

18) 성읍리 김을순 씨 구술.

19) 성읍리 김을순 씨 구술.

“시렁, 원래 집 짓을 때부터 문 돌아진 거. 시렁에 무신 이불 그것덜 낫주. 궤, 옛날 궤 헌 거 시렁에 셔.”²⁰⁾

(‘시렁’ 원래 집 지을 때부터 문 달려 있던 거. ‘시렁’에 무슨 이불 그것들 놓았지. 궤, 옛날 궤 한 거 ‘시렁’에 있어.)



<사진 31> 김을순 씨 집의 ‘벽장’



<사진 32> 김일출 씨 집의 ‘시렁’

<사진 31>은 성읍리 김을순 씨(1946년생) 집의 ‘벽장’이다. <사진 31>의 ‘벽장’ 안에는 두 종류의 ‘궤’가 있고, 그 위에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담아 놓고 있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벽장’을 만들 때부터 여닫이문을 달아 두었다고 한다. 이 ‘벽장’은 작은아들이 태어나던 해 제작한 것으로 약 40년이 된 것이라고 한다. 벽장의 왼쪽 벽면에는 길게 장을 짜서 미닫이문을 달았는데, 여기에는 제사 때 사용하는 병풍 따위를 보관하고 있다. <사진 32>는 가시리 김일출 씨(1924년생) 집의 ‘시렁’이다.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불, 궤 등을 보관하고 있다.

(3) 살레

‘살레’는 그릇이나 반찬 따위를 넣어 놓는 곳인 ‘찬장’을 말한다. ‘살레’ 안에 반으로 쪼갠 대나무를 엮어 뒤집어 놓은 뒤 다 씻은 그릇을 엎어 두면 물이 아래로 빠져 그릇이 마른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반찬을 보관하는 용도로 ‘살레’를 활용했었다.

20) 가시리 김일출 씨 구술.

“이 살레는 양 누게가 써난 게 아니고 원래 살레 있던 것이 다 삭안, 삭아 부난 양. 이제 살레가 엊어 부난 만들아십주게. 이거 훈 이십 년 됐수다. (완전 옛날식으로) 꼭 그대로 헤도렌 헷수궤. 일부러 그디 대도 이 수리대 헤근에 다 받침대 허고. 그때는 집 저 안튀엔 헤근에양, 그디 돌아가명 이대를 하영 싱거수게게. 경허민 그거 헤근에 끈엉 허민 그 물도 잘 빠지고, 무시거 반찬거튼 거 놔도 대도 원래 그 찬 기를 가져 있는 게 아니꽈? 대라는 게. 겐 음식 노민 아맹헤도 덜 쓰곡게. 게민 저거 멧 년 쟁 삭아가민 또 새로 만들고 힙니다. 저건 들렀당 낯닥 헤지는 거난. (대) 조개도 허고 통으로도 허고 건 규칙이 엇수다. 이녁 멘그는 사름, 이녁 모음이우다. 건 이녁 모음입주.”²¹⁾

(이 찬장은요, 누가 썼던 게 아니고 원래 찬장 있던 것이 다 삭아서, 삭아 버리니까요. 이제 찬장이 없으니까 만들었지요. 이거 한 이십 년 됐습니다. (완전 옛날식으로) 꼭 그대로 해 달라고 했지요. 일부러 거기 대도 이 대도 해서 다 받침대 하고. 그때는 집 그 저 ‘안튀’라고 해서요, 거기 돌아가면서 이대를 많이 심었지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해서 끊어서 하면 그 물도 잘 빠지고 뭐 반찬같은 거 넣어도 대도 원래 그 찬 기를 가져 있는 게 아닙니까? 대라는 게. 그래서 음식 넣으면 아무래도 덜 쓰고. 그러면 저거 몇 년 써서 삭아가면 또 새로 만들고 합니다. 저건 들렀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대) 조개서도 하고 통으로도 하고 건 규칙이 없습니다. 자기 만드는 사람, 자기 마음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지요.)



<사진 33> 송심자 씨 소장 ‘살레’



<사진 34> 김일출 씨 소장 ‘살레’

<사진 33>은 성읍리 송심자 씨 집에 있는 ‘살레’다. 만든 지 약 20년이 된 것으로, 송 씨가 옛날식으로 제작을 원해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이 ‘살레’는 총 세 칸으로 된 ‘살레’에 씻어 엎은 그릇의 물기가 잘 빠지도록 ‘수리대’를 갈아 두는 전통 방식 그대로의 모습이다. <사진 34>는 가시리 김일출 씨가 사용하고 있는 ‘살레’다. 그릇부터 사발, 양푼까지 부엌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도구들이 윗칸에 설치된 유리문을 통해 살짜 보인다.

2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4) 책상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보거나 할 때에 앞에 놓고 쓰는 상을 말한다. 결혼할 때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혼수품으로 궤와 함께 책상을 준비해 오기도 한다.

“옛날 책상은 이거주게. 우리 집이 아방, 얘기 아방 써난 거.”²²⁾

(옛날 책상은 이거지. 우리 집의 남편, 얘기 아빠 썼던 거.)

“(시집을 때) 이거하고 저 책상. 궤 하나만 허고 이불허고. 이불은 옛날에 소게 이불.”²³⁾

((시집을 때) 이거하고 저 책상. 궤 하나만 하고 이불하고. 이불은 옛날에 솜 이불.)



<사진 35> 송심자 씨 소장 ‘책상’



<사진 36> 현옥선 씨 소장 ‘책상’

<사진 35>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책상’이다. 송 씨의 남편 강기숙 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지금은 마루에 두고 텔레비전을 올려 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36>은 표선리 현옥선 씨(1941년생)가 시집을 때 ‘궤’, ‘솜이불’과 함께 장만해 온 ‘책상’이다. 현 씨의 구술을 통해 ‘책상’ 역시 혼수품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올려놓고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2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23)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3.3. 조명 도구

조명 기구는 전기가 들어오기 전과 이후로 그 변화를 크게 겪었다. 전깃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을 밝히기 위해 접시에 기름을 넣고 그 안에 심지를 걸쳐 불을 켜는 ‘접시불’ 혹은 ‘잽시불’이 있었고, ‘접시불’ 이후에는 ‘각지’에 기름과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켜는 ‘각지불’이 있었다. ‘각지’ 이후에는 ‘등핏불’이 등장했다. 이후 제주에 전깃불이 들어오면서 일반 백열등, 형광등이 생겼다. ‘접시불’, ‘각지불’, 나아가 ‘등핏불’을 사용할 때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전기의 사용으로 한순간에 편해진 것이다.

표선면 조사에서는 조명 도구의 변화를 고스란히 다 볼 수 있는 ‘각지불’, ‘등핏불’, ‘백열등’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1) 각지

‘각지’는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에 쓰는 그릇인 ‘등잔’을 말한다. ‘각지’에다가 기름과 심지를 넣어서 불을 피우면 이것이 바로 ‘각지불(등잔불)’이다.

“저 불, 불 싸는 거이. 무신 불 싸는 거나 도구?튼 거 노곡. 각지, 각지, 각지불. 이거 만든 거엔 허니까. 각지불. 거 노래도 있어. 각지불은 벨롱벨롱. 석유, 석유이. 석유 나기 전에, 석유는 등피 아냐, 등피? 등피 전에 난 거. 각지불. 지난 등피는 등피가 먼저 나주게. 호야엔 허곡, 그 다끄는 거.”²⁴⁾

(저 불, 불 켜는 거. 무슨 불 켜는 거나 도구같은 거 놓고. ‘각지’, ‘각지’, ‘각지불’. 이거 만든 거라고 하니까. ‘각지불’. 거 노래도 있어. ‘각지불’은 ‘벨롱벨롱’. 석유, 석유. 석유 나기 전에 석유는 등피 아냐, 등피? 등피 전에 난 거. ‘각지불’. 그러니까 등피는 등피가 먼저 나지. ‘호야’라고도 하고, 그 닦는 거.)



<사진 37> 송심자 씨 소장 ‘각지’와 ‘각지대’



<사진 38> 한사율 씨 소장 ‘각지’와 ‘각지대’

24) 성읍리 한사율 씨 구슬.

<사진 37>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각지’와 ‘각짓대’다. <사진 38>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직접 만든 ‘각짓대’로 높이는 35cm다.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담긴 ‘각지’에 심지를 넣어야 했다. 단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을 온전히 보관할수 있었느냐를 위의 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37>은 ‘각지’에 심지가 있지만 <사진 38>은 심지가 빠진 모습이다.

“호롱불, 등잔불 우리 집이도 셔낫는디 전부 없어져 불고. 등잔 영 나온 거 영 헌 것에 틱 올려놓고 또 옆으로 올려놓고. 등잔이엔 헌 게 보시구치 영 뛴 건디. (그때 지름은) 섹유지름이엔 헷주. (섹유지름) 나오기 전에는 여기 둠박, 둠박도 빠근에 둠박도 영 영 지름 놋근에 심지 놋근에 영 허민 불부떠. 그것도 허고 또 곱. 소에서 나오는 곱, 지름 그것도 쓰고. 옛날은 뭐 불 밝힐 게 엇이난 그것 저것 헷어.”²⁵⁾

(호롱불, 등잔불. 우리 집에도 있었는데 전부 없어져 버리고. 등잔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한 것에 틱 올려놓고 하고 또 옆으로 올려놓고. 등잔이라고 한 게 보시기같이 이렇게 된 건데. (그때 지름은) 섹유기름이라고 했지. (섹유기름) 나오기 전에는 여기 동백, 동백도 빽아서 동백도 이렇게 이렇게 기름 넣어서 심지 놋서 이렇게 하면 불 붙어. 그것도 하고 또 곱. 소에서 나오는 곱, 기름 그것도 쓰고. 옛날은 뭐 불 밝힐 게 없으니까 그것 저것 했어.)

가시리 오태경 씨는 위 <사진 37>, <사진 38>과 같은 불을 ‘호롱불’, ‘등잔불’이라고 했다. 등잔 위에 보시기와 같은 그릇을 올려 놓고 거기에 동백기름이나 섹유기름 등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피웠다고 한다.

(2) 호야

‘각지불’ 이후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남포등’이 등장했다. 이것은 달리 ‘등핏불’이라고도 부르는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을 막고 불빛을 밝게 하기 위한 ‘등피’를 끼우기 때문이다. 이것을 ‘호야, 호야등, 호야불’, ‘호롱불’로 부르기도 하는데 표선면에서는 ‘호롱불’, ‘등잔불’, ‘호야’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호야) 써난 거. 써난 건디 그 호야가양 깨져 불언계. 유리라부난. 거 다 녹슬언. (삼춘 시집왔을 때 호야도?) 예게. 경혜근에 나양 처음에 시집오난 그 호야그 따끌 줄 몰랑멧 번 깨 불명.”²⁶⁾

25)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26)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39> 송심자 씨 소장 '호야'

<사진 39>는 성읍리 송심자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야불'이다. 송 씨는 이 '호야'를 공장에 걸어두고 있었다. 유리 소재인 '등피'는 깨지기가 매우 쉽다고 한다. 송 씨는 시집오고 난 후 '등피'를 닦을 줄 몰라 여러 번 깨 버렸다는 일화를 전해 주었다.

(3) 전등

'전등'은 전기의 힘으로 밝은 빛을 내는 등을 말한다. 흔히 '백열전기등'을 일컫는다. 1960년대 중후반 제주에 전기가 보급된 이후 전등을 사용해 불을 켰다.

“전기불 들어온 거 가시리, 서른 살까지는 안 들어왔어. 육십 한 팔 년쯤 돼지 안 혜신가 생각해 내가. 오일육 혁명 일어나 가지고 가시리가 그 도로 포장하고 뭐 해 가지고 가시리가 전기가 먼저 들어왔거든. 재일교포 후원을 받아서 겐디 그때 정확한 거는 우리 가시리지에 있는데 육십년 대 같애.”²⁷⁾

(전기불 들어온 거 가시리, 서른 살까지는 안 들어왔어. 육십 한 팔 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내가. 오일육 혁명 일어나 가지고 가시리가 그 도로 포장하고 뭐 해 가지고 가시리가 전기가 먼저 들어왔거든. 재일교포 후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때 정확한 거는 우리 가시리지에 있는데 육십년 대 같아.)

27)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사진 40> 오태경 씨 집 창고의 ‘백열등’



<사진 41> 김일출 씨 집의 ‘형광등’

<사진 40>은 가시리 오태경 씨(1931년생) 집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등’이다. 오 씨의 말에 따르면 1968년쯤 가시리에 처음 전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가시리가 다른 지역보다 전기 보급이 빨랐으며 그 시기를 1960년대로 기억하고 있다. <사진 41>은 가시리 김일출 씨 집 천장에 설치된 ‘형광등’이다.

한편, 집 천장, 창고 천장 등에 설치해 두는 전등도 있지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전등’도 있다.



<사진 42> 부윤순 씨 소장 ‘손전등’

<사진 42>은 가시리 부윤순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손전등’이다. 전지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비록 오래된 도구는 아니지만 전기 보급 이후 간편하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손전등도 개발되어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3.4. 난방 도구

(1) 화리

‘화리’는 솟불을 담아 놓는 그릇인 ‘화로’를 말한다.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정동화리’, ‘돌화리’, ‘옹기화리’, ‘양은화리’, ‘사기화리’, ‘췌화리’ 등으로 나뉜다.

“정동화리. 불 출 때. 불 출 거. 방에, 방에 낸. 정동화리 두 개. 건 요새 거.”²⁸⁾

(정동화로. 불 쪼일 때. 불 쪼일 거. 방에, 방에 놓았어. 정동화로 두 개. 건 요새 거.)

“(청동화리) 할무니가 써난 거. 계근에 저슬 나민 숫 굽는 사름안티 부탁해근에 숫을 가맹이로 사. 게서 그디서 약 딸령 잡수고이. 저 경하고 또 정월 맹질에 세배 손님, 나이 막 드셔 부난 백한 설 때 돌아가셨주게. 경혜 부난 세배 소님이 막 하낫어. 방상이 하난. 계난 세배 소님 오민 그디 골감주 해근에 그디서 딸리멍. 딸린 거를 주전지에 완 뜨뜻히 허멍 골감주 헤근에 주고. 무물묵 헤근에 아까 저디 신 돌화리서 그디서 지름장 불르멍 구워낫주게. 경허민 막 그거 맛좋아. 경허민 그 청묵 현 거 멧 개 놓고 이디서 골감주 데와근에 손님, 세배 손님덜안티 주고 헤낫수께.”²⁹⁾

((청동화로) 할머니가 썼던 거. 그래서 겨울 되면 숫 굽는 사름한테 부탁해서 숫을 가마니로 사. 그래서 거기서 약 달여서 잡수고. 저 그렇게 하고 또 정월 명절에 세배 손님, 나이 막 드셔 버리니까 백한 살 때 돌아가셨지. 그렇게 해 버리니까 세배 손님이 막 많았어. 방계가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배 손님 오면 거기 골감주 해서 거기서 달이면서. 달인 거를 주전지에 와서 따뜻하게 하면서 골감주 해서 주고. 메밀묵 해서 아까 저기 있는 돌화로에서 거기서 기름장 바르면서 구웠었지. 그렇게 하면 아주 그거 맛 좋아. 그렇게 하면 그 청묵 한 거 몇 개 놓고 여기서 골감주 데워서 손님, 세배 손님들한테 주고 했었지요.)



<사진 43> 김천종 씨 소장 ‘정동화리’



<사진 44> 송심자 씨 소장 ‘청동화리’

‘정동화리’는 청동으로 만든 화로로, 겨울에 불이걸을 담아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구로 사용했다. <사진 43>의 ‘정동화리’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증조,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28)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29)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물려받은 것이다. 김천종 씨는 장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의 물건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창고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의 ‘정동화리’는 겨울철 방 안에 두고 불을 쪼일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44>는 성읍리 송심자 씨의 시할머니가 사용하던 ‘청동화리’다. 송 씨의 시할머니는 겨울이 되면 숯을 굽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숯을 가마니로 산 뒤 이 ‘화리’에 두고 약을 달여 드셨다고 한다. 또 시할머니의 친족이 많고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정월 명절에는 세배 손님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 이 ‘청동화리’에 주전자에 넣은 골감주를 달이면서 손님들을 대접했다고 한다.

“사기. 사기화리. 불화리.”³⁰⁾

(사기. 사기화로. ‘불화리’)



<사진 45> 김천종 씨 소장 ‘사기화리’



<사진 46> 송심자 씨 소장 ‘사기화리’

<사진 45>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가지고 있는 ‘사기화리’다. <사진 43>의 ‘정동화리’와 마찬가지로 김 씨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화리’에 불수저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46>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기화리’다. 송 씨가 깨끗하게 닦아 두어 사진에서도 사기의 재질이 그대로 잘 나타난다.

“(우리 화리 하나 찍어신디) 그건 췌화리.”³¹⁾

((우리 화로 하나 찍었는데) 그건 쇠화로.)

30)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31)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사진 47>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췌화리'



<사진 48> 송절자 씨 소장 '아르미화리'

<사진 47>은 토산리 김종권(1934년생) · 오봉순 씨(1934년생) 집에 있는 '췌화리'고, <사진 48>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아르미화리'다. <사진 45>에서 <사진 48>까지의 '화리'들은 그 모양은 같지만 만들어진 재료가 '사기', '췌', '아르미'로 각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섭, 불 숨양 초는 거. 혼 삼사십 년 뛰실 거라. 이거 기냥 멘든 거. 멘든 거.”³²⁾

(‘부섭’, 불 때서 찌는 거. 한 삼사십 년 되었을 거야. 이거 그냥 만든 거, 만든 거.)



<사진 49> 송심자 씨 소장 '돌화리'



<사진 50> 강기수 씨 소장 '부섭'

<사진 49>는 성읍리 송심자 씨 집에서 사용하던 '돌화리'다. '돌화리' 밑에 다리도 만들어져 있고, 위에는 '적쉐', 불숟가락 등이 꽂혀 있는 것이 보인다. 송 씨의 시할머니가

32)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용하던 것이다. <사진 50>은 세화리 강기수(193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부섭’이다. ‘부섭’은 마루나 부엌에 고정된 돌화로를 말하는데, 강 씨는 양철로 만든 이것을 ‘부섭’이라고 했다. 강 씨는 이 ‘부섭’을 삼사십 년 전에 만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불을 때어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기구로 사용했다고 한다.

(2) 적쉐, 불접게와 불수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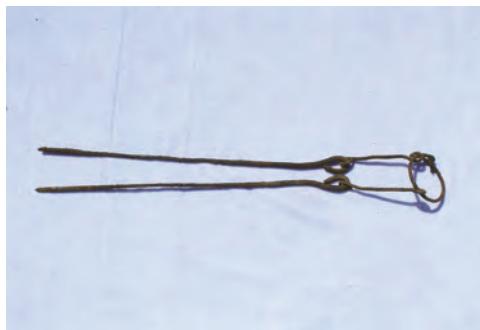
‘적쉐’는 제사 때 묵이나 고기를 구울 때 사용했던 쇠붙이를 말한다. 화로 또는 부섭에 꽂아두고 불덩이를 집거나 불을 헤치는 데에 쓰고자 쇠로 만든 젓가락은 ‘불젓가락’ 또는 ‘불접게’라고 했다. 또 같은 용도이나 숟가락으로 된 것은 ‘불숟가락’이라고 한다.

“그거 이름? 적쉐. 제사 때 저 무슨 고기나 묵이나 이런 거 굴 때. 화리 위에 올려 놔.”³³⁾

(그거 이름? ‘적쉐’. 제사 때 저 무슨 고기나 묵이나 이런 거 구울 때. 화로 위에 올려 놔.)

“요거 고기 구울 때 숯불 해서 헐 때 이렇게. 저거 뭐렌 혜라만은? 불접게렌 허라. 지금은 접게여, 무시거 힘주만은 옛날엔 불접게.”³⁴⁾

(요거 고기 구울 때 숯불 해서 할 때 이렇게. 저거 뭐라고 하더라만은? ‘불접게’라고 하더라. 지금은 ‘접게’여, 뭐야 하고 있지만 옛날엔 ‘불접게’)



<사진 51> 강성종 씨 소장 ‘적쉐’



<사진 52> 김종권 씨 소장 ‘불접게’

<사진 51>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하던 ‘적쉐’다. 강 씨는 이 ‘적쉐’를 이용해 제사 때 화로 위에서 고기, 묵 등을 구웠다고 한다. 부젓가락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적을 꽂는

33)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34)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적쉐’로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52>는 토산리 김종권 씨가 보관하는 ‘불접게’다. 김 씨는 이것을 속불에서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불수저. 불, 불. 솟도 담곡, 골르고 헐 적에.”³⁵⁾
(불수저. 불, 불. 솟도 담고. 고르고 할 적에.)



<사진 53> 김천종 씨 소장 ‘정동화리’의 ‘불수저’



<사진 54> 김천종 씨 소장 ‘불수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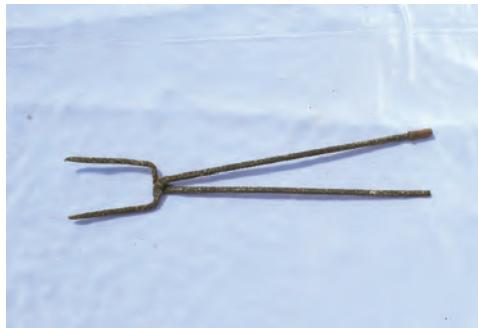
<사진 53>은 세화리 김천종 씨의 ‘정동화리’에 꽂혀 있는 ‘불수저’를 찍은 것이고, <사진 54>는 그 ‘불수저’만 따로 꺼내 찍은 모습이다. 일반 숟가락과 다르게 가운데가 옴폭 파이지 않고 평평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건 저 불에 구웡 불 접지는 거. 이거 연탄 旱는 거, 진짜로. 이 촌에 우린 연탄 안 헤낫주. 이거 그냥 불접게 헤나난.”³⁶⁾

(그건 저 불에 구워서 불 잡는 거. 이거 연탄 하는 거, 진짜로. 이 촌에 우린 연탄 안 했었지. 이거 그냥 불접게 했었으니까.)

35)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36) 세화리 김양선 씨 구술.



<사진 55> 김양선 씨 소장 ‘불접게’

한편, 기성품으로 나온 연탄불을 갈 때 사용하는 연탄 집게를 세화리 김양선 씨 (1933년생)는 숯불을 집는 ‘불접게’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55>는 세화리 김양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불접게’다.

(3) 굴목과 굴목군데

‘굴목’은 온돌방에 온기를 넣기 위해 불을 때는 아궁이를 말하고, ‘굴목군데’는 방에 불을 지피기 위해 ‘굴목’에 땔감을 넣거나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굴목군데’는 달리 ‘굴목근데’라고도 부른다.



<사진 56> 송무옹 씨 집 ‘정지’에 설치된 ‘굴목’



<사진 57> 부대옥 씨 집 외벽에 설치된 ‘굴목’

<사진 56>은 토산리 송무옹 씨(1943년생) 집 ‘정지’에 설치된 ‘굴목’이고, <사진 57>은 토산리 부대옥 씨(1948년생) 집 외벽에 설치된 ‘굴목’이다. 제주의 옛날 가옥의 경우는 난방을 위해 ‘굴목’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난방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56>처럼 ‘정지’과 인접한 방에는 부엌의 아궁이가 ‘굴목’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진 57>처럼 외부 벽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한다. 제주에서는 ‘굴목’을 때는 일을 ‘굴목진다’라고 말한다. 이 두 곳 모두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 ‘굴목진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사진 58> 송필수 씨 소장 ‘굴뚝군데’

<사진 58>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하던 ‘굴뚝군데’다. ‘굴뚝’에 들어갔던 흔적으로 끝과 중간 부분이 그을려 있다.

“굴뚝군데, 재 꺼낼 때도 쓰고. (날레 널 때 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하는디 그거는, 굴뚝군데는 좀 작고 날레 너는 거는 좀 길주게. 게난 요 정도면 여기 뭐 박아 가지고, 낭 박아 가지고 영 해야 재를 영 쓸엉 나올 거.”³⁷⁾

(‘굴뚝군데’, 재 꺼낼 때도 쓰고. (‘날레’ 널 때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는, ‘굴뚝군데’는 좀 작고 ‘날레’ 너는 거는 좀 길지. 그러니까 요 정도면 여기 뭐 박아 가지고, 나무 박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재를 이렇게 쓸어서 나올 거.)

“굴뚝근데라고 있어. 굴뚝근데는 요, 작지. 작아. 저, 저 도달도달하게시리 헌 것도 엇고, 굴뚝근데는 그냥. (날레근데보다) 죽고.”³⁸⁾

(‘굴뚝근데’라고 있어. ‘굴뚝근데’는 요, 작지. 작아. 저, 저 ‘도달도달하게끔’ 한 것도 없고, ‘굴뚝근데’는 그냥. (‘날레근데’보다) 작고.)

하천리 양행일 씨(1958년생)와 세화리 강기수 씨의 말에 따르면 ‘굴뚝군데’는 ‘날렛군데’와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날렛군데’의 끝이 톱니처럼 되어 있다면 ‘굴뚝군데’의 끝은 편평하게 생겼다고 한다. 또한 ‘날렛군데’에 비해 ‘굴뚝군데’의 끝은 비교적 길이가 짧고 작다고 한다.

37) 하천리 양행일 씨 구술.

38)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3.5. 연장류

(1) 톱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에 쓰이는 연장이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다. 대개는 강철로 된 얇은 판에 한쪽 또는 양쪽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이로 되어 있다.

“톱 그것도 저 일본서 우리 큰아버지가 갖다 줘신가? 갖다 주난 쓰당 그만 그냥 있는 거. 그것도 다 톱.”³⁹⁾

(톱 그것도 저 일본서 우리 큰아버지가 갖다 줬던가? 갖다 주니까 쓰다가 가만히 그냥 있는 거. 그것도 다 톱.)

“톱. 그냥 뎅이면서 미깡냥 전정헐 때 사용허는 거. 저 저 짜건 지금도 사용해여.⁴⁰⁾

(톱. 그냥 다니면서 감귤나무 전정할 때 사용하는 거. 저, 저, 저건 지금도 사용해.)”



<사진 59> 송무옹 씨 소장 ‘톱’



<사진 60> 송무옹 씨 소장 ‘톱’

39)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4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사진 61> 강윤평 씨 소장 '톱'



<사진 62> 강성종 씨 소장 '톱'

<사진 59>와 <사진 60>은 토산리 송무옹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송 씨의 큰아버지가 일본에서 가져다 준 것이라고 한다. 두 개 톱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61>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구입한 톱이고, <사진 62>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톱'이다. 강 씨는 이 '톱'을 감귤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꿰톱. 꿰 짤를 때.”⁴¹⁾

(쇠톱. 쇠 자를 때.)



<사진 63> 강성종 씨 소장 '꿰톱'



<사진 64> 고경만 씨 소장 '톱'

4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사진 63>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췌톱’이다. 강 씨는 이 ‘췌톱’을 쇠를 자를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 64>는 표선리 고경만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췌톱’으로, <사진 63>의 강 씨의 ‘췌톱’과 매우 유사하다.

(2) 도끼

‘도끼’는 나무를 찍거나 패는 데에 쓰는 연장이다. 제주에서는 이것을 ‘도치’라고도 한다. 쐐기 모양의 큰 쇠 날의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단단한 나무 자루를 박아 사용한다.

“도끼. 도끼. 주로 쓰는 게 뭐 별로 엇는데 장작 해 가지고 쪘갤 때. 장작 쪘개멍 써난.”⁴²⁾

(도끼. 도끼. 주로 쓰는 게 뭐 별로 없는데 장작 해 가지고 쪘갤 때. 장작 쪘개면서 썼었어.)

“저 거시기 나무 저 무시거 허젠 허민 나무 깔 때. 불 땔 때.”⁴³⁾

(저 거시기 나무 저 뭐 하려고 하면 나무 깔 때. 불 땔 때.)



<사진 65> 강성종 씨 소장 ‘도끼’



<사진 66> 송절자 씨 소장 ‘도끼’

<사진 65>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끼’다. 강 씨는 이 ‘도끼’를 장작 쪓갈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66>은 성읍리 송절자 씨가 소장하고 있는 ‘도끼’로, 송 씨의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도끼’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시기에 각 가정마다 하나쯤은 두고 사용했었다.

42)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43) 성읍리 송절자 씨 구술.

(3) 망치와 뭇빼기

‘망치’는 못을 박거나 두드릴 때 사용하는 연장, ‘못빼기’는 나무 따위에 박힌 못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연장인 ‘못뽑이’를 말한다. ‘못빼기’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작은 못을 박거나 뺄 때는 ‘망치대가리’ 뒤에 ‘못빼기’가 붙어 있다.



<사진 67> 송무옹 씨 소장 ‘망치’



<사진 68> 강윤평 씨 소장 ‘망치’



<사진 69> 양일선 씨 소장 ‘망치’



<사진 70> 송무옹 씨 소장 ‘망치’와 ‘못빼기’

<사진 67>은 토산리 송무옹 씨가 사용하고 있는 ‘망치’고, <사진 68>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사진 69>는 하천리 양일선 씨(1949년생)가 쓰고 있는 ‘망치’다. <사진 67>에서 <사진 69>를 보면 망치의 대가리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0>은 송무옹 씨가 보관하고 있는 <사진 67>의 망치와 ‘못빼기’가 같이 있는 다른 망치를 나란히 두고 찍은 것이다. 두드리는 망치 대가리 부분과 못을 빼는 부분의 생김새가 다름을 확인하게 알 수 있다.



<사진 71> 송필수 씨 소장 ‘못빼기’



<사진 72> 양일선 씨 소장 ‘못빼기’

<사진 71>은 하천리 송필수 씨의 ‘못빼기’, <사진 72>는 하천리 양일선 씨의 ‘못빼기’다. 송필수 씨의 ‘못빼기’ 손잡이 부분인 자루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활용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양일선 씨의 ‘못빼기’는 송필수 씨의 ‘못빼기’에 비해 자루가 짧은데 끝부분이 검은 테이프로 감겨 있는 것이 보인다.

(4) 메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연장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주로 돌 따위를 깬 때 사용한다. 제주에서는 밭담을 쌓을 때 돌을 사용하는데 이 돌을 깨기 위해 집집마다 대개 하나씩은 이 ‘메’를 갖추고 있었다.

“메, 메. 이거 아바지 이신 때 다 해난 거주. 우리, 우리 신랑. 돌, 돌. 이만인 현 돌로 패 막 두드령 저 깨는 거주. 저거.”⁴⁴⁾

(메, 메. 이거 남편 있을 때 다 했던 거지. 우리, 우리 신랑. 돌, 돌. 이만큼 한 돌로 패 마구 두드려서 저 깨는 거지. 저거.)

44) 세화리 김양선 씨 구술.



<사진 73> 김양선 씨 소장 '메'

<사진 73>은 세화리 김양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메'다. 김 씨의 남편이 '돌'을 깔 때 <사진 73>의 '메'를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메'는 일본어 표현을 빌려 '겐노(げんのう)'라고도 한다.



<사진 74> 강광철 씨 소장 '겐노'



<사진 75> 김은두 씨 소장 '겐노'

<사진 74>는 세화리 강광철 씨(1948년생)가 사용하는 '겐노'다. 강 씨는 <사진 74>의 연장이 '메'가 아닌 '겐노'라고 정확히 구분하여 말했다. 또 그 쓰임이 '메'와 달리 '겐노'는 담을 쌓는 돌을 다듬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75>는 가시리 김은두 씨의 '겐노'다. 이들 모두 '메'와 비교했을 때 대가리 부분이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

'정'은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쪘아서 다듬는 연장을 말한다.

45)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옛날에는 뜻이 엊어낫수궤, 옛날에는 뜻이 엊이니까 이걸로 두드려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대못으로 허영, 대로. 이거 무시거 고냥 뜰를 때.”⁴⁶⁾

(옛날에는 뜻이 없었었잖습니까, 옛날에는 뜻이 없으니까 이걸로 두드려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대못으로 해서, 대로. 이거 뭐 구멍 뚫을 때.)

“겐노 허젠 허문 이게 있어야 됨다고. 돌 고냥 뜰라근에 그 돌 깨는 거. 정. 정. 고냥 뜰랑 그디 얇븐 정이 있어, 정. 정 박아 놓곡 오함마로 치믄 돌이 벌러질 거.”⁴⁷⁾

(‘겐노’ 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돌 구멍 뚫어서 그 돌 깨는 거. 정. 정. 구멍 뚫어서 거기 얇은 정이 있어, 정. 정 박아 놓고 ‘오함마’로 치면 돌이 벌어질 거.)



<사진 76>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정’



<사진 77> 강광철 씨 소장 ‘정’

<사진 76>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정’이다. 김종권 씨 말에 따르면 옛날에 뜻이 없었을 때 사진의 ‘정’을 대고 망치나 메 등으로 두드려 구멍을 뚫었다고 한다. <사진 77>은 세화리 강광철 씨가 사용했던 ‘정’이다. 강 씨는 앞선 <사진 74>의 ‘겐노’를 사용할 때 이 ‘정’이 있어야 돌을 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의 ‘정’을 사용해 돌에 구멍을 뚫은 뒤 이 ‘정’보다 얇은 정을 박아 놓고 ‘오함마’라고 하는 큰 해머로 치면 돌이 벌어지면서 깨진다고 했다.

46)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47)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6) 자귀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거나 나무를 깬 때 쓰는 연장을 말한다.

“(농기구 손잡이) 이거 아니믄 만들 수가 없어. 영 영 영 영 다 헤근에. 나대하고 톱하고. 또 까끄는 건 아까 저 자귀. 자귀로 까끄고 경허주게.”⁴⁸⁾

((농기구 손잡이) 이거 아니면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나대’하고 톱하고. 또 깎는 건 아까 저 자귀. 자귀로 깎고 그렇게 하지.)

“그것도 오랜 자귀다. 우리 할아버지 쓰단 건데.”⁴⁹⁾

(그것도 오랜 자귀다. 우리 할아버지 쓰던 건데.)



<사진 78> 송무웅 씨 소장 ‘자귀’



<사진 79> 강윤평 씨 소장 ‘자귀’

<사진 78>은 토산리 송무웅 씨가 사용하고 있는 ‘자귀’다. 농기구 손잡이를 만들 때 먼저 ‘나대’와 ‘톱’을 사용해 나무를 자른 다음 ‘자귀’를 사용해서 손에 잡기 쉬울 정도로 나무를 깎고 다듬는다고 한다. 송 씨는 ‘나대’, ‘톱’, ‘자귀’를 사용해서 팽이는 물론 쉐스랑의 손잡이를 직접 만들어서 썼다고 한다. <사진 79>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는 ‘자귀’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나무를 깎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48) 토산리 송무웅 씨 구술.

49)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7) 메호미와 장호미

‘메호미’는 나무를 찍어서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메호미’를 일본어 표현 ‘나다(なた)’를 써서 ‘나대’, ‘나다’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나대앵도 허고. 메호미앵도 허고. 여기 여기 옛날 메호미.”⁵⁰⁾

(‘나대’라고도 하고. ‘메호미’라고도 하고. 여기 여기 옛날 ‘메호미’.)

“그건 제주도 말로 메호미. 나다, 나다.”⁵¹⁾

(그건 제주도 말로 ‘메호미’. ‘나다’, ‘나다’.)

“나대, 이거 옛날 도새기 허민 집에서 허난 뼈 짤르는 거. 도새기 잡으명 헌 거. 집이서 훈 여섯 머리 일곱 머리 잡으명. 잔치할 때 그 전부 다 삼 일 먹으난, 삼 일. 낭도 끈주만은 이거 집이서 짤를 때 헤난 거.”⁵²⁾

(‘나대’, 이거 옛날 돼지 하면 집에서 하니까 뼈 자르는 거. 돼지 잡으면서 한 거. 집에서 한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잡으면서. 잔치할 때 그 전부 다 삼 일 먹으니까, 삼 일. 나무도 자르지만은 이거 집에서 자를 때 했던 거.)

“거 메호미. 메호미는 낭가지 영 탁탁 찍을 때. 메호미.”⁵³⁾

(거 ‘메호미’. ‘메호미’는 나뭇가지 이렇게 탁탁 찍을 때. ‘메호미’.)



<사진 80> 강성종 씨 소장 ‘메호미’



<사진 81> 부대옥 씨 소장 ‘메호미’

5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51) 토산리 부대옥 씨 구술.

52)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53)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사진 82> 김창효 씨 소장 '메호미'



<사진 83> 정인권 씨 소장 '메호미'

<사진 80>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는 '메호미'다. 강 씨는 이것을 '나대', '메호미' 모두 사용하여 불렀지만 이것의 옛말은 '메호미'였다고 했다. <사진 81>은 토산리 부대옥 씨 집에 있는 '메호미'로 부 씨 역시 이것을 '메호미', '나다' 모두 섞어 부른다고 했다. <사진 82>는 세화리 김창효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메호미'로 나뭇가지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83>은 토산리 정인권 씨가 보관하는 '메호미'다. 손잡이가 고무로 감겨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위의 <사진 80>에서 <사진 83>까지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메호미'는 손잡이 부분을 나무 자루 대신에 헝겊이나 고무 따위로 감아서 사용하며 나무를 자를 때, 혹은 동물의 뼈를 자를 때도 사용했다.

“그것도 다 쓰는 거. 그것도 낭 그칠 때. 것도 낭 그칠 때. 것도 메호미, 다. 쓰는 거. 옛날 이디 우리 이디 도세기 잡아낫어, 이디서. 우리 도세기 잡앙 풀아날 때 그 호미가.”⁵⁴⁾

(그것도 다 쓰는 거. 그것도 나무 자를 때. 것도 나무 자를 때. 것도 '메호미', 다. 쓰는 거. 옛날 여기 우리 여기 돼지 잡았었어, 여기서. 우리 돼지 잡아서 팔던 때 그 호미가.)

54)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사진 84> 송무옹 씨 소장 '메호미'



<사진 85> 강윤평 씨 소장 '나대'



<사진 86> 양일선 씨 소장 '나대'



<사진 87> 홍순이 씨 소장 '나대'

<사진 84>는 토산리 송무옹 씨가 사용하는 '메호미'고, <사진 85>는 하천리 강윤평 씨, <사진 86>은 하천리 양일선 씨, <사진 87>은 표선리 홍순이 씨(195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나대'다. 가시리 김복순 씨의 구술에 따르면 '나대'는 나무를 자르거나 끊을 때도 사용하지만 돼지를 잡아 자를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한편, 가지치기를 할 때 날이 단단한 '호미'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장호미'라고 불렀다.

“저거 뭐 나무 필요 없는 가지치기 허는 거. 저거 장호미지, 장호미. 길, 길다고 해서 장호미.”⁵⁵⁾
(저거 뭐 나무 필요 없는 가지치기 하는 거. 저거 '장호미'지, '장호미'. 길, 길다고 해서 '장호미'.)

55)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사진 88> 김은두 씨 소장 '장호미'

<사진 88>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장호미'다. 김 씨는 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이 '장호미'를 사용하고 있다. 날이 길기 때문에 '장호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8) 대패

'대패'는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이다. 나무를 매끄럽게 깎아 다듬는 용도로도 쓰이고, 나무의 골을 파는 데도 사용한다.

“(대패는 누계가 쓰는 거?) 우리 집이 아방이 목수일 허명 해난. 문도 짜명. 문 문딱 쌀 문 저추룩헌 거 문딱 손으로 헤근에 자고치 헌 거 딱 짜근에 문 짜낫주게. 게신디 그거 다 아방 돌아가 부난, 죽어 부난에 이젠 다 치와 다깐 데껴 벗주, 벼려 벗주게.”⁵⁶⁾

((대패는 누가 쓰는 거?) 우리 집의 남편이 목수일하면서 했었어. 문도 짜면서. 문 모두 살 문 저처럼한 거 모두 손으로 해서 자같이 한 거 딱 짜서 문 짤었지. 그랬는데 그거 다 남편 돌아가 버리니까, 죽어 버리니까 이젠 다 치워 던져 벼렸지, 벼려 벼렸지.)



<사진 89> 홍순이 씨 소장 '대패'



<사진 90> 강성종 씨 소장 '대패'

56)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사진 89>는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대패’로, 목수였던 홍 씨의 남편이 나무를 깎을 때 사용하던 것이다. <사진 90>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하던 ‘대패’다.

(9) 빠루

‘빠루’는 일본어 표현 ‘바루(バル)’에서 온 말로, 못 따위를 빼거나 땅에 박힌 돌 등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 ‘가린장’을 말한다. 연장 가운데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빠루’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거. 그거 못 빠는 무시건디. 으. 빠루.”⁵⁷⁾

(그거. 그거 못 빠는 뭔지. 으. 빠루.)



<사진 91> 홍순이 씨 소장 ‘빠루’



<사진 92> 오태경 씨 소장 ‘빠루’

<사진 91>은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빠루’다. 사진에서 보듯이 왼쪽은 못을 뺄 수 있게, 오른쪽은 땅에 박힌 돌 따위를 들어 올릴 수 있게 고안되었다. <사진 92>는 가시리 오태경 씨가 사용하는 ‘빠루’다. 홍순이 씨가 보관하는 것에 비해 길이는 짧고, 두께는 더 두껍다.

57)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10) 연장통

‘연장통’은 뜻이나 나사 따위의 연장을 보관하는 통이다. 대개는 연장통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나가 만들안 쓰단, 평생 썻주게. 삼십 년 넘어시난.”⁵⁸⁾

(내가 만들어서 쓰다가, 평생 썼지. 삼십 년 넘었으니까.)



<사진 93> 송무웅 씨 소장 ‘연장통’

<사진 93>은 토산리 송무웅 씨 집에 있는 연장통이다.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이는 ‘경첩’, 각종 크기가 다른 못, 궤에 걸어 놓는 ‘통꿰’ 등이 들어 있다. 이 연장통은 송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데 만든 지 삼십 년이 넘었다고 한다.

3.6. 기타 도구

(1)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덩드렁’은 짚 따위를 납작하게 두드릴 때 밑에 받치는 돌을 말한다. ‘덩드렁’이라고도 한다. ‘덩드렁마께’는 ‘덩드렁’ 위에서 벗짚 등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방망이를 말한다.

“덩드렁돌이라고 바다에 가서 매끌매끌한 걸로 요만인한 걸로 밑바닥은 완전히 펜펜하고 위에는 요렇게 헌 걸로 바다에 가서 주워다가 그걸 사용했어.”⁵⁹⁾

(‘덩드렁돌’이라고 바다에 가서 매끌매끌한 걸로 요만큼한 걸로 밑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고 위에는 이렇게 한 걸로 바다에 가서 주워다가 그걸 사용했어.)

58) 토산리 송무웅 씨 구술.

59)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세화리 강기수 씨의 말에 따르면 ‘덩드렁돌’은 바다에 가서 밑바닥이 평평하고 위에는 둥그런 형태의 것을 주워다가 사용했었다고 한다.

“(덩드렁) 어머니 써낫주. 옛날엔 저 뭐야, 그거 저 뭐 헐 때 산디짚 두드릴 때 쓰는디 그거 산디짚 헤근에게 뭐 만들 때. 초신 만들고 허는 건 난 안 봐 보고.”⁶⁰⁾

(‘덩드렁’) 어머니 썼었지. 옛날엔 저 뭐야, 그거 저 뭐 할 때 밭벼짚 두드릴 때 쓰는데 그거 밭벼짚 해서 뭐 만들 때. 짚신 만들고 하는 건 난 안 봐 보고.)



<사진 94> 정여옥 씨 소장 ‘덩드렁’



<사진 95> 양행일 씨 소장 ‘덩드렁’



<사진 96> 송심자 씨 소장 ‘덩드렁’



<사진 97> 송필수 씨 소장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사진 94>은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이고, <사진 95>는 하천리 양행일 씨 어머니가 사용했던 ‘덩드렁’이다. <사진 96>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덩드렁’으로, 송 씨의 시할머니가 옛날 짚신을 만드는 밭벼집을 두드릴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사진 97>은 하천리 송필수 씨의 ‘덩드렁’과 ‘덩드렁마께’를 함께 두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60) 하천리 양행일 씨 구술.

“옛날은 저 새 비여당 두드령 노 꼴 때 두드리곡 감, 감웃 들일 때 이거 다라에 놔근엥 감 뺏고, 던드렁마께.”⁶¹⁾

(옛날은 저 새 베어다가 두드려서 노 꼴 때 두드리고 감, 감웃 들일 때 이거 대야에 놓아서 감 뺏고, 방망이.)

“요건 던드렁마께. 옛날 거, 저 명석 가튼 거, 이 맥 그튼 거 줄 때에 그 나룩찍. 그거를 피와야 하거든. 거 두드려서. 그런 용으로.”⁶²⁾

(요건 방망이. 옛날 거, 저 명석 같은 거, 이 멱 같은 거 결을 때에 그 벗짚. 그거를 펴야 하거든. 거 두드려서. 그런 용으로.)

“이거 덩드렁마께 써난 거. 여기 놔근에 무시거 명석 절젠허민 산디찍 놓 우리 두드려낫주게. 던드렁마께.”⁶³⁾

(이거 ‘방망이’ 썼던 거. 여기 놓아서 뭐 명석 결으려고 하면 밭벗짚 놓아서 우리 두드렸었지. ‘방망이’.)

‘덩드렁마께’는 ‘새’를 비어다가 노를 꼴 때, 감웃을 들이려고 감을 뺏을 때, 명석 등을 결 때, 질긴 ‘미’를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 때 등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사진 98> 송필수 씨 소장 ‘덩드렁마께’



<사진 99> 강기수 씨 소장 ‘던드렁마께’

61)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62)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63)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100> 강광철 씨 소장 ‘던드렁마끼’



<사진 101> 송심자 씨 소장 ‘던드렁마끼’

<사진 98>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던드렁마끼’고, <사진 99>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던드렁마끼’다. 강 씨의 ‘던드렁마끼’는 지름이 10cm, 높이가 26cm 정도다. <사진 100>은 세화리 강광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던드렁마끼’로 나무를 깎아 만든 흔적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 101>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는 ‘던드렁마끼’로 명석을 결 때 밭벼짚을 ‘던드렁’ 위에 올려 놓고 <사진 101>의 ‘던드렁마끼’로 두드렸다고 한다.

(2) 호렝이

‘호렝이’는 초가지붕을 이는 새끼줄을 꿀 때 쓰는 도구를 말한다. 이미 꼬아 놓은 두 개의 줄을 마주대어 구멍에 더 끼워서 더 굵은 줄을 꿀 수 있게 해 준다.

“이거는 호렝이, 호렝이. 줄, 줄, 집 저 집 더프지 안해서? 노끈, 노끈 있어, 줄.”⁶⁴⁾

(이거는 ‘호렝이’, ‘호렝이’: 줄, 줄, 집 저 집 덮지 않았니? 노끈, 노끈 있어, 줄.)

“초집, 초가집 헐 때에. 호렝이, 호렝이.”⁶⁵⁾

(초가, 초가집 할 때에. ‘호렝이’, ‘호렝이’.)

64)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65)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102> 한사율 씨 소장 '호령이'



<사진 103> 강기수 씨 소장 '호령이'



<사진 104> 송심자 씨 소장 '호령이'

<사진 102>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령이'다. 한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20cm다. <사진 103>은 세화리 강기수 씨 집 창고에 보관 중인 '호령이'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진 104>는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령이'다.

(3) 줄방석과 낭방석

'방석'은 바닥에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를 말한다. 실외에서 일할 때 깔고 앉는 용으로 나무나 새끼줄 따위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나무로 만든 것을 '낭방석', 짚을 꼬아 만든 줄로 만든 것을 '줄방석'으로 구분한다. 표선면에서는 '줄방석'과 '낭방석'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05> 송심자 씨 소장 ‘줄방석’



<사진 106> ‘줄방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집줄’

<사진 105>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는 ‘줄방석’이다. 송 씨는 <사진 106> 속의 ‘집줄’을 사용해서 ‘줄방석’을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사진 107> 송무옹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08> 송필수 씨 소장 ‘낭방석’

<사진 107>은 토산리 송무옹 씨가 소장하고 있는 ‘낭방석’이고, <사진 108>은 하천리 송필수의 ‘낭방석’이다. 방석의 앓는 부분과 다리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못질한 흔적과 자주 앓아 군데군데 닳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애기구덕

‘애기구덕’은 제주에서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요람을 말한다. 주로 대오리나 쇠로 만들었다. 옛날에는 대체로 아이를 낳은 뒤 사흘 뒤부터 구덕에 눕혀 손이나 발로 흔들며 아기를 키웠다. 아기가 어려도 밭일 나가야 할 때 ‘애기구덕’을 들고 가서 아기를 눕혀 두고는 일을 했었다. ‘애기구덕’ 안에는 그물이 짜여 있는데 그 위에 보릿대, 요 등을 깔아

아기를 눕혔다.

“(아들, 땔 키울 때는?) 대구덕. 대구덕 행 게 멧 번 흥글멍 허민 거 헐민 데껴 비어뒹 또 사다근에. 우린 너오누이 캕젠 허난에 두 개 헐류완. 밧디 경 뎅기고게. 밧이 일허젠허민 애기 놔근에 져 앗앙 가곡 해나신디.”⁶⁶⁾

(("아들, 땔 키울 때는?) 대구덕. 대구덕 해서 그게 몇 번 흔들면서 하면 거 헐면 던져 버려두고 또 사다가. 우린 네 오누이 키우려고 하니까 두 개 헐렸어. 밭에 지고 다니고. 밭에 일하려고 하면 애기 놔서 지고 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애기구덕은) 우리 손지. 손지 키울 때. 손지. 큰집이 이 집이 손지 키았주께. 손지 두 개.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어디 강 사 온 거?) 저거 서귀포 장에. 서귀포 장에 강 사완.”⁶⁷⁾

(('애기구덕'은) 우리 손주. 손주 키울 때. 손주. 큰집의 이 집이 손주 키웠지. 손주 두 명.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어디 가서 사 온 거?) 저거 서귀포 장에. 서귀포 장에 가서 사왔어.)

홍순이 씨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자들을 키울 때 서귀포 장에 가서 쇠로 된 '애기구덕'을 사다가 거기에 손자들을 눕혀 흔들며 키웠다고 한다. 홍 씨의 아들, 딸을 키울 때는 대나무로 결은 '애기구덕'에 아이들을 눕혀 키웠는데 네 오누이를 키우려고 하니 구덕이 금방 헐어 두 개 이상을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애기구덕'은 밭일을 갈 때도 아기를 눕혀 놓고 가져가는 것이었다.



<사진 109>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애기구덕'



<사진 110>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애기구덕'

66)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67)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사진 109>과 <사진 110> 모두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애기구덕’이다. 쇠로 만든 <사진 110>은 비교적 최근의 ‘애기구덕’이고 <사진 109>는 대로 결은 전형적인 ‘애기구덕’이다. <사진 109>의 ‘애기구덕’ 크기는 가로 82cm, 세로 41cm, 높이 25cm다. 구덕의 가장 자리를 빨간 끈으로 둘레를 돌아가며 묶은 모습, 구덕의 안쪽에 그물을 만들어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띄우기 위해 초록 끈과, 빨간 끈을 가로와 세로, 대각선을 엇갈리며 묶어 놓은 모습이 눈에 띈다.

(5) 요강

‘요강’은 실내에 두고 오줌을 누는 그릇을 말한다. 대개 사기나 낯쇠 따위로 작은 단지처럼 만든다. 지금과 달리 화장실 사용이 불편했던 시절 변기 대신 요강은 방, 마차 등에 두고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에 여자가 결혼할 때 ‘이불’, ‘요’, ‘베개’와 함께 혼수품으로 장만해 갔던 물건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이건 가정 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씨집왔어. 이불 하나. 덮는 이불 하나, 깔고 덮는 요 하나. 베개 하나. 요강 하나. 그거 아져왔어. 그거 가지고 우리집이 시집왔는디. 저 우리 요강은 우리 할망이 저거는 평생 놨다가 기념허겠다고. 요강 씨집올 때는 썻주게.”⁶⁸⁾

(우리 집사람이 이거는 이건 가지고 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집왔어. 이불 하나. 덮는 이불 하나, 깔고 덮는 요 하나. 베개 하나. 요강 하나. 그거 가져왔어. 그거 가지고 우리집에 시집왔는데. 저 우리 요강은 우리 아내가 저거는 평생 놨다가 기념하겠다고. 요강 시집올 때는 썼지.)

“그거 우리 어머니네 쓰단 거. 어머니네 쓰단 거주. 이거 한 60년 됐 거. 70년 됐주. 70년.”⁶⁹⁾

(그거 우리 어머니네 쓰던 거. 어머니네 쓰던 거지. 이거 한 60년 된 거. 70년 됐지. 70년.)

68)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69) 토선리 부대옥 씨 구술.



<사진 111> 김은두 씨 소장 '요강'



<사진 112> 부대옥 씨 소장 요강

<사진 111>은 가시리 김은두 씨의 아내가 시집올 때 이불, 요, 베개와 함께 혼수품으로 마련해 온 '요강'이다. 김 씨와 김 씨의 아내가 사용했었던 것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김 씨의 아내가 두고 기념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사진 112>은 토산리 부대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인데, 부 씨의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것으로 약 7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요강의 뚜껑까지 온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6) 벼루집

'먹'과 '벼루'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 검을 물을 가는 데 쓰는 문방구고, 그중에서도 '붓'은 글씨를 쓰는 도구다. 이것들을 넣어 보관하는 함을 '벼루집'이라고 한다. '벼루집' 안에 들어 있는 문방사우는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각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지방문을 쓰기 위해 갖추어 두는 필수품이었다.

“우리 육 대 조. 내가 칠 대. 대물려 온 거 이때까지. 우리 육 대 조 거. 제사 때 그디 저 지방 쓰곡 뭐. 보관했다가. 지방 쓸 때도 쓰곡. 제사 때 지방 쓸 때, 축문 쓸 때, 그것에 보관했다가 써나낫주.”⁷⁰⁾

(우리 육 대 조. 내가 칠 대. 대물려 온 거 이때까지. 우리 육 대 조 거. 제사 때 거기 저 지방 쓰고 뭐. 보관했다가. 지방 쓸 때도 쓰고. 제사 때 지방 쓸 때, 축문 쓸 때, 그것에 보관했다가 썼었지.)

70)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13> 강윤평 씨 소장 ‘벼루집’



<사진 114> 강윤평 씨 소장 ‘벼루’, ‘먹’, ‘붓’

<사진 113>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육 대 조로부터 물려받은 ‘벼루집’이다. ‘벼루집’ 안에 제사 때 지방을 썼던 종이들이 들어 있다. <사진 114>는 ‘벼루집’ 윗단에 있는 벼루, 먹, 붓을 촬영한 것이다.

(7) 담배통과 담뱃대

‘담배통’은 담뱃대의 끝에 담배를 담는 둥근 통을 말하고, ‘담뱃대’는 담배를 피우는 데에 쓰는 기구를 말한다. ‘담뱃대’는 담배통, 담배설대, 물부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보자에 따라 ‘담뱃대’를 ‘담뱃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거 담배통 아냐? 곰방대. 담배통. 오래 뛰긴 해실 거라. 몰라, 우리 하르방 혜나실 거라.”⁷¹⁾

(거 담배통 아냐? 곰방대. 담배통. 오래 되긴 했을 거야. 몰라, 우리 할아버지 했었을 거야.)



<사진 115> 성읍리 한사율 씨 소장 ‘담뱃대’



<사진 116> 하천리 강윤평 씨 소장 ‘담배통’

71)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15>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담뱃대’다. 한 씨가 직접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담뱃대의 길이는 79cm다. <사진 116>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담배통’이다. 강윤평 씨는 이것을 ‘곰방대’, ‘담배통’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강 씨가 직접 사용하던 것은 아니고, 강 씨의 할아버지가 사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거 이거 옛날 거라. 나 써낫, 써낫. 나가 담배 설러분 디가 이십 년 됐네. 저거. 담배통이엔만
불르지. 담배통.”⁷²⁾

(이거 이거 옛날 거야. 나 썼던, 썼던. 내가 담배 그만둔 지가 이십 년 됐어. 저거. ‘담배통’이라고만 부르지.
담배통.)



<사진 117> 성읍리 한사율 씨 소장 ‘담배통’

<사진 117>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사용
하던 ‘담배통’이다. 한 씨는 약 이십 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까지는 이 ‘담배통’을
사용했다고 한다. 담배를 넣는 부분은 비교적
깊고 동그랗게 생겼으며 담배설대와 담배
를 빼는 물부리는 짧게 만들어져 있다.

(8) 성냥

‘성냥’은 작은 나뭇개비의 한쪽 끝에 황 따위의 연소성 물질을 입혀 만든 물건이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등잔불을 밝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생필품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이 되었다.

“성냥은 저기 저 무시거 케우멍. 쓰레기 케우멍. 라이타 있어도 저거 궂언 저거 있어사 좋아. 성냥
있어사 뛰여. 있어사 뛰여.”⁷³⁾

72)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73)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성냥은 저기 저 뭐 태우면서. 쓰레기 태우면서. 라이터 있어도 저거 나빠서 저거 있어야 좋아. 성냥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가시리 강성종 씨는 성냥은 여전히 쓰레기나 무언가를 태울 때 사용하고 있는데 성냥을 대체하는 라이터가 있더라도 성냥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사진 118> 한사율 씨 소장 '성냥'



<사진 119> 부윤순 씨 소장 '성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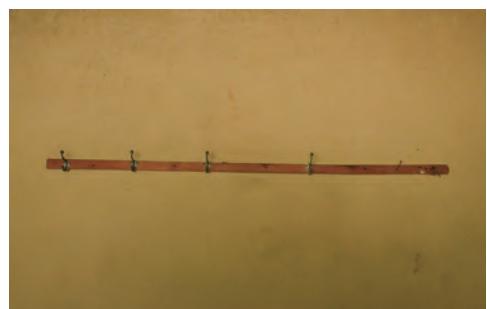
<사진 118>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성냥'이고, <사진 119>은 가시리 부윤순 씨(193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성냥'이다. <사진 118>, <사진 119>에서 성냥의 상품명 '신흥'과 '향로'가 눈에 띈다.

(9) 공장과 간지

'공장'은 나뭇가지나 대, 못 따위를 벽 따위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걸 수 있게 만든 물건이다.



<사진 120> 오태경 씨 집 창고의 '공장'



<사진 121> 김일출 씨 집 방 안의 '공장'



<사진 122> 강성종 씨 소장 ‘공젱이’

매어 놓고 거기에 옷을 걸기도 했다.

<사진 120>은 오태경 씨 집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다. 오태경 씨는 밭에 갈 때 입는 옷, 농약 줄, ‘밀낭페렝이’, 각종 연장 등을 찾기 쉽고, 쓰기 쉽게 ‘공장’에 걸어두고 있었다. <사진 121>은 가시리 김일출 씨 집 방 안에 설치된 ‘공장’이다. 김 씨는 이 공장에 자주 입는 옷, 보관하기 어려운 끈 등을 걸어두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

한편, 옷이나 물건을 거는데 쓰는 걸이를 ‘공젱이’라고도 한다. <사진 122>는 가시리 강성종 씨 집의 ‘공젱이’로, 현재는 수도의 물을 멀리 보내는 데에 쓰이는 고무관 줄을 걸어두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전통 가옥에서는 ‘간지’라고 부르는 긴 막대를

“대로 영 행 옷도 걸고 허는 거 간지. 간지 헤난디 요즘 말로 뭐 통허지 안 허주. 간지엔 허민 무슨 때문에 간지엔 헌진 잘 몰라도 옷을 걸어근에. 옛날은 그 이런 옷걸이가 엇거든.”⁷⁴⁾

(대로 이렇게 해서 옷도 걸고 하는 거 ‘간지’. ‘간지’ 했었는데 요즘 말로 뭐 통하지 않지. ‘간지’라고 하면 무슨 때문에 ‘간지’라고 했는진 잘 몰라도 옷을 걸어서. 옛날은 그 이런 옷걸이가 없거든.)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에 따르면 ‘대’로 만들어 옷을 걸게 만든 것을 ‘간지’라고 했다. 예전에는 옷걸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간지’가 옷걸이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10) 사다리

‘사다리’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를 말한다. 표선면 제보자들은 대개 사다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74) 가시리 오태경 씨 구술.

“(사다리) 훈 오 년 템실 거라.”⁷⁵⁾

((사다리) 한 오 년 되고 있을 거야.)

“이건 나가 멘든 거. 사다린 나가 멘든 거고.”⁷⁶⁾

(이건 내가 만든 거. 사다린 내가 만든 거고.)



<사진 123> 강성종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24> 강광철 씨 소장 ‘사다리’

<사진 123>은 가시리 강성종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다리’다. 강 씨가 이 사다리를 사용한 지는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강 씨는 이 ‘사다리’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124>는 세화리 강광철 씨 집 창고에 있는 ‘사다리’다. 사진 속 사다리를 모두 제보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11) 젯자리

‘ 젯자리’는 ‘제석’의 제주어다. ‘초석’은 왕골이나 짚 따위를 엮어 만든 자리를 말한다. 제사 때 제를 올리는 자리에 깔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초석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제석’이라 하며, 이 말의 제주어인 ‘ 젯자리’가 제주에서는 흔히 사용된다.

75)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76)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건 젯자리. 오래 된 거. 이거 저 태풍 불 때 쓰레기장에 가야 텔 거. 방, 절할 때. 자리니까 절허는 데. 그리고 이 저 상 차리는 디도 따로 까는데 그건 따로 실 거라.”⁷⁷⁾

(건 제석. 오래 된 거. 이거 저 태풍 불 때 쓰레기장에 가야 될 거. 방, 절할 때. 자리니까 절하는 데. 그리고 이 저 상 차리는 데도 따로 까는데 그건 따로 있을 거야.)

“잿자리. 제할 때 폐왕 절허곡. 젯상 아래 폐우곡. 저디 어디 두어 개 더 이실 거우다. 세 개일 거우다. 이거 데껴 불젠 허당 놔둬수다게.”⁷⁸⁾

(제석. 제할 때 퍼서 절하고. 젯상 아래 폐고. 저기 어디 두어 개 더 있을 겁니다. 세 개일 겁니다. 이거 던져 버리려고 하다가 놔뒀습니다.)



<사진 125> 김은두 씨 소장 ‘잿자리’



<사진 126> 부윤순 씨 소장 ‘잿자리’

<사진 125>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잿자리’다. 김 씨는 이 ‘잿자리’가 매우 오래된 것이어서 이제는 태워 없앨 것이라고 한다. ‘잿자리’는 방에서 절을 할 때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쓰였다. <사진 126>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잿자리’다. <사진 126>은 <사진 125>의 ‘잿자리’와 동일하게 절할 때 바닥에 까는 것이다. 이 ‘잿자리’ 외에도 두 개 정도가 더 있다고 한다.

(12) 천막

천막은 비바람이나 이슬, 별 따위를 가리기 위하여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우고 천을 씌워 막처럼 지어 놓은 것을 말한다.

77)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78) 가시리 부윤순 씨 구술.

“혹시나 무신 일 나민 첫던 천막. 그 광목으로 만든 거. 그런 거 다 이수다. 원형 그대로. 천구백 삼, 사십 년대에이. 동네 이녁네 집이 그땐 마당에서 다 잔치할 때난 뭐 그런 큰일이라든지 뭐 영장이나 나민 집이서 다 허지 안햇수꽈? 그때는. 거믄 그때 첫던 광목으로 웠 천막.”⁷⁹⁾

(혹시나 무슨 일 나면 쳤던 천막. 그 광목으로 만든 거.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천구백 삼, 사십 년대에 동네 자기 집에 그땐 마당에서 다 잔치할 때니까 뭐 그런 큰일이라든지 뭐 영장이나 나면 집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그때 쳤던 광목으로 된 천막.)

“잔치 때는 옛날은 이디 마당에서 잔칠 해나지 안햇수꽈계. 경허민 잔치허젠 허민 우선 천막을 쳐십주게. 이추룩 개인안티 잇지 안허영 동네에, 종친회로 잇주게. 한예, 1970년, 80년, 시골에는예 7, 80년까지 (천막 청 잔치) 해낫어. 계난 이건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종친회라든지, 아니면 반별로 그런 식으로.”⁸⁰⁾

(잔치 때는 옛날은 여기 마당에서 잔칠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잔치하려고 하면 우선 천막을 쳐야지요. 이처럼 개인한테 있지 않고 동네에, 종친회로 있지. 한, 1970년, 80년, 시골에는요 7, 80년까지 (천막 쳐서 잔치) 했었어.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있는 게 아니고 종친회라든지, 아니면 반별로 그런 식으로.)



<사진 127> 송심자 씨 소장 ‘천막’

<사진 127>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천막’이다. 예전에 잔치를 하거나 집에 상이 나는 등의 큰일이 있을 때 집에서 손님을 대접했었는데 그때 집 마당에 비 바람 등을 가리기 위해 쳤던 광목으로 만든 ‘천막’이라고 한다. 송 씨의 기억으로는 1970 ~80년대까지 사진의 ‘천막’을 사용 했다고 한다.

(13) 비치락

‘비치락’은 먼지나 쓰레기를 쓸어 내는 도구인 ‘빗자루’를 말한다. ‘비치락’의 쓰임에 따라 마당비, 방비 등으로 구분하며 대개는 짚, 띠, 싸리, 짐승의 털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79)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80)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비치락) 누게 만들어? 나, 나가 만들주. 대비치락. 이 베꽃디 문지락 그튼 거 이신 때 이걸로 쓸, 쓸어내쳤주.”⁸¹⁾

((빗자루) 누가 만들어? 나, 나가 만들지. 대빗자루. 이 밖에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이걸로 쓸, 쓸어내쳤지.)

“우리가 만든 거주. 소례차락. 소리차락. 소리차락. 그거 뭐 얼마 안 됫을 거야. 소리차락. (그 나무는 키운 거) 아니, 옆이 저 버린 것덜 헤다가 헷주. 봉가당 헨. 마당 쓸 때 이시믄 좋읍니다게. 거 이시믄 좋읍니다.”⁸²⁾

(우리가 만든 거지. ‘소례차락’. ‘소리차락’. ‘소리차락’. 그거 뭐 얼마 안 됫을 거야. ‘소리차락’. (그 나무는 키운 거?) 아니, 옆에 저 버린 것들 해다가 했지. 주워다가 했어. 마당 쓸 때. 있으면 좋습니다. 거 있으면 좋습니다.)

“몽근비치락, 것도 막 오랜 거. 혼 삼십 년 넘은 거.”⁸³⁾

(몽당비, 것도 막 오랜 거. 한 삼십 년 넘은 거.)



<사진 128> 강성종 씨 소장 ‘대비치락’



<사진 129> 강기수 씨 소장 ‘대비치락’

8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82)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83) 세화리 한영선 씨 구술.



<사진 130> 김은두 씨 소장 '스리자락'



<사진 131> 한영선 씨 소장 '몽근비치락'

<사진 128>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하는 ‘대비치락’이다. 강 씨가 직접 대를 묶어 만든 것으로 ‘대비치락’이라고 불렸다. <사진 129>는 세화리 강기수 씨 집에 있는 ‘대비치락’이다. <사진 130>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스레차락’이다. 김 씨는 싸리로 만든 이 ‘싸리비’를 ‘스레차락’, ‘스리치락’이라고 불렀다. 집주변에 난 싸리를 거두어다가 만든 것이다. <사진 131>은 세화리 한영선 씨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치락’이다. 빗자루의 끝이 닳아 ‘몽당비’가 되었는데, 한 씨는 이것을 ‘몽근비치락’이라고 했다. 사용한 지 삼십 년이 넘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 ‘비치락’으로 쓸어 낸 먼지 따위를 받아내는 도구를 ‘문지받이’라고 한다. ‘문지받이’는 표준어의 ‘쓰레받기’를 말하는데, ‘문지’는 표준어의 ‘먼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뭐엔사 불를 것산지, 문지받이.”⁸⁴⁾

(뭐라고 부를 것인지, 쓰레받기.)



<사진 132> 강성종 씨 소장 ‘문지받이’

<사진 132>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하고 있는 ‘문지받이’다. ‘비치락’과 함께 쓰레기나 먼지 등을 받아내 치우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84)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14) 췌손

‘췌손’은 집을 지을 때 흙이나 시멘트 등을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쇠’로 만든 것을 ‘췌손’, 나무로 만든 것을 ‘낭손’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췌손’은 크기에 따라 쓰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큰 것은 주로 시멘트를 떠 놓을 때 사용하고, 작은 것은 시멘트를 바른 것을 반반하게 펼 때 사용한다.

“췌손, 췌손. 흑손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 손으로 햇어, 전부. 받침 잇었는디 우린 그거 없었어. 그냥 우린 그거 엇이 삽에 들러다가 쪼꼬만한 거니까. 그거 할라고 이거 그냥 어디 빌레 가니까 비기도 쉽고 하니까.”⁸⁵⁾

(‘췌손’, ‘췌손’. 흙손이라는 말은 못 들었어. 손으로 햇어, 전부. 받침 있었는데 우린 그거 없었어. 그냥 우린 그거 없이 삽에 들러다가 조그만한 거니까. 그거 하려고 이거 그냥 어디 빌리러 가니까 비기도 쉽고 하니까.)

“이건 사깡들이 쓰는 거주. 세멘 허는 사름덜. 다 그걸로 볼른 거주.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요런 거 헐 때 허젠히 산 거주.”⁸⁶⁾

(이건 ‘사깡’들이 쓰는 거지. 시멘트 하는 사람들. 다 그걸로 바른 거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요런 거 할 때 하려고 거 산 거지.)



<사진 133> 김은두 소장 ‘췌손’



<사진 134> 강윤평 씨 소장 ‘췌손’

85)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86)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사진 135> 강성종 씨 소장 '꿰손'



<사진 136> 부윤순 씨 소장 '꿰손'

<사진 133>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사진 134>는 하천리 강윤평 씨, <사진 135>는 가시리 강성종 씨, <사진 136>은 가시리 부윤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꿰손'이다. 가시리 김은두 씨 말에 따르면 예전 초가를 지을 때 <사진 133>과 같은 도구가 없어 모두 손으로 벽에 흙을 발랐다고 한다. 토산리 송무옹 씨는 '꿰손'과 같은 도구는 미장이를 뜻하는 일본어 '사깜(さかん)'이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15) 온도계와 나침판

물체의 온도를 쟈 때 사용하는 기계를 '온도계', 항공 · 항해 따위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 계기를 '나침판'이라고 한다.

“우리 아부지 그런 온도계로만 다 썼.”⁸⁷⁾

(우리 아버지 그런 온도계로만 다 썼어.)

“그거에 쎄트 나침판. 잇주께. 동글락한 거 잊어. 아부지 써난 거난. 이거 뚜껑 열아 보민예, 저거랑 그튼 거 나와. 이거랑 저거랑 쎄트. 나침판. 열아 보민예 저런 거 나와, 나침판. 동, 서, 남, 북 그 위도 막 그런 거. 우리 아부지가 그런 거 보난 이 이, 동네 사름들은예, 우리 아부지가 다 봤어. 우리 아부지가 그거 보명 그, 그거 봐 줬어. 못자리 같은 거. (아부지 성함은?) 김자 치자 현자. 계난 그거 우리도 나도 할 중 몰라 부난. 아부지가 보는 거라부난. 또예, 지관들이 이거 갖고 다녀.”⁸⁸⁾

87) 세화리 김옥 씨 구술.

88) 세화리 김옥 씨 구술.

(그거에 세트 나침판. 있지. 동그란 거 있어. 아버지 썼던 거니까. 이거 뚜껑 열어 보면요, 저거랑 같은 거 나와. 이거랑 저거랑 세트. 나침판. 열어 보면요 저런 거 나와, 나침판. 동, 서, 남, 북 그 위도 막 그런 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보니까 이 이, 동네 사름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다 봤어. 우리 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그, 그거 봐 줬어. 뜻자리 같은 거. (아버지 성함은?) 김자 치자 현자.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나도 할 줄 몰라 버리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니까. 또요, 지관들이 이거 갖고 다녀.)



<사진 137> 김옥 씨 소장 '온도계'



<사진 138> 김옥 씨 소장 '나침판'

<사진 137>과 <사진 138>은 세화리 김옥 씨(1965년생)가 보관하는 '온도계'와 '나침판'이다. 김 씨의 아버지 김치현 씨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던 것으로, 특히 <사진 138>의 나침판은 아버지가 들고 다니면서 동네 뜻자리를 봐줄 때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나침판'은 지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16) 전화기

'전화기'는 말소리를 전파나 전류로 바꾸었다가 다시 말소리로 환원시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기계를 말한다. 전기가 들어온 이후 '전화기'를 통해 우리의 삶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해졌다.



<사진 139> 송심자 씨 소장 '전화기'

<사진 139>는 성읍리 송심자 씨 집에 있는 '전화기'다. 전화기의 다이얼은 없고, 옆에 손잡이가 달려 이것을 돌리면서 사용했던 초창기의 '전화기'를 송 씨는 매우 곱고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4. 농업 관련

전통사회에서 농업은 생계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다. 제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표선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주식이 되는 보리나 조, 고구마 등이 농사일의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감귤 재배가 농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채소류와 특용작물이 주가 되고 있다(『표선면 역사문화지』, 2009: 48). 표선면 지역은 1970년대 초부터 보리나 유채, 고구마 농사를 지어 오던 밭을 일구어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웃한 남원읍 지역과 마찬가지로 밭일과 관련된 농사 도구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는 몇몇 도구를 찾아 그것들의 쓰임 등을 남길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표선면 각 마을의 제보자들을 직접 만난 조사한 농업 관련 도구를 파종 도구, 김매기와 수확 도구, 건조와 손질 도구, 운반 도구, 계량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4.1. 파종 관련

4.1.1. 밭갈이 도구

(1) 잠대

‘잠대’는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다. 표준어로 ‘쟁기’라고 하는데, 소의 몸통을 둘러매는 ‘멍에’와 함께 밭을 가는 데에 이용한다. 농업이 기계화되기 전에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였다.

“저거 한 오십 년 됐어. 내가 열세 살부터 저걸, 밭을 갈았단 말이여. 웬 그려냐면은 그때 육이오가 터져 불고 사삼사건이 터져 부니까 남자가 원 없었어. 게니까 열세 살부터 저런 걸로 밭을 갈았어.”¹⁾

(저거 한 오십 년 됐어. 내가 열세 살부터 저걸, 밭을 갈았단 말이야. 왜 그려냐면 그때 육이오가 터져 버리고 사삼사건이 터져 버리니까 남자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열세 살부터 저런 걸로 밭을 갈았어.)

“이거 오십 년 넘어수다. 나 뭐 어린 때부터 농사지으니까. 나 이제 칠십오 센데. 아부지가 만든 거우다. 옛날 하르방덜은 웬만한 건, 목수들은 거의 헤나수궤. (이 잠대로 몇 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수과?) 흔 60년, 한 70년 말까자는 헌 거 같아. 그 고구마줄, 이렇게 걷을 때도 하고. 밭 가는 건 뭐 기본이주만은. 그 이게 우리 저 로터리로 혜근에, 경운기 혜근에 헌 때도 이런 걸로 헨에 소나 말 메와근에 고구마줄 잇영 걷을 때 잇지 안협니까? 우리 옛날 농서 엄청 헤나수다. 유채, 고구마.”²⁾

(이거 오십 년 넘었습니다. 나 뭐 어렸을 때부터 농사지으니까. 나 이제 칠십오 세인데.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옛날 할아버지들은 웬만한 건, 목수들은 거의 했었지요. (이 쟁기로 몇 년도까지 농사를 지었습니까?) 한 60년, 한 70년 말까자는 한 거 같아. 그 고구마덩굴, 이렇게 걷을 때도 하고. 밭 가는 건 뭐 기본이지만. 그 이게 우리 저 로터리로 해서, 경운기로 해서 할 때도 이런 걸로 해서 소나 말 메워서 고구마덩굴 있어서 걷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농사 엄청 했었습니다. 유채, 고구마.)



<사진 1> 한사율 씨 소장 '잠대'



<사진 2> 김창호 씨 소장 '잠대'

<사진 1>은 성읍리 한사율 씨(1935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한사율 씨는 열세 살 때부터 쟁기로 밭을 갈았다고 한다. <사진 2>는 세화리 김창호 씨(1948년생)가 사용했던 '잠대'다. 김 씨는 칠십 년대 말까자는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았다고 한다. 경운기가 나와 경운기로 밭을 갈기 시작한 후에도 김 씨는 고구마 수확을 할 때 이 쟁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1)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2) 세화리 김창호 씨 구술.

“(언제까지 잠대로 밧갈았수과?) 육십 흐꼼 넘게 골앗주. 경운기 나오니까 저거 고물 뒤 볼엇지. (삼촌 육십 뒤사 경운기가 나왔?) 돈 엇이난 사지 못했지, 그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산쓰고.”³⁾

((언제까지 쟁기로 밧갈았습니까?) 육십 조금 넘게 갈았지. 경운기 나오니까 저거 고물 돼 버렸지. (삼촌 육십 돼야 경운기가 나왔어?) 돈 없으니까 사지 못했지, 그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사서 쓰고.)



<사진 3> ‘잠대’로 밧을 가는 시범을 보이는 김종권 씨

“밧 갈 때 필요헌 게 뭐냐면 우선 소가 잊어야 돼고. 우선 소가 잊어야 밧을 갈 거고. 소가 잊으면 잠대, 잠대가 다 잊어야 돼는 거. 소 이신, 밧을 가는 집은 그 잠대가 다 곶좌경 잊거든. 매 집에 잊는 건 있어. 그건 그 소가 잊는 집은 다 잊으니까.”⁴⁾

(밭 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 소가 있어야 되고. 우선 소가 있어야 밧을 갈 거고. 소가 있으면 쟁기, 쟁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소 있는, 밧을 가는 집은 그 쟁기가 다 갖춰져 있거든. 매 집에 있는 건 있어. 그건 그 소가 있는 집은 다 있으니까.)

“후난 막 꺼꺼진 거. 꺼꺼지난 다시 준비해당 갈단 끗나난 저디 걸언 내불엇주. 만들기는 우린 그 재주가 없어서 못 만들어신디, 만드는 데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쿠다. 경운기 나와 가난에 안 쓰기 시작했주. (몇 살에 경운기를 장만했수과?) 우리 한 팔십 년대. 칠십오, 팔십 년대 군대 갔다 완에. 계속 농사짓고 뭐 유채 같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과수원 시작했고.”⁵⁾

(하나는 마구 꺾어진 거. 꺾어지니까 다시 준비해다가 갈다가 끝나니까 저기 걸고 내버렸지. 만들기는 우리는 그 재주가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만드는 데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경운기 나와 가니까 안 쓰기 시작했지. (몇 살에 경운기를 장만했습니까?) 우리 한 팔십 년대. 칠십오, 팔십 년대 군대 갔다 와서. 계속 농사짓고 뭐 유채 같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또 과수원 시작했고.)

3)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4)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5) 토산리 송무웅 씨 구술.

<사진 3>은 토산리 김종권 씨(1934년생)가 ‘잠대’를 손에 쥐고 밧을 가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경운기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중에 장만한 편으로, 육십 넘어서까지 쟁기로 밧을 갈았다고 한다.



<사진 4> 송좌길 씨 소장 '잠대'



<사진 5> 송무옹 씨 소장 '잠대'

<사진 4>는 세화리 송좌길 씨(1939년생)가 소장하고 있는 '잠대'다. '잠대'는 소로 밭을 가는 데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농기구로 전통사회에서는 소를 가지고 있는 집은 모두 갖추었다고 한다.

<사진 5>는 송무옹 씨(194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송무옹 씨는 '잠대' 두 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러진 상태이고, 나머지 하나는 온전한 것이었다. 처음 사용하던 쟁기가 부러지자 다른 것을 다시 장만해서 사용하다가 보관하고 있다. '잠대'는 경운기가 나오고 경운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토산리 김종권 씨나 송무옹 씨나 팔십 년대까지 '잠대'를 사용했다고 한다.

“(잠대 그 길쭉한 낭이?) 거, 저 성에. 그다음에 몽클, 설칫, 둘벵이뿔, 양죽머리. 건 끼우는 건 보습. 옆에는 벳.”⁶⁾

(쟁기 그 길쭉한 나무가?) 그거, 저 성에. 그다음에 쟁깃술, 한마루, 까막머리, 양지머리. 그건 끼우는 건 보습. 옆에는 벳.)

“(몽클은) 자귀낭이 제일 좋았어. (설칫) 것도 질겨야 돼. 것도 가시나무. 이것도 가시나무 아니믄은 우리 저 해변, 해변에 가시낭이라고 해 가지고 찔긴 나무, 허는 게 있어. (양죽머리는?) 그거는 가벼운 거 뭐 관계없어. 저 소위 저건 ㅎ챙 허민은 뭘로 헤야 돼냐면은 저거는 마주목이라고 훈 거 있어. 마주목. 마주목이라고 그 나무가 까끄면 아주 색이 좋아. 반들반들해 가지고. 그거 엇이민 아무 거라도 세와. 우선은, 우선 급히면 급현 대로 쓰는 거라. 아무거라도.”⁷⁾

6)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7)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성에는 자귀나무가 제일 좋았어. (한마루) 그것도 질겨야 돼. 그것도 가시나무. 이것도 가시나무 아니면 우리 저 해변, 해변에 가시나무라고 해 가지고 질긴 나무, 하는 게 있어. (양지머리는?) 그것은 가벼운 거 뭐 관계없어. 저 소위 저거는 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저것은 멀구슬나무라고 하는 거 있어. 멀구슬나무. 멀구슬나무라고 그 나무가 깎으면 아주 색이 좋아. 반들반들해 가지고. 그거 없으면 아무 거라도 세워. 우선은, 우선 급하면 급한 대로 쓰는 거야. 아무거라도.)

“(밭 갈 때 여기 막 흑 부트민?) 따끄는 거, 그건 뭐 그거 저 벳 따끄라고 해 가지고 요만큼 해 가지고 낭까쟁이 헤 가지고 뒤에 접지는 거 있어. 이거 여기 끼민, 여기 그 저 노끗이, 노가 들어가거든. 그 끈이, 끈이 들어가난 그 끈 사이에 꽉는 디가 있어. 이거 이 끈 사이에 이 틈으로, 틈으로. 그렇게 끼윙 놔둬. 벳칼, 벳칼.”⁸⁾

((밭 갈 때 여기 마구 흙 붙으면?) 닦는 거, 그건 뭐 그거 저 벳 닦으라고 해 가지고 요만하게 나뭇가지 해 가지고 뒤에 끼우는 거 있어. 이거 여기 끼우면, 여기 그 저 노끈이, 노가 들어가거든. 그 끈이, 끈이 들어가니까 그 끈 사이에 꽂는 데가 있어. 이거 이 끈 사이에 이 틈으로, 틈으로. 그렇게 끼워서 놔둬. 벳칼, 벳칼.)

‘잠대’의 각 부분은 성에, 쟁깃술, 한마리, 까막머리, 양지머리라 부르는 이름이 있고, 앞에 끼우는 보습과 벗이 있다. 세화리 송좌길 씨는 성에를 만들 때는 자귀나무가 제일 좋다고 했다. 한마루도 질겨야 하므로 가시나무가 좋고, 양지머리는 가벼운 나무가 적합하다. 밭을 갈 때 벗에 흙이 많이 붙으면 그 흙은 ‘벗칼’을 이용해서 긁어낸다. ‘벗칼’은 벗의 뒷부분, 벗을 쟁기에 묶는 끈 사이에 꽂아 둔다.



<사진 6> 강기숙 씨 소장 ‘잠대’



<사진 7> 김평우 씨 소장 ‘잠대’

<사진 6>은 성읍리 강기숙 씨(1947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온전한 형태의 ‘잠대’

8)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하나와 ‘잠대’의 ‘뭉콜’ 부분만 남아 있는 것 하나를 창고 위에 매달아 보관하고 있다. <사진 7>은 토산리 김평우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잠대’다. ‘잠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창고 구석에 놓아두고 보관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삭아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

(2) 멍에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 또 그 막대를 포함하여 쟁기나 수레에 연결하는 줄 등 전체도 ‘멍에’라고 하는데,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어 밭을 갈게 할 때 사용한다.

“그거는 쉐 야가지에 걸어서 쉐가 영 끊어야 헐 거 아니과게? 멍에, 멍에.”⁹⁾

(그거는 소 목에 걸어서 소가 이렇게 끊어야 할 거 아닙니까? 멍에, 멍에.)



<사진 8> 송무옹 씨 소장 ‘멍에’



<사진 9> 김천종 씨 소장 ‘멍에’

<사진 8>은 토산리 송무옹 씨가 보관하는 있는 ‘멍에’다. 송무옹 씨는 ‘멍에’를 소의 목에 걸어서 소가 쟁기를 끌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사진 9>는 세화리 김천종 씨(1936년생)가 사용했던 ‘멍에’다.

“밭 가는 디, 밭갈이에 소 이런 디 하는 거.”¹⁰⁾

(밭 가는 데, 밭갈이에 소 이런 데 하는 거.)

9)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10) 하천리 강운평 씨 구술.

“줄대, 그 가운데 줄은 등폐. 그거 멍에, 그거 접궤. 오리목.”¹¹⁾

(‘줄대’, 그 가운데 줄은 ‘등폐’. 그거 멍에, 그거 목대. ‘봇줄’.)



<사진 10> 강윤평 씨 소장 ‘멍에’



<사진 11> 강윤평 씨 ‘멍에’의 ‘오리목’

<사진 10>은 하천리 강윤평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멍에다. 강 씨는 ‘멍에’의 줄을 ‘줄대’라고 하고, ‘멍에’의 가운데 소의 등에 걸치는 줄을 ‘등폐’라고 했다. 또 ‘멍에’의 굵은 나무 가운데의 가느다란 두 개의 나무를 ‘접궤’, 사진에서 맨 오른쪽의 줄을 ‘오리목’이라고 했다. ‘오리목’을 가까이서 찍은 것이 <사진 11>이다.

“멍에는 그 저 머귀남, 머귀남. 접궤, 그땐 윤뉴리, 윤뉴리가 최곤디. 윤뉴리 없이민 여긴 그 춤가시낭이 아니고. 그 여기, 여기서 저 가시낭, 가시낭 헌디 그자 그거 쉬운 거 해당 그거 해당 헌 것도 얼마 못 써. 자꾸 갈아야 뛰고. 거 가시낭으로 해야 돼.”¹²⁾

(멍에는 그 저 머귀나무, 머귀나무. 목대, 그때는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가 최고인데. 윤노리나무 없으면 여기는 그 참가시나무가 아니고. 그 여기, 여기서 저 가시나무, 가시나무하는데 그저 그거 쉬운 거 해다가 그거 해다가 한 것도 얼마 못 써. 자주 갈아야 되고. 그거 가시나무로 해야 돼.)

세화리 송좌길 씨는 ‘멍에’를 만들 때는 머귀나무가 좋다고 했다. ‘멍에’ 가운데에는 구멍을 뚫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가 있는데, ‘접궤’라고 부르는 목대는 윤노리나무를 쓰거나 윤노리나무가 없으면 가시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11)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2)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가리석 거 운전, 소위 운전하는 거주게. 쉬 운전하는 거. 가리석, 운전하는 거.”¹³⁾
(‘가린석’ 그거 운전, 소위 운전하는 거지. 소 운전하는 거. ‘가린석’, 운전하는 거.)

밭을 갈기 위해서는 소에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연결한다. 그리고 ‘가린석’을 소의 고삐에 걸고 이 ‘가린석’을 양쪽에 친 뒤 소를 몰며 밭을 간다. 세화리 송좌길 씨는 ‘가린석’을 쥐고 소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 보섭과 벳

‘보섭’과 ‘벳’은 쟁기에 들어가는 도구다. ‘보섭’은 표준어 ‘보습’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쟁기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쇳조각이다. ‘벳’은 표준어의 ‘벳’의 제주어로, ‘보섭’ 위에 비스듬하게 덧대는 것이다. ‘벳’은 ‘보섭’으로 갈아 넘기는 흙을 받아 한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섭, 밭 갈 때 써난 거. 그만 낫당, 거시기로 놔두肯 허멍 하르방 놔뒀주.”¹⁴⁾
(보습, 밭 갈 때 썼던 거. 가만히 놨다가, 거시기로 놔두겠다고 하면서 할아버지(남편)가 놔뒀지.)

“보섭이라고 이거는 땅 팽 들어가는 거. 보섭은 요 끄트머리만 안 부러지면은, 돌멩이 밭쳐 불면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쓰니까. 장에 강 사다가 썻지.”¹⁵⁾

(보습이라고 이거는 땅 파서 들어가는 거. 보습은 요 끝만 안 부러지면, 돌멩이 밭혀 버리면 부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쓰니까. 장에 가서 사다가 썼지.)



<사진 12>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보섭’



<사진 13> 부대옥 씨 소장 ‘보섭’

13)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4)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15) 토산리 부대옥 씨 구술.

<사진 12>는 토산리 김종권(1933년생) · 오봉순(1934년생) 씨 집에서 사용했던 ‘보섭’이고, <사진 13>은 토산리 부대옥 씨(1948년생)가 사용했던 ‘보섭’이다. ‘보섭’은 땅속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밭을 갈다 보면 돌에 부딪쳐서 그 끝이 부러지거나 닳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서 사용했다.

“벗은 죽장 씨. 벗은 건 바꾸지 못현디 보섭은 혼 해에 혼나, 두 개 이렇게 바꿔야 돼어. 저거 무껴 불면은 돌광 탕 털어지민 딱 부러져 불고 무껴 가지고 못 쓰거든. 저거 일 년에 혼두 개 써, 써야 돼어. 그거 그때 당시에는 저 대정 가서 샀거든. 그때 대정서 이걸 만드는 디가 잇었다고. (세화리는 그런 불미 허는 디가 엊어낫수꽈?) 불미 잇자 이건 안 나와. 이건 못 만들어. 대정서 저 만들아 가지고 이레 풀레 나왔어. 세화리 불미가 옛날 저 세화3리 혼 밧디 잇어낫어. 호미, 굴정이, 낫, 그런 건 만들았어. (벗이나 보섭) 그거는 못 헤여. 이거를 구워내야 돼니까. 이건 구워내야 돼. 저 가마, 그 항아리 구워내듯. 저런 췋물에 구워내야 돼니까. 이건 못 헤여.”¹⁶⁾

(벗은 계속 써. 벗은 그건 바꾸지 못하는데 보섭은 한 해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바꿔야 돼. 저거 무뎌 버리면 돌과 딱 떨어지면 딱 부러져 버리고 무뎌 가지고 못 쓰거든. 저거 일 년에 한두 개 써, 써야 돼. 그거 그때 당시에는 저 대정 가서 샀거든. 그때 대정에서 이걸 만드는 데가 있었다고. (세화리는 그런 대장간 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대장간 있어도 이건 안 나와. 이건 못 만들어. 대정에서 저 만들어 가지고 이리 팔러 나왔어. 세화리 대장간이 옛날 저 세화3리 한 군데 있었어. 낫, 호미, ‘낫’, 그런 거 다 만들었어. (벗이나 보습) 그거는 못 해. 이거를 구워내야 되니까. 이건 구워내야 돼. 저 가마, 그 항아리 구워내듯. 저런 췋물을 구워내야 되니까. 이건 못 해.)

세화리 송좌길 씨의 구술에 따르면 ‘벗’은 계속 쓸 수 있지만 ‘보섭’은 한 해에 한두 개 바꿔야 한다고 한다. 돌에 부딪쳐서 부러지기도 하고 무디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교체하여 사용했던 것이다. 세화리에도 대장간이 있어서 낫이나 호미 등은 만들어 냈지만, ‘보섭’은 만들지 못했다. ‘보섭’은 대정 지역에서 주로 생산해 냈다.

“벗, 흙 넘어가는 거. 흙 이레, 밭 갈면은 흙 이레 넘어가는 거, 자차지는 거.”¹⁷⁾
(벗, 흙 넘어가는 거. 흙 이리, 밭 갈면 흙 이리 넘어가는 거. 젖혀지는 거.)

16)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7) 토산리 부대옥 씨 구술.



<사진 14> 부대옥 씨 소장 '벳'



<사진 15> 한사율 씨 소장 '벳'

<사진 14>는 토산리 부대옥 씨, <사진 15>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벳'이다. 부대옥 씨의 구술처럼 쟁기의 '보섭'이 땅속의 흙을 일으키면, 올라온 흙이 이 '벳'에 닿으면서 젖히게 된다.

4.1.2. 땅 파는 도구

(1)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다. 보습이 양 갈래로 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판다. 쟁기로 갈 수 없는 밭이나 돌이 많은 밭을 일굴 때, 밭을 개간할 때 썼던 도구다.

“이거는 따비라고 해서 이게 젤 중요한 거여. 개간할 때 이거로다가 발로 썩 밟아 가지고 돌을 다 일려낸 거라이, 따비. 이거 얻은 것이 아니고 이거 만들었다니까. 이런 게 쪼끔 헌 사람은 이런 거 다 만들주게, 보면서이. 이거 제일 쉬운 거라.”¹⁸⁾

(이거는 따비라고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개간할 때 이것으로 발로 썩 밟아 가지고 돌을 다 일으켰던 거야, 따비. 이거 얻은 것이 아니고 이거 만들었다니까. 이런 게 조금 하는 사람은 이런 거 다 만들지, 보면서. 이거 제일 쉬운 거야.)

18)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사진 16> 한사울 씨 소장 '따비'



<사진 17> '따비'를 사용해 보이는 한사울 씨

<사진 16>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따비'다. 한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밭을 개간할 때 이 '따비'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7>은 한 씨가 '따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재현해 보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따비'는 땅을 개간할 때, 쟁기로 밭을 갈 수 없는 경우 <사진 17>처럼 '따비'의 뾰족한 부분을 땅에 찔러 넣어 땅을 일구었다.

“그 따비라는 거 있어, 따비. 따비, 옛날 그 테역밭을 가는 거 있어, 테역밭. 그 두 갈퀴 이렇게 헤 가지고 만든 건데. 그 따비두 어려와, 그것도. 우리 가마리도 따비 멧 개 엊어실 거라.”¹⁹⁾

(그 '따비'라는 것이 있어, '따비'. '따비', 옛날 그 떼밭을 가는 거 있어, 잔디밭. 그 두 갈퀴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건데. 그 따비도 어려워, 그것도. 우리 세화리도 따비 몇 개 없었을 거야.)

“그 테역밭디 일루는 거. 테역밭 일루고 아주 쎈 거, 쎈 밭 일루는 거. 그거 사람 손으로 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소위 저 테역밭. 테역밭 일구쟁 허면 따비가 필요헌 거. 그때 쉐, 쉐로도 허지만 쉐로 허기 앞서 그 따비로 이제 묻저 테역밭을 일구는 거라. (그 따비 코쟁이) 두 개, 두 개. 이런 게 이렇게 이신디 두 개 잇인디 그게 무겁기도 헤여. 따비는 또 아무나 허는 게 아니꼭 허난.”²⁰⁾

(그 떼밭 일구는 거. 떼밭 일구고 아주 센 거, 센 밭 일구는 거. 그거 사람 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 소위 저 떼밭. 떼밭 일구려고 하면 따비가 필요한 거. 그때 소, 소로도 하지만 소로 하기에 앞서 그 '따비'로 이제 먼저 떼밭을 일구는 거야. (그 '따비' 코) 두 개, 두 개.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있는데 그게 무겁기도 해. '따비'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19)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20)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세화리 송좌길 씨에 의하면 따비는 떼밭을 일구는 데에 사용했다. 떼의 뿌리 때문에 땅이 단단해서 밭갈이가 어려운 밭을 일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소에 쟁기를 메워 밭을 갈기 전에 떼밭을 ‘따비’로 먼저 일꾼다고 한다.

(2) 삽

‘삽’은 땅을 파고 흙을 뜨는 데 쓰는 도구다. 표준어의 ‘가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갈레 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 ‘삽’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낭삽’은 나무로 만든 삽이다.

요거는 낭삽. 한 칠십, 칠십 년 전에 이거 사용했던 거여.²¹⁾

(요거는 나무삽. 한 칠십, 칠십 년 전에 이거 사용했던 거야.)

“이런 것도 이젠 엊어. 있는 디도 베랑 엊어. 지난 몰론 사람도 많고. 이제 쓸 필요가 엊인 거주게. 손잡인 안 했어.”²²⁾

(이런 것도 이젠 없어. 있는 데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른 사람도 많고.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손잡이는 안 했어.)



<사진 18> 한사울 씨 소장 ‘낭삽’(앞)



<사진 19> 한사울 씨 소장 ‘낭삽’(뒤)

21) 성읍리 한사울 씨 구슬.

22) 성읍리 한사울 씨 구슬.

<사진 18>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보관했던 ‘낭삽’이다. 한 씨가 여러 옛 농사 도구들을 만들면서 옛 ‘낭삽’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땅을 파거나 할 때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저건 뭐 낭삽 보긴 봐도 소용이 없어. 저거 낭삽은 써나실 건디 난, 우린 안 써 봤어.”²³⁾
(저건 뭐 ‘낭삽’ 보긴 봐도 소용이 없어. 저거 ‘낭삽’은 썼었을 건데 난, 우리는 안 써 봤어.)

“웬만한 집이 저 울타리에 그 뭐 배추 그튼 거나 갈아 먹겠 허는 걸로 헛주. 그때 삽 해 가지고 무슨 밧갈거나 그런 건 못 해여. 거 텃밭디서 그냥 배추 그튼 거나 갈아 먹고, 누물 그런 거 갈아 먹겠 했을 때 그게 있어야고. 흑 어디서 혹시 날라갈 때, 담을 때, 흑 담을 때 그 삽이 제일 필요헌 거. 흑을 운반할 때 그거 제일 필요헌 거.”²⁴⁾

(웬만한 집에 저 울타리에 그 뭐 배추 같은 거나 갈아 먹으려고 하는 걸로 하지. 그때 삽 해 가지고 무슨 밧갈거나 그건 못 해. 그거 텃밭에서 그냥 배추 같은 거나 갈아 먹고, 나물 그런 거 갈아 먹으려고 했을 때 그게 있어야 하고. 흑 어디서 혹시 날아갈 때, 담을 때, 흑 담을 때 그 삽이 제일 필요한 거. 흑을 운반할 때 그거 제일 필요한 거.)

세화리 송좌길 씨는 ‘낭삽’을 보기는 했었으나 사용해 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삽’은 어느 집이나 텃밭에 배추 같은 나물을 갈 때 등 흙을 담을 때나 나를 때 꼭 필요한 도구라고 했다.



<사진 20> 강윤평 씨 소장 ‘삽’



<사진 21> 김은두 씨 소장 ‘삽’

<사진 20>은 하천리 강윤평 씨, <사진 21>은 가시리 김은두 씨(1939년생)가 사용하고

23)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24)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있는 ‘삽’이다. 삽의 날이 녹슨 모습이나 손잡이의 나무 상태로 보아 오래된 삽임을 알 수 있다.



<사진 22> 부대옥 씨 소장 ‘삽’



<사진 23> 김복순 씨 소장 ‘삽’

<사진 22>는 토산리 부대옥 씨가 사용하고 있는 ‘삽’이고, <사진 23>은 가시리 김복순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삽’이다. 두 ‘삽’의 모양이 다른데, 아래쪽의 ‘삽’은 땅을 파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삽’이고, 위쪽의 네모난 ‘삽’은 모래 등을 담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3) 켜이

‘괭이’는 밭을 일구거나 땅을 팔 때, 그리고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괭이’라고 표기한다.

“자이도 밧일힐 때, 켜이. 그거 다, 두 개 다 이제사들 나온 거주. 옛날은 그런 게 없었어. 저거뿐이라.”²⁵⁾

(재도 밧일할 때, 괭이. 그거 다, 두 개 다 이제야들 나온 거지. 옛날은 그런 게 없었어, 저거뿐이야.)

25)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사진 24> 강기수 씨 소장 ‘궤이’



<사진 25> 강윤평 씨 소장 ‘궤이’



<사진 26> 강성종 씨 소장 ‘궤이’



<사진 27> 김복순 씨 소장 ‘궤이’

<사진 24>는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 <사진 25>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궤이’다. <사진 26>은 가시리 강성종 씨, <사진 27>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궤이’인데, ‘궤이’ 모양이 모두 조금씩 다르다. <사진 24>와 <사진 25>의 ‘궤이’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머리 부분이 폭이 좁은 모양이어서 땅을 파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사진 26>과 <사진 27>의 ‘궤이’는 근래에 나온 농기구로, 앞의 ‘궤이’에 비해 날이 얇고 폭이 넓은데, 땅을 일구는 용도보다는 흙을 고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4) 곡궤이

‘곡궤이’는 땅에 묻힌 돌이나 나무뿌리 따위를 파낼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다. 황새의 부리처럼 양쪽으로 길게 날을 내고 가운데 구멍에 긴 자루를 박은 팽이로, ‘곡팽이’를 말한다.

“곡괭이, 밧 가튿 디 가서 돌 캐곡. 뭐 그거 곡괭이.”²⁶⁾

(곡괭이, 밭 같은 데 가서 돌 캐고. 뭐 그거 곡괭이.)



<사진 28> 강광철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9> 송무웅 씨 소장 ‘곡괭이’



<사진 30> 김양선 씨 소장 ‘곡괭이’



<사진 31> 양일선 씨 소장 ‘곡괭이’

<사진 28>은 세화리 강광철 씨(1948년생)가 돌을 캐거나 할 때 사용했던 ‘곡괭이’다.

<사진 29>는 토산리 송무웅 씨가 사용했던 ‘곡괭이’고, <사진 30>은 세화리 김양선 씨(1933년생), <사진 31>은 하천리 양일선 씨(1949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곡괭이’다.

(5) 쉐스렁

‘쉐스렁’은 표준어의 ‘쇠스랑’으로 땅을 파헤쳐 고르거나 두엄, 풀 따위를 쳐내는 데 쓰는 갈퀴 모양의 농기구다. 표선면 지역에서는 이를 제보자에 따라 ‘쉐스랑’, ‘쉐스렁’이라고도 했다.

26)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쉐스렁, 주로 거 쉐걸름 낼 때. 그 웨론 밭일할 때도 사용하곡.”²⁷⁾
(쇠스랑, 주로 거 쇠두엄 낼 때. 그 외로는 밭일할 때도 사용하고.)

“쉐걸름, 쉐 기를 때에 저걸로 펴내잖아.”²⁸⁾
(쇠두엄, 소 기를 때에 저걸로 펴냈잖아.)



<사진 32> 강성종 씨 소장 ‘쉐스렁’



<사진 33> 강기수 씨 소장 ‘쉐스랑’

<사진 32>는 가시리 강성종 씨(1936년생)가 사용했던 ‘쉐스렁’이다. 강 씨는 밭일을 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지만, 주로 외양간의 쇠두엄을 걷어 낼 때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33>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쇠두엄을 걷어 낼 때 사용했던 ‘쉐스랑’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먹는 쓰레기 나오면 버리지 못하니까 잡초에 헤근에 거름 만듭니다. 지금 저기 묻어 놔어. 이걸로 자꾸 걷어내영. 옛날에는 쉐스랑, 곡괭이, 삽, 다 필요헌 거주게.”²⁹⁾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먹는 쓰레기 나오면 버리지 못하니까 잡초에 해서 거름 만듭니다. 지금 저거 묻어 놔어. 이걸로 자꾸 걷어내서. 옛날에는 쇠스랑, 곡괭이, 삽 다 필요한 거지.)

27)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28)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29) 토산리 송무웅 씨 구술.



<사진 34> 강윤평 씨 소장 '쉐스렁'



<사진 35> 송무웅 씨 소장 '쉐스렁'

<사진 34>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쉐스렁'이다. '쉐스렁'을 사용하다가 손잡이가 부러지면 직접 손잡이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는데, 아래쪽 '쉐스렁'은 손잡이가 훠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35>는 토산리 송무웅 씨가 사용했던 '쉐스렁'으로, 송 씨도 거름을 걷어 낼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거 쪔른 거, 옛날엔 진 거고 이건 앗앙 허는 거.”³⁰⁾
(이거 짧은 거, 옛날에는 긴 거고 이거는 앓아서 하는 거.)

“저건 작은 쉐스렁, 나 기자 누물 갈 때나 무시거 죽게 헐 때 저걸로 찍는 거. 옛날에 보면 쉐스렁 진 거 있어, 큰 거. 거 밧 찍곡 걸름 이렇게 찍을 때 걸름 헐 때, 저 걸름 펴근에 저 걸체에 담앙 걸로 들렁 영 내치고 헤낫주게. 바깟데레 내치고. 걸름 안 헤나건 딘 20년 넘었주게. 둑걸름도 허곡 우리 쉐질라근에 쉐 질랑 쉐걸름도 내고.”³¹⁾

(저거는 작은 쇠스랑, 나 그저 나물 갈 때나 뭐 작게 할 때 저걸로 찍는 거. 옛날에 보면 쇠스랑 긴 거 있어, 큰 거. 그거 밧 찍고 거름 이렇게 찍을 때 거름 할 때, 저 거름 펴서 저 삼태기에 담아서 그걸로 들고 이렇게 내치고 했었지. 밖으로 내치고. 거름 안 한 지는 20년 넘었지. 돼지거름도 하고 우리 소 길러서 소 길러서 쇠두엄도 내고.)

30) 하천리 양일선 씨 구술.

31)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사진 36> 양일선 씨 소장 '쉐스렁'



<사진 37> 홍순이 씨 소장 '쉐스렁'

<사진 36>은 하천리 양일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쉐스렁', <사진 37>은 표선리 홍순이 씨(1952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쉐스렁'이다. 앞서 <사진 34>, <사진 35>에서 보았던 '쉐스렁'보다 손잡이가 짧은데, 홍순이 씨의 구술에서처럼 이것은 앓아서 땅을 일굴 때 사용했던 것이다.

4.2. 김매기와 수확 관련

4.2.1. 호미류

(1) 골갱이

'골갱이'는 김을 매거나 고구마 따위의 농작물을 캘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로 '호미'인데, 이를 제주에서는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골각지', '골게기'라고도 한다. '골갱이'는 사용 용도나 밭의 환경에 따라 날이나 손잡이의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보리왓디 검질메야주. 그때 골갱이. 보리왓디 두불 메야 헤는 거라.”³²⁾

(보리밭에 김매야지. 그때 호미. 보리밭에 두벌 매야 하는 거야.)

32)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농작물을 관리할 때 호미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주로 김을 매거나 농작물을 쑤을 때 사용하는데, 세화리 송좌길 씨는 보리밭에 김을 맬 때 사용했다. 보리밭인 경우는 두 번 김을 매야 했다고 한다.

“건 골갱이. 겹질, 겹질, 저 밧데 저런 겹질멜 때. 저 제주도 말로 겹질이엔 허주. 그거 멜 때 저걸로 허주게.”³³⁾

(그건 호미. 김, 김, 저 밭에 저런 김멜 때. 저 제주도 말로 ‘겹질’이라고 하지. 그거 멜 때 저걸로 하지.)



<사진 38> 강광철 씨 소장 ‘골갱이’



<사진 39> 김창효 씨 소장 ‘골갱이’



<사진 40> 강성종 씨 소장 ‘골갱이’



<사진 41> 김복순 씨 소장 ‘골갱이’

<사진 38>은 세화리 강광철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갱이’고, <사진 39>는 세화리 김창효 씨(1938년생)가 김을 맬 때 사용했던 ‘골갱이’다. <사진 40>과 <사진 41>은 가시리 강성종 씨,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갱이’다. 다섯 개의 ‘골갱이’가 있으나 여러 ‘골갱이’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33)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요거 더덕 캘 때 골갱이주, 갈코리주.”³⁴⁾
(요거 더덕 캘 때 호미지, 같고리지.)



<사진 42> 김은두 씨 소장 ‘갈코리’

<사진 42>는 가시리 김은두 씨(1939년생)가 더덕을 캘 때 사용했던 도구다. 날이 같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호미의 용도로 더덕을 캘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2) 호미

‘호미’는 곡식이나 나무, 풀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의 ‘낫’에 대응한다. 베는 곡식이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호미’의 날이나 자루의 모양,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사진 43> 강성종 씨 소장 ‘호미’



<사진 44> 김은두 씨 소장 ‘호미’

34)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사진 45> 고경만 씨 소장 '호미'



<사진 46> 송무웅 씨 소장 '호미'

<사진 43>은 가시리 강성종 씨, <사진 44>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다. <사진 45>는 표선리 고경만 씨(1941년생), <사진 46>은 토산리 송무웅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호미 무시거 빌 때. 우연에 무시거 빌 거 시민 이걸로 헷수게.”³⁵⁾

(낫 뭐 벨 때. 터앞에 뭐 벨 거 있으면 이걸로 했지요.)

“저건 벌초할 때 쓰는 거. 저거 따로 놔둔 거주게, 알리래. 일부러 표적해 가지고.”³⁶⁾

(저건 벌초할 때 쓰는 거. 저거 따로 놔둔 거지, 아래. 일부러 표시해 가지고.)



<사진 47> 김복순 씨 소장 '호미'



<사진 48> 김복순 씨 소장 '호미'

35)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36)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사진 47>과 <사진 48>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사용하고 있는 ‘호미’다. 김 씨가 터얕에 잡초나 나물 등 무엇인가 벨 것이 있을 때는 이 ‘호미’를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48>의 ‘호미’는 벌초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두고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것그라 호미렝 해. 육지서는 낫이앵 허주만은 제주도 말로 호미. (이건 무사 영 뚜꺼운 거마씨?) 거는 나무 가지치기 허는 거.”³⁷⁾

(그것보고 ‘호미’라고 해. 육지에서는 낫이라고 하지만 제주도 말로 ‘호미’. (이건 왜 이렇게 뚜꺼운 거예요?) 거는 나무 가지치기하는 거.)

“이거는 가지치기, 저거는 저, 조나 옛날 보리 그런 거 빌 때 사용하는 거, 저거. 이거는 아니, 이거는 무거워서 보리 빌 때 훌 수가 없어. 이런 나무 칠 때 탁 탁 끈을 때에. 이거 나무가지 치는 호미 가정 오라 허주게.”³⁸⁾

(이거는 가지치기, 저거는 저, 조나 옛날 보리 그런 거 빌 때 사용하는 거, 저거. 이거는 아니, 이거는 무거워서 보리 빌 때 할 수가 없어. 이런 나무 칠 때 탁 탁 끈을 때에. 이거 나뭇가지 치는 낫 가지고 오라고 하지.)



<사진 49> 김창효 씨 소장 ‘호미’

<사진 49>는 세화리 김창효 씨가 보관하는 ‘호미’다. 두 개의 모양이 다른데, 아래 쪽의 것이 일반적인 낫인 ‘호미’로, 보리 따위의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위쪽의 ‘호미’는 날이 두껍고 단단한 것으로 나무의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거 나뭇가지 칠 때. 과수원에 방풍림 하면은, 그 방풍림 낭가지덜 잘라낼 때 이거 허는 거. (방풍림으로 쓰는 낭 이름이 뭐꽈?) 여기는 보통 쑥대낭.”³⁹⁾

(이거 나뭇가지 칠 때. 과수원에 방풍림 하면은, 그 방풍림 나뭇가지들 잘라낼 때 이거 하는 거. (방풍림으로 쓰는 나무 이름이 뭉니까?) 여기는 보통 삼나무.)

37)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38)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39)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저 나무가지, 노피 노픈 디 거 나무가지 이렇게 치는 거. 완전 편안해, 이거.”⁴⁰⁾
(저 나뭇가지, 높이 높은 데 거 나뭇가지 이렇게 치는 거. 완전 편안해, 이거.)



<사진 50> 강성종 씨 소장 ‘호미’



<사진 51> 김창효 씨 소장 ‘호미’

<사진 50>은 가시리 강성종 씨의 ‘호미’다. 강 씨는 긴 나뭇가지로 자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보통 밀감밭 주변으로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삼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 50>의 ‘호미’는 삼나무 가지치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다. ‘호미’의 자루 길이는 228cm로 상당히 길었다. <사진 51>은 세화리 김창효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이다. 김창효 씨도 강성종 씨와 마찬가지로 <사진 51>의 ‘호미’를 나무의 가지치기를 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52> 강윤평 씨 소장 ‘호미’

<사진 52>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미’다. 풀을 벨 때 사용하는 일반 ‘호미’에 긴 나무를 이어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 세화리 강창효 씨 구술.

4.2.2. 타작 도구

(1) 도께

‘도께’는 곡식의 날알을 떠는 데 쓰는 농기구로, 표준어로는 ‘도리깨’를 말한다. 긴 막대기의 한쪽 끝에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두세 개를 달아서 막대기를 휘두르면 매달린 나뭇가지가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마당질할 때 쓰는 거. 마당질이엔 헌 건 표준어도 뛰고, 옛날 말도 뛰여. 옛날도 마당질이엔 헷어. 그저 콩, 콩 때리는 것도 콩 마당질, 모물 때리는 모물 마당질. 이런 마당질이엔 헌 건 옛날도 그렇게 헷어. 이거 도께어시, 도께아덜, 도께털레. 저건 집에서 사용해나난에, 우리 할망 산 때 사용해나난에. 허끔씩 헌 거 이걸로 사용해난.”⁴¹⁾

(마당질할 때 쓰는 거. 마당질이라고 하는 건 표준어도 되고, 옛날 말도 돼. 옛날도 마당질이라고 했어. 그저 콩, 콩 때리는 것도 콩 마당질, 메밀 때리는 메밀 마당질. 이런 마당질이라고 하는 건 옛날도 그렇게 했어. 이거 도리깻장부, 도리깻열, 도리깨꼭지. 저건 집에서 사용했었으니까 우리 할머니(아내) 살았을 때 사용했었으니까. 조금씩 한 거 이걸로 사용했었어.)



<사진 53> 강성종 씨 소장 ‘도께’



<사진 54> ‘도께’의 ‘도께털레’

<사진 53>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께’다. 강 씨 아내가 소소한 것들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강 씨는 콩이나 메밀 등을 타작할 때 이것을 사용하여 두드리는 것을 ‘마당질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도께’의 각 부분을 ‘도께어시’, ‘도께아덜’, ‘도께털레’라 부르고 있다. <사진 54>는 <사진 53>의 ‘도께’에서 왼쪽 끝인 ‘도께털레’

4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부분만을 가까이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 55> 강윤평 씨 소장 ‘도께’



<사진 56> 도께’의 ‘도께틀레’

<사진 55>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께’다. <사진 56>은 ‘도께’의 한쪽 끝부분으로 손잡이와 곡식의 날알을 터는 나뭇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도께틀레’라고 하는데 표준어로는 ‘도리깨꼭지’라고 한다.

한편, 세화리 송좌길 씨는 타작을 할 때 사용하는 도리깨의 각 부분 명칭과 재료 등에 대해 자세히 구술해 주었다.

“저 보리 훌트는 보리틀, 보리틀이라고 헤 가지고 그게 있어. 그걸 홀타 가지고, 홀타 놔 가지고 마당에 내놓 도리깨로 다 거 끄스락 털어근에, 경헨.”⁴²⁾

(저 보리 훌는 보리 그네, ‘보리틀’이라고 해서 그게 있어. 그걸로 훑어서, 훑아 놓고 마당에 내놓고 도리깨로 다 그거 까끄라기 털어서, 그랬어.)

“도께 손에 심는 거는 도께어시, 도께아덜, 틀레. 틀레엔 헌 게 그 가운데 잇는 게, 그것이 젤 좋으면서도 역활을 허는 거주. 그 틀레엔 헌 게, 이게 가운데 사이에 놔 가지고 그 틀레가 이걸 꼬와다가 이걸 두 개 안아 가지고 무꺼 논 거거든. 이젠 멘들도 못허크라. (멘들아나수꽈?) 그거 다 멘들앙 이녁대로 멘들앙 써야주. 걸 다 만들엉 써야주, 그걸 어디 강 사 와? 그때는 푸는 게 엇어. 다 이녁대로 만들어야 뛰어.”⁴³⁾

42)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43)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도리깨 손에 잡는 거는 도리깻장부, 도리깻열, 도리깨꼭지. 도리깨꼭지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게, 그것이 제일 좋으면서도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도리깨꼭지라고 하는 게, 이게 가운데 사이에 가지고 그 도리깨꼭지가 이걸 꼬아다가 이걸 두 개 안아 가지고 묶어 놓은 거거든. 이제는 만드는 것도 못 하겠어. (만들었었습니까?) 그거 다 만들어서 자기대로 만들어서 써야지. 그걸 다 만들어서 써야지, 그걸 어디 가서 사와? 그때는 파는 게 없어. 다 자기대로 만들어야 돼.)

“요건 종낭. 도깨어시는 종낭, 도깨아덜은 이것도 소위 그 윤누리가 최고주. 가운데 찔렁은에 벵벵 묶는 건 츄낭 해 왕 때왕. 츄낭이 찔기지. 영 데와도, 불에 구웡 벵 허게 거 데우민 저 소위 새끼 꼬왕 영 돌리는 것처럼 돌아. 돌려, 돌려져. 경허난 이걸 돌려근에 이거 두 갤 꼭 물리거든. 물려 가지고 요걸 가운데 담아. 저 도깨틀레를 가운데 담아. 게난 무끄는 것을 뭘로 무꺼, 뭘로 헷냐?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는 저 비께가 많이 낫어. 비께엔 현 바닷고기. 비께는 상어, 상어하고 틀려. 그 비께엔 헌 게 많이 나신디, 그 비께 가죽이 그렇게 질겨. 그 가죽으로, 그걸 허단. 그거가 엇이난에 그다음에 뭘로 헷냐면은 신사라.”⁴⁴⁾

(요건 때죽나무. 도리깻장열은 때죽나무, 도리깻열은 이것도 소위 윤노리나무가 최고지. 가운데 찔러서 뱅뱅 묶는 건 참나무 해 와서 때워서. 참나무가 질기지. 이렇게 꼬아도, 불에 구워서 뱅 하게 그거 꼬면 저 소위 새끼 꼬아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돌아. 돌려,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이거 두 개를 꼭 물리거든. 물려서 요걸 가운데에 담아. 저 도리깨꼭지 가운데 담아. 그러니까 묶는 것을 무엇으로 묶어, 뭘로 헷냐?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는 저 ‘비께’가 많이 낫어. ‘비께’라고 하는 바닷고기. ‘비께’는 상어, 상어하고 달라. 그 ‘비께’라고 하는 게 많이 낫는데, 그 ‘비께’ 가죽이 그렇게 질겨. 그 가죽으로, 그걸 해다가. 그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뭘로 헷냐하면 뉴질랜드삼.)

“이거는 여러 해 쓰지만, 저 이 도깨틀레가 망가져근에 뿌려져 볼주게. 도망가 불민 건 항상 골아야 돼. 요거하고 요거는 오래 가는디 가운데 그 틀레는, 그거는 자꾸 골아야 돼. 그걸 무지려정 나가 볼주게.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니까 무지려정 도망가 불어. 그건 골아 주명 쓰는 거.”⁴⁵⁾

(이거는 여러 해 쓰지만, 저 이 도리깨꼭지가 망가져서 부러져 버리지. 도망가 버리면 그건 항상 갈아야 돼. 요거하고 요거는 오래 가는데 가운데 그 도리깨꼭지는, 그거는 자꾸 갈아야 돼. 그거 무지려져서 나가 버리지.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니까 무지려져서 도망가 버려. 그건 갈아 주면서 쓰는 거.)

보리 등을 타작할 때는 그네로 먼저 훑아 놓고 훑은 것을 마당에 펼쳐 놓은 뒤 도리깨로 두드렸다. 이 도리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틀레’라고 부르는 도리깨꼭지다. 이것이 도리깻장부와 도리깻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리깨는 대부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도리깨를 만들 때 도리깻장부는 때죽나무, 도리깻열은 윤노리나무가 좋다. 또

44)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45)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도리깨꼭지는 참나무를 이용했는데, 이 도리깨꼭지를 묶는 끈은 ‘비께’라는 바닷고기의 가죽을 이용했다. 이 가죽이 없을 때는 ‘신사라’라고 부르는 뉴질랜드삼을 이용해서 끈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도리깨의 도리깻장부나 도리깻열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도리깨꼭지는 같아 주면서 사용해야 한다. 도리깨질할 때 이 도리깨꼭지가 왔다 갔다 하며 도리깻열이 움직이므로 둣아서 부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2) 클

‘클’은 보리나 밭벼 등을 훑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의 벼를 훑는 데 쓰던 농기구인 ‘그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다. 보리를 훑을 때 사용하는 것을 ‘보리클’, 밭벼인 ‘산디’를 훑을 때 사용하는 것을 ‘산디클’, 벼인 ‘나룩’을 훑을 때 사용하는 것을 ‘나룩클’이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클, 보리 홀트는 클. 옛날에 보리 홀탄에 장만하고. 보리클인디 클이엔만도 곤주게. 우리 아이덜토 이런 거 하나도 몰라.”⁴⁶⁾

(그네, 보리 훑는 그네. 옛날에 보리 훑아서 장만하고. ‘보리클’인데 ‘클’이라고만도 말하지.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저 클이 트나, 클이 트나. 저거는 산디 홀트고 무시거 허는디 보리 홀트는 건 ھ꼼 훑어. 저 클, 아이고 오래어서. 우리 살림 살 때 써난에 오래었주게. 우리 ھ 마흔, 사십 대 저거 썻주. 보리 헐 때 썻는디.”⁴⁷⁾

(저 그네가 달라, 그네가 달라. 저거는 밭벼 훑고 뭐 하는데 보리 훑는 건 조금 굵어. 저 그네, 아이고, 오래었어. 우리 살림 살 때 썼으니까 오래었지. 우리 한 마흔, 사십 대 저거 썼지. 보리 할 때 썼는데.)

“그거 홀트는 거, 곡식 홀트는 거. 클, 클이라고 해. 산디클, 보리클 ㄱ타, 비슷해여. 쌀이 훑은 거 있어. 그보담 좀 더 널븐 거 있어. 게난 그 보리는 그걸로 홀타, 널븐 거. 보릿대는 술지거든. 산디도이, 산디엥 허주게. 산디도 홀탓는디 산디는 꾸짜해여, 대가. 술진 디, 뭐 현 디. 보리는이 ㅁ디가 있어. 영 오그라지고 허는 때문에 좀 굵어, 굵어야.”⁴⁸⁾

46)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47)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구술.

48)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그거 훑는 거, 곡식 훑는 거. '클', '클'이라고 해. '산디클', '보리클' 같아, 비슷해. 살이 굵은 거 있어. 그보다 좀 더 넓은 거 있어. 그러니까 그 보리는 그걸로 훑아, 넓은 거. 보릿짚은 살지거든. 밭벼도, 밭벼라고 하지. 밭벼도 훑았는데 밭벼는 곧아, 대가. 살진 데, 뭐 한 데. 보리는 마디가 있어. 이렇게 오그라지고 하는 때문에 좀 굵어, 굵어야.)



<사진 57>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클'



<사진 58> 한사율 씨 소장 '클'

<사진 57>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클'이다. 보리를 훑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오봉순 씨는 이것을 '보리클'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밭벼를 훑을 때 사용하는 '클'과 보리를 훑을 때 사용하는 '클'이 달랐다고 한다.

<사진 58>은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클'이다. 한 씨는 '클'을 받치는 받침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보릿짚에는 마디가 있어, 보리를 훑는 '클'이 밭벼를 훑는 것보다 살의 간격이 조금 넓다고 한다.

4.3. 건조와 손질 관련

4.3.1. 건조 도구

(1) 멍석

'멍석'은 짚을 꼰 새끼를 결어 네모나게 만든 큰 깔개이다. 곡식을 널어 말리거나 손질할 때 깔개로 이것을 펼쳐 놓고 그 위에서 장만했다.

“명석은 우리 시아버님도 명석 만들아낫어. 그거 저디 잇주게. 이젠 막 헐어 비엇어. 우리 시아버님이 명석을 만들안에, 우리 삼 형제주게이. 게난 그 아덜덜 세 명을 다 헉나씩 물려준 거라.”⁴⁹⁾

(명석은 우리 시아버님도 명석 만들었었어. 그거 저기 있지. 이젠 아주 헐어 버렸어. 우리 시아버님이 명석을 만들어서, 우리 삼 형제지. 그러니까 그 아들들 세 명을 다 하나씩 물려준 거야.)

“명석은 옛날 보리 헐 때, 조 헐 때 안 쓰는 디 잇어? 명석 해근에 막 잔치헐 때 윤도 놀고 다 허주. 보리 헐 때, 조 헐 때, 산디 헐 때, 모밀 헐 때 명석 안 쓸 때가 엇엇주. 넓도 허곡 그자 질양 여기서 뚜드림도 허곡. 이거 막 큰 거우다게. 거 날레 널젠 허민 명석이 커야 널주. 이거 허민 빨리 말르고 좋지. 가빠는 물 가져근에 빨리 안 말라도 이거는 물이 스며드니까.”⁵⁰⁾

(명석은 옛날 보리 할 때, 조 할 때 안 쓰는 데 있어? 명석 해근에 막 잔치할 때 윤도 놀고 다 하지. 보리 할 때, 조 할 때, 밭벼 할 때, 메밀 할 때 명석 안 쓸 때가 없었지. 널기도 하고 그저 깔아서 여기에서 두드리기도 하고 이거 아주 큰 겁니다. 그거 ‘날레’ 널려고 하면 명석이 커야 널지. 이거 하면 빨리 마르고 좋지. 카파는 물 가져서 빨리 안 말라도 이거는 물이 스며드니까.)



<사진 59> 송영선 · 강희숙 씨 소장 ‘명석’



<사진 60> 세화리 정춘선 소장 ‘명석’

<사진 59>는 세화리 송영선(1942년생) · 강희숙 씨(194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으로, 송영선 씨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서 아들들에게 ‘명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사진 60>은 세화리 정춘선 씨(1946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정 씨가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며 조 밭벼, 메밀 농사를 할 때 등 명석을 안 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명석을 펴서 장만한 곡식을 널기도 하고, 마당질을 할 때 바닥에 깔기도 했다. 곡식을

49)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50) 세화리 정춘선 씨 구술.

널어 말릴 때 명석이 좋은 점은 가파인 경우 물기 등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명석은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잘 마른다고 한다. 한편, 명석은 동네에서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를 할 때 사용하기도 했는데 정춘선 씨의 명석 위에는 윷놀이를 할 때의 말판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명석, 이거 십오 일 걸렸다, 십오 일. 처음 이걸 줄앗주, 이거. 처음으로 이거. 여기 다 완 뭐 벨거 다 맞춰 갓어.”⁵¹⁾

(이 명석, 이거 십오 일 걸렸다, 십오 일. 처음 이걸 걸었지, 이거. 처음으로 이거. 여기 다 와서 뭐 별거 다 맞춰 갓어.)



<사진 61> 한사울 씨 소장 ‘명석’



<사진 62> 김종권 씨 소장 ‘명석’

<사진 61>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한 씨가 직접 만든 것으로, 한 씨가 중년 이후에 바구니 등 여러 전통 도구 만드는 것을 배워서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만든 ‘명석’이라고 한다. 이 ‘명석’을 만드는 데에 십오 일이 걸렸다고 한다. <사진 62>는 토산리 김종권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명석도 훈 댅 개 잊어낫는데. 거 옛날 곡식 말릴 때, 곡식 말릴려고, 날레 널 때 하는 거.”⁵²⁾

(명석도 한 댅 개 있었는데. 그거 옛날 곡식 말릴 때, 곡식 말릴려고, ‘날레’ 널 때 하는 거.)

51) 성읍리 한사울 씨 구술.

52)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사진 63> 김천종 씨 소장 ‘명석’



<사진 64> 강기수 씨 소장 ‘명석’

<사진 63>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농사를 지을 때는 곡식을 말리기 위해 여러 개의 ‘명석’이 필요하다. 김 씨도 ‘명석’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진의 ‘명석’만 남아 있다고 한다. <사진 64>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명석’이다. 창고 안에 줄을 묶어 여러 개의 ‘명석’을 보관하고 있다.

(2) 그렛방석

‘그렛방석’은 ‘그레(맷돌)’를 사용할 때 밑에 까는 ‘방석’으로 ‘맷방석’을 말한다. 이것을 깔아 놓고 이 위에 맷돌을 올려 놓아 맷돌에 쌀가루 등을 갈기도 하고 적은 양의 곡식을 말릴 때도 사용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덕석’, ‘독석’이라 부르기도 한다.

“맷돌, 그레 골 때 그디 맷돌 넣. 그거 혼 오십 년 전까지 썼지. 두부도 만들곡 계역, 가루 잇잖아. 거 헐 때도 쓰고.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⁵³⁾

(맷돌, 맷돌 갈 때 거기 맷돌 놔서. 그거 한 오십 년 전까지 썼지. 두부도 만들고 미숫가루, 가루 잇잖아. 그거 할 때도 쓰고.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

53) 하천리 강운평 씨 구술.



<사진 65> 강윤평 씨 소장 ‘그렛방석’

<사진 65>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렛방석’이다. 강 씨의 할아버지가 만든 것으로, 오십 년 전까지 맷돌을 사용할 때 썼다고 한다.

(3) 솔박

‘솔박’은 나무를 가름하면서도 납작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역할을 하는 도구다. ‘솔박’은 주로 곡식을 떠서 담거나 곡식의 쪽정이 등을 없애기 위해 곡식을 바람에 드릴 때 사용했다. 나무로 만든 것을 ‘낭솔박’, ‘남솔박’이라고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플라스틱솔박’이라고 한다. ‘남’, ‘남’은 ‘나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솔박’은 지역에 따라 ‘좀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솔박으로 불리는 거. 멍석, 멍석 껍양. 것도 브름 있는 디레 헤 가사. 브름 엇인 디서는 안 뛰고 브름 코지에 가사.”⁵⁴⁾

(‘솔박’으로 까부르는 거. 멍석, 멍석 깔고. 그것도 바람 있는 데로 해 가야. 바람 없는 데서는 안 되고 바람 받는 데에 가야.)

세화리 강희선 씨(1940년생)는 곡식을 바람에 부쳐서 필요 없는 것을 없앨 때 ‘솔박’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바람이 잘 부는 데에 멍석을 깔고 ‘솔박’에 곡식을 담아 위로 살살 곡식을 부으면서 까부르는 것이다.

“이거 남솔박. 이거 우리가 사온 거. 이거 헐 때 하천에 만드는 사람 있어서 그 사름신디 사온 거. 그 어른이 벨루가 남박이랑어, 이런 거 만드는 남박.”⁵⁵⁾

(이거 ‘남솔박’. 이거 우리가 사온 거. 이거 할 때 하천에 만드는 사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온 거. 그 어른이 별호가 ‘남박’이었어, 이런 거 만드는 ‘남박’.)

54) 세화리 강희선 씨 구술.

55)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솔박, 남박, 낭신. 그 당시는 여기가 그 현대 문명이 발달 못 헤 가지고 새로 난 물건, 신이 없었던 말이여이. 게믄 그 사람이 저걸 전문했어. 비 오는 날 신는 거 알아져? 낭신. 그것도 만들고.”⁵⁶⁾

(‘솔박’, 나무바가지, 나막신. 그 당시는 여기가 그 현대 문명이 발달 못 해 가지고 새로 나온 물건, 신이 없었던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저걸 전문했어. 비 오는 날 신는 거 알아? 나막신. 그것도 만들고.)



<사진 66> 송영선 씨 소장 ‘솔박’



<사진 67> 송영선 씨 소장 ‘솔박’

<사진 66>과 <사진 67>은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솔박’이다. 예전에 하천리 마을에 나무를 깎아 바가지나 나막신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에게 사온 것이라고 한다.

“솔박은 불럼질헐 때.”⁵⁷⁾

(‘솔박’은 까부를 때.)



<사진 68> 오봉순 씨 소장 ‘솔박’



<사진 69> 강기수 씨 소장 ‘솔박’

56)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57)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사진 68>은 토산리 오봉순 씨, <사진 69>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나무로 된 ‘솔박’이다.



<사진 70> 강희숙 씨 소장 ‘솔박’



<사진 71> 강성종 씨 소장 ‘솔박’

<사진 70>은 하천리 강희숙 씨, <사진 71>은 가시리 강성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솔박’이다. 여러 플라스틱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솔박’도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한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이용되었다.

(4) 근데

‘근데’는 곡식을 그려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다. 네모난 널조각에 긴 자루가 달린 모양으로, 표준어로는 ‘고무래’라고 한다. ‘근데’는 곡식을 너는 데 사용하는 것과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을 때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여 ‘날레근데’, ‘굴뚝근데’라고 부른다. ‘근데’는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군데’, ‘구그네’, ‘당그네’, ‘설레’라고도 한다.

“이건 근데. 곡식 널어 가지고 거 영 헤쓰는 거. 날레 널 때, 굴뚝에는 이거보다 족게 만들아 가지고, 족게 만들아 가지고 이렇게 밀어 놓곡. 또 재 뽑아 놓곡.”⁵⁸⁾

(이건 고무래. 곡식 널어 가지고 그거 이렇게 헤치는 거. ‘날레’ 널 때, ‘굴뚝’에는 이거보다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고. 또 재 뽑아 놓고.)

58)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저거 날레 널영 젓는 거. 낭군데. (굴목 짙을 때도 이런 거 써낫수과?) 써낫주게. 군데엔 곧주. 굴목군데는 이빨이 엊어. 이보단 작아.”⁵⁹⁾

(저거 ‘날레’ 널어서 젓는 거. ‘낭군데’. (‘굴목’ 땔 때도 이런 거 썼었습니까?) 썼었지. ‘군데’라고 말하지. ‘굴목군데’는 이빨이 없어. 이보다는 작아.)



<사진 72> 강성종 씨 소장 ‘근데’



<사진 73>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군데’

<사진 72>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근데’이고, <사진 73>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사용했던 ‘군데’다. 곡식을 명석에 널어 말릴 때 곡식을 고르게 펴고 저을 때 사용했다고 한다. 곡식을 널 때 사용하는 것을 ‘근데’ 혹은 ‘군데’라 하는데 아궁이를 땔 때 사용하는 비슷한 모양의 도구를 ‘굴목군데’라고 했다.

“저거 날렛근데, 날렛근데. 저서기엔도 허지. 젓는텐 행 저서기. 오래 됐주. 저건 나가 멘들았지.”⁶⁰⁾

(저거 ‘날렛근데’, ‘날렛근데’. ‘저서기’라고도 하지. 젓는다고 해서 ‘저서기’. 오래 됐지. 저건 내가 만들었지.)

59)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구술.

60)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74> 김은두 씨 소장 '근데'



<사진 75> 강기수 씨 소장 '날렛근데'

<사진 74>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근데'이고, <사진 75>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날렛근데'다. 강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강 씨는 이를 곡식을 '젓는다'고 해서 '저서기'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5) 발

'발'은 가늘고 긴 대 따위를 엮어 만든 물건이다. 표선면 지역에서는 80년대에 무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 무를 썰어 말릴 때 이 발을 만들어 사용했다.

“억새로 만든 거. 이거는 뭐 영 센기리 널어난 거. 발, 발. 센기리도 많이 헷주게. 놔빼 갈믄. (표선면에서는 센기리 잘도 하영 헤나신게?) 저 가시리 가민 천지주, 뭐. 여기 토산은 그거 헐 때 과수원 헷어, 미깡나무 심었어. 해변이라고 미깡나무 헷주게. (게민 미깡 농사허난 센기리는 안 헨?) 센기리 헤도 우린 그 먹을려고 널지, 돈 벌려고 허진 안했고, 저 가시리 가면 돈 벌려고 그냥 막 그 뱕뒤에 막 이렇게 해서 쳐 널어논 거 자꾸 다니면서 봤어. (가시리는 막 늦게까지 헷구나?) 으, 웃토산 지경더래 가민 그렇고.”⁶¹⁾

(억새로 만든 거. 이거는 뭐 이렇게 무말랭이 널었던 거. 발, 발. 무말랭이도 많이 했지. 무 갈면. (표선면에서는 무말랭이 아주 많이 했었네?) 저 가시리 가면 천지지, 뭐. 여기 토산은 그거 할 때 과수원 했어, 굴나무 심었어. 해변이라고 굴나무 했지. (그럼 굴 농사하니까 무말랭이는 안 했어?) 무말랭이 해도 우린 먹으려고 널지, 돈 벌려고 하진 않았고, 저 가시리 가면 모두 돈 벌려고 그냥 마구 들판에 마구 이렇게 해서 많이 널어놓은 거 자꾸 다니면서 봤어. (가시리는 아주 늦게까지 헷구나?) 으, ‘웃토산’ 지경으로 가면 그렇고.)

61)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거 생기리 물릴 때 까는 거. 어워으로 멘들안.”⁶²⁾

(그거 무말랭이 말릴 때 까는 거. 억새로 만들었어.)



<사진 76> 송무옹 씨 소장 ‘발’



<사진 77> 김창호 씨 소장 ‘발’

<사진 76>은 토산리 송무옹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발’이다. 송 씨는 집에서 먹을 무말랭이를 말릴 때 이 ‘발’을 사용했다. 송 씨는 가시리 지역에서 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들판에 발을 펴서 마구 널어 놓은 무말랭이를 자주 봤었다고 한다. <사진 77>은 토산리 김창호 씨가 무말랭이를 말릴 때 사용했던 ‘발’이다. 억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미깡농사 허면서도 무말랭이를 훈, 엄청 많이 헷어, 우리. 무말랭이 농서 훈, 훈 이십 년 헷을 거여. 무수 갈양. 거 이제 생기리 헐 때 뒤면은 농사 다 끗나서 겨울에 허는 거거든. 그거 마차로 해다가 실러서 저 오름 가세봉 옆에 거기서 밧데 거 전부 실러다가 거기서 물 해서 씨치면서 그 생기리 썰었거든. 손으로 그땐 이렇게 이렇게 허면서 썰었어, 다. 나중에는 경운기 메와 가지고 것도 기계로 썰었지. 겐 발이라고 있어. 억새, 어워 베다가. 그 옛날 그 뜰 차듯이 다 예꺼 가지고 넓이가, 길이가 이 정도 뒤고 넓이가 훈, 훈 발 가웃 정도 뒤게. 이렇게 세우면 요렇게 뒤게. 경해서 이디, 여기 널거든. 말뚝을 쭉 박아 가지고 훈 훈 오십 메다에 훈나씩. 말뚝을 박아 가지고. (말뚝 높이는 얼마나?) 요 정도(한 50cm) 높이. 쭉 박아 가지고 그 우에다 줄을 쭉 치거든. 게민은 그게 기뎅 널어져. 거민 그게 날 좋으민 훈 삼 일이민 싹 말라 버려.”⁶³⁾

(귤농사하면서도 무말랭이를 한, 엄청 많이 했어, 우리. 무말랭이 농사 한, 한 이십 년을 했을 거야. 무 같아서. 그거 이제 무말랭이 할 때 되면은 농사 다 끗나서 겨울에 하는 거거든. 그거 마차로 해다가 실고 저 오름 ‘가세봉’ 옆에 거기서 밧데 그거 전부 실어다가 거기서 물 해서 씻으면서 그 무말랭이 썰었거든. 손으로 그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썰었어, 다. 나중에는 경운기 메워 가지고 그것도 기계로 썰었지. 그래서 발이라고 있어. 억새,

62) 토산리 김창호 씨 구술.

63)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역새 베다가 그 옛날 그 ‘뜸’ 차듯이 다 엮어 가지고 넓이가, 길이가 이 정도 되고 넓이가 한, 한 발 가웃 정도 되게. 이렇게 세우면 요렇게 되게. 그래서 여기, 여기 널거든. 말뚝을 쪽 박아 가지고 한 한 오십 미터에 하나씩. ‘말뚝’을 박아 가지고. (말뚝 높이는 얼마나?) 요 정도(한 50cm) 높이. 쪽 박아 가지고 그 위에 줄을 짹 치거든. 그럼 그게 기대서 널 수 있어. 그럼 그게 날 좋으면 한 삼 일이면 싹 말라 버려.)

세화리 강기수 씨도 무 농사를 많이 지어 무말랭이를 만들어 판매했었다고 한다. 일년 농사를 다 끝내는 시기가 되면 무를 수확하여 그것을 씻으면서 썰어서 무말랭이를 만들었다고 했다. 초창기에는 뒤에 제시하는 채칼과 같은 도구를 썰다가 기계가 나오면서는 그 기계를 경운기에 연결하여 썰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말뚝을 박고 줄을 매어 그 줄에 <사진 77>과 같은 발을 비스듬하게 걸쳐 걸어 무를 말렸다.

4.3.2. 체류

(1) 얼멩이

‘얼멩이’는 ‘어레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구멍이 굽은 체로, 주로 타작한 곡식을 손질하면서 껍질이나 줄기 부스러기 등을 거를 때 사용한다.

“얼멩이도 잇주게, 제일 큰 거. 건이 콩이나 뭐 거시기 영 영 걸려근에이 아래 헤 앗고 우이 찌끄레기 버려 부는 거라, 얼멩이. 제일 훅은 거. 나도 잇어난디 헐어 부난 데껴비어진 생이여, 엇어. 허난 데껴비여진 생이라. 얼멩이 빌어 뎅기곡, 집집마다 엇어근에 빌어 가주게.”⁶⁴⁾

(어레미도 있지. 제일 큰 거. 그건 콩이나 뭐 거시기 이렇게 이렇게 걸러서 아래의 거는 (장만해서) 가지고 위의 찌꺼기는 버려 버리는 거야, 어레미. 제일 굽은 거. 나도 있었는데 헐어 버리니까 던져 버린 모양이야, 없어. 허니까 던져버린 모양이야. 어레미 빌리러 다니고, 집집마다 없어서 빌리러 가지.)

“얼멩이는 대로 헤, 대. 대얼멩이.”⁶⁵⁾

(어레미는 대로 해, 대. 대어레미.)

64)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65)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얼멩이, 대얼멩이도 옛날에 있던 허단에 그루후젠 이젠 저 무신 철조망 닮게 헌 걸로, 큰 걸로 해근에. 그것에 넣 둘이가 유채 행 이렇게 이렇게 허명 쳐낫주게. 우리 유채 하영 헤낫어. 하영, 혼 오십 마다리썩.”⁶⁶⁾

(어레미, 대어레미도 옛날에 있어서 하다가 그 후에는 이제는 저 무슨 철조망 같게 한 것으로, 큰 것으로 해서. 그것에 넣어서 둘이 유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쳤었지. 우리 유채 많이 했었어. 많이, 한 오십 마대씩.)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하는 ‘얼멩이’는 체의 구멍을 가르키는 ‘쳇불’의 크기가 제일 크다. 표선리 박봉화 씨는 ‘얼멩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콩 등을 장만할 때 빌려다가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화리 송좌길 씨나, 표선리 홍순이 씨에 따르면 ‘얼멩이’는 원래 대나무로 만든 것인데, 이후에 철사로 만든 것들이 나와서 유채 등을 장만할 때 사용했었다고 한다.

“저거 얼마 안 됐어. 나 농사 설를 무렵에 됐어. 그때 그 똥그랗게 만들었는데, 저것이 밑에는 철사로 헷고 지금도 서귀포 오일장에 가믄 저 파는 거 이실 거여. 처음 얼멩이, 얼멩이라고 헌 건, 그거는 대나무로 헷어.”⁶⁷⁾

(저거 얼마 안 됐어. 나 농사 그만둘 무렵에 됐어. 그때 그 똥그랗게 만들었는데 저것이 밑에는 철사로 했고 지금도 서귀포 오일장에 가면 저 파는 거 있을 거야. 처음 어레미, 어레미라고 하는 건, 그거는 대나무로 했어.)



<사진 78> 김은두 씨 소장 ‘얼멩이’

<사진 78>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얼멩이’다. 김 씨가 농사를 그만둘 무렵에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의 망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전에는 둥근 모양의 아랫부분은 철사로 된 것을 사용했었다. 원래 ‘얼멩이’는 대로 된 것이라고 한다.

(2) 체

‘체’는 곡식을 깨끗하게 손질하거나 가루를 곱게 칠 때, 또는 액체를 밟거나 거르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한다. 주로 곡류나 가루를 장만할 때 사용했던 ‘체’는 챗불 구멍의

66)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67)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보통 챗불이 구멍이 큰 것부터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고는체’라고 부른다.

“체, 체. 유채나 다른 곡식 할 적에 체, 체. 이건 두 갠데 내가 맨든 건데.”⁶⁸⁾
(체, 체. 유채나 다른 곡식 할 적에 체, 체. 이건 두 갠데 내가 만든 건데.)



<사진 79> 김천종 씨 소장 ‘체’

<사진 79>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다. 김 씨가 유채 농사를 지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얼멩이’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아랫부분의 챗불의 구멍이 ‘얼멩이’보다 작은데, 그래서 김 씨는 이것을 그냥 체라고 부르고 있다.

“체는 저 물총, 물, 물꼴리. 요새도 이런 거 있어? 나이롱으로 있어. 나이롱 체 잇주게. 요새는 고는체도 저 거시기 그 나이롱체. 경현디 나이롱 체는 잘 치진 못해, 가루. 저 그디 엉켜져. 물총으로 헌 거는 살살살살 나오주만은.”⁶⁹⁾

(체는 저 말총, 말, 말꼬리. 요새도 이런 거 있어? 나일론으로 있어. 나일론 체 있지. 요새는 가는체도 저 거시기 그 나일론 체. 그런데 나일론 체는 잘 치지는 못해, 가루. 저 거기 엉겨. 말총으로 한 거는 살살살살 나오지만.)

“체도 엇엉 우리 집이 시민 우리 집이 만날 빌리레 돌아오곡. 체 다 빌리레 오곡. 엇이민 뭐 다 빌리 와. 집집마다 허젠허민 옛날에 돈 서사 사느네게. 그거 얼마나 빚나는 건 중 아느니? 경허난 돈 엇이민 못 사고.”⁷⁰⁾

(체도 없어서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만날 빌리러 달려오고. 체 다 빌리러 오고. 없으면 뭐 다 빌리러 와. 집집마다 하려고 하면 옛날에 돈 있어야 사지.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니?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사고.)

68)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69)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70) 세화리 강희선 씨 구술.

요즘은 나일론 줄로 챗불을 만들지만, 예전의 체는 말총으로 만들었다. 세화리 송좌길·강희선 씨 구술에 따르면, 말총으로 만든 체는 가루를 칠 때 엉겨 붙지 않고 가루가 잘 나오지만, 나일론으로 만든 체는 가루가 엉겨 붙기 쉽다고 한다.

“쳇망, 이것이 쳇망. 이거 헐어 불민 요것만 이시민 골아근에, 경헨 썬. 옛날엔 물총으로, 물총으로 다. 나 살림 산 후젠 다 쇄로 나왔주. 대나무로도 핸에 헌 거도 봐낫주, 아인 때. 좀질게 헤여근에 대나무로 한 거 봐낫어.”⁷¹⁾

(쳇바퀴, 이것이 쳇바퀴. 이거 헐어 버리면 요것만 있으면 갈아서, 그렇게 썼어. 옛날에는 말총으로, 말총으로 다. 내가 살림을 살게 된 후에 다 쇠로 나왔지. 대나무로도 해서 하는 것도 봤었어, 어렸을 때. 가늘게 해서 대나무로 하는 거 봤었어.)

“그는천 그루 골안, 제일 좀진 그루 치는 거. 요거(거름체)는 조금 훅은 거 치는 거. 이거는 제일 훅은 거, 보리 그튼 거 훅은 거. 훅은 거 치는 거 대체.”⁷²⁾

(‘그는체’는 가루 같아서, 제일 가는 가루 치는 거. 요거(‘거름체’)는 조금 굵은 거 치는 거. 이거는 제일 굵은 거, 보리 같은 거 굵은 거. 굵은 거 치는 거 ‘대체’.)



<사진 80> 박봉화 씨 소장 ‘체’



<사진81 > 현순화 씨 소장 ‘체’

<사진 80>은 표선리 박봉화 씨(1933년생), <사진 81>은 표선리 현순화 씨(1926년생)가 사용했던 ‘체’다. 박봉화 씨가 어렸을 때는 대나무로 챗불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보통 챗불은 말총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박 씨가 결혼해서 살림살이를 시작한 시기부터는 가는 쇠로 챗불을 만든 체들이 나왔다. 체의 둑근 테두리인 쳇바퀴를 제주어로는

71)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72) 표선리 현순화 씨 구술.

‘쳇망’이라고 하는데, 박 씨는 챗바퀴나 챗불이 헐면 그것을 갈면서 체를 사용했다고 한다. 챗불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 체의 종류가 다른데, 현순화 씨는 가장 가는 가루를 치는 것을 ‘끄는체’, 그리고 조금 굵은 것을 치는 것을 ‘거름체’, 보리쌀 등의 굵을 것을 치는 것을 ‘대체’로 구분한다고 했다.



<사진 82> 강성종 씨 소장 ‘체’



<사진 83> 송필수 씨 소장 ‘체’

<사진 82>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체’로, 여러 개의 체를 창고 벽에 걸어 보관하고 있다. <사진 83>은 하천리 송필수 씨(1934년생) 집에서 사용했던 체들이다. <사진 83>으로 보아서는 챗불의 구멍 크기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송 씨는 구멍 크기가 각기 다른 체를 보관하고 있었다.

“거 옛날 무시거 곡석 이렇게 쳐내는 거.”⁷³⁾

(그거 옛날 무엇 곡식 이렇게 쳐내는 거.)

“건 대체라고 널븐, 고냥 허쓸 널븐 거. 대체, 대체.”⁷⁴⁾

(그건 대체라고 넓은, 구멍 조금 넓은 거. 대체, 대체.)

73) 세화리 김창호 씨 구술.

74) 세화리 김창호 씨 구술.

“이거는 저, 거름체라고. 여기 뭐 깨든 뭐든 저 놔서 여물을 밑으로 빠지고, 우에는 쭉대기만 남잖아. 그런 용으로 쓰는 거.”⁷⁵⁾

(이거는 저, ‘거름체’라고. 여기 뭐 깨든 뭐든 저 넣어서 ‘여물’은 밑으로 빠지고, 위에는 쭉정이만 남잖아. 그런 용으로 쓰는 거.)



<사진 84> 김창효 씨 소장 ‘체’



<사진 85> 김창효 씨 소장 ‘체’

<사진 84>와 <사진 85>는 세화리 강창효 씨 집에서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했던 ‘체’다. 무엇을 장만하는지에 따라 체를 달리하는데, 구멍의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고는체’로 구분한다. ‘대체’가 구멍이 큰 것이다. 강 씨는 위 사진의 하나는 ‘대체’, 다른 하나는 ‘거름체’라고 했다.



<사진 86> 송무옹 씨 소장 ‘체’



<사진 87> 강기수 씨 소장 ‘체’

75)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사진 88> 송도성 씨 소장 '체'



<사진 89> 강광철 씨 소장 '체'

<사진 86>은 토산리 송무옹 씨, <사진 87>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는 있는 '체'다. <사진 88>은 토산리 송도성 씨(1941년생), <사진 89>는 세화리 강광철 씨 집에서 사용했던 '체'다.

(3) 푸는체

'푸는체'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쪽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표준어로는 '키'라고 한다. '푸는체'는 갈무리할 곡식을 넣어 양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까끄라기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곡식을 깨끗하게 장만한다.

“저 푸는체는 이것덜 해근에이 우에 비교적 쌀 훑은 거, 이제 좀 쌀 나오면 그레도 껍질이 잇곡 골아 가믄 나오주게. 경허민 저걸로 퍼근에 그런 거 헤베 텁 껍데기 그튼 거 퍼베 뒤근에 경헤 텁 먹어. 이제도 꿰그튼 거 갈아근에 해영 허나 허민 찌끄레기 평, 소소히 부름에 불리지 못허는 건 퍼근에 장만해근에 먹고. 이제도 써.”⁷⁶⁾

(저 키는 이것들 해서 위에 비교적 쌀 굽은 거, 이제 자잘한 쌀 나오면 그리도 껍질이 있고 갈아 가면 나오지. 그러면 저걸로 까불러서 그런 거 해 두고 껍데기 같은 거 까불러 두고 그래 두고 먹어. 이제도 깨같은 거 같아서 해서 하나 하면 찌꺼기 까불러서, 소소하게 바람에 불리지 못하는 거 까불러서 장만해서 먹고. 이제도 써.)

76)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사진 90> 박봉화 씨 소장 '푸는체'(앞)



<사진 91> 박봉화 씨 소장 '푸는체'(뒤)

<사진 90>과 <사진 91>은 표선리 박봉화 씨가 사용하고 있는 '푸는체'의 앞뒤 모습이다. '푸는체'가 헐지 않았지만, 박 씨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곱게 천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깨 등을 까부를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푸는체, 쌀 가튼 거 푸는 거. 이거 우리 집사람 아니, 이건 우리 어머니 썼당 집사람신니 물려준 거. 어머님 솜씨라노니까 어떻 버리기가 좀 아까와. 아깝더라고.”⁷⁷⁾

(키, 쌀 같은 거 까부르는 거. 이거 우리 집사람 아니, 이건 우리 어머니 썼다가 집사람에게 물려준 거. 어머님 솜씨니까 어떻게 버리기가 좀 아까워, 아깝더라고.)

“이거는 나쁜 거 쳐내는 거이, 푸는체. 저 옛날은 대로 만들았어. 대로 만들단 내중에는 정동줄 그걸로도 만들어낫어. 이거 오래연, 오십 년 써실 거라.”⁷⁸⁾

(이거는 나쁜 거 쳐내는 거, 키. 저 옛날은 대로 만들었어. 대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댕댕이덩굴 그걸로도 만들었었어. 이거 오랬어, 오십 년 썼을 거야.)

77)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78) 세화리 김창효 씨 구술.



<사진 92> 강창호 씨 소장 '푸는체'(앞)



<사진 93> 강광철 씨 소장 '푸는체'(뒤)

<사진 92>는 세화리 김창호 씨가 보관하고 있는 '푸는체'다. '푸는체'는 쌀 등을 까부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김창호 씨는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을 아내가 물려받아 사용해 왔는데, 헐었지만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93>은 세화리 강광철 씨 집에서 사용했던 '푸는체'다. '푸는체'는 주로 대나무나 맹맹이덩굴로 만들어 썼다고 한다. 김창호 씨는 '푸는체'는 위에 비닐을 덧대어져 있고, 강광철 씨가 보관하고 있는 '푸는체'는 전체적으로 초록 테이프가 붙어 있다.



<사진 94> 김천종 씨 소장 '푸는체'(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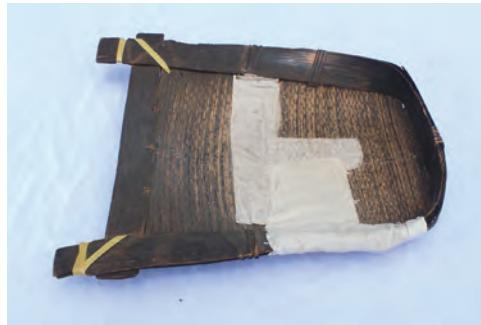
<사진 95> 김천종 씨 소장 '푸는체'(뒤)

<사진 94>와 <사진 95>는 세화리 김천종 씨 집에서 사용했던 '푸는체'다. '푸는체'가 헐었을 때는 천 등을 덧대어 쌀이나 가루가 빠지지 않도록 수선하여 사용한다. 천을 덧대기도 하고 앞의 <사진 92>와 <사진 93>처럼 비닐이나 테이프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푸는체'는 천을 덧댄 것으로, '푸는체'의 뒷면을 촬영한 <사진 95>을 보면 원래 '푸는체'가 얼마나 헐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바다이 완전히 뚫린

상태이지만 그것을 기우고 다시 기워 가며 사용했었다.



<사진 96> 송심자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7> 김복순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8> 강기수 씨 소장 '푸는체'



<사진 99> 부대옥씨 소장 '푸는체'

<사진 96>은 성읍리 송심자 씨(1951년생) 할머니가 사용했던 '푸는체'다. <사진 97>은 가시리 김복순 씨, <사진 98>은 세화리 강기수씨, <사진 99>는 토산리 부대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푸는체'다. <사진 96>은 테두리 부분을 나일론 줄로 묶었지만, '푸는체'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97>과 <사진 98>은 부분적으로 천을 덧댄 상태로, 역시 원래 '푸는체'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사진 99>는 전체적으로 천을 곱게 덧대어 사용했던 것이다.

4.3.3. ぐれりゅ

(1) 물ぐれ

'물ぐれ'는 '연자방아'로,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짹는 것을 말한다. 일반 맷돌보다 수십 배나 큰 것으로, ‘물(말)’이 돌리는 ‘그레(맷돌)’라고 해서 ‘물그레’라고도 한다. 일상에서는 말보다 소를 이용하여 연자매를 돌렸는데, 마소가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돌리기도 했다. 마을마다 군데군데 여러 개의 ‘물그레’를 두어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장만할 때 사용했으며 ‘물그레’를 ‘물방에’, ‘물그랑’이라고도 불렀다.

“물그랑은 제일 원형으로 남아 있는 데가 교회 맞은편에 물그랑이 원형. 원형 형태로 보존한 거. 물그랑 우이 지붕 다 있어낫주게. 비 오민, 비 올 때 어떻게 거라? 그 집을 물그랑이엔 허고 물그레는 기구 자체를 물그레엔 허는 거.”⁷⁹⁾

(연자방아는 제일 원형으로 남아 있는 데가 교회 맞은편의 연자방아가 원형. 원형 형태로 보존한 거. 연자방아 위에 지붕 다 있었거든. 비 오면, 비 올 때 어떻게 할 거야? 그 집을 연자방아라고 하고 연자매는 기구 자체를 연자매라고 하는 거.)



<사진 100> 성읍민속마을의 ‘물그랑’



<사진 101> ‘물그랑’ 안의 ‘물그레’

성읍리 강기숙 씨는 ‘물그랑’과 ‘물그레’를 구분했는데, 연자맷간을 ‘물그랑’, 그 안의 연자방아를 ‘물그레’라고 했다. <사진 100>은 성읍민속마을의 ‘물그랑’이고, <사진 101>은 그 안에 있는 ‘물그레’의 모습이다. 원형이 잘 보존된 형태라고 하는데, 성읍민속마을 내에는 여러 곳에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물그랑’, ‘물그레’가 있다.

79) 성읍리 강기숙 씨 구술.



<사진 102> 한사울 집의 ‘몰 그레’



<사진 103> 세화리 ‘강왓쉼팡’에 설치된 ‘몰 그레’

<사진 102>는 성읍리 한사울 집의 마당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몰 그레’다. 성읍민속마을 안에 있는 한 씨의 집은 성읍민속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구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집이다. 제주의 옛 생활 도구를 전시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들도 많았는데, 마당 한쪽에 ‘몰 그레’도 있었다. <사진 103>은 세화리의 ‘강왓쉼팡’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원에 재현해 놓은 ‘몰 그레’다.

“몰 그레렌 해 가지고 요기 잊어낫어, 요 옆에. 몰 그레라고 동네 같이 쓰는 뭐가 있었는디 이젠 없어져 불엇어. 이젠 밧으로 뛰 불언. 그디 강 골양 왕 거피곡.”⁸⁰⁾

(연자매라고 해 가지고 요기 있었어, 요 옆에 연자매라고 동네 같이 쓰는 뭐가 있었는데 이젠 없어져 버렸어. 이젠 밧으로 돼 버렸어. 거기 가서 갈고 와서 거피하고.)



<사진 104> 세화리 ‘강왓쉼팡’의 ‘몰 그레’



<사진 105>토산리사무소 앞의 ‘몰 그레’

<사진 104>와 <사진 105>는 모두 ‘몰 그레’의 위쪽 돌이다. 마을마다 있었던 연자맷간이

80)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사라지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연자매들만 남아 있다. <사진 104>는 세화리 ‘강왓쉼팡’ 공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사진 105>는 토산리사무소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옛날 물그랑이엔 헌 거 있어, 물그랑. 그 물그랑 그는 건 보리. 보리를 요 물 비왕 커, 컹 영 보민 흔닥허게 죠눌아. 경 허민 그 돌방에, 돌그레신드레 그레 놓앙. 영 메영 등기는 사람, 이디서 밀리는 사름 행 으슷 사름도 들 때 있고. 네 사름만 골젠 허민 뜸낭 못 골곡. 으슷 사름 헤영, 배 메영 등기는 사름, 이디서 둘리 밀리는 사름 경 허민 양펜이난 으슷 사름 들주. 경 행 허곡. 물도 메왕 골젠 허문 물이 하늘만쏙 들려켜. 거 물 그르치지 안현 물은 못 허주게.”⁸¹⁾

(옛날 연자방아라고 하는 게 있어, 연자방아. 그 연자방아 가는 건 보리. 보리를 요 물 부어서 담가, 담가서 이렇게 보면 흥건하게 물러. 그렇게 하면 그 돌방아, 돌방아에 그리 넣어서. 이렇게 매서 당기는 사람, 여기서 미는 사람 해서 여섯 사람도 들 때 있고. 네 사람만 갈려고 하면 땀 나서 못 갈고. 여섯 사람 해서, 바 매고 당기는 사람, 여기서 둘이 미는 사람 그렇게 하면 양펜이니까 여섯 사람 들지. 그렇게 해서 하고. 말도 매워서 갈려고 하면 말이 하늘만큼 날뛰어. 그거 가르치지 않은 말은 못 하지.)

“저것도 그때는 그 흔 부락에 저 물그랑이 두 개, 세 개 베끼 엇엇주. 두 개, 세 개 그 정도베끼 없으니까 강 순번, ㅊ례를 기다려야 뉘주게. 요 솔박 가정 강, 이디 강 재기 골젠 허민 문저 강 영 어페. 경허난 솔박 어프는 대로, 순서대로.”⁸²⁾

(저것도 그때는 그 한 부락에 저 연자방아가 두 개, 세 개밖에 없었지. 두 개, 세 개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가서 순번, 차례를 기다려야 되지. 요 ‘솔박’ 가지고 가서, 여기 가서 빨리 갈려고 하면 먼저 가서 이렇게 엎어. 그러니까 ‘솔박’ 엎는 대로, 순서대로.)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는 연자방아를 ‘물그랑’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전에는 제주의 마을마다 두세 개의 ‘물그레’가 놓여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했다. 보리를 수확하여 장만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보리를 갈기 위해 모이는데, 먼저 오는 순서대로 ‘솔박’을 놓아 자신의 순번을 기다렸다고 한다.

81)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82)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보리 물 컷당) 소위 쪼누는 거주. 쪼눌아근에 그거 대구덕에 건경 물그랑에 앗당, 것도 두불
골아야 뛰어, 두불. 혼 번에 안 뛰어. 와근에 또 물류왕 불려근에 또 그레에 강 골양. 경허민 그 두불
골두록 지둘리지느냐? 또 그거 흐 쏠 거펴근에 밥도 헤영 먹곡. 영 행 살았주, 옛날 사람.”⁸³⁾

((보리 물 담갔다가) 소위 무르게 하는 거지. 무르게 해서 그거 대바구니에 건져서 연자매에 가져다가, 그것도
두별 같아야 돼, 두별. 한 번에 안 돼. 와서 또 말려서 불려서 또 맷돌에 가서 갈고. 그러면 그 두별 같도록 기다릴
수 있니? 또 그거 조금 거피해서 밥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았지, 옛날 사람.)

“정미소가 생겨 가니까 정미소 가근에 보리도 골곡 거기서 쪼개도 허곡 허니까 이젠 편안해 왔주.
누뜨려 드렌 허민 누뜨려 주곡. 쪼개 드렌 허민 쪼개, 거펴 주곡.”⁸⁴⁾

(정미소가 생겨 가니까 정미소 가서 보리도 갈고 거기서 쪼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편안해 왔지. 눌러
달라고 하면 눌러 주고, 쪼개 달라고 하면 쪼개, 거피해서 주고.)

“정미소 생긴 건디가 말이야, 나가 여덟 술에 생긴 걸 알아. 여덟 술에 정미소 생겼어. 가시리에
기겟방. 가시리서 젤 먼저 기겟방을, 정미소를 헷어. 제주도에 사삼사건 나기 직전, 그때 잇엇어.
기겟방 그 가시리에 헷나 잇엇어. 그 기억이 나. 그때 당시 기겟방 이신디는 아는데 어떻게 운영을 허
건 모르겠어.”⁸⁵⁾

(정미소 생긴 지가 말이야, 내가 여덟 술에 생긴 걸 알아. 여덟 술에 정미소 생겼어. 가시리에 기계방아.
가시리에서 제일 먼저 기계방아를, 정미소를 했어. 제주도에 사삼사건 나기 직전, 그때 있었어. 기계방아는 그
가시리에 하나 있었어. 그 기억이 나. 그때 당시 기계방아 있었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 거는 모르겠어.)

보리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밥을 해 먹기 위해서 보리를 장만하는 과정도
복잡하다. 보리를 물에 담갔다가 연자방아에 갈아오기를 반복해서 하고 밥을 지을 때는 또
그것을 맷돌에 갈아 속껍질을 벗기고 보리쌀을 쪼개야 했다. 정미소가 등장하면서는 그러한
수고를 덜 수 있었기에 편했다고 한다.

정미소가 생기고 확장되면서 ‘물그레’는 차츰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물방에’ 대신
정미소를 찾아가 보리를 갈았다. 정미소에서는 보리의 껍질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보리를
쪼개기도 하고 누르기도 했다.

83)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84)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85)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기겟방) 세화리는 맨 마끗데고 폐선이 골레 가주, 폐선이. 폐선이, 저 신흥리 그 구루마 시꺼아정 그디 골레 가왓주게. 이디선 못 허니까. 구루마 시꺼, 구루마 신 사름은 구루마에, 경 아년 사름은 져아정 가. 그디 강은에 물 컷당 골았주. 아이구, 물 컷당 헷어. 커사 껍데기 벗기주. 것도 물 컹 허는 거. 물 컹 돌그레 ㅋ는 거는 한 가지로. 물 큰 통에 가근에 거민 보리에 흠치 아정 간 사름은 흠치 담양 놓곡. 저 요 통에 들크, 요 통에 들크 허민 묻저 들큰 통으로 건지멍 기겟방데레 놓곡. 마끗데 둉근 건 마끗데 들큰 거대로 허주. 아이고, 경 쉽게 헨 살아시냐게? 거 나중에야, 나중에야 그 물 사용 안 해 가지고 직접 껍데기 벗기는 거 나중에야 나왔주. 건 무른 방에엔 헷주. 무른 방에. (물 컷당 허는 건 물그레.) 경헨디 저 무른 차, 무른 차 강 골아오주게, 영 혜난.”⁸⁶⁾

((기계방아) 세화리는 맨 나중이고 표선에 갈려 가지, 표선. 표선, 저 신흥리 그 수레에 싣고 거기 갈려 갔다 왔지. 여기에서는 못 하니까. 수레에 실어서, 수레 있는 사람은 수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고 가. 거기 가서 물 담갔다가 같았지. 아이고, 물 담갔다가 했어. 담가야 껍데기 벗기지. 그것도 물 담가서 하는 거. 물 담가서 돌방아에 가는 거는 한 가지로. 물 큰 통에 가서 그럼 보리에 한꺼번에 가지고 한 사람은 한꺼번에 담아 넣고. 저 요 통에 담고, 요 통에 담고 하면 먼저 담근 통으로 건지면서 기계방아에 넣고. 나중에 담근 건 나중에 담근 거대로 하지. 아이고, 그렇게 쉽게 해서 살았니? 그거 나중에야, 나중에야 물 사용 안 해 가지고 직접 껍데기 벗기는 거 나중에야 나왔지. 그건 마른 방아라고 했지. 마른 방아. (물 담갔다가 하는 건 ‘물그레’.) 그런데 저 마른 채, 마른 채 가서 갈아오지, 이렇게 했었어.)

정미소에서 보리를 갈 때도 처음에는 보리를 물에 담갔다가 같았었다고 한다. ‘물그레’에서 갈 때와 마찬가지로 물에 담갔다가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그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후에야 물에 담그지 않고 마른 보리를 그냥 같았다. 보리를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간다고 해서 그것을 ‘무른 방에’라고 불렀다고 한다.

(2) ㅋ레

‘ㅋ레’는 곡식을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의 ‘맷돌’로, 둥글 넓적한 돌 두 짹을 포개어 윗돌에 나 있는 구멍으로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리며 간다. 쌀 등을 갈아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ㅋ레’를, ‘물그레’나 속껍질을 거피할 때 사용하는 ‘ㅋ레’ 등과 구분하여 ‘정그레’라 부르기도 한다. 풀이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 물에 불린 쌀이나 콩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은 ‘풀그레’라고 부른다.

86) 세화리 송좌길·강희선 씨 구술.

“큰 거 엉긴 거는 그냥 ‘그레’엔 허곡 막 쫌惆하고 그런 거는 정‘그레’엔 허는 거. 그거는, 정‘그레’엔 헌 거는 그루길 때, 아주 세밀한 거 골 때. 그리고 풀‘그레’엔 헌 거 이신디 요새 녹즙기 비슷한 거. 콩 물 웃겼당 그는 거.”⁸⁷⁾

(큰 거 엉긴 거는 그냥 ‘그레’라고 하고 아주 촘촘하고 그런 거는 ‘정그레’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그레’라고 하는 거는 가루를 갈 때 아주 세밀한 거 갈 때, 그리고 ‘풀그레’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새 녹즙기 비슷한 거. 콩 물에 불렸다가 가는 거.)



<사진 106> 송심자 씨 소장 ‘정그레’



<사진 107> 송심자 씨 소장 ‘풀그레’

<사진 106>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정그레’다. 송 씨는 ‘빙떡’ 등 전통음식을 만드는 일을 재현하면서 실제로 <사진 106>의 ‘정그레’로 메밀쌀 등을 갈고 있다고 한다. 송 씨는 가루를 갈 때 사용하는 것을, 곡류를 조개거나 속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그레’와 구분하여 ‘정그레’라고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사진 107>은 ‘풀그레’로 물에 불린 쌀 등을 가는 데에 쓰는 맷돌로, 표준어의 ‘풀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요 앞에, 거기서 살다가 일로 이사, 육십 년도에 왔는데. 올 적에 저거 다 가져온 건데. 고조하르버지 때부터 남은 거니깐 하나씩 남은 거라. 저거 뭐 보리 거필 때도 허곡 또 이제 무물 거필 때, 또 가루 내울 때.”⁸⁸⁾

(요 앞에 거기서 살다가 이리로 이사, 육십 년도에 왔는데, 올 적에 저거 다 가져온 건데.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남은 거니까 하나씩 남은 거야. 저거 뭐 보리 거필 때도 하고 또 이제 메밀 거필 때, 또 가루 낼 때.)

87)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88)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사진 108> 김천종 씨 소장 '그레'



<사진 109> 김천종 씨 소장 '그레'

<사진 108>과 <사진 109>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레'다. 김 씨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살던 집에서 지금의 집으로 육십 년대에 이사를 오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이 '그레'로 보리나 메밀을 속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며 가루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110> 송영선 씨 소장 '그레'



<사진 111> 김창호 씨 소장 '그레'



<사진 112> 강운평 씨 소장 '그레'



<사진 113> 고경만 씨 소장 '그레'

<사진 110>은 하천리 송영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레’고, <사진 111>은 토산리 김창호 씨가 사용했던 ‘그레’다. ‘그레’의 아래쪽은 없고 위쪽만 보관하고 있다. <사진 112>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레’로, ‘그레’ 아래쪽 돌이 바닥에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다. <사진 113>은 표선리 고경만 씨가 보관하고 있는 ‘그레’로 제주의 전통적인 ‘그레’와 돌의 상태가 조금 다르다.

4.4. 운반 도구

(1) 골체

‘골체’는 흙이나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로는 ‘삼태기’라 하는데 제주에서 ‘골체’는 보통 ‘정동(댕댕이덩굴)’이나 대나무, 칡, 철사를 엮어서 만들어 사용했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여지는데 대나무로 만들면 ‘대골체’, ‘정동’으로 만들면 ‘정동골체’, 철사로 만들면 ‘췌골체’라고 불렸다.

“골체, 이거 나가 만든 거주. 것도 혼 댓 해 뛰실 거라. 옛날엔 이거 엇이민 안 뛰여. 소걸름이라고 헤 가지고 소 똥 싸 논 거 그거 다 저걸로 파네영 날라당 어디당 모아 놔당 훠비로 쓰곡.”⁸⁹⁾

(삼태기 이거 내가 만든 거지. 것도 한 댓 해 됐을 거야.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소두엄이라고 해서 소 똥 싸 놓은 거 그거 다 저걸로 파내서 날라다가 어디다가 모았다가 퇴비로 쓰고.)

“(손잡이는 무슨 낭이라?) 그거는 종낭. 종낭이 저렇게 길게 뽑아진 게 있어. 그거 사람 손으로 다 굽혀야주. 모르기 전엔 굽혀지긴 허는디 모르기 전에도 굽혀 놔근에 이렇게 줄로 이레 무꺼야주. 이렇게, 이렇게 무껑 오그령 놔두면은 물르면은 그대로 써. (이거 대나무 깐 것도 삼춘냥으로 깐 거꽈? 삼춘 전문가구나?) 전문간 아이라도 그자 농촌에 살센 허니까 이런 건 만들앙 쓰주게. (여기 정동 그런 걸로 안 해난?) 그런 것도 해난는데 여기선 수월헌 게 이거, 이거이 대나무.”⁹⁰⁾

((손잡이는 무슨 나무야?) 그거는 때죽나무. 때죽나무가 저렇게 길게 뽑아진 게 있어. 그거 사람 손으로 다 굽혀야지. 마르기 전에는 굽혀지기는 하는데 마르기 전에도 굽혀 놔서 이렇게 줄로 이리 묶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오그령서 놔두면 마르면 그대로 써. (이거 대나무 깐 것도 삼춘 대로 깐 겁니까? 삼춘 전문가구나?) 전문가는 아니라도 그저 농촌에 살려고 하니까 이런 건 만들어서 쓰지. (여기 댕댕이덩굴 그런 거로는 안 했었어?) 그런 것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월한 게 이거, 이거 대나무.)

89)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9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사진 114> 강성종 씨 소장 '골체'



<사진 115> 강윤평 씨 소장 '골체'

<사진 114>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체'다. 강 씨가 직접 만들어 사용했던 것으로, 강 씨는 이 '골체'를 주로 쇠두엄을 펴 나를 때 사용했다고 한다. 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골체'의 손잡이 부분은 때죽나무를 휘어 만들었다. <사진 115>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사용했던 '골체'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맨든 거. 삼십 년은 안 뛰어도 훈, 거자 뛰엄서. 이거 두 개 잊어나신디 하난 불 짚어 불엇어. 대는 집이 이섯주, 수리대. (손잡이 낭은 무슨 낭으로 헙니까?) 무슨 낭으로 헤신디사. 낭이 존게 아니라. 불 짚어 분 거는 낭이 막 좀먹었더라고.”⁹¹⁾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거. 삼십 년은 안 돼도 한, 거의 되고 있어. 이거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불 때 버렸어. 대는 집에 있었지, 이대. (손잡이 나무는 무슨 나무로 합니까?) 무슨 나무로 했는지. 나무가 좋은 게 아니야. 불 때 버린 거는 나무가 마구 좀먹었더라고.)

“아이고, 지금은 골체 쓸 일이 엊주만은, 옛날엔 뜻걸름 알아지크라? 도새기 질러난 디 뜻걸름 내엉 그거 불령 그것에도 헤나고 골체 엇엉은 못 살아낫어.”⁹²⁾

(아이고, 지금은 삼태기 쓸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돼지거름 알겠어? 돼지 길렀던 데 돼지거름 내서 그거 밟아서 그것에도 했었고, 삼태기 없이는 못 살았었어.)

91)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92)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사진 116>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골체'(앞)



<사진 117>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골체'(뒤)

<사진 116>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체'다. 김 씨의 아버지가 만든 것으로 하나는 삭아서 불태워 버리고 <사진 116>의 것만은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17>은 '골체'의 뒷면이다. '골체'는 돼지거름을 낼 때 등에 사용하는 필수 도구라고 한다.

“우리 비료 뿌릴 때, 과수원 밧디. 게난 이거 오래 쓰젠 허난 이거 걷어 불민 야이가 막 삭아 부난 이디 물 같은 거 덜 들어가라고 이 비니루 헤연에 오래 쓰젠. (요새 플라스틱 골체) 거 불편해. 우리가 이거 세 개라예. ㅎ나는 우리 바당 청소허레 가신디 누게 가져가 비연. 이걸, 대나무니까 잊어비연. 아, 나 얼마나. 우리 이모부가 이거 엄청 잘 만들주게. 이거 우리 이모부가 만든 거. 이것도 나가 와서 씨난 한 이십 년? 막 애경 쓰는 거. 애경 쓰는 거. 일부러 구덕 저거하고 이거는 우리 이모부가 나 만들어 주伦, 만들어 주伦 헨에 만든 거. 일부러 이거 놔두젠.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전문적인 아닌데 솜씨가 좋아서 막 만들어서 막 줘. 나도 조케난 이모부 나 이거 만들어 줘, 만들어 줘 허난 이거 세 개 만들곡 구덕 두 개 만들곡 허연 줘.”⁹³⁾

(우리 비료 뿌릴 때, 과수원 밧에. 그러니까 이거 오래 쓰려고 하니까 이거 걷어 버리면 얘가 마구 삭아 버리니까 여기 물 같은 거 덜 들어가라고 이 비닐 해서 오래 쓰려고. (요새 플라스틱 삼태기) 그거 불편해. 우리가 이거 세 개예요. 하나는 우리 바다 청소하러 갔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 이걸, 대나무니까 잊어버렸어. 아, 나 얼마나. 우리 이모부가 이거 엄청 잘 만들지. 이거 우리 이모부가 만든 거. 이것도 내가 와서 쓰니까 한 이십 년? 아주 아껴서 쓰는 거. 아껴서 쓰는 거. 일부러 바구니 저거하고 이거는 우리 이모부가 나 만들어 주라고 해서 만든 거. 일부러 이거 놔두려고.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전문적인 아닌데 솜씨가 좋아서 많이 만들어서 마구 줘. 나도 조카니까 이모부 나 이거 만들어 줘, 만들어 줘 하니까 이거 세 개 만들고 바구니 두 개 만들고 해서 줬어.)

93) 세화리 김옥 씨 구술.



<사진 118> 김옥 씨 소장 ‘골체’



<사진 119> 정인권 씨 소장 ‘골체’

<사진 118>은 세화리 김옥 씨(1965년생)가 사용하고 있는 ‘골체’다. 김 씨의 이모부인 정의숙(토산리) 씨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한다. 김 씨는 지금도 사진의 ‘골체’를 과수원에 비료를 뿌릴 때 사용한다고 한다. <사진 119>는 토산리 정인권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골체’다.

“토난 거. 흐난 대 골체, 흐난 무신 꼭으로 헷젠 해도 꼭 아니. 무신 정당줄 닦은 거 질긴 거 있어, 정당. 정동, 옛날 말은 정당. 저거 막 오랫어. 우리 첫 번 살림 살아올 때 그거 사 와단에 쓰단 놔둔 거주게. 지금은 기계로 해불고, 무시거 니아카로 헤부난에. 그치 사단에 그치 쓰단. 저것에 고구만 허민 고구마도 담고. 밧디서 저것이 큰일 헛주. 밧디서 일허는 거. 이제는 안 써지난 그만히 돌아매언 내비엇단에 앗아완. 걸름 헐 때, 쉐걸름 담고 뜯걸름도 담고.”⁹⁴⁾

(다른 거. 하나는 대 삼태기, 하나는 무슨 칡으로 했다고 해도 칡 아니. 무슨 맹댕이덩굴 같은 거 질긴 거 있어, 맹댕이덩굴. 맹댕이덩굴, 옛날 말은 ‘정당’. 저거 아주 오랫어. 우리 첫 번 살림 살아올 때 그거 사 와서 쓰다가 놔둔 거지. 지금은 기계로 하고, 뭐 리어카로 하니까. 같이 사서 같이 쓰다가. 저것에 고구마 하면 고구마도 담고. 밭에서 저것이 큰일 했지. 밭에서 일하는 거. 이제는 안 쓰게 되니까 가만히 달아매서 내버렸다가 가져왔어. 거름 할 때, 쇠두엄 담고 돼지거름 담고.)

94)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사진 120> 홍순이 씨 소장 ‘골체’



<사진 121> 홍순이 씨 소장 ‘골체’

<사진 120>과 <사진 121>은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골체’다. <사진 120>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 <사진 121>은 댕댕이덩굴로 만든 것이다. 홍씨가 결혼해서 살면서 장만한 것으로, 고구마나 거름을 담아 옮길 때 사용했다고 한다.

“골체계, 아까 말했주만은 거름, 거름 나를 때, 돌 치울 때 허곡. (골체는 뭐로 만든 거?) 대. 정동은 대로 써난 다음에 나왔주. 거 정동으로 만든 거 아무나 못 헤여. 정동으로 만든 거 거 참 질기주게. 그거 돌멩이 가져 왕 뿐서지지 안허곡. 대는 부서지는데 건 부서지지도 아녀고 그거 경 시와나질 안했어. 골천 보통 대로 만들었주.”⁹⁵⁾

(삼태기, 아까 말했지만 거름, 거름 나를 때, 돌 치울 때 하고. (삼태기는 뭐로 만든 거?) 대. 댕댕이덩굴은 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나왔지. 그거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아무나 못 해.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그거 참 질기지. 그거 돌멩이 가져 와도 부서지지 않고. 대는 부서지는데 그건 부서지지도 않고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았었어. 삼태기는 보통 대로 만들었지.)

표선면 지역에서 ‘골체’는 주로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정동낭, 정동줄’이라고 부르는 댕댕이덩굴로 만든 ‘골체’도 있지만, 세화리 송좌길 씨는 표선면 지역에서 ‘정동’으로 만든 ‘골체’는 구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정동’으로 만든 ‘골체’가 돌을 날라도 잘 부서지지 않고 질겨서 좋았다고 한다.

95)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2) 구덕

‘구덕’은 대를 가늘게 쪼개어 엮어 만든 물건인 ‘바구니’를 말한다.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구덕’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짐을 넣고 등에 지고 다닐 때 사용했던 것을 ‘질구덕’, 상대적으로 크기가 조금 작아서 허리에 차거나 들고 다녔던 것을 ‘출구덕’이라고 불렀다.

“출구덕 잊고 거시기 물구덕에. 질구덕은 큰 거. 물구덕은 이렇게 소랑헌 거, 소랑헌 거고. 그것이 소랑허민 지민 이 등어리 부트니까. 정 가기 멘들락 멘들락 벗어지지 안혀난. 저 물구덕에 정 가곡. 하영 줄어 낭 허伧 허민 무시거엔 고사 곳는 거. 큰 구덕, 질구덕에. 질구덕에 정 가곡.”⁹⁶⁾

(‘출구덕’ 있고, 거시기 ‘물구덕’에. ‘질구덕’은 큰 거. ‘물구덕’은 이렇게 가름한 거, 가름한 거고. 그것이 가름하면 지면 이 등에 붙으니까. 지고 가기 ‘멘들락 멘들락’ 벗겨지지 않으니까. 저 ‘물구덕’에 지어서 가고. 많이 주워 넣어서 하려고 하면 뭐라고 아까 말한 거. 큰 바구니, ‘질구덕’. ‘질구덕’에 지고 가고.)

위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의 구술에서처럼 ‘구덕’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출구덕’이 있고 ‘물구덕’, ‘질구덕’이 있는데 ‘물구덕’은 ‘물허벽’을 넣고 지고 다니는 것으로 조금 가름한 모양이었다고 한다. 가름해야 등에 지더라도 벗겨지지 않고 편하게 질 수 있다고 한다.



<사진 122> 김복순 씨 소장 ‘질구덕’



<사진 123> 김양선 씨 소장 ‘질구덕’

<사진 122>는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질구덕’이고, <사진 123>은 세화리 김양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질구덕’이다.

96)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 구술.

“보리 씨 구덕에 담양 이제 이렇게 뿌리주. 출구덕이엔 허주, 출구덕. 출구덕에 담양. 뿐만바구리 노문 그 저 걸름 똥 묻어 버리민 거 추접허니까.”⁹⁷⁾

(보리 씨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이렇게 뿌리지. ‘출구덕’이라고 하지, ‘출구덕’. ‘출구덕’에 담아서. ‘뿐만바구리’에 넣으면 그 저 거름 똥 묻어 버리면 그거 더러우니까.)

‘출구덕’은 일을 할 때 허리에 차는 바구니를 말한다. 세화리 송좌길 씨는 보리 씨를 뿌릴 때 거름에 섞은 보리씨를 ‘출구덕’에 담고 다니면서 뿌렸다고 한다.



<사진 124> 한사율 씨 소장 ‘출구덕’



<사진 125> 송필수 씨 소장 ‘출구덕’

<사진 124>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출구덕’이고, <사진 125>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했던 ‘출구덕’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먼지가 쌓인 채 창고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한편, ‘구덕’은 천이나 종이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은 바구니가 헐거나 구멍이 나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는 차원에서 천 따위를 붙여 사용했다. 이러한 ‘구덕’은, 천이나 종이를 붙이기 위해 ‘풀을 바른 바구니’라고 해서 이것을 ‘풀뿐구덕’이라고 불렀다. 제보자에 따라 ‘뿐만구덕’, ‘뿐만바구리’라고도 한다.

“풀뿐구덕. 종이 불란. 그때는 밧디 뎅기멍 헌 거 놔두난 이거. 이거 문 아이덜 헤난 거. 학교 뎅일 때. 표선이 학교 뎅일 때, 중학교 뎅일 때.”⁹⁸⁾

97)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98)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풀부른구덕’ 종이 발라서. 그때는 밭에 다니면서 헌 거 놔두니까 이거. 이거 모두 아이들 했던 거, 학교 다닐 때, 표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것도 그때 살림 살 때에 부른바구리 흠 거. 이거 계난 이거는 엉근 대구덕으로 불른 거, 이거는 허끔 굽은 걸로. 이건 옛날 출구덕, 출구덕 허멍 고사리 꺼끄레 갈 때도 이디 친 돌양 영 차근영 고사리 꺼꺼난 거. 매역 허레 갈 때에 그거 질구덕, 이건 출구덕. 이거 출구덕이 헐어 가난 영 불르민, 허끔 씨여난에 불랑 이 보리 그튼 거 허면은게 담양 저레 강 널곡 담아오곡. 겨부난 이젠 용서 안 혀도 그자, 용서 안 혀영 이거 쓰레기에 담아 불 거주만은 돌아멘 내분 거.”⁹⁹⁾

(이것도 그때 살림 살 때에 ‘부른바구리’ 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성근 대바구니로 바른 거, 이거는 조금 굽은 걸로. 이건 옛날 ‘출구덕’, ‘출구덕’ 하면서 고사리 꺼으러 갈 때도 여기 끈 달아서 이렇게 차서 고사리 꺼었던 거. 미역 하러 갈 때에 그거 ‘질구덕’, 이건 ‘출구덕’. 이거 ‘출구덕’에 헐어 가니까 이렇게 바르면, 조금 쓰고 나서 발라서 이 보리 같은 거 하면은 담아서 저리 가서 널고 담아오고. 그러니까 이젠 농사 안 해도 그저, 농서 안 해서 이거 쓰레기에 담아 버릴 거지만 달아매서 내버린 거.)



<사진 126> 김복순 씨 소장 ‘풀부른구덕’



<사진 127> 한영선 씨 소장 ‘부른바구리’

<사진 126>은 가시리 김복순 씨가 보관하고 있는 ‘풀부른구덕’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만든 것으로 아이들이 글씨를 쓴 연습장을 ‘구덕’ 위에 꼼꼼하게 발랐다. <사진 127>은 세화리 한영선 씨가 보관하고 있는 ‘부른바구리’다. 허리에 차서 사용하던 ‘출구덕’이 헐자 거기에 천을 발라 사용했던 것이다.

99) 세화리 한영선 씨 구술.

“구덕은 그때 당시에는 구덕 만드는 사람. 대구덕을 만드는 사름은 핫어. 우리만 못 만들었지, 우리 웃대 어른들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¹⁰⁰⁾

(바구니는 그때 당시에는 바구니 만드는 사람. 대바구니를 만드는 사람은 많았어. 우리만 못 만들었지, 우리 웃대 어른들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

“그거 애기구덕 주는 사름, 여우네, 신흥리에 옛날에 구덕 주는 하르방 돈 하영 삼주게. 이젠 그 하르방 죽어 비엇주만은 고대구덕, 애기구덕 무시거 흐쓸 이거보다 훨씬 허영 허는 거 질구덕, 옛날엔 물질할 때 메역 담전 허민 질구덕 큰큰헌 거에. 출구덕은 소소한 디 그자 송키 해근에, 집이 물 잊었어게? 그거 송키 행 옆등에 냉강, 정강 저디 강 큰물에 강 문 씻어 오곡. 또 빨래 그것에 담양 강 빨래해 오곡.”¹⁰¹⁾

(그거 ‘애기구덕’ 겉는 사람, ‘여우네’, 신흥리에 옛날에 바구니 겉는 할아버지 돈 많이 벌었지. 이젠 그 할아버지 죽어 버렸지만 ‘고대구덕’, ‘애기구덕’ 뭐 조금 이것보다 굽게 해서 하는 거 ‘질구덕’, 옛날엔 물질할 때 미역 담으려고 하면 ‘질구덕’ 크디큰 거에. ‘출구덕’은 소소한 데 그저 푸성귀 해서, 집에 물 있어? 그거 푸성귀 해서 옆구리에 놓고 가서, 지고 가서 저기 큰물에 가서 모두 씻어 오고. 또 빨래 그것에 담고 가서 빨래해 오고.)

전통사회에서 생활 도구는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 사용했다. ‘구덕’의 경우도 집안의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화리 송좌길 씨는 웃대 어르신들의 경우는 세화리에도 ‘구덕’을 만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고 한다. 토산리 오봉순 씨는 신흥리에 ‘구덕’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질구덕’, ‘애기구덕’ 구입해 왔다고 한다.

“이거, 이것덜 전부 중요한 거여. 여기 대, 대나무 헐 때. 이거 아무 칼이나 안 돼. 여기가, 이기서 짹 안 된다고. 우선 칼이 있어야 돼어.”¹⁰²⁾

(이거, 이것들 전부 중요한 거야. 여기 대, 대나무 할 때. 이거 아무 칼이나 안 돼. 여기가, 여기서 짹 안 된다고. 우선 칼이 있어야 돼.)

100)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01)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102)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사진 128> 한사울 씨 소장 '칼'

<사진 128>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구덕'을 만들 때 사용했던 '칼'이다. 대나무를 손질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한 씨는 '구덕'을 만들 때 대를 쪘개어 가늘고 곱게 잘 다듬기 위해서는 손질용 칼이 좋아야 한다고 했다.

(3) 지게

'지게'는 짐을 엎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운반 도구다. 두 개의 가지 돋친 장나무를, 위쪽은 좁고 아래는 벌어지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가로지르게 맞추어 끼운다. 두 개의 긴 나무에 줄을 매어 등에 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 지게, 그때는 전부 짊어졌던 걸로 지었지.”¹⁰³⁾
(이거 지게, 그때는 전부 짊어지고만 다니지 않았니? 여기 무엇 올려놔서 이걸로 지었지.)

“저것도 오래었지. 50년 전까지 지게 썼어. 지게로 잠대도 지곡. 우리 밭은 가까운 디 시난에 경간. 거 나가 만든 거.”¹⁰⁴⁾

(저것도 오래었지. 50년 전까지 지게 썼어. 지게로 쟁기도 지고. 우리 밭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고 가서. 그거 내가 만든 거.)

“(세울 때 여기 받치잖아? 뭐렌 해?) 지게작대기. 이건 지게가지. 그 사이엔 샛가지. 그 지게가진 부친 거 아니라, 자연 그대로. 소냥. 그거 저 경운기 나오기 전까진 썼지.”¹⁰⁵⁾

((세울 때 여기 받치잖아? 뭐라고 해?) 지겟작대기. 이건 지겟가지. 그 사이에는 '샛가지'. 그 지겟가지는 불인 거 아니야, 자연 그대로. 소나무. 그거 저 경우기 나오기 전까지 썼지.)

103) 성읍리 한사울 씨 구술.

104)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05)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29> 강윤평 씨 소장 '지게'(앞)



<사진 130> 강윤평 씨 소장 '지게'(뒤)



<사진 131> 강윤평 씨 소장 '지게'의 '지겟가지'

강윤평 씨는 지게의 지겟가지는 나무를 따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진처럼 가지가 뻗은 소나무를 잘 골라 만든다고 한다.

위 <사진 129>, <사진 130>, <사진 131>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사용했던 '지게'의 모습이다. 강 씨는 경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짐을 나를 때 지게로 지어 날랐다고 한다. <사진 129>는 지게의 앞모습으로 등을 대는 부분이다. <사진 130>은 지게의 뒷모습으로 뒤로 뻗은 지겟가지 부분에 짐을 올려놓게 된다. <사진 131>은 지게 본체에서 지겟가지가 뻗어 나온 부분으로,



<사진 132> 송심자 씨 소장 '지게'



<사진 133> 송심자 씨 소장 '푸지게'

<사진 132>와 <사진 133>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지게'와 '푸지게'다. '푸지게'는 짚 따위를 엮어 만든 것으로, 큰 돌을 지어 나를 때 이용했던 것이다.

(4) 니아카

'니아카'는 사람이 끄는 바퀴 둘 달린 손수레로, '리어카'를 일본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라 '니아까', '니어커'라고 하기도 한다.



<사진 134> 김천종 씨 소장 '니아카'



<사진 135> 강기수 씨 소장 '수레'

<사진 134>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사용하고 있는 '니아카'다. <사진 135>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수레'로, 감귤을 수확할 때 수확한 귤을 넣은 바구니를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다. 보통 짐을 나를 때 사용하는 수레와는 달리 바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귤 농장에서 귤을 옮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이 좁은 형태다. 귤 바구니 세 개를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다.

(5) 경운기

‘경운기’는 농작물을 운반하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다. 짐을 실어 나를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이동할 때도 이용되었다.

“저거 훈 오십 년 넘었어, 저 경운기.”¹⁰⁶⁾

(저거 한 오십 년 넘었어, 저 경운기.)



<사진 136> 강기수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37> 강윤평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38> 김천종 씨 소장 ‘경운기’

<사진 136>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다. <사진 137>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사용했던 ‘경운기’로, 사용한지 50년 된 것으로 지금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38>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경운기’다.

106)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6) 깔꾸리

‘깔꾸리’는 끝이 뾰족하고 꼬부라진 물건으로, 흔히 쇠로 만들어 물건을 걸고 끌어당기는 데 쓰는 ‘갈고리’를 말한다. 표선면에서는 마대를 들어 올릴 때 사용했던 갈고리를 ‘깔꾸리’라고 불렀다.

“감저 마다리 어깨에 메전 허민 저거, 깔꾸리. 두 갠디 거기서 하나 하나 심영 헐 거주. 저거 한 사십 년, 사십 년 넘어실 거라.”¹⁰⁷⁾

(고구마 마대 어깨에 메려고 하면 저거, 갈고리. 두 개인데 거기서 하나 하나 잡고 할 거지. 저거 사십 년, 사십 년 넘었을 거야.)



<사진 139> 김은두 씨 소장 ‘깔꾸리’

<사진 139>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고구마 마대를 나를 때 사용했던 ‘깔꾸리’다. 마대를 어깨에 메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사진의 ‘깔꾸리’를 양손에 쥐고 마대에 찔러 들어 올리면 미끄럽지 않아서 좋았다고 한다.

(7) 배

‘배’는 물건을 묶거나 매는 데에 쓰는 줄을 말한다. 짐을 질 때 사용하는 질빵도 ‘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사용하다가 나일론이 등장하면서 대부분 나일론 줄을 이용하고 있다. ‘배’는 천을 누벼서 만들기도 했다.

“거 짐 시끌 때, 차에 그튼 디 짐 시끌 때. (옛날에 보면 짐 시끌 때 도르래 영 영 뛰어 있는 거에 줄 매는 것도 잊어나지 안허연?) 그런 것도 셔난디 그런 게 이젠 필요 없이난 없어.”¹⁰⁸⁾

(그거 짐 실을 때, 차에 같은 데 짐 실을 때. (옛날에 보면 짐 실을 때 도르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줄 매는 것도 있었지 않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

107)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108)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짐배, 배. 마차 할 때 헤난 거.”¹⁰⁹⁾

(‘짐배’, 배. 마차 할 때 했던 거.)



<사진 140> 강성종 씨 소장 ‘배’



<사진 141> 김천종 씨 소장 ‘짐배’

<사진 140>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배’다. 경운기나 차에 짐을 싣게 되면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야 하는데, 그때 사용했었던 ‘배’라고 한다. <사진 141>은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짐배’다. 김 씨가 마차에 짐을 실을 때 이용했던 것으로, 도르래가 달려 있다. 배에 달려 있는 도르래는 짐을 묶을 때 쉽게 단단하게 조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8) 산테

‘산테’는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들것’의 형태로, 긴 나무 두 개 사이의 가운데에 가로장을 띠엄띄엄 박아 만들어 사용했다.

“걸름 날를 때 들것처럼 앞뒤로 사름 행 영 들르는 거 산테. 산테로도 헤여.”¹¹⁰⁾

(거름 나를 때 들것처럼 앞뒤로 사람 해서 이렇게 드는 거 ‘산테’. ‘산테’로도 해.)

109)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11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걸름 날를 때) 골체 아니면 산테라는 게 있어. 산테, 양쪽으로 둘러서 두 사람이 들어, 앞뒤로. 소위 저 우리 저 병원에 가면 허는 거. 그건 어떤, 저것도 뿐더러지기 쉬우니까 약한 낭은 안 돼어. 우리 이 제주도 요, 특히나 해변은 저 구럼비낭이엔 헌 게 있어. 그게 젤 좋아. 최고 좋아. 그게 질기지.”¹¹¹⁾

((거름 나를 때) 삼태기 아니면 ‘산테’라는 게 있어. ‘산테’, 양쪽으로 둘러서 두 사람이 들어, 앞뒤로. 소위 저 우리 병원에 가면 하는 거. 그건 어떤, 저것도 부러지기 쉬우니까 약한 나무는 안 돼. 우리 이 제주도 요, 특히나 해변은 저 까마귀쪽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제일 좋아. 최고 좋아. 그게 질기지.)

“(산테) 또 밧데 돌멩이거튼 거 치울 때. 그 사람 둘리가 필요헌 거라. 혼 사름만 허면 안 돼고.”¹¹²⁾

((‘산테’) 또 밧데 돌멩이같은 거 치울 때. 그 사람 둘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산테’는 보통 거름 따위를 나를 때 사용했던 도구다. 가시리 강성종, 세화리 송좌길 씨의 구슬에서처럼 들것처럼 생긴 것으로, 그 위에 거름을 놓고 두 사람이 앞뒤로 서서 들게 되어 있다. ‘산테’를 만들 때는 보통 까마귀쪽나무를 사용하는데 이 나무가 질겨서 좋다고 한다. ‘산테’는 거름뿐만 아니라 돌멩이를 나를 때도 사용했다.

(9) 걸름착

‘걸름착’은 거름을 담아서 나르는 멱둥구미로, ‘거름착’이라고도 한다. 주로 짚을 엮어 만드는데 농작물을 담는 멱둥구미와 모양이 같다. 돼지거름인 경우는 물기를 머금고 있어 무겁기 때문에 ‘걸름착’의 크기가 조금 작고 쇠두엄인 경우는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걸름착’의 크기가 크다.

“거 소위 뜻그레, 걸름착이라고 있어, 걸름착. 뜻그레, 뜻그레 시끄는 걸름착. 멧은, 멧이주제. 멧, 멧텅이, 멧텅이. 멧텅이 바레기에는 보통 으슷 개 내지 여덟 개. 아주 쎈 물은 여덟 개 시끄고 경 아녀면 으슷 개 베끼 것도 못 시꺼. 사름이 정 갈 때도 그 뜻그레착에서 지게에 놓고 지어야 돼.”¹¹³⁾

((그거 소위 ‘뜻그레’, ‘걸름착’이라고 있어, ‘걸름착’. ‘뜻그레’, ‘뜻그레’ 싫는 ‘걸름착’. 멧은, 멧이지. 멧, 멱둥구미. 멱둥구미 달구지에는 보통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아주 쎈 말은 여덟 개 싫고 그렇지 않으면 여섯 개밖에 그것도 못 실어. 사람이 지고 갈 때도 그 ‘뜻그레착’에서 지게에 놓고 지어야 돼.)

111)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12)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13)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세화리 송좌길 씨는 돼지거름을 ‘돛골레’, ‘돛그레’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넣는 멱등구미를 ‘걸름착’ 또는 ‘돛그레착’이라고 부르고 있다. 거름을 실어 나를 때 달구지에는 보통 여섯 개의 멱등구미를 실었고, 힘이 좋은 말이 끄는 경우는 여덟 개까지 실어 날랐다. 사람이 지게로 거름을 나는 때에서 우선은 멱등구미에 거름을 담고, 이 멱등구미를 지게에 놓고 지어 날랐다.

(10) 바레기

‘바레기’는 짐을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 달구지를 말한다. ‘달구지’를 표선면 지역에서는 ‘바레기’라고 하기도 하고, 제보자에 따라 ‘구루마’, ‘마차’라고도 한다.

“겐 여긴 그때 당시 뭐이냐면 구루마, 바레기, 바레기. 바레기렌 헷주. 그때 말로 바레기. 바레기.”¹¹⁴⁾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 무엇이냐면 ‘구루마’, 달구지, 달구지. ‘바레기’라고 했지. 그때 말로 ‘바레기’, ‘바레기’.)

“(보리) 무껑, 무껑 그때도 그 바리기에, 바레기 빌, 하튼 것도 나중에 바레기 문딱 빌어야 돼, 놈의 거. 다 거 매 사람이 잇는 건 아니니까.”¹¹⁵⁾

((보리) 둑어서, 둑어서 그때도 그 달구지에, 달구지 빌,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달구지 모두 빌려야 돼, 남의 거. 다 그거 매 사람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바레기’는 거름이나 농작물을 운반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채취한 해초들을 실어 나를 때도 이용했다.

“듬북 바당에서 저 태풍을 부난 븐름 세민 바당에서 이제 메어정 올라오주. 올라오민 그 바당에 성창에 가근에 걸 다 이녁만썩 울로 요레, 만일에 장거렝이로 영 이렇게 만이 있으면 울로 이레랑 나 허곡 울로 이레랑 저 사름 허곡 울로 이레랑 삼춘 허곡 헙서 허영 갈라근에 허영 지여 왓주게. 그 문 등짐으로. 바레기도 엇엉. 바레기가 알아져? 바레기가 구루마라. 계난 바레기 엇이, 바레기 이신 집인 바레기 헤영 강 헤여 오고 우리 닮은, 바레기 엇인 사름은 등짐으로 그거 다 지어 와야주. 지어근에 이디 오랑 그 널엇당 이제 그거 몰르민 눌었다가 무시거 모냥으로 모도와당 비 아니 맞게시리 눌었다가 이제 밧디 아정 강 문 빼여. 경혜영 그거 걸름으로 경헨 헷주.”¹¹⁶⁾

114)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15)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116)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듬북 바다에서 저 태풍이 불거나 바람 세면 바다에서 이제 매어져서 올라오지. 올라오면 그 바다에 갯머리에 가서 그거 다 자기만큼씩 요리로 요리, 만일에 '장거랭이'로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요리로 이리는 나하고 요리로 이리는 저 사람하고 요리로 이리는 삼촌하고 하세요 해서 갈라서 해서 지고 왔지. 그 모두 등짐으로. 달구지도 없어. '바레기' 알아? '바레기'가 달구지야. 그러니까 달구지 없이, 달구지 있는 집은 달구지 해서 가서 해 오고 우리 같은, 달구지 없는 사람은 등짐으로 그거 다 지고 와야지. 지어서 여기 와서 그 널었다가 이제 그거 마르면 가렸다가 뭐 모양으로 모아다가 비 안 맞게 가렸다가 이제 밭에 가지고 가서 모두 뿐려. 그래서 그거 거름으로 그렇게 했지.)

토산리 정복순 씨(1944년생)는 바다에서 채취한 '듬북'을 나를 때 '바레기'를 이용했다. '바레기'가 없으면 '듬북'을 일일이 등에 지어 옮겨야 했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옮긴 '듬북'은 널어서 잘 말렸다가 거름으로 이용했다.

4.5. 계량 도구

(1) 뒤

'뒤'는 곡식을 담아 그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도구다. 표준어의 '되'를 말한다. 보통 정사각형 모양의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관뒤', '뒷박'이라 부르기도 한다.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는 둑근 원통 모양의 '통말'도 있다.

“그거 뒤, 뒤. 저건 통말, 혼 말. 대도 혼 말, 대도 혼 말 들어가. 이거 혼 말들이 뒤. 아까 부엌에 건 흡, 흡들이. 이건 대도 한 말. 유채 팔 때, 농사할 때 이걸로 씹니게. 그때 문, 그때 혼 눈 거우다.”¹¹⁷⁾

(그거 뒤, 뒤. 저건 통말, 한 말. 대두 한 말, 대두 한 말 들어가. 이거 한 말들이 되. 아까 부엌의 건 흡, 흡들이. 이건 대두 한 말. 유채 팔 때, 농사할 때 이걸로 쓰지요. 그때 모두, 그때 혼 눈 거우다.)

117)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사진 142> 송필수 씨 소장 '통말 둠'

<사진 142>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ಡු'다. 한 말들이로 유채 농사를 짓고 나서 판매할 때 그 분량을 재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 143> 한사율 씨 소장 'ಡු'



<사진 144> 강기수 씨 소장 'ಡු'



<사진 145> 현순화 씨 소장 'ಡු'



<사진 146> 송필수 씨 소장 'ಡු'

<사진 143>은 성읍리 한사율 씨, <사진 144>는 세화리 강기수 씨, <사진 145>는 표선리 현순화 씨, <사진 146>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ಡු'다.

(2) 저울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도구다. 손에 쥐고 물건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손저울’이라고 하고, 시계침 모양의 바늘로 무게를 확인하는 것을 ‘시계 저울’이라고 부른다. 또 받침판 위에 물건을 올려 놓고 위쪽에 있는 저울에서 추로 무게를 다는 것을 ‘앉은뱅이저울’이라고 한다.

“센기리 썰 때 저울 헤난 거주게.”¹¹⁸⁾

(무말랭이 썰 때 저울 했던 거지.)

“뺏떼기 헐 때는 큰 저울로 썻지, 앉은뱅이로. 저거 흔 백 키로까지 갈 걸.”¹¹⁹⁾

(절간고구마 할 때는 큰 저울로 썻지, 앉은뱅이로. 저거 한 백 킬로그램까지 갈 걸.)



<사진 147> 김종권 씨 소장 ‘저울’

<사진 147>은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가 보관하고 ‘저울’이다. 고구마나 무 농사를 지을 때, 절간고구마나 무말랭이 무게를 쟈 때 사용했던 것이다.

“거 옛날 유채 헐 때 유채도 뜨곡, 도세기도 이거 무거운 거 뜨는 건디. 우리 상동에서 저거 하나뿐, 사 논 건.”¹²⁰⁾

(그거 옛날 유채 할 때 유채도 뜨고, 돼지도 이거 무거운 거 뜨는 건데. 우리 상동에서 저거 하나뿐, 사 놓은 건.)

118)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119) 토산리 김종권 씨 구술.

120)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사진 148> 송필수 씨 소장 ‘손저울’

<사진 148>은 하천리 송필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손저울’이다. 추 무게가 150kg이고, 저울의 손잡이 길이는 154cm의 ‘손저울’이다. ‘손저울’이지만, 혼자서 드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에 나무를 끼워 넣어 어깨에 걸쳐 무게를 잔다.

4.6. 저장 도구

(1) 항

‘항’은 항아리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물이나 간장 등을 담는 용도이지만, 별다른 용기가 없었던 시절 곡식을 보관하는 용으로도 널리 쓰였다.

“이거 한, 칠십 년. 항아리 저거 잊은 때는 한 칠십 년. 칠십 년 전쯤 뛴. 곡식덜 놔난 거지.”¹²¹⁾
(이거 한, 칠십 년. 항아리 저기 있은 지는 한 칠십 년. 칠십 년 전쯤 떴어. 곡식들 놨던 거지.)

“고팡에 쌀 놔난 거. 곤썰 놔난 거. 고팡에서 곤썰 놔낫어, 나룩, 나룩. 골아온 쌀 경 하영 놀 쌀이 어디 셔게. 그냥 나룩 놔난 거.”¹²²⁾

(고방에 쌀 넣었던 거. 흰쌀 넣었던 거. 고방에서 흰쌀 넣었어, 볍쌀, 볍쌀. 같아온 쌀 그렇게 많이 넣을 쌀이 어디 있어. 그냥 볍쌀 넣었던 거.)

121)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122)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사진 149> 김은두 씨 소장 '항아리'



<사진 150> 송심자 씨 소장 '항'



<사진 151> 오남행 씨 소장 '항'들

<사진 149>는 가시리 김은두 씨가 보관하고 있는 '항'으로, 곡식들을 보관했었던 것이다. <사진 150>은 성읍리 송심자 씨의 시할머니가 사용하던 '항'으로, '고팡'에 놓아두고 쌀을 보관했던 것이다. <사진 151>은 표선리 오남행 씨가 사용했던 '항'들이다.

“항에 보리, 보리. 보리타작해 오민 그거 담아난 항. 제일 큰 거 두 섬 드는 거.”¹²³⁾
(항아리에 보리, 보리. 보리타작해 오면 그거 담았던 항아리. 제일 큰 거 두 섬 드는 거.)

“우리 시어머니가 써난 거 물련. 큰 항에 보리, 조 거 물류양 문 골젠 허민 담았다근에게 쌀도 담곡 보리도 담곡 다 담았주게.”¹²⁴⁾

(우리 시어머니가 썼던 거 물렸어. 큰 항아리에 보리, 조 그거 말려서 모두 갈려고 하면 담았다가 쌀도 담고 보리도 담고 다 담았지.)

123)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124) 표선리 현순화 씨 구술.



<사진 152> 강윤평 씨 소장 '항'들



<사진 153> 현순화 씨 소장 '항'

<사진 152>는 하천리 강윤평 씨 집 뒤쪽에 놓여 있는 '항'들이다. 가운데의 큰 항아리에는 보리 두 섬을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사진 153>은 표선리 현순화 씨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항'들이다. 큰 항아리에 보리나 조 등의 곡식을 넣어 보관했다.

“그거 술독. 춘, 춘. 그디 곡식 담았지. 곡식 담아난. 술 안 담고 쌀 그튼 거. 그것도 허곡 이제 그레 씨도 놓기도 허곡. 겐 그거 고팽에 놔난 거지. 고팽에 항이 엄청나게 많아낫주게. 근디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 다 없애 불었어. 저거 원래는 술, 운반하는 거지. 저기 담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거.”¹²⁵⁾

(그거 술독. '춘', '춘'. 거기 곡식 담았지. 곡식 담았어. 술 안 담고 쌀 같은 거. 그것도 하고 이제 그리 씨도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고방에 놨던 거지. 고방에 항아리가 엄청나게 많았었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 다 없애 버렸어. 저거 원래는 술, 운반하는 거지. 저기 담는 게 아니고 운반하는 거.)



<사진 154> 김천종 씨 소장 '춘'

<사진 154>는 세화리 김천종 씨가 보관하고 있는 '춘'이다. '춘'은 사진처럼 길쭉한 모양의 항아리로, 주로 술을 담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데, 김천종 씨 집에서는 여기에 쌀이나 씨를 넣어 보관했다고 한다. 김 씨의 집안의 '고팡'에는 사진의 '춘'을 비롯하여 곡식을 보관하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었다고 한다.

125) 세화리 김천종 씨 구술.

(2) 도로무깡

‘도로무깡’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원기둥 모양의 큰 통으로 ‘드럼통’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도루무깡’, ‘도라무통’이라고도 한다. 주로 석유 기름 따위를 담는 데 사용했던 것을 농가에서 곡식 등을 담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

“건 농사질 때 거기 보리 그튼 거 저장, 저장할 때 담아난 거 아냐. 그것도 한 오십 년 됐지. 보리 담을라고 사다가 짤라서 헌 거.”¹²⁶⁾

(그건 농사지을 때 거기 보리 같은 거 저장, 저장할 때 담았던 거 아냐. 그것도 한 오십 년 됐지. 보리 담으려고 사다가 잘라서 한 거.)



<사진 155> 강기수 씨 소장 ‘도로무깡’

<사진 155>는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로무깡’이다. 강 씨가 보리 같은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장만했던 것으로, 오십 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3) 낭 상자

‘낭 상자’는 물건을 넣어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네모난 상자를 말한다. 표선면 지역에서는 감귤 농사를 시작하면서 감귤을 보관하기 위해 나무 상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플라스틱 제품들이 등장하면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네모난 용기인 ‘콘테나’에 감귤을 보관하게 된다.

“이거 저장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흔 이삼 년은 땅바닥에 전부 따서 비니루 더け 풀 때까지 허다 보면은 썩어 부는 것도 뭐 흔 반 썩어 버리곡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웨겠다 해서 이제는 콘테나를, 저거를 헤다가 창고에 전부. 처음엔 낭 상자 헤다가 낭 상자는 흔 네 관도 안 들엉, 흔 세 관 반 그 정도베끼 안 들어가거든. 겐이 뭐 뭐 데밀 디도 엇고 허니까 낭 상자를 전부 그 널 사다가 짹어이, 자기대로. 우리대로 짜서 거 헤다가 그 후에 이제 이거를 사다가 허기 시작햇지. 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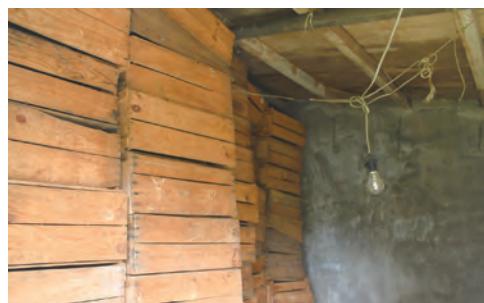
126)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상자를 할 때는 혼 만 오천 관 저장을 못 해. 장소가 죽아 가지고. 해서 요거를 해 오니까 요기허곡 여기허면은 혼 만 칠팔천 관 보관돼더라고. (낭 상자 멧 년 안 쓰고?) 낭 상자도 혼 사, 오 년 썻어. 널을 쪄 위미리, 아니 저 어디냐 저 서쪽에 남원읍에 가서 그 숙대낭 오리는 디가 잇어. 거기 강 사 왔어. 널은 사다가, 계난 구격 딱 맞게시리 행 사 오면은 우리는 못질만 허민 드거든.”¹²⁷⁾

(이거 저장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한 이삼 년은 땅바닥에 전부 따서 비닐 덮어서 팔 때까지 하다 보면 썩어 버리는 것도 뭐 한 반 썩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콘테나’를, 저거를 해다가 창고에 전부. 처음에는 나무 상자 했다가 나무 상자는 한 네 관도 안 들고, 한 세 관 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뭐 뭐 짱일 데도 없고 하니까 나무 상자를 전부 그 널 사다가 짠어, 자기대로. 우리대로 짜서 그거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이거를 사다가 하기 시작했지. 나무 상자를 할 때는 한 만 오천 관 저장을 못 해. 장소가 작아 가지고. 해서 요거를 해 오니까 여기하고 여기하면 한 만 칠팔천 관 보관되더라고. (나무 상자 몇 년 안 쓰고?) 나무 상자도 한 사, 오 년 썼어. 널을 쪄 위미리, 아니 저 어디냐 저 서쪽에 남원읍에 가서 그 삼나무 오리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사 왔어. 거기 가서 사 왔어. 널은 사다가, 그러니까 규격 딱 맞게끔 사 오면은 우리는 못질만 하면 되거든.)



<사진 156> 강기수 씨 소장 ‘낭 상자’



<사진 157> 송무웅 씨 소장 ‘낭 상자’



<사진 158> 강기수 씨 소장 ‘콘테나’



<사진 159> 김평우 씨 소장 ‘콘테나’

127)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156>과 <사진 157>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낭 상자’와 ‘콘테나’다. 강 씨가 처음 굴 농사를 지을 때는 굴을 따면 바닥에 그냥 쌓아 놓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사진 157>과 같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 감귤을 보관했고, 나무 상자를 몇 년 사용하는 동안에 <사진 158>과 같은 플라스틱 ‘콘테나’가 나와 지금은 ‘콘테나’에 굴을 넣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콘테나’를 사용하는 것이 나무 상자에 보관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158>은 토산리 송무웅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낭 상자’고, <사진 159>는 토산리 김평우 씨가 보관하고 있는 ‘콘테나’다.

4.7. 기타 도구

(1) 고리

‘고리’는 대오리 따위를 엮어서 만든 큰 바구니를 말한다. 돌화로 위에 ‘고리’를 매달아 놓고 그 안에 곡식을 넣어 말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 병아리를 키울 때 닭장으로 쓰기도 했다.

“이 제주도는 우리 살 때만 해도 육 개월 베낀 날 안 좋아. 맞지이? 육 개월. 웨냐 고사릿마 훈 둘, 그다음은 보릿마 두 둘. 팔월 마도 잇주게, 팔월 마. 거 또 십이월 뛰믄 일 못 허잖아. 십이월 뛰믄 눈 와 가지고. 그러면 곡식을 요렇게, 고고리엔 허주, 고고리. 곡식을 여기 따다 놔 가지고 이 알로 불을 때어. 불을 때 가지고, 불을 때 가지고. 멍석이지, 저거 멍석이지. 멍석에 놔 가지고 막 두들겨. 도깨로, 도깨지. 저기서 곡식을 몰ὼ서 불 때 가지고. 봉덕, 저것도 여기 봉덕이 이거 있언. 다 놔난 건디. 저기 낳 알로 불을 때.”¹²⁸⁾

(이 제주도는 우리 살 때만 해도 육 개월밖에 날 안 좋아. 맞지? 육 개월. 왜냐면 ‘고사리마’ 한 달, 그다음은 ‘보리마’ 두 달. 팔월 장마도 있지, 팔월 장마. 그거 또 십이월 되면 일 못 하잖아. 십이월 되면 눈 와 가지고. 그러면 곡식을 이렇게 이삭이라고 하지, 이삭. 곡식을 여기 따다 넣고 이 아래로 불을 때. 불을 때서, 불을 때서. 멍석이지, 저거 멍석이지. 멍석에 놔서 마구 두들겨. 도리깨로, 도리깨지. 저기에서 곡식을 말려서, 불 때 가지고. ‘저것도’ 여기 ‘봉덕’이 이거 있었어. 다 놔난 건데. 저기 넣어서 아래로 불을 때.)

“똥수루기라고 헤 가지고이, 이만씩헌 것덜 매, 매라고 그래. 요놈으 것이 병아리를이 전부 잡아가 비여. 게니까 요것에다가, 요걸 어페 놓고서 여기다가 곡식 놓고 에미허고이, 저걸 어페 논다 말이여이. 게난 이건 높을 고자, 고리. 하늘의 걸 저, 방지한단 말이지. 노픈 디 떠뎅기는 거. 그래서 자기대로 그 방어헐 정도 뛰면 내놔 버리어. 그러니 득집이덜, 닭집이지. 이거 아니민 못 키와.”¹²⁹⁾

128)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129)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솔개라고 해 가지고, 이만한 것들 매, 매라고 그래. 요놈의 것이 병아리를 전부 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요것에다가, 요것을 엎어 놓고서 여기다가 곡식 넣고 어미하고, 저것을 엎어 놓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높을 고자, '고리'. 하늘의 것을 저, 방지한단 말이지. 높은 데 떠다니는 거. 그래서 자기대로 그 방어할 정도 되면 내놓아. 그러니 닭집에들, 닭집이지. 이거 아니면 못 키워.)



<사진 160> 한사울 씨 소장 '고리'



<사진 161> 한사울 씨 소장 '고리'

<사진 160>과 <사진 161>은 성읍리 한사울 씨가 보관하고 있는 '고리'다. '고리'는 곡식 이삭을 넣어 말릴 때 사용했다. '봉덕'이라 부르는 고정식 돌화로 위에 이것을 매달아 놓고, 돌화로에 불을 피우고 '고리' 안에는 곡식 이삭을 넣어 화롯불의 따뜻한 기운으로 곡식이 마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삭이 마르면 그것을 명석 위에 펼쳐 놓고 도리깨도 두드려 이삭을 털어냈다.

또 '고리'는 닭장으로 이용하기도 했는데, 병아리를 키울 때 매가 날아들어 병아리를 잡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닭장처럼 병아리를 안에 모아 먹이를 주고 이것을 덮어 두었다. 그 안에서 병아리를 키우다가 스스로 위험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밖으로 내놓았다고 한다. <사진 160>의 '고리'는 크기가 103cm×91cm×40cm고, <사진 161>의 닭장으로 사용했던 '고리'는 115cm×90cm×32cm의 크기다.

(2) 망테

'망테'는 물건을 담아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것으로, 보통 주로 가는 새끼나 노파위를 엮어 만든 것을 말한다. 파종할 때 씨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

“조 불릴 때 그 망테에 담양 그거 손으로 이렇게 턱 빼는 거라, 골고루. 골고루 안 뿌리면, 계난 그 씨 뿌리는 사람 골려야 뛰어. 아무나 허문 안 뛰어. 씨 잘 뿌리는 사람 빌어당 해야 뛰어. 씨 망테, 씨 망테에 담양.”¹³⁰⁾

(‘조 불릴’ 때 그 망태기에 담아서 그거 손으로 이렇게 딱 뿌리는 거야, 골고루. 골고루 안 뿌리면,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사람 가려야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씨 잘 뿌리는 사람 빌려다가 해야 돼. 씨 망태기, 씨 망태기에 담아서.)



<사진 162> 한사율 씨 소장 ‘망테’

조의 씨를 파종할 때는 씨를 골고루 잘 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씨가 자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잘 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화리 송좌길 씨는 조를 파종할 때 ‘망테’를 이용했다고 한다.

<사진 162>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만든 ‘망테’다. 실제 씨를 파종할 때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한 씨가 짚이나 대나무, 나무 등으로 여러 생활 도구를 만들면서 ‘망테’도 <사진 162>에서 보는 것처럼 자그마하게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3) 새치기

‘새치기’는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새(띠)’의 잡것을 훑어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새치기’는 초가에 덮을 ‘새’를 손질할 때도 사용하지만, 표선면 지역에서는 그보다도 주로 김을 말리는 밭을 만드는데 사용할 ‘새’를 장만할 때 사용했다.

“옛날, 지금은 김을 말릴 때 기계로 다 말렵잖아이? 옛날 남해안에 그 김 말리젠 허민 이제 지금쯤, 지금 청새, 누런 황새가 아니고, 황새는 노랑허게 익으민 지붕에 더끄는 거고 청새는 펴렁헐 때 비어근에 그걸 저걸로 치는 거야. 막 이파리덜이영. 처내근에 그걸 무꺼근에 육지 상인덜이 와. 짐새엔 허주. 김을 말리는 새, 짐새. 새 허당 밭을 짜근에 김을 말리는 거야. 계난 그 새 곱게 허젠 이 새치기로 허는 거. 이거 집집마다 다 가져 있기 때문에 혹시 바꿀까 봐 글자 새기는 거야. 이디 왕

130)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자는. 이거 영 세왕, 이디 영 세우는 거 받청, 기계에 영 놓는 거 잊어게. 우리 나룩틀 잊잖아. 그거영 똑그튼 원리라. 이거는 짐새 육지에서 이제. (성읍에 그런 사람이 와낫수과?) 아이고, 하영 와낫주게. 겐와근에 그거 앗아 가명 강진 그튼 디 그 육지에서 만든 그 유약 칠현 항덜 앗앙 와근에게 항으로덜 막바꽈 가고 해낫주게. 그거 나가 직접 해 본 일이난.”¹³¹⁾

(옛날, 지금은 김을 말릴 때 기계로 다 말리고 있잖아? 옛날 남해안이 그 김 말리려고 하면 이제 지금쯤, 지금 푸른 새, 누런 ‘황새’가 아니고, ‘황새’는 노랗게 익으면 지붕에 덮는 거고 ‘청새’는 파랄 때 베어서 그것을 저걸로 치는 거야. 마구 잎들이랑. 쳐내서 그걸 묶어서 육지 상인들이 와. ‘짐새’라고 하지. 김을 말리는 떠, ‘짐새’. 떠 해다가 발을 짜서 김을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떠 곱게 하려고 이 ‘새치기’로 하는 거. 이거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바꿀까 봐 글자 새기는 거야. 여기 왕 자는. 이거 이렇게 세워서, 여기 이렇게 세우는 거 받쳐서, 기계에 이렇게 놓는 거 있어. 우리 그네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원리야. 이거는 ‘짐새’ 육지에서 이제. (성읍리에 그런 사람이 왔었습니까?) 아이고, 많이 왔었지. 그래서 와서 그거 가지고 가면서 강진 같은 데 그 육지에서 만든 그 유약 칠한 항아리들 가지고 와서 항아리들 마구 바꿔 가고 했었지. 그거 내가 직접 해 본 일이니까.)



<사진 163> 송심자 씨 소장 ‘새치기’

<사진 163>은 성읍리 송심자 씨가 사용했던 ‘새치기’다. 성읍리를 비롯한 표선면의 중산간 마을에 ‘청새(누렇게 익기 전의 푸른 떠)’를 구입하러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한다. ‘청새’를 구입하러 육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유약을 빌라 만든 항아리 등을 가지고 와서 그 항아리와 ‘청새’를 교환해 가기도 했다. ‘청새’는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김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송 씨는 이것을 ‘짐새’라고 불렀다. ‘새치기’는 낫으로 베어 들인 ‘청새’의 줄기를 깨끗하게 다듬을 때 사용했던 것이다. 사진의 ‘새치기’의 네모난 구멍 사이로 받침이 되는 나무를 끼워 살을 위로 향하게 ‘새치기’를 세워서 살 틈으로 ‘새’를 넣어 훑아내면 잡풀이나 ‘새’ 줄기의 헝클어진 마른 줄기들을 제거했다. 송심자 씨는 직접 ‘새’를 베고 위의 ‘새치기’ 도구를 가지고 새를 곱게 다듬는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송 씨뿐만 아니라 성읍리 마을 사람들이 ‘새’를 베고 다듬는 작업을 함께 했었는데, ‘새치기’가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글자를 새겨 넣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 163>의 왼쪽 ‘새치기’에 ‘왕’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1) 성읍리 송심자 씨 구술.

(4) 놔빼 써는 거

‘놔빼 써는 거’는 무를 써는 채칼을 말한다. ‘놔빼’는 ‘무’를 의미하는 제주어다. 표선면 지역에서는 무 농사를 많이 지어 이것을 무말랭이로 만들어 판매했다. 무말랭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를 일일이 썰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했던 도구를 ‘놔빼 써는 거’라고 한다.

“저건 놔빼 써는 거. 놈빼 영 영 행 센기리 써는 거. 아이고, 뻣떼기 행 다 풀아나고 센기리 행 풀아나고. 우리 센기리 행 돈 많이 벌었지. 이거 우리 오십 대 전이 햇수다. 아이고, 센기리 혈 때 이거 나 손 병신 됐는 거, 바레 봐. 센기리 저레 놈빼 대영 영 영. 두 개 있어난디, ㅎ난 어디사 가신디 몰라.”¹³²⁾

(저거는 무 써는 거. 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 써는 거. 아이고, 절간고구마 해서 다 팔았었고 무말랭이 해서 팔았었고. 우리 무말랭이 해서 돈 많이 벌었지. 이거 우리 오십 대 전에 했습니다. 아이고, 무말랭이 할 때 이거 내 손 병신 된 거, 봐 봐. 무말랭이 저리 무 대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몰라.)

“도루무깡에 물 비와 놓 작대기로 놈빼 씻엉, 경헨 ㅎ루 ㅈ물양 써난에 그거 멧 개 썬 거 알아져? 경행 물령 곳간에 낫당 풀아낫주. 하영 하민 하영 풀고 족영 허민 족영 풀고. 상인들이 왕 사 가난에. 토산리 무수 하영 헤낫수다.”¹³³⁾

(드럼통에 물 비워 넣고 작대기로 무 씻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써니까 그거 몇 개 썬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말려서 곳간에 놨다가 팔았었지. 많이 하면 많이 팔고 적게 하면 적게 팔고. 상인들이 와서 사 가니까. 토산리 무 많이 했었습니다.)

“무 써는 거. 옛날에는 무 갈아 노민 센거리들 허곡, 왕거리덜토.”¹³⁴⁾

(무 써는 거. 옛날에는 무 갈아 놓으면 무말랭이들 하고, 굵은 무말랭들도.)

132) 토산리 오봉순 씨 구술.

133)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구술.

134) 하천리 송필수 씨 구술.



<사진 164> 김종권 · 오봉순 씨 소장 'ぬべ 써는 거'



<사진 165> 송필수 씨 소장 '무 써는 거'

<사진 164>는 토산리 김종권 · 오봉순 씨 집에서 사용했던 'ぬべ 써는 거'다. 무를 씻어 일일이 <사진 164>의 도구로 가늘게 썰어 잘 말려서 무말랭이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한다. <사진 165>는 하천리 송필수 씨가 사용했던 무를 썰 때 사용했던 도구다.

(5) 글쟁이

'글쟁이'는 검불이나 곡물 따위를 긁어모으는 데 쓰는 도구로 '갈퀴'를 말한다. 한쪽 끝에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철사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다. 예전에는 땔감으로 사용할 솔가리를 그려모을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벌초를 하고 난 후 베어낸 풀을 그려모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글쟁이, 잡초 거시기 헐 때 영 긁어모으는 거. 벌초, 벌초해 난 때도 이거 쓰고. (여자덜) 솔입 긁으려도 뎅거나실 거라.”¹³⁵⁾

(갈퀴, 잡초 거시기 할 때 이렇게 긁어모으는 거. 벌초, 벌초하고 난 때도 이거 쓰고. (여자들) 솔가리 그려모으려도 다녔을 거야.)

“벌초헐 때, 벌초헐 때 그 찌끄레기 남은 거 버려 불 때.”¹³⁶⁾

(벌초할 때, 벌초할 때 그 찌꺼기 남은 거 버려 버릴 때.)

135)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136) 가시리 김은두 씨 구술.



<사진 166> 강성종 씨 소장 '글쟁이'



<사진 167> 김은두 씨 소장 '글쟁이'

<사진 166>은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하고 있는 '글쟁이'고, <사진 167>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글쟁이'다. 강성종 씨나 김은두 씨 모두 벌초를 할 때 풀을 걷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5. 어업 관련

표선면 지역은 주민의 57%가 농업에 종사하고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21%가 어업에 종사하는 1차산업 중심 지역이다(『표선면 역사문화지』, 2009: 48). 전체 6개 법정마을, 10개 행정마을 중 표선리, 하천리, 세화2리, 토산2리가 해안에 인접한 해안마을이다.

이 장에서는 바닷일과 관련하여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필요한 물옷, 테왁과 망사리, 채취 도구, 기타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물질은) 훤 열댓 설 때부터 해 가지고 서른 훈 서너 개, 서른셋 그 정도에 끈어 베주, 안 갓지.”¹⁾

(물질은) 한 열댓 살 때부터 해 가지고 서른 한 서넛, 서른셋 그 정도에 끊어 버렸지, 안 갓지.)

현재 표선면 지역에서 어업 활동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해안마을인 표선리, 하천리, 세화2리, 토산2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바다와 떨어져 있는 중산간 지역에서도 바다에서 거름으로 쓸 해초를 캐거나 먹을거리로 해산물을 채취해 왔다. 토산1리는 중산간 마을이다. 현재 주민들은 물질이나 벳일 등의 어업 활동을 하지 않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는 물질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토산1리 정복순 씨(1944년생)도 열댓 살 때부터 삼십 대 초반까지는 해녀였다고 한다.

“열 설에 동갑짜리, 훈나두나 우이덜, 성덜 묻 물질행서. 경허난 이젠 안 뛰肯 나도 이젠 물질해사 해肯. 우리 오춘 뜰 물옷, 속곳 간 빌어단 입곡, 테왁도 빌어 오고 물안경도 빌어 오곡 헌에 이제 물에 가난에 분시 모르난에게, 처음이난에 영 Ⓜ음대로 심지도 못하곡 무시걸 헐로고나 헌 생각을 안 헌. 그자 이거 물질인가 행 강 물에 들어간 거주이. 물이 들어강 혀난, 나보다 선배덜은 훈 설 두 설 우이 선배덜은 매역들을 간 막 Ⓜ물안에 막 휘어 오는 거라. 휘어 오난이, 나도 이젠 재개 휘영, 저 사람들

1)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휘영 나오는 걸 보난 나도 나오젠 기냥, 게고대나 처음으로 강 헌 걸 테왁에 돌아정 도당 도당 도당
도당 발 노렴시믄 휘영 고디 오랑 나질 건디, 어린 생각으로 분시 몰랑 그 사람덜, 익숙은 사람덜
휘어나는 걸 이녁도 그것만이 생각헨이. 가지카 부덴 테왁 심영 견젠 허믄 물에서 걸어지느냐?
오물락오물락 복물 먹엉 죽어 갈 거 아냐?”²⁾

(열 살에 동갑짜리, 하나님 위들, 형들 모두 물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안 되겠다고 나도 이제는 물질해야 하겠다고. 우리 오촌 딸 물웃, ‘속곳’ 가서 빌려다가 입고, ‘테왁’도 빌려 오고 물안경도 빌려 오고 해서 이제 물에 가니까 분수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고 뭐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했어. 그저 이거 물질인가 해서 가서 물에 들어간 거지. 물에 들어가서 하니까, 나보다 선배들은 한 살 두 살 위 선배들은 미역들을 가서 많이 캐고 마구 해엄쳐 오는 거야. 해엄쳐 오니까, 나도 이젠 빨리 해엄쳐서, 저 사람들 해엄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나도 나오려고 그냥, 그러나저러나 처음으로 가서 한 걸 ‘테왁’에 매달려서 ‘도당 도당 도당 도당’ 발 놀리고 있으면 해엄쳐서 가에 와서 나올 수 있을 건데, 어린 생각으로 분수 몰라서 그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해엄치는 것을 자기도 그것만큼 생각해서. 갈 수 있을까 봐 ‘테왁’ 잡고 걸으려고 하면 물에서 걸을 수 있겠니? ‘오물락오물락’ 물 먹고 죽어 갈 거 아냐?)

제주 여성들의 물질은 열 살 남짓 때부터 시작한다. 표선리 박봉화 씨(1933년생)도 열 살이던 해에 물질을 시작했다. 정식으로 수영이나 물질을 배우지 못한 채, 자신의 도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물에 들기 시작했다.

5.1. 물옷

(1) 속곳과 물적삼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물옷으로, ‘소중이’라고도 한다. 고무로 만든 잠수복이 나오기 전까지 제주의 해녀들은 무명으로 만든 ‘속곳’을 입고 물질했다. 하얀 무명으로 만든 ‘속곳’이 쉽게 더러움을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란 물이나 검은 물을 들여서 입었다. ‘속곳’은 어깨가 드러내는 옷으로, ‘속곳’ 위에는 적삼을 입었다.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일상생활에서 입는 적삼과 구분해서 ‘물적삼’이라고 불렀다. 머리에는 무명의 긴 천을 둘러썼는데, 이것을 ‘물수건’이라고 한다.

2)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우리 헐 때는, 요자기도 말했지만은 저 광목으로 멘든 속곳이엔 헌 거 있어, 소중이. 이제 우리 말로 소중이. 이 소곱에 입는 그거 입어근에 해녀질하는 거. 이제 광목 수건 쓰곡 요런 눈, 째글락헌 거 눈 쓰곡 허영.”³⁾

(우리 할 때는, 요번에도 말했지만 저 광목으로 만든 ‘속곳’이라고 하는 거 있어, ‘소중이’. 이제 우리 말로 ‘소중이’. 이 속에 입는 그거 입고 해녀질하는 거. 이제 광목 수건 쓰고 요런 물안경, 자그마한 거 물안경 쓰고 해서.)

토산리 정복순 씨는 젊은 시절 물질을 하다가 ‘고무옷’이 나오기 전에 물질을 그만두었다. 광목으로 만든 ‘속곳’을 입고, 광목으로 만든 ‘물수건’을 쓰고 자그마한 물안경을 쓰고 작업했었다고 한다.

“두 번 들게 뛰민 거 입엉 들고, 메역 헐 때는 두 번 들고. 기자 헛물에 헐 때는 입엉, 하나 입엉 강 들엉 나민 다른 옷으로 갈아입엉 오고. 메역 헐 때는 두 불.”⁴⁾

(두 번 들게 되면 그거 입고 들고, 미역 할 때는 두 번 들고. 그저 ‘헛물’에 할 때는 입고, 하나만 입고 가서 들고 나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오고. 미역 할 때는 두 별.)

“속곳 헤근에 이제 그디 널어, 그 물에 또 들 거 아냐? 겨민 그 젖은 속곳을 입엉 들어야 뛰여. 계난 속곳은이 여라 개 가정 간 사름은 그 속곳이 이시니까, 세 개 네 개 앗앙 간 사름은 마른 속곳을 입엉 들고, 경 안헌 사름은 그 젖은 속곳을 그냥 입젠 허믄 아으 아으.”⁵⁾

(‘속곳’해서 이제 거기 널어, 그 물에 또 들 거 아냐? 그러면 그 젖은 속곳을 입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속곳’은 여러 개 가지고 간 사람은 그 ‘속곳’이 있으니까, 세 개 네 개 가지고 간 사람은 마른 ‘속곳’을 입고 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젖은 ‘속곳’을 그냥 입으려고 하면 아으, 아으.)

“(삼춘은 속곳 몇 개나 넣어서 갔었습니까?) 난 흔 서너 개. 물론 거, 두 번 들어갓당 와도 또 세 번차는 골아입엉 집이 와살 거난. 세 번 들민 또 세 개 골앙 젖은 걸 내베 두고 또 물론 걸 입어살 거난. 세 번 들젠 허민 네 개 앗앙 가고. 저 입은 거끼지 허민 네 개 뛰는 거고.”⁶⁾

((삼춘은 ‘속곳’ 몇 개나 넣어서 갔었습니까?) 난 한 서너 개. 마른 거, 두 번 들어갔다가 와도 또 세 번째는 갈아입고 집에 와야 할 거니까. 세 번 들면 또 세 개 갈아서 젖은 걸 내버려 두고 또 마른 걸 입어야 할 거니까. 세 번 들려고 하면 네 개 가지고 가고. 저 입은 거까지 하면 네 개 되는 거고.)

3)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4)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5)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6)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해녀들이 물질할 때는 여러 벌의 ‘속곳’이 필요하다. 물에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 ‘속곳’의 개수를 달리 준비해야 하는데, 미역 등의 작업이 아닌 먹을거리를 잡는 ‘헛물’ 작업을 할 때는 한 벌은 입고 가서 돌아올 때 갈아입은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 하지만 미역을 캘 때는 ‘속곳’을 여러 벌 준비했다. 미역을 캐는 시기는 이른 봄이다. 물에서 작업하고 나오면 입었던 젖은 ‘속곳’을 벗고 마른 것으로 갈아입고, 불을 쬐며 몸을 녹인다.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간다. 하루 물질할 때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작업하고 나와서 쉬고 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입을 여러 벌의 ‘속곳’이 필요한 것이다.

“그때는 이 녁 집이 미싱이 이신 사름은 다 이 녁대로 만들앙 입었어. 물적삼이고 속곳이고. 나도 나냥으로 만들었어.”⁷⁾

“그때는 자기 집에 재봉틀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대로 만들어서 입었어. ‘물적삼’이고 ‘속곳’이고. 나도 나대로 만들었어.”

‘속곳’ 등은 모두 스스로 장만해야 한다. 재봉틀이 있으면 ‘속곳’이건 그 위에 입는 ‘물적삼’이건 쉽게 만들 수 있다. 하천리 강희숙 씨(1942년생)도 스스로 ‘속곳’을 다 만들어 입었다.

“소중이 멘드는 그 시늉을 굽아 주저. 난 다 나냥으로 만들았주게. 영 헤근에 요추룩 허민 이디 처대 부찌야. 영 허민 이디 처대 부찌민 옷 모냥 될 거 아니라? 처대, 처제 부찌민 옷 모냥. 요렇게 허민 이제 이디 저 허리 모냥 멘들아근에 영해영 양쪽으로 영 꼬부려근에 요걸 들민, 요거 영허영 둘민 요 우터레 이제 메큰 들 거라, 메큰. 메큰 들고 이제 이던 저 영 영 꼬부령 헤 노민 양쪽으로, 이제 요거 안팎 아니라. 안팎이민 요래 벌무작 헤근에 그 단추 멘들아, 벌무작. 그거 멘들아근에 문 들민, 코 이렇게 행 들고 벌무작 행 들고 양펜으로 해영 허민 수코, 암코 들민, 이제 메큰 들고 허민 옷이 뛰여.”⁸⁾

(‘소중이’ 만드는 그 시늉을 말해 주지. 난 다 나대로 만들었지.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하면 여기 ‘처대’ 붙여야. 이렇게 하면 여기 처대 붙이면 옷 모양 될 거 아니야? ‘처대’, ‘처제’ 붙이면 옷 모양.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 저 허리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요걸 달면, 요거 이렇게 달면 요 위로 이제 ‘메큰’ 달 거야, ‘메큰’. ‘메큰’ 달고 이제 여기 저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해 놓으면 양쪽으로, 이제 요거 안팎 아니야. 안팎이면 요리 매듭단추 해서 그 단추 만들어, 매듭단추. 그거 만들어서 모두 달면, 코 이렇게 해서 달고 매듭단추 해서 달고 양쪽으로 해서 하면 ‘수코’, ‘암코’ 달면, 이제 ‘메큰’ 달고 하면 옷이 돼.)

7)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8)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어깨 웬쪽, 경허민 속곳 일로 곰 메기가 좋주게. 일로 영, 영. 별무작은 여기 세 개 두는 사람 있고 뭐 허민 네 개도 두는 사름, 요기까지 두는 사름 있고. 보통은 세 개, 아래도 세 개. 두 개 둘민이 여기가 좀 보이주. 게난 세 개 영허게 이레 저 뭐 허게 달고. 경헨 꽃 다 새겨근에이 속곳 혼나 만들젠 허민이. 이디 어깨는 메끈, 여기는 곰, 이딘 차덴가 바덴가, 옆이 영 행 놓는 건 바데. 속곳 바데 놓아근에 경혜근에. 요거 굴, 굴. 요거는 오른굴, 요거는 웬굴. 게민 웬굴이 앞이 들이밀리주, 발을. 발을 들이밀령 영혜근에 곰으로, 속곳 곰으로 메여근에 이젠 이디 별무작으로 이디 영 메여. 우인 물적삼 입었어.”⁹⁾

(어깨 왼쪽, 그러면 ‘속곳’ 이리로 고름 매기가 좋지. 이리로 이렇게, 이렇게. 매듭단추는 여기 세 개 다는 사람 있고 뭐 하면 네 개도 다는 사람, 여기까지 다는 사람 있고. 보통은 세 개, 아래도 세 개. 두 개 달면 여기가 좀 보이지. 그러니까 세 개 이렇게 이리 저 뭐 하게 달고. 그런 꽃 다 새겨서 ‘속곳’ 하나 만들려고 하면. 여기 어깨는 ‘메끈’, 여기는 고름, 여기는 ‘차데’인가 ‘바데’인가, 옆에 이렇게 해서 놓는 건 ‘바데’. ‘속곳 바데’ 놓아서 그렇게. 이거 ‘굴’, ‘굴’. 이거는 ‘오른굴’, ‘웬굴’. 그럼 ‘웬굴’에 앞에 들이밀지, 발을. 발을 들이밀어서 이렇게 해서 고름으로, ‘속곳’ 고름으로 매서 이제는 여기 매듭단추로 여기 이렇게 매. 위에는 ‘물적삼’ 입었어.)

‘속곳’ 한쪽은 어깨로 되어 있고 한쪽은 트여 있는데, 거기에는 천을 말아서 만든 매듭단추를 단다. 이 매듭단추를 ‘별무작’이라고 한다. ‘별무작’은 지역에 따라 ‘들메기’, ‘들마기’라고 한다. 매듭단추는 보통 ‘속곳’의 아래쪽에 세 개, 위쪽에 세 개를 단다. 어깨의 끈을 ‘메끈’, 허리에 둘러매는 줄을 ‘곰’이라고 부른다.

해녀들은 추운 겨울철에도 해산물을 캐기 위해 물질을 한다. ‘속곳’을 입고 물질하던 시기에 겨울철 물에서 나오면 언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쬐는데 그때 어깨에 걸치는 것을 ‘뚜데기’라고 불렀다.

“(불 촐 때) 쓰는 거 있어, 뚜데기. 그거 친 둘양 허는 사름은 친 둘양 허고, 경 안허영 기자 뚜데기 친 아니 둘양 기자 거 무신 애기 지성귀그치 멘들아근에 그거 혼썰 널브게 허영 영 쓰민 이디 감춰지게시리 몸 혼나 싸지게시리 혈 거난. 혼썰 크게 혜사. 경허영 그거 혜영 불 초울 때 기자 그거 써근에게 불 초고 경햇주.”¹⁰⁾

((불 쫓 때) 쓰는 거 있어, ‘뚜데기’. 그거 끈 달고 하는 사람은 끈 달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뚜데기’ 끈 안 달고 그자 그거 무슨 애기 포대기같이 만들어서 그거 조금 넓게 해서 이렇게 쓰면 여기 감춰지게끔 몸 하나 싸게끔 할 거니까. 조금 크게 해야. 그래서 그거 해서 불 쫓 때 그저 그거 써서 불 쬐고 그랬지.)

9)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10)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영 쓰는 또 뭐가 있어, 영. 뚜데기라고 저추룩 헌 거에 뭐 솜 담아근에, 저만이, 똑 저만이 너베기 허영 툭 허게 둘러써야 듯주. 그자 영 허민 뭐에, 벌거벗은 것이 추워근에.”¹¹⁾

(이렇게 쓰는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뚜데기’라고 저처럼 한 것에 뭐 솜 담아서, 저만큼, 꼭 저만큼 넓이 해서 툭하게 둘러써야 따뜻하지. 그저 이렇게 하면 뭐에, 벌거벗은 것이 추워서.)

“뚜데기 앗앙 가근에 불 추고 그디 영 헤근에 불 솜는 뭐가 있어. 그디 이시민 그디 사공덜이 해녀 나젠 허민 장작 헤근에 막 불 때주게. 어른덜은 머리, 그때는 어른덜은 파마 안 허여. 게민 어른덜은 머리 헤근에 머리 막 몰류전 허곡 뚜데기에 썽 허곡. 달달달달 털멍.”¹²⁾

(‘뚜데기’ 가지고 가서 불 쬐고 거기 이렇게 해서 불 때는 뭐가 있어. 거기 있으면 거기 사공들이 해녀 나오려고 하면 장작 해서 많이 불 때지. 어른들은 머리, 그때는 어른들은 파마 안 해. 그럼 어른들은 머리 해서 머리 마구 말리려고 하고 ‘뚜데기’에 써서 하고. 달달달달 떨면서.)

토산리 정복순 씨나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 하천리 강희숙 씨는 겨울철 물질하려갈 때 ‘뚜데기’를 가지고 가서 불을 췄 때 그것을 몸에 둘러썼다. ‘뚜데기’는 웅크려 앉았을 때 몸 전체를 두를 수 있도록 넓고 깊게 만드는데, 끈을 달기도 했다. 솜을 넣기도 하여 두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물에 들었다가 나오면 온몸이 젖은 상태로, 불을 피우고 ‘뚜데기’를 뒤집어써도 해도 추위에 몸을 달달 떨었다고 한다.

“적삼 베끼디 입어. 안에 입은 사름도 이신디 난 답답허영 경 허고정 안허여. 베끼디 입어도 어떻 안허여.”¹³⁾

(적삼 밖에 입어. 안에 입은 사람도 있는데 난 답답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밖에 입어도 어렵지 않아.)

“머리에 수건, 광목 수건. 이추룩 헤영헌 거. 안 벗어져. 거 눈 이시난게. 이것가 눈이민 영 허영 영 영.”¹⁴⁾

(머리에 수건, 광목 수건. 이처럼 하얀 거. 안 벗겨져. 그거 눈 있으니까. 이것이 눈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11)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12)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13)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14)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물옷에서 ‘속곳’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물적삼’이다. ‘물적삼’은 물질할 때 입는 적삼으로, 제보자들은 이를 그냥 ‘적삼’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머리에는 광목으로 만든 수건을 썼다. 광목으로 만든 머릿수건은 물안경의 고무줄로 옆을 꼭 눌러 주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도 벗겨지지 않는다.

(2) 고무옷

‘고무옷’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잡수복이다. 무명으로 만든 ‘속곳’을 입은 뒤 그 위에 적삼을 입고, ‘물수건’을 쓰고 작업하던 해녀들은 1970년대에 ‘고무옷’이 나오자 차츰 작업복이 ‘속곳’에서 ‘고무옷’으로 바뀌게 된다. ‘고무옷’이 처음 나왔을 때는 비쌌기 때문에, 바로 보급되지는 못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속곳’을 입고 물질하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대부분 ‘고무옷’을 입을 수 있었다.



<사진 1> 현옥선 씨 소장 ‘고무옷’

<사진 1>은 표선리 현옥선 씨(1941년생)가 지금도 입고 있는 ‘고무옷’이다. 표선면 지역의 해녀들은 물질 도구를, 해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녀 탈의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물질 도구를 접하기 어려웠는데, <사진 1>은 드물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고무옷’이다.

“아이고, 속곳 오래 입었어, 고무옷. 그 고무옷 나건 딘 막 오랫주게. 젠디 비싸니까 놈이 입단 거 빌어근에 입고 영허멍 혜신디 고무옷 입건 디 멧 년 안 됐어. 우리 막내가 이제 마흔 으답인가 쉰 달 됨서. 게난 가이 큰 후제 우리가 고무옷 입으난 한 삼십 년. 이레 고무옷 늦게 입었어. 딴 디 입언 딱 멧 년 후에 여기 입었어. 막 늦게 입었어, 동촌보단.”¹⁵⁾

15)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아이고, ‘속곳’ 오래 입었어, ‘고무옷’. 그 ‘고무옷’ 난 지는 아주 오랬지. 그런데 비싸니까 남이 입던 거 빌려서 입고 그러면서 했는데 ‘고무옷’ 입은 지 몇 년 안 됐어. 우리 막내가 이제 마흔여덟인가 싶다 되고 있어. 그러니까 개 큰 후에 우리가 ‘고무옷’ 입으니까 한 삼십 년. 이리 ‘고무옷’ 늦게 입었어. 다른 데 입고 아주 몇 년 후에 여기 입었어. 아주 늦게 입었어, ‘동촌’보다는.)

“저 고무옷 입건 디가 멧 설 때쯤에 입어져신고? 고무옷 입영 물질 하영 헷주. 경허난 고무옷, 고무옷이 훈 서른, 서른 넘언 입어져실 거라.”¹⁶⁾

(저 ‘고무옷’ 입은 지가 몇 살 때쯤에 입었는지? ‘고무옷’ 입고 물질 많이 했지. 그러니까 ‘고무옷’, ‘고무옷’에 한 서른, 서른 넘어 입었을 거야.)

하천리 강희숙 씨의 구술에 의하면, 하천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고무옷’을 늦게 입었다고 한다. 강 씨는 지금 마흔여덟인 막내가 자란 후에 입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또 표선리 박봉화 씨는 서른 넘어서 ‘고무옷’을 입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사진 2> 송무웅 씨 소장 ‘고무옷’



<사진 3> 강순자 씨 소장 ‘고무옷’

<사진 2>는 토산리 송무웅 씨(1943년생) 아내 안춘자 씨의 ‘고무옷’이고, <사진 3>은 세화리 강순자 씨(1940년생)의 ‘고무옷’으로 강 씨가 물질을 다녀온 뒤 옷을 갈아입고 나서 해녀 탈의장 앞에 널어놓은 모습이다.

“그건 고무 모자, 이제사 산 거, 눈이영.”¹⁷⁾

(그건 ‘고무 모자’, 이제야 산 거, 물안경이랑.)

16)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17)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사진 4> 현옥선 씨 소장 '고무 모자'



<사진 5> 강순자 씨 소장 '고무 모자'

<사진 4>는 표선리 현옥선 씨가 '고무옷'과 함께 착용하는 '고무 모자'다. 현 씨는 물안경과 이 '고무 모자'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한다. <사진 5>는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고무 모자'다. '고무옷'을 입고 나서 '고무 모자'를 쓰고 나면 몸 전체가 잠수복으로 감싸게 되고 얼굴 부분만 트이게 된다.

(3) 눈

'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을 가리킨다. '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 해녀들이 사용하고 있는 '눈'은 렌즈가 크게 하나로 되어 있고 고무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고무눈'이라고 한다. 예전에 사용했던 '눈'은 양쪽으로 두 개의 작은 렌즈에, 테두리가 쇠로 된 것으로 '족은눈'이라고 한다. 이 '족은눈'과 대비하여 큰 렌즈의 물안경은 '큰눈'이라 불렀다. '고무눈'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안경의 테두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었다.

“우리 집사름 처녀 때부터 쓰던 거야. 저거 아마도 한 번 육십 년, 육십 년 넘었어. 눈 두 개 한 거, 그거는 애들 저런 거 쓰기 전에, 한 열 살 미만 애들 그 바다에 가서 연습, 그때부터 연습하는 거지, 해녀. 거 쓰고 헤엄치고. 저건 큰눈이주. 집사람 고무눈 안 썼지. 저걸로 해녀 설러분 지가. 결혼해서 애들 낳기 시작하니까 안 했어. 고무옷도 안 입곡.”¹⁸⁾

(우리 집사람 처녀 때부터 쓰던 거야. 저거 아마도 한 번 육십 년, 육십 년 넘었어. 눈 두 개 한 거, 그거는 애들 저런 거 쓰기 전에, 한 열 살 미만 아이들 그 바다에 가서 연습, 그때부터 연습하는 거지, 해녀. 그거 쓰고 헤엄치고. 저건 '큰눈'이지. 집사람 고무눈 안 썼지. 저걸로 해녀 그만둔 지가. 결혼해서 애들 낳기 시작하니까 안 했어. '고무옷'도 안 입고.)

18)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6> 강기수 씨 소장 ‘눈’



<사진 7> 강기수 씨 소장 ‘눈’ (안쪽)

<사진 6>은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 아내인 김정자 씨가 사용했던 ‘눈’이다. 강 씨의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물질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고무옷’이 나오기 전, ‘속곳’을 입고 물질하던 시기에 사진의 ‘큰눈’을 쓰고 물질했다. <사진 6>, <사진 7>의 ‘큰눈’은 테두리가 쇠로 되어 있다.

“빨간 것도 쓰고 이것도 쓰주만은 좀 널리 보이거든. 옛날엔 요만큼한 거 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거 족은눈. 그거 허단 큰눈. 이거는 한 2, 3년 됐지. 그전에는 빨간 눈. 또 그전에는 쇠로 만든 거 이렇게. 아이고, 우리 스물다섯 살 때쯤 그런 거 써낫어.”¹⁹⁾

(빨간 것도 쓰고 이것도 쓰지만 좀 넓게 보이거든. 옛날은 요만큼한 거 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거 ‘족은눈’. 그거 하다가 ‘큰눈’. 이거는 한 2, 3년 됐지. 그전에는 빨간 ‘눈’. 또 그전에는 쇠로 만든 거 이렇게. 아이고, 우리 스물다섯 살 때쯤 그런 거 썼었어.)



<사진 8> 강순자 씨 소장 ‘눈’



<사진 9> 현옥선 씨 소장 ‘눈’

19)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사진 8>은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했던 ‘눈’이고, <사진 9>는 표선리 현옥선 씨가 사용하고 있는 ‘눈’이다. <사진 9>는 최근에 나온 물안경으로 현 씨가 사용한 지 2, 3년 정도 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위 사진처럼 하나의 큰 렌즈에 고무 테두리로 되어 있는 물안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눈’이 나오기 전에는 안경처럼 작은 렌즈 두 개로 되어 있는 ‘족은눈’을 썼었다. 물안경의 테두리도 지금은 모두 고무로 되어 있지만 19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쇠로 되어 있는 ‘눈’을 사용했다.

“쳇 번은 요런 족은눈 썻단 이제 허썰 커가난 이젠 큰눈 썻주.”²⁰⁾

(첫 번은 요런 ‘족은눈’ 썼다가 이제 조금 커가니까 이젠 ‘큰눈’ 썼지.)

“족은눈 쓰단에 큰눈 썬 얼마 엊언 설러 부난. 그땐 큰눈도 이디 췄로 텐 거. 큰눈은 항굴레 이추룩 다 보이는.”²¹⁾

(‘족은눈’ 쓰다가 ‘큰눈’ 쓰고 얼마 없어서 (물질) 그만둬 버리니까. 그때는 ‘큰눈’도 여기 쇠로 된 거. ‘큰눈’은 ‘항굴레’ 이처럼 다 보이는.)

“큰눈도 요번에사 나왔주. 큰눈 나오건 디 오래지 안허연. 이만이 널른 거 안 나와낫주, 우리 헐 땐. 경허다가 우리 설르자마자 헐 때 그 큰눈이 나왔어. 게난 그거 쓰민 봐도 이 사방 다, 이 방 안 주변 다 비춰.”²²⁾

(‘큰눈’ 요번에야 나왔지. ‘큰눈’ 나온 지 오래지 않았어. 이만큼 넓은 거 안 나왔었지, 우리 할 때는. 그러다가 우리 그만두자마자 할 때 그 ‘큰눈’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쓰면 봐도 이 사방 다, 이 방 안 주변 다 비춰.)

토산리 정복순 씨의 구술에 의하면 위 사진의 큰 렌즈로 되어 있는 물안경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삼십 대 중반까지 물질을 한 정복순 씨는 자신이 물질을 그만둘 때쯤 지금의 모양으로 된 물안경이 나왔다고 한다. 정 씨는 그 물안경의 모양을 군대에서 사용했던 취사용 도시락통인 ‘항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항굴레’라고 표현하고 있다.

20)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21)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22)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4) 연철

‘연철’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허리에 차는 것이다. 고무옷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물위로 떠서, 물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해녀들은 묵직한 ‘연철’을 허리에 차고 물에 들어간다.

“그 고무옷이라부난에 떠 불 거난에 무겁게, 무겁게 들어가렌. 연철 차는 무게도 사람마다 튼나주게. 그뜨게 안 찬다. 나가 예를 들영 오 키로 차민 진 이 키로로 찰 수 잇곡 칠 키로도 찰 수 잇곡.”²³⁾

(그 고무옷이어서 떠 버릴 거니까 무겁게, 무겁게 들어가라고. ‘연철’ 차는 무게도 사람마다 다르지. 같게 안 차. 내가 예를 들어서 오 킬로그램 차면 자기는 이 킬로그램 찰 수 있고 칠 킬로그램도 찰 수 있고.)

“건 연철. 그거를 차야 고무옷 입으니까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갈 거. 그냥은 못 들어가. 못 내려가. 고무옷 입으니까 우트레 터 비여. 그거 육 키로 들어, 육 키로 오 백. (사람마다 무게가 튼나는 거?) 으, 뜯나주게. 속곳 입을 땐 그대로 들어갔어.”²⁴⁾

(그건 ‘연철’. 그거를 차야 고무옷 입으니까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갈 거. 그냥은 못 들어가. 못 내려가. 고무옷 입으니까 위로 떠 버려. 그거 육 킬로그램 들어, 육 킬로그램 오 백. (사람마다 무게가 다른 거?) 으, 다르지. ‘속곳’ 입을 때는 그대로 들어갔어.)



<사진 10> 강순자 씨 소장 ‘연철’

<사진 10>은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는 ‘연철’이다. ‘연철’은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게 되면서 착용하게 도구다. 표선리 박봉화 씨, 세화리 강순자 씨의 구슬에서처럼 사람에 따라 ‘연철’ 무게가 다르다. <사진 10>의 ‘연철’은 6.5kg의 무게라고 한다.

2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슬.

24) 세화리 강순자 씨 구슬.

(5) 귀막이

‘귀막이’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물건으로 ‘귀마개’를 말한다. 요즘에는 합성 고무 등으로 만든 잠수용 귀마개가 나오지만, 그전에는 꿀벌의 밀랍을 귀마개로 사용했다.

“난 귀 안 막안 해연. 그거 허는 사름은 그 밀로. 밀이 그거 무시거닌 허민 저 벌꿀 그거 허는 것에 나오는 거주게. 귀 안 막아도 무시거 안핸게이, 원 밀 안 막망 해나부난 것산디 귀막안, 나.”²⁵⁾

(난 귀 안 막고 했어. 그거 하는 사람은 그 밀로. 밀이 그거 무엇이냐고 하면 저 벌꿀 그거 하는 것에 나오는 거지. 귀 안 막아도 어떻게 않더니, 원 밀 안 막고 해서 그런지 귀먹었어, 나.)

“귀막이 옛날엔 밀로 헤난 거. 밀, 기자 그거 옛날에 밀로, 밀로 헨에 귀마길 헤나신디. 요즘은 거, 거기 뭐야 파는 걸로 헤근엥에 헤여. 파는 거 촐후. 아이덜 만드는 거, 찰후. (삼촌 항상 귀마기를 헤나수꽈?) 아니, 안 헤나신디 늙어가니까 막 귀 땅기고, 막 귀에서 소리 나고 허난 귀막이 험 시작행. (밀 헐 때는 안 했었구나?) 으, 이런 거 나사.”²⁶⁾

(귀마개 옛날에는 밀로 했던 거. 밀, 그저 그거 옛날에 밀로, 밀로 해서 귀마개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거, 거기 뭐야 파는 걸로 해서 해. 파는 거 찰흙. 아이들 만드는 거, 찰흙. (삼촌 항상 귀마개를 했었습니까?) 아니, 안 했었는데 늙어가니까 마구 귀가 당기고, 마구 귀에서 소리 나고 하니까 귀마개 하기 시작했어. (밀 할 때는 안 했었구나?) 으, 이런 거 나야.)



<사진 11> 세화리 강순자 씨 소장 ‘귀막이’

<사진 11>은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귀막이’다. 강 씨는 물안경을 넣어 보관하는 플라스틱 통에 ‘귀막이’를 같이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강 씨는 예전에는 ‘귀막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계속 물질을 하면서 귀가 아파서 ‘귀막이’를 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진 11>의 ‘귀막이’는 아이들이 찰흙 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합성 고무로 만들어진 점토다. 표선리 박봉화

씨, 세화리 강순자 씨의 구술에 의하면 예전의 ‘귀막이’는 벌꿀의 밀을 이용해서 만들어

25)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26) 세화리 강순자 씨 구술.

사용했다고 한다. 박봉화 씨는 물질할 때 ‘귀막이’를 착용하지 않아 지금 귀가 잘 안 들리지 않는 것 같아면서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5.2. 테왁과 망사리

(1) 테왁

‘테왁’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이 ‘테왁’에는 ‘망사리’를 매달아 채취한 해산물을 ‘망사리’에 넣는다. 물질할 때 ‘테왁’을 가지고 가서 바다에 띄워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고 물위로 올라오는 것을 반복하며 작업을 한다. 이때 테왁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테왁에 닻돌을 매달아 두기도 한다.



<사진 12> 강순자 씨 소장 ‘테왁’

<사진 12>는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테왁’이다. 조사자들이 강순자 씨를 만난 것은 강씨가 물질을 하고 난 후였는데, ‘테왁’의 망사리가 젖어 있었다. 현재는 어느 지역이나 해녀들이 모두 <사진 12>와 같은 ‘테왁’을 이용하고 있다.

“이거 테왁 아니야, 테왁. 바다에서 해녀 써난 거.”²⁷⁾

(이거 ‘테왁’ 아니야, ‘테왁’. 바다에서 해녀 썼던 거.)

현재 해녀들은 모두 <사진 12>와 같은 ‘테왁’을 이용하고 있는데 스티로폼이나 나일론이 나오기 전에는 박과 억새 줄기를 이용해 ‘테왁’을 만들어 사용했다. 또 ‘테왁’을 만들 용도로 박을 직접 기르기도 했다.

27) 성읍리 한사율 씨 구술.

“시방 벼국이 엇일 때난 콩집이서 길화 가지고 요만, 어릴 때는 요만이하고 좀 커 가민 또 요만이 좀 크게 허고 그렇게 행.”²⁸⁾

(시방 ‘벼국’이 없을 때니까 박 집에서 길러 가지고 요만, 어릴 때는 요만하고 좀 커 가면 또 요만큼 좀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테왁 저 콩 잊지 아녀? 콩 그거 헤근에 고망 요만큼 뜰라근에 이제 그 무시거로 그 씨를 파내여. 파내지 안허민 무거왕 못 뎅기난. 무시거 파내는 거 잊어. 영 영 돌르민 파내는 거 잊어. 경혜영 파내민 그거 헤근에 영 털어 가민 그게 다 나와, 씨가. 경허민 그디 이제 벼국이로 막아. 경혜여근에 이제 물 아니 들어가게 가사리로, 무슨 찐닥찐닥한 걸로 헤근에 에염에 돌아가명 고물 녹영 막았든 아멩햇든 그 물을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경행 그것에 이제 미로, 억새 껍데기로 헤여근에 노 꼬아. 이젠 그 테왁을 이젠 저 어드레 들아나지 안허게시리 그걸 엉과살 거 아니라.”²⁹⁾

(‘테왁’ 저 박 있지 않니? 박 그거 해서 구멍 요만큼 뚫어서 이제 그 무엇으로 그 씨를 파내. 파내지 않으면 무거워서 못 다니니까. 뭐 파내는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도려내면 파내는 거 있어. 그렇게 해서 파내면 그거 해서 이렇게 털어 가면 그게 다 나와, 씨가. 그러면 거기 이제 ‘벼국이’로 막아. 그래서 이제 물 안 들어가게 가사리로, 무슨 끈적끈적한 것으로 해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고무를 녹여서 막든 아무랬든 그 물을 안 들어가게 만들어야. 그래서 그것에 이제 미로, 억새 껍데기로 해서 노 꼬아. 이젠 그 ‘테왁’을 이젠 저 어디 달아나지 않게 그걸 엉구워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영 고냥 뜰라근에. 그 씨 문 파베 둉. 씨 문딱 쑥데경 파베 뒤근에 굼기 막아근에, 그디 메꾸아근에이. 여기 물 안 들어가게. 무시거 초라도 녹여근에 블랑 물 안 들어가게시리. 물 안 들어가사만 둉둥 뜰 거난.”³⁰⁾

(그거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 씨 모두 파버려 두고. 씨 모두 휘저어서 파버려 두고 구멍 막아서, 거기 메꿔서. 여기 물 안 들어가게. 뭐 초라도 녹여서 발라서 물 안 들어가게. 물 안 들어가야만 둉둥 뜰 거니까.)

제보자의 구술을 토대로 ‘박’을 활용해 테왁을 만드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순서와 같다. 먼저 박을 길러 테왁을 만들기에 적당한 것을 고르면, 박에 구멍을 뚫어 박 안에 들어있는 씨를 깨끗이 제거한다. 박에 구멍을 뚫을 때는 씨를 도려낼 수 있는 크기로 오려내는 것으로 박이 잘 마르고 나서 씨를 잘 빼 두면 오렸던 부분을 다시 막는다. 구멍을 막을 때는 고무나 초 등을 녹여 잘 발라 구멍을 메워서 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8)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29)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30)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뎅기당 보민 까져 불주게, 거 콕박세기난. 잘못허민 돌러레 두드려병도 까지고. 저 요새 스트로폼 닮지 아녀난. 경허난 콕박세기 소망일민 혼 이 년 아져 뎅기고 경 안허민 일 년에 까져 불어. 또 소망일엉 막 잘허민, 쓰러지지나 안허민 한 삼 년도 뎅기고. 게난 거 까질 때까지. 거 콕박세기난 휘청거령 어드레 탁 쓰러져 베도 까질 거난. 잇당 물에질 가근에 씨러정 콕박세기 까져근에 물질 못 허영 돌아올 때도 싯고. 그거 연장이 엇이민 못 할 거난. 그게 배난에게.”³¹⁾

(다니다 보면 깨져 버리지, 그거 ‘콕박세기’니까. 잘못하면 돌에 두드려 버려서도 깨어지고. 저 요새 스트로폼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콕박세기’ 운이 있으면 한 이 년 가지고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일 년에 깨어져 버려. 또 운이 있으면 아주 잘하면, 쓰러지지나 않으면 한 삼 년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거 깨어질 때까지. 그거 ‘콕박세기’니까 휘청거려서 어디 탁 쓰러져 버려도 깨어질 거니까. 있다가 물질 가서 쓰러져서 ‘콕박세기’ 깨어져서 물질 못 해서 돌아올 때도 있고. 그거 연장이 없으면 못 할 거니까. 그게 배니까.)

‘테왁’은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테왁’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 어디에 부딪치거나 떨어뜨려서 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 토산리 정복순 씨는 박이 깨어져서 물질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 망사리

‘망사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채취한 해산물을 넣기 위해 만든 그물자루를 말한다. 지금은 나일론끈을 엮어 만들어 사용하는데, 나일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라고 부르는 억새의 줄기나 ‘신사라’라 부르는 뉴질랜드삼 등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망사리는 그때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살아 이신 때난에 저 거시기 억새이. 드르 어월, 억새. 뺑이가 나주게. 미빼젱이, 미빼젱이 그거 빠다근에 그거 미쁘젱이 피어 불지 안힌 때. 베에 담아정 이신 때, 경헌 때 미 강 빠다근에. 그거 이제 물류아근에 미빼젱이 문 빠베 둉 그거 두드령 우리 아바진. 그거 헤영 노 꼬아근에 망사리 만들았주게.”³²⁾

(망사리는 그때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살아 있을 때니까 저 거시기 억새. 들 억새, 억새. 뺑기가 나지. ‘미빼젱이’, ‘미빼젱이’ 그거 빠다가 그거 ‘미쁘젱이’ 피어 버리지 않을 때. 안에 담겨 있을 때, 그런 때 ‘미’ 가서 빠다가. 그거 이제 말려서 ‘미빼젱이’ 모두 빼 두고 그거 두드려서 우리 아바진. 그거 해서 노 꼬아서 망사리 만들었지.)

31)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32) 표선리 박봉희 씨 구술.

“망사리 뜻일 중 알아. 누게 해 줄 사람 업어, 난. 나냥으로. 미로만. 미가이 바닷물이 텅겨도 삭지 아녀고 좋아. 겨민 그거 이쁘게 허젠 허민 저 감 뽕아근에게 이제 그 감물 헤영 들이민 아주 좋아. 경행 허민 그 망사리 그 노꽃이 빈직빈직한 게 색깔 나고 아주 고와. 아주 이뻐. 경 우리 헤낫주.”³³⁾

(망사리 맷을 줄 알아. 누구 해 줄 사람 없어, 난. 다 나대로. ‘미’로만. ‘미’가 바닷물에 다녀도 삭지 않고 좋아. 그럼 그거 예쁘게 하려고 하면 저 감 뽕아서 이제 감물 해서 들이면 아주 좋아. 그렇게 하면 그 망사리 그 노끈이 반질반질한 게 색깔 나고 아주 고와. 아주 예뻐. 그렇게 우리 했었지.)

표선리 박봉화 씨는 아버지가 억새꽃이 피기 전 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뽑아다가 그것을 말리고 두드리며 손질하여 망사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또 토산리 정복순 씨는 망사리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억새 줄기가 바닷물에도 잘 삭지 않아 좋은데, 그것을 예쁘게 하기 위해 감물을 들이기도 했다고 한다.

“미 뽑아단, 그거 헤다근에 던드렁에 넣 뜻아근에 복삭하게 헤근에 그거 깨영. 경해근에 그거 이제 노 꼬아근에 망사리 만들앙 이젠.”³⁴⁾

(억새 뽑아다가, 그거 해다가 ‘던드렁’에 놔서 마아서 ‘복삭하게’ 해서 그거 깨서. 그래서 그거 이제 노 꼬아서 망사리 만들어서 이젠.)

“그 테왁 망사리를 억새에 그 껌데기로 노 꼳 거 헤영 망사릴 멘들 거주, 이제. 우장 모냥으로 맨들앙 이제 그 드레에낭 해당 요만인, 요만인헌 거 헤근에게 이젠 요기 테왁 돌아매고 그 알러렌 그 미로 꼳 망사리 돌아매고 헤근에게 그것가 망사리라.”³⁵⁾

(그 ‘테왁’ 망사리를 억새의 그 껌데기로 노 꼳 거 해서 망사리를 만든 거지, 이제. 우장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다래나무 해다가 요만한, 요만한 거 해서 이제는 여기 ‘테왁’ 달아매고 그 아래로는 그 억새로 꼳 망사리 달아매고 해서 그것이 망사리야.)

“망사리 남총 쓴 디도 있어. 남총 어려와. 신사라 쓰고, 신사라 여기 많이 썼주. 미 허단에 그다음 신사라 쓴. 남총은 어려와.”³⁶⁾

(망사리 종려나무 쓴 데도 있어. 종려나무 어려워. 뉴질랜드삼 쓰고, 뉴질랜드삼 여기 많이 썼지. 억새 하다가 그다음 뉴질랜드삼 썼어. 종려나무는 어려워.)

33)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34)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35)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36)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망사리의 주요 재료는 억새다. 억새의 꽃이 피기 전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줄기를 뽑아다가 그것을 장만하여 망사리를 짜서 사용했다. 억새뿐만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남총(종려나무)’의 줄기나 ‘신사라(뉴질랜드삼)’도 망사리를 만드는 좋은 재료였다.

“(그런 망사리를 언제까지 썻어?) 우리 감태 할 때도 망사리 만들안 헷주. 우리 감태 할 때 걸망 만들았수궤, 것그라 걸망이렌 헤. 훑은 거. 이렇게 좀진 거는 망사리, 코가 훑은 건 걸망. 걸망 우리 그때 감태 할 때 만들앙 헷어양? 걸망 만들앙 헷주. 산디칙으로게 만들아근에 혜영 허단에 지금 신식 나왔는 게, 지금 나일론 망사리가 연도는 모르고 언제나 하면, 전분공장에 마대, 마대로 헷어. 마대를 사용하다가, 오래 사용햇주. 오래 사용하다가 지금 나이롱이 나왔어, 망사리. 거 나오니까 거 해녀덜이 그걸로 망사리 헌 거라.”³⁷⁾

((그런 망사리를 언제까지 썼어?) 우리 감태 할 때도 망사리 만들어서 했지. 우리 감태 할 때 ‘걸망’ 만들었지요, 그것보고 ‘걸망’이라고 해. 굵은 거. 이렇게 자질한 거는 망사리, 코가 굵은 건 ‘걸망’. ‘걸망’ 우리 그때 감태 할 때 만들어서 했지요? ‘걸망’ 만들어서 했지. 밭벗짚으로 만들어서 해서 하다가 지금 신식 나온 게, 지금 나일론 망사리가 연도는 모르고 언제나 하면, 전분공장에 마대, 마대로 헷어. 마대를 사용하다가, 오래 사용했지. 오래 사용하다가 지금 나일론이 나왔어, 망사리. 그거 나오니까 그거 해녀들이 그걸로 망사리 한 거야.)

망사리 외에 해초를 담을 때 사용할 용도로 구멍을 성글게 하여 짠 망사리를 ‘걸망’이라고 불렀다. 한창 감태를 채취하던 시기에 망사리만으로는 부족해서 채취한 감태를 옮겨 담을 수 있는 ‘걸망’을 만들어 사용했다.

“테왁 어음. 거 드렛줄이엔 헌 거, 드렛줄.”³⁸⁾

(‘테왁 어음’, 그거 다래나무의 줄기라고 하는 거, 다래나무 줄기.)

37)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38)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3> 강윤평 씨 소장 ‘어음’

테왁의 망사리 테두리에 두른 훌라후프 모양의 나무를 ‘어음’이라고 한다. <사진 13>은 하천리 강윤평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어음’이다. 강 씨의 아내가 사용했던 것인데 강 씨가 다래나무의 줄기로 만든 것이다.

“어음도 어디 산에 가근에게 둘레낭, 드렛줄인가 무시거 헤다근에 무꺼근에 마당에 이젠 그거 덩드렁 헤영 지둘랑, 그추룩 행 만들아근에.”³⁹⁾

(‘어음’도 어디 산에 가서 다래나무, 다래나무 줄인가 무엇 해다가 묶어서 마당에 이제 그거 ‘덩드렁’ 해서 지질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음, 그 옛날에는 드릿줄이엔 허멍 막 질긴 거, 사레 강 곳이 강 헤다근에 이치룩 행 꼬부려근엔 만들아근에 그것에 망사리 들앙 헷주케.”⁴⁰⁾

(‘어음’, 그 옛날에는 아랫줄이라고 하면서 아주 질긴 거, 사레 가서 숲에 가서 해다가 이처럼 해서 꼬부려서 만들어서 그것에 망사리 달아서 했지.)

“어음이엔 골았주. 드레 어음, 강 드렛낭 어음 헤 와사 망사리 멘들컬, 멘들컬 경 골아나신디. 그거 젖은 때 그디 끄치멍 영 휘와근에 그디 정당줄을 그창 허든지 노끈을 허든지 헤영 영 헤영 이추룩 헤영 줄라메사 그게 뛰주. 꼬짝현 후젠 불에 구나 어떻 헤사 오그라지주, 경 안허민 안 오그라져. 젖을 때, 그치멍싸라 그 모냥을 멘들아야.”⁴¹⁾

(‘어음’이라고 말했지. 다래 ‘어음’, 가서 다래나무 가서 ‘어음’ 해 와야 망사리 만들 텐데, 만들 텐데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거 젖었을 때 거기 끊으면서 이렇게 휘게 해서 거기 댕댕이딩굴 잘라서 하든지 노끈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처럼 해서 잘라해야 그게 되지. 곧게 (마른) 후에는 불에 굽거나 어떻게 해야 오그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오그라져. 젖었을 때, 자르면서 바로 그 모양을 만들어야.)

39) 하천리 송영선 · 강희숙 씨 구술.

40) 세화리 강순자 씨 구술.

41)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테왁’에 사용할 어음은 보통 다래나무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위의 구술에서 보듯이 산에서 다래나무를 하고 오면 나무가 마르기 전에 <사진 13>처럼 동그랗게 둑어 두어야 한다. 다래나무에 마른 후에는 불에 구우면서 구부려야 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기 전에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3) 조락

‘조락’은 작은 그물주머니를 말한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 외로 별도의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물에 드는데, 거기에 전복이나 해산, 문어 따위의 해산물을 넣는 용도로 사용한다.

“거는 조락. 신발 넣 뎅기는 거. 전복두 잡아 놓고, 해섬도 잡아 놓고 헷주.”⁴²⁾

(그거는 ‘조락’. 신발 넣고 다니는 거. 전복도 잡아 넣고, 해삼도 잡아 넣고 했지.)



<사진 14> 강순자 씨 소장 ‘조락’



<사진 15> 강순자 씨 소장 ‘테왁’에 달린 ‘조락’

<사진 14>와 <사진 15>는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조락’이다. <사진 15>는 테왁에 달려 있는 것으로 현재도 계속 물질할 때 이용하고 있다. 이 ‘조락’에 전복이나 해삼 등을 잡으면 넣는데, 강 씨는 물가에서 신는 신발을 물질할 때 여기에 넣어 둔다고 한다.

42) 세화리 강순자 씨 구술.

5.3. 채취 도구

(1) 호미와 호멩이

‘호미’와 ‘호멩이’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호미’는 미역이나 톳을 캘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낫’을 가리키고, ‘호멩이’는 성게나 소라 등을 채취할 때 쓰는 ‘호미’를 말한다. 바닷일에 사용하는 ‘호멩이’를 ‘골각지’, ‘골갱이’라 부르기도 한다.

“메역 철엔 호미 아정 가주만은 메역 철 아닌 땐 호미 안 가정 가곡.”⁴³⁾

(미역 철에는 낫 가지고 있지만 미역 철 아닐 때는 호미 안 가지고 가고.)

물질할 때 작업 도구는 무엇을 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창’은 전복을 캐는 용도로, ‘골갱이’는 소라나 성게 등을 캘 때 사용한다. 미역을 캘 때는 ‘호미’가 필요하다. 미역을 캐는 시기에는 ‘호미’를 들고 물에 들었다.

“지금은 발달되니까 메역 끈는 호미가 잘도 쪼그만헌디 옛날에는 그자 큰 호미 가정 다녔어. 이만이헌 거. 뱃디 강 쓰단 물질허단 또 뱃디 강 쓰단 헷주게.”⁴⁴⁾

(지금은 발달되니까 미역 끊는 낫이 아주 조그마한데 옛날에는 그저 큰 낫 가지고 다녔어. 이만한 거. 밭에 가서 쓰다가 물질하다가 또 밭에 가서 쓰다가 했지.)

“(미역 비는 호미는 뱃디서 쓰는 호미?) 어, 뱃디서 쓰는 호미게. 그거 굽아. 신돌로 굽양 누슬게 혜영. 경허난 물이 이레 갔다 저레 갔다 안 허여? 그 메역 알로 가근에 술 허게시리 행 영 영 안양 이젠 그걸 영 영 그차사. 경행 이레 걸쳐지게 경행 ㅊㅊㅊㅊ 걸쳐져 가민 영 이렇게 혜사 메역이 안 돌아날 거 아니? 바닷물이 이레 갔다 저레 갔다. 경혜영 탁 허게끔 이 주변에 거 다 그차지민 영혜영 안양 올라와.”⁴⁵⁾

((미역 베는 낫은 밭에서 쓰는 낫?) 어, 밭에서 쓰는 낫이지. 그거 같아. 숫돌로 갈아서 날카롭게 해서. 그러니까 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안 해? 그 미역 아래로 가서 살짝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안아서 이제는 그걸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그래서 이리 걸쳐지도록 차차차차 걸쳐져 가면 이렇게 해야 미역이 안 달아날 거 아니? 바닷물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탁 하게끔 이 주변의 거 다 자르면 이렇게 안아서 올라와.)

43)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44)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45)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미역을 캐는 ‘호미’는 바닷일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밭일을 할 때 사용하던 호미를 가지고 가서 바닷일을 하였고, 다시 그것을 밭일할 때 사용했다.

“거 조개 골각지. 조개 골각진디, 성기도 파곡계.”⁴⁶⁾

(그거 조개‘골각지’ 조개‘골각지’인데, 성계도 파고.)

“거 호멩이 지금 바다에 가정 다니는 거. 호멩이, 호멩이. 이거 태어나난 호멩이, 일름이 호멩이라. 골각지는 겹질메는 게 골각지고. 이건 막 몽글아, 부려먹어 부난. 이건 겹질메는 골갱이가 아니고 바다에 성계도 잡고 문어도 잡고 허는 호멩이. 옛날엔 이거 안 나왔어. 나오건 디 혼 삼사십 년 됐주, 뭐. 옛날엔 그냥 골갱이로 썼어.”⁴⁷⁾

(그거 ‘호멩이’ 지금 바다에 가지고 다니는 거. ‘호멩이’, ‘호멩이’. 이거 태어나니까 ‘호멩이’, 이름이 ‘호멩이’야. ‘골각지’는 김매는 게 ‘골각지’고. 이건 아주 닳아, 마구 부리니까. 이건 김매는 호미가 아니고 바다의 성계도 잡고 문어도 잡고 하는 ‘호멩이’. 옛날에는 이거 안 나왔어. 나온 지 한 삼사십 년 됐지, 뭐. 옛날에는 그냥 호미로 썼어.)



<사진 16> 강순자 씨 소장 ‘골각지’



<사진 17> 정여옥 씨 소장 ‘호멩이’

‘골갱이’를 제보자에 따라 ‘골각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화리 강순자 씨는 ‘골각지’라 부르는데, <사진 16>은 세화리 강순자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골각지’다. 끝에 고무줄을 묶어 물속에 들어갈 때 고무줄을 손목에 둘러 호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했다. 표선리 정여옥 씨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밭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분했는데 바닷일을 할 때 것을 ‘호멩이’라고 불렀다. <사진 17>은 표선리 정여옥 씨가 보관하고 있는 ‘호멩이’다.

46) 세화리 강순자 씨 구술.

47)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2) 비창

‘비창’은 해녀들이 전복을 캘 때 사용하는 도구다. 쇠로 된 기다란 모양의 도구로, 자루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 거기에 끈이나 고무줄 따위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창’의 ‘비’는 전복이라는 의미로, ‘비창’은 ‘전복을 캐는 창’이라는 의미다.

“(무사 비창에 영 고무줄을 돌아멘신고예?) 그거 해사 일러불지 안허주게. 손에 영 끼와근에 해여 놓 올라올 때 영 풀에 걸어근에 올라오믄게. (물에 들어갈 때) 허리에 차, 허리에 창 들어갔당 전복이나 봐지믄 그거.”⁴⁸⁾

((왜 ‘비창’에 이렇게 고무줄을 달아매나요?) 그거 해야 잃어버리지 않지. 손에 이렇게 끼워서 해 놓고 올라올 때 이렇게 팔에 걸어서 올라오면. (물에 들어갈 때) 허리에 차, 허리에 차서 들어갔다가 전복이나 보게 되면 그거.)



<사진 18> 강순자 씨 소장 ‘비창’



<사진 19> 홍순이 씨 소장 ‘비창’

<사진 18>은 세화리 강순자 씨, <사진 19>는 표선리 홍순이 씨(1952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비창’이다. ‘비창’ 끝에 고무줄이 묶여 있는데, 홍순이 씨는 고무줄을 손에 끼우면 ‘비창’으로 전복을 떼고 난 후 물위로 올라올 때 고무줄이 팔에 걸려 있기 때문에 ‘비창’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비창 거 생복 떼는 비창, 그거 영 허리에 창 들어가. 이 속곳 허리에, 저 속곳 곰에 벵벵 감아. 여라 번 감아야 빠지지 아낼 거.”⁴⁹⁾

(비창 그거 생복 떼는 비창, 그거 이렇게 허리에 차서 들어가. 이 ‘속곳’ 허리에, 저 ‘속곳’ 고름에 벵벵 감아. 여러 번 감아야 빠지지 않을 거.)

48)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49)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토산리 정복순 씨는 전복을 떼는 데 사용하는 ‘비창’은 허리에 차고 물에 들어간다고 한다. ‘속곳’의 허리를 두른 끈에 ‘비창’을 뱕뱅 감으면 빠지지 않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한다.

(3) 소살

‘소살’은 해녀들이 물에 들어 고기를 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작대기 끝에 뾰족한 쇠꼬챙이를 박아 만든다. 표준어로는 ‘작살’인데, 제보자들은 ‘소살’이라고도 하고 ‘작살’이라고도 불렀다.

“소살은 그냥 저 테왁에 찔러. 거 찔렁 내불고. 겐 궤기나 영 뎅기당 봐지민 그거 빠근에 영 맞추앙. 그것도 맞춤 힘들어, 발르게 맞춤도, 소망일민 혼 번에 탁 맞고 경 안 허민 빼치고. 나도 궤기 잘 쏘아져.”⁵⁰⁾

(작살은 그냥 저 ‘테왁’에 찔러. 그거 찔러서 내버리고. 그래서 고기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이면 그거 빼서 이렇게 맞춰. 그것도 맞추기가 힘들어, 바르게 맞추는 것도,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탁 맞고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고. 나도 고기 잘 쏠 수 있어.)

“소살 있어. 이렇게 저 저 무시거 깔쿠리 닮은 거 있어. 쇄로 멘든 거. 세 개도 나온 거 있고, 두 개도 나온 거 있고. 세 개짜리가 좋아. 그거 저 왕대 막뎅이 이디서 그디 만이헌 지러기 헤근에게 이디 고무줄 달련. 고무줄 달령 영 궤기 봐지민 이렇게 늘뢰근에 쏘민 직통 맞을 때도 있고, 또 허쏠 비청 못 맞을 때도 있고 경허여. (게민 그걸로 무슨 궤기를 잡아 봄디가?) 우력 그튼 거, 저 무시거니 저 고막우력 그튼 거, 돌우력 그튼 거 저 뭐니 벤자리.”⁵¹⁾

(작살 있어. 이렇게 저 저 무엇 ‘깔쿠리’ 같은 거 있어. 쇄로 만든 거. 세 개도 나온 거 있고, 두 개도 나온 거 있고. 세 개짜리가 좋아. 그거 저 왕대 막대기 여기서 거기 만한 길이 해서 여기 고무줄 달렸어. 고무줄 달려서 이렇게 고기 보이면 이렇게 늘려서 쏘면 직통 맞을 때도 있고, 또 조금 빗나가서 못 맞을 때도 있고 그래. (그럼 그걸로 무슨 고기를 잡아 보셨습니까?) 우력 같은 거, 저 뭐니 저 ‘고막우력’ 같은 거, ‘돌우력’ 같은 거 저 뭐니 벤자리.)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물고기를 쏘아 잡는 ‘소살’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소살’은 테왁에 찔러 두었다가, 적당한 물고기가 보이면 그것을 빼서 사용했다. ‘소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토산리 정복순 씨는 자신이 물고기 쏘기를 잘했었다고 한다.

50)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51)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5.4. 기타 도구

(1) 첨대와 낚시찌

‘첨대’는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낚싯대’를 말한다. 주로 긴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거 첨대. 멜우력도 나끄곡 어랭이도 나끄곡 부들락도 나끄고.”⁵²⁾

(이거 첨대, ‘멜우력’도 낚고 어랭놀래기도 낚고 베도라치도 낚고.)



<사진 20> ‘첨대’를 들고 있는 송영선 씨

<사진 20>은 낚시할 때 사용하는 ‘첨대’를 들고 서 있는 하천리 송영선 씨(1942년생)다. 송 씨는 사진의 ‘구덕’을 메고 ‘첨대’를 들고 자주 낚시를 다니며, ‘멜우력’도 낚고 어랭 놀래기, 베도라치 등도 낚았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요즘은 뭐 거 뭐 요렇게 훈 낚시대 나오니까 허주만은 옛날에는 저런 왕대, 왕대 가지고 다녔어.”⁵³⁾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거 뭐 이렇게 한 낚싯대 나오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저런 왕대, 왕대 가지고 다녔어.)

“줄은 그 미명씰, 무명씰로 저 꼬와 가지고. 줄 허곡. 옛날에 그 피 먹영 쓰는 거는 저 갈치, 갈치 나끄레 가는 갈치술 그튼 거. 그런 것에 피를 먹엿어. 배, 배로도 고기 나끄레 많이 다녔주. 옥돔도 나끄고, 조기도 나끄고. (이 동네에) 여기 저 어부덜이 몇 사람 살았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배로 저, 어부 헐 때에 우리는 가끔 그냥 부터 간 거지.”⁵⁴⁾

52)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53)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54)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줄은 그 무명실, 무명실로 저 꼬아서. 줄 하고. 옛날에 그 피 먹여서 쓰는 거는 저 갈치, 갈치 낚으러 가는 ‘갈치술’같은 거. 그런 것에 피를 먹였어. 배, 배로도 고기 낚으러 많이 나녔지. 옥돔도 낚고, 조기도 낚고. (이동네에) 여기 저 어부들이 몇 사람 살았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배로 저, 어부 할 때 우리는 가끔 그냥 붙어 간 거지.)

세화리 강기수 씨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왕대로 만든 낚싯대에 낚싯줄은 무명실을 꼬아서 사용했었다고 한다. 갈치를 낚는 낚싯줄인 경우는 질겨야 하는데, 그럴 때는 무명실에 피를 먹여서 실을 단단하게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강 씨도 가끔 어부인 동네 어른들을 따라 고기잡이를 다녔었다고 한다.



<사진 21> 홍순이 씨 소장 ‘낚시찌’

<사진 21>은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낚시찌’다. 홍 씨의 아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2) 질구덕과 어렝이구덕

‘질구덕’은 대오리를 걸어서 만든 바구니의 한 종류다. 제주에서는 대오리로 만든 바구니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는데, 바닷일에서는 해녀들이 물질 도구나 해산물을 넣어서 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를 ‘질구덕’, 물가에서 고등이나 게 등 해산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자그마한 바구니를 ‘출구덕’, 물고기를 잡을 때에 사용하는 것을 ‘어렝이구덕’ 등으로 불렀다.

“질구덕에 저이 옛날엔이, 바당에 해녀 탈의장이엔 혜영 집 잇주게. 옛날엔 엇엇주. 경허난 질구덕에 비창 놓곡 물속곳 놓고 눈 놓곡, 수경. 수경 놓곡 경해근에 테왁도 놓고 혜근에 물질 가.”⁵⁵⁾

(‘질구덕’에 저 옛날에는, 바다에 해녀 탈의장이라고 해서 집 있지. 옛날에는 없었지. 그러니까 ‘질구덕’에 ‘비창’ 넣고 ‘물속곳’ 넣고 물안경 넣고, 수경. 수경 넣고 그리고 ‘테왁’도 놓고 해서 물질 가.)

55) 표선리 박봉화 씨 구술.

“질구덕에 무시거 낭게기고 검질이고 그거 담양 테왁, 망사리 놓고 헹 경 가낫주게. 호미, 글갱이, 테왁 놓고 테왁 망사리. 그런 거 저 속곳, 소중이, 물적삼이엔 헌 거 있어. 그거 물적삼이엔 헌 거 그거 낳. 물수건 놓고. 눈 놓고, 호미 놓고, 글갱이 놓고. 검질이나 낭게기나 그런 거 낳 지영 가. 테왁 망사리 놓고 헹. 요새거치 무신 물옷이엔 허나 무신 고무옷 그런 땐, 그땐 엇인 때난. 고무옷 나건 디 얼마 오래엿어? 잘허민 훈 삼십 년쯤 웨나 헷주. 우린 삼십 년 전이 설러 분 거난에. 하나 굴루이 낳 가고. 또 여라 번 들고장 허민 두 개나 세 개 낳 가고. 거 물 들어근에 오랑 물르민 굽아입어사 불 초울 거난. 불턱에 오랑. 경허난 그거주.”⁵⁶⁾

(‘질구덕’ 뭐 나뭇가지며 검불이며 그거 담고 ‘테왁’, ‘망사리’ 놓고 해서 지고 갔었지. 낫, ‘글갱이’, ‘테왁’ 놓고 ‘테왁’ 망사리. 그런 거 저 ‘속곳’, ‘소중이’, ‘물적삼’이라고 하는 거 있어. 그거 ‘물적삼’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넣어서. ‘물수건’ 넣고, 물안경 넣고, 낫 넣고, 호미 넣고. 검불이나 나뭇가지나 그런 거 넣어서 지고 가. ‘테왁’ 망사리 넣고 해서. 요즘처럼 무슨 물옷이라고 하거나 무슨 ‘고무옷’ 그런 때는, 그때는 없을 때니까. ‘고무옷’ 나온 지 얼마 오래었어? 잘하면 한 삼십 년쯤 되거나 했지. 우린 삼십 년 전에 치워 버린 거니까. 하나 별도로 넣어서 가고, 또 여러 번 들고 싶으면 두 개나 세 개 넣어서 가고. 그거 물에 들었다가 나와서 마르면 갈아입어야 불 쥘 거니까. ‘불턱’에 와서. 그러니까 그거지.)

“지들커 담양 바당에 가는 질구덕에 이젠 저 검질이고 낭게기고 해영 담아근에 테왁 망사리 놓곡 해영 지영 강 물질해영 나오민 열 거 아니라게. 얼민 이제 그디서 불살뢰근에 초고, 초왕 또 뜻으민 또 들어가고 경허멍 이제 두 번 아니민 세 번 들었다 낫다 허영 이제 그거 매역 헹 나오민 그거 잔뜩 지여근에 이제 집이 오는 거라.”⁵⁷⁾

(땔감 담고 바다에 가는 ‘질구덕’에 이제는 저 검불이고 나뭇가지고 해서 담고 ‘테왁’ 망사리 넣고 해서 지고 가서 물질해서 나오면 추울 거 아니야. 추우면 이제 거기서 불살라서 찌고, 찌어서 또 따뜻하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 아니면 세 번 들었다가 나왔다가 해서 이제 그거 미역 해서 나오면 그거 잔뜩 지어서 이제 집에 오는 거야.)



<사진 22> 강순자 씨 소장 ‘질구덕’

해녀들은 물질을 갈 때 ‘질구덕’에 여러 물질 도구를 넣고 지고 다녔다. ‘호미’, ‘글갱이’를 넣기도 하고 갈아입을 ‘속곳’, ‘물적삼’을 넣기도 했다. 그리고 ‘테왁’과 땔감을 넣어 ‘질구덕’을 지고 물질을 갔다. 또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면 다시 그것을 구덕에 넣어서 지고 집에 돌아왔다.

56)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57) 토산리 정복순 씨 구술.

“저건 나 저 고기 나끄레 다닐 때 그 가서 고기 나끄던 구덕. 야이 이름은 송동바구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주. 요거는 승키구덕, 요거는 승키구덕. 요것보담 더 큰 것도 있어. 그거는 질구덕. 이거 출구덕이엥도 허고 승키구덕이엥도 허고 허여.”⁵⁸⁾

(저건 나 저 고기 낚으러 다닐 때 그 가서 고기 낚던 바구니. 애 이름은 ‘송동바구리’.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요거는 ‘승키구덕’, 요거는 ‘승키구덕’.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어. 그거는 ‘질구덕’. 이거 ‘출구덕’이라고도 하고 ‘승키구덕’이라고도 하고 해.)

“저거는 저 그 어디 여자덜 바다에, 바다에도 가근에 뭐 보말도 잡아 오곡 오분제기도 잡아 오곡. 바다에 갈 때도 쓰곡, 그 밧디 무슨 채소, 채소 뜯으러 갈 때도 가져가곡. 난 고기 나끄레 갈 때 저거 사용해난 거. 저 이 갯바위에서 이만씩헌 것덜, 어령이. 어령이바구리주, 어령이바구리.”⁵⁹⁾

(저거는 저 그 어디 여자들 바다에, 바다에도 가서 뭐 고등도 잡아 오고 오분자기도 잡아 오고. 바다에 갈 때도 쓰고, 그 밧에 무슨 채소, 채소 뜯으러 갈 때도 가져가고. 난 고기 낚으러 갈 때 저거 사용했던 거. 저 이 갯바위에서 이만큼한 것들, 어령놀래기. ‘어령이바구리’지, ‘어령이바구리’.)



<사진 23> 강기수 씨 소장 ‘송동바구리’



<사진 24> 강기수 씨 소장 ‘어령이바구리’

<사진 23>은 세화리 강기수 씨 집에서 사용했던 ‘송동바구리’다. 강 씨의 아내가 사용했던 것으로, 바다에 가서 ‘보말’을 잡거나 할 때 사용하는 ‘질구덕’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은 바구니다. 이런 바구니는 바닷일을 할 때, 밭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여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해산물을 채취하러 갈 때나 들에 채소를 캐러 갈 때 모두 사용했다. 강 씨는 이를 ‘송동바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승키구덕’, ‘출구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진 24>은 강 씨가 낚시 다닐 때 사용하는 바구니로, 강 씨는 ‘어령이바구리’라고 불렀다. ‘어령이’는 바닷고기 이름으로 ‘어령놀래기’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58)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59)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이거 어렝이구덕. 어렝이 나끄레 뎅길 때 이거 영 메영 뎅기는 거. 나 건 아니고 아방 꺼. 낚시 허레 갈 때 쓰는 거. 이제도 써.”⁶⁰⁾

(이거 ‘어렝이구덕’. 어렝놀래기 낚으러 다닐 때 이거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내 건 아니고 아버지 거. 낚시하러 갈 때 쓰는 거. 이제도 써.)

“이 구덕 혼 오십 년 됐주. 이거 동네 하르방이 만든 거 산 거주. 바당에 나갈 때마다 가는 거. 그냥 마중 갓당, 여기 거리가 멀어 노난이 차로, 나 오도바이 못 타부난 차로 계속 시꺼 가고 올 때 시꺼 오곡. 경행 가근에 이걸로 고기 나끄고.”⁶¹⁾

(이 구덕 한 오십 년 됐지. 이거 동네 할아버지가 만든 거 산 거지. 바다에 나갈 때마다 가는 거. 그냥 마중 갔다가, 여기 거리가 머니까 차로, 나 오토바이 못 타니까 차로 계속 실어 가고 올 때 실어 오고. 그래서 가서 이걸로 고기 낚고.)



<사진 25> 송영선 씨 소장 ‘어렝이구덕’

<사진 25>는 하천리 송영선 씨가 낚시 다닐 때 사용하는 ‘어렝이구덕’이다. 송 씨의 아내 강희선 씨는 ‘어렝이’를 낚으러 다닐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어렝이구덕’이라고 불렀다. 강 씨가 물질 갈 때, 남편인 송영선 씨도 자신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위해 같이 바다에 가는데 기다리는 동안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거는 할아버지가 바다에 고기 나끄레 다니는 바구리, 코셍이구덕. 할아버지가 바당에 고기 나끄레 갈 때.”⁶²⁾

(이거는 할아버지(남편)가 바다에 고기 낚으러 다니는 바구니, ‘코셍이구덕’. 할아버지가 바다에 고기 낚으러 갈 때.)

60)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61) 하천리 강희숙 씨 구술.

62) 표선리 현옥선 씨 구술.

“낚시 갈 때 헤난 거, 바구리.”⁶³⁾

(낚시 갈 때 했던 거, 바구니.)



<사진 26> 고경만 씨 소장 ‘코셍이구덕’



<사진 27> 양일선 씨 소장 ‘바구리’

<사진 26>은 표선리 고경만 씨가 사용하고 있는 바구니고, <사진 27>은 하천리 양일선 씨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바구니다. 모두 낚시를 다닐 때 사용하는 것으로 고 씨의 아내 현옥선 씨는 이것을 ‘코셍이구덕’이라고 불렸고, 양 씨는 ‘바구리’라고 불렀다. ‘코셍이’는 바닷물고기 ‘고생놀레기’의 제주어고, ‘구덕’과 ‘바구리’는 ‘바구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3) 통발과 뜰채

‘통발’은 그물 따위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도구다. 물고기 따위를 잡을 때도 그물을 사용했고, 그것을 물속에 넣어 보관할 때도 사용했다. ‘뜰채’는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다.

“그건 고기 나까근에 고기 그레 들이칠 때, 어랭이 나깡 그레 놓는 거. 그것도 오래된 거주. 이거 우리 집이 아방 이실 때 써난 거. 우리 솔레기 잡는 배도 헤낫주게. 큰 배도 헤나고. (지금 찍는 거는?) 그건 아들이 앗앙 뎅기는 거. 배에 앗앙 가근에 영 돌아 무꺼근에 옆에 헤영 고기 잡아지믄 그레 들이치고.”⁶⁴⁾

(그건 고기 낚아서 고기 그리 들어뜨릴 때, 어랭놀레기 낚아서 그리 넣는 거. 그것도 오래된 거지. 이거 우리 집의 아버지(남편) 있을 셨던 거. 우리 옥돔 잡는 배도 했었지. 큰 배도 했었고. (지금 찍는 거는?) 그건 아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배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달아 묶어서 옆에 해서 고기 잡으면 그리 들어뜨리고.)

63) 하천리 양일선 씨 구술.

64) 표선리 흥순이 씨 구술.



<사진 28> 홍순이 씨 소장 '통발'



<사진 29> 홍순이 씨 소장 '통발'

<사진 28>과 <사진 29>는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통발'이다. <사진 28>은 홍 씨의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고, <사진 29>는 홍 씨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낚시 갓을 때 물고기를 잡으면 안에 물고기를 넣고 바닷물 속에 들어뜨려서 보관할 때 사용했다고 한다.

“그건 고기 바다에서 거릴 때. (이거 불르는 이름이 셔?) 그 뜰채베끼 몰라, 난. 옛날엔, 그건 나무로 이렇게 만들아낫주, 둑글랑허게.”⁶⁵⁾

(그건 고기 바다에서 뜰 때. (이거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 뜰채밖에 몰라, 난. 옛날에는, 그거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었지, 둑그렇게.)



<사진 30> 홍순이 씨 소장 '뜰채'

<사진 30>은 표선리 홍순이 씨가 보관하고 있는 '뜰채'로, 낚은 물고기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홍 씨의 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65) 표선리 홍순이 씨 구술.

(4) 칼

‘칼’은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다. 바닷일을 할 때도 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물고기나 해산물을 손질할 때 사용하였다.

“요 칼론 영영 다듬아근에 다 깨끗하게 헹 오는 거.”⁶⁶⁾

(요 칼로는 이렇게 다듬어서 다 깨끗하게 해서 오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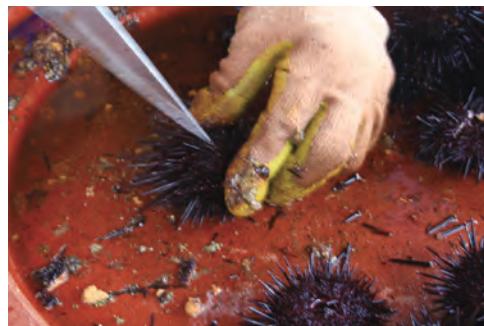
<사진 31> 송영선 씨 소장 ‘칼’과 ‘나무토막’



<사진 32> 강순자 씨 소장 ‘칼’

<사진 31>은 하천리 송영선 씨가 바다에 낚시하러 갔을 때, 잡은 물고기를 손질하는 ‘칼’과 나무토막이다.

나무토막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서 물고기를 손질하는데, 나무토막은 도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진 33> ‘칼’로 ‘성게’를 자르는 모습

66) 하천리 송영선 씨 구술.



<사진 34> '성게알'을 떠내는 모습



<사진 35> 성게를 장만하는 모습

<사진 32>는 세화리 강순자 씨가 성게를 장만할 때 사용하는 칼이다. <사진 33>은 강씨가 칼로 성게를 자르는 모습이고, <사진 34>는 반으로 자른 성게에서 작은 수저를 이용해 성게알을 떠내는 모습이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캐온 성게를 장만하는 일까지 직접 하는데, 물질 작업이 끝나면 해녀복을 갈아입고 바로 성게를 손질한다. <사진 35>는 세화리 해녀들이 해녀 탈의장에 모여 앉아 갓 잡아 온 성게를 장만하는 모습이다.

6. 목축 관련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 마소는 농사일에 쓰일 뿐만 아니라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마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땅을 고르고, 농작물을 운반하였다. 또 새끼를 낳게 하여 그것을 키워 팔아 수입을 얻었다.

시대의 변화는 목축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운기의 등장으로 밭을 갈거나 짐을 운반하는 데 마소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농가에서 말과 소는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 일반 농가에서 소와 말을 기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목축 분야도 전문화가 되면서 축사를 갖추고 대량으로 사육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표선면 지역 조사에서는 소와 말, 돼지를 길렀던 몇몇 제보자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가축을 길렀던 경험을 듣고, 보관하고 있는 목축 관련 도구들의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목축 관련 도구를 마소 관련 도구와 돼지 관련 도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6.1. 마소 관련

소는 보통 겨울에는 외양간에 가두어 먹이를 주며 키우고, 여름에는 목장이나 들녘에 풀어 두어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게 한다. 가시리 강성종 씨(1936년생)에 의하면, 4월 무렵인 청명이 지나면 소들을 목장에 올렸다가 10월 말 무렵인 상강 전에는 내린다고 한다. 한편, 대부분의 농가에서 밭을 갈기 위해 소를 길렀던 것에 비해, 말은 농가에서 많이 길렀던 것은 아니다. 이동 수단으로 타고 다니거나 짐을 싣는 마차를 끌기 위해, 씨를 파종한 밭을 밟기 위해 말을 기르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많이 못 길러. 이 저 촐 때문에 한 댅 마리.”¹⁾

(많이 못 길러. 이 저 꼴 때문에 한 댅 마리.)

“올리는 시기가 청명 지나근엥에, 청명 지나근엥에 올려. 경 행 상강일 전에, 상강일 전엔 내려와.”²⁾

(올리는 시기가 청명 지나서, 청명 지나서 올려. 그렇게 해서 상강 전에, 상강 전에 내려와.)

“여기는 촐 놀을 하나에 놀어서, 길게 놀어 가지고 훈쪽으로 빠명 빠명 멱이당 보민 다 다 뛰. 동글랑하게 안 해영 길게 놀어.”³⁾

(여기는 꼴 가리를 하나에 가려서, 길게 가려 가지고 한쪽으로 빠면서 빠면서 먹이다가 보면 다 돼. 동그랗게 안하고 길게 가려.)

가시리 강성종 씨는 소를 다섯 마리 정도 길렀었다. 많이 기르려고 해도 먹이를 장만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기르지 못했다고 한다. 꼴 가리는 길게 가려서 한쪽으로 꼴을 빠면서 먹이를 주었다고 한다.

“쉐 훈 여덟 무리 길렀어. 암퇘, 암퇘 전부. 암퇘를 길وا야 새끼 나서 돈을 벌잔여. 밭도 우린 암퇘로 갈안. 이디 거의 새끼를 나야 뛰니까 암퇘를 길르거든. 숫소는 안 길وا.”⁴⁾

(소 한 여덟 마리 길렀어. 암소, 암소 전부. 암소를 길러야 새끼 낳아서 돈을 벌잖아. 밭도 우린 암소로 갈았어. 여기 거의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암소를 기르거든. 숫소를 안 길러.)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는 암소를 여덟 마리 정도 길렀다. 암소는 새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기에 수소는 기르지 않고 암소로만 길렀다고 한다.

(1) 쉐막

‘쉐막’은 소를 가두어 기르던 곳이다. 표준어의 ‘외양간’에 대응하는 말로, 제보자에 따라 ‘소막’이라고도 한다.

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2)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3)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4)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1> 고풍오 가옥의 '밧거리'와 '모커리'



<사진 2> 고풍오 가옥의 '쉐막'

<사진 1>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주 성읍민속마을의 '고평오 가옥'의 입구 모습이다. 정면에 보이는 것은 제주어로 '밧거리'라고 부르는 바깥채고, 오른쪽의 것은 제주어로 '모커리'라 부르는 결채다. 이 '모커리'에는 헛간과 '쉐막'이 있는데, <사진 2>가 바로 '쉐막'의 모습이다. <사진 2>는 소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가운데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나무에 소를 묶어 두고, 맞은편 문으로 들어와서 먹이를 줄 수 있게 된 구조다. <사진 1>과 <사진 2>를 통해 전통 가옥에서의 '쉐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처음에는 말을 쉐막, 쉐막 했지. 그 옛날에 먹이든 소막 남아 있는 디는 내가 알기로는 엇고. 요즘 현젠 뭐 개량된 소막들. 요즘에도 이제 그 소를 키우는 사람덜이 몇 있는데 지금은 다 뭐 옛날하고 다르지. 옛날에는 여기는 먹이통이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먹이통도 허고, 물도 주게끔 하고, 소먹이로 그전에는 여기서 출, 출이라고 해 가지고 거 밧데서 풀. 건디 요즘에는 그것도 옛날거치 수작업으로, 낫 그런 걸로 비지 아녀고 지금은 다 기계로 비고 또 사료들 많이 사서 이제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설들을 갖춰서 허는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 소막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형태가 개조되어 가지고, 또 개조되어서 소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 거의 없고. 소를 지금, 지금은 저 뭐 그 축사라고덜, 저 지금은 소막이란 그런 말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축사.”⁵⁾

(뭐 처음에는 말을 '쉐막', '쉐막' 했지. 그 옛날에 먹이던 외양간 남아 있는 데는 내가 알기로는 없고. 요즘 현재는 뭐 개량된 외양간들. 요즘에도 이제 그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지금은 다 뭐 옛날하고 다르지. 옛날에는 여기는 먹이통이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먹이통도 하고, 물도 주게끔 하고. 소먹이로 그전에는 여기서 꿀, 꿀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밭에서 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옛날처럼 수작업으로, '낫' 그런 걸로 베지 않고 지금은 다 기계로 베고 또 사료들 많이 사서 이제 먹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5) 가시리 오국만 씨 구술.

시설들을 갖춰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지. 외양간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형태가 개조되어 가지고. 또 개조되어서 외양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뭐 거의 없고. 소를 지금, 지금은 저 뭐 축사라고들, 저 지금은 '소막'이라는 그런 말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축사.)

가시리 오국만 씨(1933년생)는 외양간을 '소막'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오 씨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가시리 지역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현재는 전통 농촌 사회의 외양간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 씨는 예전 '소막'에서는 먹이통도 따로 두지 않고 꼴을 먹었으나 현재는 사료를 많이 먹이는 까닭에, 소를 기르는 시설들도 그에 맞추어 바뀌었다고 한다. 소의 먹이를 장만하는 것도 예전에는 일일이 '낫'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그 '출(꼴)'을 베어 마련했지만, 현재는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목초를 거둬들이고 있다.

"쉐 메는 메낭이렌 헷주게. 여기 흔 다수 모리하고 저, 저쪽 창고에 세 모리. 다수, 다수 개 여기서 키완."⁶⁾

(소 매는 '메낭'이라고 했지. 여기 한 다섯 마리하고 저, 저쪽 창고에 세 마리. 다섯, 다섯 개 여기서 키웠어.)

"쉐머리가 요쪽으로 영 가면은 이 사이는 전부 출, 출 주곡, 물통 낭 물 주곡. 일로 들어올 거. 꽁무니로 들어왕 먹이 줄 거."⁷⁾

(소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 사이는 전부 꼴, 꼴 주고, 물통 놔서 물 주고. 이리로 들어 올 거, 꽁무니로 들어와서 먹이 줄 거.)



<사진 3> 강기수 씨 집 '쉐막'의 '메낭'



<사진 4> 박창준 씨 집 '쉐막'의 '메낭'과 '구시통'

6)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7)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사진 3>은 세화리 강기수 씨(1937년생)가 ‘쉐막’로 했던 곳이다. 지금은 경운기와 여러 농기구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사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낭’과 먹이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메낭’은 소를 ‘쉐막’에 가두어 놓을 때 소고삐를 묶어 매는 나무다. 소의 굴레에 줄을 매고, 이 줄을 길게 하여 ‘메낭’에 묶어 두는 것이다. <사진 4>는 성읍리 박창준 씨(1938년생) ‘쉐막’의 모습이다. 소를 묶어 두는 대와 꼴을 주는 먹이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메낭’에 해당하는 것이 나무가 아닌 굵은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먹이통은 시멘트를 벌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먹이통에는 호박과 여러 잡동사니가 들어 있다.

“(먹이통) 거 잊어난디 그거 다 없애 불언. 쐐멘으로 헨 만들언 써낫어. (쉐는 멧 마리까지 질러나수꽈?) 많이 못 길러. 이 저 촐 때문에 한 댓 마리. 가운데 구시통 놓 흔쪽으로 쭉 허게 일렬, 나열로 맴도 하고. 자리 좁으면 마주 맴도 허곡.”⁸⁾

((먹이통) 그거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 버렸어.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서 썼었어. (소는 몇 마리까지 길렀었습니까?) 많이 못 길러. 이 저 꼴 때문에 한 댓 마리. 가운데 구유 놓고 한쪽으로 쭉 하게 일렬, 나열로 매기도 하고. 자리 좁으면 마주 매기도 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에 대한 용어들도 바뀌고 있다. 소와 말을 대량으로 기르면서 ‘쉐막’이나 ‘소막’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축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표선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나 돼지 등을 기르는 일은 농가에서 분화되어 현재는 축산 산업으로 목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전문적으로 소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예전에 사용했던 ‘쉐막’은 개조하여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가시리 강성종 씨(1936년생)도 소를 길렀던 곳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강 씨는 ‘쉐막’ 가운데에 구유를 놓고 소를 나란히 매기도 하고, 소가 많을 때는 마주 매기도 했다고 한다.

(2) 무제미와 녹대

‘무제미’는 말을 부리기 위해 머리와 목에서 고삐에 걸쳐 얹어매는 줄이다. 표준어로는 ‘굴레’에 해당된다. 제보자에 따라 ‘무제미’를 ‘녹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제미’와 ‘녹대’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8)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이거이 말, 말 저 말테우리 허는 거. 영 무제미엔 헤근에 해민 이거 헙니다. 이건 나가 만든 건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나 물도 많이 질러나난에. 요거양, 요거는 물 헤영 끊어난 거 같애. 요거는 쉐에 헨 밧 가는 거고. 물 헨에 이 조 같아서 다릴 때, 그런 때 이런 걸로 헤근에 이걸로 물로 메와근에 끊언 돌아다녔어.”⁹⁾

(이거 말, 말 저 ‘말테우리’ 하는 거. 이렇게 굴레라고 해서 하면 이거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는 아닌데 이런 거 많이, 나 말도 많이 길렀었으니까. 요거요, 요거는 말 해서 끌었던 거 같아. 요거는 소에 해서 밭 가는 거고. 말 해서 이 조 같아서 다릴 때, 그런 때 이런 걸로 해서 이걸로 말로 메워서 끌고 돌아다녔어.)



<사진 5> 송무웅 씨 소장 ‘무제미’

<사진 5>는 토산리 송무웅 씨(194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무제미’의 일부 연결 고리 부분이다. 송 씨는 직접 말을 길렀는데 이때 말을 묶어 끌기 위해 <사진 5>의 ‘무제미’를 사용했었던 것으로, 송 씨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한다.

“(물 매는 거랑 쉐 매는 것도 줄이 ㅎ끔 ㅌ나지예?) 예, 뜰립니다. 물허고 쉐허고. 쉐는 뿔이 있으니까 뿔에다 이렇게 걸려 매서 허는데 물은 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제미차 짜근엥에. (물 허는 건 무제미엔 곧곡 쉐 허는 건 뭐렌 굽아?) 녹대.”¹⁰⁾

(말 매는 거랑 소 매는 것도 줄이 조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말하고 소하고. 소는 뿔이 있으니까 뿔에다 이렇게 걸려 매서 하는데 말은 뿔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굴레째 차서. (말 하는 건 ‘무제미’라고 말하고 소에 하는 건 뭐라고 말해?) ‘녹대’.)

가시리 강성종 씨는 말을 맬 때 사용하는 것을 ‘무제미’, 소를 맬 때 사용하는 것을 ‘녹대’라고 구분하였다.

9) 토산리 송무웅 씨 구술.

1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들에 나가믄 저 억새라고 잇잖아. 지금 저 미, 그거 우에 부레기 나오면 그거 뽑아다가 알 빼 두고 이렇게 모아서 저 마께, 던드렁마께엥 헤. 두드려그네에 거 저 복삭허면은 이렇게 손 꼬기가 좋잖아. 그래서 그거 행, 그거 꼬아나근엥에 또 그걸 줄 맹 데와근엥에 또 드려. 이 데우는 그 호렝이라고 잇어. 그거 데와나근엥에 드리는 건 줄, 그거 데와 논 거. 저기 줄 매영 얼마 절반을 한다든가 삼 분지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두 불 들여야지. 삼 분지 이를 헤 가지고 이렇게 꼬불쳐 놓고 데와 낭 혼 불 영 꼬와 낭 또 두 불 차는, 또 그거 꼬불청 허믄 세 가닥이 뛰주. 세 가닥이 뛰난 그거 들이민 그걸로 녹대를 멘들아.”¹¹⁾

(들에 나가면 저 억새라고 잇잖아. 지금 저 새풀, 그거 위에 배동 나오면 그거 뽑아다가 알 빼 두고 이렇게 모아서 저 방망이, ‘던드렁마께’라고 해. 두드려서 그거 보드라워지면 이렇게 손 꼬기가 좋잖아. 그래서 그거 해서, 그거 꼬아서 또 그걸 줄을 매서 꼬아서 또 드려. 이 꼬는 그 ‘호렝이’라고 있어. 그거 꼬고 나서 드리는 건 줄, 그거 꼬아 놓은 거. 저기 줄 매서 얼마, 절반을 한다거나 삼 분의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두 벌 들여야지. 삼 분의 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놓고 꼬아 놓고 한 벌 이렇게 꼬아 놔서 또 두 번째는, 또 그거 구부려서 하면 세 가닥이 되지. 세 가닥이 되니까 그거 들이면 그걸로 ‘녹대’를 만들어.)

전통사회에서는 말이나 소를 키우면서 사용하는 ‘무제미’나 ‘녹대’, ‘줄레’ 등도 전부 만들어서 사용했다. 가시리 강성종 씨는 억새로 줄을 만들었다고 한다. 억새가 꽃을 피우기 전에 새풀을 싸고 있는 줄기를 뽑아 그 안의 새풀을 빼 두고, 그 줄기를 재료로 삼았다. ‘던드렁마께’라고 부르는 방망이로 줄기를 두드려 부드럽게 해서 ‘호렝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줄을 꼬았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 꼬 줄을 다시 드려 줄을 단단하게 하였다. 이렇게 만든 줄은 마소를 맬 때도 쓰지만, 수레도 짐을 나를 때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바’로도 활용하였다.

(3) 줄레와 말톡

‘줄레’는 마소를 들판에 놓아 먹이를 먹일 때 묶어 두는 줄을 말한다. 고삐에 묶어 줄을 길게 하여 줄의 길이가 닿는 반경 안에서 마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쓰는 도구다. 소를 매는 데 사용하는 것을 ‘쉐줄레’, 말을 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몰줄레’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한편, ‘말톡’은 땅에 박아 ‘줄레’를 묶는, 끝이 뾰족하고 가느다란 나무나 쇠를 말한다. ‘말톡’은 표준어로는 ‘말뚝’이라고 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말톡’, ‘몰톡’, ‘몰말톡’이라 부르기도 한다.

1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이렇게 해서 여하튼 혼 밭로, 혼 밭허곡 또 반 밭쯤은 허게 헤근엥에 녹대는 길게 안 허주게. 아저 뎅이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헤근엥에 집이서 걸려 매곡. 또 들에 강 말툭 박양 맬 때가 있어. 잔디밭데 가근에, 촐 좋은 디로 가근엥에, 또 건 거 잇엉 딱 말툭 박양 허믄 그 주위 안네서만, 돌아나지 못하게 헹, 주위 안네서만 먹을 거 먹곡 이렇게 허는 거. 그거 줄레.”¹²⁾

(이렇게 해서 여하튼 한 밭로, 한 밭하고 또 반 밭쯤은 하게 해서 굴레는 길게 안 하지.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걸어 매고. 또 들에 가서 말툭 박아서 맬 때가 있어. 잔디밭에 가서, 꿀 좋은 데로 가서, 또 긴 거 이어서 딱 말툭 박아서 하면 그 주위 안에서만, 돌아나지 못하게 해서, 주위 안에서만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줄레’.)

소의 뿔에 매는 굴레는 소를 몰고 다닐 때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길게 하지 않았다. 가시리 강성종 씨는 한 밭 반 정도의 길이로 굴레를 만들어서 집에 가둘 때는 그 굴레로 매고, 들에 가서는 ‘줄레’를 굴레에 이어 매서 소가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거리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풀을 뜯을 수 있게 했다.

“(줄레 묶는 건?) 말툭, 옛날 말로 말툭. 나무로 만들언. 그거 무슨 낭이 좋냐면 박달나무가 젤 좋아. 나무가 쬐니까. 박아도 단단하게 잘 들어가곡. 돌로 두드려야지. 어디 돌, 돌 요만인 헌 거 죽엉다근에 닥닥 영 세워 놓 닥닥 박으민 영 쑥쑥 들어가. 그런 건 요 중간에는 저 철물로 헨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낫어. 그거 하면은 그자 어디 강 매고정 허민 탁 허게 박양은에 밭로 짹 밭르민 쑥쑥 들어가고 헷는디.”¹³⁾

(‘줄레’ 묶는 건?) 말툭, 옛날 말로 ‘말툭’. 나무로 만들었어. 그거 무슨 나무가 좋냐면 박달나무가 제일 좋아. 나무가 쬐니까. 박아도 단단하게 잘 들어가고. 돌로 두드려야지. 어디 돌, 돌 요만한 거 주워다가 닥닥 이렇게 세워 놓고 닥닥 박으면 이렇게 쑥쑥 들어가. 그런 거는 요 중간에는 저 철물로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했어. 그거 하면 그저 어디 가서 매고자 하면 탁 하게 박아서 밭로 짹 밭르민 쑥쑥 들어가고 했는데.)

소를 맨 ‘줄레’는 땅에 ‘말툭’을 박아 거기에 묶었다. ‘말툭’은 근래에 와서는 철물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로 만든 말뚝을 이용했지만, 쇠로 된 것이 나오기 전에는 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가시리 강성종 씨는 박달나무가 단단해서 ‘말툭’을 만들어 사용하기에 좋다고 한다.

12)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13)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거 물말톡. 옛날은 나무로 헛주. 밧디 강 멱일 때 이거 박아 놓여기 물줄레 멩. 드릇 가근에, 밧디 가근에.”¹⁴⁾

(그거 말뚝. 옛날은 나무로 했지. 밭에 가서 먹을 때 이거 박아 놓고 여기에 ‘물줄레’ 매서.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사진 6> 강윤평 씨 소장 ‘물말톡’



<사진 7> 박창준 씨 소장 ‘말뚝’

<사진 6>은 하천리 강윤평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물말톡’이다. 강윤평 씨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것을 썼었다고 한다. 강 씨는 들에 가서 말을 풀어 놓고 먹을 때 박는 것을 ‘물말톡’이라 하고, 여기에 묶는 줄을 ‘물줄레’라고 부르고 있다. <사진 7>은 성읍리 박창준 씨가 사용했던 말뚝이다. 말뚝은 마소를 들에 풀어 놓을 때도 사용하지만 천막을 칠 때나 줄을 묶어 놓을 때는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

(4) 접게

‘접게’는 말로 밭을 갈거나 수레를 연결하여 짐을 실을 때 말의 목에 매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명예의 목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접게’를 ‘물접게’라고 하기도 한다.

14)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8> 강윤평 씨 소장 '접게'



<사진 9> 강윤평 씨 소장 '멍에'의 '접게'

<사진 8>은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접게'다. 강 씨가 말을 키울 때 사용했던 것으로, 말에 사용했던 '질메'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 <사진 9>는 강 씨가 보관하고 있는 '멍에'의 '접게'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9>에서 가로로 놓여 있는 멍에에 구멍을 뚫고 꽂혀 있는 가느다란 나무를 '접게'라고 한다. 이것은 소의 목에 '멍에'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진 8>의 '접게'는 <사진 9>의 '멍에'와 '접게' 역할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말에 목에 매어 등 위에 올리는 길마에 연결한다.

“이거 모가지가, 물 모가지에 걸어난 거 아니과? 경 해서 댕기는 거주게. 물 씌와 가지고. 물 야가지에 걸어서. 저레 저 남테 헤근에 조 불리는 거 헤낫주게.”¹⁵⁾

(이거 목이, 말 목에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기는 거지. 말 씌워 가지고. 말 목에 걸어서. 저리 저 '남테' 해서 조밭 밟는 거 했었지.)

토산리 송무옹 씨는 말의 목에 '접게'를 걸고 뒤에 '남테'를 연결해서, 조를 파종한 후 말들에게 밭을 밟도록 했었다며 '물접게'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5) 질메

'질메'는 짐을 싣기 위하여 소나 말의 등에 안장처럼 얹는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로는 '길마'라고 하는데, 소의 등에 얹는 길마를 '쉐질메', 말의 등에 얹는 길마를 '물질메'로 구분하기도 한다.

15) 토산리 송무옹 씨 구술.

“거 물질메. 우리 이디서는 일본말인지 뭔지 구라라고 해. 이거 마차 헐 때 마차를 허민 요것에다 동그랑한 거 걸어졌어. 게민 이디 걸려. 마차 연결하는 거. 율로 또 연결해 가지고 모가지에 톡 허게.”¹⁶⁾

(그거 말길마. 우리 여기서는 일본말인지 뭔지 ‘구라’라고 해. 이거 마차 할 때 마차를 하면 요것에다 동그란 거 걸렸어. 그럼 여기 걸려. 마차 연결하는 거. 요리로 또 연결해 가지고 목에 톡 하게.)



<사진 10> 김평우 씨 소장 ‘물질메’ (위)



<사진 11> 김평우 씨 소장 ‘물질메’ (옆)

<사진 10>은 토산리 김평우 씨(1941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물질메’다. 이 ‘물질메’는 마차를 끌 때 말에 연결하는 것이다. 김 씨는 이 ‘물질메’를 토산리 지역에서 주로 ‘구라’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라(くら[鞍])’는 말의 안장을 의미하는 일본어다.

“거 나가 다 만든 거. 물질메도 나가 만든 거. 거 마차에 끼우는 거. 말, 마차에.”¹⁷⁾

(그거 내가 다 만든 거. ‘물질메’도 내가 만든 거. 그거 마차에 끼우는 거 말, 마차에.)

16) 토평리 김평우 씨 구술.

17)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12> 강윤평 씨 소장 '물접게'와 '물질메'



<사진 13> 강윤평 씨 소장 '물질메'의 고리 부분

<사진 12>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접게'와 '질메'다. 강 씨가 직접 만들어 말에 사용했던 것으로 강 씨는 이를 '물접게', '물질메'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사진 12>는 말에 마차를 연결하기 위해 '질메'를 지울 때처럼 '물접게'와 '물질메'를 연결한 것이다. <사진 12>에서 왼쪽이 말의 머리 쪽이 된다. 말의 목에는 '물접게'를 매고, '물질메'를 등에 얹어 맨다. 그리고 마차의 양쪽 손잡이를 말의 엉덩이를 지나 등으로 오게 하여, <사진 13>의 고리에 연결하는 것이다. <사진 13>은 '물질메'의 고리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6) 낫

'낫'은 꼴 따위를 벨 때 사용하는 도구다. '낫'은 날과 손잡이가 긴데, 보통 서서 두 손으로 '낫'을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것을 후리며 꼴을 번다. 애월읍, 한림읍, 안덕면, 한경면, 대정읍 등 제주의 서부 지역에서는 보통 '호미'라고 부르는 낫을 한 손에 쥐어 꼴을 베는데,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은 동쪽 지역에서는 서서 작업을 큰 '낫'을 들고 꼴을 번다.

“출 비는 거 낫, 낫. 저 육지서는 호미그랑 낫이엔 허주만은,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낫이야. 호미는 호미고이.”¹⁸⁾

(꼴 베는 거 '낫', '낫'. 저 육지에서는 '호미'보고 낫이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것이 '낫'이야. '호미'는 '호미'고.)

18) 세화리 김창호 씨 구술.

“출은 먹이로 허영 낫 비영, 낫질하는 디가 출이고, 새왓은 좀호미로 다 비는 거주. 낫 허믄 낫으로 허믄 이렇게 올라와 불주게이. 좀호미는 밑에서 끄지. 게난 서쪽에는 좀호미로 출덜토 비연계. 아메도 수량이 많주, 좀호미. 겐디 능률은 그만큼 적어지니까.”¹⁹⁾

(꼴은 먹이로 해서 ‘낫’ 베어서, ‘낫질’하는 데가 꿀이고, 띠밭은 ‘좀호미’로 다 베는 거지. ‘낫’ 하면 ‘낫’으로 하면 이렇게 올라와 버리지. ‘좀호미’는 밑에서까지. 그러니까 서쪽에는 ‘좀호미’로 꿀들을 베던데. 아무래도 수량이 많지, ‘좀호미’. 그런데 능률은 그만큼 적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낫’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주에서는 ‘호미’라고 부른다. ‘낫’은 주로 꿀을 벨 때 사용하는 도구고, 집을 일거나 할 때 쓰는 띠는 손에 쥐는 ‘호미’를 사용하여 번다. 성읍리 강기숙 씨(1945년생)는 표준어의 낫에 해당하는 ‘호미’를 ‘좀호미’라고 하였다. 꿀을 벨 때 제주의 서쪽 지역에서는 ‘낫’이 아니라 ‘좀호미’를 사용하는데 그만큼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출 비레 가는 때사 낫, 낫 가정 가야주. 호미 가정 강 호미로 그거 감당을 헤져?”²⁰⁾

(꼴 베려고 갈 때야 ‘낫’, ‘낫’ 가지고 가야지. ‘호미’ 가지고 가서 ‘호미’로 그거 감당을 할 수 있어?)

“낫으로 많이 비여. 평균적으로 잡아서 잘하는 사람 평균적으로 잡아서 허루 열 바리. 거민 뭐 하영 비는 거. (출 비는 건) 남저가 헷주. 여저는 무꺼. 모돠 놓 무꺼. 이틀 물릴 때도, 허루 물령 혈 때도 있고. 그건 날씨에 따라서 틀려. 뭇이 여기 보통으로 봐서 여기, 여깃 뭇이 커. 훈 바리가 서른 뭇.”²¹⁾

(낫으로 많이 베. 평균적으로 잡아서 잘하는 사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루 열 바리. 그러면 뭐 많이 베는 거. (꼴 베는 건) 남자가 했지. 여자는 묶어. 모아 놓고 묶어. 이틀 말릴 때도, 하루 말려서 할 때도 있고. 그건 날씨에 따라서 달라. 뭇이 여기 보통으로 봐서 여기, 여기 뭇이 커. 한 바리가 서른 뭇.)

“출 비는 거. 뭐 출 빌 때 대체로 썻는다. 지금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낭가쟁이 끈을 때도 쓰곡. (낭까쟁이 끈어집니까?) 게난 그건 기술이 요하니까. 그 사람에 따랑 하는 거니까. 용도라는 거. 게난 산에 벌초헐 때도 필요할 때는 씁니다. 대체로 최근에까지도 썼는데. 근데 이젠 기계 나와 부니까. 예초기 나와 부난. 쉐 혈 때 헌 건디 벌초헐 때 대부분 썻주. 예초기는 최근에 나왔고. 이거 출 비단에 데껴 불지 안핸 나눴다 말이여.”²²⁾

19) 성읍리 강기숙 씨 구술.

20)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21)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22) 토산리 정인권 씨 구술.

(꼴 베는 거. 뭐 꼴 벨 때 대체로 썼는데. 지금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나뭇가지 끊을 때도 쓰고. (나뭇가지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술이 요하니까. 그 사람에 따라 하는 거니까. 용도라는 거. 그러니까 산소에 벌초할 때도 필요할 때는 씁니다. 대체로 최근에까지도 썼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계 나와 버리니까, 예초기 나와 버리니까. 소 할 때 하는 건데 벌초할 때 대부분 썼지. 예초기는 최근에 나왔고. 이거 꼴 베다가 던져 버리지 않고 놔뒀다 말이야.)



<사진 14> 강성종 씨 소장 '낫'



<사진 15> 정인권 씨 소장 '낫'



<사진 16> 김은두 씨 소장 '낫'



<사진 17> 송필수 씨 소장 '낫'

'낫'의 날은 '호미'에 비해 크다. 또 서서 그것을 휘두르며 꼴을 베기 때문에 앓아서 한 손에 쥐고 하는 '호미'에 비해 작업량이 많다. 가시리 강성종 씨는 '낫'으로 꼴을 벨 경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열 바리 정도를 벨 수 있다고 한다. 주로 남자들을 꼴을 베면 하루나 이를 정도 말려서 여자들이 그것을 묶었다. <사진 14>는 가시리 강성종 씨가 사용했던 '낫'이다.

한편, '낫'은 꼴을 벨 때만이 아니라 벌초를 할 때도 사용했다. 풀을 베는 데 쓰는 전동 기계인 예초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것을 들고 다니며 벌초를 했다. <사진 15>는

토산리 정인권 씨(1948년생)의 ‘낫’이다. 정 씨는 최근까지도 산소의 벌초를 할 때 이 ‘낫’을 사용했다고 한다. <사진 16>은 가시리 김은두 씨가 사용했던 ‘낫’이고, <사진 17>은 하천리 송필수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낫’이다.

“출 빌 때 저걸로 이 출 비잖아. 낫, 우리 제주도말론 낫. 낫 훈 뭐 일 년에 ھ나씩 써야 뤄. 일 년에 ھ나. 그 늘이 다 뛰어 버리믄은 새로 만들어다가 일 년 쓰믄, 잘 쓰면은 ھ나 해다가 이 년 내지 삼 년 최고로 쓰고 그 이상은 못 써. 대장간에 가서 새로 만들아 오는 거지. 불밋간 세화리 저, 세화리도 잇었고, 우리가 서화리서 허단 대장 허던 분은 돌아가셔 부니까 저 남원리 가서 계속 만들아 왔주, 남원.”²³⁾

(꼴 벌 때 저걸로 이 꼴 비잖아. 낫, 우리 제주도말로는 낫. 낫 한 뭐 일 년에 하나씩 써야 돼. 일 년에 하나. 그 날이 다 돼 버리면 새로 만들어다가 일 년 쓰면, 잘 쓰면 하나 해다가 이 년 내지 삼 년 최고로 쓰고 그 이상을 못 써. 대장간에 가서 새로 만들어 오는 거지. 대장간 세화리 저, 세화리도 있었고, 우리가 세화리에서 하다가 대장 하던 분은 돌아가셔 버리니까 저 남원리 가서 계속 만들어 왔지, 남원.)



<사진 18> 강기수 씨 소장 ‘낫’



<사진 19> 강윤평 씨 소장 ‘낫’

<사진 18>은 세화리 강기수 씨가 사용했던 ‘낫’이다. 강 씨는 ‘낫’을 한 번 장만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날이 닳거나 다 되면 제주어로 ‘불미간’이라고 부르는 대장간에서 다시 만들어 와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세화리에도 대장간이 있었는데, 강 씨는 세화리에서 대장간을 하던 분이 돌아가시자 남원리에 가서 ‘낫’의 날을 구해 왔다고 한다. <사진 19>는 하천리 강윤평 씨의 집에 있는 ‘낫’이다. 강 씨는 ‘낫집’을 따로 만들어 ‘낫’의 날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었다.

23)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7) 신돌

‘신돌’은 낫이나 칼 따위 연장의 날을 세우기 위해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인 ‘숫돌’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실돌’이라고도 불렸다.

“(출 비례 갈 때 낫 갈젠 허민 뭐도 셔살 거주?) 신돌. 박세기도 가져가야 뛰고, 물 놓젠 허면은 뭐이든지 다 뛰여. 요즘 말로 세숫대야 그튼 거 그런 것도 뛰고. 다라 가경 가도 뛰고. 조그만한 다라 가경 가도 뛰고.”²⁴⁾

(꼴 벨 갈 때 ‘낫’ 갈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 거지?) 수돌. 바가지도 가져가야 되고, 물 넣으려고 하면 뭐든지 다 돼. 요즘 말로 세숫대야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고. 대야 가지고 가도 되고. 조그마한 대야 가지고 가도 되고.)

꼴을 잘 베려면 ‘낫’ 날이 잘 들어야 한다. 꼴을 베려 갈 때는, 중간 중간 날을 갈아 줘야 하기 때문에 ‘신돌’과 바가지를 챙기고 갔다.

“실돌. 실돌 이거 저 호미 골 때.”²⁵⁾

(숫돌. 수돌 이거 저 낫 갈 때.)

“호미 그는 거. 흐미도 골고 칼도 무끼민 영 영 갈민 저 날 나근에 쓰고. 이거 공구 신돌이라고 해.”²⁶⁾

(낫 가는 거. 낫도 갈고, 칼도 무디면 이렇게 이렇게 갈면 저 날이 나서 쓰고. 이거 공구 수돌이라고 해.)



<사진 20> 김복순 씨 소장 ‘실돌’



<사진 21> 정여옥 씨 소장 ‘신돌’

24) 가시리 강성종 씨 구술.

25) 가시리 김복순 씨 구술.

26) 표선리 정여옥 씨 구술.



<사진 22> 송필수 씨 소장 '신돌'



<사진 23> 박창준 씨 소장 '신돌'

<사진 20>은 가시리 김복순 씨(1934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신돌'로, 김 씨는 이것을 '실돌'이라고 하였다. <사진 21>은 표선리 정여옥 씨(1944년생)가 낫의 날이 무디면 날을 갈 때 썼던 '신돌'이다. <사진 22>는 하천리 송필수 씨, <사진 23>은 성읍리 박창준 씨가 보관하고 있는 '신돌'이다.

(8) 물팡

'물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딛는 돌을 말한다. '물팡'은 '물+팡'의 구성으로 '물'은 '말'을 의미하고, '팡'은 넓적한 큰 돌을 말한다.

“물 사람 탓당 내령당 허는 디. 옛날 육 대 할아버지네가 옛날에 베슬을 헤낫주. 우리 하르부지도 영 물 탕 뎅겨낫주게.”²⁷⁾

(말 사람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데. 옛날 육 대 할아버지네가 옛날에 베슬을 했었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 타고 다녔었지.)

27) 하천리 강운평 씨 구술.



<사진 24> 강윤평 씨 집의 '물팡'

<사진 24>는 하천리 강윤평 씨 집의 입구에 놓여 있는 '물팡'이다. 강 씨는 선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닐 때 사용했던 '물팡'이 집 어귀에 그대로 남아 있다.

(9) 낚인

'낚인'은 불에 달구어 마소에 문자를 새기기 위해 찍는, 쇠붙이로 만든 도장을 말한다. 표준어로는 '낙인'이라고 하는데, 마소의 엉덩이에 이것을 찍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했다.

“이건 저 불에 구워근엥에 소, 이 딱지 찍는 거, 저거. 쉬, 우리 옛날엔 많이 키워낫주게. 계난 이거 불에 구워근엥에 문 송아지털 나민. 일 년 뛰민 이 봄 뛰민 꽉꽉 찔렁 그 표시. 목장에 보내젠 허난게 이걸로 다 낚인이에 허주, 그거 낚인.”²⁸⁾

(이건 저 불에 구워서 소, 이 딱지 찍는 거, 저거. 소, 우리 옛날에는 많이 키웠었지. 그러니까 이거 불에 구워서 모두 송아지들 되면. 일 년 되면 이 봄 되면 꽉꽉 질러서 그 표시. 목장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걸로 다 찍어서, 낚인이라고 하지, 그거 낚인.)



<사진 25> 김양선 씨 소장 '낚인'



<사진 26> 김양선 씨 소장 '낚인' (아래)

28) 세화리 김양선 씨 구술.

<사진 25>는 세화리 김양선 씨(1933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낵인’으로, 김 씨의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다. 겨울에 ‘쉐막’에 가두어 기르던 소들을 방목하여 먹일 수 있는 목장에 보내려고 할 때 다른 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 ‘낵인’을 찍는다. ‘낵인’을 불에 달구어 소의 엉덩이 찍으면 <사진 26>의 문양이 새겨진다.

(10) 쉐 그리치는 돌

소를 밭갈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를 길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에 쟁기 대신 다른 것을 연결하여 소가 곧게 가도록 연습을 시킨다. 이때 넓적한 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맷돌의 위쪽 돌을 사용하거나 바를 묶을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는 돌을 이용한다.

“밭 그 쉐를 길들이젠 허믄 이걸 끊었어. 구녕 뜰은 거. (쉐 그리칠 때예, 이걸 불르는 이름이 있어나수꽈, 코돌?) 코돌인지 뭔지. 아부지가 쉐 그리치민 내가 쉐를 이ং어, 어릴 때라도 끌고. 쟁기 허믄 부숴 버리니까 돌로 헹.”²⁹⁾

(밭 그 소를 기르려고 하면 이걸 끌었어. 구멍 뚫은 거. (소 가르칠 때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까?) ‘코돌’인지 뭔지. 아버지가 소 가르치면 내가 소를 이끌었어, 어릴 때라도 끌고. 쟁기 하면 부숴 버리니까 돌로 해서.)



<사진 27> 강광철 씨 집의 ‘쉐 그리치는 돌’

사진의 돌을 연결하여 곧게 걷는 연습을 시키며 소를 길들이는데 이때 이 ‘쉐 그리치는 돌’을 사용한다.

<사진 27>은 세화리 강광철 씨(1948년생) 집의 마당 한 쪽에 놓여 있는, 소에게 밭갈이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돌이다. 밭을 갈거나 짐을 지게 하는 등 소를 부릴 때는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밭갈이 경험이 없는 소에게 처음부터 쟁기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면 소가 날뛰며 쟁기를 부숴 버릴 수가 있으므로, 소의 땅에 뒤에 쟁기 대신

29) 세화리 강광철 씨 구술.

“우리 쉐 ㄱ리칠 때는 직접 그 돌멩이 헹 끊엉 텩기멍 이렇게 명에툭, 이 모가지 그거 좀 명들게 해 놓곡 밧디 직접 가서 쟁기로 갈면서 구십 프로. 난 쉐는 밧 가리치는 걸 혼 세 개 정도 헛는디 전부 밧데 가서 직접 밧 갈면서 가리쳤어. (누게가 앞이서 끊었어?) 이끼 쥐야지. 거 완전히 익숙하면은 안 이꺼서 그냥 갈아.”³⁰⁾

(우리 소 가르칠 때는 직접 그 돌멩이 해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명에, 이 목에 그거 좀 명들게 해 놓고 밭에 가서 쟁기로 갈면서 구십 프로. 난 소는 밧 가르치는 걸 한 세 개 정도 했는데 전부 그 밭에 가서 직접 밧 갈면서 가르쳤어. (누가 앞에서 끌었어?) 이끌어 쥐야지. 그거 완전히 익숙하면 안 이끌고 그냥 갈아.)

“쉐 질들이챙 허민. 쉐 그 질들이챙 허민 소의 암놈은, 암소는 이 콧줄을 안 끼도 뛰는데. 쉐 그게 소위 ㄱ르치젠후는디 쉐 ㄱ리치레 가자, 쉐 ㄱ르치레 가자. 바로 쟁기 매는 게 아니고. 소위 돌멩이, 돌멩이착이나 ㄱ레착, 소위 ㄱ레착 잇어. ㄱ레착 이거 ㄱ는 거. 그거 우엣 거 혜당 가운데 구녕 나니까. 그것에 줄 메 가지고 명에에 맹 그것에 ㅎ곡 줄 메와근에 흔히 돌, 돌 많이 썻주. 그 돌멩이 불르는 일름이 뭐 엇어.”³¹⁾

(소 길들이려고 하면. 소 그 길들이려고 하면 소의 암놈은, 암소는 이 코를 안 끼도 되는데. 소 그게 소위 가르치려고 하는데 소 가르치려 가자, 소 가르치려 가자. 바로 쟁기 매는 게 아니고. 소위 돌멩이, 돌멩이나 맷돌 한쪽, 소위 ‘그레착’ 있어. ‘그레착’ 이거 가는 거. 그거 위의 거 해다가 가운데 구멍 나니까. 그것에 줄 매 가지고 명에에 매서 그것에 하고 줄 매서 흔히 돌, 돌 많이 썼지. 그 돌멩이 부르는 이름 뭐 없어.)

세화리 강기수 씨나 송좌길 씨(1939년생)도 소를 밭갈이에 쓰려면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구술하고 있다. 길들일 때 쟁기를 메우기 전에 돌을 많이 이용한다. 세화리 강기수 씨는 소를 세 마리 정도 길들여 본 경험이 있는데 모두 직접 밭을 갈면서 가르쳤다고 한다. 송좌길 씨는 맷돌 위쪽의 구멍이 나 있는 돌을 이용해서 소에게 밭갈이를 가르쳤다고 했다.

6.2. 돼지 관련

(1) 통시

‘통시’는 돼지를 가두어 기르면서, 한쪽에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통세’, ‘돗통시’, ‘돗통’이라고도 한다.

30)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31) 세화리 송좌길 씨 구술.

“통시 저디 도세기 질łatw지, 도세기. 아마 저 개량변소 헬 때끼지 썼으니까. 하튼 서화리서 나가 (개량을) 제일 먼저 했어. 나 마흔 혼 대여섯꺼지 저거 썼어. 저디 도세기 집 짓엇지.”³²⁾

(‘통시’ 저기 돼지 길렀지, 돼지. 아마 저 개량변소 할 때까지 썼으니까. 하여튼 세화리에서 내가 개량을 제일 먼저 했어. 나 마흔 한 대여섯까지 저거 썼어. 저기 돼지 집 지었지.)



<사진 28> 양일선 씨 집의 ‘통시’



<사진 29> 강기수 씨 집의 ‘통시’

<사진 28>은 하천리 양일선 씨(1949년생) 집의 ‘통시’고, <사진 29>는 세화리 강기수 씨 집의 ‘통시’ 자리다. 두 곳 모두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나 원래 ‘통시’가 있었던 형태로 돌담이 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화리 강기수 씨는 마흔대여섯까지는 사진의 ‘통시’를 이용하다가 개량했다. 세화리에서 강 씨가 가장 먼저 화장실 개량을 했다고 한다.



<사진 30> 한사울 씨 집의 ‘통시’



<사진 31> 한사울 씨 ‘통시’의 ‘디딜팡’

<사진 30>과 <사진 31>은 성읍리 한사울 씨(1935년생) 집의 ‘통시’와 ‘통시’에 놓여

32) 세화리 강기수 씨 구술.

있는 ‘디딜팡’이다. ‘디딜팡’은 변소의 발을 디디고 앉아서 뒤를 보게 한 돌을 말하는데, 표준어로는 ‘부춘돌’에 해당한다. 성읍민속마을 안의 있는 한사율 씨 집은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집으로, 초가 건물에 옛날 사용했던 공간이나 물건들이 옛날 그대로 또는 재현된 상태로 놓여 있다.

(2) 뜻도고리

‘뜻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사용하는, 돌을 파서 만든 도구다. ‘뜻’은 돼지를 의미하고, ‘도고리’는 함지박과 같이 큰 바가지 모양의 그릇을 나타내는 말로 ‘뜻도고리’는 돌로 만든 함지박이라는 의미다.



<사진 32> 한사율 씨 소장 ‘뜻도고리’



<사진 33> 부대옥 씨 소장 ‘뜻도고리’

<사진 32>는 성읍리 한사율 씨가 보관하고 있는 ‘뜻도고리’고, <사진 33>은 토산리 부대옥 씨(1948년생)가 보관하고 있는 ‘뜻도고리’다. 돼지 먹이통을 <사진 32>, <사진 33>에서와 같이 돌을 둥글게 파서 만들기도 하고 네모나게 파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뜻도고리 거 통시에 도세기 것 줄 때. 오래 안 됐주. 아이가, 우리 족은놈이 육십이난, 족은놈 장개갈 때까지 키와시난. 집이서 잔치허멍 그 도세기 잡아난.”³³⁾

(‘뜻도고리’ 그거 ‘통시’에 돼지 먹이 줄 때. (돼지 안 기른 지) 오래 안 됐지. 아이가, 우리 작은아들이 육십이니까, 작은아들 장가갈 때까지는 키웠으니까. 집에서 잔치하면서 그 돼지 잡았었어.)

33) 하천리 강윤평 씨 구술.



<사진 34> 강윤평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35> 김수철 씨 소장 '돗도고리'

<사진 34>는 하천리 강윤평 씨가 보관하고 있는 '돗도고리'다. 강 씨는 지금 육십 세인 작은아들을 장가보낼 때 집에서 키운 돋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집에서 돋지를 키우면서 사진의 '돗도고리'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마당 한쪽의 화단에 놓여 있다. <사진 35>는 하천리 김수철 씨(1942년생) 집 마당 한쪽에 놓여 있는 '돗도고리'다.





마무리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표선면 편』은 표선면 사람들의 옛 생활 도구를 현지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시리, 성읍리, 세화리, 토산리, 표선리, 하천리 등 표선면의 모든 마을을 조사 지점으로 하여, 각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 주민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6개 마을에서 총 51명의 제보자를 만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전통 생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실물이 있는 경우 그것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 책에는 제보자들의 구술 내용을 꼼꼼히 전사하고 분야별로 정리하여 총 693장의 사진 자료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 책은 I 장 조사 개요, II 장 조사 내용, III 장 마무리,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I 장에는 조사 개요와 조사단 구성,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고, 조사 지역인 표선면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사 마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II 장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농업 관련, 어업 관련, 목축 관련’의 6개의 절로 나누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다.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 도구는 바느질 도구, 손질 도구, 세탁 도구, 의복과 신발 등에 대해 그 명칭과 쓰임 등을 기술하였다. 바느질 도구로는 ‘미싱’과 ‘미싱’에 따른 여러 종류의 부속품, ‘바농’, ‘실’, ‘그세’는 물론 이들을 보관하는 ‘바농쌍지’ 등을 소개하였다. 옷을 곱게 마련하기 위한 손질 도구로는 ‘다듬이돌베’와 ‘다듬잇돌’, ‘홍짓대’와 ‘다듬이마께’가 조사되었고, 또한 옷의 깃 등을 다리는 ‘윤디’와 숏을 넣어 사용하는 ‘다리미’ 등의 실물을 확인하고 촬영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특히 프라이팬 형태의 ‘다리미’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다리미’의 형태를 나란히 제시하여 둘의 모양을 비교하는 재미도 찾을 수 있었다.

세탁 도구로는 현재도 사용하는 ‘빨래마께’, ‘빨래팡’, ‘빨랫줄’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의복과 관련해서는 몸에 가장 먼저 걸치는 ‘뜸바대’부터 다양한 색깔의 ‘적삼’, ‘바지’,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등을 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표선면 제보자들이 신었던 신발로는 ‘낭신’, ‘초신’, ‘고무신’에 대한 구술 및 사진을 얻었으며, 그 가운데 몇몇은 제보자들이 지금까지도 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외의

의생활 도구로 ‘솔’, ‘이불’, 모자류, ‘우장’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식생활 도구는 식기류와 조리 도구, 저장과 운반 도구, 제기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식기류의 경우 여러 종류의 밥그릇과 국그릇, 보시기와 접시, 술잔, 종지 등을 조사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표선면 지역에서는 옛 식생활 도구를 오랜 기간 보관, 잘 관리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 ‘모를사발’과 ‘모를접시’, 그리고 나무로 만든 ‘쟁반’과 사기로 만든 ‘쟁반’, 질그릇 양념단지와 간장단지를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식생활 관련 도구로 여러 종류의 ‘구덕’과 ‘차롱’도 조사할 수 있었다. ‘구덕’과 ‘차롱’의 쓰임새에 대한 제보자들의 구술은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조리 도구로는 ‘가메솟’을 비롯하여 ‘지세 시리’, ‘돔배’, ‘건지기’, ‘남국자’, ‘남죽’, ‘방에혹과 방앳귀’, ‘절벤본’ 등을 조사하여 실었다. 또 아궁이 위에 솥이 놓여 있는 옛날 부엌의 구조도 조사할 수 있었다. 저장 도구로는 여러 종류의 항아리와 허벅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표선면 지역 조사에서는 여러 제보자가 소장하고 있는 ‘놋그릇’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놋그릇’ 대부분은 제기로 사용했던 것이다.

셋째, 주생활 도구는 표선면 지역의 주거 양식 변화를 주생활 도구의 변화를 통해 최대한 담아내려 하며 집 관련, 가재도구, 조명 도구, 난방 도구, 연장류 등을 실었다. 이에 먼저 집과 관련된 항목으로 제주의 전통 가옥의 형태인 ‘초가’의 모습을 소개하였고, ‘올레’, ‘정주석과 정살낭’, ‘문’, ‘물통’ 등에 대한 구술과 사진을 소개하였다. 가재도구로는 다른 지역에서 조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시집을 때 장만해 오던 혼수 용품 중의 하나였던 ‘궤’에서부터 ‘벽장’, ‘살례’, ‘책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지’, ‘호야’, ‘전등’ 등을 통해 전기가 보급되기 전과 후의 조명 도구의 변화를 보이려 했다. 난방 도구 가운데에서 ‘화리’는 만드는 재료에 따라 달리 불리는 다양한 ‘화리’들을 싣는 행운을 얻었다. 그 외에도 ‘적쉐’, ‘불접게와 불수저’, ‘굴묵’, ‘굴묵군데’ 등도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연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제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톱’, ‘도치’,

‘망치와 뜻빼기’, ‘메’, ‘정’ 등을 구술 자료와 함께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생활과 관련된 도구 가운데 따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로 엮어 ‘덩드렁과 덩드렁마께’, ‘애기구덕’, ‘요강’ ‘벼루집’, ‘담배통과 담뱃대’, ‘비치락’ ‘공장과 간지’, ‘사다리’ 등도 실었다. 특히 ‘호령이’, ‘광목 천막’, ‘줄방석과 남방석’, ‘전화기’ 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도구여서 표선면 지역의 기록으로 남기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사일 도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관련한 도구와 김을 매고, 거두어들일 때 사용했던 도구, 곡식을 말리고 손질하는 도구, 수확한 곡식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도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농작물을 파종할 때 관련한 도구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멍에와 잠대’, ‘보섭과 벗’, ‘삽’, ‘괭이’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표선면 지역에서는 직접 땅을 일굴 때 사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따비’를 조사할 수 있었다. 김매기와 수확 관련 도구로는 ‘글쟁이’와 ‘호미’, ‘도께’ 등을 조사하였는데, ‘도께’의 부분 명칭이나 각 부분의 역할, 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건조와 손질 관련해서는 ‘멍석’과 ‘솔박’, ‘근데’, ‘체’, ‘푸는체’, ‘물그레’, ‘그레’ 등의 도구를 조사하여 구술 자료와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번 표선면 조사에서는 성읍리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물그레’를 조사할 수 있었다. 운반 도구로 여러 종류의 ‘글체’와 온전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지게’ 등을 실물을 보고 구술을 들으며 조사할 수 있었다. 한편, ‘산테’나 ‘걸름착’, 짐을 실어나르는 마차인 ‘바레기’ 등은 실물을 보지 못한 채 제보자들의 구술로 정리하였다. 감귤 농사와 관련한 것으로, 나무로 만든 감귤 상자나 가지치기용 긴 ‘낫’ 등은 표선면 지역 농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도구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표선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무 농사 관련 도구인 ‘벌’과 ‘님빼 써는 거’라 불렀던 채칼을 조사할 수 있었다. 김발로 사용할 푸른 새를 베어 장만할 때 썼던 ‘새치기’라는 도구도 처음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 곡식을 화로에 말릴 때 사용했던 ‘고리’나 씨 뿌릴 때 사용하는 ‘망테’ 등도 처음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표선면 조사에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바닷일 도구는 해녀들의 물질 도구와 낚시 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화리 해녀탈의장을 방문하여 해녀들이 갓 잡은 성게를 장만하는 장면을 조사할 수 있었다.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녀들을 만나 물질 도구 관련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물옷은 예전에 입었던 ‘속곳’과 ‘물적삼’ 등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지는 못했다. 예전 물질 도구는 구술로만 정리하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고무옷’이나 사용 도구는 실물 사진과 함께 구술을 정리하였다. ‘테왁’이나 ‘망사리’ 등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실물을 보고 사진 촬영할 수 있었고, ‘콕테왁’이나 ‘미망사리’ 등은 구술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나마 물안경인 ‘눈’이나 ‘구덕’은 옛것을 보관하고 있어서 조사할 수 있었다.

이번 표선면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대나무 낚싯대인 ‘첨대’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 또한 바닷일에 사용하는 ‘구덕’의 다양한 명칭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여섯째, 목축 관련 도구는 마소와 돼지를 기르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성읍민속마을의 전통 가옥에서 소를 가둬 길렀던 ‘쉐막’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소와 관련하여 ‘물접게’, ‘물질메’에 관해서는 실물을 보면서 그것의 사용 용도 등을 들으며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낫’ ‘넥인’ 등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돼지와 관련해서는 돼지를 가두어 길렀던 ‘통시’와 먹이를 줄 때 사용했던 ‘돗도고리’를 조사하여 구술과 함께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표선리 박봉화 씨(1933년생)와 세화리 송좌길(1939년생) · 강희선 씨(1940년생)의 옛 생활 도구에 관한 구술을 실었다. 표선리 박봉화 씨는 의생활 도구, 식생활 도구, 바닷일을 하면서 사용했던 도구에 대해 구술해 주었고, 세화리 송좌길 씨 · 강희선 씨는 보리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했던 도구등에 대해 주술해 주었다. 표선면

마을 주민의 제주어 구술을 표준어 대역과 함께 실은 이유는 이들의 생생한 구술이 제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 생활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생활 도구의 변화로 이어졌다. 새로운 물건들의 등장과 함께 옛 물건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낡고 낡은 물건들을 덧대고 기우며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성해 본다.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옛 물건들이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선인들의 손때가 묻은 옛 생활 도구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술과 도구 사진이 앞선 시대를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과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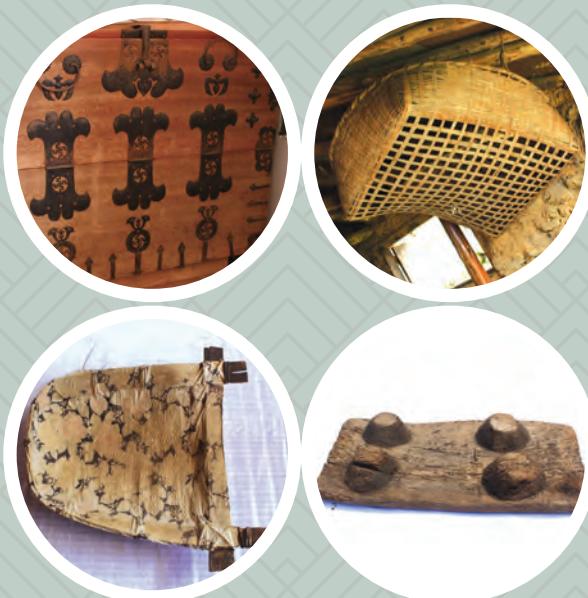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2009), 『표선면 역사문화지』,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3),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Ⅰ - 애월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Ⅱ - 조천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5),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Ⅲ - 구좌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Ⅳ - 안덕면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7),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Ⅴ - 한경면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8),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Ⅵ - 성산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19),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Ⅶ - 대정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20),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 남원읍 편』.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2020), 『제주의 민속과 자연을 품은 에코뮤지엄 - 보물섬 정의현성』.
- 현평호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논문>

- 문길상(2020), 「제주동부지역 지하수(용천) 특성조사 연구-표선지역을 중심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누리집>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http://seogwipo.grandculture.net/seogwipo>
- 서귀포시 표선면, <http://www.seogwipo.go.kr/local/pyoseon/main.htm>
-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s://www.jeju.go.kr/index.htm>
- 흙토람, <http://soil.rda.go.kr>





부록

표선리 박봉화 씨의 의생활, 식생활, 바닷일 도구 이야기

의생활 도구

김보향 삼촌 이름을 다시 한번 골아 줍서.(삼촌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박봉화 박봉화.(박봉화)

김보향 예. 멧 년생마씨? 무슨 뜻?(예. 몇 년생이에요? 무슨 뜻?)

박봉화 닭띠.(닭띠.)

김보향 닭띠예? 예. 우리 지난번에 사진도 막 찍었 가신디, 미싱 사진도 찍고 헤신디
우선은 그 옷 멩그는 거부터 한번 물어보쿠다. 옷 멩그는 거.(닭띠요? 예. 우리
지난번에 사진도 많이 찍고 갔는데, 재봉틀 사진도 찍고 했는데 우선은 그 옷
만드는 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옷 만드는 거.)

박봉화 옷 멩그는 거?(옷 만드는 거?)

김보향 어. 우리 바농질허젠허민예, 바농질허젠허민 뭐가 셔살 거?(어. 우리
바느질하려고 하면요, 바느질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 거?)

박봉화 무시것가 필요해여?(무엇이 필요해?)

김보향 응.(응.)

박봉화 바농질허젠허민?(바느질하려고 하면?)

김보향 으.(으.)

박봉화 손바농질? 무슨 바농질?(손바느질? 무슨 바느질?)

김보향 손바농질.(손바느질.)

박봉화 손바농질.(손바느질.)

김보향 응.(응.)

박봉화 손바농질 무시거 필요허멍 말멍, 손가락에 손도메 찌는 사람은 손도메 찌주만은
우린 손도메 안 찌 봐.(손바느질 뭐 필요하면서 말면서, 손가락에 골무 끼는

사람은 골무 끼지만 우린 골무 안 껴 봤어.)

김보향 손도메 안 찌어 봤?(골무 안 껴 봤어?)

박봉화 응.(응.)

김보향 게민, 바농 잊어, 셔살 거고.(그럼, 바늘 있어, 있어야 할 거고.)

박봉화 바농 그대로.(바늘 그대로.)

김보향 응, 그대로.(응, 그대로.)

박봉화 그대로 문.(그대로 모두.)

김보향 그대로 바농질할 거. 실도 셔살 거고?(그대로 바느질할 거. 실도 있어야 할 거고?)

박봉화 으.(으.)

김보향 우리 바농이랑 실이랑 담아 놓는 요런 그릇 잊어낫잖아요, 뭔가. 그거 뭐렌
골아낫수과?(우리 바늘이랑 실이랑 담아 놓는 이런 그릇 있었잖아요, 뭔가. 그거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박봉화 바농상제.(반진고리.)

김보향 바농상제 안에 뭐 뭐 이신 거 다 골아 봅서.(반진고리 안에 뭐 뭐 있는 거 다 말해
보세요.)

박봉화 바농상지 안에?(반진고리 안에?)

김보향 응.(응.)

박봉화 바농 놓고 ㅋ세 놓고 실덜, 훑은 실 놓고 좀진 실 놓고.(바늘 넣고 가위 넣고 실들,
굵은 실 넣고 가는 실 넣고.)

김보향 응.(응.)

박봉화 경혜근에 허주게.(그래서 하지.)

김보향 경허믄 될 거예?(그러면 될 거예요?)

박봉화 응.(응.)

김보향 옛 멘들젠 허민 이거 뭐도 이서야 텔 거? 재젠 허믄 뭐도 이서야 될 거 아니예?(옛
만들려고 하면 이거 뭐도 있어야 될 거? 재려고 하면 무엇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봉화 자.(자.)

김보향 자. 자도 그것도 멘글앙 썻수과?(자. 자도 그것도 만들어서 썼습니까?)

박봉화 멘글앙 그자 그 풀앗주. 그땐이.(만들어서 그저 그 팔았지. 그때는.)

- 김보향 풀안예?(풀았어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맹글앙 이 동네서 영 허민덜 어르신덜 맹글앙 허영 주믄 빌어다근에.(만들어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만들어서 해서 주면 빌려다가.)
- 김보향 그거 빌어당예. 경행 이거 바농상지는 어떤 거로 바농상지 행 써신고예?(그거 빌려다가요. 그래서 이거 반진고리는 어떤 것으로 반진고리 해서 썼나요?)
- 박봉화 계난 바농상지, 무시거 요즘 그뜨면 소쿠리그치.(그러니까 반진고리, 뭐 요즘 같으면 소쿠리같이.)
- 김보향 음.(음.)
- 박봉화 영 동글랑현 거.(이렇게 동그란 거.)
- 김보향 음.(음.)
- 박봉화 소쿠리그치 헌 것에 바농들이영 문 저런 거 놔근에 바농상지엔.(소쿠리같이 한 것에 바늘들이랑 모두 저런 거 넣어서 반진고리라고.)
- 김보향 계난 옛날에 그거 구덕이라예?(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구덕이지요?)
- 박봉화 응. 구덕이나 마찬그지주.(응. 구덕이나 마찬가지지.)
- 김보향 구덕에 뭐 우에 천 불랑 썻수과, 아니민 그냥 썻수과?(구덕에 뭐 위에 천 바르고 썼습니까, 아니면 그냥 썼습니까?)
- 박봉화 천 불랑 썻어.(천 발라서 썼어.)
- 김보향 천 불랑 썻어? 그럼 그런 구덕을 무슨 구덕이렌 불러?(천 발라서 썼어? 그럼 그런 구덕을 무슨 구덕이라고 불러?)
- 박봉화 천 불랑 쓰는 거?(천 발라서 쓰는 거?)
- 김보향 어.(어.)
- 박봉화 계난 바농상지 웨에는 그자 저 구덕, 구덕 쏠 그튼 거 놓는 구덕 그튼 거 불랑 쓰곡.(그러니까 반진고리 외에는 그저 저 바구니, 바구니 쌀 같은 거 넣는 바구니 같은 거 발라서 쓰고.)
- 김보향 어.(어.)
- 박봉화 또 어디 모슬 친척집이나 어디 사둔집이나 부지 아정 가는 구덕은 고대구덕, 불르지 아녕 그냥 쓰곡.(또 어디 마을 친척집이나 어디 사둔집이나 부조 가지고 가는 구덕은 ‘고대구덕’, 바르지 않고 그냥 쓰고.)

- 김보향 으. 불르지 않은 거 쓰곡.(으. 바르지 않은 거 쓰고.)
- 박봉화 고대구덕 잇어. 옛날 경행 헤난 거.(‘고대구덕’ 있어. 옛날 그렇게 했던 거.)
- 김보향 그거 불른구덕이렌 해? 풀불른구덕이렌 해?(그거 ‘불른구덕’이라고 해?
‘풀부른구덕’이라고 해?)
- 박봉화 어, 불른구덕, 부른, 저 부른구덕.(어, ‘불른구덕’, 바른, 저 ‘부른구덕’.)
- 김보향 예, 부른구덕. 게민 바농상지도 부른구덕 조그만한 거?(예, ‘부른구덕’. 그럼 반진고리도 ‘부른구덕’ 조그마한 거?)
- 박봉화 조그만한 거 동글랑한 거 헤근에 불라근에 바농상지.(조그마한 거 동그란 거 해서
발라서 반진고리.)
- 김보향 맞아, 맞아. 삼춘 옛날에 경행 바농질행 어떤 옷들을 만들어 봤수꽈?(맞아, 맞아.
삼촌 옛날에 그렇게 바느질해서 어떤 옷들을 만들어 봤습니까?)
- 박봉화 그자 이녁냥으로 영 봐 가멍, 기자 시원하게 여름에 적삼 그튼 것도 만들고.(그저
자기대로 이렇게 봐 가면서, 그저 시원하게 여름에 적삼 같은 것도 만들고.)
- 김보향 적삼 만들고, 어.(적삼 만들고, 어.)
- 박봉화 그때 만들앙 입단 거 이제도 있어.(그때 만들어서 입던 거 이제도 있어.)
- 김보향 이제도 있어?(이제도 있어?)
- 박진향 이제도 있어마씨?(이제도 있어요?)
- 김보향 게믄 옛날에 입단 거 이시민 잇당 사진 ㅎ꼼 찍으쿠다예?(그럼 옛날에 입던 거
있으면 있다가 사진 조금 찍겠습니다.)
- 박봉화 옛날에 만든 거?(옛날에 만든 거?)
- 김보향 예, 이시민. 삼춘이 만든 거.(어, 있으면. 삼춘이 만든 거.)
- 박봉화 나냥으로 만든 거.(나대로 만든 거.)
- 김보향 어, 아이고.(어, 아이고.)
- 박봉화 그자 영. 뜸바대로이, 여름엔 시원하게 영.(그저 이렇게. 땀받이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 박진향 갈중이 같은 거?(‘갈중이’ 같은 거?)
- 박봉화 영 쪼르게시리.(이렇게 짧게.)
- 김보향 어.(어.)
- 박봉화 어깨마리도 만들앙.(‘어깨마리’도 만들어서.)
- 김보향 어깨마리도 만들엉 입곡.(‘어깨마리’도 만들어서 입고.)

- 박봉화** 응, 베로.(응, 베로.)
- 김보향** 베로.(베로.)
- 박봉화** 경 만들앙 입곡 적삼 영 졸르게시리도 행 입곡 또 긴 적삼도.(그렇게 만들어서 입고 적삼 이렇게 짧게 해서 입고 또 긴 적삼도.)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경 헛쓸 풀 질게도 입곡.(그렇게 조금 팔 길게도 입고.)
- 김보향** 게믄 그 적삼은 뭐로 만들았수과? 미녕으로 만들았수과?(그럼 그 적삼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무명으로 만들었습니까?)
- 박봉화** 베.(베.)
- 김보향** 베로.(베로.)
- 박봉화** 여름 꺼 베.(여름 건 베.)
- 김보향** 여름 꺼 베, 예.(여름 건 베, 예.)
- 박봉화** 겨울에 입는 건 미녕.(겨울에 입는 건 무명.)
- 김보향** 겨울에 입는 건 미녕.(겨울에 입는 건 무명.)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여름에는 베.(여름에는 베.)
- 김보향** 베. 베는 사당 현 거?(베. 베는 사다가 한 거?)
- 박봉화** 응게게. 베는 푸난에게.(응. 베는 파니까.)
- 김보향** 옛날에 여기에 멘네나.(옛날에 여기에 면화나.)
- 박봉화** 응, 멘네 옛날엔 우리 두린 때 보민 어르신덜 멘네 싱거근에이. 그 멘네 타다근에 그 빵, 씨 빼근에 다듬아근에 멘네로 그 태우는 디 가근에 태와다근에 그걸로 이불도 허곡. 멘네 영 둘르는 거 썰도 빼근에.(응, 면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 면화 심어서. 그 면화 따다가 그 빼서, 씨 빼서 다듬어서 면화로 그 태우는 데 가서 태워다가 그걸로 이불도 하고. 면화 이렇게 두르는 거 실도 빼서.)
- 김보향** 음.(음.)
- 박봉화** 허곡 경헨게. 우리 두린 때 보믄.(하고 그러더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 김보향** 두린 때 보믄 경 혜난예?(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했었어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삼춘넨 혜나지 안허고?(삼춘네는 했었지 않고?)

- 박봉화** 우린 안 해연. 우리 부모들이 해연.(우린 안 했어. 우리 부모들이 했어.)
- 김보향** 응. 부모들이 해연. 계난 그거 보기는 해낫구나.(응. 부모들이 했어. 그러니까 그거 보기는 했었구나.)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멘네 타레도 뎅겨낫수과?(면화 따라도 다녔었습니까?)
- 박봉화** 멘네 응. 그거 혜영 뱗디 싱경 행 허믄 멘네 타레도 갓주. 부모님덜 행 허믄이.(면화 응. 그거 해서 밭에 심고 해서 하면 면화 따라도 갓지. 부모님들 해서 하면.)
- 김보향** 으, 으.(으, 으.)
- 박봉화** 그든 헤다근에 행 다듬아근에 태운 디 가근에 태와다근에 겨울옷엔, 옛날엔 저고리에도 복삭허게시리 소게 놔근에 저고리 행 입곡. 게 우리 어머니네도 당신네 입다근에 저 입당 족은 옷 혜영 옛날엔 불고롱허게시리 물들여근에.(그럼 해다가 해서 다듬어서 태운 데 가서 태워다가 겨울옷에는, 옛날에는 저고리에도 폭신하게끔 솜 넣어서 저고리 해서 입고. 그래 우리 어머니들도 당신들 입다가 저 입다가 작은 옷 해서 옛날에는 발갛게 물들여서.)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아이들이난 그자 곱게 허민 빨강 물 들여근에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빨강 물 들여근에 그 소게 복세기 낭 저고리 맹글앙 정월 맹질 때엔.(아이들이니까 그저 곱게 하면 빨간 물 들여서 우리 어머니들 하는 거 보면 빨간 물 들여서 그 솜 폭신하게 넣어서 저고리 만들어서 정월 명절 때에는.)
- 박진향** 입곡.(입고.)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옷 멘들앙 입어난?(옷 만들어서 입었었어?)
- 박봉화** 응. 이젠 사당 입주만은 그땐 경행 맹글앙 입지주게. 저고리 맹글앙 입지곡. 치메 맹글앙 입지곡.(응. 이젠 사다가 입지만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입히지. 저고리 만들어서 입히고. 치마 만들어서 입하고.)
- 김보향** 삼촌네는 저고리 치메 멘들어 보지 안해신디.(삼촌네는 저고리 치마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 박봉화** 아니, 게도 부모님덜 하는 거 보멍 맹글앙 입었주. 어른 뛰 가난에. 어, 첨 나이 들어가난에 맹글앙 입언. 아이 땐 부모님덜이 그거 만들아근에게 복삭허게시리 새 소게, 멘네 소게 태와다근에 저고리에 놔근에 복삭하게 겨울엔 만들아 줘.(아니,

그래도 부모님들 하는 거 보면서 만들어서 입었지. 어른 돼 가니까. 어, 첨 나이 들어가니까 만들어서 입었어. 아이 때는 부모님들이 그거 만들어서 폭삭하게 새 솜, 면화 솜 태워서 저고리에 넣어서 폭삭하게 겨울에는 만들어 줘.)

김보향 아.(아.)

박봉화 경행 입영.(그렇게 입고.)

김보향 그 저고리 치메 멘들젠 허민 그때 미싱 잇엉 헷수과, 다 손으로 헷수과?(그 저고리 치마 만들려고 하면 그때 재봉틀 있어서 했습니까, 다 손으로 했습니까?)

박봉화 손으로 헷주게, 그때덜은게. 할망덜 손으로. 우리 대에사 저 미싱 헷주만은 할망덜 대엔 손으로.(손으로 했지, 그때들은. 할머니들 손으로. 우리 대에야 저 재봉틀 했지만 할머니들 대엔 손으로.)

김보향 손으로? 손으로만.(손으로? 손으로만.)

박봉화 응.(응.)

김보향 기라예, 기라예.(그렇지요, 그렇지요.)

박봉화 그거 다 바농질허멍예.(그거 다 바느질하면서요.)

김보향 바농질허멍 다 만들안. 그 바농은 바농도 트나지 안힙니까? 이불허는 바농이영 옷 해 입는 바농이영.(바느질하면서 다 만들었어. 그 바늘은 바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불하는 바늘이랑 옷 해 입는 바늘이랑.)

박봉화 이불 허는 바농은 크주게. 크곡이 귀도 크곡, 바레경 잘 궤지렌이. 굵은 실 궤는 거난에 귀 크곡. 경현디 우리 대에 가난이 바농도 경 크지 안해여.(이불 하는 바늘은 크지. 크고 귀도 크고, 볼 수 있어서 잘 궤도록. 굵은 실 궤는 거니까 귀 크고. 그런데 우리 대에 가니까 바늘도 그렇게 크지 않아.)

김보향 응.(응.)

박봉화 줄게 나왕이, 손바농질허는 바농 준 거 나오고.(잘게 나와서, 손바느질하는 바늘 잔 거 나오고.)

김보향 음.(음.)

박봉화 이불 허는 거 그런 거 크게, 귀영 큰큰헌 게 크게 나오고.(이불 하는 거 그런 거 크게, 귀랑 크디큰 게 크게 나오고.)

김보향 경 행 바농 보몄수다. 보미민 어떻 혜야 뭐?(그렇게 해서 바늘 녹슬었습니다. 녹슬면 어떻게 해야 돼?)

박봉화 보미민 어른덜 허는 거 보민 바당에 가민 속돌이엔 헌 돌이 있어, 하양현 거이.

속돌이엔 헌 게 물에, 어디서사 온 거산디 터 오라근에 바당고이 올르주게.(녹슬면 어른들 하는 거 보면 바다에 가면 ‘속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 하얀 거. ‘속돌’이라고 하는 게 물에, 어디에서 온 거인지 떠 와서 바닷가에 오르지.)

김보향 응.(응.)

박봉화 올르민 그거 줋어당 속돌이렌 헤근에 그걸로 다깡.(오르면 그거 주워다가 ‘속돌’이라고 해서 그걸로 닦아서.)

김보향 아, 게믄 바농상제에 속돌도 잊어사쿠다예?(아, 그럼 반진고리에 ‘속돌’도 있어야겠네요?)

박봉화 응, 바농상지에 속돌도 놔두주게.(응, 반진고리에 ‘속돌’도 놔두지.)

김보향 놔뒀지예? 예. 경행 경행 허당 미싱을 쓴 도래가 언제 뛰난 미싱이 나왕 삼춘 미싱으로 옷을 멘들앗수과?(놔뒀지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재봉틀을 쓴 도래가 언제 되니까 재봉틀이 나와서 삼춘 재봉틀로 옷을 만들었습니까?)

박봉화 계난 저거 미승은 우리 시집간 후제 미승이 나온고라이.(그러니까 저거 재봉틀은 우리 시집간 후에 재봉틀이 나왔는지.)

김보향 응.(응.)

박봉화 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나오긴 나온 거라. 경혜도 아이 때난에게 우린 헐 중 몰르곡. 아니 상 헷주만은 시집갈 나이 뛰어 가난에 나이 들어가난에 미승을 산 거라이.(우리 시집가기 전에도 나오긴 나온 거야. 그래도 아이 때니까 우린 할 줄 모르고. 안 사고 했지만 시집갈 나이 돼 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재봉틀을 산 거야.)

김보향 응.(응.)

박봉화 계난 그 미승이 그자 있어. 아이디알 무슨 잇다가이, 쌠 거이, 좋은 걸로 그때 산 거라이. 아이디알 무신.(그러니까 그 재봉틀이 아직 있어. 아이디알 무슨 있다가 쌠 거, 좋은 걸로 그때 산 거야. 아이디알 무슨.)

박진향 아이디알?(아이디알?)

박봉화 아이디알.(아이디알.)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허난이 그자 혼 번 고장도 안 나 봤.(그러니까 아직 한 번 고장도 안 나 봤어.)

김보향 어. 지난번에 그거 사진 칙었수다. 그거.(어. 지난번에 그거 사진 찍었습니다. 그거.)

- 박봉화** 으, 고장도 흔 번 안나 봤.(으, 고장도 한 번 안나 봤어.)
- 김보향** 고장도 흔 번 안나 봤?(고장도 한 번 안나 봤어?)
- 박봉화** 응. 경행 저거 사용허주게.(응. 그래서 저거 사용하지.)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계난 미승 산 오난에 그자 이녁 모음대로 이거도 맹글곡 저것도 맹글곡.(그러니까 재봉틀 사서 오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 박진향** 손으로 만들 땐 얼마나 걸련마씨? 아까 적삼 하나 만들겠 허면?(손으로 만들 때는 얼마나 걸려요? 아까 적삼 하나 만들려고 하면?)
- 박봉화** 아이구, 그거 역별영 앗아근에 문직, 만들아져? 밧디 일허레 가져.(아이구, 그거 일부러 시간 내서 앉아서 만져, 만들 수 있어? 밭에 일하러 가랴.)
- 박진향** 아.(아.)
- 박봉화** 바당에 물질허레 가져, 경허당 트명난 때 바당이 쎄영 바당에 못 갈 때나 허곡.(바다에 물질하러 가랴, 그러다가 틈날 때 바다가 세서 바다에 못 갈 때나 하고.)
- 김보향** 비 오민.(비 오면.)
- 박봉화** 응. 비 오민 밧디나 못 갈 때 앗아근에 허곡 허주. 경 그 역별영 앗앙 경 헤여져?(응. 비 오면 밭에나 못 갈 때 앉아서 하고 하지. 그렇게 그 일부러 시간 내서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
- 김보향** 기라예?(그렇지요?)
- 박봉화** 응. 일하다 보문.(응. 일하다 보면.)
- 박진향** 몇 달에 걸청인에.(몇 달에 걸쳐서.)
- 박봉화** 응. 일허당 보문.(응. 일하다가 보면.)
- 박진향** 트명날 때 행 하나 만들고, 한 벌 만들고 힘구나예?(틈날 때 해서 하나 만들고, 한 벌 만들고 하는군요?)
- 박봉화** 으, 트명날 때마다.(으, 틈날 때마다.)
- 박진향** 겐 미싱 생기고 나선 다라락 행 금방 만들언마씨?(그래서 재봉틀 생기고 나서는 다라락 해서 금방 만들었어요?)
- 박봉화** 게, 미승 헤근에게 허믄 아맹해도 쉬워근에게 재게 만들어지주게.(그럼, 재봉틀 해서 하면 아무래도 쉬워서 빨리 만들 수 있지.)
- 박진향** 재게 만들어지고.(빨리 만들 수 있고.)
- 김보향** 계난 미싱으로 어떤 옷 멘들아 봇수과?(그러니까 재봉틀로 어떤 옷 만들어

봤습니까?)

박봉화 미승으로?(재봉틀로?)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게난 그자, 몸빼도 만들양 입곡, 적삼도 만들양 입곡 그자 그거주.(그러니까 그저, 몸빼도 만들어서 입고, 적삼도 만들어서 입고 그저 그거지.)

김보향 그거주예? 미싱 허난.(그거지요? 재봉틀 하니까.)

박진향 커텐도 만들고 경 안 헨마씨?(커튼도 만들고 그렇게 안 했어요?)

박봉화 어?(어?)

박진향 커텐 만들고 이런 거.(커튼 만들고 이런 거.)

박봉화 커텐도 영 만들고 그자 손, 손수운 걸로 미승은 허문게 손바농질보다는 쉬운 거난에.(커튼도 이렇게 만들고 그저 손, 손쉬운 것으로 재봉틀은 하면 손바늘질보다는 쉬운 거니까.)

김보향 응.(응.)

박진향 다라락 다라락 허멍예?(다라락 다라락 하면서요?)

박봉화 응. 만들아지주게.(응. 만들 수 있지.)

김보향 게난 손바농질힐 때 보민 바농질하는 방법에도 막 ♪라 개 잇수게예? 영 영 헹듬성듬성하는 것도 잇곡?(그러니까 손바느질할 때 보면 바느질하는 방법에도 아주 여러 개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헹듬성듬성하는 것도 있고?)

박봉화 으, 으.(으, 으.)

김보향 거 뭐렌 골아?(그거 뭐라고 말해?)

박봉화 헉? 그자 엉금엉금 허렌 할망덜 경허주. 그자 대충 허렌 헌 소리라. 엉금엉금 허렌 훑게시리. 그자 홀싹 홀싹 홀싹 홀싹석 허곡. 좀질게 허는 건 막 좀상시리. 손바농질도이 미승 안 나오랑 헌 땐 미승으로 헌 거 모냥으로 텩침하는 거.(듬성? 그저 엉금엉금 하라고 할머니들 그렇지. 그저 대충 하라고 하는 소리야. 엉금엉금 하라고 굽게. 그저 홀싹 홀싹 홀싹 홀싹씩 하고. 가늘게 하는 건 아주 자질하게. 손바느질도 재봉틀 안 나와서 할 때는 재봉틀로 한 거 모양으로 박음질하는 거.)

김보향 텩침하는 거.(박음질하는 거.)

박봉화 응, 텩침으로 박아근에 허문이 미승이나 다름없이 맹글주게.(응, 박음질로 박아서 하면 재봉틀이나 다름없이 만들지.)

김보향 예.(예.)

- 박봉화** 미승 엇일 땐 경행 뎅침해근에 이 적삼도이 옷 도련 매력본이엔 행이.(재봉틀 없을 때는 그렇게 박음질해서 이 적삼도 옷 도련 '매력본'이라고 해서.)
- 박진향** 매력본?(‘매력본’?)
- 박봉화** 응. 뿐 나게시리 허믄이 막 정성.(응. 품 나게 하면 아주 정성.)
- 박진향** 오래 걸리고.(오래 걸리고.)
- 박봉화** 응, 정성시리 헨다게. 응, 계난 뎅침.(응, 정성스럽게 한다. 응, 그러니까 박음질.)
- 김보향** 이 도련 하는 게 힘듭니까? 여기에 공 들어가?(이 도련 하는 게 힘듭니까? 여기에 공 들어가?)
- 박봉화** 응. 이 도련 허는 게, 이 도련에서 옷 메두리가 나오주게.(응. 이 도련 하는 게, 이 도련에서 옷 맵시가 나오지.)
- 김보향** 아.(아.)
- 박봉화** 다른 데서 나오지 안허영.(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 박진향** 맵시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예?(맵시가 거기서 나온다는 말요?)
- 박봉화** 응, 옷 메두리가이.(응, 옷 맵시가.)
- 김보향** 요거는? 요론 디도 뿐 나게 허지 안힙니까?(요거는? 요런 데도 품 나게 하지 않습니까?)
- 박봉화** 응. 이디도 뿐 나게 허주.(응. 여기도 품 나게 하지.)
- 김보향** 여기는 뭐렌 부릅니까?(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 박봉화** 이거그란?(이거보고?)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한섬, 소민디다가 한섬이렌 혈 거라.(‘한섬’, 소매인데 ‘한섬’이라고 할 거야.)
- 박진향** 한섬.(‘한섬’.)
- 김보향** 한소미?(‘한소미’?)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그냥 한솜? 아니믄 한소미?(그냥 ‘한솜’? 아니면 ‘한소미’?)
- 박봉화** 응, 한소미.(응, ‘한소미’.)
- 김보향** 한소미. 소미. 여기를예? 여기도 뿐 내고? 요기는 뭐렌 부릅니까?(‘한소미’. ‘소미’. 여기를요? 여기도 품 내고? 요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 박봉화** 이디?(여기?)
- 김보향** 응, 저고리에 여기 들어가는? 아, 적삼에는 여기 안 들어갈 거라예?(응, 저고리에

- 여기 들어가는? 아, 적삼에는 여기 안 들어갈 거지요?)
- 박봉화** 응. 저고리에 들어가고.(응. 저고리에 들어가고.)
- 김보향** 응. 꺼내시멘.(응. 꺼내셔.)
- 박봉화** 옛날 저고리.(옛날 저고리.)
- 박진향** 아이고, 이거 만드셨마씨? 요것도 한 거예? 조끼? 나 막 옴파 내께예?(아이고, 이거 만드셨어요? 요것도 한 거요? 조끼? 나 마구 흠파 낼게요?)
- 박봉화** 응.(응.)
- 박진향** 요고는 뭔고? 베갯잇인가?(요거는 뭐지? 베갯잇인가?)
- 박봉화** 뜸바대. 저 난닝구고치.(땀받이. 저 러닝셔츠같이.)
- 김보향** 난닝구고치.(러닝같이.)
- 박봉화** 만들앙 입어난 거.(만들어서 입었던 거.)
- 김보향** 예, 좋수다.(예, 좋습니다.)
- 박봉화** 사진 찍게 꺼냅니다.(사진 찍게 꺼냅니다.)
- 박진향** 요것도 꺼내보게마씨.(요것도 꺼내보게요.)
- 박봉화** 요거 요것도.(요거 요것도.)
- 김보향** 똑같은 거라.(똑같은 거야.)
- 박진향** 똑같은 거?(똑같은 거?)
- 김보향** 실 뜯 건 누계가 뜯 거파, 그거? 코바농 헌 거.(실 뜯 건 누가 뜯 겁니까, 그거? 코바늘 한 거.)
- 박진향** 이것도 삼춘하신 거?(이것도 삼춘하신 거?)
- 박봉화** 아니, 이건 산 거.(아니, 이건 산 거.)
- 김보향** 이런 걸, 이걸 뜸바데렌 헤여?(이런 걸, 이걸 땀받이라고 해?)
- 박봉화** 뜸바대. 난닝구대신 입젠 이거.(땀받이. 러닝대신 입으려고 이거.)
- 박진향** 아, 그 땀이 땀이구나.(아, 그 땀이 땀이구나.)
- 박봉화** 으게. 이 땀 부띠근에 시원허주게.(으. 이 땀 붙어서 시원하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이거 난닝구 대신 만들앙 입언. 계난 이젠이, 족안 못 입어.(이거 러닝 대신 만들어서 입었어. 그러니까 이젠, 작아서 못 입어.)
- 김보향** 아.(아.)
- 박봉화** 나이 들어가난이.(나이 들어가니까.)

- 김보향 입은 지 몇 년이나 된 거꽈? 야이. 이거 얼마나 입은 거? 만든 지 얼마나 된 거?(입은 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얘. 이거 얼마나 입은 거? 만든 지 얼마나 된 거?)
- 박봉화 이거?(이거?)
- 김보향 이 뜸바데부떠.(이 땀받이부터.)
- 박봉화 오랫주덜.(오랬지.)
- 김보향 오래서예? 이거는 뭐렌 부르는 거?(오랬어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
- 박봉화 적삼.(적삼.)
- 김보향 적삼.(적삼.)
- 박봉화 적삼 보면은 단추가 영 뛰어 있잖아예?(적삼 보면 단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보향 들메기.(매듭단추.)
- 박봉화 이거 들메기라예?(이거 매듭단추지요?)
- 김보향 이 들메기도 삼춘이 뜻았수과?(이 매듭단추도 삼촌이 맺었습니까?)
- 박봉화 이넉냥으로 뜻주.(자기대로 맺지.)
- 김보향 아이고, 잘 뜻암신게. 옛날에는 이런 단추들이 엊어예?(아이고, 잘 맺었네. 옛날에는 이런 단추들이 없지요?)
- 박봉화 음, 음.(음, 음.)
- 박봉화 거난 이런.(그러니까 이런.)
- 박봉화 거난 들메기 뜻주게.(그러니까 매듭단추 맺지.)
- 김보향 음.(음.)
- 박봉화 천 헹, 험벽 해근에 그늘게 고아근에이 바늘로 문 감춰놔근에.(천 해서, 형겼 해서 가늘게 가위로 잘라서 바늘로 모두 감춰서.)
- 김보향 겐 이런 들메기들은 어떤 옷에 들았수과? 여기 적삼에도 들고.(그래서 이런 매듭단추들은 어떤 옷에 달았습니까? 여기 적삼에도 달고.)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또?(또?)
- 박봉화 적삼에 대중 들주게. 들메기는.(적삼에 주로 달지. 매듭단추는.)
- 김보향 우리 옛날에 해녀들 물질할 때 입어난 거기도?(우리 옛날에 해녀들 물질할 때 입었던 거기도?)
- 박봉화 응, 물적삼?(응, '물적삼'?)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적삼이난에. 물적삼에도 둘메기 둘주.(적삼이니까. '물적삼'에도 매듭단추 달지.)
- 김보향** 또? 안에 입는 건. 안에 입는 거. 물질할 때.(또? 안에 입는 건. 안에 입는 거. 물질할 때.)
- 박봉화** 속곳. 속곳에도 둘메기 둘고. 옛날엔계 단추 엇이난 그저 둘메기 둘주.(속곳. 속곳에도 매듭단추 달고. 옛날에는 단추 없으니까 그저 매듭단추 달지.)
- 김보향** 단추 엇이난예. 계난 이건 둘메기 둘고 이건 뿐 냉 뭐 달았수다예. 계난 이런 적삼 입을 땐 잘도 다 뜸바데랑 이런 게. 적삼이랑 영 행 이거 두 개만 입으면 될 거?
(단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매듭단추 달고 이건 몇 내서 뭐 달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적삼 입을 때는 아주 다 땀받이랑 이런 게. 적삼이랑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만 입으면 될 거?)
- 박진향** 와, 시원하겠다.(와, 시원하겠다.)
- 김보향** 어, 시원하겠다. 진짜.(어, 시원하겠다. 진짜.)
- 박봉화** 시원한다게.(시원해.)
- 김보향** 으. 여름에 이거 입는 거.(으. 여름에 이거 입는 거.)
- 박봉화** 계난이. 저이 베옷은 뜸을 안 부떠게. 다른 거 천은 땀이 찰찰 허주만은 이 베옷은 뜸을 안 부떠. 경현 따문에 이걸 베로 헤영 만들양.(그러니까. 저 베옷은 땀을 안 불어. 다른 거 천은 땀이 찰찰 하지만 이 베옷은 땀을 안 불어. 그런 때문에 이걸 베로 해서 만들어서.)
- 김보향** 으. 이거 다 삼춘 미싱으로 만든 건게예?(으. 이거 다 삼춘 재봉틀로 만든 거네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예. 이거는 물을 들였수다?(예. 이거는 물을 들였습니다?)
- 박봉화** 건 물들인 거.(건 물들인 거.)
- 김보향** 무슨 물 들인 거?(무슨 물 들인 거?)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이거 무슨 물 들인 거?(이거 무슨 물 들인 거?)
- 박봉화** 그자 갈물이렌 헤여근에이.(그저 갈물이라고 해서.)
- 김보향** 이거 갈물 들인 거꽈?(이거 갈물 들인 겁니까?)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아.(아.)
- 박봉화** 갈물이렌 헌 거.(갈물이라고 하는 거.)

- 김보향 예. 이거 갈물 들인 거. 이게 갈물 들인 거 아니?(예. 이거 갈물 들인 거. 이게 갈물 들인 거 아니?)
- 박봉화 으, 그것도 갈물이주. 이건 연한 색이주게.(으, 그것도 갈물이주. 이건 연한 색이지.)
- 김보향 이건 몇 번 안 들인 거, 이건 많이 들인 거?(이건 몇 번 안 들인 거, 이건 많이 들인 거?)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갈색인디 다 찐색으로 들인 거.(갈색인데 다 진한 색으로 들인 거.)
- 김보향 찐색으로 들인 거.(진한 색으로 들인 거.)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이렇게 갈물 들이민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 막 갈웃들 많이 헤영 입었잖아?(이렇게 갈물 들이면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 막 갈웃들 많이 해서 입었잖아?)
- 박봉화 옛날에 갈웃은 하영 헤영 입었주만은. 그때 계난 이 갈웃에 따랑 행 나오는고라 그자 주루 이 갈웃이주게.(옛날에 갈웃은 많이 해서 입었지만. 그때 그러니까 이 갈웃에 따라 해서 나오는지 그저 주로 이 갈웃이지.)
- 김보향 으. 삼춘 갈물 들이젠 허믄 어떻 헤낫수과? ㅊㅊㅊㅊ 골아 봅서. 갈물 들이젠 허민.(으. 삼춘 갈물 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차차차차 말해 보세요. 갈물 들이려고 하면.)
- 박봉화 갈물은 그자이. 갈색 물감을 풀주게, 옛날엔.(갈물은 그저. 갈색 물감을 팔지, 옛날에는.)
- 김보향 아, 삼춘 이거 감 뺏양 물들인 거 아니?(아, 삼춘 이거 감 빼아서 물들인 거 아니?)
- 박봉화 저, 건 감웃.(저, 그건 감웃.)
- 김보향 응, 감웃.(응, 감웃.)
- 박봉화 건 감 뺏양 들인 거. 경허고 이건 갈색 물 푸는 것가 잊주게.(그건 감 빼아서 들인 거. 그리고 이건 갈색 물감 파는 것이 있지.)
- 김보향 아, 예.(아, 예.)
- 박봉화 이건 물이 잊어.(이건 물감이 있어.)
- 김보향 아, 이건 갈색 물 들인 거, 예. 이것도 갈색 물 들인 거?(아, 이건 갈색 물 들인 거, 예. 이것도 갈색 물 들인 거?)

- 박봉화** 이거 다 갈색 물 들인 거.(이거 다 갈색 물 들인 거.)
- 김보향** 그러니까 푸는 물감 사당예. 기민이 푸는 물감 사당 물들일 때 어떻 헤나신지 영 골아줘 봅서.(그러니까 파는 물감 사다가요. 그럼 파는 물감 사다가 물들일 때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말해줘 보십시오.)
- 박봉화** 푸는 물 사당이, 물 그루 물감 사다근에 물에 타근에 경행.(파는 물감 사다가, 물감 가루 물감 사다가 물에 타서 그래서.)
- 김보향** 응. 식은 물에, 따뜻한 물에?(응. 식은 물에, 따뜻한 물에?)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식은 물에 카? 따뜻한 물에 타?(식은 물에 타? 따뜻한 물에 타?)
- 박봉화** 그자 물들이는 건 언물에 카도 뛰주. 언물에 그자 카근에 이 적삼 골고로 그자 가게시리.(그저 물들이는 건 찬물에 타도 되지. 찬물에 그저 타서 이 적삼 골고루 그저 가게끔.)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골고로 안 가민 얼룩얼룩한 게 안 좋주게. 계난 골고로 가게시리 벼무려근에. 숨는 거라.(골고루 안 가면 얼룩얼룩한 게 안 좋지. 그러니까 골고루 가게끔 벼무려서. 숨는 거야.)
- 김보향** 숨아?(삶아?)
- 박봉화** 솟디 저 벗어지지 말렌 소금이나 ㅎ쓸 좁양 놓고 딱 끓이는 거라이.(솥에 저 벗어지지 말라고 소금이나 조금 집어서 넣고 딱 끓이는 거야.)
- 김보향** 이거 언, 언물에라도 그냥 물감 풀어 놓 이거 풀어 논 물에 담아 낫당 이거채 그냥 숨아?(이거 찬, 찬물에라도 그냥 물감 풀어 놓아서 이거 풀어 놓은 물에 담가 놓다가 이거째 그냥 숨아?)
- 박봉화** 이걸 솟디서 숨아.(이걸 솥에서 숨아.)
-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 박봉화** 경행 허믄.(그래서 하면.)
- 박진향** 소금도 조금 놓고?(소금도 조금 넣고?)
- 박봉화** 소금도 ㅎ쓸 좁아 놓고 행은에 숨으민 물이 빨리 빠져 불지 안허주게.(소금도 조금 집어 넣고 해서 삶으면 물이 빨리 빠져 버리지 않지.)
- 박진향** 아.(아.)
- 박봉화** 게 숨앙.(그렇게 삶아서.)

- 김보향** 계난 영, 지금은 멋으로 영 물들염주만은 예전에도 옷에 영 물들 들영 헷수과? 물감 많이 들영 헷수과?(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멋으로 이렇게 물들이지만 예전에도 옷에 이렇게 물들 들여서 했습니까? 물감 많이 들여서 했습니까?)
- 박봉화** 옛날에 물감 이거, 이제도 멋으로 허주만은 옛날에도 멋으로 물감 사단 들인 거주.(옛날에 물감 이거, 이제도 멋으로 하지만 옛날에도 멋으로 물감 사다가 들인 거지.)
- 김보향** 어떤 색깔들 많이 헷수과, 옛날에는?(어떤 색깔들 많이 했습니까, 옛날에는?)
- 박봉화** 어떤 색깔을 하여? 갈물이주.(어떤 색깔을 해? 갈물이지.)
- 김보향** 계난 삼춘, 갈물 말고 진짜로 감옷?(그러니까 삼춘, 갈물 말고 진짜로 감옷?)
- 박봉화** 감옷.(감옷.)
- 김보향** 그것도 헤낫수과?(그것도 했습니까?)
- 박봉화** 으, 감옷, 감옷도 헷자 그자 감옷은 감 비져근에 들이는 거주게.(으, 감옷, 감옷도 했어도 그저 감옷은 빵아서 들이는 거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거난이 막 정성 뛰영 별로 신경 안 써 줘. 계난 우리 조카, 족은오빠 메누리가 감옷 그슴, 저 감 빼전에 물들영 고모 이거 혼번 만들앙 입읍서 허멍인에 주건, 아이고 고맙다게. 막 건 쯤 신경 씻주게, 혜단 주난이 그걸이 맨들아지지 안해영, 바쁘난게 바당에 뎅기레, 일허레 바쁘난 안 만들아전 이제 그냥 천으로 넣 내불앙 잇어.(그러니까 아주 정성 되어서 별로 신경 안 써 줬어. 그러니까 우리 조카, 작은오빠 며느리가 감옷 감, 저 감 빵아서 물들여서 고모 이거 한번 만들어서 입으세요 하면서 주면, 아이고 고맙다. 아주 그건 참 신경 썼지. 해다가 주니까 그걸 만들지 않아서, 바쁘니까 바다에 다니리, 일하러 바쁘니까 안 만들고 이제 그냥 천으로 놔서 내버려서 있어.)
- 김보향** 아이고, 아까운 거, 족헌 거.(아이고, 아까운 거, 족한 거.)
- 박봉화** 이젠이 거멍해 비연, 오래난에. 거멍해 비연.(이젠 거메 버렸어, 오래니까. 거메 버렸어.)
- 김보향** 아. 오래난 경 뛰 불었구나. 확 혜영 옷 입어사 될 건디.(아. 오래니까 그렇게 돼 버렸구나. 확 해서 옷 입어야 될 건데.)
- 박봉화** 갈옷도이 멋으로 입는 거주게. 경허난에.(갈옷도 멋으로 입는 거지. 그러니까.)
- 김보향** 옛날에는 어른들 감옷 많이 행 입었어예?(옛날에는 어른들 감옷 많이 해서

입었지요?)

박봉화 응, 옛날엔 주로 감옷이주게.(응, 옛날에는 주로 감옷이지.)

김보향 기지예?(그렇지요?)

박봉화 뜸 안 부트니까.(땀 안 불으니까.)

김보향 뜸 안 부트니까, 맞수다. 게믄예 감물 들이젠 허민 감 땅 왕 어떻 할 거?(땀 안
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요 감물 들이려고 하면 감 따고 와서 어떻게 할 거?)

박봉화 감 땅 왕, 저 옛날엔 저 남도고리가 잇주. 남도고리 큰 거.(감 따고 와서, 저
옛날에는 저 함지박이 있지. 함지박 큰 거.)

김보향 음.(음.)

박봉화 응. 그자 다라 닮은 거이. 남도고리 크게.(응. 그저 대야 같은 거. 함지박 크게.)

김보향 나무로 만든 거?(나무로 만든 거?)

박봉화 응. 나무로 만든 다라가 잇주게. 경허난 남도고리에서 마께로 뺏아.(응. 나무로
만든 대야가 있지. 그러니까 함지박에서 방망이로 빼아.)

김보향 으.(으.)

박봉화 막 뺏아근에.(마구 빼아서.)

김보향 예.(예.)

박봉화 그레 놓 막 치대는 거라.(그리 넣어서 마구 치대는 거야.)

김보향 예.(예.)

박봉화 게믄 그 물이 그 천에 옮겨졌네 감 드는 거주게.(그럼 그 물이 그 천에 옮겨져서 감물
드는 거지.)

김보향 거기 막 치대. 이제 뭐 할 거?(거기 마구 치대. 이제 뭐 할 거?)

박봉화 물꽈. 물랑 이슬 맞추멍 발레는 거라. 게믄 바알강하게 곱주.(말려. 말려서 이슬
맞히면서 바래는 거야. 그럼 발갛게 곱지.)

김보향 저기 발레멍 다시 물 무청 또 발레고.(저기 바래면서 다시 물 묻혀서 또 바래고.)

박봉화 응, 응. 물 적정 따시 발레고 발레곡 허믄 발강허게시리 곱주게.(응, 응. 물 적셔서
다시 바래고 하면 발갛게 곱지.)

김보향 그건 어디에 넓니까? 그거 물, 감옷을 널어야잖아예?(그건 어디에 넓니까? 그거
물, 감옷을 널어야잖아요?)

박봉화 으.(으.)

김보향 그거 어디에 넓니까?(그거 어디에 넓니까?)

- 박봉화** 무시거니 빨랫줄에, 빨랫줄에도 허곡. 으, 요즘은 집게 이시난에 빨랫줄에 헹 집게 헹 접저근에 널주만은 펜펜한 바닥에 널엉 또 발레곡. 바닷가에, 옛날은 할망덜 보민 바닷가에 가근에 자갈밭디 간에 펜안이 널어근에도 발레곡.(무엇이니 빨랫줄에, 빨랫줄에도 하고. 으, 요즘은 집게 있으니까 빨랫줄에 해서 집게 해서 집어서 널지만 평평한 바닥에 널어서 또 바래고. 바닷가에, 옛날은 할머니들 보면 바닷가에 가서 자갈밭에 가서 편안히 널어서 바래고.)
- 김보향** 바닷가 자갈밭디 강?(바닷가 자갈밭에 가서?)
- 박봉화** 자갈밭디 가근에 펜안하게 널엉 발레곡.(자갈밭에 가서 편안하게 널어서 바래고.)
-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 박봉화** 그땐 인주 ㄱ튼 건 엇이난에 그땐이 광묵, 미녕이주게. 천이엔 헌 건이 옛날엔이. 비단 말고는 광묵하고 천이주게. 경허난이. 광묵에 미녕에 경 헤근에 들이곡 광묵도 헤여근에 필차 사다근에 옷 헹 입젠 허믄 헤영케 곱게 입젠이. 바닷가에 강 자갈에 가근에 벌경 널믄 헤영케 바라근에 곱주.(그때는 인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때는 광목, 무명이지. 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비단 말고는 광목하고 천이지. 그러니까. 광목에 무명에 그렇게 해서 들이고 광목도 해서 필째 사다가 옷 해서 입으려고 하면 하얗게 곱게 입으려고. 바닷가에 가서 자갈에 가서 벌여서 널면 하얗게 바래서 곱지.)
- 김보향** 그건 빨아 가지고 너는 거 아니믄 그냥 너는 거?(그건 빨아 가지고 너는 거 아니면 그냥 너는 거?)
- 박봉화** 빨양 빨양.(빨아서, 빨아서.)
- 김보향** 아, 빨양.(아, 빨아서.)
- 박봉화** 으. 경헤근에 두어 번, 서너 번 발레믄 헤영허게 광묵이 옥양목 ㄱ치 광묵이 헤영하게, 곱닥하게.(으. 그래서 두어 번, 서너 번 바래면 하얗게 광목이 옥양목같이 광목이 하얗게, 곱게.)
- 김보향** 광목은 허꼼 누렁허난 그거 헤영허게 허젠.(광목은 조금 누러니까 그거 하얗게 하려고.)
- 박봉화** 으, 누렁허난에 그게 헤영하게 발레연.(으, 누러니까 그게 하얗게 바랬어.)
- 김보향** 그거 빨 때는 뭐 안 넣 그냥 물에만 허믄 뛰는 거?(그거 빨 때는 뭐 안 넣고 그냥 물에만 하면 되는 거?)
- 박봉화** 으, 물에 헤영.(으, 물에 해서.)

- 김보향** 아.(아.)
- 박진향** 여러 번 허문 혜영혜저마씨?(여러 번 하면 하얘져요?)
- 박봉화** 으, 여러 번 행 뺄멍.(으, 여러 번 해서 뺄면서.)
- 박진향** 널곡.(널고.)
- 박봉화** 널곡 널곡 허당 보문 혜영케 발주게.(널고 널고 하다가 보면 하얗게 발지.)
- 박진향** 광목천도 경 하얗하게 헤 가지고.(광목천도 그렇게 하얗게 해 가지고.)
- 박봉화** 으, 천 종이색그치 하얗게 혜전 경행 옷 행 입어.(으, 천 종이색같이 하얗게 해서 그렇게 옷 해서 입어.)
- 김보향** 아. 게민 그 감옷 하젠 허민 물을 먼저 들영 감옷을 헐 거꽈, 아니면 멘들어 놓 물을 들일 거꽈?(아. 그럼 그 감옷 하려고 하면 물을 먼저 들여서 감옷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고 물을 들일 겁니까?)
- 박봉화** 감옷 허젠 허민 저 옛날엔 맹글아 냉도 들이곡 또 아니 맹근 땐 천으로 그대로 감 들여근에 발강케 발레여근에 옷 만들곡.(감옷 하려고 하면 저 옛날에는 만들어 놔서도 들이고 또 안 만든 때는 천으로 그대로 감 들여서 발갛게 바래서 옷 만들고.)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또 경 안 허영은 또 감, 감옷 만들어 놔근에 들영 대나무 진 거 혜근에 깨영 널어근에 발레렌.(또 그렇게 안 하고는 또 감, 감옷 만들어 놔서 들여서 대나무 긴 거 해서 깨서 널어서 바래라고.)
- 김보향** 아, 대나무 진 거 행 그거 뺄랫줄처럼 쓴 거?(아, 대나무 긴 거 해서 그거 뺄랫줄처럼 쓴 거?)
- 박봉화** 으, 뺄랫줄처럼. 이젠 뺄랫줄 허주만은 옛날엔 뺄랫줄 엇이난에 대나무 진 거 혜근에이 소매로 영 퀘어근에 널어.(으, 뺄랫줄처럼. 이젠 뺄랫줄 하지만 옛날에는 뺄랫줄 없으니까 대나무 긴 거 해서 소매로 이렇게 퀘어서 널어.)
- 김보향** 소매에 퀘영? 옷 멘들앙 허민.(소매에 끼워서? 옷 만들어서 하면.)
- 박봉화** 으. 멘들앙 헌 건 영 행 퀘영 널영 발레주게.(으, 만들어서 한 건 이렇게 해서 퀘어서 널어서 바래지.)
- 김보향** 아, 예.(아, 예.)
- 박봉화** 옛날에 경햇주.(옛날에 그랬지.)
- 김보향** 옛날에는 한복 입었던 거 어른들 치마저고리 입었던 거 추석 때 뒤기 전에 막

서답을 헷잖아요. 서답 어떻 헤낫수과, 그거? 서답허젠 허민?(옛날에는 한복 입었던 거 어른들 치마저고리 입었던 거 추석 때 되기 전에 마구 서답을 했잖아요. 서답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거? 서답하려고 하면?)

박봉화 한복은이 옛날에 계믄 그거이, 한복은 저고리도 안 이신 거주게. 저고리가이. 안팎 이신 거난에 틀엉 안이멍 거죽이멍 틀어근에 푸답혜영 풀혜영근에 곱게 손 봐근에, 다시 바농질혜근에 끼와근에 저고리 만들양.(한복은 옛날에 그러면 그거, 한복은 저고리도 안 있는 거지. 저고리가. 안팎 있는 거니까 뜯어서 안이며 거죽이며 뜯어서 푸새해서 풀해서 곱게 손 봐서, 다시 바느질해서 끼워서 저고리 만들어서.)

김보향 그치예? 계난 저고리 옷을 옷차 빤 게 아니고.(그렇지요? 그러니까 저고리 옷을 옷째 빤 게 아니고.)

박봉화 으.(으.)

김보향 다 틀엉.(다 뜯고.)

박봉화 통차 안 헤여.(통째 안 해.)

김보향 통차 아니 헤여.(통째 안 해.)

박봉화 다 틀엉.(다 뜯어서.)

김보향 그문예 서답허는 거부터 ㅊㅊㅊㅊ 골아 봅서. 다 실 틀엇수다. 그답에 어떻 뺄 거? 야이를, 집이서 뺄 거?(그럼요 서답하는 거부터 차차차차 말해 보세요. 다 실 뜯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뺄 거? 얘를, 집에서 뺄 거?)

박봉화 으게, 옛날에사게 집이서도, 집이서 뺄아? 집이서 아니 행 어디 저 내, 내 치는 디.(으, 옛날에야 집이서도, 집에서 뺄아? 집에서 안 하고 어디 저 내, 넛물 흐르는 데.)

김보향 으으으.(으.)

박봉화 내 우는 디이, 그런 디 가근에 뺄던가 물 골라근에 모이는 못 이신 디 가근에 뺄아오던가 뺄래허민 막 그자 구덕에 질구덕에 흉나 담아 넣 지엉 가근에.(냇물 흐르는 데, 그런 데 가서 뺄든가 물 고여서 모이는 못 있는 데 가서 뺄아오든가 뺄래하면 마구 그저 바구니에 '질구덕'에 하나 담아 놓고 지고 가서.)

김보향 음.(음.)

박봉화 소못 역벌여근에이.(사못 시간 들여서.)

김보향 그거 질구덕이렌 골앗수과? 서답구덕이렌 골앗수과?(그거 '질구덕'이라고

말했습니까? '서답구덕'이라고 말했습니까?)

박봉화 세답구덕. 경헌디 질구덕이주게.(세답구덕'. 그런데 '질구덕'이지.)

김보향 기지예? 질구덕 큰 거.(그렇지요? '질구덕' 큰 거.)

박봉화 질구덕 큰 것에 혼 구덕 담아근에 지엉 역별여근에 막 빨레허레 가근에 빨명 빌레에
널명 물량 오곡 경햇주게. 옛날에.(‘질구덕’ 큰 것에 한 바구니 담아서 지고 시간을
들여서 마구 빨래하러 가서 빨면서 돌밭에 널어서 말려 오고 그랬지. 옛날에.)

김보향 그문 그거 막 더러우민 그 빨레 숫기도 허곡? 숫으기도 허곡?(그럼 그거 아주
더러우면 그 빨래 삫기도 하고? 삫기도 하고?)

박봉화 응게.(응.)

김보향 어디서 어떻 숫아?(어디서 어떻게 삫아?)

박봉화 솟디, 솟디.(솥에, 솥에.)

김보향 솟디, 솟디.(솥에, 솥에.)

박봉화 솟디 헤영 숫는디이 옛날에사 어디 경 비누 잇곡 무시게 해서? 양잿물이렌 헌 거.
빨르는 건 옛날에 보믄 어른덜 하는 거 보믄 양잿물이렌 헌 거 놔근에 숫으민 또
헤영케.(솥에 해서 삫는데 옛날에야 어디 그렇게 비누 있고 뭐 했어?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 빠는 건 옛날에 보면 어른들 하는 거 보면 양잿물이라고 하는 거 넣어서
삿으면 또 하얗게.)

박진향 으, 집에서 정지에서 삫안마씨?(으, 집에서 부엌에서 삫았어요?)

박봉화 으게, 정지에서 솟디. 밥해 먹는 솟디에 앗져근에.(으, 부엌에서 솥에. 밥해 먹는
솥에 안쳐서.)

박진향 거기 양잿물 넣고 행 삫아마씨?(거기 양잿물 넣고 해서 삫아요?)

박봉화 응, 경해도 그 양잿물 놓고 솟디서 사아근에, 경허고 또 양잿물 아니 들여근에 또 허는
건이 모물낭 그튼 거, 무시거.(응, 그래도 그 양잿물 넣고 솥에서 삫아서, 그리고 또
양잿물 안 들여서 또 하는 건 메밀짚 같은 거, 무엇.)

박진향 모물낭?(메밀짚?)

박봉화 불 숨아난 재?(불 땄던 재?)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헌게. 그 모물낭 재가 부드럽주게. 경허난 요게 아메도 때가 잘 빠지는고라.

(그러더라. 그 메밀짚 재가 부드럽지. 그러니까 요게 아무래도 때가 잘 빠지는지.)

박진향 넣었구나예?(넣었군요?)

- 박봉화** 응, 옛날은 모물낭 숨아난 재 헤여근에. 그거 물에 타근에 서껑 숲앙.(응, 옛날은 메밀짚 땄던 재 해서. 그거 물에 타서 섞어서 삶아서.)
- 박진향** 아, 삶앙?(아, 삶아서?)
- 박봉화** 으.(으.)
- 박진향** 그문 요즘 비누 뛰는 거다예?(그럼 요즘 비누 되는 거네요?)
- 박봉화** 으, 비누 대신 사용하곡 경햇주게.(으, 비누 대신 사용하고 그랬었지.)
- 박진향** 그문 깨끗해져낫수과?(그럼 깨끗해졌었습니까?)
- 박봉화** 응, 깨끗해져.(응, 깨끗해져.)
- 박진향** 얼마나 삶아사 웰 거라?(얼마나 삶아야 될 거야?)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얼마나 삶아사 뛰어?(얼마나 삶아야 돼?)
- 박봉화** 아메도.(아무래도.)
- 박진향** 과랑과랑 삶을 거 아니예?(‘과랑과랑’ 삶을 거 아니에요?)
- 박봉화** 응, 발랑발랑 솟디서 막 끌으게 숲을 거주게.(응, ‘발랑발랑’ 숲에서 마구 끌어 삶을 거지.)
- 박진향** 아, 그 정도까지.(아, 그 정도까지.)
- 박봉화** 경혜사 그 때 기운이 빠질 거주게.(그래야 그 때 기운이 빠질 거지.)
- 박진향** 으, 빠져.(으, 빠져.)
- 박봉화** 숲아정 빠질 거주게. 경행 숲앙.(삶아져서 빠질 거지. 그렇게 삶아서.)
- 김보향** 숲아, 숲으민 이제 그거 행귀살 거꽈? 씨쳐살 거? 어떻헐 거?(삶아, 삶으면 이제 그거 행구어야 할 겁니까? 씨어야 할 거? 어떡할 거?)
- 박봉화** 계난 그거 숲으민 고사 곧듯이 무신 요 수돗물에 혼 방울 혼 디서 행과져? 못디, 못가에 이신 디, 못가에나 내창에나 가근에.(그러니까 그거 삶으면 아까 말하듯이 무슨 요 수돗물에 한 방울 한 데서 행굴 수 있어? 못에, 못가에 있는 데, 못가에나 내에나 가서.)
- 김보향** 숲앙 정 갈 거구나?(삶아서 지고 갈 거구나?)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행구전예?(행구려고요?)
- 박봉화** 으, 막뎅이로, 마께로 빌레서 닥닥 두드리멍 뺨아근에 행구앙 때 빠지우주.(으, 막대기로, 방망이로 ‘빌레’에서 닥닥 두드리면서 뺨아서 행귀서 때 빠지.)

- 박진향** 아, 또 두드려살 거꽈?(아, 또 두드려야 할 겁니까?)
- 박봉화** 응. 마께로 두드려사 그때 기운이 빠지주.(응. 방망이로 두드려야 그때 기운이 빠지지.)
- 김보향** 그 마께믄 세답마께?(그 방망이면 빨랫방망이?)
- 박봉화** 세답마께.(빨랫방망이.)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물마께엥 혜영 잇지. 우리 이제 물마께.(‘물마께’라고 해서 있지. 우리 이제 빨랫방망이.)
- 김보향** 물마께예? 물마께렌 행 그거로 두드리멍예? 두드리멍. 잊어불지 말양 이따 우리 찍을 겁니다. (빨랫방망이요? 빨랫방망이라고 해서 그거로 두드리면서요? 두드리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따 우리 찍을 겁니다.)
- 박진향** 예.(예.)
- 김보향** 그거 빨양 행광 왕 다시 널엉.(그거 빨아서 행구고 와서 다시 널어.)
-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 박봉화** 경행 입엉.(그래서 입고.)
- 김보향** 입을 거라. 아니 입기 전에 이제 다시 물르민. 이제 다시 손 봐야 될 거잖아? 풀, 이제 풀한 거 골아 봅서.(입을 거야. 아니 입기 전에 이제 다시 마르면. 이제 다시 손 봐야 될 거잖아? 풀, 이제 풀한 거 말해 보세요.)
- 박봉화** 풀허는 옷덜은이 경행 혜당 물르민 또 밀가루 풀 쑤어근에. 밀가루풀도 쑤엉 허곡 그때 당시엔.(풀하는 옷들은 그렇게 해다가 마르면 또 밀가루 풀 쑤셔. 밀가루풀도 쑤셔 하고 그때 당시에는.)
- 김보향** 밀가루 안 나올 땐?(밀가루 안 나올 때는?)
- 박봉화** 밀가루 못 혜영.(밀가루 못 해서.)
- 김보향** 밀가루 엇일 땐?(밀가루 없을 때는?)
- 박봉화** 엇엉 못 혜영 헐 땐 쌀. 쌀 이젠 나룩쓸이주만 엣날엔 산디쓸.(없어서 못 해서 할 때는 쌀. 쌀 이제는 볍쌀이지만 옛날에는 밭벼쌀.)
- 김보향** 산디쓸.(밭벼쌀.)
- 박봉화** 모인 나룩쓸이주. 이제 그트민이. 모인 거.(메진 볍쌀이지. 이제 같으면. 메진 거.)
- 김보향** 춥쓸예? 모인 춥쓸.(찹쌀요? 메진 찹쌀.)
- 박봉화** 응. 찹쌀 아니랑 모인 거.(응. 찹쌀 아니고 메진 거.)

- 김보향 맞아, 맞아, 산디쓸.(맞아, 맞아, 밭벼쌀.)
- 박봉화 산디쓸 헤근에 죽 췄근에 그거 잘리에 영 잘리에 멩글앙 놔둠서 이추룩헌 것에 죽 놔근에 막 문두데거근에.(밭벼쌀 해서 죽 췄서 그거 자루에 이렇게 자루에 만들어서 놔두면서 이러한 것에 죽 넣어서 마구 문질러서.)
- 박진향 우두데경.(문질러서.)
- 박봉화 그거 짜근에 경행 풀허주게.(그거 짜서 그래서 풀하지.)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풀헤근에.(풀해서.)
- 김보향 풀도 영 뭐에 냉 헐 거?(풀도 이렇게 뭐에 넣어서 할 거?)
- 박봉화 그것도게 그 그 다라에 놔근에.(그것도 그 그 대야에 넣어서.)
- 김보향 으, 남도고리? 다라 엇일 때는?(으, 함지박? 대야 없을 때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남도고리?(함지박?)
- 박봉화 으. 남도고리. 경헤근에 치데영 풀물 들어강 보지락허렌 경행 막 치데멍 해여근에 풀 멱여근에 이제 물류아근에.(으. 함지박. 그래서 끼얹어서 풀물 들어가서 ‘보지락하라고’ 그래서 마구 끼얹어서 해서 풀 먹여서 이제 말려서.)
- 김보향 널 거예?(널 거지요?)
- 박봉화 널었다근에 물라 가민 손봐근에 슬슬 손으로 손보멍.(널었다가 말라 가면 손보고 살살 손으로 손보면서.)
- 김보향 게난 바싹 물르기 전이 손봐살 거라예?(그러니까 바싹 마르기 전에 손봐야 할 거지요?)
- 박봉화 응. 바싹 물라 불민 물라 분 후제 손방은 풀기가 죽어. 바싹 아니 물른 때 젖은 기운 신 때 그걸 슬슬 개여근에 이젠 또 두드리주.(응. 바싹 말라 버리면 말라 버린 후에 손봐서는 풀기가 죽어. 바싹 안 마른 때 젖은 기운 있을 때 그걸 살살 개어서 이젠 또 두드리지.)
- 박진향 또 두드려?(또 두드려?)
- 김보향 뭐로 두드릴 거, 그때는.(뭐로 두드릴 거, 그때는?)
- 박봉화 저, 거시기.(저 거시기.)
- 김보향 뭐예? 판, 무슨 판? 이름 뭐?(뭐요? 판, 무슨 판? 이름 뭐?)
- 박봉화 아이고, 이름 잊어비언.(아이고, 이름 잊어버렸어.)

- 김보향 안반? 돔베?(‘안반’? ‘돔베’?)
- 박봉화 돔베, 돔베.(‘돔베’, ‘돔베’)
- 김보향 돔베예.(‘돔베’요.)
- 박봉화 세답돔베, 옛날엔.(‘세답돔베’, 옛날에는.)
- 김보향 세답돔베. 예.(‘세답돔베’, 예.)
- 박봉화 큰 거.(큰 거.)
- 김보향 응, 큰 거.(응, 큰 거.)
- 박봉화 세답돔베에 헤영.(‘세답돔베’에 해서.)
- 김보향 그 세답돔베는 돌로 됫수과? 나무로 됫수과?(그 ‘세답돔베’는 돌로 됫습니까, 나무로 됫습니까?)
- 박봉화 나무루. 옛날엔 돌로도 됫 거 잊어낫주.(나무로. 옛날에는 돌로도 된 거 있었지.)
- 김보향 으으.(으으.)
- 박봉화 근디 나무로가 하주게.(그런데 나무로가 많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경행 허믄 거에 놔근에 세답 두드리는 마께로.(그래서 하면 그것에 놔서 세답 두드리는 방망이로.)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풀 골라지렌.(풀 골라지라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그 풀 먹은 거 골라지게 먹으렌 두드리는 거라. 게믄 피구정 허민 이 올도 쭈글쭈글 안해근에 두드령 허믄 이것가 빤듯이 폐와지주게.(그 풀 먹은 거 골라지게 먹으라고 두드리는 거야. 그럼 피려고 하면 이 올도 쭈글쭈글 않고 두드려서 하면 이것이 반듯하게 폐지지.)
- 박진향 다림질한 거처럼예?(다림질한 거처럼요?)
- 박봉화 으, 다림질흔 거처럼. 경해근에 반드시 폐와지게 헤영 물류와근에.(으, 다림질한 거처럼. 그래서 반듯이 폐지게 해서 말려서.)
- 박진향 으, 물류왕?(으, 말려서?)
- 박봉화 물류와근에 또 다리미질하는 건.(말려서 또 다리미질하는 건.)
- 박진향 또 다리미질하는 거 또 잇수과?(또 다리미질하는 거 또 있습니까?)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그거 말고 우리 영 두드릴 때 보면 긴 낭 영 영 물양 허잖아요?(그거 말고 우리 이렇게 두드릴 때 보면 긴 나무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하잖아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그 낭을 뭐렌 골을 거?(그 나무를 뭐라고 말할 거?)
- 박봉화** 게메 건 잊어불영 또 못 글으켜.(글쎄 건 잊어버려서 또 못 말하겠어.)
- 김보향** 홍짓대?(홍두깨?)
- 박봉화** 아, 맞다. 홍짓대.(아, 맞다. 홍두깨.)
- 김보향** 예. 홍짓대에 이거 둘둘둘 말양. 야이 둠베라예?(예. 홍두깨에 이거 둘둘둘 말아서. 얘 '돔베'지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둠베 우에 놓, 자 넌 돌리라. 여기 돌리라. 두두득.(돔베' 위에 놔서, 자 넌 돌려라. 여기 돌려라. 두두득.)
- 박진향** 영 헤마씨?(이렇게 해요?)
- 김보향** 돌리라, 돌리라.(돌려라, 돌려라.)
- 박진향** 어, 두 사람 필요헌 거구나.(어, 두 사람 필요한 거구나.)
- 박봉화** 경현 거.(그러는 거.)
- 김보향** 게민예. 이거 홍지대라예? 이거 둠베라예 홍짓대가 집니까? 둠베가 집니까?(그럼요. 이거 홍두깨지요? 이거 '돔베'지요? 홍두깨가 집니까? '돔베'가 집니까?)
- 박봉화** 홍짓대가 질주게.(홍두깨'가 길지.)
- 김보향** 기지예? 홍지댄 이만큼 나오게 행 야이가 돌릴 거라예?(그렇지요? 홍두깨는 이만큼 나오게 해서 얘가 돌릴 거지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두드려, 두드려. 다 두드렸수다. 다 두드려지난 뭐 할 거? 옷 다시.(두드려, 두드려. 다 두드렸습니다. 다 두드려지니까 뭐 할 거? 옷 다시.)
- 박봉화** 따시 천으로 된 거 홍짓대에 감아 두드령은 혜영 옷 만들 거고. 또 경안 헐 건 그자 입을 거곡.(다시 천으로 된 거 홍두깨에 감아서 두드려서 해서 옷 만들 거고. 또 그렇게 안 할 거는 그저 입을 거고.)
- 김보향** 응. 입을 거곡. 입으젠 허민 바농질해살 거 아니?(응. 입을 거고. 입으려고 하면 바느질해야 할 거 아니?)
- 박봉화** 입을 땐 게 그 저 바농질현 거쯤은 해근에 풀행 행은 따시 바농질 안 해근에 그냥

경 손 봐근에 홍짓대질 헤나곡 헤 나믄 그 위에 펜펜하게 골라지주게.(입을 때는 그 저 바느질한 거쯤은 해서 풀해서 해서 다시 바느질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손봐서 홍두깨질 했었고 하고 나면 그 위에 편편하게 골라지지.)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박봉화 골라지믄 그냥 입곡. 또 경 안허민 다리미질해영 다리미질도 허곡.(고르면 그냥 입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리미질해서 다리미질도 하고.)

김보향 다리미질은 어떤 거 다리미 잊어난? 옛날에 어떤 다리미?(다리미질은 어떤 거 다리미 있었어? 옛날에 어떤 다리미?)

박봉화 옛날에 다리미 저 무시거니?(옛날에 다리미 저 뭐니?)

김보향 다리미 어떻 생겼수과?(다리미 어떻게 생겼습니까?)

박봉화 다리미게 옛날에 저 숫불.(다리미 옛날에 저 숫불.)

김보향 으.(으.)

박봉화 숫불게. 나무 헤근에 솟강알에라도 밥해 먹으명 불 때어근에 그 나무 타민게 숫고치 불망굴 나오민 그거 담아근에 그걸로 다리미질해영.(숯불. 나무 해서 아궁이에라도 밥해 먹으면서 불 때서 그 나무 타면 숯같이 '불망굴' 나오면 그거 담아서 그걸로 다리미질해서.)

김보향 그 후라이팬같이 생긴 그런 동글란 거에?(그 프라이팬같이 생긴 그런 동그란 거요?)

박봉화 으, 동글랑한 것에.(으, 동그란 것에.)

김보향 숫 담양?(숯 담고?)

박봉화 담아 놔근에, 응.(담아 넣어서, 응.)

김보향 게민 영 잡으라 헹. 영 심으라 헹.(그럼 이렇게 잡아라 해서, 이렇게 잡아라 해서.)

박봉화 응. 잡으라 헹. 둘이가 마주 앗앙 다리미행.(응. 잡아라 해서, 둘이 마주 앗아서 다리미해서.)

김보향 아, 예. 예. 예.(아, 예. 예. 예.)

박봉화 으.(으.)

김보향 그거는 다리미고예. 만약 옷 멘들민 우리 바농질행 옷 멘들민 이런 데 막 뭘로 다릴 거잖아, 그건?(그거는 다리미고요. 만약 옷 만들면 우리 바느질해서 옷 만들면 이런 데 마구 무엇으로 다릴 거잖아, 그건?)

- 박봉화** 건 윤디.(그건 인두.)
- 김보향** 예. 윤디.(예. 인두.)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그 윤디로.(그 인두로.)
- 박봉화** 화리에 불살랑 손바농질, 한복 그튼 건 만들젠 허믄 불살라근에 그 숯불, 숯고치
게스미 껑 낫다근에 껑 낫당 걸로 불살롸근에 윤디 짙어근에 바농질허멍 실밥
누르뜨멍 허는 거.(화로에 불살라서 손바느질, 한복 같은 건 만들려고 하면
불살라서 그 숯불, 숯같이 숯 꺼 놋다가 꺼서 놋다가 그걸로 불살라서 인두 때서
바느질하면서 실밥 눌러서 하는 거.)
- 김보향** 실밥 누르뜨멍 허는 거예?(실밥 누르면서 하는 거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게민 윤디 허젠 허믄 요런 판도 있어야 뛰쿠다?(그럼 인두 하려고 하면 이런 판도
있어야 되겠다?)
- 박봉화** 다리미판 잇어.(다리미판 있어.)
- 김보향** 다리미판. 그거 윤디판이렌도 골아?(다리미판. 그거 인두판이라고도 말해?)
- 박봉화** 윤디판.(인두판.)
- 김보향** 예. 윤디판.(예. 인두판.)
- 박봉화** 그거 써나난에 잇주.(그거 썼었으니까 있지.)
- 김보향** 써나난 잇어? 지난번에 윤디판 안 찍은 거 닮은디?(썼으니까 있어? 지난번에
인두판 안 찍은 거 같은데?)
- 박봉화** 건 안 찍었주. 안 찍은디 있어. 윤디판.(그런 안 찍었지. 안 찍었는데 있어. 인두판.)
- 김보향** 예. 예. 찍으쿠다. 윤디도 잇수과?(예. 예. 찍겠습니다. 인두도 있습니까?)
- 박봉화** 윤딘 엇곡.(인두는 없고.)
- 김보향** 아, 윤디는 엇고예.(아, 인두는 없고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게난 다리미도 잇고 윤디도 잇어야 뛰고 윤디판도 잇어야 뛰곡. 옷 허젠 허민 그런
것도 잇어야 뛰는 거예?(그러니까 다리미도 있고 인두도 있어야 되고 인두판도
있어야 되고. 옷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요?)
- 박봉화** 응. 겐디 저 무시거니. 다리미 옛날 그 동글랑현 거 행 헌 건 엇어.(응. 그런데 저
뭐니. 다리미 옛날 그 동그란 거 해서 한 거 없어.)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그자 신식 다리미 헤 노난.(그저 신식 다리미 해 놓으니까.)
- 김보향 응, 전기 꽂았을 허는 거.(응, 전기 꽂아서 하는 거.)
- 박봉화 그건 어디 실 거여만은, 몰라. 어디사 신디.(그건 어디 있을 거지만, 몰라. 어디에 있는지.)
- 김보향 예, 예. 이것은 이제 옷 헤난 얘기고예.(예, 예. 이것은 이제 옷 했던 얘기고요.)

식생활 도구

- 김보향 이번에는 우리 밥해 먹어난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게. 옛날에, 지금은 부엌이렌 허주만은 옛날에 뭐렌 골앗수과?(이번에는 우리 밥해 먹었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옛날에, 지금은 부엌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 박봉화 정지.(‘정지’.)
- 김보향 예. 그럼 우리 정짓문 열엉 들어갓수다.(예. 그럼 우리 부엌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그럼 눈에 뭐가, 뭐 뭐가 잇수과, 정지에?(그럼 눈에 뭐가, 뭐 뭐가 있습니까, 부엌에?)
- 박봉화 정지에 검질, 방석, 물항.(부엌에 검불, 방석, 물독.)
- 김보향 물항.(물독.)
- 박봉화 솟.(솥.)
- 김보향 솟은 멧 개나 걸어정 잇어낫수과, 삼춘네 집이?(솥은 몇 개나 걸려 있었습니까, 삼춘네 집에?)
- 박봉화 솟, 큰 거 두말떼기, 웨말치.(솥, 큰 거 ‘두말떼기’, ‘웨말치’.)
- 김보향 음.(음.)
- 박봉화 또 그다음에 거.(또 그다음의 거.)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또 죽은 반찬 지져 먹는 동솟.(또 작은 반찬 지져 먹는 옹달솥.)
- 김보향 으, 네 개?(으, 네 개?)

- 박봉화 네 개.(네 개.)
- 김보향 그 제일 큰 게 두말치?(그 제일 큰 게 ‘두말치’?)
- 박봉화 두말떼기.(‘두말떼기’.)
- 김보향 두말떼기는 뭐 할 때 써?(‘두말떼기’는 뭐 할 때 써?)
- 박봉화 그건 하영 헐 거, 하영 헐 때.(그건 많이 할 거, 많이 할 때.)
- 김보향 뭐 하영 헐 때?(뭐 많이 할 때?)
- 박봉화 저 밥 그튼 거나 무시더라도 하영 사용할 때 그자 제사 때 그튼 때도 두말떼기에 행 허곡.(저 밥 같은 거나 뭐라도 많이 사용할 때 그저 제사 때 같은 때도 ‘두말떼기’에 해서 하고.)
- 김보향 으. 콩 숲을 때?(으. 콩 삶을 때?)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콩 숲을 때?(콩 삶을 때?)
- 박봉화 콩 숲을 때도 두말떼기에 행 허곡.(콩 삶을 때도 ‘두말떼기’에 해서 하고.)
- 김보향 으, 두말데기에는 막 하영 헐 때. 그러믄 두 번째 솟에서는 뭐 헤낫수과?(으, ‘두말떼기’에는 아주 많이 할 때. 그럼 두 번째 솟에서 뭐 했었습니까?)
- 박봉화 그건 그자.(그건 그저.)
- 김보향 말치, 이건?(‘말치’, 이건?)
- 박봉화 으. 그건 웨말치난에 그자 밥도 해 먹고.(으. 그건 ‘웨말치’니까 그저 밥도 해 먹고.)
- 김보향 평상시에 밥도 해 먹고예?(평상시에 밥도 해 먹고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또?(또?)
- 박봉화 그 동솟은 족은 건 반찬 지져 먹는 거.(그 옹달솥은 작은 건 반찬 지져서 먹는 거.)
- 김보향 으. 동솟이랑 웨말치 사이에 요거는 뭐 합니까?(으. 옹달솥이랑 ‘웨말치’ 사이에 요거는 뭐 합니까?)
- 박봉화 그자 그것은 군걸로 ھ나 놔두주.(그저 그것은 군것으로 하나 놔두지.)
- 김보향 군걸로 ھ나 놔둔 거? 예, 예.(군것으로 하나 놔둔 거? 예, 예.)
- 박봉화 기자 국도 낄려 먹곡게.(그저 국도 끓여 먹고.)
- 김보향 국도 낄려 먹고. 예. 솟은 네 개가 걸어정 잇수다예?(국도 끓여 먹고. 예. 솟은 네 개가 걸려 있어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게믄 솟 있고 물항도 있잖아예?(그럼 솔 있고 물독도 있잖아요?)
- 박봉화 물항도 있고.(물독도 있고.)
- 김보향 물항은 하나 이신 거?(물독은 하나 있는 거?)
- 박봉화 으, 하나.(으, 하나.)
- 김보향 물항 옆이 뭐 잇수과?(물독 옆에 뭐 있습니까?)
- 박봉화 물항 옆인.(물독 옆에는.)
- 김보향 그릇들 담아 놓고 했던 거.(그릇들 담아 놓고 했던 거.)
- 박봉화 어, 그릇 어폐지는 살례.(어, 그릇 엎는 찬장.)
- 김보향 살례. 살례는 몇 단으로 뛰어신고예?(찬장. 찬장은 몇 단으로 되었나요?)
- 박봉화 살례, 두 칸 세 칸.(찬장, 두 칸 세 칸.)
- 김보향 세 칸?(세 칸?)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세 칸. 문도 돌아지고?(세 칸. 문도 달리고?)
- 박봉화 응. 문도 돌아지고.(응. 문도 달리고.)
- 김보향 응. 게믄 살례에 뭐 뭐 담아낫수과?(응. 그럼 찬장에 뭐 뭐 담았었습니까?)
- 박봉화 살례에 허믄 그릇도, 그릇 어프고 또 잇당 옛날에난에 무신 냉장고 엊일 때난에 무시거 반찬 그릇 것도 놓 놓고.(찬장에 하면 그릇도, 그릇 엎고 또 있다가 옛날이니까 무슨 냉장고 없을 때니까 뭐 반찬 같은 것도 넣어 놓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그자 경 혜영.(그저 그렇게 해서.)
- 김보향 으, 게민 사발도 이서난 거 아니?(으, 그럼 그릇도 있었던 거 아니?)
- 박봉화 응, 사발도 어프곡, 접시도 어프곡.(응, 사발도 엎고, 접시도 엎고.)
- 김보향 접시도 어프곡.(접시도 엎고.)
- 박봉화 보시도 어프곡.(보시기도 엎고.)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숟가락 통도 돌아메고.(숟가락 통도 달아매고.)
- 김보향 삼춘은 시집 갓 왔을 때는 어떤 사발들 써낫수꽈, 옛날에?(삼춘은 시집 갓 왔을 때는 어떤 사발들 썼었습니까, 옛날에?)
- 박봉화 어떤 사발?(어떤 사발?)
- 김보향 으. 지금 막 신식 사발들 있잖아예?(으. 지금 아주 신식 사발들 있잖아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삼춘 고 시집왕 살림 살기 시작허난 그때는 이런 사발들 썬? 어떤 사발 썬?(삼춘 갓 시집와서 살림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런 사발을 썼어? 어떤 사발 썼어?)
- 박봉화** 이런 사발 썻주.(이런 사발 썼지.)
- 김보향** 이런 사발예? 예. 이런 사발 전이 무물사발 같은 것도 잊어낫수과?(이런 사발요? 예. 이런 사발 전에 ‘무물사발’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 박봉화** 응. 무물사발도 잊어낫주.(응. ‘무물사발’도 있었지.)
- 김보향** 무물사발은 어떻 생겼? 무물사발 여기 이신가? 아, 요거 너무 족게 나왔수다만은. 이거 무물사발이과, 요거?(‘무물사발’은 어떻게 생겼어? ‘무물사발’ 여기 있나? 아, 요거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만. 이거 ‘무물사발’입니까, 요거?)
- 박봉화** 응. 요것도 무물사발이고 요것도 무물사발 닮은게.(응. 요것도 ‘무물사발’이고 요것도 ‘무물사발’ 같아.)
- 김보향** 아, 예 예.(아, 예 예.)
- 박봉화** 눈 둘은 거.(무늬가 점점이 있는 거.)
- 김보향** 눈 둘은 거? 거난 무물사발은 먼저 썻수과? 이런 사발을 먼저 썻수과?(무늬가 점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무물사발’은 먼저 썼습니까? 이런 사발을 먼저 썼습니까?)
- 박봉화** 무물사발이 무녀 썻주게.(‘무물사발’이 먼저 썼지.)
- 김보향** 무물사발은 먼저 써서예? 무물사발은 다른 디서 들어오는 거꽈? 이디서 만든 거꽈?(‘무물사발’은 먼저 썼지요. ‘무물사발’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서 만든 겁니까?)
- 박봉화** 게메 원 몰라. 그건이.(글쎄 원 몰라. 그건.)
- 김보향** 몰라예? 그건 어릴 때부터 잊어난?(몰라요? 그건 어릴 때부터 있었어?)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막 눈 돌양 이십디가?(마구 무늬가 점점이 있습니까?)
- 박봉화** 으. 눈 돌양.(으. 무늬가 점점이.)
- 김보향** 예, 눈 돌양. 거믄 우리 밥은 뛴에 거릴 거꽈? 밥해 먹을 때. 밥은?(예, 무늬가 점점이. 그럼 우리 밥은 뭐에 뜰 겁니까? 밥해 먹을 때. 밥은?)
- 박봉화** 낭푼에.(양푼에.)
- 김보향** 낭푼에? 으. 국은 뭐에 거릴 거?(양푼에? 으. 국은 뭐에 뜰 거?)

- 박봉화 저 사발에.(저 사발에.)
- 김보향 사발에. 국그릇 행 따로 잊어난 거?(사발에. 국그릇 해서 따로 있었던 거?)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예. 반찬은 뭐 이서나신고?(예. 반찬은 뭐 있었나요?)
- 박봉화 보시에.(보시기에.)
- 김보향 보시에? 게믄 옛날에 밥해 먹어난 거 생각나믄 영 행 여기에 뭐에 차릴 거? 밥 차리젠 허민?(보시기에? 그럼 옛날에 밥해 먹었던 거 생각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에 차릴 거? 밥 차리려고 하면?)
- 박봉화 상에.(상에.)
- 김보향 응. 상에, 밥상?(응. 상에, 밥상?)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밥상 옛날에 잊어낫수과? 삼촌 처음 시집간 살림 살 때.(밥상 옛날에 있었습니까? 삼촌 처음 시집가서 살림 살 때.)
- 박봉화 응. 우리 초담 시집간 때, 아인 때부띠도 밥상은 잊어낫어.(응. 우리 처음 시집갔을 때, 아이였을 때부터도 밥상은 있었어.)
- 김보향 밥상 잊어낫어?(밥상 있었어?)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자, 그럼 그때 생각행예? 밥상 위에 뭐 뭐 잊수과?(자, 그럼 그때 생각해서요? 밥상 위에 뭐 뭐 있었습니까?)
- 박봉화 밥상 우에?(밥상 위에?)
- 김보향 으, 밥 다 차련. 낭푼에 밥 잊곡, 또?(으, 밥 다 차렸어. 양푼에 밥 있고, 또?)
- 박봉화 국.(국.)
- 김보향 국. 국은?(국. 국은?)
- 박봉화 사발에.(사발에.)
- 김보향 응. 한 사람씩 다 잊어?(응. 한 사람씩 다 있어?)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응. 또?(응. 또?)
- 박봉화 또 반찬 접, 저 보시에.(또 반찬 접, 저 보시기에.)
- 김보향 보시에 반찬 잊고.(보시기에 반찬 잊고.)
- 박봉화 거려근에 놓고.(떠 놓고.)

- 김보향 거려 놓고, 응. 경만 이시믄 뭐?(떠 놓고, 응. 그렇게만 있으면 돼?)
- 박봉화 궤기 그튼 거 구믄 접시에 놓고.(고기 같은 거 구우면 접시에 놓고.)
- 김보향 접시도 따로 잊어난?(접시도 따로 있었어?)
- 박봉화 응, 접시 따로.(응, 접시 따로.)
- 김보향 예, 고기 거튼 거 구믄 접시에 놓고예?(예, 고기 같은 거 구우면 접시에 놓고요?)
- 박봉화 으. 저 눈 둘은 접시덜 잊어낫주.(으. 저 무늬가 점점이 있는 접시들 있었지.)
- 김보향 눈 둘은 접시에. 그거 다 어디 가 불어신고예?(무늬가 점점이 있는 접시에. 그거 다 어디 가 버렸나요?)
- 박봉화 게난. (웃음) 이제 골동품으로 다 나가 부난 엇엄주게. 엇어.(그러니까. 이제 골동품으로 다 나가 버리니까 없지, 없어.)
- 김보향 예. 눈 둘은 접시 쓰멍 살당, 아까 사기 접시들 쓰당. 사기접시들 쓰당 언제 뛰난 그런 아르미 그릇들이 나옵디가?(예. 무늬가 점점이 있는 접시 쓰면서 살다가, 아까 사기 접시들 쓰다가, 사기 접시들 쓰다가 언제 되니까 그런 알루미늄 그릇들이 나옵디까?)
- 박봉화 그땐 그거 사용헐 땐 시집감 전이주게.(그때는 그거 사용할 때는 시집가기 전이지.)
- 김보향 아르미 그릇들 시집감 전이?(알루미늄 그릇들 시집가기 전에?)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시집감 전이 그런 거 사용햇고, 시집간 후젠 눈 둘은 접시들이 다 엊어져 비언, 엇어.(시집가기 전에 그런 거 사용했고, 시집간 후에 무늬가 점점이 있는 접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없어.)
- 김보향 으. 어떤 그릇 썼어, 그럼?(으. 어떤 그릇 썼어, 그럼?)
- 박봉화 골동품으로 다 나가 분 거.(골동품으로 다 나가 버린 거.)
- 김보향 으. 경헨?(으. 그래서?)
- 박봉화 그냥 접시덜.(그냥 접시들.)
- 김보향 그냥 접시들. 그냥 접시들예? 예. 자 정지에 보난예?(그냥 접시들. 그냥 접시들요? 예, 자 부엌에 보니까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솟도 잊고, 물항도 잊고, 살레도 잊고 뭔 여기 조꼬만 항도 이실 거 아니? 단지들도

- 잇어낫수과?(솥도 있고, 물독도 있고, 찬장도 있고 무엇 여기 조그만 항아리도 있을 거 아니? 단지들도 있었습니까?)
- 박봉화 단지, 단지들도 잇어낫주.(단지, 단지들도 있었지.)
- 김보향 뭐 담아경 이신 단지?(뭐 담겨 있는 단지?)
- 박봉화 자리젓도 담양 잇곡, 멜젓도 담양 잇곡.(자리젓도 담고 있고, 멸치젓도 담고 있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짐치도 담양 잇고.(김치도 담아 있고.)
- 김보향 김치도 담양 잇고예? 단지들도 있고. 게믄 이제는 우리 식겟날. 식겟날 생각해 보게. 식게날 그릇들 뭐가 이신지예? 우선 떡 허젠 허민, 뭐가 있어야 헐 거꽈?(김치도 담아 있고요? 단지들도 있고. 그럼 이제는 우리 제삿날. 제삿날 생각해 보자. 제삿날 그릇들 뭐가 있는지요? 우선 떡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할 겁니까?)
- 박봉화 떡 허젠 허민 차롱.(떡 하려고 하면 채롱.)
- 김보향 차롱, 또? 그루 물젠 허민 뭐에 물 거라?(채롱, 또? 가루 말려고 하면 뭐에 말 거야?)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그루 무는 거 뭐에 물 거라?(가루 마는 거 뭐에 말 거야?)
- 박봉화 다라에.(대야에.)
- 김보향 다라에. 게난 떡 헐 때 뛰난 다라가 나왔구나?(대야에. 그러니까 떡 할 때 되니까 대야가 나왔구나?)
- 박봉화 으. 떡 헐 때 뛰난 다라가 나완.(으. 떡 할 때 되니까 대야가 나왔어.)
- 김보향 남도고린 안 썬? 떡 헐 때?(함지박은 안 썼어? 떡 할 때?)
- 박봉화 우린 남도고리 안 사용했어.(우리는 함지박 안 사용했어.)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우리 아인 때주.(우리 아이였을 때지.)
- 김보향 아인 때예?(아이였을 때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다라에.(대야예.)
- 박봉화 게난 시집가난에, 시집이 오난에 우리 시아버지가 대동아전쟁 때에 노무자로 강 돌아가 비엿주게.(그러니까 시집가니까, 시집에 오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대동아전쟁 때에 노무자로 가서 돌아가 버렸어.)
- 김보향 일본 갓수과? 노무자로?(일본 갔습니까? 노무자로?)

- 박봉화** 응, 노무자로.(응, 노무자로.)
- 김보향** 응.(응.)
- 박봉화** 군인 간에 돌아가 분 거, 우리 시아버지가. 경허난 우리 시어멍이 서른둘에 홀어멍
뒈고렌 허는 거 닮아.(군인 가서 돌아가 버린 거, 우리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서른둘에 홀어머니 됐다고 하는 거 같아.)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게난 얘기 뜰 호나에 아들 성제에, 성 우이 놔뒀에 우리 시아버지가 첨, 대동아전쟁
때 간 죽어 불엇주게.(그러니까 아기 딸 하나에 아들 형제에, 형 위에 놔두고 우리
시아버지가 첨, 대동아전쟁 때 가서 죽어 버렸었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죽어 부난 그자 홀어멍신디 시집오랑, 우리 집이 아방이 큰아덜이라.(죽어 버리니까
그저 홀어미에게 시집와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큰아들이야.)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경헨 시집오랑 살안 허난 우리 시어멍, 시할망 모션 살암선계. 오란 나 오난에
메누리 헤 와겼jen. 스물호나 나는 이월에 시집오란 허난에 스물호나 나는 해에
시집오란에 육지 돈 벌레, 물질행 돈 벌레 육지 가 분 거라이.(그래서 시집와서
살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할머니 모시고 살고 있더라. 와서, 내가 오니까
며느리 해 왔다고. 스물하나 되는 이월에 시집와서 하니까 스물하나 되는 해에
시집와서 육지 돈 벌러, 물질해서 돈 벌러 육지 가 버린 거야.)
- 김보향** 삼춘이?(삼촌이?)
- 박봉화** 응. 육지 간 경허난에 이젠 남편이 그때 군인 제대하겠 해도 돈 들었어이. 그때
돈이.(응. 육지 가서 그러니까 이젠 남편이 그때 군인 제대하려고 해도 돈 들었어.
그때 돈이.)
- 김보향** 제대할 때 돈 내야 합니까?(제대할 때 돈 내야 합니까?)
- 박봉화** 응. 돈 들언. 경허난에.(응. 돈 들었어. 그러니까.)
- 박진향** 제대할 때 군에 돈 냉 와마씨?(제대할 때 군에 돈 내서 와요?)
- 박봉화** 응. 돈 내영 제대해연. 우리 집 아방이 경허난에.(응. 돈 내서 제대했어. 우리 집
아버지가 그러니까.)
- 박진향** 조꼼 빠르게 제대해지난 경험신가?(조금 빠르게 제대하니까 그랬나?)
- 박봉화** 원 어떻사 혜신디.(원 어떻게 했는지.)

- 박진향** 돈은 들언예?(돈은 들었어요?)
- 박봉화** 응. 저 부산 **시장이엔 헌 디 간에, 물질허례 간 잇엇주게. 잇언에 헌디. 휴가 나오란 온 거라. 오란에 집이 간 들령 오노렌 허명. 제대허젠허믄 돈 들크란 어머니그라 강 혜줍센 허젠헤도 미안헨에 곤지 못헨 기냥 오고렌.(응. 저 부산 **시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물질하러 가서 있었지. 있었는데. 휴가 나오니까 온 거야. 와서 집에 가서 들려서 온다고 하면서. 제대하려고 하면 돈 들겠다고 어머니에게 가서 해 달라고 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겟 그때 돈 이백 원인가?(그래서 그때 돈 이백 원인가?)
- 박진향** 들언마씨?(들었어요?)
- 박봉화** 응. 돈 행 빚전.(응. 돈 해서 빚져서.)
- 박진향** 삼춘이 부쳤구나예?(삼춘이 부쳤군요?)
- 박봉화** 응, 게.(응, 그래.)
- 박진향** 어머니한테 말 곤지 못행, 미안행 말 곤지 못허난.(어머니한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니까.)
- 박봉화** 기냥 오고렌 허난.(그냥 왔다고 하니까.)
- 박진향** 물질 한 돈 보낸마씨?(물질한 돈 보냈어요?)
- 박봉화** 경허난 이젠 이만 원. 그 물질도 가민이 대행인이 잇는 거라. 모집자가.(그러니까 이젠 이만 원. 그 물질도 가면 대행인이 있는 거야. 모집자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물질허렌 모집자가.(물질하라고 모집자가.)
- 김보향** 그걸 뭐렌 불린? 아까 댕인?(그걸 뭐라고 불렀어? 아까 '댕인'?)
- 박봉화** 대행인.(대행인.)
- 김보향** 으, 대행인. 아.(으, 대행인. 아.)
- 박봉화** 경헨 허난에이 그디 돈 빚정에.(그렇게 하니까 거기 돈 빚져서.)
- 박진향** 빚전.(빚졌어.)
- 박봉화** 그때 돈 이백 원 빚전에.(그때 돈 이백 원 빚져서.)
- 김보향** 그때 돈 이백 원.(그때 돈 이백 원.)
- 박봉화** 응. 그때 돈 이백 원 빚전에. 강 제대힙센 행 주난에 간 제대헤아전 고향 오란 살고. 육지 시집오던 해에 물질허례 간 헨. 시누이, 시누이가 나보단 다섯나 알이라게.

경현 시누이신디 혼디 가肯 허멍 헨에 간 허난. 또 우리 친아시도 육지 가肯 허멍 헨에 혼디 돌아 아경 간. 또 시어멍 성님 뛸. 허당 보난 서일 돌아 아경 간 거라. 돌아 아전에 가난, 게난 세 개라도 다 처녀라덜.(응. 그때 돈 이백 원 빚져서. 가서 제대하라고 해서 주니까 가서 제대하고 고향 와서 살고. 육지 시집오던 해에 물질하러 가서 했어. 시누이, 시누이가 나보다 다섯이나 아래야. 그런 시누이에게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해서 가서 하니까. 또 우리 친동생도 육지 가겠다고 하면서 해서 같이 데려 가지고 갔어. 또 시어머니 형님 뛸. 하다가 보니까 셋을 데리고 간 거야. 데려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세 개라도 다 처녀야들.)

김보향 음.(음.)

박봉화 겟 둘앙 간 살아난디 우리 시누인 연애 중에 또 가곡.(그래서 데리고 가서 살았었는데 우리 시누이는 연애 중에 또 가고.)

박진향 연애도 헤낫구나?(연애도 했었구나?)

박봉화 연애 중에 물질허레 이젠 가곡 헤난에. 벌이도 베랑 없고 헤난에 연애허는 사름은 오지 안허믄 그만두肯만 헤 노난 고향 오지 못헨, 제주 오지 못헨 삭삭허난 이젠 대행인신디 또 빚전 돈 빚경 차비 출령 시누이 고향 보낸 거라. 보내연, 쟁헨에 헤난에 빚이 낫주게.(연애 중에 물질하러 이젠 가고 하니까. 벌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연애하는 사람은 오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만 해 놓으니까 고향 오지 못해서, 제주 오지 못해서 '삭삭'하니까 이제는 대행인에게 또 빚져서 돈 빚져서 차비 차려서 시누이 고향 보낸 거야. 보냈어, 그래서 하니까 빚이 낫지.)

박진향 빚이 엄부랑헤 불엇구나예?(빚이 엄청나 버렸군요?)

박봉화 빚이 낫주게. 이제 난 빚쟁이 될 거주게.(빚이 낫지. 이제 난 빚쟁이 될 거지.)

박진향 에, 엄부랑헨. 제대시키자.(에, 엄청났어. 제대시키려고.)

박봉화 물질 못 허믄 ** 살아살 거주.(물질 못 하면 ** 살아야 할 거지.)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허게 됐는 거라. 이제 경허난. ㄱ만히 이디 앗양은 안 뛰肯 에에 다른 디라도 나강 벌어사 허주. 이디 앗양은 안 뛰肯. 벌이가 원 안 뛰연에게. 아니 됐 허난에 이젠 부산을 나간 거라이. 부산을 나간 헨 허난에 어떻 어떻 헨 허난에 아는 사름 만난 허난에 부산서 *** 발동기 내놔근에 저 육지 **더레 흑산도레 오랑 물질헤여근에 전복 ㄱ튼 거 잡아근에 그거 부산 아경 들어강 자갈치 시장에 강 그 물건 네기는 거라이.(그러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 앉아서는 안 되겠다고

에에 다른 데라도 나가서 벌어야 하지. 여기 앉아서는 안 되겠다고. 벌이가 원 안 되었어. 안 돼서 하니까 이젠 부산을 나간 거야. 부산을 나가서 해서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니까 아는 사람 만나서 하니까 부산에서 *** 발동기 내놓고 저 육지 **으로 흑산도로 와서 물질해서 전복 같은 거 잡아서 그거 부산 가지고 들어가서 자갈치 시장에 가서 그 물건 넘기는 거야.)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행 두 ** *** 난 가난에 게도 돈 벌언에이. 그때 돈 얼마사 벌어져신디 돈 벌언. 그때 옛날에 검은 비로드 치메 흐나민 만 원 갔어.(그래서 두 ** *** 난 가니까 그래도 돈 벌고. 그때 돈 얼마야 벌었는지 돈 벌었어. 그때 옛날에 검은 비로드 치마 하나면 만 원 갔어.)

박진향 빌로드 치마?(비로드 치마?)

김보향 그때 돈 만 원?(그때 돈 만 원?)

박봉화 응, 그때 돈 만 원.(응, 그때 돈 만 원.)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박봉화 비로드 치메 그때 거 이제 돌아전 잇주.(비로드 치마 그때 그거 이제 달려 있지.)

박진향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김보향 잇당 찍으쿠다예.(있다가 찍겠습니다.)

박봉화 만 원 가고, 저고리 춘추 저고리 이천 원 가고.(만 원 가고, 저고리 춘추 저고리 이천 원 가고.)

김보향 만들어진 거?(만들어진 거?)

박봉화 으.(으.)

박진향 비쌌다예?(비쌌네요?)

박봉화 으, 부산서이 경헨 이젠 그거 혼 불 상 입곡.(으, 부산에서 그래서 이젠 그거 한 벌 사서 입고.)

박진향 입언?(입었어?)

박봉화 그디 돈 문딱 헨에 빚 물어 두구.(거기 돈 모두 해서 빚 물어 두고.)

김보향 아.(아.)

박진향 부제여낫구나?(부자였구나?)

김보향 번 거, 그때 번 거.(번 거, 그때 번 거.)

박봉화 그때 번 거. 경허난 돈도 만 원에 벌언 아경 온 거라. 경허난이 막 소문이 짱짱 헌

거라. 박봉화 물질 간에 돈 만 원 벌었을 텐데.(그때 번 거. 그러니까 돈도 만 원 벌고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소문이 짱짱한 거야. 박봉화 물질 가서 돈 만 원 벌고 왔다고.)

박진향 돈 잘 버는 메뉴리였구나예?(돈 잘 버는 며느리였군요?)

박봉화 그때 돈 만 원 막 큰돈 아냐게?(그때 돈 만 원 아주 큰돈 아니니?)

김보향 으.(으.)

박진향 지금도 큰돈이주.(지금도 큰돈이지.)

박봉화 으, 막 사뭇 소문 나명 헌 거라. 나명 허난에이. 친정이두 그자 베랑 넉넉치 아녕 살주게, 살안 허곡 허난에 시집가멍써라 육지 간에 허난에 시집가난 빚도 흔 이천 원 잇언에 오란 물고, 아버지네신디도 나 시집보내난 빚 얼메이나 낫수과 허난에 삼천 원 낫저 영허멍 헤난에, 삼천 원 낫젠허난에 그거 물어 불센 삼천 원 안내 두고 나 거 물고 허난 오천 원 물어 부난에 오천 원이 남은 거라이. 남안 허난에 친정아버지 이걸랑 앗앗다근에 밧이라도 사주마, 조그만 밧덜이 나오믄 사주마. 경행 이제 친정아버지 그거 줘 비엇주. 경허난 시어멍이 폐와지지 못해영.(으, 아주 사뭇 소문 나면서 한 거야. 나면서 하니까. 친정에도 그저 별로 넉넉하지 않게 살지, 살아서 하고 하니까 시집가자마자 육지 가서 하니까 시집가니까 빚도 한 이천 원 있어서 와서 물고, 아버지네에게도 나 시집보내니까 빚 얼마나 났습니까 하니까 삼천 원 낫저 이러면서 하니까, 삼천 원 났다고 하니까 그거 물어 버리라고 삼천 원 드려 두고 내 거 물고 하니까 오천 원 무니까 오천 원이 남은 거야. 남아서 하니까 친정아버지 이거는 가져다가 밧이라도 사주마, 조그만 밧들이 나오면 사주마. 그래서 이제 친정아버지 그거 줘 버렸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폐지지 못해서.)

박진향 아고 아고.(아고 아고.)

박봉화 돈 벌어 오랏젠헌디 앗단 주지 안헴젠헤와지질 안헨이.(돈 벌어 왔다고 하는데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폐지지를 않았어.)

김보향 폐와지지 안헨.(폐지지 않았어.)

박봉화 원 성가시게 경 구는 거라. 거난 요 옆집 성님신더레 양, 성님 우리 시어멍 무사 정 꼴 아니 폐왕 정 굴툭부리멍 날 그냥 못 살게 굴엄수과? 영허난. 느 돈 하영 벌어 오랏젠헤도 앗다 안 줘 부난 그거 아냐? 영 허는 거 아니? 아고 안 뛰肯, 아부지신디 간에.(원 성가시게 그렇게 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옆집 형님에게 예,

형님 우리 시어머니 왜 저렇게 꼴 안 피고 저렇게 심통부리면서 날 그냥 못 살게
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돈 많이 벌어 왔다고 해도 가져다 안 줘 버리니까
그거 아니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안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박진향 또 달렌 헛수과?(또 달라고 했습니까?)

박봉화 응?(응?)

박진향 아니마씨.(아니요.)

박봉화 아버지신디 간에 아버지 그거 돈 남은 거 줍서. 원 시어멍 페와지질 안해연 못
살쿠다. 앗당 심겨불쿠덴 시어멍 앗당 그거 줘비여시네.(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거 돈 남은 거 주세요. 원 시어머니 펴지지 않아서 못 살겠습니다. 가져다가 잡게
하겠다고 시어머니 가져다가 그거 줘 버렸어.)

김보향 아, 오천 원 다?(아, 오천 원 다?)

박봉화 으. 계난이 고스란이 우리 시어멍은 먹어 비연.(으. 그러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어머니는 먹어 버렸어.)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박진향 땅 사肯 헌 거.(땅 사겠다고 한 거.)

박봉화 밧 사 줌이랑 저레 나둬근에, 먹어 비연. 계난이 혼자 살양 헷자 엇인 집이 시집,
경해도이 고칩인디이 우리 시집가 고칩이여. 우리 시할아버지네가 옛날 고
주서 하르방 나가 손주메누리여게. 계난이 고 주서난이, 맹예 난 집안이여게.(밭
사 주는 것은 놔두고, 먹어 버렸어. 그러니까 혼자 살고 해도 없는 집에 시집,
그래도 고씨 집인데 우리 시집이 고씨 집이야. 우리 시할아버지네가 옛날 고 주사
할아버지 내가 손주며느리야. 그러니까 고 주사니까, 명예 난 집안이야.)

박진향 맞구나예?(맞군요?)

박봉화 으. 맹예 난 집이 족은아들 메누리주, 나가. 족은아들 메누리란 혜연 헌디. 우리
원래 칩은 이 요 앞집이 요거 2층 집, 요거.(으. 명예 난 집의 작은아들 며느리지,
내가. 작은아들 며느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원래 집은 요 앞집의 요거 2층 집
요거.)

김보향 으, 으.(으, 으.)

박봉화 요것가 우리 집이영 허주. 우리 시어버지 시할아방네 물려준 집은이. 경헌디
우리 시어멍이 아프난에 밧은 풀아 불민 해 먹을 것 엇곡. 바꾸완. 이건 쪼꼴락헌
막살이고 저딘 큰 디난에 ** 받안에. 할망 옛날에 굿허메. 계난이 이제 그트민

거시기 독감 걸린 걸 굿허메. 경헨 헣다. 헤도이 뭔 모른들 사람들신디 곤주. 시어멍 보통이 벗어진 할망 경 울려라게. 경게 날 고생시경이 할망.(요것이 우리 집이라고 하지. 우리 시아버지 시할머니네 물려준 집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아프니까 밭은 팔아 버리면 해 먹을 것 없고. 바꿔서. 이거 자그마한 막살이이고 저기는 큰 데니까 ** 받아서. 할머니 옛날에 굿해. 그러니까 이제 같으면 거시기 독감 걸린 걸 굿해. 그렇게 한다. 해도 뭔 몰라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시어머니 보통이 벗겨진 할머니 그렇게 울리더라. 그렇게 날 고생시켜서 할머니.)

박진향 시집살이 헷구나예?(시집살이 했군요?)

박봉화 게난이 시할망 스물둘 나는 해엔 시할망 맷기고 살림 맡양 살렌 당신 남편 제사도 날그라 허렌 헨에 맷겨 두곡. 그저 우리 시어멍은 놈이 집 빌언 나가 부는 거라.(그러니까 시할머니 스물둘 나는 해에는 시할머니 맷기고 살림 맡아서 살라고 당신 남편 제사도 나보고 하라고 해서 맷겨 두고. 그저 우리 시어머니는 남의 집 빌려서 나가 버리는 거야.)

김보향 으.(으.)

박봉화 나가 부난에 시할망 모성 살명이.(나가 버리니까 시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김보향 제사 맹질 허곡.(제사 명절 하고.)

박봉화 응. 경헨에 애가 다섯 오누이 난에.(응. 그래서 애가 다섯 오누이 낳고.)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박봉화 게난 시할망 손에서 너 오누이 키왓주.(그러니까 시할머니 손에서 너 오누이 키웠지.)

박진향 으.(으.)

박봉화 막끌에 난 거 두 설에 할망 돌아가시난에. 쟁 할망 이시난 경혜도 살안이. 게난이 시집완 보난 경행 할망이 그축 허난 우리 시어멍도 물질 경 잘현덴 소문 난 할망이라도 이 메누리만은 못 혜연.(마지막에 낳은 거 두 살에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있으니까 그래도 살았어. 그러니까 시집와서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그처럼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물질 그렇게 잘한다고 소문 난 할머니라도 이 머느리만은 못 해.)

김보향 아.(아.)

박봉화 자랑이 아니라 폐선이 일등이엔 소문 난 사람이주.(자랑이 아니고 표선 일등이라고 소문 난 사람이지.)

- 김보향 상군이 랏구나게.(상군이었군요.)
- 박봉화 상군게. 경허난이 옛날 돈으로이 물질해영 혼 물끼, 혼 물끼 혼 물끼 보름을 혼 물끼로 잡주게. 잡앙 행 오민 혼 물끼 강 물질행 오민 계산후민 그때 돈 만이천 원 만삼천 원 받안.(‘상군’이야. 그러니까 옛날 돈으로 물질해서 한 무수기, 한 무수기 하면 보름을 한 무수기로 잡지. 잡고 해서 오면 한 무수기 가서 물질해서 오면 계산하면 그때 돈 만이천 원 만삼천 원 받았어.)
- 박진향 으아.(으아.)
- 김보향 쌀 혼 말이 그때 얼마 헐 때?(쌀 한 말이 그때 얼마 할 때?)
- 박봉화 계난 몰라. 그때 쌀 혼 말이 얼마사 가나신디.(그러니까 몰라. 그때 쌀 한 말이 얼마나 갔었는지.)
- 김보향 계난 그게 삼촌이 이십 대 때예? 스물두 살, 스물세 살.(그러니까 그게 삼촌이 이십 대 때요? 스물두 살, 스물세 살.)
- 박봉화 스물두 살에 시할망 마트구 경행 산 거라.(스물두 살에 시할머니 맡고 그렇게 산 거야.)
- 박진향 아이고, 식게 맹질 하고.(아이고, 제사 명절 하고.)
- 김보향 식게 맹질 하고.(제사 명절 하고.)
- 박봉화 경허난이 우리 시어멍은 행 살았자 우리 시아방 제사 해여 먹어도 메, 제삿밥그라 메엔 허주게이. 허난이 그 메 퍼 놓을 도구.(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해서 살아도 우리 시아버지가 제사 해 먹어도 메, 제삿밥보고 메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메 떠 넣을 도구.)
- 김보향 그릇.(그릇.)
- 박봉화 저 그릇 다라 혼 날 안 사 넣이.(저 그릇 대야 하나를 안 사 놓고.)
- 김보향 아.(아.)
-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 박봉화 우리 시어멍. 경행 잘한 살았젠 헷자.(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잘하고 살았다고 해도.)
- 김보향 계난 삼촌이 다 삿수과?(그러니까 삼촌이 다 삿습니까?)
- 김보향 물질행.(물질해서.)
- 박봉화 펭풍 혼나를 아니 놓 그릇, 제사에 음식 갈라 먹는 그릇도 혼나 안 사놓 옆집이 거 빌어당 제사 때에 펭풍도 빌어당 허곡 맥도고리멍 무시거멍 다 빌어당 혜 낭, 혜

먹어 낭 앗다 불고 경헨. 나 오란에 문딱 사 놓.(병풍 하나는 안 놓고 그릇, 제사에 음식 나눠 먹는 그릇도 하나 안 사 놓고 옆집의 거 빌려다가 제사 때에 병풍도 빌려다가 하고 면이며 무엇이며 다 빌려다가 하고 나서, 해 먹고 나서 가져가 버리고 그랬어. 내가 와서 다 사 놨어.)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박봉화 계난 펑퐁도 이젠 두 개. ㅎ나, ㅎ나토 엇당 이제 두 개.(그러니까 병풍도 이제는 두 개. 하나, 하나도 없다가 이제 두 개.)

김보향 두 개나 장만허곡. 게민 삼촌 떡 허는 것도 잘 알쿠다예?(두 개나 장만하고. 그럼 삼촌 떡 하는 것도 잘 알겠네요?)

박봉화 응?(응?)

김보향 식게떡 허는 것도 잘 알크라?(제사떡 하는 것도 잘 알겠어?)

박봉화 식게떡?(제사떡?)

김보향 예.(예.)

박봉화 식게떡은게 떡 식게해 먹젠 허믄 식게허는 거난.(제사떡은 떡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제사하는 거니까.)

김보향 게믄 이제 떡 허는 거예, 아까 떡 허젠허믄 그루를 물아. 다라에서.(그럼 이제 떡 하는 거요, 아까 떡 하려고 하면 가루를 말아. 대야에서.)

박봉화 으.(으.)

김보향 게민 이제 어떻 할 거꽈?(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박봉화 거난 그때 당시엔이. 제사해 먹젠허민 쌀 두어 뛰 커근에 헤영 허민 이젠 기겟방 요 중간에 이제도 기겟방 잇언 기겟방에 가근에 떡도 만들양 오고 무시거 헷주만은, 그땐 기계방도 엇인 때고 허난에 한 쌀, 영장남이나 무시거 큰 거시기 혈 때 ㅎ는 건 물그레엔 헤근에이. 물고랑이렌 헌 디서 놔근에 맷돌 큰 거 헤근에 모다들엉 돌려근에, 떡 글아다근에 떡 헷저게. 경햇주만은 그건 훈 뛰 두 텐 헌 건 경 헤져시냐 허민이 방에에서 뻣는그라 떡그루를이.(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쌀 두어 되 커서 해서 하면 이제는 기계방아 요 중간에 이제도 기계방아 있어서 기계방아에 가서 떡도 만들어서 오고 뭐 했지만은, 그때는 기계방아도 없을 때고 하니까 많은 쌀, 초상이 나거나 무엇 큰 거시기 할 때 ㅎ는 건 연자매라고 해서. 연자매라고 하는 데서 놔서 맷돌 큰 거 해서 모여들어서 돌려서, 떡 갈아다가 떡 했어. 그랬지만 그건 한 되 두 되 한 건 그렇게 했는가 하면

- 방아에서 빵는지 떡가루를.)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방에에서. 방에 져근에, 방에 져근에 뺏아근에. 그걸로 떡 해근에 제사해 먹고.(방아에서. 방아 짱어서, 방아 짱어서 빵아서. 그걸로 떡 해서 제사해 먹고.)
- 김보향 그루 내왕예.(가루 내서요.)
- 박봉화 그루 내왕.(가루 내서.)
- 김보향 게믄 방에서 지젠 허믄예? 영행 돌이 잇잖아?(그럼 방아에서 짱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돌이 잇잖아?)
- 박봉화 으. 방에, 방에 영현 방에다가 흐 요만현 거 잇주게.(으. 방아, 방아 이러한 방아에다가 요만한 거 있지.)
- 김보향 그거 방에흐이렌 골을 거?(그거 방아학이라고 말할 거?)
- 박봉화 응. 방에흐.(응. 방아학.)
- 김보향 게믄 이거 영 두드리는 건?(그럼 이거 이렇게 두드리는 건?)
- 박봉화 방엣귀.(방앗공이.)
- 김보향 방엣귀?(방앗공이?)
- 박봉화 응, 방엣귀로이.(응, 방앗공이로.)
- 김보향 두드려?(두드려?)
- 박봉화 둘이 두드리는 건 둘이 마주 사근에 두드리고 혼잔 혼자만 두드리고.(둘이 두드리는 건 둘이 마주 서서 두드리고 혼자는 혼자만 두드리고.)
- 김보향 게믄 그 둘이 하는 걸 두콜방에렌 협니까?(그럼 그 둘이 하는 걸 ‘두콜방에’라고 합니까?)
- 박봉화 으, 서이 지게 뛰믄 세콜방에, 네콜방에.(으, 셋이 지게 되면 ‘세콜방에’, ‘네콜방에’.)
- 박진향 (웃음) 아, 경하는 거구나?(아, 그러는 거구나?)
- 김보향 자 그럼 둘이 허젠 허믄 영 잘 맞아야 뛰쿠다예?(자 그럼 둘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잘 맞아야 되겠네요?)
- 박진향 박자가.(박자가.)
- 박봉화 으, 잘 맞아사.(으, 잘 맞아야.)
- 김보향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 박봉화 으, 둘이만은 게도 쉽주만은. 서이끄장 가젠 허믄이, 세콜방에 지젠 허믄 손이 맞아사.(으, 둘이만은 그래도 쉽지만. 셋까지 가려고 하면, ‘세콜방에’ 짱으려고

하면 손이 맞아야.)

김보향 아.(아.)

박봉화 경행 뺏아근에 그거 행 식게해 먹곡.(그래서 빵아서 그거 해서 제사해 먹고.)

박진향 그럼 얼마나 쳐야 그게 떡처럼 쫀득쫀득?(그럼 얼마나 쳐야 그게 떡처럼 쫀득쫀득?)

김보향 아니아니, 그루 나오는 거.(아니아니, 가루 나오는 거.)

박봉화 아이고.(아이고.)

박진향 그루만 나와? 아.(가루만 나와? 아.)

박봉화 옛날 살아난 말 곧젠 허믄 훈이 엇나.(옛날 살았던 말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

김보향 이제 그루 나왔수다. 그루를 남도고리 남도고리에 담양 뜨신 물.(이제 가루 나왔습니다. 가루를 함지박, 함지박에 담고 따뜻한 물.)

박봉화 우리 시대에 나난에.(우리 시대에 나니까.)

김보향 다라.(대야.)

박봉화 남도고리 엇이난에 다라게.(함지박 없으니까 대야.)

김보향 으, 으.(으, 으.)

박봉화 다라에 헤근에 물 끓여근에 그 끓인 물로 물아근에 반죽해영 송펜 빛영 만들앙, 손으로 만들아근에이 솟디 헤근에 솔, 소나무 가지 강 그차다근에 그세로 솔잎 뺏아근에 부뜨지 말렌이. 영 징징이 꼴앙 그레 멘글아 낭, 또 우트레 꼴앙 멘글아 낭 경행 떡 치주게.(대야에 해서 물 끓여서 그 끓인 물로 말아서 반죽해서 송펜 빛어서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솔에 해서 솔, 소나무 가지 가서 끓어다가 가위로 솔잎 모두 빵아서 붙지 말라고. 이렇게 층층이 깔아서 그리 만들어서 놓고, 또 그 위로 깔아서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떡 찌지.)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게문이 솔잎 내도 코시룡허곡 조메. 송펜에게.(그럼 솔잎 내도 고소하고 좋아. 송펜에.)

김보향 낭가젱이 만들엉 영 떡 물에 털어지지 말젠 놓잖아요? 그걸.(나뭇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떡 물에 떨어지지 말라고 놓잖아요? 그걸.)

박봉화 고살 낭.(경그레 놓고.)

김보향 고살이렌 헨예?(경그레라고 했어요?)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으, 으.(으, 으.)
- 박봉화 고살 낳.(경그레 놓고.)
- 김보향 그거 고살, 고수에? 고살이렌 골았어예?(그거 ‘고살’, ‘고수에’? ‘고살’이라고 말했어요?)
- 박봉화 응, 고살 낳.(응, 경그레 놓고.)
- 김보향 예, 고살. 송편 찔 때는 고살을 멧 개나 낫수과? 멧 층이나 놔? ھ나만 놔?(예, 경그레. 송편 찔 때는 경그레 몇 개나 놔습니까? 몇 층이나 놔? 하나만 놔?)
- 박봉화 하지 아녀난, 하지 아녀난에이.(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하지 아녀문이 하영 아니 든다게.(많지 않으면 많이 안 들어.)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시아방 혼자뿐이곡 행 허난 그자 상에 올릴 거 허곡. 그자 온 사람덜 갈라 먹젠이. 쌀 두 둬 아니믄 혼 둬 그자 행 물에 컹 뱃안에 경행.(시아버지 혼자뿐이고 해서 하니까 그저 상에 올릴 거 하고. 그저 온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 쌀 두 되 아니면 한 되 그저 해서 물에 컹다가 빵아서 그렇게.)
- 김보향 으. 게민 그거는 송편할 때고. 우리 납작한 떡이 있잖아예?(으. 그럼 그거는 송편할 때이고. 우리 납작한 떡이 있잖아요?)
- 박봉화 솔벤 절벤.(솔편 절편.)
- 김보향 솔벤 절벤 하젠 허믄 밀어사잖아?(솔편 절편 하려고 하면 밀어야잖아?)
- 박봉화 밀어사.(밀어야.)
- 김보향 밀젠 허민 뭐가 있어사 될 거꽈?(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겁니까?)
- 박봉화 돔베.(도마.)
- 김보향 돔베예?(도마요?)
- 박봉화 돔베에 그거 행 밀어근에 그거 뿐으로 텅, 경해연 또 고살 놔근에 솔잎 헤근에 징징이 허끄멍.(도마에 그거 해서 밀어서 그거 떡살로 떠서, 그래서 또 경그레 놓고 솔잎 해서 총총이 섞으면서.)
- 김보향 그때 본을 절벤 멘드는 본을 뭐렌 골았어?(그때 떡살을 절편 만드는 떡살을 뭐라고 말했어?)
- 박봉화 솔벤본.(‘솔벤본’.)
- 김보향 어, 솔벤본. 절벤본?(어, ‘솔벤본’. ‘절벤본’?)

- 박봉화** 절벤본.(‘절벤본’.)
- 김보향** 으, 솔벤본은 어떻 생겼?(으, ‘솔벤본’은 어떻게 생겼어?)
- 박봉화** 솔벤본은이.(‘솔벤본’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저 반둘.(저 반달.)
- 김보향** 반둘 모양예? 예, 예.(반달 모양요? 예, 예.)
- 박봉화** 반둘.(반달.)
- 김보향** 절벤본은 어떻 생겼어?(‘절벤본’은 어떻게 생겼어?)
- 박봉화** 절벤뿐은 동글랑 헌게 복판에 말축고추룩 둑앙.(‘절벤본’은 동그란 것이 복판에 물사마귀처럼 돌아서.)
- 김보향** 으. 여기 문양이 있어예? 겐 손잡이로 헹 꼭 누뜨르멍 허는 거예?(으. 여기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로 해서 꼭 누르면서 하는 거요?)
- 박봉화** 으, 으.(으, 으.)
- 김보향** 예. 그게 절벤본. 아까 둠베는 옷 헐 때도 둠베가 셔사찮아예? 게믄 옷 허는 둠베, 떡 허는 둠베 트로트로 갖쳤수과? 아니믄 그치 셋수과?(예. 그게 ‘절벤본’. 아까 도마는 옷 할 때도 도마가 있어야잖아요? 그럼 옷 하는 도마, 떡 하는 도마 따로따로 갖쳤습니까? 아니면 같이 썼습니까?)
- 박봉화** 저 무시거니 떡 허는 둠벤 그자 가정에 쓰는 둠베로 주로 허주게.(저 무엇이니 떡 하는 도마는 그저 가정에 쓰는 도마로 주로 하자.)
- 김보향** 아, 게민 큰 둠베는 옷 헐 때만 해?(아, 그럼 큰 도마는 옷 할 때만 해?)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아, 기구나. 떡헐 때는 가정에 그냥 쓰는 거 허고. 우리 옛날에 큰일 헤 먹젠 허면은 고기 써는 둠베도 셔낫수게.(아, 그렇구나. 떡할 때는 가정에 그냥 쓰는 거 하고. 우리 옛날에 큰일 헤 먹으려고 하면 고기 써는 도마도 있었지요.)
- 박봉화** 으, 것도 둠베. 큰 거.(으, 그것도 도마. 큰 거.)
- 김보향** 큰 거.(큰 거.)
- 박봉화** 그 빨래 두드리는 둠베닮은 큰 거.(그 빨래 두드리는 도마같은 큰 거.)
- 김보향** 닮은 거. 근데 그거랑 그치 쓰지는 못 헤여예?(닮은 거. 그런데 그거랑 같이 쓰지는 못 해요?)
- 박봉화** 그치는 안 쓰주게. 고기 쓰는 둠베 따로 잇곡.(같이는 안 쓰지. 고기 쓰는 도마 따로

있고.)

김보향 따로 잇곡? 예 예 예.(따로 있고? 예, 예, 예.)

박봉화 옷 두드리는 돔베 따로 잇곡.(옷 두드리는 도마 따로 있고.)

김보향 아까 솔벤 절벤은 영 쳐 낼 거고, 그거 말고 시리떡이렌 헐 거, 아니믄 친떡이렌 헐 거?(아까 ‘솔벤’ 절편은 이렇게 쳐 낼 거고, 그거 말고 ‘시리떡’이라고 할 거, 아니면 ‘친떡’이라고 할 거?)

박봉화 으, 시리떡.(으, ‘시리떡’.)

김보향 시리떡.(‘시리떡’.)

박봉화 그거 행 시리 헤근에게 이녁 집이 시리 행 사 놔근에 그루 헤근에 칭칭이 시리 고물 허끄멍 헤영 솟디 앗져근에 김 솟지 아녀게.(그거 해서 시루 해서 자기 집의 시루 해서 사 놓아서 가루 해서 층층이 시루 고물 섞으면서 해서 솥에 안쳐서 김 솟지 않게.)

김보향 으.(으.)

박봉화 엠에 솟 바위, 시리꽝 솟 바위꽝 똑 맞게시리 헤영 밀가루 반죽 만들아근에 뱡 허게 군짐 나오지 말게.(옆에 솥 가장자리, 시루와 솥 가장자리와 꼭 맞게 해서 밀가루 반죽 만들어서 뱡 하게 김 나오지 않게.)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박봉화 뱡 허게 그거 불랑이.(뱀 하게 그거 발라서.)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헤근에 떡 쳐 내주게.(그래서 떡 쳐 내지.)

김보향 떡 쳐 내서. 짐 나오지 말렌예? 그민 영 밀가루 영 불르는 걸 뭐렌 굽아난? 시릿번? 아니면 그거 불르는 이름 엊어난? 시리 고망 막는 거.(떡 쳐 내서. 김 나오지 말라고요? 그럼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바르는 걸 뭐라고 말했었어? 시릿번? 아니면 그거 부르는 이름 없었어? 시루 구멍 막는 거.)

박봉화 게메, 시리 고망 막는 거, 거 따로 이름은 아니 지왓주.(글쎄, 시루 구멍 막는 거, 거 따로 이름은 안 지었지.)

김보향 따로는 아니 지왓어예?(따로는 안 지었어요?)

박봉화 으.(으.)

김보향 예. 시리는 어떤 시리 써낫수과? 삼춘은?(예. 시루는 어떤 시루 썼었어요? 삼춘은?)

박봉화 우리 시린 그 사기 시리.(우리 시루는 그 사기 시루.)

- 김보향 사기 시리, 지세시리?(사기 시루, ‘지세시리’?)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지세시리?(‘지세시리’?)
- 박봉화 지세시리.(‘지세시리’.)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지세시리.(‘지세시리’.)
- 김보향 예, 우리 지난번에 사진 찍언예?(예, 우리 지난번에 사진 찍었지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예. 깨진 거예?(예. 깨진 거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예. 지세시리.(예. ‘지세시리’)
- 박봉화 거 집이서 써난 거.(그거 집에서 썼던 거.)
- 김보향 그거, 그거는 지세시리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그거, 그거는 ‘지세시리’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
- 박봉화 저건 거시기 두 뒤 들어가는 거.(저건 거시기 두 되 들어가는 거.)
- 김보향 두 뒤 들어가는 거. 예, 예. 이제는, 삼춘 술도 멘들아 봅디가?(두 되 들어가는 거. 예, 예. 이제는, 삼춘 술도 만들어 보셨습니까?)
- 박봉화 술 아니 해 봤.(술 안 해 봤어.)
- 김보향 술 안 해 봤예? 옛날 어머니네 술 허는 거 보면은 술 헐 때 내릴 때 쓰는 것도 잊지예?(술 안 해 봤어요? 옛날 어머니네 술 하는 거 보면 술 할 때 내릴 때 쓰는 것도 잊지요?)
- 박봉화 술, 술 헐 때도 시리에.(술, 술 할 때도 시루에.)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밥 쌀 물 커근에이.(밥 쌀 물 담가서.)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물 커근에 쌀 쪘눌민 시리에 앗져근에 치엉.(물 담가서 쌀 무르면 시루에 안쳐서 쪘.)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쳐 내여근에 누룩, 누룩 헤근에 뗏아근에 거에 서깽 항아리에 담양 경행 술 담주게.(쪄 내서 누룩, 누룩 해서 빻아서 그거에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래서

술 담그지.)

김보향 경행 담아난.(그래서 담갔었어.)

박봉화 경행 담으민 며칠 뒤 가믄 왈탕 왈탕 왈탕 막 궤어근에.(그렇게 담그면 며칠 돼 가면 왈탕 왈탕 왈탕 마구 끓어서.)

김보향 궤어예?(끓어요?)

박봉화 으, 왈탕 왈탕 왈탕 막 궤영 막걸리 뛰엉, 경해근에 저 막걸리로 그냥 먹는 사람은 그추룩 행 걸로 그냥 막걸리로 먹곡, 그걸 소주고치 빠근에 먹는 건 옛날에 고소리술이엔 헤근에.(으, 왈탕 왈탕 왈탕 마구 끓어서 막걸리 돼서, 그래서 저 막걸리로 그냥 먹는 사람은 그처럼 해서 그걸로 그냥 막걸리로 먹고, 그걸 소주같이 빼서 먹는 건 옛날에 '고소리술'이라고 해서.)

김보향 예.(예.)

박봉화 고소리술이엔 헤근에 솟 영현 거 앗져근에. 것에서 졸졸 떨어지게 빠내여근에.
('고소리술'이라고 해서 솔 이런 거 안쳐서. 그것에서 졸졸 떨어지게 빠내서.)

김보향 솟에 뭘 앗질 거, 고소리를 앗질 거?(솔에 무엇을 안칠 거, 소줏고리를 안칠 거?)

박봉화 으, 고소리를 앗정 경해근에 허민 기름집이 기름 짜내듯이 글로 톡 톡 톡 털어져근에 나오랑 소주 다까네영 옛날에.(으, 소줏고리를 안쳐서 그래서 하면 기름집의 기름 짜내듯이 그리로 톡 톡 톡 떨어져서 나와서 소주 닦아서 옛날에.)

김보향 으.(으.)

박봉화 경해낫주게.(그랬었지.)

김보향 경해낫어예? 예, 예. 그 그거는 술 뺄 때고. 빙떡은 어떻 지져낫수과?(그랬었지요?
예, 예. 그 그거는 술 뺄 때고. 빙떡은 어떻게 지쳤었습니까?)

박봉화 빙떡은 무물쌀 그루 골아다근에 방에 지멍 쌀 뺏아근에 허믄 쉽주게, 빙떡은게.
그 무물쌀 헤근에 저 그레 정그레에 골앙, 맷돌로. 맷돌로 골아근에 좀질게 골아
내영 저번이 사진 찍어 간 체 좀진 걸로 훑은 거 쳐 비어 둑 좀진 걸로 받아근에
그루 카근에. 그걸 물로 카근에 너미 뛰어도 깨지곡, 오골오골 벌러지주. 너미
뛰어도이, 계난 뛰지 안허게 적당히 맞추아근에 헤영 지지는 거.(빙떡은 메밀쌀
가루 같아다가 방아 찧으면서 쌀 빻아서 하면 쉽지, 빙떡은. 그 메밀쌀 해서 저
맷돌, 맷돌에 같아서, 맷돌로. 맷돌로 같아서 잘게 갈아 내서 저번에 사진 찍고 간
체 가는 걸로 굽은 거 쳐 버려 두고 가는 걸로 받아서 가루 타서. 그걸 물로 타서
너무 되어도 깨지고, 오글오글 깨지지. 너무 되어도, 그러니까 되지 않게 적당히

맞추어서 해서 지지는 거.)

김보향 으. 어디 낳? 그때 후라이팬 없잖아?(으. 어디 놓아? 그때 프라이팬 없잖아?)

박봉화 솟뚜껑이에.(솔뚜껑에.)

김보향 솟뚜껑이.(솔뚜껑.)

박봉화 솟뚜껑이로도이 두 갠 나오주게.(솔뚜껑으로도 두 개는 나오지.)

김보향 으. 두 개 나오는 게 뭐꽈?(으. 두 개 나오는 게 뭘니까?)

박진향 두 장?(두 장?)

박봉화 정기 두 개 나와.(빙떡 두 개 나와.)

김보향 아, 계민 여기 정기 여기 정기 솟뚜껑이 막 큰 걸로 헷구나?(아, 그럼 여기 빙떡 여기 빙떡 솔뚜껑 아주 큰 걸로 했구나?)

박봉화 으. 두말떼기 솟뚜껑이로 헹 해믄 두 개 나와.(으. '두말떼기' 솔뚜껑으로 해서 하면 두 개 나와.)

김보향 아, 예.(아, 예.)

박진향 그거는 요로케 뒤집엉 헤마씨? 더픈 채 하는 거마씨? 어떤 모양, 뒤집엉?(그거는 요렇게 뒤집어서 해요? 덮은 채 하는 거요? 어떤 모양, 뒤집어서?)

김보향 뒤집엉.(뒤집어서.)

박진향 후라이팬 모양처럼?(프라이팬 모양처럼?)

박봉화 응, 뒤집엉 뒤집엉게. 그 손접이 알레러 가게.(응,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 손접이 아래로 가게.)

박진향 알레러 가게예?(아래로 가게요?)

박봉화 게믄 영 해근에 앗져근에 이디서 해영 지전에.(그럼 이렇게 해서 안쳐서 여기서 해서 지져서.)

박진향 기름 빼는 거 아니고 하니까. 경행 두 장 지져마씨?(기름 빼는 거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두 장 지져요?)

박봉화 응. 지름 불르멍이.(응. 기름 바르면서.)

박진향 지름 발르멍, 으.(기름 바르면서, 으.)

박봉화 두 장 나온다.(두 장 나온다.)

김보향 경행 빙떡도 지지고 허민 만약에 우리 식게다 허민 젯그릇들은 삼촌 놋그릇이 잇었수꽈? (그래서 빙떡도 지지고 하면 만약에 우리 제사 다 하면 젯그릇들은 삼촌 놋그릇이 있었습니까?)

- 박봉화 놋그릇.(놋그릇)
- 김보향 놋그릇 씻수과? 써낫수과?(놋그릇 씻었습니까? 썻었습니까?)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놋그릇 사 놀 썬.(놋그릇 사 놓고 썼어.)
- 김보향 사 놓 썬? 삼촌이 장만했구나.(사 놓고 썼어? 삼촌이 장만했구나.)
- 박봉화 나가 문 장만했게. 젯상에 올리는 거명 음식 갈라 먹는 거명. 나가 문딱 출련 헨에.(내가 모두 장만했어. 세상에 올리는 거며 음식 나눠 먹는 거며. 내가 모두 차려서 했어.)
- 김보향 게민 음식 갈라 먹는 것도 놋그릇 헨? 아니믄 그냥 스텐으로 헨?(그럼 음식 나눠 먹는 것도 놋그릇 했어? 아니면 그냥 스테인리스로 했어?)
- 박봉화 아니 그냥 음식 갈라 먹는 건 거시기 이모노, 사발.(아니 그냥 음식 나눠 먹는 건 거시기 알루미늄 사발.)
-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 박봉화 이모노 사발.(알루미늄 사발.)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그거 줄차 사다근에.(그거 줄째 사다가.)
- 김보향 게난 삼춘 시집강 살림할 때는 이모노 사발들이 막 나왔구나?(그러니까 삼춘 시집가서 살림할 때는 알루미늄 사발들이 마구 나왔구나?)
- 박봉화 으. 그땐 그거 문 나완.(으. 그때는 그거 모두 나왔어.)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놋그릇도 다 나왓주만은 해도이 그자 젯상에 올릴 것만 놋그릇은 허곡 갈라 먹는, 음식 갈라 먹는 건 이모노 사발.(놋그릇도 다 나왔지만 해도 그저 세상에 올릴 것만 놋그릇은 하고 나눠 먹는, 음식 나눠 먹는 건 알루미늄 사발.)
- 김보향 으, 맞수다.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식게할 때는 경하고 님이 칩이 식게가 잊어예? 뭐 지물이라도 담양 갈 거잖아? 뭐에 담양 갑니까?(으, 맞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제사할 때는 그리고 남의 집에 제사가 있어요? 뭐 제물이라도 담고 갈 거잖아? 뭐에 담고 갑니까?)
- 박봉화 제물 아경 가젠 허믄 고대구덕에.(제물 가지고 가려고 하면 '고대구덕'에.)
- 김보향 고대구덕에. 거기에 뭐 놓 갓수과?('고대구덕'에 거기에 뭐 놓고 갔습니까?)

- 박봉화** 것에 제사 먹으려 가젠 허민 영 ㅎ쓸 무시거 헌 땐 빙떡 지져근에 ㅁ물 정기 지져근에 고렝차롱.(그것에 제사 먹으려 가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뭐 한 때는 빙떡 지져서 메밀 빙떡 지져서 '고렝차롱').
- 김보향** 고령차롱예?(‘고령차롱’요?)
- 박봉화** 고렝차롱에 하나 지져근에 놓곡 제주 한 사이다 사 놓곡 경헨. 술 ㅎن 사이다.(‘고령 차롱’에 하나 지져서 놓고 제주 한 사이다 사 놓고 그랬어. 술 한 병.)
- 김보향** 게난 제숙 제물 헐 거는 정기 많이 지정 갓구나?(그러니까 제숙 제물 할 거는 빙떡 많이 지져서 갓구나?)
- 박봉화** 응, 정기. 경 영 부모 제사 그튼 디덜은 제숙도 게도 사 놔근에, 생선, 옥돔 경행 사 놓곡 행 간.(응, 빙떡. 그렇게 이렇게 부모 제사 같은 데들은 제숙도 그래도 사 놓아서, 생선 옥돔 그렇게 사 놓고 해서 갔어.)
- 김보향** 사 놓고. 술도 한 병 놓고.(사 놓고. 술도 한 병 놓고.)
- 박봉화** 술도 놓곡.(술도 놓고.)
- 김보향** 술도 한 병 놓고. 그건 식게 때 제물이고.(술도 한 병 놓고 그건 제사 때 제물이고.)
- 박봉화** 제물.(제물.)
- 김보향** 부주헐 때는 뭐 담양 갓수과?(부조할 때는 뭐 담고 갓습니까?)
- 박봉화** 옛날엔 부주헐 땐 쓸이주, 쓸.(옛날에는 부조할 때는 쌀이지, 쌀.)
- 김보향** 쌀이라이?(쌀이지요?)
- 박봉화** 으, 보리쌀이믄 보리쌀 ㅎ 말. 좁쌀이민 좁쌀 한 말 산디쌀이민 산디쌀. 건 건 큰 부지라. 산디쌀은이.(으, 보리쌀이면 보리쌀 한 말. 좁쌀이면 좁쌀 한 말 밭벼쌀이면 밭벼쌀. 그건 그건 큰 부조야. 밭벼쌀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사돈집이나 큰 부지로 허는 딘 산디쌀 허주만은 경 안현 딘 보리쌀 ㅎ 말, 좁쌀 ㅎ 말.(사돈집이나 큰 부조로 하는 데는 밭벼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보리쌀 한 말, 좁쌀 한 말.)
- 김보향** 으, 산디쌀도 ㅎ 말 헐 거?(으, 밭벼쌀도 한 말 할 거?)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아, 예. 예.(아, 예. 예.)
- 박봉화** ㅎ 말, ㅎ 말.(한 말, 한 말.)
- 김보향** 게난 그렇게 제물 가져갈 때는 곤대구덕에 담양 갈 거?(그러니까 그렇게 제물

- 가져갈 때는 ‘고대구덕’에 담고 갈 거?)
- 박봉화** 으. 고대구덕.(으. ‘고대구덕’.)
- 김보향** 밧디 갈 때 점심이나 정 가젠 허민 어떤 구덕 셋수과?(밭에 갈 때 점심이나 지고 가려고 하면 어떤 바구니 썼습니까?)
- 박봉화** 밧디 갈 때 그자 질구덕.(밭에 갈 때 그자 ‘질구덕’.)
- 김보향** 질구덕.(‘질구덕’.)
- 박봉화** 으. 질구덕에 정 가.(으. ‘질구덕’에 지고 가.)
- 김보향** 예. 질구덕 영 지는 건 질구덕이렌 혈 거고.(예. ‘질구덕’ 이렇게 지는 건 ‘질구덕’이라고 할 거고.)
- 박봉화** 으 으.(으 으.)
- 김보향** 여기 허리에 참수다. 밧디 뭐 승키라도 케젠 허민. 아니믄 고사리라도 꺾으러 가젠 허민 허리에 창.(여기 허리에 찹니다. 밭에 뭐 푸성귀라고 캐려고 하면. 아니면 고사리라도 꺾으러 가려고 하면 허리에 차서.)
- 박봉화** 건 송기, 저 거시기 출구덕.(건 푸성귀, 저 거시기 ‘출구덕’.)
- 김보향** 출구덕.(‘출구덕’.)
- 박봉화** 출구덕 허리에 창.(‘출구덕’ 허리에 차서.)
- 김보향** 예. 허리에 창 승키 허레도. 고사리 꺼끄레도 가고예? 경할 거, 예. 음식해 먹는 거 물어 봤고예.(예. 허리에 차서 푸성귀 하리도. 고사리 꺾으러도 가고요? 그럴 거, 예. 음식해 먹는 거 물어 봤고요.)
- 박봉화** 잘 알암신게.(잘 알고 있네.)
- 김보향** 잘 알암신게.(잘 알고 있네.)
- 박진향** 난 모르는데예, 여긴 막 잘 알아마씨.(난 모르는데요, 여기 아주 잘 알아요.)
- 박봉화** 다 알암신게. 곤는 거 보난.(다 알고 있네. 말하는 거 보니까.)
- 김보향** 아니, 아니, 아니. 게도 영 들엉 놔둬사 뛰. 영 삼촌 곤는 거 튼다고 다른 어른 곤는 것도 튼다고 허난. 게믄 하나만 더 물어보쿠다. 밥해 먹어난 거예?(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들고 놔둬야 돼. 이렇게 삼촌 말하는 거 다르고 다른 어른 말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밥해 먹었던 거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우리 보리 행 왕 그거 밥해 먹젠 허민 막 여러 불 글아야 됬을 거잖아?(우리 보리하고 와서 그거 밥해 먹으려고 하면 마구 여러 별 같아야 될 거잖아?)

- 박봉화** 아이고, 보리 행 왕 밥 해 먹게 허젠 허민 얼마나 힘든 거라.(아이고, 보리하고
와서 그거 밥해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거야.)
- 김보향** 계난 그걸 한번 골아 봅서.(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해 보세요.)
- 박봉화** 밧디 가근에 보리 갈양 허믄 비엉 그거 무껑 눌엉, 옛말 곧주.(밭에 가서 보리
갈아서 하면 베어서 그거 묶어서 가려, 옛말 말하지.)
(잠시 다른 이야기)
- 김보향** 보리, 보리밥 먹젠 허믄? 보리농사 지엉 어떻 해야 될 거?(보리, 보리밥 먹으려고
하면? 보리농사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 박봉화** 보리, 보리밥 곤젠 허단에 무시거 헤쳐라.(보리, 보리밥 말하려고 하다가 무엇
하게 되더라.)
- 김보향** 예, 예.(예, 예.)
- 박봉화** 보릴 갈안에 이젠 해연 허난에 놈이 밧 빌엉 이젠 간 거라이. 우리 밧디 안 갈안에.
놈이 밧디 갈안. 보리가 경 좋은 거라.(보리를 갈아서 이제는 해서 하니까 남의 밭
빌려서 이젠 간 거야. 우리 밭에 안 갈고. 남의 밭에 갈았어. 보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 박진향** 좋아?(잘아?)
- 김보향** 좋아.(좋아.)
- 박봉화** 좋아.(좋아.)
- 박진향** 좋아?(좋아?)
- 박봉화** 으, 막 좋은. 경헨. 아고, 애긴 봉뎅이 뱃속에 담아 놓고.(으, 아주 좋았어. 그랬어.
아이고, 아기는 불룩하게 뱃속에 담아 놓고.)
- 박진향** 아고.(아이고.)
- 박봉화** 아이고, 요걸 나가 밧디 거 비어만 놔둬근에 죽어 저 나지믄 좋주만에 어떻허믄
좋고? 이거 내비 텁 나노민 누겔 앤 맥일 건고? 해 논 게 그 보릴 비언 무껑
눌어지는 거라이.(아이고, 요걸 내가 밭에 그거 베어만 놔두고 죽어, 저 날을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떡하면 좋을까? 이거 내버려 두고 낳아 놓으면 누구 애를 먹일
건가? 한 것이 그 보리를 베고 묶고 가릴 수 있는 거야.)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에에.(에에.)
- 박진향** 누어전?(누어전?)

- 김보향** 눌 눌언.(가리 가렸어.)
- 박봉화** 눌언, 무껀. 무껀 누르난 이제 므슴을 논 거라이. 무껀 눌어지난이 므슴 난.(가렸어, 묶어서. 묶어서 가리니까 이제 마음을 놓은 거야. 묶고 가리니까 마음 놨어.)
- 박진향** 므슴 놔전?(마음 놓였어?)
- 박봉화** 경허난 이제 무꺼 노난 므슴 논디 경혜도 또 므음을 놓지 못했이.(그러니까 이제 묶어 놓으니까 마음 놓았는데 그래도 또 마음을 놓지 못해서.)
- 박진향** 애긴 곰방 나올 거고.(아기는 금방 나올 거고.)
- 박봉화** 요걸 헤당 장만해사 먹엉 살아날걸.(요걸 해다가 장만해야 먹고 살걸.)
- 박진향** 아, 예.(아, 예.)
- 박봉화** 이걸 헌저 헤당 장만해사 먹엉 살아나킬 헨. 근심이 됐네 이제 마차 빌언 이제 시꺼온 거 아니? 시꺼당 이제 눌어 노난 아긴 나아난에 이젠 오월 초아흐레날 낫어, 우리 큰딸. 경허난에 그 애기 낭 그만히 누워 잊지 못했네이 초아흐레날 낫 데다가 나흘 만이 일어난에 클, 보리 홀탕, 옛날게 보리 영 홀탕 장만햇주게. 클이엔 쉐막에 클, 그레착 돌아메연에 메완에 이젠 그 보리를 훌튼 거라이. 홀탄. 나흘, 애기 나도 나흘 만에 나았양 그 보릴 다 홀트는 거라이.(이걸 빨리 해다가 장만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했어. 근심이 되어서 이제 마차 빌려서 이제 실어온 거 아니? 실어다가 이제 가려 놓으니까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오월 초아흐레날 낫았어, 우리 큰딸. 그러니까 그 아기 낳고 가만히 누워 있지 못하고 초아흐레날 낫은 데다가 나흘 만에 일어나서 틀, 보리 훑어서, 옛날 보리 이렇게 훑어서 장만했지. 틀이라고 외양간에 틀, 맷돌 달아매서 메워서 이젠 그 보리를 훑은 거야. 훑았어. 나흘, 아기 낳아도 나흘 만에 나았어서 그 보리를 다 훑는 거야.)
-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 박봉화** 홀탄, 경행 그 보릴 또 홀타 노민 이제 메탁기 빌어근에 테작해 내여사 물류양 골아다 먹을 거이. 경행 이제 메탁기 빌어단에 이젠 테작해연 허난 이젠 그거 이젠 테작허민 또 물꽈사 방엣간에 강 골 거 아니?(훑어서, 그래서 그 보리를 또 훑어 놓으면 이제 타작기 빌려서 타작해 내야 말려서 갈아다가 먹을 거. 그래서 이제 타작기 빌려다가 이제는 타작해서 하니까 그거 이제 타작하면 또 말려야 방앗간에 가서 갈 거 아니?)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골아당 이젠 골 땐 물 올령 골아 부는 따문, 물 벼무령 골아 부는 따문, 껍데기

벗어지렌 물 버무령 곁아 부는 따문에.(갈아다가 이제 갈 때는 물 올려서 갈아 버리는 때문, 물 버무려서 갈아 버리는 때문, 껌데기 벗어지라고 물 버무려서 갈아 버리는 때문에.)

김보향 물려사?(말려야?)

박봉화 또 물뢰사. 명석에 널영 물뢰사 이젠. 물류아근에 이젠 헤영 허민 걸 그냥 또 먹어져? 정그레에 또 골아사.(또 말려야. 명석에 널어서 말려야 이제는. 말려서 이젠 해서 하면 그걸 그냥 또 먹을 수 있어? 맷돌에 또 갈아야.)

박진향 정그레?(맷돌?)

박봉화 정그레. 손으로 영 돌리는 족은 정그레. 그건 거피는 거라, 이건.(맷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족은 맷돌. 그건 거피하는 거야, 이건.)

김보향 거피는 거 나 배워신디.(거피하는 거 나 배웠는데.)

박봉화 그거 거피는 거, 그거이 벌르는 거.(그거 거피하는 거, 그거 깨는 거.)

박진향 벌르는 거? 껌데기 벗겨지렌예?(깨는 거? 껌데기 벗겨지라고요?)

박봉화 그 껌데기 벗어지렌 물 버무령 그난에.(그 껌데기 벗겨지라고 물 버무려서 가니까.)

김보향 벗어진 걸.(벗겨진 걸.)

박봉화 반 벗어진 거 물류민 정그레에 골아사 그 쌀이 벌러질 거 아니? 폐와지렌이?(반 벗겨진 거 말리면 맷돌에 갈아야 그 쌀이 깨질 거 아니? 폐지라고?)

박진향 으.(으.)

박봉화 정그레에 골아근에 이젠 그놈을 밥해 먹는 거라이.(맷돌에 갈아서 이제는 그놈을 밥해 먹는 거야.)

김보향 으.(으.)

박진향 아이고, 손 여러 번 감구나예?(아이고, 손 여러 번 가는군요?)

박봉화 아이고, 여러 번 가곡말곡.(아이고, 여러 번 가고말고.)

박진향 난 보리는 그냥 보리로 나오는 줄 알아신디.(난 보리는 그냥 보리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박봉화 아니. 조도 허민이.(아니. 조도 하면.)

박진향 조도 헤낫수과?(조도 했었습니까?)

박봉화 응, 게. 조, 보리. 여름엔 조 겨울엔.(응, 그래. 조, 보리. 여름에는 조 겨울에는.)

박진향 봄에는 보리, 여름엔 조, 겨울엔?(봄에는 보리, 여름에는 조, 겨울에는?)

- 김보향** 엊어.(없어.)
- 박진향** 엊어?(없어?)
- 박봉화** 엊어. 엊어.(없어. 없어.)
- 박진향** 미깡은 아니 허난예?(굴은 안 하니까요?)
- 박봉화** 그땐 미깡 안 혈 때난.(그때는 굴 안 할 때니까.)
- 박진향** 기지예? 것도 배완마씨.(그렇지요? 그것도 배웠어요.)
- 박봉화** 그추룩 허난이. 경혜근에 혜영 허문이 그 보릴 물 그레에 골아다근에 따시 물류아근에 또 골아 벤시민 체가 완전히 벗어져 베근에 문작힐 거주만은이 완전히 안 벗어져.(그처럼 하니까. 그래서 해서 하면 그 보리를 연자매에 갈아다가 다시 말려서 또 갈아 버리면 체가 완전히 벗어져 베려서 매끈할 거지만 완전히 안 벗어져.)
- 박진향** 으.(으.)
- 김보향** 혼 번만 골았수과, 물 그레에?(한 번만 갈았습니까, 연자매에?)
- 박봉화** 응. 혼 불 골아다근에 물류양 정그레에 거펴근에 행 허민이.(응. 한 별 갈아다가 말려서 맷돌에 거피해서 하면.)
- 박진향** 거피영?(거피해서?)
- 박봉화** 벌르민이 조록 돋아.(깨면 자루 돋아.)
- 김보향** 으.(으.)
- 박진향** 조록 돋아?(자루 돋아?)
- 박봉화** 조록 돋아. 그 보리쌀에 보리 껍데기.(자루 돋아. 그 보리쌀에 보리 껍데기.)
- 김보향** 다 안 벗겨져 부난.(다 안 벗겨져 버리니까.)
- 박봉화** 껍데기덜 영.(껍데기들 이렇게.)
- 박진향** 아, 그 말이구나.(아, 그 말이구나.)
- 박봉화** 조록 돋아.(자루 돋아.)
- 박진향** 조록 돋아.(자루 돋아.)
- 박봉화** 으, 경허문이 그거 혜영 밥해 놓으믄이.(으, 그러면 그거 해서 밥해 놓으면.)
- 박진향** 까실까실 안 혜마씨?(까끌까끌 안 해요?)
- 박봉화** 무사 안 혈 말이가게?(왜 안 할 말이야?)
- 박봉화** 경혜도 그거 먹엉 살아시네?(그래도 그거 먹고 살았어?)
- 박진향**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 김보향 그 말을 곤젠.(그 말을 하려고.)
- 박봉화 무사 아니 거칠음이니? 꺼칠꺼칠해주게.(왜 안 거칠겠니? 까끌까끌하지.)
- 박진향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 박봉화 겟해도 그걸 먹엉 살아시네.(그래도 그걸 먹고 살았어.)
- 박진향 우리 곤밥만 자꾸 생각텐에.(우리 흰밥만 자꾸 생각해서.)
- 박봉화 어이구.(어이구.)
- 박진향 곤밥만.(흰밥만.)
- 박봉화 게난 곤밥만 먹엉 크는디.(그러니까 흰밥만 먹고 크는데.)
- 박진향 곤밥만 먹어나부난예.(흰밥만 먹었었으니까요.)
- 박봉화 아이구.(아이고.)
- 박진향 보리밥은 잘 안 먹어나곡. 요즘엔 건강식으로 보리 허꼼 서꺼 가지고.(보리밥은 잘 안 먹었었고.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보리 조금 섞어 가지고.)
- 박봉화 으게. 보리쌀 안 노민 맛엇엉이 나도 납작 보리쌀 사다근에이 혼 주먹씩 줍아놓 서꺼 먹나게. 보리쌀 줍아냠서. 맛잇어.(으. 보리쌀 안 넣으면 맛없어서 나도 납작보리쌀 사다가 한 주먹씩 집어넣고 섞어서 먹어. 보리쌀 집어넣고. 맛있어.)
- 김보향 으, 잘햄수다. 잘햄수다.(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 박봉화 게난이. 우리 아시덜 두 개이. 일분서 일본 강 난 거주. 우리 어머니네. 나 으섯 설에 일본 간에 열 설에 오란 허난에 오는 뒷해에 해방둬라. 옛날 대동아 전쟁 때에.(그러니까. 우리 아우들 두 개. 일본에서 일본 가서 낳은 거지. 우리 어머니네. 내가 여섯 살에 일본 가서 열 살에 와서 하니까 오는 이듬해에 해방되더라. 옛날 대동아 전쟁 때에.)
- 박진향 그 시기랑 비슷하다예? 일본에서도 지낸마씨?(그 시기랑 비슷하네요? 일본에서도 지냈어요?)
- 박봉화 응. 일본 가 오란. 경해 노난에 우리 아시덜 성제민 느 말짝 아니라도 곤밥 먹엉 살아 노난이.(응. 일본 갔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 아우들 형제면 너 말 아니라도 흰밥 먹고 사니까.)
- 박진향 일본에서 곤밥 먹엇구나예?(일본에서 흰밥 먹었군요?)
- 박봉화 으, 일본서 곤밥 먹엉 살아 노난에 이디 오난에게.(으, 일본에서 흰밥 먹고 살아서 여기 오니까.)
- 박진향 보리밥 먹어살 거 아니? (보리밥 먹어야 할 거 아니?)

- 박봉화** 보리밥 거치령헌 거 먹고, 감저뺏데기 썩은 거 다 헤영 저베기 헤영 먹고 경허난.(보리밥 같은 거 먹고, 절간고구마 썩은 거 다 해서 수제비 해서 먹고 그러니까.)
- 박진향** 안 먹으肯?(안 먹겠다고?)
- 박봉화** 고레 다베나이. 신데시마우.(이거 안 먹어. 죽어 버릴 거야.)
- 박봉화** 죽어 불민 죽어 불주, 고레 타베나이.(죽어 버리면 죽어 버리지, 이거 먹지 않아.)
- 김보향** (웃음)
- 박봉화** 아시덜 두 개 경허명 우리 어명 경 저들루와라게.(아우들 두 개 그려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곤란하게 하더라.)
- 박진향** 경해도 일본에서는 곤밥 먹어겼수다예?(그래도 일본에서는 흰밥 먹을 수 있어네요?)
- 박봉화** 일본선 곤밥 먹주게.(일본에서는 흰밥 먹지.)
- 김보향** 아. 여기 오난 못 먹肯?(아. 여기 오니까 못 먹겠어?)
- 박봉화** 으.(으.)
- 박진향** 못 먹肯?(못 먹겠다고?)
- 박봉화** 거기선 사 먹는 거난 곤밥 먹었주.(거기에서는 사 먹는 거니까 흰밥 먹었지.)
- 김보향** 어멍 막 주들았구나. 아이들 밥 안 먹肯 해 부난.(어머니 마구 근심하게 했구나. 아이들 밥 안 먹겠다고 해 버리니까.)
- 박봉화** 게난이 성제가 아이고, 오까짱 고레 다베나이, 고레 다베나이. 신데시마이 허주 안 먹肯만.(그러니까 형제가 아이고, 어머니 이거 안 먹겠다고, 이거 안 먹겠다고. 죽어 버리겠어 하지 안 먹겠다고만.)
- 김보향** 일본어 완전 잘하멘.(일본어 완전 잘해.)
- 박봉화** 죽어 불주 안 먹肯만.(죽어 버리지 안 먹겠다고만.)
- 김보향** 예. 일본어 완전 잘햄수다예?(예. 일본어 완전 잘하는군요?)
- 박봉화** 으.(으.)
- 박진향** 일본어 이젠 안 잊어불언마씨?(일본어 이젠 안 잊어버렸어요?)
- 박봉화** 안 잊어분다.(안 잊어버린다.)
- 박진향** 안 잊어불엉 해져마씨?(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 박봉화** 으.(으.)
- 박진향** 어.(어.)

- 박봉화** 게난 그 아시 ھ난 이제 시에 살곡 막낸 저 거시기 구녕포, 감포엔 헌 디 살아.
(그러니까 그 아우 하나는 이제 시에 살고 막내는 저 거시기 구령포, 감포라고 하는
데 살아.)
- 박진향** 보리밥 안 먹으肯 한 그 아시들예?(보리밥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아우들요?)
- 박봉화** 응.(응.)
- 김보향** 거기에 살암구나. (거기에 살고 있구나.)

바닷일 도구

- 김보향** 이젤랑 이제랑예. ھ꼼만 더 혈 건디. 물질해난 거 물어보쿠다예.(이제는 이제는요.
조금만 더 할 건데 물질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 박진향** 상군?(‘상군’?)
- 김보향** 게난 물질해난 거 하나만 물어보쿠다. 물질해난 거.(그리니까 물질했던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질했던 거.)
- 박봉화** 야, 물질도 경허난이.(야, 물질도 그러니까.)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일본 갈 때 일본 우리 어머니 돈 벌레 강, 저 우리 셋아시도 죽어 비엇저. 우리
어머니 셋아시 돌아 아지고 죽은아덜 돌아 아지고 혜연에 일본 돈 벌레 가노렌
가 부난에 우린 이디 우리 큰오라방허곡 할망허곡 아부지허곡 헨에 살안. 헨
허단에 이젠 우리두 다 일본 간 거주. 할망만 내비될에 이젠.(일본 갈 때 일본 우리
어머니 돈 벌러 가서, 저 우리 둘째 아우도 죽어 버렸어. 우리 어머니 둘째 아우
데려 가지고, 작은아들 데려 가지고 해서 일본 돈 벌러 간다고 가 버리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 큰오라버니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도 다 일본 간 거지. 할머니만 내버려 두고 이제는.)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일본 간에.(일본 가서.)
- 김보향** 삼촌 몇 살에? 여섯 살에?(삼촌 몇 살에? 여섯 살에?)
- 박봉화** 여섯 살에 일본 간. 경행에 오는 해엔 열 설에, 열 설에 온디, 대동아전장 해방은
오는 뒷해에 해방뒈라게. 경행 살아아전, 오란 허난에이 열 설에 오난이 왕 보난

물질덜이 험서덜. 우리 동갑짜리덜. 우리보다 혼나 우.(여섯 살에 일본 갔어. 그래서 오는 해에는 열 살에, 열 살에 왔는데, 대동아전쟁 해방은 오는 이듬해에 해방되더라. 그래서 살 수 있었어, 와서 하니까 열 살에 오니까 와서 보니까 물질들하고 있더라. 우리 동갑짜리들. 우리보다 하나 위.)

김보향 열 살에?(열 살에?)

박봉화 열 살에.(열 살에.)

김보향 으.(으.)

박봉화 열 살에 동갑짜리 혼나 두나 우이덜, 성덜 문 물질헴서. 경허난 이젠 안 뛰肯 나도 이젠 물질해사 헤肯.(열 살에 동갑짜리 하나 둘 위들, 형들 모두 물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젠 안 되겠다고 나도 이제는 물질해야 하겠다고.)

김보향 으.(으.)

박봉화 물질해사 헤肯 우리 오춘 땔 물옷 속곳 간 빌어단 입곡. 테왁도 빌어 오고 물안경도 빌어 오곡 헨에 이제.(물질해야 하겠다고 우리 오춘 땔 물옷 '속곳' 가서 빌려다가 입고. '테왁'도 빌려 오고 물안경도 빌려 오고 해서 이제.)

김보향 오춘한테 강? 누구?(오춘한테 가서? 누구?)

박봉화 오춘 땔.(오춘 땔.)

김보향 으.(으.)

박봉화 족은땀 헤난 거 간에 빌어단에 헤연이. 물에 가난에 분시 모르난에게. 에, 처음이난에 영 믳음대로 심지도 못하곡 무시걸 혈로고나 헌 생각을 안헨 그자 이거 물질이민 물질인가 헹 강 물에 들어간 거주이, 물이 들어강 허난. 나보다 선배덜은 혼 설, 두 설 우이 선배덜은 메역들을 간 막 ㅈ물안에 막 휘어 오는 거라. 휘어 오난이 아이 나도 이젠 재게 휘영 저 사람들 휘영 나오는 걸 나도 나오젠 기냥 게고대나 처음으로 강 헌 걸 테왁에 돌아경 도당 도당 도당 도당 발 노렵시믄 휘영 고디 오랑 나질 건디 어린 생각으로 분시 몰랑 그 사람덜 익숙은 사람덜 휘어 나는 걸 이녁도 그것만이 생각헨이.(작은땀 했던 거 가서 빌려다가 했어. 물에 가니까 분수 모르니까. 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잡지도 못하고 무엇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이거 물질이면 물질인가 해서 가서 물에 들어간 거지, 물에 들어가서 하니까. 나보다 선배들은 한 살, 두 설 위 선배들은 미역들을 가서 마구 캐서 마구 헤엄쳐 오는 거야. 헤엄쳐 오니까 아이 나도 이제는 빨리 헤엄쳐 저 사람들 헤엄쳐서 나오는 걸 나도 나오려고 그냥 그러나저러나 처음으로 가서 하는 걸 '테왁'에 달려 '도당 도당 도당

도당' 발 움직이고 있으면 헤엄쳐서 가에 와서 나올 수 있을 건데 어린 생각으로
분수 몰라서 그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헤엄쳐서 나는 걸 자기도 그것만큼
생각했어.)

김보향 가지카 부덴?(갈 수 있을까 봐?)

박봉화 으, 가지카 부덴 테왁 심영 걷젠 허문 물에서 걸어지느냐? 오물락오물락 복물 먹엉
죽어갈 거 아냐?(으, 갈 수 있을까 봐 '테왁' 잡고 걸으려고 하면 물에서 걸을 수
있겠니? '오물락오물락' 복물 먹고 죽어갈 거 아냐?)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박봉화 죽어 가난 우리 족은고모 뜰 사춘 아신 날 오란 심언에.(죽어 가니까 우리 작은고모
딸 사춘 아우는 날 와서 잡고.)

박진향 아이고.(아이고.)

박봉화 물에선 또 그건 그건만이 날 또 뚜러메젠 허문 뚜러메지느냐, 물이서? 둘리가 숨
촘아 물 아래 강 앗앗다근에 숨 메기민 그치 올라오곡 허멍 수춘 성제가 경헨에
헤도계 살아난, 죽진 안행이.(물에서는 또 그건 그것만큼 나를 또 둘러메려고 하면
둘리멜 수 있겠니, 물에서? 둘이 숨 참고 물 아래 가서 앉았다고 숨 없으면 같이
올라오고 하면서 사촌 형제가 그러면서 해도 살았어, 죽지는 않고.)

김보향 아.(아.)

박봉화 살아난 경해도 기어이 이놈의 물질을 허젠이. 말컬 허질 안헨 경해나도 겁낭 우리
어머니 바당에 굿 간 다 헤 오고 헷주게.(살아나서 그래도 기어이 이놈의 물질을
하려고. 말겠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도 겁나서 우리 어머니 바다에 굿 가서 다
해 오고 했지.)

김보향 아.(아.)

박진향 겁먹어실 건디.(겁먹었을 건데.)

박봉화 나 복물 먹으멍 죽어가난에게. 경허멍 헤도 기어이 그 물질을 베완이.(나 바닷물
먹으면서 죽어가니까. 그러면서 해도 기어이 그 물질을 배웠어.)

김보향 베완.(배웠어.)

박봉화 열두 설에 그땐 막 메역이 대중이라.(열두 살에 그때는 아주 미역이 한창이야.)

김보향 으.(으.)

박봉화 메역만 조물민 밧 사곡 수못. 막 무시거 허곡 허멍 헐 때라게. 경헨 허난이 열두
설에 메역 두 단, 두 단 조합에 간 무껑 간 떠서.(미역만 캐면 밧 사고 사못. 아주

무엇 하고 하면서 할 때야. 그래서 하니까 열두 살에 미역 두 단, 두 단 조합에 가서 뮤어서 가서 떠서.)

박진향 우와, 열두 살에?(우와, 열두 살에?)

박봉화 열두 설에.(열두 살에.)

김보향 두 단이면 하영 한 거꽈, 그때?(두 단이면 많이 한 겁니까, 그때?)

박봉화 응게. 두 단.(응. 두 단.)

김보향 어른만큼 다 헌 거라?(어른만큼 다 하는 거야?)

박봉화 몰라. 메역 그거 열 근씩 넣 무끈 거 두 단 해져실 거여.(몰라. 미역 그거 열 근씩 넣어서 뮤은 거 두 단 했을 거야.)

김보향 으.(으.)

박봉화 열두 설에, 두 설이난게, 두 단이난게 어떻 말이라? 것도 하영 헌 거주게. 그 나이에 물질을 베울 거냐게?(열두 살에, 두 살이니까, 두 단이니까 어떠할 말이야? 그것도 많이 하는 거지. 그 나이에 물질을 배울 거니?)

박진향 진짜 살림 밀친이었다예?(진짜 살림 밀친이었네요?)

박봉화 겐디 조합에 간에 떠낫저게.(그런데 조합에 가서 떴었어.)

김보향 으.(으.)

박봉화 계난 그게이. 경 물질을 해영 얘기상군, 얘기상군 허멍이.(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물질을 해서 ‘얘기상군’, ‘얘기상군’ 하면서.)

박진향 어.(어.)

박봉화 어른덜 가는 디만 쫓아 아정 가지곡게.(어른들 가는 데만 쫓아 가지고 가고.)

김보향 아.(아.)

박봉화 겁도 엇이.(겁도 없이.)

박진향 겁도 엇이.(겁도 없이.)

박봉화 지픈 디 그자 어른덜 상군덜 가는 디 쫓아 아정.(깊은 데 그저 어른들 상군들 가는 데 쫓아 가지고.)

박진향 따라 간?(따라 갔어?)

박봉화 응, 따라 강 경허난이. 물질을 팔자에 태완궈라이.(응, 따라 가서 그러니까. 물질을 팔자에 태웠는지.)

김보향 으.(으.)

박봉화 머정 잇언이.(재수 있었어.)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전복도 경 잘 잡아지곡.(전복도 그렇게 잘 잡을 수 있고.)
- 김보향** 아이고.(아이고.)
- 박봉화** 고동도 췌고고. 옛날에 우리 시어멍 막 물질 잘헌텐 요 ○○○이 어멍 물질 잘혜영
잘혜영해도 우리 시어멍은 영 보문이 전복 잡는 걸 못 봐. 고동은 잡아도. 난이
전복을 경 잡안이.(소라도 췌고고.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 아주 물질 잘한다고 요
○○○이 어머니 물질 잘해, 잘해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보면 전복 잡는 걸
못 봐. 소라는 잡아도. 난 전복을 그렇게 잡았어.)
- 박진향** 어느 만한 거 잡아낫수과? 손바닥 만한 거도 잡아지곡?(어느 만한 거 잡았었습니까,
손바닥 만한 것도 잡을 수 있고?)
- 박봉화** 아이고, 그런 거.(아이고, 그런 거.)
- 박진향** 옛날엔 잘도 커낫수다예?(옛날에는 아주 컸었어요?)
- 박봉화** 요 요 횟집이 옛날에 간즈메 공장이라낫주.(요 요 횟집에 옛날에 통조림 공장이었지.)
- 박진향** 간즈메 공장?(통조림 공장?)
- 김보향** 통조림 공장.(통조림 공장.)
- 박봉화** 간즈메 공장이낫주. 그디 오란 똑 경혜난이 우리 큰년 열 설에, 아홉 설에 저거
난에 저 거시기 훈디 물애기 내비 된 간에 물에 들언이. 전복 잡안에 *** 지어
아전에 와시난에 아이고, 야야 이거 바당에 꺼 다 거두안 아전 오란다? 놈들 헌 거
거두안 완다 허명. 수 관 석 냥쯤. 이만은 헌 거 헌 코 테와진 거 아경 와지난에 죽
찧 먹고.(통조림 공장이었지. 거기 와서 꼭 그랬었어. 우리 큰딸 열 살에, 아홉 살에
저거 낳아서 저 거시기 같이 물아기 내버려 두고 가서 물에 들었어. 전복 잡아서
*** 지어서 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야야 이거 바다의 거 다 거둬서 가지고 왔니?
남들 한 거 거둬서 왔니 하면서. 사 관 석 냥쯤. 이만큼 한 거 하나 코 테워진 거
가지고 오니까 죽 쬐서 먹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하나 떼엉 놈 줘 불고.(하나 떼서 남 줘 버리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지 봐난에 떼어 도렌 허난에 짐 들러 논 거 못 가도 세 번, 네 번은 가사 떼어 올
거난. 에에 안 뛰肯 나가 떼당 헌 죤 가렌 해 불주 헨에 간 떼단에 요거 아경 걸라.
물 이제 서레레 물 나켜, 나도 가켜 헨 줘 불고. 수 관 석 냥쯤 잡안 완.(자기 보니까

떼 달라고 하니까 짐 들어 놓은 거 못 가도 세 번, 네 번은 가야 떼어 올 거니까.
에에 안 되겠다고 내가 떼다가 하나 주고 가라고 해 버리지 해서 가서 떼다가 요거
가지고 가라. 물 이제 서쪽으로 물 나겠어, 나도 가겠어 해서 줘 버리고. 사관석
냥쯤 잡고 왔어.)

박진향 석 냥?(석냥?)

박봉화 관으로 옛날에, 옛날에.(관으로 옛날에, 옛날에.)

김보향 으, 으.(으, 으.)

박봉화 관으로 혈 때. 겐 소문 나낫저.(관으로 할 때. 그래서 소문 났었어.)

김보향 멧 냥이믄 혼 관이과?(멧 냥이면 한 관입니까?)

박봉화 응?(응?)

김보향 멧 냥이믄 혼 관이과, 열 냥?(멧 냥이면 한 관입니까, 열 냥?)

박봉화 열 냥쯤이믄 혼 관.(열 냥이면 한 관.)

김보향 혼 관, 혼 관예? 예, 예. 수 관 석 냥을 행 온 거라예? 혼 번에.(한 관, 한 관요? 예, 예. 사관석 냥을 해서 온 거지요? 한 번에.)

박봉화 으. 혼나 아져 왕 죽 쇄 먹고.(으. 하나 가지고 와서 죽 췄서 먹고.)

김보향 으.(으.)

박봉화 수 관 석 냥쯤은 잡은 거라.(사관석 냥쯤은 잡은 거야.)

박진향 애기상군.(‘애기상군’.)

박봉화 애기상군이엔 혜낫주게.(‘애기상군’이라고 했었지.)

김보향 게난 수 관 석 냥은 그거 얼마 받아진 거 알아지쿠과? 몰라예? 얼마나 받아진 거, 돈?(그러니까 사관석 냥은 그거 얼마 받았는지 그거 알겠습니까? 몰라요? 얼마나 받은 거, 돈?)

박봉화 얼마 받아진 건 몰라.(얼마 받은 건 몰라.)

김보향 몰라예? 삼촌 우리 물질 가젠 허민 이제 바당에 갈 때 뭐를 가정 갈 거꽈, 여기 질구덕에?(몰라요? 삼촌 우리 물질 가려고 하면 이제 바다에 갈 때 뭐를 가지고 갈 겁니까, 여기 ‘질구덕’에?)

박봉화 질구덕에 저이 옛날엔이 바당에 해녀 탈의장이엔 혜영 집 잇주게, 이시믄이.
(‘질구덕’에 저 옛날에는 바다에 해녀 탈의장이라고 해서 집 있지, 있으면.)

김보향 지금은 잇주만 옛날에 엊어낫잖아?(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잖아?)

박봉화 으. 옛날엔 엊엇주.(으. 옛날에는 없었지.)

- 김보향 응. 그때 옛날 얘기를 해 주민.(응. 그때 옛날 얘기를 해 주면.)
- 박봉화 구덕에, 질구덕에 비창 놓곡.(바구니에, ‘질구덕’에 ‘비창’ 넣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물속곳 놓고 눈 놓곡, 수경. 수경 놓곡 경해근에.(‘물속곳’ 넣고 물안경 넣고, 수경. 수경 넣고 그래서.)
- 김보향 테왁도 놓고.(‘테왁’도 넣고.)
- 박봉화 테왁도 놓고.(‘테왁’도 넣고.)
- 김보향 망사리도?(망사리도?)
- 박봉화 망사리 테왁에 돌아진 거 놓 지곡. 경해근에.(망사리 ‘테왁’에 달린 거 넣어서 지고. 그래서.)
- 김보향 족은 망사리는 안 담양 갓수과, 조락?(작은 망사리는 안 담고 갔습니까, ‘조락’?)
- 박봉화 조락, 그거 무시거 준 거 봐지믄 놓젠 것도 돌아매주.(‘조락’, 그거 무엇 잔 거 보이면 놓으려고 그것도 달아매지.)
- 김보향 돌아매고.(달아매고.)
- 박봉화 망사리에 돌아매여.(망사리에 달아매.)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돌아멩 경헨.(달아매고 그랬어.)
- 김보향 호, 저기 호미는 안 가정 간? 골갱인 안 가정 간?(호, 저기 낫은 안 가지고 갔어? 호미는 안 가지고 갔어?)
- 박봉화 무사 아니 가정 가느니? 경허난 메역 철엔 호미 아정 가주만은 메역 철 아닌 땐 호미 안 가정 가곡.(왜 안 가지고 가니? 그러니까 미역 철에는 낫 가지고 가지고 미역 철 아닐 때는 낫은 안 가지고 가고.)
- 김보향 응, 비창하고?(응, ‘비창’하고?)
- 박봉화 호멩이.(호미.)
- 김보향 으, 호멩이. 옛날에도 삼촌 호멩이伦 골앗수과?(으, 호미. 옛날에도 삼촌 ‘호멩이’라고 말했습니까?)
- 박봉화 골게기.(‘골게기’.)
- 김보향 골갱이예. 호멩이는 후제 나온 말이라예?(‘골갱이’요. ‘호멩이’는 후에 나온 말이지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모양도, 모양도 밧디 검질메는 거랑 똑같았지예?(모양도, 모양도 밭에 김매는 거랑

- 똑같았지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으, 으, 으, 으.(으, 으, 으, 으.)
- 박봉화** 골갱이.(호미.)
- 김보향** 골갱이 가져가고. 왜 옛날에는 추우난 뛰도 담아가지 안해연?(호미도 가져가고. 왜 옛날에는 추우니까 뛰도 담아가지 않았어?)
- 박봉화** 검질도 담양 가곡.(검불도 담고 가고.)
- 김보향** 검질도 담양 가곡.(검불도 담고 가고.)
- 박봉화** 구덕에 검질도 담양 간. 집이 밥해 먹는 검질 담아근에.(바구니에 검불도 담고 갔어. 집의 밥해 먹는 검불 담고.)
- 박진향** 추우난? 무사?(추우니까? 왜?)
- 박봉화** 촐 비어다근에 눌엉 밥도 헤 먹곡 쉬, 쉬 물도 주곡 허주게. 경현 거 혼 단 눌에 강 빠다근에 질구덕에 혼 단 담양 겟 지엉 강 불 추와.(꼴 베어다가 가려서 밥도 해 먹고 소, 소 말도 주고 하지. 그런 거 한 단 가리에 가서 빼다가 ‘질구덕’에 한 단 담고 그래서 지고 가서 불 쪘어.)
- 박진향** 추우난?(추우니까?)
- 김보향** 물에 들어갓당 나오민.(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 박봉화** 응. 겨울엔 눈 온 때도 물 들레 텅기주. 옛날엔. 눈 팽팡 오는디도 물에 들레 가. 바당만 안 세민.(응. 겨울에는 눈 올 때도 물에 들러 다니지. 옛날엔. 눈 팽팽 오는데도 물에 들러 가. 바다만 안 세면.)
- 박진향** 불은 어떻 피와마씨?(불은 어떻게 피워요?)
- 박봉화** 어?(어?)
- 박진향** 그 불은 어떻? 성냥 들렁 가?(그 불은 어떻게? 성냥 들고 가?)
- 박봉화** 성냥 아정 강. 성냥 아정 강 싸. 저 키어근에, 바당에 강 영 음달에 진 엉덕에 헤여 넝 불 솜양.(성냥 가지고 가서. 성냥 가지고 가서 켜. 저 켜서, 바다에 가서 이렇게 응달에 진 ‘엉덕’에 해 놓고 불 때.)
- 김보향** 으.(으.)
- 박진향** 추우난예?(추우니까요?)
- 박봉화** 응. 겨난이 고무옷 나난에 불 안 초암세, 불.(응. 그러니까 ‘고무옷’ 나오니까 불 안 쪼고 있어, 불.)

- 박진향** 경혜낫구나?
- 박봉화** 바당에 가는 디 저 담부록에 이제 저 민속촌 됨 디 소나무밭이라낫주.(바다에 가는 데 저 담벼락에 이제 저 민속촌 된 데 소나무밭이었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늘소나무 딱딱 꺼꺼 아정 간.(날소나무 딱딱 꺼어서 가지고 갔어.)
- 박진향** 늘소나무, 살아 있는 거?(날소나무, 살아 있는 거?)
- 박봉화** 으. 그거 딱딱 가시 꺼꺼 아정 강 불 때어도 와랑와랑 불 잘 부뜬다.(으. 그거 딱딱 가시 꺼어 가지고 가서 불 때도 활활 불 잘 붙는다.)
- 김보향** 으.(으.)
- 박진향** 그거 부터마씨? 초록색이?(그거 붙어요? 초록색이?)
- 박봉화** 으, 늘것도이 와랑와랑 불 잘 부터. 경허멍 불 숨앗어.(으, 날것도 활활 불 잘 붙어. 그러면서 불 뺏어.)
- 김보향** 계난 삼촌 고무옷 나기 전에예, 물질헐 때 뭐 입었수과?(그러니까 삼촌 ‘고무옷’ 나기 전에요, 물질할 때 뭐 입었습니까?)
- 박봉화** 속곳 입었주게.(‘속곳’ 입었지.)
- 김보향** 속곳 입고예, 우이는?(‘속곳’ 입고요, 위에는?)
- 박봉화** 물적삼.(‘물적삼’.)
- 김보향** 물적삼 입고.(‘물적삼’ 입고.)
- 박봉화** 거 안경.(그거 안경.)
- 김보향** 안경 아니고 옛날엔.(안경 아니고 옛날에는.)
- 박봉화** 족은 거.(작은 거.)
- 김보향** 족은 거. 그거 안경이렌 골았수과? 뭐렌 골았수과?(작은 거. 그거 안경이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 박봉화** 거.(그거.)
- 김보향** 눈?(‘눈’?)
- 박봉화** 눈, 눈.(‘눈’, 물안경.)
- 김보향** 족은눈?(‘족은눈’?)
- 박봉화** 족은눈.(‘족은눈’)
- 김보향** 으, 족은눈. 족은눈 허고. 머리엔 뭐 썬?(으, ‘족은눈’. ‘족은눈’ 하고. 머리에는 뭐 썼어?)

- 박봉화** 수건.(수건.)
- 김보향** 수건. 그때는 물수건?(수건. 그때는 ‘물수건’?)
- 박봉화** 으, 물수건.(으, ‘물수건’.)
- 김보향** 광목으로 뛴 거?(광목으로 된 거?)
- 박봉화** 광목으로 헤근에 헤영케 물수건 헤근에.(광목으로 해서 하얗게 ‘물수건’ 해서.)
- 김보향** 으. 물적삼을 속곳 우이 입엇수과? 아니믄 속옷 입어 놓 물적삼 입엇수과?(으. ‘물적삼’을 ‘속곳’ 위에 입었습니까? 아니면 ‘속옷’ 입어 놓고 ‘물적삼’ 입었습니까?)
- 박봉화** 건이 이녁 뭈대로 입나.(그건 자기 마음대로 입어.)
- 김보향** 아.(아.)
- 박봉화** 속곳 우에도 입곡 소곱에도 입곡.(속곳 위에도 입고 속에도 입고.)
- 김보향** 예. 속옷 입엇수다예. 속옷 보면 영행 여기 친 돌아져 잇잖아요?(예, ‘속옷’ 입었습니다. ‘속옷’ 보면 이렇게 여기 끈 달려 잇잖아요?)
- 박봉화** 어.(어.)
- 김보향** 여기 무슨?(여기 무슨?)
- 박봉화** 어깨.(어깨.)
- 김보향** 이거 무슨 친이렌 부르는 거 엊어? 그냥 어깨렌 불러?(이거 무슨 끈이라고 부르는 거 없어? 그냥 어깨라고 불러?)
- 박봉화** 저.(저.)
- 김보향** 멧, 메친?(멧, ‘메친’?)
- 박봉화** 메친.(‘메친’.)
- 김보향** 예. 메친.(예, ‘메친’.)
- 박봉화** 잘도 알암저.(잘도 알고 있네.)
- 김보향** 예.(예.)
- 박진향** 난 몰라예.(날 몰라요.)
- 김보향** 메친이 오른쪽에 잇수과? 왼쪽에 잇수과?(‘메친’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 박봉화** 왼쪽에. 여기 메친.(왼쪽에. 여기 ‘메친’.)
- 김보향** 으, 계민 여기가 터졌수다예?(으, 그럼 여기가 터졌습니다.)
- 박봉화** 으, 터지난 거긴 둘메기 돌아.(으, 트이니까 거긴 매듭단추 달아.)
- 김보향** ㄷ ㅌ 메기 돌아예. 둘메기 멧 개 둘 거꽈?(매듭단추 달아요. 매듭단추 몇 해 달

겁니까?)

박봉화 요디 세 개, 요디 세 개.(요기 세 개, 요기 세 개.)

김보향 예,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둘메기 둘 거.(예,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매듭단추’ 달 거.)

박봉화 곰.(고름.)

김보향 속곳에 곰예? 곰 질게 허여? 한쪽은?(‘속곳’에 고름요? 고름 길게 해? 한쪽은?)

박봉화 양쪽에 돌아근에 그냥 부끈 메여.(양쪽에 달아서 그냥 바싹 매.)

김보향 뭐 멜 거?(뭐 맬 거?)

박봉화 비창 창.(‘비창’ 차고.)

김보향 그 곰에 비창 찔렁예?(그 고름에 ‘비창’ 찌르고요?)

박봉화 허리에 비창.(허리에 ‘비창’.)

김보향 허리에 비창 찔렁. 이제 물적삼 입었수다예. 물적삼에도 둘메기가 잇수과?(허리에 ‘비창’ 찌르고. 이제 ‘물적삼’ 입었습니다. ‘물적삼’에도 매듭단추 있습니까?)

박봉화 응, 잇수게. 앞이 단추, 둘메기.(응, 있습니다. 앞에 단추, 매듭단추.)

김보향 둘메기.(매듭단추.)

박봉화 세 개 둘주게.(세 개 달지.)

김보향 세 개 돌아?(세 개 달아?)

박봉화 으.(으.)

김보향 아, 기구나. 경행 그 옷 입당 삼촌 고무옷 입은 게 삼촌 몇 살 때쯤 뛰난 고무옷 입어진 거 많아?(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옷 입다가 삼촌 ‘고무옷’ 입은 게 삼촌 몇 살 때쯤 되니까 ‘고무옷’ 입은 거 같아?)

박봉화 게메. 저 고무옷 입건 디가 맷 설 때쯤에 입어져신고?(글쎄. 저 ‘고무옷’ 입은 지가 몇 살 때쯤에 입었는지?)

김보향 고무옷 입엉도 물질 하영 헷수과?(‘고무옷’ 입고도 물질 많이 했습니까?)

박봉화 하영 헷주.(많이 했지.)

김보향 아, 예.(아, 예.)

박봉화 경허난 고무옷, 고무옷이 혼 서른, 서른 넘언 입어져실 거라.(그러니까 ‘고무옷’, ‘고무옷’이 한 서른, 서른 넘어서 입었을 거야.)

김보향 서른 넘엉 입어져실 거라예? 아이들 맷 개 낳고예?(서른 넘어서 입었을 거지요? 아이들 몇 개 낳고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자 옛날 거 생각해 봄서예, 지금 말고. 고무옷 입기 전에 속곳 입엉 허는 시절에 테왁. 지금은 스트로폼이지만 옛날에 뭐 썻수과?(자 옛날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고무옷’ 입기 전에 ‘속곳’ 입고 하는 시절에 ‘테왁’. 지금은 스티로폼이지만 옛날에 뭐 썼습니까?)
- 박봉화** 쿄박세기.(‘쿄박세기’.)
- 김보향** 쿄박세기.(‘쿄박세기’.)
- 박봉화** 쿄, 집이 열양 헌 그거.(박, 집에 열어서 한 그거.)
- 김보향** 박, 박.(박, 박.)
- 박봉화** 웃드르 가근에 이녁 집이 그런 거 크게 열지 안허민 웃드르 사레 가느네. 쿄박 사레.(‘웃드르’ 가서 자기 집에 그런 거 크게 열지 않으면 ‘웃드르’ 사러 가지. ‘쿄박’ 사레.)
- 김보향** 으.(으.)
- 박진향** 쿄박 사레.(‘쿄박’ 사레.)
- 김보향** 여기는 박이 잘 안 큅니까?(여기는 박이 잘 안 큅니까?)
- 박봉화** 큰 게 열게 뒤쁜 열곡이. 안 열게 뒤쁜 안 열아. 게난이 주로 테왁 사레 간다.(큰 게 열게 되면 열고. 안 열게 되면 안 열어. 그러니까 주로 ‘테왁’ 사레 간다.)
- 김보향** 테왁 사레 어디 가낫수과, 삼춘은?(‘테왁’ 사레 어디 갔었습니까, 삼춘은?)
- 박봉화** 이 웃드르.(이 ‘웃드르’.)
- 김보향** 웃드르 어디?(‘웃드르’ 어디?)
- 박봉화** 어디 저.(어디 저.)
- 김보향** 가시리?(가시리?)
- 박봉화** 아니, 저 거시기 토산.(아니, 저 거시기 토산.)
- 김보향** 토산, 으.(토산, 으.)
- 박봉화** 강에왓드레, 경헨. 경행 뎅겼주.(‘강에왓드레’, 그렇게. 그렇게 다녔지.)
- 김보향** 쿄 산예? 쿄테왁 만들어진 거 산 완, 아니믄?(박 사서요? ‘쿄테왁’ 만들어진 거 사서 왔어, 아니면?)
- 박봉화** 아니.(아니.)
- 김보향** 쿄만.(박만)
- 박봉화** 쿄 영 거 강 사다근에.(박 이렇게 그거 가서 사다가.)

- 김보향 만들어 봅서. 경 어떻 혈 거?(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할 거?)
- 박봉화 그거 영 고냥 뜰라근에. 그 씨 문 파 베 텁.(그거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 씨 모두 파 베려 두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씨 문딱 쑥데경 파 베 둑근에. 굼기 막아근에 그디 메꾸아근에이.(씨 모두 쑤셔서 파 베려 두고. 구멍 막아서 거기 메꿔서.)
- 김보향 여기.(여기.)
- 박봉화 여기 물 안 들어가게.(여기 물 안 들어가게.)
- 김보향 물 안 들어가게 뭘로 불라야 뛰는 거 있어? 뭐 불라?(물 안 들어가게 무엇으로 빨라야 되는 거 있어? 뭐 빨라?)
- 박봉화 무시거 초라도 녹여근에.(무엇 초라도 녹여서.)
- 김보향 아.(아.)
- 박봉화 불랑 물 안 들어가게시리.(빨라서 물 안 들어가게끔.)
- 김보향 아아아.(아아아.)
- 박봉화 물 안 들어가사만 둉둥 뜰 거난.(물 안 들어가야만 둉둥 뜰 거니까.)
- 김보향 맞아. 예예예.(맞아. 예예예.)
- 박봉화 초라도 불랏구나. 촛농예?(초라도 빨랐구나. 촛농요?)
- 박봉화 응, 녹영.(응, 녹여서.)
- 김보향 녹영.(녹여서.)
- 박봉화 경 안허믄 물 들어가주게.(그렇지 않으면 물 들어가지.)
- 김보향 예예예. 경 쿄박세기 만들고. 망사리는 뭐로 만들었수과?(예예예. 그렇게 '쿄박세기' 만들고. 망사리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 박봉화 망사리는 그때 그때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살아 이신 때난에 저 거시기 억새이.
(망사리는 그때 그때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살아 있을 때니까 저 거시기 억새.)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드르 어탉, 억새. 뻣이가 나주게.(들 억새, 억새. 뻘기가 나지.)
- 김보향 으, 거 뭐렌 불런? 미삐젱이?(으, 그거 뭐라고 불렀어? 새품?)
- 박봉화 미삐젱이. 미삐젱이 그거 빼다근에 그거 미쁘젱이 피어 불지 안헌 때.(새품. 새품 그거 빼서 그거 새품 피어 버리지 않을 때.)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베에 담아정 이신 때 이초록 미쁘쟁이이?(줄기에 담겨 있을 때 이처럼 새품?)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경현 때 미 강 빠다근에.(그런 때 미 가서 빠다가.)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그거 이제 물류아근에 미빼쟁이 문 빠 베 될 그거 두드령 우리 아바진.(그거 이제 말려서 새품 모두 빠 버려 두고 그거 두드려서 우리 아버지는.)
- 김보향 뭐에 놓 두드려?(뭐에 놔서 두드려?)
- 박봉화 그거 혜영 노 꼬아근에 망사리 만들았주께.(그거 해서 노 꼬아서 망사리 만들었지.)
- 김보향 망사리 만들어낫어? 맞아. 미빼쟁이.(망사리 만들었어? 맞아. 새품.)
- 박봉화 여꾸왕.(엮어서.)
- 김보향 이거 두드리전 허믄 뭐가 셔야 될 거꽈?(이거 두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겁니까?)
- 박봉화 건게 마께로.(그건 방망이로.)
- 김보향 마께.(방망이.)
- 박봉화 던드렁.(‘던드렁’.)
- 김보향 던드렁, 예.(‘던드렁’, 예.)
- 박봉화 던드렁에서 두드령.(‘던드렁’에서 두드려서.)
- 김보향 경행 영 노 꼬아?(그래서 이렇게 노 꼬아?)
- 박봉화 응, 노 꼬아.(응, 노 꼬아.)
- 박진향 것도 만들었었구나?(그것도 만들었었구나?)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게믄 망사리에 보면 여기 망으로 둘러진 거 잇잖아요?(그럼 망사리에 보면 여기 망으로 둘러지니 거 잇잖아요?)
- 박봉화 어욱.(‘어욱’.)
- 김보향 어욱, 응. 그거는 무신 낭으로 헷어?(‘어욱’, 응. 그거는 무슨 나무로 했어?)
- 박봉화 그건 저 무시거니? 벌레낭.(그건 저 무시거니? 보리수나무.)
- 김보향 벌레낭으로? 둥그렁허게 만들엉 망사리 만든 거예? 여긴 거의 미빼쟁이로 만들었구나예?(보리수나무로? 둥그렇게 만들어서 망사리 만든 거요? 여긴 거의 새풀으로 만들었군요?)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저 무시거니? 남총나무 그것에 것도 텸엉 허곡 저 올레에 남총낭 이실 거라.
그것에 영 옷으로 입져진 거 그거 떼어근에.(저 무엇이니? 종려나무 그것에 그것도
떨어서 하고 저 ‘올레’에 종려나무 있을 거야. 그것에 이렇게 옷으로 입힌 거 그거
떼서.)
- 김보향 아, 남총에 줄기로, 이파리로 하는 게 아니고?(아, 종려나무에 줄기로, 이파리로
하는 게 아니고?)
- 박봉화 아니, 아니.(아니, 아니.)
- 박진향 껍데기?(껍데기?)
- 김보향 껍데기로 하는 거꽈?(껍데기로 하는 겁니까?)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말아진 거?(말린 거?)
- 박봉화 으, 영 말아정 옷그치 입져진 거.(으, 이렇게 말려서 옷같이 입힌 거.)
- 김보향 예.(예.)
- 박봉화 그거 떼어근에 물류앙 두드려근에.(그거 떼서 말려서 두드려서.)
- 박진향 두드령.(두드려서.)
- 박봉화 털어 뒤근에 노꼬앙.(털어 두고 노꼬아서.)
- 김보향 아, 예.(아, 예.)
- 박봉화 경행 망사리 만들엉.(그렇게 망사리 만들어서.)
- 김보향 예예예. 그 망사리는 경하고예? 이거 고무옷 입기 전에는 허리에 뭐 차거나는 안
헷어예?(예예예. 그 망사리는 그렇게 하고요? 이거 ‘고무옷’ 입기 전에는 허리에 뭐
차거나 안 했어요?)
- 박봉화 안 찬.(안 찼어.)
- 김보향 안 찬예? 고무옷 입어사, 뭐 찻수과?(안 찼어요? ‘고무옷’ 입어야, 뭐 찼습니까?)
- 박봉화 연철게.(연철.)
- 김보향 연철. 연철은 무사 차신고?(연철. 연철은 왜 찼지?)
- 박봉화 그 고무옷이라부난에 떠 불 거난에 무겁게.(그 ‘고무옷’이어서 떠 벼릴 거니까
무겁게.)
- 김보향 으. 무겁게 들어가렌.(으. 무겁게 들어가라고.)
- 박봉화 무겁게 들어가렌.(무겁게 들어가라고.)

- 김보향** 게난 연철 차는 무게도 사람마다 막 ㅌ나큰게.(그러니까 연철 차는 무게도 사람마다 아주 다르겠네.)
- 박봉화** ㅌ나주게.(다르지.)
- 김보향** ㅌ나주게.(다르지.)
- 박봉화** 그뜨게 안 찬다.(같게 안 차.)
- 김보향** 그뜨게 안 차.(같게 안 차.)
- 박봉화** 나가. 예를 들어 오 키로 차민 진 이 키로로 찰 수 있곡 칠 키로도 찰 수 있곡.(내가. 예를 들어 오 킬로그램 차면 자기는 이 킬로그램으로 찰 수 있고 칠 킬로그램도 찰 수 있고.)
-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 박봉화** 차이 나. 사람 체격에.(차이 나. 사람 체격에.)
- 김보향** 삼촌 물질할 때 여기에 뭐 막아낫수과?(삼촌 물질할 때 여기에 뭐 막았었습니까?)
- 박봉화** 밀, 난 안 막안 해연.(밀, 난 안 막고 했어.)
- 김보향** 안 막아난? 뭐로 헤나신고? 막는 사람들은?(안 막았었어? 뭐로 했어나요? 막는 사람들은?)
- 박봉화** 밀. 밀.(밀, 밀.)
- 김보향** 밀.(밀.)
- 박봉화** 밀이 그거 무시거닌 허민 저 벌꿀 그거 허는 것에.(밀이 그거 무엇인가 하면 저 벌꿀 그거 하는 것에.)
- 박진향** 아, 밀랍?(아, 밀랍?)
- 박봉화** 으, 나오는 거주게.(으, 나오는 거지.)
- 김보향** 씹엉 영 영 행 귓고망 막아?(씹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귓구멍 막아?)
- 박봉화** 으.(으.)
- 김보향** 무사 귓고망 막안?(왜 귓구멍 막았어?)
- 박봉화** 물 못 들어가게.(물 못 들어가게.)
- 김보향** 물 못 들어가게예?(물 못 들어가게요?)
- 박봉화** 물 들어가면 알린텐.(물 들어가면 아리다고.)
- 김보향** 으.(으.)
- 박봉화** 게도 안 막아도 무시거 안 헨게이. 원 밀 안 막앙 헤나 부난 것산디 귀 막안, 나.(그래도 안 막아도 무엇 안 하더라. 원 밀 안 막고 했어서 그런지 귀 막았어, 나.)

김보향 아.(아.)

박봉화 게난 귀 막은 장애인이주, 나.(그러니까 귀 막은 장애인이지, 나.)

김보향 으.(으.)

박봉화 저 이거 막으난 거주, 안 막으민 못 알아들어.(저 이거 막으니까 거지, 안 막으면 못 알아들어.)

김보향 맞아, 맞아. 지금 보청기 햇구나?(맞아, 맞아. 지금 보청기 했구나?)

박봉화 으, 보청기 헨.(으, 보청기 했어.)

김보향 보청기 헨예? 게난 맞수다.(보청기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세화리 송좌길 · 강희선 씨의 농사일 도구 이야기

- 김보향 농사지어난 거하고 저기 쉬 길러난 거예, 그거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우선은 저기 회장님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 됨수꽈?(농사지었던 거하고 저기 소 길렀던 거요, 그거 두 가지를 여쭤볼 겐데. 우선은 저기 회장님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송좌길 송좌길.(송좌길.)
- 김보향 예. 몇 년생마씨?(예. 몇 년생요?)
- 송좌길 삼십구 년생이우다.(삼십구 년생입니다.)
- 김보향 예, 예. 쭉 나고 자란 거예?(예, 예. 쭉 나고 자란 거지요?)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예. 그 세화리에서는 주로 어떤 농사들을 지어낫수꽈?(예. 그 세화리에서는 주로 어떤 농사들을 지었었습니까?)
- 송좌길 옛날에?(옛날에?)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젤 여기서 주로 헌 게 보리.(제일 여기서 주로 한 게 보리.)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고구마.(고구마.)
- 김보향 예, 제줏말로 굽아 줘예. 감저.(예, 제줏말로 말해 주세요. '감저'.)
- 송좌길 감저, 감저.(고구마, 고구마.)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첫째 보리, 감저.(첫째 보리, 고구마.)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다음은 유채.(다음은 유채.)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콩하고 산디 그튼 건 매 사름이 허도 안혀. 건 그 좀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그 콩하고 밭벼 같은 건 매 사람이 하지도 않아. 그건 그 조금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에서.)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이제 토지가 만한 사람덜이 그런 걸 햇고. 그렇지 안한 사름은 보리, 감자.(이제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리, 고구마.)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다음에 유채가, 제주도 유채가 시작한 디가 육십, 아마 육십사 년도부떠 아닌가?
(그다음에 유채가, 제주도 유채가 시작한 지가 육십, 아마 육십사 년도부터 아닌가?)
- 김보향 와.(와.)
- 송좌길 육십이 년도, 육십, 육십이 년돈가, 육십사 년도?(육십이 년도, 육십, 육십이 년도인가, 육십사 년도?)
- 김보향 기라예.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라예?(그렇지요. 그때에서부터 시작한 거지요?)
- 송좌길 예.(예.)
- 김보향 그전에는 그냥 보리랑 감저?(그전에는 그냥 보리와 고구마?)
- 송좌길 보리.(보리.)
- 김보향 조, 보리, 감저만 헤난 거라예?(조, 보리, 고구마만 했던 거지요?)
- 송좌길 그렇게 햇을 거라.(그렇게 했을 거야.)
- 김보향 유채가 육십사 년부터꽈?(유채가 육십사 년부터입니까?)
- 송좌길 육십사 년인가. 나가 그거 웬 아냐면 내가 군대를 육십일 년도 군대 갔거든.(육십사 년인가. 내가 그거 왜 아는가 하면 내가 군대를 육십일 년도 군대 갔거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이 군대 갔다 오니깐 유채를 허고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갔다 와서 유채를 허기 시작했으니까.(이 군대 갔다 오니까 유채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내가 갔다 와서 유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 김보향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 박진향 아, 기구나예. 아, 그럼 그 이유가 정확혀다예.(아, 그렇군요. 아, 그럼 그 이유가 정확하네요.)
- 송좌길 아마 육십이 년도, 육십사 년도.(아마 육십이 년도, 육십사 년도.)

- 강희선 거 우리만 유채 그때 시작헌 거주. 다른 사름은 그때.(그거 우리만 유채 그때 시작한 거지. 다른 사람은 그때.)
- 송좌길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 보급이 여기가.(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 보급이 여기가.)
- 김보향 게니까 육십 년대 중반.(그러니까 육십 년대 중반.)
- 송좌길 늦인 건지 안 늦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유채가 육십, 하튼 이삼 년돌 거라, 거.(늦은 건지 안 늦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유채가 육십, 하여튼 이삼 년도일 거야, 그거.)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유채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유채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그 유채 많이 허면 유채를 훈 얼마 헤냐면은 훈, 가정에 마다리로 백 마다리 허민 그거 멧 키로짜리냐 허면은 오십 키로짜리거든.(그 유채 많이 하면 유채를 한 얼마 하냐면은 한, 가정에 마대로 백 마대 하면 그거 몇 킬로그램짜리냐 하면 오십 킬로그램짜리거든.)
- 김보향 예예.(예예.)
- 송좌길 오십 키로짜리 백 마다리로 훈 사람, 뭐 서른 마다리로 훈 사람 해 가지고 그때 그 유채가 돈 좀 줬고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맥주맥. 소위 우리 제주도 말로 줄오리라고 헌 거.(오십 킬로그램짜리 백 마대로 한 사람, 뭐 서른 마대로 한 사람 해 가지고 그때 그 유채가 돈 좀 줬고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맥주맥. 소위 우리 제주도 말로 '줄오리'라고 하는 거.)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그거 해 가지고 그 맥주맥으로 헌 풀아 가지고 돈도 샀고.(그거 해 가지고 그 맥주맥으로 해서 팔아 가지고 돈도 샀고.)
- 김보향 음. 게민예, 자, 그 여기 경행 거 저기 유채를 하당 콩도 그 후제사 한 거 아니꽈?(음. 그럼요, 자, 그 여기 그래서 그거 저기 유채를 하다가 콩도 그 후에 한 거 아닙니까?)
- 송좌길 콩, 아니. 콩은 그 전부터 헨디 그거 아무나, 아무 디나 헌 거 아니고 좀 부유층에 있는 집안덜이 콩 좀, 그 장콩 헐라고 헨, 헨 거지.(콩, 아니. 콩은 그 전부터 했는데 그거 아무나, 아무 데나 한 거 아니고 좀 부유층에 있는 집안들이 콩 좀, 그 장콩

하려고 했어, 한 거지.)

김보향 음.(음.)

송좌길 그문 그 장콩 흐는 것도, 그거 장, 장 담는 것도 콩을, 부제칩이 가서 삭 내엉, 삭 들어 가지고 헤여 와야 장을 둡아 먹었주. 무슨 그거 매 집이 콩 갈앙 헤 먹진 안헤여여게.(그럼 그 장콩 하는 것도, 그거 장, 장 담그는 것도 콩을, 부잣집에 가서 삽 내서, 삭 들어 가지고 해 와야 장을 담아 먹었지. 무슨 그거 매 집에 콩 갈아서 해 먹진 않아.)

김보향 아, 매 집이 다 헤 먹진 못했?(아, 매 집이 다 해 먹지는 못했어?)

송좌길 거 부유층이나 하지, 경 안 해서 뭐 가난한 사람 그거 행 훌 저르가 엇었고.(그거 부유층이나 하지, 그렇게 안 하고 뭐 가난한 사람 그거 해서 할 겨를이 없었고.)

김보향 식게헤 먹젠 허민 산디도 흐꼼씩은 허지 안헤여?(제사하려고 하면 밭벼도 조금씩은 하지 않아?)

송좌길 아이고, 식게헤 먹진 허민 콩으로 산, 그.(아이고, 제사하려고 하면 콩으로 산, 그.)

김보향 산디, 산디.(밭벼, 밭벼.)

송좌길 산디. 게난 그 산디도.(밭벼. 그러니까 그 밭벼도.)

김보향 음.(음.)

송좌길 옛날에 산디, 산디밥 흐민은 아이고, 그렇게도 또 맛있어신디 이젠 먹으렌 헤도 먹도 못헐 거 닮은디. 그 산디 헤 가지고 허난 그것도 역 들어야 뛰어.(옛날에 밭벼, 쌀밥 하면 아이고, 그렇게도 또 맛있었는데 이제는 먹으라고 해도 먹지도 못할 거 같은데. 그 밭벼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일력 들어야 돼.)

김보향 음.(음.)

송좌길 매 사람이 그걸 훌 수는, 못 허거든.(매 사람이 그걸 할 수는, 못 하거든.)

김보향 음.(음.)

송좌길 역 들어 가지고 부제칩이 강 역 들엉 훈 거, 역 들어 가지고 그 집이 강 일을 해주던지 그렇게 강 샵품을 받아다가 먹었지, 먹고.(일력 들어 가지고 부잣집에 가서 일력 들어서 한 거, 일력 들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던지 그렇게 가서 샵품을 받아다가 먹었지, 먹고.)

김보향 음.(음.)

송좌길 옛날엔 건디 그 이 제주도 농촌이라는 건 거의 다 비슷했는데 어쨌든 그 여기 우리, 예, 우리 표선면이 쪼끔 더 박햇을 거라, 아마.(옛날에는 그런데 그 이 제주도

농촌이라는 건 거의 다 비슷했는데 어쨌든 그 여기 우리, 예, 우리 표선면이 조금 더 박했을 거야, 아마.)

김보향 여기가 박햇수꽈?(여기가 박했습니까?)

송좌길 박햇을 거라. 남원읍하고는 영 비교가 안 됫을 거라.(박했을 거야. 남원읍하고는 영 비교가 안 됫을 거야.)

김보향 어.(어.)

송좌길 그 남원읍이 원래가 부유층이, 부유층이, 부, 부제들이 많은 부락입주. 돈이가 많은.(그 남원읍이 원래가 부유층이, 부유층이, 부, 부자들이 많은 부락이지요. 돈이 많은.)

김보향 어, 기구나. 그럼 농사짓겐 허민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이실 거 아니꽈?(어, 그렇구나. 그럼 농사지으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좌길 도군, 도군.(도구는, 도구는.)

김보향 밧, 밧 가는 거부터.(밭, 밭 가는 거부터.)

송좌길 도군 밧 가는 거, 거 쟁기.(도구는 밭 가는 거, 그거 쟁기.)

김보향 예.(예.)

송좌길 뭐 그다음에 그 쓸라면은 뭐 저 궤이.(뭐 그다음에 그 쓰려고 뭐 저 팽이.)

김보향 음.(음.)

송좌길 쉐스렁.(쇠스랑.)

김보향 음.(음.)

송좌길 예, 또 그 따비라는 거 있어, 따비.(예, 또 그 따비라는 거 있어, 따비.)

김보향 음. 따비가 뭐꽈?(음. 따비가 뭡니까?)

송좌길 따비, 옛날 그 테, 테역, 테역밧을 갈, 가는 거 있어, 테역밧.(따비, 옛날 그 떼, 잔디, 잔디밭을 갈, 가는 거 있어, 잔디밭.)

김보향 네, 네, 네.(네, 네, 네.)

송좌길 따비. 그 두 갈퀴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건데.(따비. 그 두 갈퀴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건데.)

김보향 음.(음.)

송좌길 그 따비두 어려와, 그것도.(그 따비도 어려워, 그것도.)

김보향 음.(음.)

송좌길 우리 가마리도 따비 멧 개 잊어나신, 멧 개 엊어실 거라.(우리 세화리도 따비 몇 개

있었는, 몇 개 없었을 거야.)

김보향 가마리렌 불렀구나? 여기? ('가마리'라고 불렀구나? 여기?)

송좌길 여기가 그.(여기가 그.)

강희선 가마리 저 따비 이신 사름이 있어낫어?(세화리 저 따비 있는 사람이 있었어?)

송좌길 여기가 속칭, 속칭 가마리.(여기가 속칭, 속칭 '가마리').

김보향 으, 속칭 가마리.(으, 속칭 '가마리').

송좌길 속칭 가마리라고 해 가지고 그 옛날.(속칭 '가마리'라고 해 가지고 그 옛날.)

김보향 옛날서부터 불러난 이름 아니꽈?(옛날에서부터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

송좌길 그 옛날서부떠 부르는 이름이 속, 가마리라고 허는디. 그 원래 행정적으론 세화리거든.(그 옛날에서부터 부르는 이름이 속, '가마리'라고 하는데. 그 원래 행정적으로는 세화리거든.)

김보향 예.(예.)

송좌길 근디 거 분리가 뒤 가지고 세화2리 지금 세화3리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디.(그런데 그거 분리가 되어 가지고 세화2리 지금 세화3리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김보향 으.(으.)

송좌길 그 세화2리, 2리 그 불르기 전에 가마리라고 먼저 불렀주.(그 세화2리, 2리 그 부르기 전에 '가마리'라고 먼저 불렀지.)

박진향 가마리.('가마리').

김보향 아, 예, 예, 예. 따비로 하센 하면 테역, 테역밧디 일구는 거 아니꽈예?(아, 예, 예, 예. 따비로 하려고 하면 잔디밭, 잔디밭 일구는 거 아닙니까?)

송좌길 그 테왁, 테역밧디 일루는 거.(그 잔디밭, 잔디밭 일구는 거.)

김보향 그난.(그러니까.)

송좌길 테역밧 일루고 아주 쎈 거.(잔디밭 일구고 아주 쎈 거.)

김보향 쎈 거? 쎈 밧디 일루는 거?(센 거? 센 밭 일구는 거?)

송좌길 쎈 밧 일루는 거. 그거.(센 밭 일구는 거. 그거.)

김보향 게난예. 그걸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그러니까요. 그걸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다?)

송좌길 사람 손으로 헤 가지고.(사람 손으로 해 가지고.)

김보향 음, 음. 거난 그런 테역, 그때 따비 쓰는 밧은 쟁기로 밧 못 가는 밧들?(음, 음. 그러니까 그런 잔디, 그때 따비 쓰는 밧은 쟁기로 밭 못 가는 밭들?)

- 송좌길**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저 소위 저 테역밧.(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저 소위 저 잔디밭.)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테역밧 일구챙 허면 따비가 필요헌 거.(잔디밭 일구려고 하면 따비가 필요한 거.)
- 김보향** 예, 예, 예. 계난.(예, 예, 예. 그러니까.)
- 송좌길** 그때 쉐, 쉐로도 허지만 쉐로 허기 앞서 그 따비로 이제 먼저 테역밧을 일구는 거라.(그때 소, 소로도 하지만 소로 하기 앞서 그 따비로 이제 먼저 잔디밭을 일구는 거야.)
- 김보향** 계민 삼춘네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따비는 코챙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신 거?(그럼 삼춘네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따비는 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는 거?)
- 송좌길** 두 개, 두 개. 이런 게 이렇게 이신디.(두 개, 두 개.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 김보향** 예, 예. 알아지쿠다, 뭔지.(예, 예. 알겠습니다, 뭔지.)
- 송좌길** 두 개 잇인디.(두 개 있는데.)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두 개 잇인디 그게 무겁기도 해여.(두 개 있는데 그게 무겁기도 해.)
- 김보향** 예, 예.(예, 예.)
- 김보향** 그 따비도 잇어야 뛰고 또 뭐 잇어야 뭘 거꽈? 농사짓젠 허민?(그 따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될 겁니까? 농사지으려고 하면?)
- 송좌길** 어, 대충 그거. 그거, 그거. 따비는 또 아무나 허는 게 아니곡 허난.(어, 대충 그거. 그거, 그거. 따비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그 뭐 농기구엔 헌 건 다 잇어야주. 켜이, 골챙이, 뭐.(그 뭐 농기구라고 하는 건 다 있어야지. 팽이, 호미, 뭐.)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뭐 또 뭐 집안에 쓰는 뭐 골체.(뭐 또 뭐 집안에 쓰는 뭐 삼태기.)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지게.(그 지게.)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다 필요한 거주, 농사에.(다 필요한 거지, 농사에.)

- 김보향 예, 좋수다. (웃음) ㅎ나씩 물어볼게예.(예, 좋습니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 강희선 호미.(낫.)
- 김보향 예, 호미. 예. 이제 보리농사를 헌덴 협시다예.(예, 낫. 예. 이제 보리농사를 한다고 합시다.)
- 송좌길 으, 으.(으, 으.)
- 김보향 보리농산 하젠 허민 밧 갈아야 헐 거 아니꽈예? 자, 밧 갈 때 필요헌 게 뭐꽈?
(보리농사는 하려고 하면 밧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 밧 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 송좌길 밧 갈 때 필요헌 게?(밭 갈 때 필요한 게?)
- 김보향 예, 예. 밧 갈 때. 쟁기예.(예, 예. 밧 갈 때. 쟁기요.)
- 송좌길 밧 갈 때 필요헌 게 뭐냐면 우선 소가 있어야 뛰고.(밭 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 소가 있어야 되고.)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우선 소가 있어야 밧을 갈 거고.(우선 소가 있어야 밭을 갈 거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게, 소가 있으면 잠대, 잠대가 다 있어야 뛰는 거. 소 이신, 소에서 밧을 가는 집은 그 잠대가 다 곳좌경 있거든. 매 집에 있는 건 있어. 그건.(그래, 소가 있으면 쟁기, 쟁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소 있는, 소에서 밧을 가는 집은 그 쟁기가 다 갖춰져 있거든. 매 집에 있는 건 있어. 그건.)
- 김보향 음, 음.(음, 음.)
- 송좌길 그 소가 있는 집은 다 있으니까.(그 소가 있는 집은 다 있으니까.)
- 김보향 네.(네.)
- 강희선 그 잠댄 우리집에 있지 안해?(그 쟁기는 우리 집에 있지 않아?)
- 김보향 찍어수다. 그민 그 잠대 보면은 아까 맹칭들 다 골았주만은 명칭을 다시 한 번만 골아 줍서.(찍었습니다. 그럼 그 쟁기 보면 아까 명칭들 다 말했지만 명칭을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세요.)
- 송좌길 어.(어.)
- 김보향 그 길쭉한 낭이?(그 길쭉한 나무가?)
- 송좌길 거 몽콜. 아, 저, 저 성에.(그거 쟁깃술. 아, 저, 저 성에.)
- 김보향 성에? (성에?)
- 송좌길 성에.(성에.)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그다음에 몽클.(그다음에 쟁깃술.)
- 김보향 몽클.(쟁깃술.)
- 송좌길 설칫.(한마루.)
- 김보향 설칫.(한마루.)
- 송좌길 돌멩이뿔.(물추리막대.)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양죽머리.(양지머리.)
- 김보향 양죽머리다예.(양지머리네요.)
- 송좌길 양죽머리.(양지머리.)
- 김보향 예. 그게 다 들어갈 거고. 거기에 끼우는 거 있지 않우꽈?(예. 그게 다 들어갈 거고.
거기에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송좌길 그, 건 끼우는 건 뭐?(그, 그건 끼우는 건 뭐?)
- 김보향 이거, 밧 가는 데 앞에 끼우는 거?(이거, 밧 가는 데 앞에 끼우는 거?)
- 송좌길 아, 보섭.(아, 보습.)
- 김보향 예, 보섭. 옆에 영?(예, 보습. 옆에 이렇게?)
- 송좌길 옆에는 벗.(옆에는 벗.)
- 김보향 벗?(벗?)
- 송좌길 벗, 벗.(벗, 벗.)
- 김보향 벗도 잊고 보섭도 잊어야 됩 거예?(벗도 있고 보습도 있어야 될 거요?)
- 송좌길 예, 예.(예, 예.)
- 김보향 이 벗이랑 보섭은, 잠대는 삼촌이 거 하나 해 가지고 계속 죽장 썼잖아? 이것도
계속 죽장 써질 거?(이 벗이랑 보습은, 쟁기는 삼촌이 그거 하나 해 가지고 계속 쭉
썼잖아? 이것도 계속 쭉 쓸 수 있을 거?)
- 송좌길 아니, 벗은 죽장 써.(아니, 벗은 계속 써.)
- 김보향 벗은 죽장 써?(벗은 계속 써?)
- 송좌길 벗은 건 바꾸지 못힌디.(벗은 그건 바꾸지 못하는데.)
- 김보향 음, 음.(음, 음.)
- 송좌길 보섭은 혼 해에 혼나 두, 두 개 이렇게 바꽈야 뛰어.(보습은 한 해에 하나 두, 두 개
이렇게 바꿔야 돼.)

- 김보향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 송좌길 저거 무껴 불면은 돌광 탁 털어지민 딱 부리져 불고 무껴 가지고 못 쓰거든. 게 저거 일 년에 훈두 개 써, 써야 뛰어.(저거 무뎌 버리면 돌과 탁 떨어지면 딱 부리져 버리고 무뎌 가지고 못 쓰거든. 그래 저거 일 년에 한두 개 써, 써야 돼.)
- 김보향 게민 이런 거 사젠 허민은 어디 강 해, 잇어?(그럼 이런 거 사려고 하면 어디 가서 해, 있어?)
- 송좌길 그거 그때 당시에는 저 대정 가서 삼거든.(그거 그때 당시에는 저 대정 가서 삼거든.)
- 김보향 아.(아.)
- 송좌길 그때 대정서 이걸 만드는 디가 잇었다고.(그때 대정에서 이걸 만드는 데가 있었다고.)
- 김보향 아, 그민 세화리는 그런 불미 허는 디가 엊어낫수꽈?(아, 그럼 세화리는 그런 대장간 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 송좌길 불미 잇자 이건 안 나와. 이건 못 만들어.(대장간 있어도 이건 안 나와. 이건 못 만들어.)
- 김보향 아, 이건 못 만들어?(아, 이건 못 만들어?)
- 송좌길 예, 이걸 못 만들어. 그거 이제 만들아, 대정서 저 만들아 가지고 이레 풀레 나와. 나왔어.(예, 이걸 못 만들어. 그거 이제 만들어, 대정에서 저 만들어 가지고 이리 팔려 나와. 나왔어.)
- 김보향 아, 아. 게민 세화리도 불미는 잇긴 이신디?(아, 아. 그럼 세화리도 대장간도 있긴 있는데?)
- 송좌길 세화리 불미가 옛날 저 세화3리 혼 밧디 잇어낫어.(세화리 대장간이 옛날 저 세화3리 한 군데 있었어.)
- 김보향 아, 거기서 호미, 골갱이 같은 건 멘들어도?(아, 거기서 낫, 호미 같은 건 만들어도?)
- 송좌길 호미, 골갱이, 낫 그런 건 다 만들았어.(낫, 호미, 낫 그런 건 다 만들었어.)
- 김보향 멘들어도 이거는 못 하는 거?(만들어도 이거는 못 하는 거?)
- 송좌길 예, 그거는 못 헤여.(예, 그거는 못 해.)
- 김보향 아, 아.(아, 아.)
- 송좌길 이거를 구워내야 뛰니까.(이거를 구워내야 되니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이건 구워내야 뛰.(이건 구워내야 돼.)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저 가마, 가마솥에 저, 저 뭐야. 우리 그 항아리 구워내듯.(저 가마, 가마솥에 저, 저 뭐야. 우리 항아리 구워내듯.)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저런 그런 뭐 쟁물에 구워내야 돼니까.(저런 그런 뭐 쟁물에 구워내야 되니까.)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이건 못 헤여.(이건 못 해.)
- 김보향** 이건 못했던 거예. 자, 그럼 그거 쟁기에, 쟁기 그 쉐랑 영 잇겐 허민 쉐는 멍에를 쓸 거라예?(이건 못했던 거요. 자, 그럼 그거 쟁기에, 쟁기 그 소랑 이렇게 이르려고 하면 소는 멍에를 쓸 거지요?)
- 송좌길** 멍에.(멍에.)
- 김보향** 예. 그민 아까 멍에는 무슨 낭으로 헷엇더라?(예. 그럼 아까 멍에는 무슨 나무로 했었더라?)
- 송좌길** 명에 그 저.(멍에 그 저.)
- 김보향** 음, 명에는 무슨 낭으로 헤수꽈?(음, 명에는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 강희선** 머귀낭, 머귀낭. 머귀낭으로 허지.(머귀나무, 머귀나무. 머귀나무로 하지.)
- 송좌길** 머귀남 아, 머귀남. 머귀남.(머귀나무 아, 머귀나무. 머귀나무.)
- 김보향** 예, 맞수다. 이거, 이거 머귀남.(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 머귀나무.)
- 송좌길** 머귀남.(머귀나무.)
- 김보향** 아까 여기 이거 하는 접궤는?(아까 여기 이거 하는 목대는?)
- 송좌길** 접궤.(목대.)
- 김보향** 접궤는 무슨 낭으로 헷엇더라?(목대는 무슨 나무로 했었더라?)
- 송좌길** 접궤, 그땐 윤뉴리, 윤뉴리가 최곤디. 윤뉴리 없이민 여긴 그 촘가시낭이 아니고.(목대, 그때는 윤노리나무, 윤노리나무가 최고인데. 윤노리나무가 없으면 여기는 그 가시나무가 아니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여기, 여기서 저 가시낭, 가시낭 헌디 그자 그거 쉬운 거 혜당 그거 혜당 헌 것도 얼마 못 써. 자꾸 같아야 돼고.(그 여기, 여기서 저 가시나무, 가시나무 하는데 그저 그거 쉬운 거 해다가 그거 해다가 한 것도 얼마 못 써. 자꾸 같아야 되고.)
- 김보향** 음, 음. 게믄 아까 요거는 무슨 낭, 성에는 무신 낭으로 헷어?(음, 음. 그럼 아까 요거는 무슨 나무, 성에는 무슨 나무로 했어?)

- 송좌길 거 가시낭으로 해야 돼.(그거 가시나무로 해야 돼.)
- 김보향 가시낭으로 하고? 여기 몽클은?(가시나무로 하고? 여기 쟁깃술은?)
- 송좌길 자귀낭. 자귀낭.(자귀나무. 자귀나무.)
- 김보향 자귀낭 햇었고.(자귀나무 했었고.)
- 송좌길 자귀낭이 제일 좋았어.(자귀나무가 제일 좋았어.)
- 김보향 이 설칫 들어가는 거는 아무 낭이라도?(이 한마루 들어가는 거는 아무 나무라도?)
- 송좌길 아니, 그거 것도 질겨야 돼. 것도 가시나무.(아니, 그거 것도 질겨야 돼. 그것도 가시나무.)
- 김보향 이것도, 이것도 질겨야 될 거?(이것도, 이것도 질겨야 될 거?)
- 송좌길 예, 예. 이것도 가시나무 아니믄은.(예, 예. 이것도 가시나무 아니면.)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어, 여깃 저 말허는 우리 저 해변, 해변 가시낭이라고 해 가지고 찔긴 나무 허는 게 있어.(어, 여기 저 말하는 우리 저 해변, 해변 가시나무라고 해 가지고 질긴 나무 하는 게 있어.)
- 김보향 양죽머리는?(양지머리는?)
- 송좌길 그거는 가벼운 거 뭐 관계없어. 저 소위 저건 ㅎ챙 허민은 뭘로 해야 돼냐면은 저거는 마주목이라고 혼 거 있어. 마주목.(그거는 가벼운 거 뭐 관계없어. 저 소위 저건 하려고 하면 뭘로 해야 되냐면은 저거는 멀구슬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 멀구슬나무.)
- 김보향 마주목? 좋은 낭인 거 같은데? 마주목이?(멀구슬나무? 좋은 나무인 거 같은데? 멀구슬나무가?)
- 송좌길 마주목이엔 헌 건 저 뭐냐. 그 열매 이름이, 열매 이름이 뭐렌, 뭐렌 ㅎ나?(멀구슬이라고 하는 건 저 뭐냐. 그 열매 이름이, 열매 이름이 뭐라고, 뭐라고 하나?)
- 김보향 좋수다. 기억, 기억 안 나는 건.(좋습니다. 기억, 기억 안 나는 건.)
- 송좌길 마, 마주목이라고 그 나무가 아주 저 까끄면 아주 색이 좋아.(마, 마주목이라고 그 나무가 아주 저 까으면 아주 색이 좋아.)
-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 송좌길 반들반들해 가지고.(반들반들해 가지고.)
- 김보향 예, 예, 예. 그거 헤낫구나. 게민.(예, 예, 예. 그거 했었구나. 그럼.)
- 송좌길 게, 그거 엇이민 아무거라도 세와.(그래, 그거 없으면 아무거라도 세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우선은, 우선 급하면 급헌 대로 쓰는 거라. 아무거라도.(우선은, 우선 급하면 급한 대로 쓰는 거야. 아무거라도.)
- 김보향 밧 갈 때 여기 막 흑 부트민?(밭 갈 때 여기 마구 흑 붙으면?)
- 송좌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이거 막 따까 내는?(이거 마구 닦아 내는?)
- 송좌길 따꼬, 따꼬는 거. 그건 뭐 그거 저 벳 따꼬라고 해 가지고.(닦, 닦는 거. 그건 뭐 그거 저 벳 닦으라고 해 가지고.)
- 김보향 네.(네.)
- 송좌길 요만큼 헤 가지고.(요만큼 헤 가지고.)
- 김보향 낭까쟁이예?(나뭇가지요?)
- 송좌길 낭까쟁이 헤 가지고 뒤에 접지는 거 있어. 이다.(나뭇가지 헤 가지고 뒤에 끼우는 거 있어. 여기.)
- 김보향 여기에, 여기 끼윙 놔두는 거예?(여기에, 여기 끼워서 놔두는 거요?)
- 송좌길 아이, 이거 여기 끼민, 여기 그 저.(아이, 이거 여기 끼면, 여기 그 저.)
- 김보향 아, 요거 뒤에?(아, 요거 뒤에?)
- 송좌길 노끗이, 노끗이 노가 들어가거든.(노끈이, 노끈이 노가 들어가거든.)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그 끈이. 끈이 들어가난 그 끈 사이에 꼽는 디가 있어, 있어 가지고.(그 끈이 들어가니까 그 끈 사이에 꼽는 데가 있어, 있어 가지고.)
- 김보향 이거?(이거?)
- 송좌길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끈.(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 끈.)
- 김보향 여기 사이에?(여기 사이에?)
- 송좌길 끈을.(끈을)
- 김보향 그 나무를, 끈을 꽂아 놔둘 거?(그 나무를, 끈을 꽂아서 놔둘 거?)
- 송좌길 이거, 이거 이 끈 사이에 이 틈으로, 틈으로.(이거, 이거 이 끈 사이에 이 틈으로, 틈으로.)
- 김보향 여기에? 끼윙 놔둬?(여기에? 끼워서 놔둬?)
- 송좌길 예, 그렇게 끼윙 놔둬.(예, 그렇게 끼워서 놔둬.)
- 김보향 낭으로? 낭까쟁이를?(나무로? 나뭇가지를?)

- 송좌길** 예, 예.(예, 예.)
- 김보향** 이건 벳칼이렌 불러수과?(이건 벳칼이라고 불렀습니까?)
- 송좌길** 벳칼. 벳칼.(벳칼. 벳칼.)
- 김보향** 아, 예, 예.(아, 예, 예.)
- 송좌길** 벳칼, 벳칼.(벳칼, 벳칼.)
- 김보향** 그거 흑 긁어내는 거?(그거 흙 긁어내는 거?)
- 송좌길** 예, 예.(예, 예.)
- 김보향** 벳칼? 벳칼예. 예, 예, 예. 게믄 쟁긴 다 뛰신가? 멍에 가 보면 이거 아까 머귀낭 얘기했고, 낭 얘기해수다예.(벳칼? 벳칼요. 예, 예, 예. 그럼 쟁기는 다 됐는가? 멍에 가 보면 이거 아까 머귀나무 얘기했고, 나무 얘기했습니다.)
- 송좌길** 음.(음.)
- 김보향** 이거 뭐 윤누리낭 얘기해수다. 이 줄은, 요 줄은 이 줄도 옛날에는 다 만들어실 거 아니?(이거 뭐 윤노리나무 얘기했습니다. 이 줄은, 요 줄은 이 줄도 옛날에는 다 만들었을 거 아니?)
- 송좌길** 줄?(줄?)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저거 여기서도 만들, 만들았주.(저거 여기서도 만들, 만들었지.)
- 김보향** 무스, 어, 뭐?(무엇, 어, 뭐?)
- 송좌길** 뭐로 만들었나면은 칙 잇잖아, 칙.(뭐로 만들었냐면 칡 잇잖아, 칡.)
- 김보향** 칙? 예.(칡? 예.)
- 송좌길** 칙낭, 칙뿔리, 칙낭. 걸로 해 가지고.(칡, 칡뿌리, 칡. 그걸로 해 가지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이거 요거 오리목이고. 이거, 저 뭐.(이거 요거 오리목이고. 이거, 저 뭐.)
- 김보향** 칙뿔리로 그냥 영 노 꼬왕 만드는 거?(칡뿌리로 그냥 이렇게 노 꼬아서 만드는 거?)
- 송좌길** 칙으로 칙 해다가.(칡으로 칡 해다가.)
- 김보향** 끈 만들겄 허민?(끈 만들려고 하면?)
- 송좌길** 끈 만들앙 그 칙 두드려 가지고.(끈 만들어서 그 칡 두드려 가지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걸 장만해영.(그걸 장만해서.)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노를 삼 삼아야지, 노를 꼬와서.(노를 삼 삼아야지, 노를 꼬아서.)
- 김보향 삼 삼아야예?(삼 삼아야지요?)
- 송좌길 꼬와 가지고. 경해 가지고 질기, 그거 질기거든? 칙이?(꼬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질기, 그거 질기거든? 칙이?)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그거 행.(그거 해서.)
- 김보향 예. 그렇게 다 베를 만들었었던 거예?(예. 그렇게 다 바를 만들었었던 거요?)
- 송좌길 예.(예.)
- 김보향 보면 멍에에 이 줄을 뭐렌 불르는 그런 이름도 이수꽈?(보면 멍에에 이 줄을 뭐라고 부르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까?)
- 송좌길 아, 그 줄 잇주게, 이거, 이거. 하이고, 거 까먹.(아, 그 줄 있지, 이거, 이거. 하이고, 거 까먹.)
- 김보향 뭐 등테?(뭐 등태?)
- 송좌길 음.(음.)
- 김보향 그런 이름도 있어?(그런 이름도 있어?)
- 송좌길 예, 등테엔 헌 건 쉐 등, 등에.(예, 등태라고 하는 건 소 등, 등에.)
- 김보향 이거 등에 가는 거?(이거 등에 가는 거?)
- 송좌길 예, 등에 가는 거. 아, 저것그라 뭐엥 허나?(예, 등에 가는 거. 아, 저것보고 뭐라고 하나?)
- 김보향 한줄, 한줄?(봇줄, 봇줄?)
- 송좌길 저 멍에, 멍에 그.(저 멍에, 멍에 그.)
- 김보향 줄 이름?(줄 이름?)
- 강희선 멍에 접게.(멍에 목대.)
- 송좌길 아니.(아니.)
- 김보향 멍에 접게는 아까 골았고. 예.(멍에 목대는 아까 말했고. 예.)
- 송좌길 저것그라 뭐엔 곧나. 뭐, 뭐엔 뭔 줄이여? 한?(저것보고 뭐라고 말해. 뭐, 뭐라고 뭔 줄이여? 한?)
- 김보향 한줄?(봇줄?)
- 송좌길 어, 한줄? 한줄?(어, 봇줄? 봇줄?)
- 강희선 등테.(등태.)

- 김보향 등테.(등태.)
- 송좌길 아니, 등테는 잇곡. 건 알고.(아니, 등태는 있고. 그건 알고.)
- 강희선 등테 말고 뭐 있어?(등태 말고 뭐 있어?)
- 송좌길 저것그라 한줄 술진 거 잇잖에게. 술진 거 영 쪼끔 해야 멍에 메근에 쉬.(저것보고
봇줄 살진 거 있잖아. 살진 거 이렇게 조금 해야 멍에 매서 소.)
- 김보향 손잡이 하는 건 가린석?(손잡이 하는 건 고빼?)
- 송좌길 가리석, 가리석. 거 운전, 소위 운전하는 거주게. 쉬 운전하는 거. 가리석.(고빼,
고빼. 그거 운전, 소위 운전하는 거지. 소 운전하는 거. 고빼)
- 강희선 가린석은.(고빼는.)
- 김보향 가린석. 운전하는 거예.(고빼. 운전하는 거요.)
- 송좌길 가리석, 운전하는 거.(고빼, 운전하는 거.)
- 김보향 여기서는 그 가린석을 부림패렌은 안 불러나수꽈?(여기서는 그 고빼를
'부림패'라고는 안 불렀었습니까?)
- 송좌길 아, 부림패. 부림패.(아, '부림패'. '부림패'.)
- 김보향 뭐렌 불러수꽈?(뭐라고 불렀습니까?)
- 송좌길 부림패.(부림패.)
- 김보향 부림패, 예.(부림패, 예.)
- 송좌길 부리패, 부리패.(부리패, '부리패')
- 김보향 가린석이랑 부림패는 그튼 말?(‘가린석’이랑 ‘부림패’는 같은 말?)
- 송좌길 그튼 말. 예.(같은 말. 예.)
- 김보향 그튼 말. 뭐를 하영 써수꽈? 삼춘은?(같은 말. 뭐를 많이 썼었습니까? 삼춘은?)
- 송좌길 여기선 가리석 혀, 가리석.(여기선 ‘가린석’ 해, ‘가린석’.)
- 김보향 으. 가린석 해예? 예.(으. ‘가린석’ 해? 예.)
- 송좌길 부림패, 가리석.(부림패, ‘가린석’.)
- 김보향 예. 보통 밧 가는 거는 쟁기로 밧 갈고?(예. 보통 밧 가는 거는 쟁기로 밧 갈고?)
- 송좌길 갈고.(갈고.)
- 김보향 아까 테역밭에 하는 건 따비로 밧 갈고?(아까 잔디밭에 하는 건 따비로 밧 갈고?)
- 강희선 멍에영 다 집이 있지 아녀?(멍에랑 다 집에 있지 않아?)
- 김보향 멍엔 엇입디다.(멍에는 없습디다.)
- 송좌길 아, 우리 멍에 다 데껴 빗어. 멍에 데껴 빌고.(아, 우리 멍에 다 던져 버렸어. 멍에

던져 버리고.)

강희선 명에 돌아메낫주.(명에 달아맸었지.)

송좌길 데껴 비수다게.(던져 버렸어요.)

김보향 소소한 것들 밧 갈젠 허민 삽, 삽이나 쇠스랑 같은 것도 셔살 거 아니?(소소한 것들 밭 갈려고 하면 삽, 삽이나 쇠스랑 같은 것도 있어야 할 거 아니?)

송좌길 아, 건 물론 다 잊어야주.(아, 그건 물론 다 있어야지.)

김보향 응, 으.(에, 으.)

송좌길 겐디 소스렁허곡.(그런데 쇠스랑하고.)

김보향 소스렁.(쇠스랑.)

송좌길 쇠스렁허곡 삽하고 허는 거는.(쇠스랑하고 삽하고 하는 거는.)

김보향 으.(으.)

강희선 괭이.(괭이.)

송좌길 웬만한 집이 저 울타리에 그 뭐 배추 그튼 거나 갈아 먹챙 헤는 걸로 헤주. 그때 삽 헤 가지고 무슨 밧 갈거나 그런 건 못 헤여.(웬만한 집에 저 울타리에 그 뭐 배추 같은 거나 갈아 먹으려고 하는 걸로 하지. 그때 삽 해 가지고 무슨 밧 갈거나 그런 못 해.)

김보향 아, 그지예? 예, 예.(아, 그렇지요? 예, 예.)

송좌길 거 텷밭디서 그냥 배추 그튼 거나 갈아 먹고 누물 그런 거 갈아 먹챙 헷, 헷을 때 그게 잊고.(그거 텷밭에서 그냥 배추 같은 거나 갈아 먹고 나물 그런 거 갈아 먹으려고 했, 했을 때 그게 있고.)

김보향 으.(으.)

송좌길 어, 흔히 저 흑, 흑 어디서 혹시 날라갈 때.(어, 흔히 저 흙, 흙 어디서 혹시 날라갈 때.)

김보향 음.(음.)

송좌길 담을, 담을 때, 흑 담을 때 그 삽이 제일 필요헌 거.(담을, 담을 때, 흙 담을 때 그 삽이 제일 필요헌 거.)

김보향 흑 담을 때. 다른 데 가져가젠 허니까? 예?(흙 담을 때. 다른 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예?)

송좌길 흑을 운반힐 때.(흙을 운반할 때.)

김보향 운반허젠 허민예. 예, 예.(운반하려고 하면요. 예, 예.)

- 송좌길** 그거 제일 필요헌 거.(그거 제일 필요한 거.)
- 김보향** 혹시 이런 삽도 봐나수꽈?(혹시 이런 삽도 봤었습니까?)
- 송좌길** 음. 이건 뭐 삽이 저 이렇게 물린 거네?(음. 이건 뭐 삽이 저 이렇게 물린 거네?)
- 김보향** 이건 퉁다진 거고. 옛날에 낭삽 들어나수꽈?(이건 떨어진 거고. 옛날에 나무삽 들었었습니까?)
- 송좌길** 낭삽으로. 으, 으. 저거, 저건 뭐 낭삽.(나무삽으로. 으, 으. 저거, 저건 뭐 나무삽.)
- 김보향** 으. 안 봐뵌, 삼춘은예?(으. 안 봤어, 삼춘은요?)
- 송좌길** 보긴 봐도 소용이 엇어.(보긴 봐도 소용이 없어.)
- 김보향** 소용이 엇어예.(소용이 없어요.)
- 송좌길** 저거 남삽은 이거.(저거 나무삽은 이거.)
- 김보향** 계난 이런 거 이런 쇄 이런 삽 나오기 전에 써난 거 아니라?(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쇄 이런 삽 나오기 전에 썼던 거 아니야?)
- 송좌길** 써나실 건디 난, 우린 못 봐어.(썼었을 건데 난, 우린 못 봤어.)
- 김보향** 못 봐어예. 예, 예, 예. 좋수다. 계민 이제 보리 밧 갈아수다예.(못 봤어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보리 밧 갈았습니다.)
- 송좌길** 오.(오.)
- 김보향** 씨 뻘 때, 씨 뻘 때 보면 뭐에 담양 강 씨 뻬니까?(씨 뿌릴 때, 씨 뿌릴 때 보면 뭐에 담고 가서 씨 뿌립니까?)
- 송좌길** 여기 보리는 어떤 식으로 갈았느냐면 씨 뿌리는 게 아니고.(여기 보리는 어떤 식으로 갈았느냐면 씨 뿌리는 게 아니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지금 퇴비, 지금 말하면 퇴비거든?(지금 퇴비, 지금 말하면 퇴비거든?)
- 김보향** 음, 걸름?(음, 거름?)
- 송좌길** 걸름 ㅎ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리 갈 적엔 어떤 식으로 갈았냐면은 소위 통시에.(거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보리 갈 적에는 어떤 식으로 갈았냐면은 소위 돼지우리에.)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옛날, 옛날 통시에 거름을 그 비류가 그때 당신 없었을 때니까. 그르후에, 한참 후에 비류가 나와 가지고 그 퇴비 혼용을 헤낫주만은 그 전에는 그 도새기 질루는 통시에 그게 걸름터라.(그 옛날, 옛날 돼지우리에 거름을 그 비료가 그때 당시는

없었을 때니까. 그 후에, 한참 후에 비료가 나와 가지고 그 퇴비 혼용을 했었지만 그 전에는 그 돼지 기르는 돼지우리에 그게 거름터야.)

김보향 음.(음.)

송좌길 게난 모든 걸름을, 바다에 나는 풀, 여기 우리, 우리라면 그 보릿대 그런 걸 해 가지고 담양 썩혀 가지고, 뛰지가 높아 가지고 그게 걸름을 만들어.(그러니까 모든 걸름을, 바다에 나는 풀, 여기 우리, 우리라면 그 보릿짚 그런 걸 해 가지고 담고 썩여 가지고, 돼지가 높아 가지고 그게 거름을 만들어.)

박진향 아, 그 안에서?(아, 그 안에서?)

송좌길 그 안에서 뛰지 통에서. 그러면은 그 퇴비를 해 가지고 언제냐면은 음력으로 시월이거든. 시월들에 걸 마당에다 그 뜯통에 걸 전부 다 꺼내어. 그냥 그 골체, 골체하고 쉐스렁 허곡 행 걸 꺼내 가지고 마당에 다 놔. 그러면 걸 소로 이제 짓밟아. 이제 저 그게 삭, 삭아지게.(그 안에서 돼지 통에서. 그러면 그 퇴비를 해 가지고 언제냐면 음력으로 시월이거든. 시월에 그걸 마당에다 그 돼지우리의 걸 전부 다 꺼내. 그냥 그 삼태기, 삼태기하고 쇠스랑하고 해서 그걸 꺼내 가지고 마당에 다 놔. 그러면 그걸 소로 이제 짓밟아. 이제 저 그게 삭, 삭도록.)

김보향, 박진향 음.(음.)

송좌길 삭아지게. 걸름을 삭아지게, 삭아지게 불리면서 보리, 보리 씨를 거기다 뿌리는 거라.(삭도록. 거름을 삭도록, 삭도록 밟으면서 보리, 보리 씨를 거기다 뿌리는 거야.)

김보향 음, 걸름에?(음, 거름에?)

송좌길 걸름에.(거름에.)

박진향 걸름에다가 보리 씨를 뿌려마씨?(거름에다가 보리 씨를 뿌려요?)

송좌길 보리 씨를 뿌려. 예, 그걸 뿌려 가지고. 걸 그날을 못허거든. 그걸 했다가 걸 딱 그날 저녁에 그 준비해 가지고 잠잤당 듯날은 걸 이제 마차로 시끄는 거라, 구루마. 소위 구루마로.(보리 씨를 뿌려. 예, 그걸 뿌려 가지고. 그걸 그날을 못허거든. 그걸 했다가 그걸 딱 그날 저녁에 그 준비해 가지고 잠잤다가 뒷날은 그걸 이제 마차로 싣는 거야, 마차. 소위 마차로.)

강희선 마차로 시끄곡. 마차 엇인 디는.(마차로 싣고. 마차 없는 데는.)

송좌길 마차로 시끄곡 마차가 엇인 디는 쉐 등으로도 날랐어.(마차로 싣고 마차가 없는 데는 소 등으로도 날랐어.)

- 강희선** 쉐 등을루. 물 등을루.(소 등으로. 말 등으로.)
- 송좌길** 잠대 메왕은에. 저 질메, 질메 메왕.(챙기 메워서. 저 길마, 길마 메워서.)
- 김보향** 질메 메왕.(길마 메워서.)
- 송좌길** 메왕 소로 강 날라 강 허곡. 그 마차로 이제 강 밧디 강 거 방수 벌여 가지고 줄, 줄보리민은 사람이 가 가지고, 그때덜은 남자는 그거 안 허고 여자들이 가 가지고 그걸 전부 요만씩 쪼만씩 전부 뿐여 가지고 밧데 그 골고루 뿐리는 거라.(메워서 소로 가서 날라 가서 하고. 그 마차로 이제 가서 밭에 가서 그거 방수 벌려 가지고 줄, '줄보리'면은 사람이 가 가지고, 그때들은 남자는 그거 안 하고 여자들이 가지고 그걸 전부 요만큼씩, 조금씩 전부 부셔 가지고 밭에 그 골고루 뿐리는 거야.)
- 박진향** 걸 뿐린 거마씨? 걸름을 뿐리?(그걸 뿐린 거요? 거름을 뿐리?)
- 송좌길** 걸 뿐려 가지고게, 게서 밧을 갈아.(그걸 뿐려 가지고, 그래서 밭을 갈아.)
- 김보향** 그거 뿐린덴 협니까? 좁아 논덴 협니까?(그거 뿐린다고 협니까? 집어놓는다고 합니까?)
- 송좌길** 아, 뿐려, 뿐려.(아, 뿐려, 뿐려.)
- 김보향** 아, 뿐립니까?(아, 뿐립니까?)
- 송좌길** 걸 정확허게 헤 가지고 막 뿐려, 이렇게.(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마구 뿐려, 이렇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뿐려 가지고 이제 그때 밧, 밧을 갈민 그게 보리밧, 보리밧 가는 건디 갈아 가지고 이제 거즘 그걸 갈면은 안 더퍼진 것도 잇단 말이여.(뿌려 가지고 이제 그때 밭, 밭을 갈면 그게 보리밭, 보리밭 가는 건데 갈아 가지고 이제 거의 그걸 갈면 안 덮인 것도 있단 말이야.)
- 박진향** 으.(으.)
- 송좌길** 박에 둥글엄시민 그것도 짹 일일이 다니멍 묻어야 뛰어. 땅쏘곱 묻고.(밖에 둥글고 있으면 그것도 짹 일일이 다니면서 묻어야 돼. 땅속에 묻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렇게 헤 가지고 그게 시월달에 음력으로 시월달에 파종을 허면은 그게 이삼월 나면 나오거든.(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시월에 음력으로 시월에 파종을 하면 그게 이삼월 되면 나오거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짹이 나와.(짜이 나와.)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저 이삼 월 뛰기 전이 십이월 말 뛰 가민 나오민은 이제 땅이 부헐 거. 제주도 땅이 곳아 가지고. 걸 또 밟아야 뛰어.(그 저 이삼 월 되기 전에 십이월 말 돼 가면 나오면 이제 땅이 부풀 거. 제주도 땅이 얼어 가지고. 그걸 또 밟아야 돼.)
- 박진향 또 밟아야 뛰마씨?(또 밟아야 돼요?)
- 송좌길 사람이 서서 다 밟고 그렇게 헤 가지고 농사지었어.(사람이 서서 다 밟고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사지었어.)
- 김보향 예, 예. 그민 아까 걸름 낼 때는 쇠스랑하고 골체가 필요했고예?(예, 예. 그림 아까 거름 낼 때는 쇠스랑하고 삼태기가 필요했고요?)
- 송좌길 골체. 아니면 산테라는 게 있어. 산테.(삼태기. 아니면 '산테'라는 게 있어. '산테'.)
- 김보향 산테는 어떤 거꽈?('산테'는 어떤 겁니까?)
- 송좌길 산테. 양, 양쪽으로 둘러서 두 사람이 들러, 앞뒤로.(산테'. 양, 양쪽으로 둘러서 두 사람이 들어, 앞뒤로.)
- 박진향 아, 어떤 건지 알 것 같다.(아,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 송좌길 소위 저 우리 저 병원에 가민.(소위 저 우리 저 병원에 가면.)
- 박진향 사람들 이렇게 구조자. 요 구조자들.(사람들 이렇게 구조자, 요 구조자들.)
- 김보향 영 영 생겨수꽈?(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 송좌길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 송좌길 예, 예.(예, 예.)
- 박진향 거기다 영 눕혀 가지고?(거기다 이렇게 눕혀 가지고?)
- 김보향 게민 이 산테는 무신 낭으로 멘드는 거 있어?(그럼 이 '산테'는 무슨 나무로 만든 게 있어?)
- 송좌길 그건, 그건 어떤 저건 보통 저것도 뿌러지기 쉬우니까.(그건, 그건 어떤 저거 보통 저것도 뿌러지기 쉬우니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약한 낭은 안 뛰어.(약한 나무는 안 돼.)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우리 이 제주도 요, 특히나 해변은 저 구름비낭이엔 헌 게 있어. 그게 젤 좋아. 최고 좋아.(우리 이 제주도 요, 특히나 해변은 저 까마귀쪽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제일 좋아. 최고 좋아.)
- 박진향** 구름비낭.(까마귀쪽나무.)
- 김보향** 구름비낭, 구름비낭. 그거 산테 만들 때 좋아?(까마귀쪽나무, 까마귀쪽나무. 그거 '산테' 만들 때 좋아?)
- 강희선** 그게 질기지.(그게 질기지.)
- 김보향** 아, 질겨?(아, 질겨?)
- 송좌길** 질겨. 질겨, 그게.(질겨. 질겨, 그게.)
- 김보향** 아, 예. 좋습니다. 까마귀쪽나무. 예. 구름비낭. 그걸로, 그걸로 산테 만들어낫구나. (아, 예. 좋습니다. 까마귀쪽나무. 예. 까마귀쪽나무. 그걸로, 그걸로 '산테' 만들었구나.)
- 송좌길** 산테 만들어, 그걸로.(‘산테’ 만들어서, 그걸로.)
- 김보향** 게민 산테는 보통 걸름 날를 때 경 하영?(그럼 ‘산테’는 보통 거름 나를 때 그렇게 많이?)
- 송좌길** 그렇지, 걸름 날를 때.(그렇지, 거름 나를 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또 밧데 돌멩이 거튼 거 치울 때.(또 밭에 돌멩이 같은 거 치울 때.)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그 사람 둘리가 필요헌 거라. 혼 사름만 허면 안 뛰고.(그 사람 둘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 김보향** 이제예, 그럼예, 걸름 내수다예.(이제요, 그럼요, 거름 냈습니다.)
- 송좌길** 음.(음.)
- 김보향** 걸름 냉 그 걸름 위에 씨 뿌리잰 허민 씨를 어디 담앙 뿌려야 텔 거?(거름 내서 그 거름 위에 씨 뿌리려고 하면 씨를 어디 담아서 뿌려야 될 거?)
- 송좌길** 아니, 아니, 아니.(아니, 아니, 아니.)
- 김보향** 뭐에?(뭐에?)
- 송좌길** 아니, 그게.(아니, 그게.)
- 김보향** 구덕에?(바구니요?)
- 송좌길** 그게 구덕이주게. 그게 구덕에.(그게 바구니이지. 그게 바구니에.)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보리 씨 구덕에 담양 이제 이렇게 뿌리주.(보리 씨 바구니에 담고 이제 이렇게 뿌리지.)
- 김보향 구덕 어떤 구덕? 우리 질구덕? 출구덕?(바구니 어떤 바구니? 우리 '질구덕'? 출구덕?)
- 송좌길 출구덕이엔 허주, 출구덕.(‘출구덕’이라고 하지, ‘출구덕’.)
- 김보향 출구덕에 그냥 씨 담아도 될 거?(‘출구덕’에 그냥 씨 담아도 될 거?)
- 송좌길 어.(어.)
- 강희선 무시거 허는 거?(뭐 하는 거?)
- 박진향 보리 씨 뺄 때마씸.(보리 씨 뿌릴 때요.)
- 김보향 게민.(그럼.)
- 강희선 아, 보리 씨 뺄 때는 구덕에 헤야지, 구덕에.(아, 보리 씨 뿌릴 때는 바구니에 해야지, 바구니에.)
- 김보향 구덕에? 그 예전에 그 구덕에 곡석덜 담젠 허민 블랏잖아요? 천예?(바구니에? 그 예전에 그 구덕에 곡식들 담으려고 하면 발랏잖아요, 천요?)
- 송좌길 음, 음, 음.(음, 음, 음.)
- 김보향 예, 그거.(예, 그거.)
- 송좌길 브른바구리.(‘브른바구리’.)
- 김보향 예, 고맙수다예. 브른바구리. 거기에 놓 헌 건 아니고?(예, 고맙습니다. 브른바구리. 거기에 놔서 한 거는 아니고?)
- 송좌길 브른바구리, 브른바구리.(‘브른바구리’, ‘브른바구리’.)
- 김보향 예, 브른바구리예. 브른바구리에 놓 한 건 아니고 그냥 출구덕에 놓?(예, ‘브른바구리’요. ‘브른바구리’에 놔서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출구덕’에 놔서?)
- 송좌길 예, 출구덕에. 브른바구리 노믄 그 저 걸름 똥 묻어 버리민 거 추접허니까.(예, ‘출구덕’에. ‘브른바구리’ 넣으면 그 저 거름 똥 묻어 버리면 그거 더러우니까.)
- 김보향 안 돼어.(안 돼.)
- 박진향 추접해.(더러워.)
- 김보향 예, 예. 게민 옛날 씨 뿌릴 때 씨 망태기렌 허는 건 엊어나수꽈?(예, 예. 그럼 옛날 씨 뿌릴 때 씨 망태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까?)
- 송좌길 그거는, 그거는 옛날 그 망태엔 헌 건 저 조, 조, 조 불릴 때.(그거는, 그거는 옛날 그

망태라고 하는 건 저 조, 조, 조 파종할 때.)

김보향 조 볼릴 때.(조 파종할 때.)

송좌길 조 볼릴 때 그 망태에 담양 그거 손으로 이렇게 탁 빼는 거라. 골고루. 골고루가 안 뿌리면. 계난 그 씨 뿌리는 사람 골려야 뛰어.(조 파종할 때 그 망태에 담아서 그거 손으로 이렇게 탁 빼는 거야. 골고루. 골고루 안 뿌리면.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사람을 골라야 돼.)

김보향 예. 잘하는 사람으로예.(예. 잘하는 사람으로요.)

송좌길 아무나 골, 허믄 안 뛰어. 그냥 헤우령. 상당이 일이, 일이 복잡해여. 그난 잘 뿌리는 사람 빌어당 해야 뛰어.(아무나 고, 하면 안 돼. 그냥 '헤우령'. 상당히 일이, 일이 복잡해. 그러니까 잘 뿌리는 사람 빌려다가 해야 돼.)

김보향 아, 그민 그, 그거 씨 망태렌 불런?(아, 그럼 그, 그거 씨 망태라고 불렸어?)

송좌길 으.(으.)

김보향 망태기렌?(망태기라고?)

송좌길 예, 씨 망태, 씨 망태.(예, 씨 망태, 씨 망태.)

김보향 씨 망태. 어떻 생겨수꽈?(씨 망태. 어떻게 생겼습니까?)

송좌길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김보향 뭐로, 뭐로 만들어수꽈?(뭐로, 뭐로 만들었습니까?)

송좌길 아 저거, 저거. 그 저 줄로, 줄로.(아 저거, 저거. 그 저 줄로, 줄로.)

김보향 줄로?(줄로?)

송좌길 밧줄로, 밧줄로.(밧줄로, 밧줄로.)

김보향 밧줄로 만들언?(밧줄로. 만들었어?)

송좌길 밧줄, 밧줄 아이? 밧줄로 만들어 가지고.(밧줄, 밧줄 아니? 밧줄로 만들어 가지고.)

김보향 예.(예.)

송좌길 저게 뭐 아주 뭐 얇은 천으론가? 저거, 저.(저게 뭐 아주 뭐 얇은 천으로인가? 저거, 저.)

김보향 옛날 멱 짓는 건?(옛날 멱 겉는 건?)

송좌길 아니지, 저 망태가 아니고. 저 뭐야, 뭐냐. 지금 강오, 강오, 우리 둘령 뎅기는 시장 강오 닳은 거 있잖여? 천, 천으로 만든 거.(아니지, 저 망태가 아니고. 저 뭐야, 뭐냐. 지금 바구니, 바구니 우리 들고 다니는 시장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 천, 천으로 만든 거.)

- 강희선** 망텅이가 잇주게.(망태기가 있지.)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천으로 만든 것 그라 망태, 망태.(천으로 만든 것 보고 망태, 망태.)
- 김보향** 어, 어.(어, 어.)
- 송좌길** 에, 천으로 만든 망태엔 망태. 에, 천으로 만든 망태. 아이, 이거는, 이거는 조 그튼 건 못 허고.(에, 천으로 만든 망태라고 망태, 에, 천으로 만든 망태. 아이, 이거는, 이거는 조 같은 건 못하고.)
- 박진향** 아, 못 담아마씨?(아, 못 담아요?)
- 김보향** 아, 못 담고? 조는 천으로 한 걸로 해야 뭐?(아, 못 담고? 조는 천으로 하는 걸로 해야 돼?)
- 송좌길** 천으로 흔 거 해야. 아니면은, 아니면은.(천으로 하는 거 해야. 아니면, 아니면.)
- 김보향** 씨가 너무 줄았어. 끼어 불어.(씨가 너무 잘았어. 끼어 버려.)
- 박진향** 아, 끼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아, 끼어 버릴 수 있으니까.)
- 송좌길**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저 뭐냐 이 옛날, 옛날, 옛날 뭐, 뭐엔 허나?(아니면, 아니면 그 저 뭐지 이 옛날, 옛날, 옛날 뭐, 뭐라고 하지?)
- 강희선** 차반지 헹.(채롱 해서.)
- 송좌길** 저 뭐엔 허나?(저 뭐라고 하지?)
- 김보향** 그는대구덕?(‘그는대구덕?’)
- 송좌길** 뭐, 뭐냐, 저 불른 거, 불른 거 불라근에 불른 것이엔 허곡 것에 담양 텅엿어.(뭐, 뭐냐, 저 바른 거, 바른 거 발라서 바른 거라고 하고 그것에 담고 다녔어.)
- 김보향** 조는 줄아 부난 이런 거에 안 뛰어.(조는 잘아서 이런 거에 안 돼.)
- 송좌길** 구멍 다 샐아 불어.(구멍 다 새어 버려.)
- 김보향** 예, 알아수다. 그민예, 이제 걸름 실렁 가젠 허민 아까 마차렌 골아신디.(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거름 싣고 가려고 하면 아까 마차라고 말했는데.)
- 송좌길** 마차, 마차.(마차, 마차.)
- 김보향** 삼춘 마차렌 골아나수꽈?(삼춘 마차라고 말했었습니까?)
- 송좌길** 마차, 마차.(마차, 마차.)
- 김보향** 여긴 바레끼렌 안 골안?(여기는 ‘바레끼’라고 안 말했어?)
- 송좌길** 겐, 겐 여긴 그때 당시 뭐이냐면 구루마. 바레기, 바레기. 바레기렌 헷주.(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 뭐냐면 마차. ‘바레기’, ‘바레기’, ‘바레기’라고 했지.)

- 김보향 바레기. 바레기, 그지이? 그때 말로?(‘바레기’. ‘바레기’, 그렇지? 그때 말로?)
- 송좌길 그때 말로 바레기. 바레기.(그때 말로 ‘바레기’. ‘바레기’.)
- 김보향 바레기에 실러낫어예? 바레기 실르지 안허민 쉐 질메 지웡도 실, 시깟덴 햇잖아?
(마차에 실었었지요? 마차에 싣지 않으면 소 길마 지워서도 싣, 실었다고 했잖아?)
- 송좌길 그럼.(그럼.)
- 김보향 쉐 질메 지울 때 그냥 시끌 거 아니? 여기 뭐, 뭐, 뭐에 담양 질메 시끌 거?(소 길마
지울 대 그냥 실을 거 아니? 여기 뭐, 뭐, 뭐에 담고 길마 실을 거?)
- 송좌길 거 소위 뜻그레, 걸름착이라고 있어. 걸름착.(그거 소위 ‘뜻그레’, ‘걸름착’이라고
있어. ‘걸름착’)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뜻그레, 뜻그레, 뜻그레 시끄는 걸름착.(‘뜻그레’, ‘뜻그레’, ‘뜻그레’ 싣는 ‘걸름착’.)
- 강희선 뜻그레착. 뜻그레착.(‘뜻그레착’. ‘뜻그레착’.)
- 김보향 예, 뜻그레착. 좋수다.(예, ‘뜻그레착’. 좋습니다.)
- 송좌길 걸름착.(‘걸름착’.)
- 김보향 그럼 그게 멱에? 멱 아니꽈예? 멱처럼 생긴 거?(그럼 그게 멱요? 멱 아닙니까?
멱처럼 생긴 거?)
- 송좌길 멱은, 멱이주게. 멱, 멱. 맹탱이. 맹탱이. 맹탱이. 소위.(멱은, 멱이지. 멱, 멱.
망태기. 망태기. 소위.)
- 김보향 맹탱이예. 그거 두 개에 걸름 시꺼?(망태기요. 그거 두 개에 거름 실어서?)
- 송좌길 으. 건.(으. 그건.)
- 김보향 여기에 메을 거? 등에?(여기에 메을 거? 등에?)
- 송좌길 으. 쉐, 쉐 등에 노곡.(으. 소, 소 등에 놓고.)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바레기에는 보통 으숫 개 내지 여덟 개. 아주 쎈 물은 여덟 개 시끄고 경 아녀면
으숫 개베끼 것도 못 시꺼.(마차에는 보통 여섯 개 내지 여덟 개. 아주 쎈 말은 여덟
개 싣고 그렇지 않으면 여섯 개밖에 그것도 못 실어.)
- 김보향 아, 삼춘. 바레기에 시끌 때도 뜻거름착에 담아 놓 시끌 거?(아, 삼춘. 마차에 실을
때도 ‘뜻거름착’에 담아 놓고 실을 거?)
- 송좌길 그렇지. 담아야. (그렇지. 담아야.)
- 김보향 아, 예. 사람이 정 갈 때는?(아, 예. 사람이 지고 갈 때는?)

- 송좌길** 사름이 경 갈 때도 그 뜻그레착에서 지게에 놓 지어야 돼.(사람이 지고 갈 때도 그 '뜻그레착'에서 지게를 놔서 지어야 돼.)
- 김보향** 아, 지게에 놓 젖구나. 예, 예. 뜻걸름착에 놓 지게에 놓 질 거예?(아, 지게를 놓고 졌구나. 예, 예. '뜻걸름착'에 놓고 지게에 놔야 질 거요?)
- 송좌길** 지게에, 지게에 올려 놔 가지고.(지게에, 지게에 올려 놔 가지고.)
- 김보향** 예, 좋수다. 밧디 실렁 갓고 보리 다 갈아수다예. 보리 다 갈양 검질을 매살 거 아니꽈?(예, 좋습니다. 밭에 싣고 갓고 보리 다 갈았습니다. 보리 다 갈고 김을 막아 할 거 아닙니까?)
- 송좌길** 보리왓디 검질메야주.(보리밭 김매야지.)
- 김보향** 예. 보리밧디 검질메겐 허민 뭐로 검질 매수꽈?(예. 보리밭 김매려고 하면 뭐로 김맸습니까?)
- 송좌길** 그때 골갱이.(그때 호미.)
- 김보향** 골갱이.(호미.)
- 강희선** *** 정월에, 정월 나민.(*** 정월에, 정월 되면.)
- 김보향** 정월 나민 맬 거예? 예. 골갱이.(정월 되면 맬 거요? 예. 호미.)
- 강희선** 보리왓디 두불 메야 허는 거라.(보리밭 두벌 매야 하는 거야.)
- 박진향** 두불 매야 웬덴.(두벌 매야 된다고.)
- 김보향** 예, 두불 매야 웬 거. 자, 보리밧디 검질도 맷고 이제 다 커수다. 이젠 비젠 허민 뭐가 필요해?(예, 두벌 매야 될 거. 자, 보리밭 김도 맷고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는 베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 송좌길** 호미.(낫.)
- 김보향** 호미가 필요해예?(낫이 필요해요?)
- 송좌길** 으, 호미, 호미.(으, 낫, 낫.)
- 김보향** 다 저 보리 비어 가지고 다 무껑 경 완예.(다 저 보리 베어 가지고 다 뚫고 지고 왔어요.)
- 송좌길** 무껑, 무껑 그때도 그 저 바리기에, 바레기 빌, 하튼 것도 나중에 바레기 문딱 빌어야 돼, 놈의 거. 다 거 매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뚫고, 뚫고 그때도 그 저 마차에, 마차 빌,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마차 모두 빌려야 돼, 놈의 거. 다 그거 매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 강희선** *** 쉘에 시끄나 물에 시끄나.(*** 소에 싣거나 말에 싣거나.)

- 김보향** 이. 물에 시끄나 쉬에 시끄나 바레기에 시끄나 어쨌든 그거 행 그거 다 집이 경 올 거?(이. 말에 신거나 소에 신거나 마차에 신거나 어쨌든 그거 해서 그거 다 집에 지고 올 거?)
- 송좌길** 집이 와야 뉘.(집에 와야 돼.)
- 김보향** 집이 와야 텔 거.(집에 와야 될 거.)
- 송좌길** 건디 그루후제 훈참 허다가 밧데서.(그런데 그 후에 한참 하다가 밭에서.)
- 강희선** 저 그거 혜영 홀태로 홀탕.(저 그거 해서 훑이로 훑아.)
- 송좌길** 밧, 그.(밭, 그.)
- 강희선** 도께로 두드령.(도리깨로 두드려서.)
- 송좌길** 저 보리는 저 맨 처음 경 허다가 그 집이 그때 당신 집이 전 와.(저 보리는 저 맨 처음 그렇게 하다가 그 집에 그때 당신 집에 지고 와.)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집이 와서 눌 눌어.(집에 와서 가리 가려.)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오면, 오면서 못 허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때 옛날에는 장마가 어떻게 심했는지 보리 비엉 썩엉 데껴 불곡 헌 디가 허다했거든.(오면, 오면서 못 하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때 옛날에는 장마가 어떻게 심했는지 보리 베어서 썩어서 던져 버리고 하는 데가 많았거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겟 그거 오기 전에 보리를 비어 온다고. 장마 오기 전에 지금, 지금 한참 장마 올 땐디 혜당 집에 눌었다가 장마가 거의 끊나, 끊나 갈 때는 그 저 보리 홀트는 보리틀, 보리틀이라고 헤 가지고.(그래서 그거 오기 전에 보리를 베고 온다고. 장마 오기 전에 지금, 지금 한창 장마 올 때인데 하다가 집에 가렸다고 장마가 거의 끊나, 끊나 갈 때는 그 저 보리 훑는 그네, 그네라고 해 가지고.)
- 강희선** 클게.(틀.)
- 김보향** 보리클, 보리틀.(보리 그네, 보리 그네.)
- 송좌길** 보리클. 그게 잊어, 그걸 홀타 가지고.(보리 그네, 그게 있어, 그거 훑아 가지고.)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홀타 놔 가지고 마당에 내놓 도리깨로 다 거 ㅋ스락 털어근에.(훑아 놔 가지고 마당에 내놓고 도리깨로 다 그거 까끄라기 털어서.)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경험.(그랬어.)
- 김보향 두드령예? 도리께로 두드령예?(두드려셔요? 도리깨로 두드려셔요?)
- 강희선 경혜영 불려.(그래서 불러.)
- 김보향 예, 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예. 자, 시꺼 올 때에 보면 그 구루마에도, 아까 바레기에도 시꺼지만 쉐에도 시끌 때 쉐에 질메 하면 훈 멧 바리 정도 시꼽니까?(예, 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예. 자, 실어 올 때에 보면 그 마차에도, 아까 마차에도 실었지만 소에도 실을 때 소에 길마 하면 한 몇 바리 정도 싣습니까?)
- 송좌길 그 보리.
- 김보향 아니, 그러니까 몇, 몇 뭇이 훈 바리꽈?(아니, 그러니까 몇, 몇 뭇이 한 바리입니까?)
- 송좌길 그, 저 보리, 보리 뭇은 훈허게 굵지 안해거든.(그, 저 보리, 보리 뭇은 한없이 굵지 않았거든.)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여덟, 여덟. 훈쪽에 여덟, 열여섯 열으슷 개. 열으슷 개, 잘 시꺼 열으슷 개 못 시꺼와. 열으슷 개 보리 못 시꺼.(여덟, 여덟. 한쪽에 여덟, 열여섯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잘 실어서 열여섯 개 실어와. 열여섯 개 보리 못 실어.)
- 김보향 음. 음.(음. 음.)
- 송좌길 두 개, 두 개, 두 개, 으슷 개. 열두 개.(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개. 열두 개.)
- 김보향 열두 개?(열두 개?)
- 송좌길 양, 훈쪽에 으슷 개씩 열두 개.(양, 한쪽에 여섯 개씩 열두 개.)
- 김보향 열두 개 시꺼 왕예? 그게 훈 바리?(열두 개 실어 왔어요? 그게 한 바리?)
- 송좌길 열두 단. 열두 단.(열두 단. 열두 단.)
- 김보향 열두 단이렌 불러수꽈?(열두 단이라고 불렀습니까?)
- 송좌길 단.(단.)
- 김보향 열두 뭇이렌 불러수꽈?(열두 뭇이라고 불렀습니까?)
- 송좌길 단, 단, 단.(단, 단, 단.)
- 김보향 단, 단. 예.(단, 단. 예.)
- 송좌길 으슷 개는 조. 조는 훈쪽에 세 개씩 으슷 개베끼 못 시꺼.(여섯 개는 조. 조는 한쪽에 세 개씩 여섯 개밖에 못 실어.)
- 김보향 으, 으. 이 이삭 무거워 부난. 고고리 무거워 부난예.(으, 으. 이 이삭 무거우니까.)

- 이삭 무거우니까요.)
- 박진향** 음.(음.)
- 김보향** 시꺼 왕 집이 놀 거 아니?(싣고 와서 집에 가릴 거 아니?)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보리 놀, 놀 놀어 논 다음에 우에 영 더프지 않습니까? 비 들지 말렌?(보리 가리, 가리 가려 놓은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덮지 않습니까? 비 들지 말라고?)
- 송좌길** 작, 저 누람지. 누람지.(작, 저 이엉. 이엉.)
- 김보향** 누람지.(이엉.)
- 송좌길** 누람지 우에는, 주지가 누람지 우에, 우에는 저 주지가 있어야 돼.(이엉 위에는, 주저리가 이엉 위에, 위에는 저 주저리가 있어야 돼.)
- 김보향** 음. 주쟁이렌 헤수꽈? 주지? 음.(음. 주저리라고 했습니까, 주저리? 음.)
- 송좌길** 주쟁이. 주쟁이. 놀이 커도 주지가 으뜸이라고 주쟁이가 있으, 주쟁이 엊으믄 글로 물 들어가 비영 다 썩어 불거든?(주저리. 주저리. 가리가 커도 주저리가 으뜸이라고 주저리가 있으, 주저리가 있으, 주저리가 없으면 그리로 물 들어가 베려서 다 썩어 버렸거든?)
- 김보향** 음, 게믄 삼촌네 다 누람지 만들엉 놔뒀구나.(음, 그럼 삼촌네 다 이엉 만들어서 놔뒀구나.)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주쟁이.(주저리.)
- 송좌길** 누람지도 헛나, 두 개가 아니고 으라 개 있어야 돼어.(이엉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어야 돼.)
- 김보향** 맞아, 맞아.(맞아, 맞아.)
- 송좌길** 거 해당 새, 새 해당 그 누람지 문 여껴근에 다 집이 다 보관 다 했다가.(그거 해다가 새, 새 해다가 그 이엉 모두 엮어서 다 집에 다 보관 다 했다가.)
- 김보향** 예, 보관 다 했당예.(예, 보관 다 했다가요.)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그 경 그 누람지랑 주쟁이 만드는 건 새로 허는 거잖아?(그 그렇게 그 이엉이랑 주저리 만드는 건 새로 하는 거잖아요?)
- 송좌길** 새.(새.)
- 김보향** 그거 미리 다행, 행 놔둡니까?(그거 미리 다 해서, 해서 놔둡니까?)

- 송좌길** 아이, 그건 새는 언제 비느냐? 그 누람지 헛정 허민. 것도 십일월달 뛰야. 십일월달에 비어야 질기주. 겨 아녀민 저 그 새도 익어야 뛰니까.(아아. 그건 새는 언제 베느냐? 그 이영 하려고 하면. 그것도 십일월 되야. 십일월에 베어야 질기지. 그렇지 않으면 저 그 새도 익어야 되니까.)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펴렁헌 때 비우면 삭아 비엉 재기 달아나, 달아 비어. 게난 십이월달 나야 뛰. 동지, 동지가 뛰야, 동지가 뛰야.(파란 때 베면 삭아 버려서 재기 달아나, 달아 베어. 그러니까 십이월 되어야 돼. 동지, 동지가 되어야, 동지가 되어야.)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경해야 새가 노랗게 익어. 게민 그때 비어.(그래야 새가 노랗게 익어. 그럼 그때 베어.)
- 김보향** 게난, 게난 새가 누람지 만드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지붕 일 때도 쓰는 거잖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가 이영 만드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지붕 이을 때도 쓰는 거잖아요?)
- 송좌길** 지붕 일 때도 새로 쓰는 거주.(지붕 이을 때도 새로 쓰는 거지.)
- 김보향** 예, 게난.(예, 그러니까.)
- 송좌길** 것도 마찬가지.(그것도 마찬가지.)
- 김보향** 마찬가지 그것도 다 십일월달에 그때 비는 거?(마찬가지 그것도 다 십일월에 그때 베는 거?)
- 송좌길** 예, 예. 그때 비어야 뛰.(예, 예. 그때 베어야 돼.)
- 김보향** 예, 예. 경행 이제 타작을 하젠 하민 아까 훌트는 거 먼저 골아신디. 밑에 뭐 깔양 헤수꽈?(예, 예. 그래서 이제 타작을 하려고 하면 아까 훌는 거 먼저 말했는데. 밑에 뭐 깔고 했습니까?)
- 송좌길** 안 깔았어. 그때. 땅에. 땅에. 마당, 마당에.(안 깔았어. 그때. 땅에. 땅에. 마당, 마당에.)
- 김보향** 아니.(아니.)
- 김보향** 그냥 마당에서? 먼저 훌타 놓다 훌튼 거 이 집은 치와 텁 여기만 이신 거 그거 가정 두드릴 거?(그냥 마당에서? 먼저 훌아 놓고 다 훌은 거 이 집은 치워 두고 여기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두드릴 거?)
- 송좌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뭐로 두드릴 거?(뭐로 두드릴 거?)
- 송좌길 도께.(도리깨.)
- 김보향 도께로 두드릴 거예. 도께도 보면 낭이 영 잊어예. 아이고, 여기 도께 이실 거우다. 도께도 보면 낭이 영 이신디 이것도 불르는 일름이 잊어예? 영 도께 두드렴지예? 이 어른예? (도리깨로 두드릴 거요. 도리깨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여기 도리깨 있을 겁니다. 도리깨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도리깨 두드리고 있지요? 이 어른요?)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요기, 요기를 뭐렌 부릅니까?(여기,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 송좌길 아이고, 알아지크라?(아이고, 알겠어?)
- 김보향 이거 도께.(이거 도리깨.)
- 강희선 손에 심는 거는.(손에 잡는 거는.)
- 김보향 어시? 도께어시?(도리깻장부? 도리깻장부?)
- 송좌길 으, 도께어시.(어, 도리깻장부.)
- 김보향 예, 도께아덜?(예, 도리깻열?)
- 송좌길 도께아덜.(도리깻열.)
- 강희선 도께아덜.(도리깻열.)
- 김보향 여기 도께톨레.(도리깨꼭지.)
- 송좌길 톨레. 톨레엔 헌 게 그 가운데 잇는 게 그것이 젤 좋으면서도 젤 어, 저 역할을 허는 거주. 그 톨레엔 헌 게.(도리깨꼭지. 도리깨꼭지라고 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게 그것이 제일 좋은면서 제일 어, 저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도리깨꼭지라고 하는 게.)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톨레엔 헌 게 이게 가운데 이 가운데 사이에 놔 가지고 그 톨레가 이걸 꼬와다가 이걸 두 개 안아 가지고 묶어 논 거거든?(도리깨꼭지라고 하는 게 이게 가운데 이 가운데 사이에 놔 가지고 그 도리깨꼭지가 이걸 꼬아다가 이걸 두 개 안아 가지고 무꺼 논 거거든?)
- 김보향 으.(으.)
- 강희선 그거 알아지쿠과?(그거 알겠어요?)
- 송좌길 어?(어?)
- 강희선 이름 몰르크라.(이름 모르겠어.)

- 송좌길** 저 사람 몰라, 몰라. 몰라. 이젠 못허크라. 이젠 멘듦도 못허크라.(저 사람 몰라, 몰라. 몰라. 이제는 못 하겠어. 이젠 만들지도 못하겠어.)
- 김보향** 멘들아나수꽈?(만들었었습니까?)
- 송좌길** 멘들앙 이녁대로 멘들앙 써야주. 그거 다.(만들어서 자기대로 만들어서 써야지. 그거 다.)
- 김보향** 어, 맞아.(어, 맞아.)
- 박진향** 다 만드셨구나?(다 만드셨구나?)
- 송좌길** 어, 걸 다 만들엉 써야주, 그걸 어디 강사 와? 그때는 사 왕, 푸는 게 엇어. 다 이녁대로 만들어야 뛰어.(어, 그걸 다 만들어서 써야지, 그걸 어디 가서 사 와? 그때는 사 와서, 파는 게 없어. 다 자기대로 만들어야 돼.)
- 김보향** 그지예. 다 만들엉 썻지예? 그럼 이것도 무슨 낭이 헤야 좋으켜 허는 거 이시쿠다? (그렇지요. 다 만들어서 썼지요? 그럼 이것도 무슨 나무가 해야 좋겠어 하는 거 있겠습니다?)
- 송좌길** 요건 종낭.(요건 때죽나무.)
- 박진향** 종낭.(때죽나무.)
- 김보향** 도깨어시는 종낭?(도리깻장부는 때죽나무?)
- 송좌길** 종낭.(때죽나무.)
- 김보향** 도깨아들은?(도리깨열은?)
- 송좌길** 도깨아덜은 이것도 소위 그 윤뉴리가 최고주.(도리깨열은 이것도 소위 그 윤뉴리나무가 최고지.)
- 강희선** 윤뉴리.(도리깨열은 이것도 소위 그 윤뉴리나무가 최고지.)
- 송좌길** 윤뉴리가 최고주, 근디 윤뉴리가 어디 서.(윤뉴리나무가 최고지, 그런데 윤뉴리나무가 어디 있어.)
- 김보향** 윤뉴리가 어디 서?(윤뉴리나무가 어디 있어?)
- 송좌길** 윤뉴리 엇이.(윤뉴리나무 없이.)
- 강희선** ** 가운데 찔렁은에 뻥뻥 뚫는 거. 초낭 헤 왕 때왕. 초낭.(** 가운데 찔러서 뻥뻥 뚫는 거. 참나무 하고 와서 때워. 참나무.)
- 김보향** 도깨틀레가 요거 어시랑 아들이랑이 연결해 주는 게 도깨틀레 아니?(도리깨꼭지가 요거 도리깻장부랑 도리깨열이랑 연결해 주는 게 도리깨꼭지 아니?)
- 송좌길** 으, 그거 도깨틀레.(으, 그거 도리깨꼭지.)

- 강희선 그거 츄낭, 츄낭.(그거 참나무, 참나무.)
- 김보향 아, 츄낭이 좋아?(아, 참나무가 좋아?)
- 송좌길 츄낭.(참나무.)
- 강희선 츄낭이 찔기지. 영 데와도.(참나무가 질기지. 이렇게 꼬아도.)
- 김보향 데와져도예?(꼬아도요?)
- 송좌길 불에, 불에 구웡.(불에, 불에 구워서.)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불에 구웡 뻥 허게 거 데우민 저 소위 새끼 꼬왕 영 돌리는 것처럼 돌아, 돌려, 돌아져. 경허난 이걸 돌려근에 이거 두 갤 꼭 물리거든. 물려 부니까.(불에 구워서 뻥 하게 그거 데우면 저 소위 새끼 꼬아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돌아, 돌려,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이거 두 개를 꼭 물리거든. 물리니까.)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물려 가지고 요걸 가운데 담아. 그 저, 저 도께톨레를.(물려 가지고 가운데로 담아. 그 저, 저 도리깨꼭지.)
- 김보향 톨레를 영 물령?(도리깨꼭지를 이렇게 물려서?)
- 송좌길 가운데 담아.(가운데 담아.)
- 강희선 도께톨레.(도리깨꼭지.)
- 김보향 게난 이거 잘 무꺼져야 야이가 잘?(그러니까 이거 잘 뮤여야 얘가 잘?)
- 송좌길 그렇지.(그렇지.)
- 김보향 움직일 거난예?(움직일 거니까요?)
- 송좌길 게난 무끄는 것을 뭘로 무꺼, 뭘로 헷냐?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는 저 비께가 많이 난어. 비께엔 헌 바닷고기.(그러니까 뮤는 것을 뭐로 뮤어, 뭐로 했나?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는 저 ‘비께’가 많이 난어. ‘비께’라고 하는 바닷고기.)
- 김보향 비께는 상어 아니꽈?(‘비께’는 상어 아닙니까?)
- 송좌길 상어, 상어허고 틀려.(상어, 상어하고 달라.)
- 강희선 상어, 상어 아니.(상어, 상어 아니.)
- 김보향 상어 아니?(상어 아니?)
- 송좌길 상어허고 틀려.(상어하고 달라.)
- 강희선 그 비께 다음 상어주.(그 ‘비께’ 다음 상어지.)
- 김보향 아, 비께 다음이 상어?(아, ‘비께’ 다음이 상어?)

- 송좌길** 비께엔 현 게 많이 나신디 그 비께 가죽이 그렇게 질겨, 그거. 가죽으로.(‘비께’라고 하는 게 많이 났는데 그 ‘비께’ 가죽이 그렇게 질겨, 그거. 가죽으로.)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그걸 허단 그거가 엇이난에 그다음에 뭘로 헷냐면은 신사라.(그걸 하다가 그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로 했냐고 하면 뉴질랜드삼.)
- 김보향** 아.(아.)
- 송좌길** 신사라엥 허는 소위.(뉴질랜드삼이라고 하는 소위.)
- 김보향** 알아집니다.(압니다.)
- 송좌길** 저 신사라 표준어로 뭐엔 허더라?(저 ‘신사라’ 표준어로 뭐라고 하더라?)
- 김보향** 어, 뉴질랜드삼. (어, 뉴질랜드삼.)
- 송좌길** 어. 그, 그런 거주. 저거.(어. 그, 그런 거지. 저거.)
- 강희선** 저 신사라도, 거시기.(저 신사라도, 거시기.)
- 김보향** 예. 옛날에 그 망사리 줄 때도 써난 거.(예. 옛날에 그 망사리 결을 때도 썼던 거.)
- 송좌길** 예, 망사리 헐 때.(예, 망사리 할 때.)
- 김보향** 예, 예, 예. 아, 신사라. 아, 그런 것도 써낫구나.(예, 예, 예. 아, 뉴질랜드. 아, 그런 것도 썼었구나.)
- 송좌길** 예.(예.)
- 김보향** 아. 이것도 한 번 만들민 막 오래, 여러 해 씁니까?(아. 이것도 한 번 만들면 아주 오래, 여러 해 씁니까?)
- 송좌길** 아, 이, 이, 이거는 여러 해 쓰지만 그 자꾸 저 이 뭐 도깨톨레가 마가, 망가져근에 뿌리져 불주게. 도망가 불민 건 항상 골아야 돼. 건.(아, 이, 이, 이거는 여러 해 쓰지만 그 자꾸 저 이 뭐 도리깨꼭지가 마가, 망가져서 부러져 버리지. 도망가 버리면 그건 항상 같아야 돼. 그건.)
- 김보향** 아 아.(아, 아.)
- 송좌길** 요거하고 요거는 오래 가는디 가운데 그 툴레는 그거는 자꾸 골아야 돼어.(요거하고 요거는 오래 가는데 가운데 그 도리깨꼭지는 그거는 자꾸 같아야 돼.)
- 김보향** 아.(아.)
- 송좌길** 그걸 무지려정 나가 불주게, 돌아가는 거니까.(그걸 무질러서 나가 버리지, 돌아가는 거니까.)
- 김보향** 맞수다. 영 영 움직여 가민.(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면.)

- 박진향** 그래.(그래.)
- 송좌길** 돌아가니까 무지러정 도망가 불어.(돌아가니까 무질러져서 도망가 버려.)
- 김보향** 무지러정 도망가 불어. 그건 글아 주명 쓰는 거.(무질러져서 도망가 버려. 그건 갈아 주면서 쓰는 거.)
- 김보향** 예, 이제 테작을 영 다 두드려야. 도께로예.(예, 이제 타작을 이렇게 다 두드려서. 도리까요.)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도께로 두드리면 이젠 영 해야 될 거 아니?(도리깨로 두드리면 이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
- 송좌길** 불리는 거?(불리는 거?)
- 김보향** 불리는 거.(불리는 거.)
- 박진향** 아, 기억난다. 할머니 했던 거 기억난다.(아, 기억난다. 할머니 했던 거 기억난다.)
- 강희선** 솔박으로 불리는 거.(‘솔박’으로 불리는 거.)
- 김보향** 예, 예. 불리젠 허난 솔박이 있어야 돼고.(예, 예. 불리려고 하니까 ‘솔박’이 있어야 되고.)
- 송좌길** 솔박.(‘솔박’.)
- 김보향** 그때도 바닥에 핍니까? 뭐 꿀어야지 않읍니까?(그때도 바닥에 핍니까? 뭐 깔아야지 않습니까?)
- 강희선** 명석, 명석 꿀앙.(명석, 명석 깔아서.)
- 송좌길** 명석.(명석.)
- 김보향** 예, 예. 좋수다. 명석 꿀앙예, 명석 꿀앙 영 불릴 거.(예, 예. 좋습니다. 명석 깔고요, 명석 깔고 이렇게 불릴 거.)
- 강희선** 것도 부름 있는 디레 해 가사. 부름 엇인 디서는 안 돼고 부름코지에 가사.(그것도 바람 있는 데에 해 가야. 바람 없는 데서는 안 되고 바람받이에 가야.)
- 김보향** 음. 부름코지에.(음. 바람받이에.)
- 송좌길** 나, 나가 아니 이렇게 막아져 불면은 부름이 안 들어오니까 널쁜 데 가야지. 허영차허게시리.(나, 내가 아니 이렇게 막혀 버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넓은 데 가야지. ‘허영차허게시리’.)
- 김보향** 음.(음.)
- 송좌길** 이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빈자리 가야지.(이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빈자리 가야지.)

김보향 그만 보리 장만할 때도 요것도 필요합니까?(그럼 보리 장만할 때도 요것도 필요합니까?)

송좌길 그렇주.(그렇지.)

강희선 건 얼멩이.(그건 어레미.)

김보향 으, 얼멩이도 필요해?(으, 어레미도 필요해?)

송좌길 거 필요허주.(그거 필요하지.)

강희선 거 엇이민 그 엉걸은 거.(그거 없으면 그 성긴 거.)

김보향 음.(음.)

강희선 못 치지.(못 치지.)

김보향 계난 그 얼멩이 종류에도예, 얼멩이가 싫곡. 이제 뚱그랑행?(그러니까 그 어레미 종류에도요, 어레미가 있고. 이제 동그래서?)

송좌길 체, 대체.(체, 대체.)

강희선 건 대체. 보리쌀 쳐 먹는 거.(그건 대체. 보리쌀 쳐서 먹는 거.)

김보향 음. 자, 삼춘 큰 거서부터 골아 줍서. 얼멩이 잇고, 대체 잇고, 그다음?(음. 자, 삼춘 큰 것에서부터 말해 주세요. 어레미 있고, 대체 있고, 그다음?)

송좌길 대체 잇고. 중체.(대체 있고. 중체.)

강희선 중체 잇고. 저.(중체 있고. 저.)

송좌길 소체. 소체게.(소체. 소체.)

강희선 저, 가는체. 중체가 어디 서?(저, 가는체. 중체가 어디 있어?)

송좌길 가는체가 소체주게.(가는체가 소체지.)

강희선 가는체가 제일.(가는체가 제일.)

송좌길 좀진 거.(자잘한 거.)

강희선 좀진 거.(자잘한 거.)

김보향 거름체렌은 안 골아수꽈?(‘거름체’라고는 안 말했습니까?)

강희선 거름체엔 골앗지.(‘거름체’라고 말했지.)

김보향 음.(음.)

송좌길 대체, 거름체게.(‘대체’, ‘거름체’)

김보향 아니, 자, 부르쿠다예. 제가예. 제가 골으쿠다예. 싸우지 맙서예.(아니, 자, 부르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 강희선 싸움은 뛰사.(싸움은 뭐인지.)
- 김보향 얼멩이.(어레미.)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대체.(‘대체’.)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대거름체.(‘대거름체’.)
- 강희선 으.(으.)
- 김보향 거름체.(‘거름체’.)
- 강희선 으.(으.)
- 김보향 ㅋ는체.(‘ㅋ는체’.)
- 송좌길 ㅋ는체.(‘ㅋ는체’.)
- 김보향 예. ㅋ는체가 ㅋ루에 치는 거예?(예. ‘가는체’가 가루를 치는 거요?)
- 송좌길 ㅋ루 치는 거.(가루 치는 거.)
- 김보향 예, 예. 어, 거름체는 쪼금 어.(예, 예. 어, ‘거름체’는 조금 어.)
- 강희선 얹은 거.(얽는 거.)
- 김보향 얹은 거 치는 거예?(얽은 거, 치는 거요?)
- 송좌길 야, 멧 시에 온덴?(야, 몇 시에 온다고?)
- 이 웃 이제 십오 분.(이제 십오 분.)
- 김보향 아, 이제 누구 올 거구나. 우리 십오 분만 더 허쿠다예. 쉬 허는 건 못 허켜. 예. 그만 그거 체 있고.(아, 이제 누구 올 겁니다. 우리 십오 분만 더 하겠습니다. 소 하는 건 못 하겠어. 예. 그럼 그거 체 있고.)
- 송좌길 음.(음.)
- 김보향 어, 얼멩이는 체랑 좀 튼나지 안해수꽈? 옛날에?(어, 어레미는 체와 조금 다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 송좌길 얼멩이?(어레미?)
- 김보향 으, 얼멩이.(으, 어레미.)
- 송좌길 얼멩이는 대로 헤, 대.(어레미는 대로 해, 대.)
- 김보향 그지예?(그렇지요?)
- 송좌길 대, 대, 대.(대, 대, 대.)
- 김보향 이건 얼멩이라.(이건 어레미야.)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이건 대로 멘든 거.(이건 대로 만든 거.)
- 송좌길** 대로.(대로.)
- 강희선** 대얼멩이.(대어레미.)
- 김보향** 으. 이건 체.(으. 이건 체.)
- 송좌길** 체, 건 물, 총. 총.(체, 그건 말, 총. 총.)
- 강희선** 총 저, 물총.(총 저, 말총.)
- 김보향** 물총.(말총.)
- 박진향** 아, 물총으로?(아, 말총으로?)
- 송좌길** 물, 물꼴리.(말, 말꼬리.)
- 김보향** 삼춘도 이런 체 물꼴리 낳 만든 체를 써나수꽈?(삼춘도 이런 체 말꼬리 놔서 만든 체를 썼었습니까?)
- 강희선** 썻주게. 그거 안 썽.(썼지. 그거 안 쓰고.)
- 김보향** 우리는 거의 다 요즘은 다 나이론으로 웬 것들 쓰지 않으면예?(우리는 거의 다 요즘은 다 나일론으로 된 것들 쓰지 않아?)
- 강희선** 음.(음.)
- 송좌길** 요새도 이런 거 있어? 나이롱으로 있어?(요새도 이런 거 있어? 나이론으로 있어?)
- 강희선** 나이롱 체 잇주게. 요새는 얼, 거시기.(나일론 체 있지. 요새는 얼, 거시기.)
- 김보향** 이제는 물총 아니라. 물총 구하기 어려워.(이제는 말총 아니야. 말총 구하기 어려워.)
- 강희선** 으. 엊어.(으. 없어.)
- 김보향** 엊어.(없어.)
- 강희선** 그는체도 저 거시기 그 나이롱 체.(‘그는체’도 저 거시기 그 나이론 체.)
- 김보향** 나이롱 체. 그는체도.(나일론 체. ‘가는체’도.)
- 강희선** 경현디 나이롱 체는 잘 치진 못해. 그루. 저.(그런데 나이론 체는 잘 치지는 못해. 가루. 저.)
- 송좌길** 부터? 부떠 불지?(붙어? 붙어 버리지?)
- 강희선** 그디 엉켜져.(거기 엉겨서.)
- 송좌길** 부터 벤주게.(붙어 버리지.)
- 김보향** 부떠 불어.(붙어 버려.)

- 강희선 물총으로 헌 거는 살살살살 나오주만은.(말총으로 하는 거는 살살살살 나오지만.)
- 송좌길 어이구, 이거 이거 어디 간 영 찍어 왔어? 어디라? 찍은 디가, 이거?(아이구,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찍어 왔어? 어디야? 찍은 데가, 이거?)
- 김보향 이거, 이거 저 신예리 강 찍었수다. 영 아직도 보관하고 이수께. 이 사람네예.(이거, 이거 저 신례리 가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네요.)
- 강희선 예, 신예리 그거 둔敦헌 사름덜이여. 그거 문.(에, 신례리 그거 단단한 사람들이야. 그거 모두.)
- 김보향 (웃음)
- 강희선 우리 집이도 엇인 거 엇인 헤나신디.(우리 집에도 없는 거 없이 했었는데.)
- 송좌길 다 데껴 불언.(다 던져 버렸어.)
- 강희선 불 솔양 데껴 벗주. 나도 엊어.(불 때고 던져 버렸지. 나도 없어.)
- 김보향 기지예? 둔敦헌 사람이지예.(그렇지요? 단단한 사람이지요.)
- 김보향 여기, 여기 엇인가? 이 동네는?(여기, 여기 없을까? 이 동네는?)
- 송좌길 이거?(이거?)
- 강희선 가마리 이신 디 엊어.(세화리 있는 데 없어.)
- 송좌길 몇 집이 엇엉 우리 집이 시민 우리 집이 만날 빌리레 돌아오곡. 체 다 빌리레 오곡.(몇 집에 없어서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에 만날 빌리러 달려오고. 체 다 빌리러 오고.)
- 김보향 아, 아. 무사 체털은 다 집집마다 갖추는 거 아니?(아, 아. 왜 체들은 다 집집마다 갖추는 거 아니?)
- 송좌길 에이고, 엇이민 뭐 다 빌레 와. 빌레. 빌레덜.(에이고, 없으면 뭐 다 빌리리 와. 빌리러. 빌리러들.)
- 강희선 야, 집집마다 허젠 허민 옛날에 돈 서사 사느네게.(야, 집집마다 하려고 하면 옛날에 돈 있어야 사지.)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그거 얼마 빚나는 건 중 아느니.(그거 얼마 비싼 건 줄 아니.)
-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 강희선 경허난 돈 엇이민 못 사고.(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사고.)
-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 강희선 우린 보리 헤영.(우리는 보리 해서.)

- | | |
|-----|--|
| 김보향 | 이건 뭐?(이건 뭐?) |
| 송좌길 | 이거 푸는체.(이거 키.) |
| 강희선 | 백 가맹이. 이백 가맹이.(백 가마니. 이백 가마니.) |
| 송좌길 | 키엔 허지 안해여? 육지서 키엔 허지 안해여?(키라고 하지 않아? 육지에서 키라고 하지 않아?) |
| 김보향 | 키엔 불르면 안 뛰고 우린 푸는체렌 곤게예.(키라고 부르면 안 되고 우리는 '푸는체'라고 말하고요.) |
| 송좌길 | 푸는체, 푸는체.(‘푸는체’, 키.) |
| 김보향 | 푸는체는 뭐 헐 때 써수꽈?(키는 뭐 할 때 썼습니까?) |
| 송좌길 | 그것 저.(그것 저.) |
| 강희선 | 보리쌀도 치곡.(보리쌀도 치고.) |
| 송좌길 | 푸곡. 체 불리는 거게.(까부르고. 키 불리는 거.) |
| 강희선 | 저 무물, 무물 거媪두 거 골, 저 안 골아진 거, 골아진 거, 검펴진 거 그거 분별허겄 허민 그거.(저 메밀, 메밀 거피는 것도 말, 저 안 갈린 거, 갈린 거 거피한 거, 안 거피한 거 그거 분별하려고 하면 그거.) |
| 김보향 | 음, 음, 예.(음, 음, 예.) |
| 강희선 | 대체, 거름체도 다 그 무물 헐 때에 분별허겄.(‘대체’, ‘거름체’도 다 그 메밀 할 때 분별하려고.) |
| 김보향 | 으, 분별허겄예.(으, 분별하려고요.) |
| 강희선 | 저, 밀, 밀도, 밀 간 것도 저거 앗앙 밀도 갈민 수제비 해 먹겄. 옛날 저베기.(저, 밀, 밀도 밀 간 것도 저거 가지고 밀도 갈면 수제비 해 먹으려고. 옛날 수제비.) |
| 김보향 | 예, 예.(예, 예.) |
| 송좌길 | 마 치민 요 저베기나 허라, 먹게. 저 늙은 부모들 이시민.(장마가 되면 요 수제비나 해라, 먹게. 저 늙은 부모들 있으면.) |
| 김보향 | 예.(예.) |
| 강희선 | 재차 그거 곧주.(재차 그거 말하지.) |
| 김보향 | 으.(으.) |
| 강희선 | 아이고, 거 밀 골앙 ㅎ썰 저베기나 허라. 배설 노릇허게 먹게.(아이고, 그거 밀 갈아서 조금 수제비나 해라. 배설 노릇하게 먹게.) |
| 박진향 | (웃음). |

- 강희선 옛날은 저 먹을 게 엇으니까.(옛날은 저 먹을 게 없으니까.)
- 김보향 맞아. 바당에 강 뭐 잡아당 놔야 뛰지 않을 거?(맞아. 바다에 가서 뭐 잡아다가 넣어야 되지 않을 거?)
- 강희선 아이고. 그거는 배불름 세상에 온, 온 후제고.(아이고. 그거는 배부르는 세상에 온, 온 후이고.)
- 김보향 아, 예.(아, 예.)
- 강희선 배 골를 때는 그거는 그자 저 장물이나 놓곡 그거 해영 먹었주.(배 꽂을 때는 그거는 그저 저 간장이나 넣고 그거 해서 먹었지.)
- 김보향 아, 예.(아, 예.)
- 송좌길 어디 저, 에이구.(어디 저, 어이구.)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애기덜아.(아기들아.)
- 김보향 삼춘.(삼촌.)
- 강희선 나는, 나는.(나는, 나는.)
- 김보향 이거 우리 가믄 에고, 이 설룬애기야. (웃음) (이거 우리 가면 에이고, 이 '설룬애기'야.)
- 강희선 난 저 씨부모를.(난 저 시부모를.)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우리 씨아바님을 백스물 나도록.(우리 시아버지를 백스물 되도록.)
- 송좌길 말 잘 골읍서게. 백스물이?(말 잘 말하세요. 백스물이?)
- 이 웃 백스물 나도록 살안.(백스물 되도록 살았어.)
- 김보향 아, 진짜?(아, 진짜?)
- 이 웃 아부지 모셨주, 그렇게.(아버지 모셨지, 그렇게.)
- 송좌길 백스물도 거, 거짓말하민.(백스물도 그거, 거짓말하면.)
- 김보향 아드님이시꽈?(아드님이십니까?)
- 강희선 백스물, 아니.(백스물, 아니.)
- 송좌길 아니, 아니.(아니, 아니.)
- 이 웃 옆집, 옆집.(옆집, 옆집.)
- 송좌길 아버지가 우리 백, 백.(아버지가 우리 백, 백.)
- 김보향 예 예. 이거 하던 거 쪼끔만 더 하쿠다예.(예, 예. 이거 하던 거 조금만 더 하겠어요.)
- 강희선 백둘. 백둘.(백둘. 백둘.)

- 김보향 우리 이 도리께, 도리께. 장만 다 해수다예. 보리, 보리 다 불련예.(우리 이 도리께, 도리께. 장만 다 했어요. 보리, 보리 다 불렀어요.)
- 강희선 음.(음.)
- 김보향 이 보리를 테작 다 행 불려 놓, 밥해 먹젠 허민?(이 보리를 타작 다 해서 불려 놓고, 밥해 먹으려고 하면?)
- 송좌길 뒷에 담았느냐?(뭐에 담았느냐?)
- 김보향 아니, 어. 뭐, 뒷에 담아수꽈? 타작한 거 뒷에 담아수꽈?(아니, 어. 뭐, 뭐에 담았습니까? 타작한 거 뭐에 담았습니까?)
- 송좌길 맹텅이.(망태기.)
- 김보향 맹텅이에 담아 낸예? 일단예.(망태기에 담아 놓고요? 일단요.)
- 강희선 맹텅이. 가맹이.(망태기. 가마니.)
- 김보향 으, 삼춘.(으, 삼촌.)
- 강희선 그루후제는.(그 후에는.)
- 김보향 일 년 밥해 먹젠 허민 그 맹텅이에 얼마나를 해 놔야 웹니까? 일 년 식구들 먹엉 살젠 허민 보리들.(일 년 밥해 먹으려고 하면 그 망태기에 얼마나를 해 놔야 됩니까? 일 년 식구들 먹고 살려고 하면 보리들.)
- 송좌길 아아, 일 년 식구들 먹어나쟁 허민. 그 식구에 따랑 하겠지만 혼 사람, 혼 사람 글쎄 얼마나를, 얼마를 혈까?(아아, 일 년 식구들 먹으려고 하면 그 식구에 따라 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글쎄 얼마나를, 얼마를 할까?)
- 강희선 요 애기덜아, 식구덜 먹을 게 있느냐게?(요 아기들아, 식구들 먹을 게 있니?)
- 김보향 있느냐게.(있니.).
- 강희선 보리 갈양 혼 철 여름 나도록 저 먹곡.(보리 같아서 한 철 여름 되도록 저 먹고.)
- 김보향 음.(음.)
- 강희선 또 조 불려근에 보리쌀 나도록 먹곡 경행 살았주.(또 조 파종해서 보리쌀 나도록 먹고 그렇게 살았지.)
- 김보향 음.(음.)
- 강희선 요 애기들아. 혼 번 현 농시로 일 년 먹어져시냐?(요 아기들아. 한 번 한 농사로 일 년 먹을 수 있니?)
-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 강희선 아이고, 경허믄 그 순간에 짖는 사름은 짖국.(아이고, 그러면 그 순간에 짖는

사람은 짖고.)

- 김보향 삼촌, 이제 보리쌀 멍텅이에 담은 거 밥해 먹젠 허민 골양 와야 헐 거 아니라예?
어디 강 골양 올 거꽈?(삼촌, 이제 보리쌀 망태기에 담은 거 밥해 먹으려고 하면
갈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갈고 올 겁니까?)
- 송좌길 그땐 옛날 물고랑이엔 헌 거 있어, 물고랑.(그때는 옛날 연자매라고 하는 거 있어,
연자매.)
- 강희선 물고랑이 있어, 영 밀리는 물고랑. 그것에 혜영.(연자매가 있어, 이렇게 미는
연자매. 그것에 해서.)
- 김보향 물고랑, 물고랑 강 ㅋ는 걸 골아 봅서. 이젠 어떻 헐 거꽈? 골젠 허민.(연자매,
연자매 가서 가는 거 말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갈려고 하면.)
- 송좌길 그 물고랑 ㅋ는 건.(그 연자매 가는 건.)
- 강희선 물고랑 행 골민.(연자매 해서 갈면.)
- 송좌길 보리, 보리를.(보리, 보리를.)
- 강희선 요 물 비왕 커. 컹 영 보민 혼닥하게 ㅈ물어. 경 허민 그 돌방에, 돌 ㅋ레 신드레
그레 놓앙. 둘, 영 메영 등기는 사람 이디서 밀리는 사름 행 ㅎ수 사름도 들 때, ㅎ수
사름 들민 궤롭곡.(요 물 부어서 담가. 담가서 이렇게 보면 흥건하게 담가. 그렇게
하면 그 돌방아, 맷돌 있는 데 그리 놓고. 둘, 이렇게 매서 당기는 사람 여기서 미는
사람 해서 여섯 사람도 들 때, 여섯 사람 들면 괴롭고.)
- 김보향 음.(음.)
- 강희선 네 사름만 골젠 허민 땀 낭 못 골곡.(네 사람만 갈려고 하면 땀 나서 못 갈고.)
- 김보향 아, 아.(아, 아.)
- 강희선 저, ㅎ수 사름 혜영 베 메영 멘 등기는 사름, 이디서 둘리 밀리는 사름, 경허민
양편이난 ㅎ수 사름 들주. 경행 허곡. 물도 메왕 골젠 허민 물이 하늘만쓱.(저 여섯
사람 해서 바 매서 당기는 사람, 여기서 둘이 미는 사람, 그러면 양편이니까 여섯
사람 들지. 그렇게 하고. 말도 메워서 갈려고 하면 말이 하늘만큼.)
- 김보향 들러켜.(날뛰어.)
- 박진향 아, 들러켜.(아, 날뛰어.)
- 강희선 아니 혜난 물은 경허.(안 했던 말은 그래.)
- 송좌길 아니, 거 물 ㅋ르치지 안현 물은 못 허주게.(아니, 그 말 가르치지 않은 말 못 하지.)
- 강희선 사뭇 좋은 물은 졸 졸 졸 허민 들레영 헌 건, 이건 두 번차라. 한걸헐 때, ㅎ쓸.

- (사뭇 좋은 말은 졸 졸 졸 졸 하면 달래서 하는 건, 이건 두 번째야. 한가할 때.
조금.)
- 김보향** 아아.(아아.)
- 강희선** 두 번차 나온 때. 그거 어이구, 옛날, 옛날 사는 게.(두 번째 나온 때. 그거 어이구, 옛날, 옛날 사는 게.)
- 김보향** 게민 물방에 강 그거 흔 번 골양 오젠 허민 막 사람 여러 사람 들어살 거구나.(그러면
연자매 가서 그거 한 번 갈고 오려고 하면 아주 여러 사람 들었을 거구나.)
- 강희선** 추례로.(차례로.)
- 송좌길** 아, 게난 이녁 식구들만 허는디.(아,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만 하는데.)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저것도 그때는 그 흔 부락에 그 물, 저 물고랑이.(저것도 그때는 한 부락에 그 말,
저 연자매.)
- 강희선** 두 개, 세 개 베끼 엊억주.(두 개, 세 개밖에 없었지.)
- 송좌길** 두 개, 세 개 그 정도베끼 없으니까.(두 개, 세 개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 강희선** 게민 웃둥네, 알둥네.(그럼 웃동네, 아랫동네.)
- 송좌길** 강.(가서.)
- 박진향** 기다렸구나.(기다렸구나.)
- 송좌길** 순, 순번 추례를 기다려야 뛰주게.(순, 순번 차례를 기다려야 되지.)
- 강희선** 요 솔박 가정 강 이디 강 재기 골젠 허민 먼저 강 영 어폐.(요 '솔박' 가지고 가서
여기 가서 빨리 갈려고 하면 먼저 가서 이렇게 엎어.)
- 김보향** 음.(음.)
- 강희선** 경허난 솔박 어프는 대로 순서대로.(그러니까 '솔박' 엎는 대로 순서대로.)
- 김보향** 나가 골고 시프면 나가 강 솔박 강 놓, 놓는 거라예?(내가 갈고 싶으면 내가 가서
'솔박' 가서 놓고, 놓는 거지요?)
- 강희선** 먼저.(먼저.)
- 김보향** 먼저.(먼저.)
- 박진향** 선점 행인에.(선점 해서.)
- 김보향** 나 헐 거. 그다음, 그다음 사람 솔박을 노면 그다음 헐 거?(나 할 거. 그다음,
그다음 사람 '솔박'을 놓으면 그다음 할 거?)
- 송좌길** 아니. 건 이 사람 혜 불면 그다음은 어플 게 아니고 다 뒤에 와서 기다려야 뛰는

거주계.(아니. 그건 이 사람 해 버리면 그다음은 엎을 게 아니고 다 뒤에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김보향 아, 아.(아, 아.)

강희선 아이, 솔박 여라 개 어평 놔둬.(아이, '솔박' 여러 개 엎어 놔둬.)

김보향 예, 예, 예.(예, 예, 예.)

강희선 그건 할아방 아이 헤 본 소리주.(그건 할아버지(남편) 안 해 본 소리지.)

김보향 게민 정 골기 시작허민 보리 아까 물 컷당? 거기 올려방?(그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보리 아까 물 담갔다가? 거기 올려놔서?)

강희선 그 물.(그 물.)

송좌길 소위 즐누는 거주. 즐눌아근에 그거 방아, 저 물고랑에 앗당.(소위 무르는 거지. 물러서 그거 방아, 저 연자매에 가져다가.)

강희선 대구덕에 건정.(대바구니에 건져서.)

송좌길 담아 놓.(담아 놓고.)

강희선 대구덕에.(대바구니에.)

송좌길 것도 두불 골아야 뛰어. 두불. 혼 번에 안 뛰어.(그것도 두별 같아야 돼. 두별. 한 번에 안 돼.)

김보향 한 번 골앙?(한 번 같아서?)

송좌길 와근에.(와서.)

강희선 따시 오랑 물류왕.(다시 와서 말려서.)

송좌길 또 물류왕.(또 말려서.)

박진향 아, 또?(아, 또?)

김보향 불령?(불려서?)

강희선 불려근에 또 그레에 강 골앙. 경허민 그 두불 골두록 지둘리지느냐? 또 그거 흐쓸 거페근에 밥도 해영 먹곡. 영 행 살았주, 옛날 사람.(불려서 또 맷돌에 가서 같아서. 그러면 그 두별 같도록 기다리느냐? 또 그거 조금 거피해서 밥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살았지, 옛날 사람.)

김보향 두불 골아왕 다시 집에 왕 다시 거필 거라예?(두별 같아와서 다시 집에 와서 다시 거피할 거지요?)

송좌길 음.(음.)

김보향 집에 왕 거피젠 허민 뒷에 거펴야 될 거?(집에 와서 거피하려고 하면 뒷에 거피

해야 될 거?)

송좌길 그레에. 그레에.(맷돌에. 맷돌에.)

김보향 그레예.(맷돌요.)

강희선 이여 그레.(‘이여 그레’.)

김보향 진짜 족은 그레예?(진짜 작은 맷돌요?)

송좌길 그레, 그레.(맷돌, 맷돌.)

박진향 그레에 거필 거.(맷돌에 거피할 거.)

강희선 (노래) 이여 그레, 이여 그레.(‘이여 그레’, ‘이여 그레’.)

김보향 오, 예.(오, 예.)

강희선 (웃음).

김보향 거, 그레 골 때 노래 불러수꽈?(그거, 맷돌 갈 때 노래 불렀습니까?)

강희선 어, 이여 그레. 으.(어, ‘이여 그레’. 으.)

김보향 이여 그레 허멍 노래 불런? 게민 이제 그거 그레 골양 이제 체로 칠 거예? 체로 청?

‘이여 그레’ 하면서 노래 불렀어? 그럼 이제 그거 맷돌 같아서 이제 체로 칠 거요?
체로 쳐서?)

강희선 체로 청 대체로.(체로 쳐서 대체로.)

김보향 대체로.(대체로.)

강희선 대체로 청 아래 난 건 밥 해영 먹곡.(대체로 쳐서 아래 난 건 밥 해서 먹고.)

김보향 음.(음.)

송좌길 또 두루 골아지만 또시 두루 골아진 거 훊은 거 아니라게.(또 두루
갈린 거 굽은 거 아니야.)

김보향 음.(음.)

송좌길 훊은 거난 또 골아사.(굽은 거니까 또 같아야.)

김보향 음.(음.)

강희선 또 거펴사.(또 거피해야.)

김보향 또 거펴사.(또 거피해야.)

강희선 그는 게 아니고 거피는 거엥 허주.(가는 게 아니고 거피하는 거라고 하지.)

김보향 맞수다. 거피는 거라.(맞습니다. 거피하는 거야.)

강희선 으. 거피는 거라.(으. 거피하는 거야.)

김보향 거 거피는 게 뭐꽈? 그 우리 껍질은 벗겨 온 거라.(그거 거피는 게 뭡니까? 그 우리

- 껍질은 벗겨 온 거야.)
- 송좌길** 음, 음. 알맹이.(음, 음. 알맹이.)
- 김보향** 음, 알맹이. 이제 그럼 보리쌀이 나왔어예.(음, 알맹이. 이제 그럼 보리쌀이 나왔어요.)
- 송좌길** 음.(음.)
- 김보향** 지금이야 이거 통보리를 그냥 밥솥에 놓 밥해 먹는 거지만.(지금이야 이거 통보리를 그냥 밥솥에 넣어서 밥해 먹는 거지만.)
- 강희선** 음, 음, 음.(음, 음, 음.)
- 김보향** 옛날에는 보리쌀이 이거 놓으면 안 익어.(옛날에는 보리쌀이 이거 넣으면 안 익어.)
- 강희선** 두 개 벌려.(두 개 쪼개서.)
- 김보향** 거난.(그러니까.)
- 송좌길** 그걸 쪼개는 거주게.(그걸 쪼개는 거지.)
- 김보향** 쪼개는 걸 거핀덴 허는 거?(쪼개는 걸 거피한다고 하는 거?)
- 송좌길** 쪼개는 걸 거피는 거주.(쪼개는 걸 거피하는 거지.)
- 강희선** 아니, 아니고.(아니, 아니고.)
- 이 웃** 납작보리쌀이렌 허지 안허여?(납작보리쌀이라고 하지 않아?)
- 강희선** 납작보리쌀은 그건 누뜨리는 거.(납작보리쌀은 그건 누르는 거.)
- 김보향** 나중에, 나중에 온 거. 기계로.(나중에, 나중에 온 거. 기계로.)
- 강희선** 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그건 배부른 세상이여.(나중에 그런 건 나중에 그건 배부른 세상이야.)
- 김보향** 맞아.(맞아.)
- 강희선** 납작보리쌀 멘들어당 먹을 때.(납작보리쌀 만들어다가 먹을 때.)
- 송좌길** 게난 그것이 끈나 가지고 정미소가 생겨 가니까, 생기니까.(그러니까 그것이 끈나 가지고 정미소가 생겨 가니까, 생기니까.)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건 배부른 세상이여.(그건 배부른 세상이야.)
- 송좌길** 정미소 가근에 보리도 골곡 거기서 쪼개도 허곡 허니까 이젠 편안해 왓주.(정미소 가서 보리도 갈고 거기서 쪼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젠 편안해 왔지.)
- 강희선** 누뜨려 Ͳ렌 허민 누뜨려 주곡. 쪼개 Ͳ렌 허민 쪼개, 거펴 주곡.(눌러 달라고 하면 눌러 주고. 쪼개 달라고 하면 쪼개, 거피해 주고.)

- 박진향** 쪼개 주곡.(쪼개 주고.)
- 김보향** 삼춘, 계난 정미소 생긴 게, 언제 생긴 거 가트꽈?(삼춘, 그러니까 정미소 생긴 게, 언제 생긴 거 같습니까?)
- 송좌길** 정미소 생긴 건딘 거 오랫어.(정미소 생긴 지 그거 오랬어.)
- 강희선** 저 군인, 군인 간 오란에.(저 군인, 군인 가서 와서.)
- 송좌길** 아니, 아니.(아니, 아니.)
- 강희선** 우리.(우리.)
- 송좌길** 정미소를. 정미소 생긴 건디가 말이야. 나가 여덟 술에 생긴 걸 알아.(정미소를. 정미소 생긴 지가 말이야. 내가 여덟 살에 생긴 걸 알아.)
- 김보향** 예?(예?)
- 송좌길** 여덟 살에 정미소 생겼어.(여덟 살에 정미소 생겼어.)
- 김보향** 여덟 살에 정미소 생겼마씨?(여덟 살에 정미소 생겼어요?)
- 송좌길** 가시리에.(가시리에.)
- 김보향** 그거 정미소엔 골아수꽈? 그때는 뭐렌 불러수꽈?(그거 정미소라고 말했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 이 웃** 기겟방인가?(‘기겟방’인가?)
- 강희선** 기겟방.(기계방아.)
- 송좌길** 기겟방, 기겟방.(‘기겟방’, 기계방아.)
- 송좌길** 그 가시리에 가민 그 양반 이름이 ○○, ○○○인가. 그걸 기억난다고. 그 양반이 가시리서 젤 먼저 기겟방을, 정미소를 헷어. 기겟방을.(그 가시리에 가면 그 양반 이름이 오용, 오용진인가. 그걸 기억난다고. 그 양반이 가시리에서 제일 먼저 기계방아를, 정미소를 헷어. 기계방아를.)
- 김보향** 삼춘 여덟 살에?(삼춘 여덟 살에?)
- 송좌길** 나 여덟 술에 기억이 난다고.(나 여덟 살에 기억이 난다고.)
- 강희선** 폐선이가 먼저 헷주.(표선리가 먼저 했지.)
- 송좌길** 아니게.(아니.)
- 강희선** 요 저, 한칩이.(요 저, 한씨 집안.)
- 김보향** 삼춘 여덟 살이민 삼춘 육이오 전쟁 전이우다.(삼춘 여덟 살이면 삼춘 육이오 전쟁 전입니다.)
- 송좌길** 육이오 전쟁 아, 아. 직전, 직전. 제주도에 사삼사건 나기 직전.(육이오 전쟁 아, 아.)

- 직전, 직전. 제주도에 사삼사건 나기 직전.)
- 김보향** 직전에? 어.(직전에? 어.)
- 송좌길** 그때 잊었어.(그때 있었어.)
- 김보향** 그때 기겟방 잊었어?(그때 기계방아 있었어?)
- 강희선** 기겟방 잊었어.(기계방아 있었어.)
- 송좌길** 기겟방 그 가시리에 흥나 잊었어. 그 기억이 나.(기계방아 그 가시리에 하나 있었어. 그 기억이 나.)
- 김보향** 세화리선 언제?(세화리에서는 언제?)
- 송좌길** 세화리는, 세화리는. 세화리는 우리 동네.(세화리는, 세화리는. 세화리는 우리 동네.)
- 강희선** 세화리는 맨 마끗데고. 폐선이 골레 가주, 폐선이.(세화리는 맨 끝이고. 표선에 갈려 가지, 표선.)
- 송좌길** 폐선이 저 신흥리 그 구루마 시꺼 아정 그디 골레 가왓주게. 이디선 못 허니까.(표선리 저 신흥리 그 마차 실어 가지고 거기 갈리 갔다 왔지. 여기서는 못 하니까.)
- 김보향** 음.(음.)
- 강희선** 구루마 시꺼 구루마 신 사름은 구루마에. 경 아년 사름은 쪘 아정 가.(마차 실어서 마차 있는 사람은 마차. 그렇지 않은 사람은 쪘 가지고 가.)
- 김보향** 음. 쪘 아정 강예.(음. 쪘 가지고 갔어요.)
- 강희선** 쪘 아정 강 그디 강은에 물 쟁 그는 거주. 그게.(舛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물 담갔다가 가는 거지. 그게.)
- 김보향** 기겟방, 기겟방 할 때도 물 쟁 골아수꽈?(기계방아, 기계방아 할 때도 물 담가서 갈았습니까?)
- 송좌길** 으?(으?)
- 김보향** 기겟방 헐 때도 물 쟁 골아수꽈?(기계방아 할 때도 물 담가서 갈았습니까?)
- 강희선** 으. 물 컷당 골았주.(으. 물 담갔다가 갈았지.)
- 송좌길** 그때 당시 기겟방 이신디는 아는디 어떻게 운영을 허 건 모르겠어.(그때 당시 기계방아 있었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 건 모르겠어.)
- 강희선** 아이구, 컷당 헷어. 커사 컵데기 벗기주.(아이구, 담갔다가 했어. 담가야 컵데기 벗기지.)
- 송좌길** 건 나중에. 보리 허는 건 물에 커근엥 허는 거고.(그건 나중에. 보리 하는 건 물에

담가서 하는 거고.)

강희선 응.(응.)

김보향 음.(음.)

송좌길 그 첫 번 내가 어릴 적에 본 거는 뭣사 어떻게 했는지 기계가 생겼는지 몰라.(그 첫 번 내가 어릴 적에 본 거는 뭐인지 어떻게 했는지 기계가 생겼는지 몰라.)

김보향 어, 물 컵 햇구나.(어, 물 담가서 했구나.)

송좌길 것도 물 컵 허는 거.(그것도 물 담가서 하는 거.)

강희선 물 컵 돌그레 그는 거는 한 가지로.(물 담가서 맷돌 가는 거는 한 가지로.)

송좌길 물 그치룩.(물 그처럼.)

강희선 물, 물 큰 통에 가근에 거민 보리에 흠치 아정 간 사름은 흠치 담양 놓곡. 저 요 통에
듬곡, 요 통에 드곡 허민 문저 드근 통으로 건지멍 기겟방데레 놓곡. 마끗데 드근
건 마끗데 드근 거대로 허주. 아이고, 경 쉽게 헨 살아시냐게.(물, 물 큰 통에 가서
그리면 보리에 한꺼번에 가지고 간 사람은 한꺼번에 담가 놓고. 저 요 통에 담그고,
요 통에 담그고 하면 먼저 담근 통으로 건지면서 기계방아에 놓고. 끝에 담근 건
끝에 담근 거대로 하지. 아이고, 그렇게 쉽게 해서 살았니.)

김보향 맞수다.(맞습니다.)

송좌길 거 나중에야, 나중에야 그 물 사용 안 해 가지고 직접 껌데기 벗기는 걸 나중에야
나왓주.(그거 나중에야, 나중에야 그 물 사용 안 해 가지고 직접 껌데기 벗기는 걸
나중에야 나왓지.)

김보향 나중에 나온 거라예?(나중에 나온 거지요?)

강희선 으. 거 매년 잊어사.(으. 그거 매년 있어야.)

김보향 어, 게민 그.(어, 그럼 그.)

강희선 건 무른 방에엔 햇주. 무른 방에.(그건 마른 방이라고 했지. 마른 방아.)

김보향 무른 방에엔 헨예.(마른 방이라고 했어요.)

강희선 무른 방에 허는 거.(마른 방아 하는 거.)

김보향 게민 그, 그 기겟방 나와도 물 담갔당 허는 거를 물그레엔 골아나수꽈?(그럼 그, 그
기계방아 나와도 물 담갔다가 하는 거를 '물그레'라고 말했었습니까?)

강희선 음, 음.(음, 음.)

김보향 물그레 말양 물그레?(‘물그레’ 말고 ‘물그레’?)

강희선 물 컷당 허는 건 물그레.(물 담갔다가 하는 건 ‘물그레’.)

- 김보향 아, 헤낫구나.(아, 했었구나.)
- 강희선 경핸디 저 무른 차, 무른 차 강 골아오주게. 영 헤난.(그런데 저 마른 채, 마른 채 가서 갈아오지. 이렇게 했었어.)
- 김보향 음, 맞수다. 손님 올 거지예?(음, 맞습니다. 손님 올 거지요?)
- 송좌길 어, 우리 무슨 물건 들어올 거.(어, 우리 무슨 물건 들어올 거.)
- 김보향 그레까지 다 골아수다예. 그민 농사에 관한 거는 뭐 헤신디 아까 밧 갈젠 하민?(맷돌까지 다 갈았습니다. 그럼 농사에 관한 거는 뭐 했는지 아까 밭 갈려고 하면?)
- 강희선 농사하는 거 다 헷어? 무물 가는 것도 안 혀고. 산디 가는 것도 안 혀곡.(농사하는 거 다 했어? 메밀 가는 것도 안 하고. 밭벼 가는 것도 안 하고.)
- 박진향 (웃음)
- 김보향 (웃음) 예, 예, 예.(예, 예, 예.)
- 강희선 보리 가는 거 베끼 안 헷어.(보리 가는 것밖에 안 했어.)
- 김보향 맞수다, 우리.(맞습니다, 우리.)
- 강희선 보리, 보리 갈아 넣.(보리, 보리 갈아 놓고.)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칠, 칠월 나민 무물을 갈아.(칠, 칠월 되면 메밀을 갈아.)
- 김보향 예, 예.(예, 예.)
- 강희선 무물 갈민 동지설덜 나민 무물은 비어.(메밀 갈면 동지설달 되면 메밀은 베어.)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그거 경허곡. 또 쟁월 나민, 쟁월 나민 산디 갈아.(그거 그렇고. 또 사월 되면, 사월 되면 밭벼 갈아.)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산디 갈아근에 저 조영, 조영 ㄱ치 비어.(밭벼 갈아서 저 조랑, 조랑 같이 베어.)
- 김보향 아, 산디영 조영 ㄱ치 비어?(아, 밭벼랑 조랑 같이 베어?)
- 강희선 먼저 갈아도.(먼저 갈아도.)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산디는 먼저 갈아도.(밭벼는 먼저 갈아도.)
- 김보향 예, 예.(예, 예.)
- 강희선 허끔 허 둘 차이 있게 갈아도.(조금 한 달 차이 있게 갈아도.)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저. 그거주. 어디 저 보리 가는 것만 헤는, 농사하는 거 다 해졌어?(저 그거지. 어디 저 보리 가는 것만 하는, 농사하는 거 다 했어?)
- 송좌길 보리 가는 것만 들었주, 뭐 딴 거 들었어?(보리 가는 것만 들었지, 뭐 딴 거 들었어?)
- 김보향 맞수다, 맞수다. 우리 급해 부난예.(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급해 버리니까요.)
- 강희선 또, 또 저 밀도 갈곡.(또, 또 저 밀도 같고.)
- 김보향 밀도 같고예.(밀도 같고요.)
- 박진향 밀도 헤낫구나예?(밀도 했었군요?)
- 송좌길 밀도 같안.(밀도 같았어.)
- 김보향 예, 예. 우리 그 농사지을 때.(예, 예. 우리 그 농사지을 때.)
- 강희선 밀은 어느 때 허느냐민.(밀을 어느 때 하느냐면.)
- 김보향 구덕 얘긴 안 들어수다예. 구덕예.(바구니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바구니요.)
- 송좌길 구덕?(바구니?)
- 김보향 구덕 종류들이 이실 거 아니? 아까도 골앗주만은 씨 뺄 때 아까 무신 구덕으로 헷어?(바구니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씨 뿌릴 때 아까 무슨 바구니로 했어?)
- 강희선 아이, 그건 씨 빼는 건. 출구덕.(아이, 그건 씨 뿌리는 건. ‘출구덕’.)
- 김보향 출구덕.(‘출구덕’.)
- 송좌길 출구덕도 허곡 뭐 그건 그때 당시에 그는, 나오는 대로 골아.(‘출구덕’도 하고 뭐 그건 그때 당시에 가는, 나오는 대로 말해.)
- 김보향 와 불어신게. 아니, 아니. 예.(와 벼렸네요. 아니, 아니. 예.)
- 강희선 빼어. 경행 허는 거난.(뿌려. 그래서 하는 거니까.)
- 김보향 게민 구덕 종류가 보게. 출구덕 잇고?(그럼 바구니 종류가 보자. ‘출구덕’ 있고?)
- 송좌길 출구덕 잇고. (‘출구덕’ 있고.)
- 김보향 우리 밧디 점심 정 가젠 허민 뭐에 정 갑니까?(우리 밧에 점심 지고 가려고 하면 뭐에 지고 갑니까?)
- 강희선 저, 거시기 물구덕에.(저, 거시기 ‘물구덕’에.)
- 송좌길 물구덕.(‘물구덕’.)
- 김보향 물구덕이렌 협니까? 질구덕은?(‘물구덕’이라고 합니까? ‘질구덕’은?)
- 송좌길 질구덕은.(‘질구덕’은.)

- 강희선 질구덕은 큰 거.(‘질구덕’은 큰 거.)
- 김보향 봄서예.(보세요.)
- 송좌길 물구덕은 이렇게 사랑한 거.(‘물구덕’은 이렇게 가름한 거.)
- 강희선 사랑한 거고.(가름한 거고.)
- 김보향 지게 뛰어 있는 거?(지게 되어 있는 거?)
- 강희선 으.(으.)
- 김보향 우리, 우리 허벅 낭 물 질을 때 쓰는 것만 물구덕이렌 안 햇구나?(우리, 우리 ‘허벅’ 놓고 물 길을 때 쓰는 것만 ‘물구덕’이라고 안 했구나?)
- 강희선 으, 으, 으. 경해도 그것이 사랑하민 지민 이 등어리 부트니까.(으, 으, 으. 그래도 그것이 가름하면 지면 이 등에 붙으니까.)
- 김보향 맞아.(맞아.)
- 강희선 정 가기 멘들락멘들락 벗어지지 안혀난.(지고 가기 매끌매끌 벗어지지 않으니까.)
- 김보향 맞아.(맞아.)
- 강희선 저 물구덕에 정 가곡.(저 ‘물구덕’에 지고 가고.)
- 김보향 으.(으.)
- 강희선 하영 줄어낭 허伧 허민 무시거엔 고사 곳는 거. 큰 구덕.(많이 좁고 나서 하려고 하면 뭐라고 아까 말하는 거. 큰 바구니.)
- 김보향 으.(으.)
- 송좌길 질, 질구덕.(질, ‘질구덕’.)
- 김보향 질구덕.(‘질구덕’.)
- 강희선 질구덕에 정 가곡. 거 경 가는 건 흔엇어.(‘질구덕’에 지고 가고. 그거 지고 가는 건 한없어.)
- 김보향 아.(아.)
- 송좌길 출구덕에도 정 가는 거고.(‘출구덕’에도 지고 가는 거고.)
- 김보향 으.(으.)
- 강희선 경 가는 거는 사름 숫자에, 그날 일하는 사름 숫자에.(지고 가는 거는 사람 숫자에, 그날 일하는 사람 숫자에.)
- 김보향 출구덕, 출구덕은 旱 끔 죽을 거 아니? 질구덕은 旱 끔 쿨 거고?(‘출구덕’, ‘출구덕’은 조금 작을 거 아니? ‘질구덕’은 조금 쿨 거고?)
- 송좌길 크고.(크고.)

- 김보향 물구덕은 약간 사랑하게 생겼?(‘물구덕’은 약간 가름하게 생겼어?)
- 강희선 물구덕은 영 사랑해주.(‘물구덕’은 이렇게 가름하지.)
- 김보향 예. 삼촌, 우리 옛날에는 서답히젠 허민 서답 놔난 구덕도 잊어예?(예. 삼촌, 우리 옛날에는 세답하려고 하면 세답 놔뒀던 바구니도 있지요?)
- 강희선 그건.(그건.)
- 송좌길 세답구덕, 세답구덕.(‘세답구덕’, ‘세답구덕’)
- 강희선 그건 저 거시기. 무시거니. 확 골젠 허난 골아지크라?(그건 저 거시기. 뭐니. 확 말하려고 하니까 말할 수 있겠어?)
- 김보향 빨래허젠?(빨래하려고?)
- 송좌길 세답구덕, 세답구덕 벨, 벨도로 무신 뭐.(‘세답구덕’, ‘세답구덕’ 벨, 벨도로 무슨 뭐.)
- 강희선 벨도로 허지 안행 아무 구덕에나 허주만은.(별도로 하지 않고 아무 바구니에나 하지만.)
- 김보향 아.(아.)
- 강희선 저, 아무 구덕에나 허영 허는 거주만은 무시거 ㅋ는대구덕.(저, 아무 바구니에나 해서 하는 거지만 무엇 ‘ㅋ는대바구니’.)
- 김보향 ㅋ는대구덕은 잔치 먹으려 갈 때 식게 먹으러 갈 때?(‘ㅋ는대구덕’은 잔치 먹으려 갈 때 제사 먹으러 갈 때?)
- 송좌길 부주 아경 뎅기는 구덕.(부조 가지고 다니는 바구니.)
- 강희선 부주 아경 뎅기곡.(부조 가지고 다니고.)
- 김보향 예.(예.)
- 강희선 집이서 고양해근에 그레 행 세답 빨앙.(집에서 조심해서 그리 해서 세답 빨아서.)
- 송좌길 제사, 제사, 제사 쓸 때만 ㅋ는대구덕 쓰는 거.(제사, 제사, 제사 쓸 때만 ‘ㅋ는대구덕’ 쓰는 거.)
- 김보향 음, 예, 예, 예.(음, 예, 예, 예.)
- 송좌길 제물 담는 거.(제물 담는 거.)
- 송좌길 거시기, 무시거니. 또.(거시기, 무엇이지. 또.)
- 김보향 골체는 뭐 헐 때 써수꽈?(삼태기는 뭐 할 때 썼습니까?)
- 송좌길 골체게, 아까 말했주만은.(삼태기, 아까 말했지만.)
- 김보향 거름.(거름.)

- 송좌길** 거름, 거름 나를 때.(거름, 거름 나를 때.)
- 강희선** 걸름 날르는 거.(거름 날르는 거.)
- 박진향** 밧디 돌 치울 때.(밭에 돌 치울 때.)
- 강희선** 돌 치울 때 허곡.(돌 치울 때 하고.)
- 이 웃** 게민 골체는 뭐로 만든 거, 만들언?(그럼 삼태기는 뭐로 만든 거, 만들었어?)
- 송좌길** 대.(대.)
- 강희선** 대.(대.)
- 김보향** 여기 정동으로는 골체 잘 안 써수꽈?(여기 정동으로는 삼태기 잘 안 썼습니까?)
- 강희선** 아, 그다음, 대로 써난 다음에 나왔주.(아, 그다음, 대로 쓰고 난 다음에 나왔지.)
- 송좌길** 그거 아니, 정동, 정동으로 만든 거 있으믄 거 정동으로 만든 거 아무나 못해여 것도.(그거 아니, 정동, 정동으로 만든 거 있으면 그거 정동으로 만든 거 아무나 못해. 그것도.)
- 김보향** 아무나 못 해여. 못 해.(아무나 못 해, 못 해.)
- 송좌길** 정동으로 만든 거 거 참 질기주게.(정동으로 만든 거 그거 참 질기지.)
- 김보향** 질겨.(질겨.)
- 송좌길** 그거 돌멩이 가져 왕 뿐서지지 안허곡. 대는 부서지는데 건 부서지지도 아녀고 그거 경 시와나질 안햇어.(그거 돌멩이 가지고 와서 부서지지 않고. 대는 부서지는데 그건 부서지지도 않고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았어.)
- 김보향** 여긴 보통 대로 만들엉 썻구나예?(여긴 보통 대로 만들어서 썼군요?)
- 송좌길** 대로 만들었주.(대로 만들었지.)
- 김보향** 헹 썻구나예.(해서 썼군요.)
- 강희선** 그 대로 만들언 저 골체 나오란 썬에 막 널어진 다음에 그 정덕(정동)으로 만든 거 나오난 우리도 정덕으로 나온 골체에 맷 번 산 썻주, 무신 어려운 게 아니랐주.(그 대로 만들었어. 저 삼태기 나와서 쓰고 마구 흔해진 다음에 그 댕댕이덩굴로 만든 거 나오니까 우리도 댕댕이 덩굴로 나온 삼태기 몇 번 사서 썼지, 무슨 어려운 게 아니였지.)
- 김보향** 예, 예. 지금 여기 구덕이나 그런 골체 만드는 사람은 있어수꽈?(예, 예. 지금 여기 바구니나 그런 삼태기 만드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 송좌길** 구덕은 이 그때 당시에는 구덕 만드는 사람.(바구니는 이 그때 당시에는 바구니 만드는 사람.)

- 강희선 이 동넨 엇엇어.(이 동네는 없었어.)
- 송좌길 손이 핫어.(손이 많았어.)
- 김보향 핫어?(많았어?)
- 송좌길 대구덕, 대구덕을 만드는 대로 만드는 사름은 핫어.(‘대구덕’, ‘대구덕’을 만드는 대로 만드는 사람은 많았어.)
- 송좌길 우리만 못 만들었지, 우리 웃댓어른들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우리만 못 만들었지, 우리 윗대 어른들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도 돼.)
- 김보향 예, 예. 골체는 거의 대구, 대로 만들고. 구덕들도 마찬가지. 명석도 보면 이렇게.(예, 예. 삼태기는 거의 대고, 대로 만들고. 바구니들도 마찬가지. 명석도 보면 이렇게.)
- 송좌길 예.(예.)
- 김보향 날레 너는 명석도 잇주만은.(‘날레’ 너는 명석도 있지만.)
- 송좌길 예.(예.)
- 김보향 날레 너는 명석은 영 길찮아예? 그거 말고.(‘날레’ 너는 명석을 이렇게 길찮아요? 그거 말고.)
- 송좌길 그레착.(‘그레착’.)
- 이 웃 맨 처음에 만든 거 그렛방석. 그레착.(맨 처음에 만든 거 ‘그렛방석’, ‘그레착’.)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그레착, 그레착.(‘그레착’, ‘그레착’.)
- 김보향 그레착이렌 불러?(‘그레착’이라고 불러?)
- 송좌길 그레착.(‘그레착’.)
- 김보향 그렛방석이렌 불러?(‘그렛방석’이라고 불러?)
- 송좌길 그렛방석.(‘그렛방석’.)
- 강희선 그레착 아져오라. 그렛방석 아져오라.(‘그레착’ 가져와라. ‘그렛방석’ 가져와라.)
- 김보향 예, 예.(예, 예.)
- 송좌길 그렛방석, 그렛착.(‘그렛방석’, ‘그렛착’.)
- 강희선 첫차 그렛방석 가져오라.(첫차 ‘그렛방석’ 가져와라.)
- 김보향 예, 예. 좋수다. 그렛방석 가져오라.(예, 예. 좋습니다. ‘그렛방석’ 가져와라.)
- 강희선 으, 으.(으, 으.)
- 김보향 게메. 하나만 더 갈게예. 아까 우리 밧 갈젠 허면 쉐를 질들여살 건데. 으, 아무나

밧 못 갈잖아예?(글쎄. 하나만 더 갈게요. 아까 우리 밭 갈려고 하면 소를 길들여야 할 건데. 으, 아무나 밭 못 갈잖아요?)

강희선 으.(으.)

김보향 예, 물 그레 하는 것도 아무나 못 허잖아예? 쉐 질들이젠 허민 멧 살 난 쉐를 질들여나수꽈?(예, 연자매 하는 것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소 길들이려고 하면 몇 살 난 소를 길들였습니까?)

강희선 세 설 나민. 세 설.(세 살 되면. 세 살.)

송좌길 세 설.(세 살.)

김보향 혼 설 난 아이를 뭐렌 불러난?(한 살 난 아이를 뭐라고 불렀었어?)

송좌길 금승.(하릅.)

김보향 금승.(하릅.)

송좌길 다간.(다간.)

김보향 다간.(다간.)

송좌길 사름 송아지.(사름 송아지.)

김보향 사름 송아지예. 게믄 사름, 나름 혈 건디 야이를 저기 질들일 거라예. 질들이젠 허민 어떻 헤나수꽈? 밧 갈젠?(사름 송아지요. 그럼 사름, 나름 할 건데 얘를 저기 길들일 거예요. 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밧 갈려고?)

송좌길 쉐 질들이젠 허민.(소 길들이려고 하면.)

강희선 아이고, 쉐 그르칠 때, 경 혜 부난 시못 궂엄신가? 요만이허영 난 때 난 때.(아이고, 소 가르칠 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사뭇 궂은가? 요만해서 났을 때 났을 때.)

송좌길 쉐 그 질들이젠 허민 소의 암놈은, 암소는 이 콧줄을 안 꿰도 웨는데.(소 그 길들이려고 하면 소의 암놈은, 암소는 이 코를 안 꿰도 되는데.)

김보향 예.(예.)

송좌길 쟁 쉐 그게 소위 그르치젠 ھ는디. 쉐 그리치레 가자. 쉐 그르치레 가자.(그래서 소 그게 소위 가르치려고 하는데. 소 가르치러 가자. 소 가르치러 가자.)

김보향 그 쉐 그르칠 때 바로 장, 쟁기 메우는 게 아니잖아?(그 소 가르칠 때 바로 쟁기 메우는 게 아니잖아?)

송좌길 아니, 아니. 바로 쟁기 메는 게 아니고.(아니, 아니. 바로 쟁기 메는 게 아니고.)

김보향 뭐 혈 거라?(뭐 할 거야?)

송좌길 소위 돌멩이, 돌멩이착이나 그레착. 소위 그레착 잇어. 그레착.(소위 돌멩이,

돌멩이나 맷돌짝. 소위 맷돌짝 있어. 맷돌짝.)

김보향 음 음.(음 음.)

송좌길 끄는 거. 그거 우엣 거 혜당 가운데 구녕 나니까.(가는 거. 그거 우의 거 해다가 가운데 구멍 나니까.)

김보향 맞아. 거기에 줄 끼웠.(맞아. 거기에 줄 끼워야.)

송좌길 그것에 줄 메 가지고 명에에 멍 그것에 허곡 줄 메와근에 흔히 돌, 돌 많이 썻주. 그것이.(그것에 줄 매 가 가지고 명에에 매서 그것에 하고 줄 메워서 흔히 돌, 돌 많이 썼지. 그것이.)

김보향 그 돌을 불르는 이름이 엊어나수꽈?(그 돌을 부르는 이름이 없었습니까?)

송좌길 돌멩이 불르는 일름이 뭐 엊어.(돌멩이 부르는 이름이 뭐 없어.)

김보향 코돌? 코돌이렌 안 불러난?(‘코돌’? ‘코돌’이라고 안 불렀어?)

송좌길 아니.(아니.)

김보향 아니, 그런 거 엊어난예.(아니, 그런 거 없으니까요.)

김보향 어쨌든 구멍 난 돌멩이에 끼워 놓 여기, 여기.(어쨌든 구멍 난 돌멩이에 끼워 놓고 여기, 여기.)

송좌길 끄는 거.(끄는 거.)

김보향 그 뒤에 행 끌게예. 아, 아. 알아수다.(그 뒤에 해서 끌게요. 아, 아. 알겠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Ⅸ 표선면 편

발행인 노정래(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발행일 2021. 12. 24.

총괄 박용범

담당 황이새

외부조사원 김보향, 권미소, 박진향

학예지원 김완병, 백지현, 김범수, 부슬기든

학예인턴 김태화, 이기운

디자인인쇄 라임디자인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69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ju.go.kr>

ISBN 979-11-87075-13-4 [비매품]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IX

표선면 편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